2023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5

일러두기

이 책은 '2023 충청남도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만난 138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각 시군에서 고연령층 8인 이상의 구술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대화를 채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구성하였다.

구술자는 모두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 속의 국가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삶을 일구어 온 토박이들이다. 평생 고향을 지킨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어려운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살려 삶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왔지만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증언한다.

※ 책의 수록 순서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6개 시군별로 나누고, 구술자는 채록 순임

※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기획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모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역사, 민속, 향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구술자 면담 후 본 책자의 원고를 작성함

※ 본 책자의 내용은 구술자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발행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둠

2023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5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발간사

충남의 근·현대 이야기를 구술로 만납니다



이 종 석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내 15개 문화원과 협업 체제를 구축,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헌자료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고, 현대사 연구와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아카이브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충남에서 살아 온 어르신들, 특히 전통문화 전승자들의 생생한 삶의 기억을 채록해 후대에 전하고자 충청남도의 지원 속에서 금년, 5회째 기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주는 잊혀지고 사라지는 근현대 과정의 숨은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충남 각 지역의 민속과 풍습, 오랜 세월을 다져온 도민들의 남다른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풍속과 종교, 문화예술 등 우리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통문화 계승 노력,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음성과 영상 파일에 담고, 글로 정리하는 아카이빙입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입니다. 시·군 문화원이 조사하고 추진한 구술채록 내용을 목록화한 향토문화 원형자료이며 귀중한 향토사 자료입니다. 이 일을

오랜 세월 향토를 지키고 가꿔온 기성세대들이 겪은
시대적 삶을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의 폭을 완화하는 계기로

위해 진력해 준 충남 각 지역 문화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박수를 보내고, 본 사업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충청남도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충남인의 생애 사를 기반으로 한 근현대사 발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오랜 세월 향토를 지키고 가꿔온 기성세대들이 겪은 시대적 삶을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의 폭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본 연합회는 앞으로도 충남의 근·현대적 지역문화사를 조사·수집·정리·기록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향토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도민들의 기억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일러두기 • 2
발 간 사 • 4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 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원로 교육자 이규필·12 원로 교육자 이성구·16 원로 교육자 신문호·20 원로 교육자 김남응·24 원로 교육자 유헌종·29 원로 교육자 양재필·33 원로 교육자 김태현·38 원로 교육자 류승호·43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역경을 딛고 한국 화단에 우뚝 선 문인화 대가 김무호·48 향토 연극의 산증인 연극배우 남태희·56 은은한 삶의 향기를 문학으로 수필가 백남일·62 창의와 열정으로 한평생 문화활동가 안창옥·68 시인으로 서예가로 시 낭송가로 만능예술인 이명환·74 현대 조각을 말하는 한국 조각계 거장 이종각·80 인문학 연구에 매진하는 향토연구가 임무정·88 「꽃피는 팔도강산」 집필자 드라마작가 윤혁민·94 신앙에서 긷는 깊은 깨달음의 시적 개성화 조유정·102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시아주버니의 시집살이·112 무당 시어머니의 효심 깊은 며느리·117 여인 담배 농사꾼·121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시아버지의 사랑 ·126 홀로 걸어온 어머니의 길·132 아들을 가슴에 품고·137 6.25가 바꾼 인생·141 친정아버지의 사랑·146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의 농업과 김양식·152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의 어업·165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의 어업·184 소도와 학성리마을의 생활모습 변화·198 보령시 오천면 소도·추도, 천북면 학성리의 주민생활·220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의 어업·234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의 주민생활·258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고래 마을의 김양식·276 보령 웅천장 새우젓 상인의 생활·294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의 어업·307 오천면 원산도리 구찌마을 주민들의 생활·324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도고면 화천국민학교 이야기·338 선장면 삼선국민학교 이야기·344 선장면 신정국민학교 이야기·349 선장면 학선국민학교 이야기·354 송악면 동화국민학교 이야기·359 염치면 삼서국민학교 이야기·364 영인면 백석포국민학교 이야기·368 음봉면 대동국민학교 이야기·372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다시 찾은 아버님의 명예·378 애국지사 유동렬 선생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384 노인봉사와 독립운동사 강의를 통한 독립정신의 전파·391 콘크리트 비석에 담긴 조부님의 독립운동사·400 조부님의 유훈 1일 1선을 실천하며·407 혈서 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한 조부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리·412 부친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에 봉사하다·416 뒤늦게 발굴된 아버지의 독립운동사·421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추억 속에 자리한 마산장·428 지금은 사라진 벌곡면 도산장·433 신기한 놀이터 같던 강경장·437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양촌장·443 세상을 만나 성장한 곳·448 여전히 사람들 곁을 지키는 연무읍 삼거리장·453 비상을 꿈꾸는 논산시장·458 연산장의 풍경·463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계룡시 탄생의 일등공신·470 한마음 한뜻으로 가꿔온 소라실 마을·476 지역 정체성을 살린 미래도시 설계·481 면장님, 면장님, 우리 면장님!·486 백지계획(白紙計劃)과 신도백반(新都白盤)·491 특이한 학교, 특별한 학생들·496 선로 마디마디에 새긴 형제애·502 철도는 나의 인생, 두계역은 나의 고향·507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II

삶의 향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화포도·514 왕매실로 주민들의 꿈을 키우다·519 소득증대와 건강을 다잡은 '둥근마'·523 백련 막걸리로 지역 특산품이 되다·529 쌀 영농법인에서 찾은 당진 농업인의 미래·533 당진포리 지킴이, 감자 농사는 숙명·540 한진포구 특산물의 변화와 나아갈 길·546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한동네 만들기·551

금산군 금산인의 삶

용화리에 대한 단상·558 희곡인 임희재·565 노하우로 산 세월·570 도전의 나날들·576 초현리의 명현·582 금산 향교에 대한 단상·587 고단했던 과거·593 90년을 살다보니·598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대를 이어 유림문화를 지켜가는 선생님·606 인생2막을 유림에서 펼치다·613 마을 이장님이 걷는 유림의 길 ·618 정성과 봉사하는 마음이 유림에 닿다·624 지토리 토박이 풍양조씨 조남민어르신의 유림문화 지켜가기·630 양송이 농부, 향교 전교로 유림의 길을 가다·637 고향으로 돌아와 유림에 들다·644 서원에 소풍을 왔던 소년, 서원의 유림문화를 지키다·650 조상 봉사로 이르게 된 유림의 길·656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한산장날 돈주머니를 세 번 끌렀다·666 사람으로 미어 터지던 판교장·671 서천장의 변화를 이끈 사람 구재강·676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 못살던 길산장·681 삼일운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신장·686 가격은 싸지 않은데 물건이 좋은 장항장!·691 장항 중앙시장에서 신시장까지의 산증인 주진옥·696 서천의 시장 역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역 임성순·701 자연을 심고 거두어 함께 판매하는 서천시장 김자희, 조관연 부부·706 인산인해 어게인 비인장을 꿈꾸는 조영운·711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정산면 송학리 장승제:땅에는 장승 하늘에는 솟대·718 목면 본의리 노신제:주먹주먹 복덩이'재수떡'·722 남양면 봉암리 행단제:은행나무, 마을의 수호신이 되다·728 화성면 광평리 산신제:긴골 팔십리의 기도·732 운곡면 모곡리 산신제:옛날 형태로 부각시켜라·737 대치면 대치리 장승제:칠갑산을 닮은 마을의 일꾼·742 청남면 왕진리 용왕제:우물물아, 펑펑 솟아라!·746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하늘에는 달, 땅에는 불, 정월 대보름 밤·751 청양읍 정좌리 성황제:마을의 살림꾼·755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하산마을 용봉산 산신제·760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미륵제·768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가야마을 사천나무 마을제·774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오방제·781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 선돌·들돌제·790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 느티나무 서낭제·796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상하국마을 저울산 산신제·802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 산신제·809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예산시장이야기-풍농비료·816 예산시장이야기-개성쌀가게·822 예산시장이야기-우시장어성·828 예산시장이야기-신발가게·836 예산시장이야기-이불가게·843 예산시장이야기-옷가게·851 예산시장이야기-시장관리인(1)·857 예산시장이야기-시장관리인(2)·866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태안의 6·25 전쟁-이원면·874 태안의 6·25 전쟁-이원면·879 태안의 6·25 전쟁-소원면·884 태안의 6·25 전쟁-근흥면·889 태안의 6·25 전쟁-태안읍·895 태안의 6·25 전쟁-태안읍·900 태안의 6·25 전쟁-남면·905 태안의 6·25 전쟁-남면·911 태안의 6·25 전쟁-안면읍·917 태안의 6·25 전쟁-원북면·922

천안시 동남구

천안지역 원로 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원로 교육자 · 이규필 12
원로 교육자 · 이성구 16
원로 교육자 · 신문호 20
원로 교육자 · 김남응 24
원로 교육자 · 유헌종 29
원로 교육자 · 양재필 33
원로 교육자 · 김태현 38
원로 교육자 · 류승호 43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규 필 (1954년생)
천안시 동남구 신부8길

원로 교육자



16km와 영어단어

1953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목요일로 시작되었다.

이규필 선생이 태어난 10월 1일 그날도 목요일이었다. 한 번 더, 요일과의 인연을 엮어 가본다면, 그와의 첫 만남, 사전 대화(면담)의 시작도 목요일에 이루어졌다. (참고로, 인터뷰 촬영은 금요일에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그의 70년 인생 중 무수히도 많은 목요일들이 지나 갔을 텐데, 그는 그 날들에 대한 기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평범한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는 병천면 관성3리(현재는 4리) 사작골이라는 동네에서 9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농부, 어머니는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9남매를 건사하며, 농사일까지 도맡아 무던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긴 그 시절 시골마을에서 고된 생활을 하지 않은 부모세대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폐교된 봉성초등학교(매성리)를 17회로 졸업 했고, 인근 병천중학교로 진학했다. 중학교를 진학하니 공부가 좋아졌다. 재밌었고 흥미가 생겼다. 그렇지만, 선생의 집안 형편은 가난했다. 그래서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통학길에 버스 한번 타보지 못하였다. 하는 수없이 집에서 왕복 16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하릴없이 걷기보다는 재미삼아 영어공부를 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영어단어장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다. 영어단어를 외우면서 걷다보면, 등굣길에는 벌써 학교에, 하굣길에는 이내 집에 도착해 있었다.

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 이었던, 그 16킬로미터의 등·하교 길에서의 공부가, 그 시간이, '교육자 이규필'이라는 사람을 완성하는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엄격한 아버지, 착한 아들

이규필 선생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였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7년에 태어나신 아버지는 일본 홋카이도로 징용을 다녀오셨을 정도로 신체와 정신력이 강하였고, 성격은 엄격한 성향을 지니고 계셨다. 자식들은 그런 엄격한 아버지에게 말대답이라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다섯째 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대충 넘기시는 분은 아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아버지는 선생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꽃가지 꺾듯이 쉽사리 꺾지는 않으셨다.

당시 대학등록금이 논으로 환산하면 3마지기 정도였다는데,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전부를 합쳐보니 논이 4마지기였다고 한다..

형들과 동생들은 농사일을 돕는데, 다섯째만 공부 욕심을 부리는 거 같아 보였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착하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는 그를 믿어주었고, 당시 국가적으로 경공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절이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천안의 명문고인 천안공고를 진학하게 되었다. 매우 기뻤으나 한편으로 아버지와 어머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형제들에게는 죄송스런 감정이 교차했다. 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전기과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전기-기계-건축-토목-화공 순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규필 선생이 사는 동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던 그였기에, 전기분야 공부가 전혀 흥미롭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고3이 되기 직전에 또 다시 근엄하신 아버지 앞에 앉았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중3시절 공업고등학교를 제의해 주신거와 같이, 이번에는 교육대 진학을 권유하셨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비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없는 살림에 교육대학을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권유는 이규필선생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그는 공주교대를 진학하였고, 자연스레 교육자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

교육인생 40년 6개월

이규필 선생의 올해 나이 70세.

그의 평생 중 절반이상을 교단에 섰고, 분필을 잡았다. 가르친 학생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1976년 9월, 20대 초반의 나이로 당진지역 유곡초등학교 발령을 시작으로 당진 북창초, 천안 목천의 덕전초, 풍세의 용정초, 성환초, 직산의 양당초, 아산지역의 백석포초등학교, 음봉초등학교까지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의 교사로 재직·교육을 하다가, 2005년 교감으로 승진하여 천안 부성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던 중 2011년 교장승진으로

신계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고, 2013년부터 2017년 퇴직할 때 까지 마지막 교직무대였던 서당초등학교에서 교직(교장)생활을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40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동안 교육계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퇴임쯤에 교육계에 부는 변화에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선생의 마음은 마냥 불편해 보였다. 깊은 한숨과 함께 요즈음 교육계를 걱정하는 조금은 자조 섞인 이야기도 어렵사리 꺼내보는 선생이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다르고, 30년 전이 다르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또는 교사와 교사간의 관계 등 이렇듯 학교 내외의 분위기는 40년 동안 꾸준히 변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학교의 시설, 교사의 처우, 학생들의 교육환경(제도, 정책 등) 등은 매우 발달하였다. 그렇지만, 선생의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옛날에 비해 매우 냉정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혹은 사건으로까지 야기 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선생은 젊은 교사시절 배움에 고팠던 제자들과의 추억을 되살려보면서 입가에 웃음을 살짝 띄어본다. 그때는 정말 학생들과 지내는 생활의 모든 것 자체가 추억이었으니까 말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교사의 자질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거 같아 후배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내 깊은 한숨만을 내뱉을 뿐이다. 무조건 요즘 학생들을 지적하면서 교권이 추락된 것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꼬집기도 한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줄 안다는 것은 선생을 보면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인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

선생은 강한 어조로 다시 말한다. 학업적인 교육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그 소중한 마음 말이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성 구 (1943년생)
천안시 동남구 동면

원로 교육자



역사와 교육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교육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적혀져 있다. 현재는 의무교육의 개념을 중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의미가 주는 결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천안시 동남구 동면지역은 충북지역과 맞닿아 있는 천안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31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다.

동면은 이성구선생의 고향이다. 그는 1943년에 절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해방을 맞이하였고.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었으며, 4.19혁명, 5.19군사정변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와 함께 하였다.

이성구 선생, 그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한권의 역사서를 보는 기분이었다. 요즈음,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사회, 생활 모습을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그와 그의 주변 옛 어르신 세대는 오늘날의 급변한 사회 풍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한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가 더욱 더 기대되고 흥미로웠다.

공학도가 되고 싶었던 아들

대한민국은 최근 70년 동안 급격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을 연속으로 겪은 후 세계 최빈국이라는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국가였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자식들의 교육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더 사회적 문제였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구선생은 건축분야에 관심이 많아 건축공학도가 되어 빈곤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집안의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우 가난하지도 않았기에, 공학도의 꿈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인 공주사범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학비는 고등학교 학비의 2-3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공학도의 꿈을 찾아 사립대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다고 한다.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을 짓는 또 하나의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계기는

집안의 작은아버지 때문이었다. 그의 작은아버지는 이미 대구사범을 졸업하시고 교육현장에 계셨다. 학업에 충실했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이성구선생에게 작은아버지는 여러모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남이 아닌 집안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신 권유와 조언이라 많은 믿음과 신뢰로 다가왔다. 공학도의 꿈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범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준비된 장학생

인구가 적은 동면에서 태어난 그였지만, 공부에 대한 재능은 천안시 지역 전체를 따져봐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우수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마치 이성구선생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 같아 보인다.

그는 천안보다 더 시골지역인 공주에서 사범대 1학년을 다니면서도 장래희망인 공학도와 교육자의 길에서 갈팡질팡하였다. 그러던 중 마음을 다시 고쳐 잡고 2학년부터 학업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4학년까지 모든 과목 성적이 'ALL A'를 받을 만큼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 성과는 장학금과 수석졸업이라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준비된 장학생 이성구 선생. 역시 그는 개천(동면)에서의 '용'이 확실해 보인다. 교육자의 길을 가기로 단단히 마음을 굳힌 2학년 시기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잡아가면서 교육자의 길을 잘 수련한 그는 4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 그에게 펼쳐진 의롭고 험난한 교육의 길이 이제 제대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교육인생 43년

81 − 43 = 38.

2023년 올해, 81세 이성구선생의 전체의 삶 속에서 그의 교육인생 43년을 제외해 보았다. 그렇게 전체인생의 반 이상을 교육이라는 길에 헌신하였다. 선생의 교육행로를 살펴보자. 처음 발령 받았었던 광풍중학교, 안면중학교, 해미중학교, 병천고등학교, 천안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입장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청양교육청에서 근무 후, 천안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하였다. 이후, 둔포고 교감, 안면고 교장, 충남교육연구원 연구관, 천안여중에서 교장을 역임하고, 천안시교육지원청 20대 교육장을 역

임 하였다. 정년퇴임 후, 이듬해 교육위원(2006년~2010년)으로 선출되어 지역 교육계에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교육경력과 다양한 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그의 교육철학은 간단하면서 명료하다. 단순하게, 학업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그 시절, 모든 학생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사람간의 정을 주는 것. 이렇듯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닌, 작고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1960년대 교육계의 발을 들여놓고, 시간이 흘러 반세기가 지나 노인이 된 오늘날의 이성구 선생은 가장 후회 되는 일을 회상해본다.

노년의 눈시울이 불거질 정도로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이 깊어지고 후회가 남는다. 가정형편이 유독 어려워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한 몇몇의 학생들.. 80세가 넘은 그의 오래된 기억 안에 아직도 각인 되어있다. 그는 그때의 소회를 이렇게 꺼내어본다. '당시 매우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 내가 몇 끼니 굶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학비를 조금이나마 보태주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고, 여전히 잊혀 지지가 않는다. 그랬다면 그 학생들이 더 나은 사회구성원이 되었을 텐데.'라고.

인터뷰 내내 선생의 시선은 과거로, 눈빛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기억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노년이 된 원로교육자의 그 눈동자에서 말이다. 요즘과는 판이한 교육계의 옛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육자가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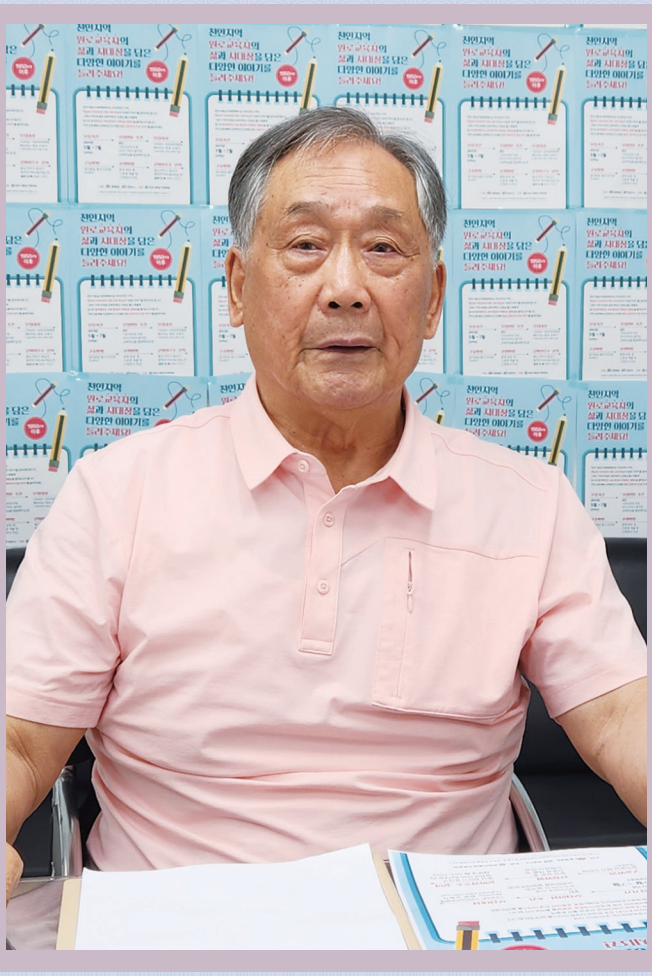
원로교육자 이성구 선생의 교육철학이 현재의 우리세대에게 작은 의미를 부여하길 소망해 보자.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 문 호 (1943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원로 교육자



강한 어머니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보낸 어머니께서는 홀로 1남 3녀를 키워냈다. 그 중에 아들은 신문호 선생 하나였다.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은 1943년 6월 일제강점기 시대에 병천면 송정리 12길 74번지에서 태어났다.

홀로 되신 어머니는 굳건하고, 말수가 적으시고, 생활력이 강한 분이였다.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봄에는 요즘 말하는 계피 떡, 바람 떡 등을 만들어 팔러 다니시고, 겨울에는 팥이 주로 들어가는 시루떡, 켜떡 등을 청주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팔러 다니셨다.

선생이 초등학교1학년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야만 했었다. 당시 시대에는 여성들의 학력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현대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장만은 정말 험난하였다. 그러므로 누나들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면서 어머니의 생계를 도왔고, 신문호 선생은 유일한 외동아들에,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그 길이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숙명이라 받아들였다.

6학년 담임선생님

신문호 선생이 현재의 송정리라는 지역의 송정초등학교를 6학년으로 다니고 있던 때였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특히나 그를 예뻐하고 아껴했다. 가끔 심부름이라도 시키기라도 하면 뭔가 인정을 받는 듯 한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요즘 학생들은 심부름을 시키면 대부분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에 빠져보니 바로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담임선생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이 스스로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라는 말은 요즘 학생들이 들어는 봤을까. 점점 잊혀가는 말인 거 같아 그는 씁쓸하게 혀를 몇 번이고 찼다.

담임선생님은 청주사람이었다. 청주사범학교 출신이었는지라 자신의 모교인 청주사범병설중학교로의 진학을 권유했다. 학년 내에서 공부를 잘했고, 체격도 좋고, 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승을 잘 따랐기에 신문호 선생을 무척이나 예뻐했을 것이다.

사범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고, 신체도 건강해야 했다. 80세가 넘은 선생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시험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끼를 꼬는 시험이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새끼를 꼬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지만, 선생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짐작해 보면, 신체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과목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손 글씨를 많이 쓸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 하고 다시 짐작을 해보았다.

당당히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자연스레 지금의 고등학교 급의 청주사범학교에도 입학하였다. 학업에 충실했던 그는 정부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범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교직 그리고 아픔

1962년 그의 나이 스물에 첫 발령을 받았다.

충북 영동군의 자개초등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마치니 3년이 지났다. 다시 영동군의 용산초등학교로 두 번째 발령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선생님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발령지에서 여자선생님과 같이 근무한 것이 아직도 깊은 인상에 남아 있다고 한다. 첫 발령지에서는 남자선생들 뿐이었고, 대개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당시에 거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충북지역에서 지내다가, 모교인 송정초등학교 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고향에 와서 교직생활 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라고 하셨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교로 향했고, 그곳에서 후배들을 교육으로써 길러내었다. 그 옆 학교에는 병천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모교인 송정초와 병천초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서 애향심 깊은 교육자로서 자리를 잡는 듯하였다.

1979년 8월 한 여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타박상인 줄 알았고, 치료는 그냥 소위 빨간약이라 불리 우는 약을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지내다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증세가 다양하게 선생의 몸에 반응하고 있었다. 소변과 대변의 색상이 이상해지고, 침을 맞

았는데도 감각이 무디었다. 천안 소재 병원을 가도 병명을 알 수 없다 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가 그에게 전해졌다.

'하반신 다발성 경화증' 38세의 젊은 나이, 그리고 결혼을 한지 10년, 슬하에 자식은 딸 5명….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래서 신문호 선생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조심스레 그때의 기억을 털어놓는다.

그렇게, 2-3년 동안 치료에 매진해 왔지만, 크게 호전은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1983년도에 교직을 은퇴하고 말았다. 20년 가까이 해온 본업이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도 선생에게 전체의 인생 중 보람된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고, 말 잘 듣고, 진학을 잘하고 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학생들과 어울렸던 그때를 말이다. 비록 젊은 시절 불편해진 신체로 80세가 넘은 노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 교직시절을 떠올리면서 그의 입가에서 작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지금껏 강인한 정신력으로 가족을 책임져온 선생이야 말로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홀로 사남매를 키워냈던 강건하고 생활력 강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과도 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신문호선생의 삶에서 그 답을, 그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 남 응 (193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원로 교육자



90년

김남응 선생은 1935년 2월 천안지역 병천면 가전리에서 7남매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첫째였던 형은 서울 사범대를 재학하던 도중 6.25사변이 발발하여 행방이 묘연해졌고, 남동생은 한국전쟁 피난 때, 가전리 집에서 화재가 나서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듯 그는 가정의 장남이 되었고, 그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90년 가까이 잘 짊어지고 오셨다.

그의 부친은 그 당시 서울서,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 하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되자, 조부모님이 계신 고향인 병천 가전리로 자연스레 피난을 오게 되었다. 농촌지역으로 오게 된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병천에 있는 양조장을 인수하였다. 사업 수완이 꽤나 탁월했던 그의 부친은 사업이 잘됨에 따라, 우리 지역 성거양조장, 경기 연천의 전곡양조장(군납)도 경영하고, 지금의 아산지역의 둔포양조장도 경영하면서 재산을 꽤나 축적하였다. 참고로 성거양조장은 누이에게, 둔포양조장은 김남응 선생의 둘째 아들에게 운영권을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의 양조장사업은 독점사업 이었기에, 부친의 몇몇 양조장들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배고프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집안의 재산을 기반으로, 그는 보통의 다른 이들보다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삶을 걸어올 수 있었다.

학교라는 의미

사업에 바쁜 아버지셨지만 시간이 날 때 마다 책을 자주 펼쳐보셨다. 그래서인지 한문공부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아들에게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김남응 선생도 부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피난을 오고 나서 6개월 동안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박문수 어사(현재의 북면 은지리 소재)의 7대손 무오 박남희 선생께 한학교육을 받았고, 신문지에 붓글씨를 배운 것이 김남응선생이 평생의 삶 중에 손꼽힐 만큼 잘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한 그만큼의 다양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크나큰 도움

이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있었다.

김남응 선생은 천안남산초등학교를 입학하여 5학년까지 다니다가, 해방이 된 1945년 서울로 이사를 하여 서울 소재 장충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학교는 서울사범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6.25발발로 인해 고향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당시 천안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천안농업고등학교만 존재했었다고 한다.

무오 선생께 한학과 사서삼경, 붓글씨를 배운 시기가 이 시절이다. 그래서 농업고 2학년으로 편입을 하여 1년 반 정도를 재학하다가 졸업을 했다. 대학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집안형편과 학업성적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불문학과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 군대를 다녀왔다.

군 생활 시절에도 선생은 보기 힘든 고학력의 수준급 인재였기 때문에, 군상급자인 아무개 장교에게 프랑스어 교육도 해주었다고 한다. 흔하지 않은 군대생활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다시 복귀한 그는 서울 용산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단기간 만에 손을 떼고 30대 초반의 나이로 병천 가전리로 다시 오게 된다. 요즘 소위 말하는 스마트했던 그에게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문화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역시 문화원장으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의 문화원은 사설 백전문화원으로 안동 김씨 종중에서 설립한 문화원이었기 때문에 종중 내 관계자들이 문화원장과 당시의 문화원에서 행해지는 업무(국가홍보영상, 영사기 시청 등)을 병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제5대 문화원장이 된 그는 아버지의 가업인 양조장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이 잘 되니, 자본을 교육에 쏟고 싶었다. 그래서 낙후된 시골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양조장 건물 지붕 아래 글씨를 가르치던 그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모였고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아우내중학교

양조장 지붕아래 비를 맞아가면서 배움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 그는 학교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집들을 모두 팔고, 양조장 사업으로 거둬들인 자본 등, 그가 가진 모든 재원들을 학교 설립하는 곳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병천면 도원리 지역에 학교를 세울 18,000평 부지의 땅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학교에는 병천중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극빈하여 제대로 된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이 즐비한 시절이었다.

병천, 동면, 수신, 성남, 북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그가 설립한 아우내중학교로 모여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건물을 짓는 일이 시급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어린 학생들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았다. 특히나 1회 졸업생들은 벽돌을 짊어지고, 나르고를 반복하였다. 심지어 당시 개교 직전의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벽돌과 건설자재를 만지는 날들이 더 많았을 지경이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립한 아우내중학교는 학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교장 자격을 취득해서 초대 교장이 되었고, 당시의 교사들은 넉넉하지 못한 재원 때문에 다른 학교의 교사들보다 월급도 적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우내중학교의 학생들은 늘어났고, 졸업생들은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그 모든 것이 학생교육에 열정적인 교사들의 희생이 제반된 교육철학이 아닐까.

지금 사회시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

아우내중학교는 1967년 학교 설립인가를 하여 2005년에 폐교를 하였다. 35회에 걸쳐 4200여명의 졸업생을 양성하였다. 김남응 선생은 아직도 폐교된 아우내중학교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크다고 한다. 선생이 어려웠던 시절, 타인에게 학교를 불가피하게 넘겼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열정적인 교육의 배움터가 되고, 더욱더 많은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 했을 것이다.

2023년, 90세를 바라보는 선생의 눈동자가 그때 시절을 비춰 보여 주는 듯하다. 1960년대 문화원장 이었을 당시에 시골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학교의 필요성을 깨달아 학교를 세우기로 다짐하였고, 설립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마치 아우내중학교라는 역사서를 한 장 한 장의 책장을 넘기듯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의 모습을 본다.

아직도 그 시절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김남응 선생의 삶속에 녹아든 보람과 성취와 아쉬움이라는 수많은 이 모든 감정들이, 그의 깊은 주름만큼 새겨져 있고, 노년의 눈빛에 투영되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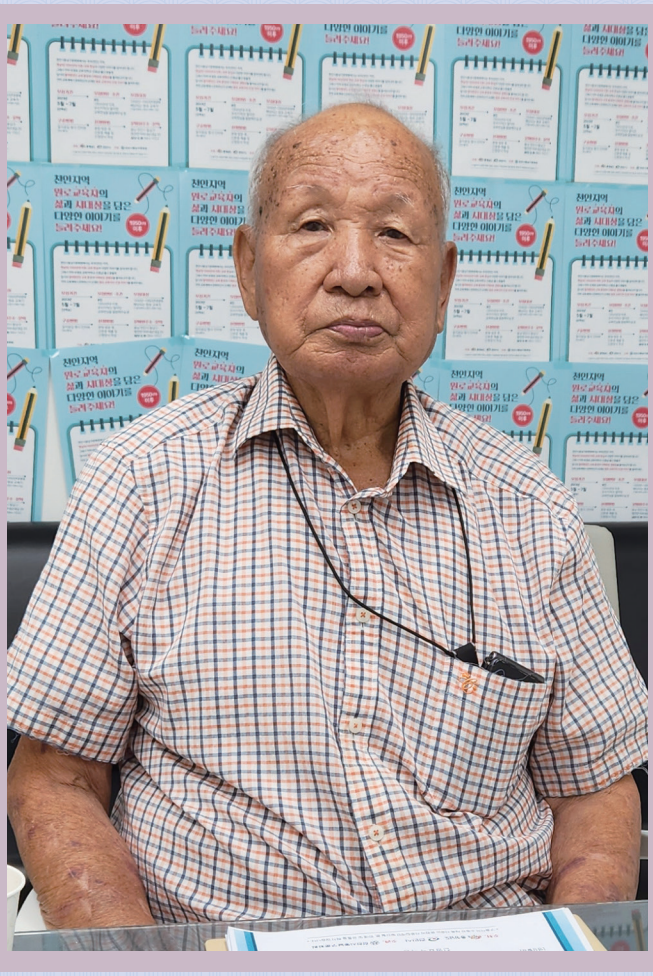
성실이라는 교육철학의 표본을 담아 어려운 시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교육자 김남응 선생, 그에게서, '참 스승이라는 존경심을 찾아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 헌 종 (1934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원로 교육자



초가삼간과 열 한 식구

초가삼간, 최소한의 크기를 가진 가옥을 표현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로는 대략 3평정도 되며 사람이 간신히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집을 의미한다. 실재로도 초가삼간이란 말은 가난함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자주 쓰여 졌으며 과거에 비해 그 활용도는 떨어지나 요즘에도 간간히 쓰여 지고 있다.

열 한 식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8남매. 합이 열한명이다. 유헌종 선생은 8남매 중 첫째로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7살이 되던 해에, 너무나 가난한 탓에 어머니의 남동생(외삼촌)께서 병천으로 이사를 오면 주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게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삿짐을 짊어지고, 어머니는 4살 된 동생의 손을 잡고, 30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 여기 병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1931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릴 적 자주 앓던 병(홍역, 열병)을 이기지 못하여 죽는 아이의 수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도 3년 정도 지난 뒤에 호적에 등록했다고 한다. 그 시절,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출산 이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집은 초가집이 전부였고, 방은 큰방, 작은방 총 2칸이었다. 집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하루하루가 난관이고, 생사를 넘나드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참고로, 선생의 초가집은 당시 아우내 오일장과 가까웠고, 특히나 소전(우시장)의 위치와 꽤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의 소전에 대한 기억이 제법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다.

배부름 〈 배고픔

초등학교 5학년의 어느 날, 동네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린 선생은 밖을 나가보니, 동네 어른들이 병천 지역 곳곳에서 만세를 외쳐대는 것이었다. 드디어 광복이 된 것이다. 광복 후에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식사시간 이후에 동네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거닐며 애국가 부르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중학교를 진학해야 했는데 그 시절 천안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야만 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유헌종 선생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

은 상황에서도 선생을 대전에 있는 사범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의 밑바탕에는 6학년 담임 이셨던 한상욱 선생님의 도움이 매우 컸다. 그렇게 6학년인 선생은 병천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범학교 진학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다.

사범학교를 다니려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생활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모인 곳이었다. 삼시세끼 중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하지만, 아침밥(작은 주먹밥 수준이 대부분)의 양이 너무 적어, 아침을 먹고 이내 바로 도시락까지 먹는 일이 허다했다. 당연히 자연스레 먹을 점심은 없어졌으니 굶는 것을 매일 각오해야만 했다. 성장기 청소년 시기였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처럼 매일 배고픔의 연속이었던 사범학교 시절이었지만, 반대로 배가 터질 듯이 먹었던 단 한순간만큼은 어제 일처럼 아직도 그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림을 곧잘 그렸던 그는 옆 반 여학생에게 교재관련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림을 그려주니 정확히 어떤 떡인지는 모르겠으니 떡 한 상자를 답례의 의미로 받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여학생의 집안형편은 굉장히 넉넉했을 것이라고 그는 조심스레 유추해 보기도 한다. 또한 당시의 빈부격차를 말해주기도 했을 것이다.

떡 한 상자를 받은 그는 가장 친한 사범학교 친구와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둘이 허겁지겁 모두 먹고 빈 상자를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 터지도록 배가 불렀던 단 한 번의 순간이라고 기억할 정도라고 한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맛은 94세의 깊은 주름의 얼굴에도 숨길 수 없는, 절대 잊혀 질 수가 없는 달콤한 기억인 듯 보였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차이가 주는 욕구와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먹을 것들이 남아도는 요즘 말이다.

유헌종의 삶

병천에서의 일생들이 94세 유헌종 선생의 삶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54년도 첫 교직 발령은 아이러니하게도 병천초등학교였다. 당시에는 학교가 몇 개 없었고, 선생님이 귀하였기 때문에, 주로 고향 학교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폐교가 된 봉성초등학교와 병천초등학교 에서만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 담았고, 모교에서 교감까지 역임 하였다. 당시에는 애향심 깃든 교육열로 남포(등잔불보다 밝은 유리형태로 된 바람

을 막아주는 불)를 사용해서까지 야간수업으로 당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소식을 접하기라도 하면 교육자로서 너무나 기쁘고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그는 참담한 교육환경의 중심에 있었다. 오늘날처럼 공사업체가 학교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법도 아니니, 교직원 모두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 매진한 날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 수업을 위해 식물을 가꾸는 온실을 만들어야 했고, 농사교육을 위해 못자리를 하고, 교문까지 직접 만들었다. 이와 같이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교육현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던 선생이다. 학생이 엇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훈육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훈육이 혹시나 어린학생에게 상처가 될까 염려도 많이 했던 선생이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된 교권을 바라보면서 선생은 한탄을 금치 못한다.

요즈음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고 괴롭히는 지경이란다. 부모의 맹목적인 보호아래, 어린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는 엇나간 미명아래, 그것들은 사실 엇나간 학습을 학부모와 학생,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스승의 매는 학생이 삐뚤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동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규율과 질서, 협동 등 수많은 감정과 공감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길게 보자면 학생이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모든 훈육이 그것(학생만을 위한 것)에 해당 될 수는 없지만, 가르침을 주는 매라는 인식을 충분히 학생 스스로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니, 그래야 할 것이다.

그 밑거름에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능력과 인성적 사고배양이 필수가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학생을 붙잡고 인성교육조차 금기시 될 만큼, 교사들에게는 교육주관을 뚜렷이 내세울 수 없는, 큰 부담으로 봉착되어 버린 실정이다. 그러니 자연스레 현대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유헌종 선생의 옛날처럼 뜨겁지 않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100세를 바라보는 선생에게도 교육에 대한 열망과 걱정은 뜨거운 데 말이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양 재 필 (1949년생)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원로 교육자



학교가 주는 것들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윗대추리'에서 양재필 선생은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본래 고향이 충북 음성사람이었지만, 어머님(선생의 조모)과 아버지(선생의 조부)를 6살,12살의 나이로 일찍 여의신 탓에. 아버지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끼니를 굶는 일이 다반사였었던 생활이었기에 어린 선생의 기억으로는 아마 어머니의 고향(성남면)에 데릴사위로 오셨었던 것 같다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에, 처가 쪽에는 형편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성남초등학교를 다니던 선생은 허허벌판 질퍽한 황톳길인 2.5km를 매일 걸었다. 덥고 추웠지만, 학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재미가 있었다. 당시 재학 중인 학교는 학년 별로 2학급에 약 60명 정도였었다. 졸업식을 할 때는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 60여명의 졸업생 중 중학교를 진학한 학생은 양재필 선생을 포함한 4명에 불과하였다. 형편으로 인해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집안의 농사일을 돕거나, 다른 집안의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하는 시절이었다. 전교생이 모두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서로를 부여잡고 울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학생회장

성남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 수성고등공민학교라는 곳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6개월 정도를 재학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의 공민학교라는 곳은 학교의 시설이라고 하기 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당시의 공민학교라는 곳은 정식학교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1살을 더 먹고 중학교 진학시험에 응시했고 계광중학교라는 사립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거리는 초등학교 통학거리의 6배나 먼 거리였고, 아침 6시에 출발해도 학교에 도착하면 8시 반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마저도 그가 뛰어가야 가능하였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을 맞이했고, 담임선생님께서 천안고등학교로 장학생으로의 진학을 권하셨다. 하지만 통학 거리가 매우 부담이 되어 천안고 진학을 단념하고 가까운 병천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였다.

병천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선생님께서 놀라운 제의를 하셨다. 현재 94세의 연

세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2학년 시절의 담임 김태령 선생님. 은사님께서는 2학년 반장인 그에게 자신의 집에서 학교를 다녀보겠냐고 권유하셨다. 그래서 3학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집에서 편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었고,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학교 전체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1살 늦게 중학교를 입학한 탓에 고3의 신분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가 되어서 시험을 봤고, 단번에 합격을 하였다. 기쁜 소식을 은사님께 알려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그에게 교육자의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또 다시 권유하셨다.

김태령 은사님께서는 학교생활 내내 지켜본 그의 성향과 자질이 교육자로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았다. 그렇게 병천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은 2학년 만난 은사님이자 삶의 방향을 설정해준 은사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며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6학년 담임

1971년 3월 9일. 양재필선생의 기억에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다. 첫 발령일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교인 성남초등학교로 돌아왔다. 이제는 학생이 아닌 교사의 신분으로 말이다.

교무실에서 첫 발령인사를 하는데, 학생시절 은사님들이 계셨다. 감회가 남다르다는 표현은 서로에게 시의 적절한 표현인 듯 보였다. 그렇지만 그는 좀처럼 교무실이 익숙하지 않았다. 솔직히 얘기하면 은사님들이 계신 교무실이 조금 불편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더 머무르게 되었고, 학생들과 자연스레 더욱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6학년 담임 = 양재필 선생님’ 이라는 공식이 있다. 모교인 성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성환읍의 성신초등학교부터 북면의 은석초등학교까지,, 그에게 6학년 담임은 숙명과도 같아 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6학년 담임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다리역할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학원이 존재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절 6학년 담임선생님의 교육방향과 수업의 질이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6학년 담임을 십여 년을 맡아 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고, 학생들 개개인마다의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스스로 고민하였다.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학업이 우수하고 중학교생활에 충실하다는 소식이라도 그의 귓가에 들릴 때면, 선생은 큰 보람과 기쁨으로 다가와,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크나큰 만족감을 안겨 주었다.

일곱 색깔 무지개

"선생님!" 추억을 되살려주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다.

"너 정규구나?" "네, 선생님! 잘 지내시죠?"

4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잊지 못할 제자들이 일곱이나 된다. 형의 군 입대로 생계를 걱정하며 초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5학년 학생, 6년 동안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학생, 누나에게 의지하여 살았던 소아마비 지체장애 학생, 호적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 4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어렵게 삶을 개척해 나가던 소년소녀 가정의 남매, 전학 가서 사회생활의 길을 잘못 가기 시작한 학생,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천사들.

1987학년도는 가장 슬픈 1년이었다.

학생들의 상황파악을 위해 상담을 하던 중 문제가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 담임 선생님이나 이장님도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셨다. 호적도 주민등록도 없는 학생이라니….

의무교육 6년은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는 어찌할 것인가? 면사무소, 군청, 법원 다 찾아가 보아도 해결 방안이 없었다. 엄마는 있는데 출생은 비밀의 화원이다. 대전으로 충북으로 엄마가 살아온 길을 따라 사정을 해보아도 입적하는 방법이 없었다.

중학교 진학을 못 하고 졸업하는 날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빗물과 흙탕물에 범벅이 된 채로 교실에 나타난 정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장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정규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지금은 조그만 회사의 공장장으로 잘 살고 있다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전화를 한다.

무지개의 한 색깔로 훌륭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앞날을 걱정해야 했던 7명의 학생들이 모두 찬란한 일곱 색깔 무지개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제는 인생행로를 함께하면서 스승의 길을 되새김해본다.

살아가는 방법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하니 선생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을 닦으면서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소식을 듣고 싶은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진다.

성신초등학교에서는 담임도 아니었지만, 저학년이던 갑정이가 눈에 들어와 웅변을 가르쳤더니, 대회란 대회는 1등을 휩쓸고 다녔다. 그랬던 갑정이는 학교 밖으로 나가 미생물 학박사가 되었다. 산골지역에 위치해 있던 화덕초등학교 근무시절에는 학교 최초로 야영을 처음 시도했다. 학생들은 야영이 뭔지 몰랐었나 보다. 집집마다 야영이란 것이 궁금했던 학부모들이 경운기에 솥단지니, 먹을거리니 이것저것 싣고 왔었던 그때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 밤, 자고 있는 그에게 여학생이 이불을 덮어주던 잠결의 얕은 기억마저 노년이 된 그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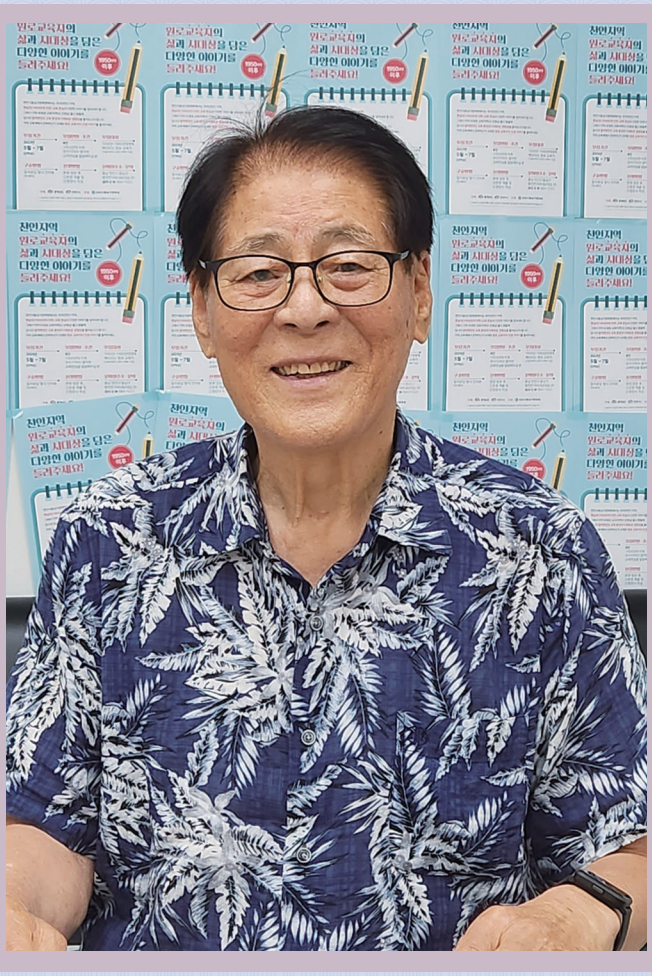
모든 학교에서의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들로 담아내고 싶다. 하지만 마음으로 담아내는 방법은 어려워 보인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담아내다 보면, 점차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레 알려주려 했던 선생의 교육철학이 내심 존경스러워 진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 태 현 (1939년생)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원로 교육자



고향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지역에 국한된 제1차대계대전과는 달리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도 지속되었다. 물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이 결정적이긴 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발하였고,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 시기였던

1939년, 김태현 선생은 병천면 가전리 상백이라는 지역에서 세상의 혼란과는 다르게 아주 평화롭게 태어났다. 아직도 그 시절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일제의 무력탄압에도 피와 땀, 죽음으로 결사항거를 하면서 굴복하지 않았지만, 상백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귀하고 소중한 3대 독자가 태어난 선생의 가족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의 출생으로 인하여 세상을 모두 얻은 분위기였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해방되기 한 해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보자기에 책을 넣고, 흙바닥인 교실바닥을 방석 삼아 가부좌 자세로 선생님과 칠판을 올려다보며 공부를 하였다. 재학당시 특기할 점이 있었는데, 당시 3학년이던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4학년이 아닌 5학년으로 바로 올라갔고, 동창들보다 1살이 어려 가끔 짓궂은 놀림도 받았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할 쯤, 병천중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 시절에도 졸업할 쯤이 되니, 병천고등학교가 생겼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인 지역에서 천안 시내지역까지 학교를 다닐 걱정이 앞섰지만, 웬일인지 졸업하기 전에 고향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유년시절의 김태현선생은 한걱정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고향은 언제나 좋은 것 아니겠는가. 중학교가 지어졌지만, 주변지역에서 학생들은 모이고, 시설이 부족하여 교사시설의 증축은 불가피해보였다. 지역 어른들, 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게를 짊어졌다. 조를 짜고, 작두를 빌려 여물을 썰고, 새끼를 꼬았다. 흙을 파내고 벽돌로 막고, 동면근처 기와공장까지 가서 학생들은 대 여섯 장씩 기와를 배달해왔다. 그렇게 중학교의 모습이 완성되고 학생들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됨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렇듯 고향이 주는 의미는 크나큰 영향을 준다. 이익이라는 단어보다는 봉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그는 자부한다.

체육인 김태현

한국전쟁 피난 후에 생긴 병천중학교에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꽤나 계셨다. 한국전쟁 시각 지역에서는 시골로 피난을 병천 지역으로 자연스레 오게 되었고, 이후 병천중학교에 복직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던 그의 키는 작은 편이었다.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요즘 학생들처럼 부푼 장래희망을 꿈꾸던 시절은 아니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마치고 병천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2학년이 되니 키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니 자연스레 운동에 더욱 더 매진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축구도 하였고 배구도 하였다. 고3시절에는 큰 키 때문에 열심히 배구에 집중하여 전국배구선수권대회도 출전하였지만,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인창고등학교(인천)에 완패를 하고 말았다. 대회의 참가는 좋은 경험이었고 체육이라는 매력에 그는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했다. 염두에 두었던 학교에 낙방을 하니, 대고모님께서 그나마 집에서 근거리인 충북대를 권유해 주셨다. 전공은 약학대를 목표로 했지만, 입학기간이 지남에 일단 평소 좋아하는 체육 쪽으로 진학하기로 하였다. 체육학과에서의 1년이 지나니, 입학초기부터 계획했었던 약학대학 쪽으로 전과를 하려했다. 그러나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다. 1년 늦게 약학공부를 시작하여 기존 약학대생들과의 경쟁이 불리할 것 같았고, 체육에 능했던 그였기에 체육학과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였다. 그래! 나 김태현이, 체육인으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대학재학 시절 성적 1등만 하던 체육학과 4년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그런 체육학과생을 기다리는 곳은 어디였을까, 그곳은 바로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학교였다.

교육자 김태현

1963년 3월 18일, 천안고등학교 발령. 현재 노년의 그는 발령 일자를 또렷이 기억한다.

사립학교의 수습교사이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당당히 정교사의 전환을 요청했었다. 그 당당함에 관계자는 단기간에 그를 교사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이내 그는 사립학교에서의 폐단을 깨닫고 다른 지역으로의 경험을 감행하였다. 그 후, 그의 행보는 조치원상고, 금산농고, 천안공고, 병천고, 충남여고, 대전중 등 충남·대전지역에서 체육교사로서

의 다양한 학생활동을 위해 탐구하고 계획하며 교육활동에 매진하였다.

배구부를 시작으로 핸드볼부, 필드하키부. 정구(테니스)부, 양궁부 등 다양한 운동부를 학교 내에서 개설해 가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온 힘을 쏟았다.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작은 계획들이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곤 한다. 선생이 만든 운동부에서의 학생들 중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유명한 실업/프로팀에도 입단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하였다.

체육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한 성과와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체육특기생 뿐만 아니라, 교내 모든 학생들에게도 그는 체력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깨우치게 하고 싶었다. 단체 활동인 곤봉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그는 학생들에게 단체활동에서 발현되는 협동, 단합, 서로를 위한 배려, 예의 등 중요한 덕목들로 인하여 사회에 나가 이로운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발전되길 바라고 또 바랐다.

교육장, 그리고 은퇴의 삶.

교육장의 길은 명예로웠다. 그렇지만 명예로운 만큼 책임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교육부의 예산을 어렵게 받아와서 부족한 시설을 건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학부모들의 불만과 고충은 멈추지 않았고,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계는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처럼 이들의 관계에도 꾸준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노년의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낸다. 모든 삶의 이야기를 몇 시간의 대화들로 함축할 수는 없어도, 열심히 노력했었던 체육인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삶은 추억으로 가득차고, 보람으로 그려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은퇴 후에도 컴퓨터 활용, 동영상 편집, 예의교육, 학생들의 성년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노력을 하려 애써왔다.

과거 젊은 교사시절, 변산반도로 병천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양궁대회를 출전할 때 그는 알기나 했을까, 먼 훗날 미국 피닉스행 비행기를 타고 학생들을 인솔하고, 세계대회를

나갈 것이라고, 또 짐작이나 했을까, 88올림픽 양궁시합이 끝난 후, 세계 각지의 내놓으라 하는 양궁인들이 모인 리셉션 장소에서 본인이 사회를 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산수(傘壽)를 훌쩍 넘긴 김태현선생의 삶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은 노력과 성실이라는 재능일 것이다. 특히나 예체능분야는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실력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김태현 선생처럼 타고난 재능보다는, 땀 흘려 노력했던 삶이 지금의 김태현 선생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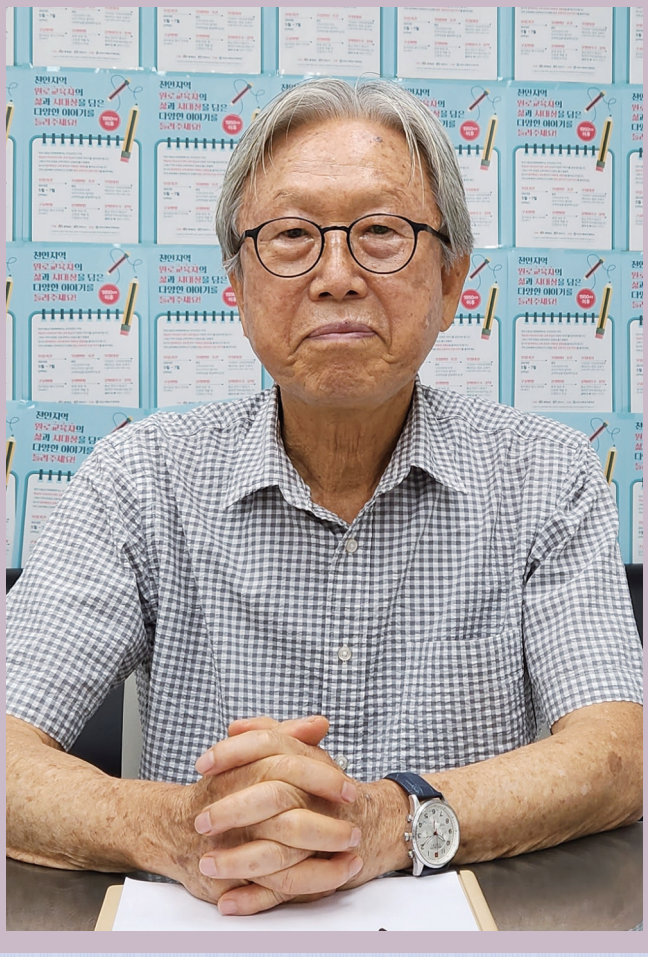
오늘하루도 노년의 선생은 시대에 순응하는 삶을 배우고자 한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동남구
천안지역 원로교육자의 삶과, 그 시절의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류 승 호 (1943년생)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원로 교육자



안녕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인자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한분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반겨 주신다. 다음 층에서 승강기가 또 멈춘다. 꼬맹이가 타려는데 할아버지는 또 먼저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먼저 건네신다. 아이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이내 쑥스러운 인사로 화답한다.

모두의 목적지인 1층에 다다랐고 할아버지는 작별인사도 어김없이 먼저 건넨다. 그리고 걸음을 이동하면서도 아파트 입구 옆에 청소하는 할머니와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좋은 하루 보내요.', '잘 가, 엄마말씀 잘 듣고.', '더운데 수고해요.'

다세대가 밀집한 흔하디흔한 아파트 속 풍경이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연출되는 장면도 아닐 것이다. 수많은 날들 중 그 하루에 '인사 잘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한번쯤은 괜스레 뒤돌아보게 만드는 날이었다.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가 아닌 '인사 잘하는 할아버지'로 이상한 소문이 난 할아버지는 류승호 선생이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인사 잘하게 된 할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어떠한 비용을 희생하면서 얻어낸 삶 속에서의 값진 결과의 산물이라고 선생은 자부하였다.

우리들의 인사는 만남과 헤어짐의 표현이다.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다. 특히나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서 이웃과 하는 인사는 하루의 좋은 시작을 기대해 볼 만큼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우리는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내려오는 승강기 안에는 어떤 이웃이 기다리고 있을까.

80세 할아버지 류승호 선생은 사람을 마주하였을 때, 눈치를 보거나 인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가가서 먼저 하는 인사를 즐긴다. '인사 잘하게 된 할아버지' 그가 궁금하다.

하숙생

그가 출생한 곳은 천안이 아닌 서산이다. 집은 넉넉한 편이었다. 그의 부친께서는 산과 밭, 논을 소유하고 일꾼을 두고 농사일을 관리하셨다. 4남1녀 중 둘째인 그는 서산의 운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려는데 서산에는 중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인 홍성

중학교로 진학을 하였다. 자연스레 홍성고등학교까지 마친 그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 밥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홍성에서의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나아가 교대에서의 2년 재학기간까지…. 그는 학생시절 중 8년간의 하숙생활을 겪어 왔다고 한다. 당시의 하숙생활은 형편이 가난한 학생에게는 '언감생심' 이었던 걸로 보인다. 당시 하숙비는 돈으로 받았지만, 해당 하숙집은 쌀로 갖고 오길 바랐다고 한다. 한 달 하숙비가 쌀 다섯말(40kg)정도였다고 한다.

일꾼(농사일과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버스 타는 곳까지 지게를 사용하여 옮겨다 주어 버스에 싣는다. 그리고 하차한 곳에서는 무거운 짐을 최종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지게꾼이라 불리 우는 사람들이 버스종점에서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시기는 1950년 말~ 1960년 초 정도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어렵게 하숙비를 전달하고, 선생은 그렇게 8년의 하숙 밥을 먹는 하숙생으로서 청소년기의 시절의 배움을 위한 삶이었다. 물론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어머니의 집 밥이 그리운 것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초보농부의 삶까지..

첫 발령이 났다. 익숙한 학교, 선생의 모교이다.

사실 하숙집에서 해주는 밥이 지겨워, 어머니 손맛이 스며든 밥을 먹고 싶기도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모교로 첫 출근을 하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학생처럼 인사를 하게 되었다. 초등학생시절 학교 은사님들께서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셨다. 조금은 세월에 물든 은사님들이 반가우면서도 어려웠고, 그분들께서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지만, 내심 편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이 같은 풍경들이 낯선 상황이 아니라고 선생은 덧붙인다.

당시 교내 학급 수는 28학급에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75명 정도였다. 1964년 초임교사로서 3학년 담임을 맡았고 1년 뒤에 군 입대를 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군 졸병시절에 위문편지를 수 십 통을 받았는데, 4학년으로 올라간 전년도 학생들이 류승호 담임선생을 그리워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 글씨를 적어가며 뭉클한 편지를 보내주었다. 그 기억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모두 읽어보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라도 그는 말한다.

무사히 전역을 하고 1967년에 다시 운산초등학교로 복직을 하였고, 1971년 이후에는 천안으로 발령을 받고 천안관내 여러 학교에서 교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홍성군교육지원청과 천안시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장학관 활동과 다양한 행정업무로도 활동하였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념하다가 천안 봉서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봉사하자는 일념으로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여 충남교육발전에 큰 힘을 보태었다.

그리고 교육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그는 초보농부의 삶을 선택하였다.

물론 본업이 농사는 아니었다. 작은 농사와 더불어 (사)한국자연사연구협회 회장, 이사장도 엮임 하였다. 여기서 자연사라 함은 지질, 식물, 곤충, 어류, 조류를 의미하고 관련된 현장을 탐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선생에게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분야였기 때문에 소신껏 선생의 힘이 닿는데 까지 단체와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

폭염이 한창인 오늘도 초보농부인 선생은 이런저런 작물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서 돌본다. 교사시절 학생들을 대하는 기분으로 말이다. 큰 빚을 진 것 같았던 건설사 사장인 성환 대홍초 제자,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방초 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작물들을 보면서 수많은 제자와 그들만의 다채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여쭈었다. '교사로서의 교육성과와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선생은 한사코 아무것도 없다고만 답을 한다.

선생의 예상치 못한 간결한 대답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겸손함속에 묻어 나오는 가치를 이미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인터뷰어_ 이형우>

천안시서북구

|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역경을 딛고 한국화단에 우뚝선 문인화 대가 김무호 48
향토연극의 산증인 연극배우 남태희 56
은은한 삶의 향기를 문학으로 수필가 백남일 62
창의와 열정으로 한평생 문화활동가 안창옥 68
시인으로 서예가로 시낭송가로 만능예술인 이명환 74
현대 조각을 말하는 한국 조각계 거장 이종각 80
인문학 연구에 매진하는 향토연구가 임무정 88
「꽃피는 팔도강산」 집필자 드라마작가 윤혁민 94
신앙에서 긷는 깊은 깨달음의 시적 개성화 조유정 102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김 무 호 (1953년생)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역경을 딛고 한국화단에 우뚝선 문인화 대가 김무호



때 이른 더위가 한창이던 오후, 아스팔트 위로 피어나는 뜨거운 공기를 걷어 올리며 화실로 향했다. 지면을 훔치는 열기의 일렁임과 고개 위로 한참을 뻗은 건물들에 부딪혀 쏟아져 내리는 햇살, 눈이 부셨다.

'화정그림방' '華墨齋', 현판을 눈에 담고 화실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흰 벽 위로 화선지, 그 위로 번져간 희 검은 먹빛과 풍경인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붓질, 눈길을 멈추자 화폭의 텅 빈 풍경이 필자를 휘감는다. 그림 속으로 단숨에 빨려 들어간다.

화정 김무호, 시詩 서書 화畵의 우월을 가리기 힘든 삼위일체의 경지, 높은 품격으로 창작해내는 우리나라 문인화단의 큰 인물로 자리한다. 원로 화가라는 선입견을 무색할 정도로 웃음기를 머금은 유쾌한 모습의 그를 대하며, 채색과 수묵주조로 구성된 작품들이 가득 둘러쳐진 작업실 속에서 한여름 속에 핀 목단이나 수국처럼 높은 화격의 향기가 풍겨나는 생동감을 받았다.

50여 년 가까이 서화세계에서 구상과 추상을 섭렵하며 오로지 창작에 몰두해온 분이다. 특히 사군자, 문인화, 풍경화 등 담백한 멋이 농밀한 문인화적 사의寫意와 형사形寫가 담겨있다. 화려하면서도 힘찬 작가의 필력이 평소 역설해온 수묵위상론을 내세우며 작가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오늘에 이른 원로 화백이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또 그의 사유세계에 대해 살핀다는 것은 인터뷰에게는 영광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예향인 진도를 고향으로 하고

화정은 선생의 호이고, 화묵재는 화실의 당호堂號이다. 화묵재를 당호로 삼은 것은 제자들의 모임 이름인 '화묵회華墨會'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자들 모임의 이름이 화묵회인 것은 선생의 호인 화정에서 따온 것일 듯….

선생은 1953년생이다.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이다. 한국 현대미술(동양화)의 거봉인 의재 허백련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인들이 고향으로 두고 있는 진도에서 일찍이 예맥을 타고 태어났다. 외조모의 사촌이 남농 허건 선생이고, 모진의 사촌동생이 의재 허백련의 수제자 옥산 김옥진 선생이다.

아버지 김제량씨와 어머니 김기심씨 사이에서 5남 2여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6.25한국전쟁 후 어려운 시기였지만, 아버지가 목포에서 크게 수산업과 해운업을 경영했던 관계로 비교적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하지만 그 평온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크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그로인해 모든 사업체는 부도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화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51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운명을 하셨다.

아버지의 별세와 함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가족들은 고향을 뜨기로 결심, 서울로 이주했다. 형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살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진도 의신초등학교를 졸업한 선생도 서울로 올라가 수도중학교에 입학했고, 경성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가정생활에 신문배달과 잔심부름 등을 하며 학교를 다녀야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소질을 발휘했던 그림도, 진학을 향한 수업에도 마음을 쏟지 못한 채 관심은 온통 운동에만 쏠렸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축구를 했다. 공을 차며 시름을 잊고자 했다. 당시 경신고 차범근과 영등포공고 허정무 등이 운동 동기였다.

고3 시절에 시작된 미술의 길

어머니는 가슴에 상처를 담고 학교에 다니는 그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던 어느 날, 그를 데리고 옥산沃山 김옥진金玉振 선생을 찾았다.

"옥산은 어머니의 친정 사촌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외삼촌이 되시는 분이죠."

한국 동양화의 대가인 옥산은 1927년 진도 출신으로 21세 때인 의재 허백련의 문하에 들어가 사사를 하고, 옥산이라는 아호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옥산을 찾게 된 것이 그의 오늘을 만들게 된 첫 걸음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참으로 감사하죠. 아들의 손을 이끌고 친정 동생의 화실을 두드린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니까요."

아들의 소질을 일찍이 간파하고 예술가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어머니는 2002년 83세로 별세하셨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많은 고생을 감내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릿해지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

"옥산은 사사로이는 제 외삼촌이시지만, 한번도 외삼촌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늘 스승

님이라 불렀지요”

옥산은 생질인 화정의 그림 소질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기꺼이 제자로 삼아 주었다. 그래서 그 문하에서 5년 동안 산수화를 공부했다.

세 분의 스승을 모신 행복한 작가

“옥산 문하에서 그림 공부하던 시절,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이내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려운 가정형편도 그렇고, 좀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미술을 하는데 대학공부가 꼭 필요할까? 그 시간에 유명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을 그만 두었지요.”

대학을 포기한 채 군에 입대한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옥산 문하에서 그림공부를 계속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는 아무래도 문인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구당에게 가서 공부를 하게나.”

구당 이범재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다시 새로움을 모색해가던 그에게 문인화가로서의 길은 확실해졌다. 구당九堂 이범재李範載는 1910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분으로 의재 문하에서 동양화를 익힌 실력으로 문인화의 대가로 인정을 받는 분이다.

그는 구당 문하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군자부터 시작해 4년간을 사사했다. 그러면서 늘 구당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공부했다. 그런가하면 세 분의 스승을 모셨지만 두 번째 스승이신 구당 에게서 인생길에 필요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억을 더듬는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림을 잘 그리기에 앞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혼이 스며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주변과 어울리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선생이 구당 다음으로 모시게 된 세 번째 스승은 계정溪丁 민이식閔利植 선생이다. 계정은 1940년 전북 부안에서 나신 분으로 한때 옥산 문하에서 산수화 공부를 한 분이기도 했

다. 계정으로부터 세련미를 갖춘 문인화를 접하면서 또 한 번 일취월장하는 수련의 과정을 겪은 후, 1990년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다. 그의 나이 37세 때에 이르러서다.

독립할 수 있는 조건, 혹은 계기는 단순했다. 80년대 초부터 도전을 시작한 국전에의 공모, 그의 집념과 끈질긴 노력은 1988년 첫 입선의 기쁨을 안게 된다. 그 해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 사군자 작품을 출품해 입선을 하였다. 그해 목우회 공모전 문인화 부문에서도 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후, 1989년부터 그의 필력은 놀라울 만큼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2회 대한민국 서예청년작가 선정, KBS 전국휘호대회 동상, 목우회공모전 문인화 부문 대상, 1990년 목우회 공모전 문인화 부문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충남미술대전 사군자 부문 특선, MBC 전국휘호대회 금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눈부신 성과들을 보고 계정 선생은 기뻐하며 그에게 독립할 것을 권했고, 자신감과 넘치는 열정은 그가 자신만의 미술세계를 확보하면서 당당하게 화정화실이라는 현판을 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눈물겨운 젊은 날의 가난

1979년 천안이 고향인 박종숙씨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는 81년 들어 객기를 발동, 제주도로 옮겨가 2년을 살았다. 미술 학도로서 삶의 경험을 통해 감수성과 상상력의 영역을 넓혀 보고 싶은 막연한 욕구 때문이었다. 맨주먹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셋방살이를 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해야 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기정, 승정 자매였다. 가난 속에서도 두 아이들이 큰 위로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2년 만에 제주도에서 나온 그는 부산에서도 1년을 살았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는 무려 열두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그는 아내를 고생시킨 만큼 아내에게 고마움도 느낀다고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장래가 불투명한 화가 지망생에게 일생을 맡긴 것만도 고마운데, 생활전선에 나서면서까지 자신 그림공부의 뒷바라지를 감당해주었으니 말이다.

1년 동안의 부산 생활을 접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는 그림 공부를 계속했다. 하지만 화실이 없었다. 집에서 그림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려

면 반드시 화실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화실을 마련할 돈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원자가 나타났다. 미술 애호가이며 재력가인 안기홍 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천안 중앙시장 안에 있는 자기 건물의 한 방을 화실로 쓰라고 내주었다. 20평 규모의 방을 무상으로 내어준 것이었다. 지금도 선생은 은인이었던 그를 잊지 못한다고 했고, 그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1985년 처가인 천안에 삶의 둥지를 튼 그는, 중앙시장 한 켠 작은 공간에 화실을 열었다가 오룡동 명소약국 3층으로 옮긴 후, 본격 화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문인화가 화정 김무호의 이름이 퍼져나갔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넘치는 열정, 불같은 집념이 발휘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문인화가로서 성가를 높여가며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뜨거운 의문을 안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족과 함께 천주교에 귀의, '성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의 세례명은 사도요한이다.

"아내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살게 되었으니 아내에게도 취미 생활이 필요할 듯싶어서, 사진 공부를 하도록 권유를 했지요. 그래서 요즘 집사람은 사진에 푹 빠져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문인화는 '이야기 그림'인 고로

"문인화의 특징은 '단순'과 '여유'입니다. 단순함 속에 여유가 있음을 '선線'으로 표현하는 거죠."

문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붓을 들어 실전으로 보여준다. 화선지를 펴고 네 모서리에 서진書鎭을 올려놓고 정좌를 하고 앉아 현완법으로 선을 그렸다. 그의 붓끝에서 경쾌하게 매화 가지가 그려졌다. 비교적 큰 붓을 쥐고, 서예일 경우 큰 글씨를 쓰는데 좋은 방법인 현완법으로 붓을 움직이는데도 그의 붓끝에서는 가는 선이 정말 경쾌하게 만들어졌다.

"단순함이 특징이고 생명인 문인화는 서예 공부를 먼저하고 사군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함을 알고 여유를 지닌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가 문인화가로 입문하기까지 긴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불같은 창작열을 발휘, 국전과 충남도전, 전국 공모전 등에서 입·특선, 대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그밖에도 2003년 '월간서예문화상'과 2004년 한국예총의 '한국미술공로상', 2019년 미술세계 초대전 '올해의작가상' 등 굵직한 공적상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시회 경력은 더욱 화려하다. 초대전과 기획전을 살펴보면 1991년 '목우회 회원전' 출품(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2005년 '한일 친선 2인 교류전' , 싱가포르 아트페어, 2023 중국상해 특별초대전까지 도합 1백50여 회가 넘는 출품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전은 1992년 3월 서울 청학미술관 전시회를 시작으로, 천안문화원, 아라리오미술관, 서울 갤러리상 전시회 등 지금까지 15회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과 여유, 자연과 비움을 추구하며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정력을 았다. 한때 대전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정년의 나이에 이르러서는 서울과 천안의 화실을 통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더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목요일에는 서울예술의전당 문인화반을 지도하고 있다. 또 천안화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제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여러 미술대회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30여 차례 전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심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고달팠던 지망생 시절을 상기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문인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래, 현재 한국미술협회 문인화분과위원장을 비롯, 여러 미술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또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를 비롯해 많은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앞으로 더 나이를 먹어 가면 달라지겠죠.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번잡한 일들에서 몸을 빼고 초연하게 살면서 오로지 작품 생산에만 몰두하게 될 겁니다. 또 어쩌면 작품 생산에서도 손을 떼고 온

전히 무욕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고….”

붓과 함께 한 50여년을 뒤돌아보며

“붓과 먹과 화선지가 빚어내는 고고한 기품과 향기에 매료되어 반세기 동안 자신을 묶어두는 계기가 되었어요.”

50여 년 회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온 그의 모습에서 회안의 상념을 읽을 수 있다. 화실 한 켠에는 밤잠을 설치며 창작해 놓은 많은 작품들이 쌓여 있다. 이 작품들은 곧 작가 자신이 살아온 어제와 오늘의 현주소가 담겨져 있고, 그의 삶의 원근법이 구도를 이루어 작가 자신에 대한 희로애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화실 한 벽, 청둥오리 한 마리가 물 위를 여유롭게 유영하는 그림이 눈에 잡힌다.

“그림을 그리고 대하는 자세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위 화력을 더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제 물과 먹으로 그려낸 풍경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는 것은 그림 위로 새롭게 떠오른 풍경입니다. 제 것이 아닌 관람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일까, 화정 선생의 그림이 단순해졌다고들 한다. 화실 곳곳에서 만나는 작품 또한 그러했다. 여백을 더욱 강조하는 그림들이다. 아무 것도 없는 빈틈 사이에서 무언가 찾게 하는 듯하다. 당혹스럽다. 무엇에 시선을 두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스멀스멀 무엇인가가 떠오름을 느낄 수 있다.

여백이 이끌어내는 일상으로부터의 차단, 그 다음 다가오는 당혹감, 이후 피어나는 새로운 세계란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굴 속 ‘이상한 나라’에서 모험을 하다 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본 풍경은 없으면서 있고, 고요하면서도 가득 이야기가 채워져 있다. 화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겹겹이 펼쳐진 세계, 여전히 눈부시다.

<인터뷰어_ 이정우>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남 태 희 (1952년생)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향토 연극의 산증인 연극배우 남태희



천안의 연극계를 말하려면 채필병과 함께 쌍두마차로 등장하는 인물이 남태희 회장이다. 명문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충분히 중앙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평생 향토 연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한국연극협회 천안지부의 초대 부지부장을 시작으로, 2대 4대 7대 지부장을 역임했고, 천안의 대표적 극단인 극단<천안>에서도 몇 차례 단장을 맡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그야말로 향토 연극의 산증인인 남태희 회장의 연극 인생은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자 집안의 넷째, 개구쟁이 행동은 배우의 소질?

그가 연극배우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가정 형편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부친 남정진(南廷鎭)과 모친 박숙자(朴淑子)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그가 1952년생이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다.

부친께서는 19세에 함경도 아오지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 안면도 대구를 거쳐 경기고교로 옮기면서 줄곧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능력을 인정받아 교육청 장학관과 교육부 장학관을 역임하고, 대한체육회 이사와 보이스카우트연맹 부총재의 자리에 오르는 등 경력이 화려하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초중고와 대학까지 학창 시절은 물론 극단<가교> 활동을 하는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3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유별났다. 개구쟁이를 넘어선 사고뭉치라고나 할까? 너무나 일을 저질러서 모친이 종일 졸졸 따라다녀야 할 정도였다.

형제자매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서양화가, 전 대전부시장과 카이스트 교수, 미국 음악목사 등의 쟁쟁한 집안이다.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넷째로 태어나 형과 누나들의 진학이 부모를 만족시켰기에 그가 배우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어린 시절의 유별난 행동은 배우의 소질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을까?

연극배우로 살게 한 채필병과의 만남

양정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시공관에서 연극 <무익조>를 보게 되었다. 주인공의 연기에

강하게 꽂혀서 배우를 꿈꾸게 되었고,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연극반을 찾아갔다. 당연히 대학 진학은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로서는 최고인 중앙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물론 난관이 없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는 예상보다 더욱 강경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어머니의 도움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당시에도 무려 78:1이었다. 면접관이 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묻고 나가라고 해서 떨어졌구나 싶었는데, 합격의 감격을 누렸다. 아마도 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경력 덕분으로 여겨진다.

71년 3월, 입학과 동시에 유명한 극단이었던 <가교>에 입단이 이루어져 열심히 활동하였다. 그 덕분으로 양광남 교수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천안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시의 예술계는 배고픔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연극계였다. 관객 동원에 어려움이 많지 않은 극단이었고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만세를 부른 적도 있지만, 극단이 해체되는 아픔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급히 결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연극 활동을 계속하는 문제로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연극을 확실하게 포기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천안으로 옮겨 온 그는 신부동에서 슈퍼를 운영했다. 돈이 꽤 모아졌을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러던 중에 천안향토 연극배우 채필병이 찾아왔다. 남 회장이 명문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다 서울에서 연극배우로 활약했었기에 그의 도움이 절실했을 터였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다시 참아오지 말라는 박절한 말까지 했다. 그러나 채필병은 집요하게 더 찾아와 한 말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쌀밥을 먹으면 되느냐?"였다. 그 말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채필병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의해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 셈이다. 연극계를 떠나기 위해 찾아온 천안은, 그에게 40년 가까운 기간, 연극 인생의 무대가 되어 주었다.

연극배우로서의 천안 생활이 시작되다

천안에서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83년 극단<천안>이 창단되면서부터이다. 남 회장은 그 3년 후에 정착하였지만 창단 배경과 초창기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어수선하였다. 무엇보다 배우들이 들어오면 개인 사정에 따라 바로 떠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연극협회 천안지부의 인준을 서둘렀다. 남상호가 서류를 만들어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류부터 보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어떻게든 인준을 받으려는 간절함에 감동한 당시 권오일 이사장은 자세한 안내와 함께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권 이사장은 질문자의 대학 시절 은사여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대화가 이어졌다. 드디어 1989년 5월 9일, 한국연극협회로부터 충남에서는 최초로 지부 인준을 받게 된다.

남 회장은 초대 부지부장을 거쳐 1990년 12월 정기총회에서 2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어려운 시기의 지부를 이끌었다. 다음 해, 슈퍼의 지하 창고에서 맹연습하여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에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임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장마철에 지하의 연습실에 물이 가득 차는 대형 사고를 당한 일이었다. 건물주로부터 크게 혼나고 자비로 물을 품어내고 수리해야 했다. 배수펌프가 고장이 난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에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도 컸지만 대본을 비롯한 많은 자료를 버려야 하는 아픔이 컸다.

그후 지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기꺼이 4대 지부장을 맡아 헌신하였고, 2001년에는 다시 7대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한사코 고사했지만 후배들이 구관이 명관이라며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려서 어쩔 수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적임자로 신망이 높았기 때문이리라.

출연작 100여 편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작품

연극의 3요소 중 하나가 관객이다. 서울에서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도 관객이 찾아주지 않아 어려울 때였으니, 천안은 더 열악하기만 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점에 경의를 표하며, 연극배우로 살아온 감회의 말씀을 요청하였다.

“단 두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한 적도 있고, 단 두 명의 관계자 앞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힘든 줄 모르는데, 어린 후배들이 실망할까 다독이느라 힘들었어요. 단체장을

맡아 잘 먹이지도 못하고, 그들이 연극을 포기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극 정신을 잃지 말자면서 최선을 다했지요."

연극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드라마나 영화는 다시 촬영할 수 있지만, 연극은 생방송과 같아서 절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사를 열심히 외워도 한 사람이 실수하면 엉킬 수밖에 없다. 상대역이 매우 노련하다면 실수한 대사에 맞게 임기응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남 회장은 실수를 떠나 본인의 연기가 마음이 들지 않은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1971년 극단<가교>에 입단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어언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이다. 잠시 공백기가 있었지만, 남 회장이 출연한 작품은 적어도 100편을 훌쩍 넘긴다 하니 실로 엄청나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잊을 수 없는 작품을 한 편만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망설임 없이 2005년에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꼽았다.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무대에 서야 하는 주인공 탄성 주지스님의 역할이었다. 골수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여러 날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며 각원사에 가서 스님들의 일상을 지켜보아야 했다. 대사의 분량이 참으로 엄청나서 그걸 외우는 것도 힘들었다.

작품성으로 보아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는 천승세 작가의 '만선'을 꼽았다. 국립극장의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대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냥 한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질 정도였다. 주인공의 강인한 의지와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잘 담긴 작품이라고 하였다.

반세기를 넘긴 연극인생을 회고하며

남 회장은 채필병과 함께 천안 연극계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 막역한 인연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1년 선배이지만 깍듯이 선배 대접을 하며, 한 번도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신하였다. 우스개처럼 하는 말로 위계질서가 확실한 세 단체로 해병대, 호남 향우회, 고려대 동문회를 꼽는다는 말을 상기하였다. 사실 연극 단체야말로 이 말을 초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차용하여 남 회장님의 연극 인생은 표현해 보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내 과거의 삶은 여러 편의 연극이었다. 앞으로의 삶도 연극일 것이다." 멋진 말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 물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또 걸으시겠습니까?"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대답은 "예!"이었다. 아니, 덧붙이는 말씀은 자못 숙연하기까지 하다. "나이를 더 먹어도 계속 무대에 서고 싶고, 무대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연극배우로 활동을 시작해서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된 사람이 많지만, 그는 연극배우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한, 그가 생각하는 연극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열연 중에 관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연기를 할수록 그 재미에 빠져들게 된다.

앞으로의 소망은 지금까지 노역(老役)을 주로 맡아서 젊은이 역을 맡아보고 싶다고 한다.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더라도….

연극배우로 살아온 삶은 후회가 없어도 아쉬운 점은 있다. 여러 차례 단체장을 맡는 동안, 재정 형편으로 후배들에게 잘 먹이지 못한 것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다. 70만 인구의 도시 규모에 비해 소극장이 적고, 대학 도시인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도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가벼운 질문을 드렸다. 취미는 낚시와 독서, 생활신조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시립무용단도 있고 시립교향악단도 있으니, 시립극단도 설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 한다면, 100여 편의 연극 무대에 선 남 회장은 이미 100번의 다양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갈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인터뷰어_ 김세관>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백 남 일 (1939년생)
천안시 동남구 구성 17길

은은한 삶의 향기를 문학으로 수필가 백남일



천안은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일찍이 '천안수필문학회'가 결성되었다. 해마다 동인지를 발간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보람으로 어느덧 23집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처음에는 수필가로 등단한 회원이 1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0명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양적인 팽창은 괄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문인으로 등단하는 관문의 턱이 낮아졌다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백남일 선생님이다.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더 열심히 쓰기 위해 등단의 절차를 밟으라고 후배들을 독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고 보면 그는 천안 수필계의 대부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을 전공한 그는 수백 편의 수필을 집필해 왔고,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선별해 세 권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그뿐이 아니다. 지역 문학 단체장으로 봉사도 했고, 큰 상도 많이 받을 정도로 중앙 문단에서도 인정하는 수필가이다. 그가 교육자이자 수필가로 살아온 이력에는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완고한 조부님께서 종손은 고향을 지켜야 한다며 크게 반대하는 바람에 대학 진학이 한 해 늦어졌던 일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4년 뒤 학부를 졸업할 당시에는 산업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거세게 일던 때인지라 젊은 혈기 하나만 믿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사업가로 성공했다면 그가 수필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젊어서는 시인이 되고자 박목월 은사님의 시심(詩心) 속에 빠져들기도 했으나 운문에선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뒤에 수필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천안을 대표하는 수필가로 존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완고한 조부, 어렵게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다

선생의 고향은 보령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웅천고을이다. 이곳은 남포 백씨의 집성촌으로 고조부 때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수시로 내려가 고택을 건사하고 있다. 조부님께서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고 지게를 벗어놓을 줄을 모른다고 하여 '지게부자네'란 닉네임이붙을 정도였다. 그런 근면성을 바탕으로 부농이 될 수 있었다.

부친 백낙우 씨는 영농을 하며 향의(鄕醫)로 불려 다녔기에 경제 사정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모친 김분례와의 사이에서 3남 4녀 중 셋째로(남자로는 첫째) 태어나,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의 대중교통은 기차가 편리했기에 예산을 선택하여 예산중학교와 예산농고를 다녔다.

너무나 완고한 조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고교를 졸업하고 1년은 대농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대학 진학의 꿈이 좌절된 실망감 속에서의 고된 노동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렵기만 하였다. 그 고충을 부모님께 말씀드린 결과, 조부의 눈을 속이고 수덕사에 칩거하며 1년간 진학 준비에 매진하였다. 당시 고시파 수험생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다행히 원했던 대학교에 지망하여 합격의 감격을 누렸다.

교과서에서 배운, 말로만 듣던 청록파 시인을 대학교에서 만난 감격과 박 교수가 세간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향토색 짙은 서정시에 매료되어 시작(詩作) 과정에 천착했지만, 당시는 등단의 문턱이 높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공부가 수필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추호도 후회가 없었던 교육자의 길

대학을 졸업하고 시작한 식품가공업은 생산과정은 순탄했으나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낙향길에 천안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던 죽마고우를 만났다.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친구는 교육자의 길을 강력하게 권유하였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상의하니 대환영이라면서, “아들이 선생님 소리를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셔서 쉽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천성중학교 교사로 3년, 같은 재단의 천안상고에서 25년, 교감으로 승진하여 천성중학교에서 4년의 교직 생활이 이어졌다. 이제 생각하니 당시의 선택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혀 권태기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 어쩌면 천부적으로 적성이 맞는 직업인 듯하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한 교육자의 길이었지만, 추호도 후회가 없는 보람과 만족을 선사받았다. 사립학교여서 이동 없이 주로 상고에서만 근무를 했다. 대학 진학자가 많지

않았지만, 상업고등학교여서 주로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성공한 제자도 많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같이 천안에 살면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그 외에도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스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상업고등학교는 완성교육기관이란 점에 착안하여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제자도 많았는데, 잘 살고 있다는 제자들의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쁜 일이다. 다른 일에 종사했으면 누리지 못할 일이고, 바쁜 사업을 했다면 작가가 되기는 어려웠지 않았는가 한다.

문학 과목을 전담하며 수필가로 등단

선생이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문학 과목을 전담하게 되었다. 은사이신 유명 시인이 사회에서 추앙을 받는 것을 보고 시인의 길을 희망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패를 맛보았다. 바쁜 직장 생활에 글쓰기를 멈추고 있던 중에 새삼스럽게 수필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백하게 표현하는 수필은 흔히 '생활인의 문학'이라고 한다. 백남일 선생은 생활의 지혜를 잉태할 수 있는 '여백의 문학'으로 표현하며, 나름대로의 수필론을 펼쳤다. 인본주의가 수필 창작의 바탕이 되어야 하며, 글쓰기가 결코 심심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필을 다른 장르에 비해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듯한데, 이러한 면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좋은 작품의 세 가지 조건으로 올바른 생각(사상), 그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휘력의 확보, 분명한 주제가 드러나게 하기를 꼽았다.

그의 역량으로 볼 때, 등단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10여 년이 흐른 1994년에『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였다. 그후 천안수필문학회, 충남문인협회, 수필과비평작가회 등에 참가하며 활동 범위를 넓혔고 더욱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왔다.

훌륭한 세 권의 작품집, '베스트에세이 10'에 선정되는 영광

요즈음 등단하면 바로 작품집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첫 작품집의 발간은 좀 늦어졌다. 완벽주의 성격 탓으로 여겨지는데, 2000년 선우미디어 이선우 사장의 권유로 『여백의 철학』 출판이 이루어졌다. 여백은 단순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은 10년 만에 수필선집 『억새들의 춤사위』를 선보이게 된다. 이는 현대수필가 100인선 간행위원회의 특별한 선정 과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매우 영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쓰는 보람을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 예전의 직장 선배였던 최병호 수필가의 도움이 컸기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다시 9년이 지나서, 천안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제3 수필집 『허공』이 출판되었다. 원숙미를 보이는 주옥같은 작품을 선별해서 낸 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대표작 하나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표제작인 「허공」을 꼽았다. 여기서 허공계(虛空界)는 진여(眞如)를 비유한 것으로, 한결같은 진실이 만공(滿空)한 상태를 뜻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월간지 《좋은수필》에서 그의 작품 「민들레」를 제5회 베스트에세이 10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시상식은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강한 주제의식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문단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변은 실로 특이하고도 의미심장하였다.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내용을 글로 옮기면 좋은 수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곧 사람이다.”란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한 작가 나름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다.

근면은 만복이 찾아오는 지름길

시간이 길어졌지만,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다. 취미는 바둑이다. 누구나 승부욕을 갖게 마련인데, 점심값 내기 바둑에서 패배하고 이긴 것보다 더 흐뭇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즐기고 싶다 한다. 바둑은 정신 수양에 좋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은 “근면은 만복이 찾아오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을 새삼 명언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아무래도 조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이 아카이빙 작업은 자손들에게도 큰 선물이기에, 자손들에게도 한 말씀을 남기시라고 요청했다. 이미 강조한 말이라며,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동기간의 우애에 금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한 덕분인지, 아직까지는 자식들의 우애가 돈독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손들을 바라보게 된다.

구술하신 내용 중에서 지면 사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 그의 작품 중에서 여러 작가의 단행본 선집『명수필』에 실린 <어떻게 살 것인가>의 소재가 된 내용이다.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인 민병갈 원장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보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다.

오래 글을 써 오셨는데도 퇴고는 여러 번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놀랍다. 허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젊을 때 조심해야지, 무심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 엄청난 고생을 한다.”라는 말씀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의 문학단체장으로 봉사한 내용과 수상 경력도 대부분 생략되었음을 밝힌다.

<인터뷰어_ 김세관>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안 창 옥 (1948년생)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창의와 열정으로 한평생 문화활동가 안창옥



출생과 성장 과정

안창옥 해솔문화다큐재단 대표는 1948년 당진군 순성면의 가재골에서 태어났다. 몽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개천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의 농촌이었다.

부모님은 마을 중앙의 명당자리에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살았지만, 시대적인 아픔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셈이다. 부친 안병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당진시에서 손꼽히는 인재였다. 그러나 6 · 25 전쟁 후 혼란기의 세파에 휘둘리느니 고향에서 안전하게 지내라는 조부의 뜻에 따라 고향 마을에 남은 분이었다. 술을 과하게 즐긴 탓에 간질환으로 요절하셨다. 모친은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갈 것을 염려하여 일찍 결혼하셨다. 그래서 열여덟 이른 나이에 안창옥 대표를 낳으셨다. 상부한 뒤 홀로 5남 1녀를 키우고 가르치며 고생하셨다. 다행히 신앙생활로 어려움을 견디며 장수하셨다.

어린 시절의 안창옥 대표는 5킬로미터쯤 떨어진 면천면의 초 · 중학교에 걸어 다녔다. 등하굣길에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묘 앞을 지나며 그를 본받고자 다짐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다닌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복지겸의 딸이 심었다는 11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지금도 청청하다. 그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간유를 받아먹던 일이다.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새끼제비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커다란 주사기에 간유를 담아 두세 방울씩 떨어트려 주곤 했다. 비릿하면서도 뒷맛이 고소하던 그 맛, 전쟁 후 한국재건단에서 지원하는 분유도 생소했다. 밀가루 같은 분유를 반죽하여 밥솥에 쪄 먹고는 배탈이 나서 고생하던 일도 생생하다.

문학의 싹이 트다

고등학교는 서울로 유학하여 덕수상고에 다녔다. 그때 문예 신문반에서 활동하며 반장으로서 교지를 편집하고 학교신문 기사를 취재하며 문심을 키웠다. 인근 여학교와 합동으로 시 낭송대회를 열기도 했다. 같이 활동하던 친구 여섯과는 지금까지 매월 만난다. 변치 말자는 의미로 흰돌, 판돌, 큰돌, 청돌, 장돌, 삼돌 등으로 호칭하며 우정을 돈독히 이어오고 있다. 칠순 때는 1인당 70쪽씩 배정받아 『돌들의 여행』이라는 기념 문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고3이 되어 진학반에 편성된 안 대표는 아버지가 졸업한 고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자 '꼭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생각으로 후기 대학입시나 재수를 포기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했다. 15:1인가, 경쟁률이 꽤 높았지만 합격하여 도화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마침 예비군이 창설되는 바람에 허드렛일이 많았다. 그 외에도 아침 일찍 청소하랴, 세금 걷으러 다니랴, 민원인 상대하랴, 눈코 뜰 새 없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 재경직으로 환직시험을 거쳐 성동구수도사업소로 근무처를 옮기게 된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입영 영장을 받고 다시 고민했다. 이왕 군복무를 할 바에야 장교로 가야겠다 싶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마침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이후 일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단체구보 중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동기생도 여럿 있었지만, 안 대표는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소위가 되어 최전방 21사단에 배치받는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지에다 소대원 중에는 문맹자도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시 연대군수장교로 발탁된다. 소위가 대위로 진급한 격이니 파격적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그렇게 11년간의 군 생활을 하며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다. GOP 중대장 시절에는 3인조 대간첩 소탕 작전을 지휘했다. 그때 우리 아군도 한 명이 희생되었는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순천에서 달려온 부모의 의연하던 모습은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다. 정훈병과 소령으로 근무할 때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보도검열관으로 활동했다. 전남도청 건물 2층에서 보도 기사를 검열했는데 점차 시위가 격렬해지며 급기야 시민에게 포위되어 여러 가지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대구 2군사령부 정훈참모부에서 정훈교육을 담당한 일도 소중한 경험이다. 예편하여 호서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광주일보사의 월간《예향》창간 15주년 기념 '쓰고 싶은 이야기' 공모전에 그때의 생생한 체험인「도발자의 최후와 내란음모의 전말」을 써서 우수상에 당선, 당시로선 큰 금액인 상금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군 생활의 어려운 와중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대학원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했는데「고령화사회의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쓴 것이 나중에 문화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문화사업 기획자로서의 생활

전역 후에는 호서대학교 군사교육 교관으로 부임했다. 교관으로 1년여 근무 후 교무, 기획, 총무과장, 복지재단 일 등으로 30여 년간 일하며 대학발전에 기여했다. 당시 충남테크노파크 산학협력 사업의 산파로서 중심 역할도 했다. 그 일로 일본으로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정근모 총장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만나며 봉사 활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호서대 퇴임 후 본격적으로 문화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에 해솔문화다큐재단을 설립했는데 마침 충청남도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였다. 장로이기도 한 안 대표는 평소 주변의 소외계층을 살피던 중 인근 아파트에 집단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게 된다. 그들을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2,2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대개 신청금은 깎이기 마련인데 오히려 300만 원을 증액 지원받았다. 그 예산으로 사할린동포를 초청, 구성동 자택에서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우리 음악을 향유하고 전통음식인 인절미를 떡메로 쳐 만들고 다식도 박아보게 하였다. 그네를 타며 그립던 고국의 정취에 눈물을 글썽이던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기구한 운명의 기록인『디아스포라 천안』을 발간하여 널리 알렸다. 이 책은 반향을 일으켜 여러 신문 방송의 주목을 받았으며 KBS한국방송의 집중 취재에도 응했었다.

"… 고국으로 갈 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혹은 굶어 죽고, 혹은 얼어 죽고, 혹은 미쳐 죽는 사람들이 언덕을 메우건만, 배는 오지 않아 …"

이제 그들 대부분은 동토에서 생을 마감하고 2세들이 뒤늦게나마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영주 귀국했다. 안 대표는 그들을 돕는 모임 '사사모'를 결성하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들과의 교류를 이어갔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다방면의 문화 활동을 하는 그는 사할린동포 돕기 운동 외에도 충남학 강사로서 천안시민에게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역사 인물 선양세미나도 5회 실시했으며『호서선비 납시오』라는 책도 발간했다. 마당극 대본인『꽃담』도 발간했다. 꽃담은 아직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돈암서원의 꽃담을 관찰,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했는데, 충남정신의 근원이라고 하는 지부해함(地負海涵), 박문약례(博文約禮), 서일화풍(瑞日和風)이라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2023년 현재는 문화사업의 맥락에서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그대 왜 거기에 있나』를 집필 중이다. 또 텃밭 분양사업도 몇 년째 진행하고 있다. 도시농부를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 로컬푸드 빠금장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맨발 걷기, 허브 재배하기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텃밭에서 진행 중이다. 그 일을 하면서 텃밭에 오시는 분들의 흙에 대한 뿌리 깊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여 치유농업으로 이어갔다.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워서 농업회사법인 해솔어메니티를 설립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때그때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치유농업학과 1년 과정을 마쳤다. 천안치유농업연구회를 결성하여 회장직도 맡고 있다. 천안시농촌마을지원센터의 마을 활동가(기자)로 일하며 천안시 신활력 농촌플러스사업추진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로컬푸드허브 해솔카페도 운영 중이다.

집필활동도 열정적이다. 천안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현재 2024년 판 『천안의 교육』을 집필 중이다. 《충남신문》의 칼럼니스트로 시사, 사회, 풍속을 전역 소령의 군대정신으로 때로는 신앙인의 자애로운 시선으로 촌평하여 연재 중이며 신안수필문학회, 덕향문학회 회원으로 문학작품 창작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 10여 년 전부터 웰다잉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자살 예방 교육, 시니어 죽음준비학교, 메멘토리독서회,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참여했다. 충남웰다잉협회 지부장으로도 중추적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다른 일들이 겹쳐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열정

남들은 퇴직 후의 시간이 무료하다고 하는데 안창옥 대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지낸다.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며 이타적 삶을 살아온 그에게 지금까

지 살아오시면서 이정표 삼으신 좌우명을 여쭸더니 가훈을 소개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도 여건에 맞는 감사와 베풂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 한다. 호서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강석규 총장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 가진 자는 더욱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욱 없어지리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来)도 마음에 새기며 언행에 정을 싣는다.

오늘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을 테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버지께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 한잔 대접한 일이 없다, 좋아하시던 술도 대접하며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한다.

그런 따듯한 심성을 가진 분이기에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벽잠을 아껴가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인터뷰어_ 김용순>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이 명 환 (1947년생)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시인으로 서예가로 시 낭송가로 만능예술인 이명환



경찰관의 둘째 아들

시인, 서예가, 시 낭송가로 살아가는 청암 이명환, 그는 충남 청양에서 1947년 아버지 이수원과 어머니 임갑순의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지만, 순경으로 출발해서 경감까지 지내셨다. 6 · 25 동란이라는 혼란한 전쟁기를 거치면서 당시 경찰들은 민심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찰직에서 퇴임 후 면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할 정도로 바른 경찰이었다. 유도 3단에 검도 2단으로 가정교육도 절도있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구부정한 모습으로 걷는다든지 밥상머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지 않으면 그 즉시 불호령을 내렸다.

아버지가 대나무 회초리로 가정교육을 한 반면에, 어머니는 현모양처로서 오로지 자식을 위하고, 불같은 아버지의 성품을 맞춰가면서 이웃까지 살핀 온화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명절이 돌아오면 옷감을 넉넉히 떠다가 손수 옷을 지어서 식구들은 물론 어려운 이웃의 빔까지 챙겼다. 이웃의 제사나 생일을 기억하고 챙기며 동네에 큰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으레 과방을 도맡아 잔치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하였다. 1993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사고 낸 사람의 딱한 사정에 보상금 2,500만 원을 되돌려준 일도 있다.

그리운 고향 청양

선생의 어린 시절 고향 모습은 아름답기만 했다. 등하굣길에는 노란 꾀꼬리가 노래하고 밤이면 소쩍새가 구슬피 울었다. 이른 봄이면 언 땅을 뚫고 뾰족뾰족 움트는 새싹을 보며 꿈을 키웠다.

6 · 25의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초소 앞을 지날 때 “서, 누구냐!”라고 검문받던 기억, 하늘에서 굉음을 내던 B29 폭격기, 그때마다 콩밭으로 숨던 일 등이 떠오른다. 6 · 25 사변이 터지던 날 남동생이 태어난 일도 어렴풋하다.

6 · 25 당시 아버지는 경찰 신분이었다. 자식 교육도 경찰식으로 철저하여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첫째는 법관, 둘째 이명환 선생은 외교관으로 키우려고 작정해 놓으신 터였다. 그런데 6.25 사변이 발발하던 날 셋째가 태어나자, 망설임 없이 군인으로 키우리라 정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형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관으로 퇴임했고, 동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이명환 선생만은 공부를 게을리 해서 외교관이 되지 못했다. 본인은 그리 말하지만, 현재 이명환 선생은 예술계의 외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각 분야 예술가의 근황은 물론 안부를 챙기며 서로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궂은일에는 위로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양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이회장을 맡아 교사를 대신하여 운동회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책 읽기, 글짓기 등도 잘했다. 지금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지만, 당시에도 웅변을 잘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서울에서 유학했다. 그런데 서울 중동중학교에 다니던 중 누나가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고, 형은 학업 중에 군대에 가게 된다. 어린 이명환 선생만 홀로 타지에 남을 수 없었기에 다시 청양으로 내려와서 학업을 계속한다. 청양으로 돌아와 보니 서울에서 공부하던 그의 실력을 따라올 친구가 없었다. 자만심에 그때부터 공부를 게을리하게 된다. 중3 때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현대연기학원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때 도금봉, 김진규, 최무룡 등에게 강의를 들었다. 요즘 국민배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안성기도 그때 같이 강의를 들었다.

사업가로서의 중년 시절

연기학원을 다니던 그는 다시 청양으로 돌아와서 중고 시절을 보낸 후 단국대학교 야간부에 입학했다. 2년 수학한 후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복학하여 졸업했다. 이후 사회인이 되어서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지점을 두고 삼화철강, 삼화사무용가구 회사를 경영했다. 한창 사업이 잘될 때는 일산 홀트아동복지회에 거금을 희사한 일도 있다. 사치 부리지 않고 언제나 작업복에 낡은 구두 차림으로 한 푼이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며 유가증권 할인을 못 하게 되었다. 결국 부도를 내고 1년 정도 영어의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 기간이 단절의 시간이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회에서의 선행 경력을 인정받아 교화위원으로 지냈다. 그때 절감한 것이 바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었다. 그가 담당한 청소

년들을 하나같이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크리스마스 때는 그들과 창틀에 매달려 함께 울었다. 그 아이들이 절규하듯 불러대던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나는 너를 보았지….'하는 노랫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후 아파트 신축하는 조강그룹이라는 업체에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기했지만, 청구그룹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연쇄 부도를 맞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천안으로 오게 된다. 20여 년 전 일이었다. 이후 천안에서는 인조 잔디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생업을 이어갔다.

예술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다

요즘은 사업은 뒷전이고 시 낭송가로 활약이 대단하다. 사업을 하면서도 늘 영혼의 허기를 느끼던 그는 어느 날, 시 낭송대회 소식을 접하게 된다. 포석문학제 시 낭송대회였는데, 화선지에 붓으로 신경림의 「갈대」를 정성껏 써 들고 나가 읽었다. 결국, 시 낭송이 뭔지도 모른다는 혹독한 심사평을 들어야 했다. 그때 일을 거울삼아 연습을 거듭한 결과 재능방송과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시 낭송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서 2등을 하기도 했다. 그 일로 KBS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시 낭송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 창작에도 마음이 끌렸다.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청소년기부터 문학에 관심은 많았었다. 월간지 『소년』에 투고한 그의 글이 활자화되기도 했었다. 장년이 되어 경남 거창의 수승대 인근 한 건물을 별장으로 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집을 많이 읽었다. 시를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민망한 일이나 그렇게 독학으로 익힌 그의 시가 여기저기에 시비로 세워져 있다고 소개한다. 세종시산림조합 정원에 오석으로 '도원골 동지들'이라는 시비가 있고. 천안삼거리 마틴공원에 '7월의 장미'라는,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미군을 추모하는 시비가 서 있다.

시 낭송이나 시 창작 중 어느 분야가 더 매력이 있냐는 질문에 인고의 습작기를 거쳐야 하는 시 창작에 비해 시 낭송은 기교만으로도 가능하기에 둘 다 나름의 길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다만, 서예와 서각을 비교하며 시 창작의 어려움을 부연했다.

그는 축시나 행사시 등 목적이 있는 시를 주로 쓴다. 행사에 어울리는 축시나 조시를 써서 낭송하여 행사의 품격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시 창작도 즐기지만, 시 낭송에 더 이끌린다.

이명환 선생은 서예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 서예를 시작한 계기가 재미있다. 어려서부터 웅변을 잘하는 그에게 동네 사람들은 국회의원감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커가면서는 본인도 은연중에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명절이나 신년 등 특별한 날에는 화선지에 또는 부채에 좋은 글귀나 아름다운 시를 적어 1,500여 명에게 전하며 본인을 알렸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서예를 매체로 한 친교는 지금도 이어가는 중이다. 틈나는 대로 서점에서 서예 체본을 사다가 틈틈이 읽으며 더 좋은 글씨를 선물하고자 노력한다. 전문가의 반열은 아직 저만치 멀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즐긴다.

예술활동가의 길

선생은 정계, 재계, 학계, 특히 예술계의 사람들과 폭넓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 인맥이라는 네트워크가 지속될 텐데, 오랜 기간 각계의 여러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는 비결을 물었다. 친교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좋아해야 한다. 다행히 성격적으로나 여건이 맞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과 친교를 나눈다. 분수에 맞게 처신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다. 상대방이 좋아해 주므로 오히려 보람 있다. 마흔둘 나이에 부하 직원의 부탁으로 시작하여 지금껏 300여 쌍 신랑 신부들의 주례를 서며 참사랑을 주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남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그를 이끈 멘토는 부친이라고 여긴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위인전을 권해준 일이 특히 감사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 전액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일도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효도는커녕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이제는 소용없지만, 선산을 가꾸며 고향의

생가에 영정을 모셔놓고 타시던 자전거, 신으시던 신발까지 유품을 간직하며 기리고 있다.

시인으로, 서예인으로 활동해 오며 특히 시 낭송을 통해 여기저기 울림을 주는 예술활동가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이문열의『금시조』를 늘 생각한다. 금시조의 주인공 고죽이 자신의 작품들을 회수하여 마당에서 불태우는 장면을 채찍 삼는다. 예술인들은 내공을 깊이 쌓아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작품을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부인 이의경을 급환으로 떠나보내고 더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월영루, 달빛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없듯 그곳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달빛 지듯 가고 싶다. 사놓고 아직 못 읽은 시집 500여 권이 그의 가까운 벗이다.

<인터뷰어_ 김용순>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이 종 각 (1937년생)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현대 조각을 말하는 한국 조각계 거장 이종각



리각미술관 (Ligak Museum of Art) 홈페이지에 들어서면,

「조각가 이종각 선생의 예술적 열정과 성취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념적 성격의 미술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서울로의 문화집중현상을 보완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안적 성격을 갖는 '지역'의 현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외조각공원과 실내전시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현대미술의 실험들을 담아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작품을 넘어 천안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구현하는 문화센터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쯤에서 장마가 시작됐다는 예보를 귀에 담고 서둘러 선생을 봬야겠다며 전화를 드렸다. 선뜻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살필 부분을 정리하려는 마음에서 들른 미술관 홈페이지 첫머리에서 만난 글이다.

천안 시민들의 휴식처인 태조산 공원, 하지만 지근거리에 문화의 숨결을 들이킬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안다고 해도 선뜻 미술관으로 다가서려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된 데는 선생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다. 천생 조각가로 작품 세계에 몰입할 뿐 드러내는 데는 도통 서투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기 PR엔 '허당'이란 얘기다. 그래서 30년 넘게 그의 손길로 빚어낸 이곳 미술관이 고품격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의 커다란 문화자산이라는 사실이 더욱 새롭다.

생명의 에너지를 시간 속에 응축해 내다

1937년 천안과 경계인 청원군 오창면 두능리 두무실에서 태어난 선생은 4살 되던 해, 천안시 성황동으로 이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를 거쳐 천안농업고등학교(현재 천안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56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천안시 봉명동의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던 조부의 가업을 잇지 않고 사업에 매달렸던 부친 이용기 씨는 이웃마을 동면 구도리에 살던 어머니와 혼인해 외아들인 선생을 낳았다. 그 후 서울 등지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등 평생 사업에 몰두하며 사셨다.

중학교 시절,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선생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고 미술대학 진학을 꿈꿨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색약이었던 그에게 회화를 펼쳐야 하는 미술과 진학은 제약이었다. 해서 그는 색약과 무관한 조각과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이러함은 그를 한국 조각의 거장으로 만들게 된 단초가 되었다.

홍익대 미술대학 조각과를 입학한 후, 2학년, 3학년 때 연거푸 국전에 작품을 출품, 입선을 하게 되고, 졸업반이던 4학년 때 구상 조각으로 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무릅쓰고 근근이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힘들게 졸업한 것이 1961년이니 수업 시기는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이 되는 셈이죠. 그 때라면 우리의 미술이 비로소 본격적인 현대미술의 기치를 내세운 시기로서, 특히 조각분야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시절이라 졸업 후에도 생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는 전공에 대해 남다른 끈질김과 집념을 보여주었으니, 한번 작업실에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근 채 며칠이고 밖에 나오지 않은 일이 그러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작업에만 전념했던 그의 열정과 의지는 경희대학교 조용식 총장의 눈에 들었고, 강사 자리를 얻게 되는 행운과 함께 33년 교수로, 학장으로의 긍지를 이어가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만의 고집스런 작가적 기질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각분야의 지나친 상업성 내지 한탕주의 등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동인이었는지 모른다.

대학시절부터 주력해온 테마는 용접에 의한 철조, 몸통에서 더 이상 한 점 살도 발라낼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골격만 남은 인체들인데, 남자와 여자,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가족들…. 각자가 최소공간을 겨우 메우면서 최대 공간에다 율동의 파장을 던지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휘어진 레일, 공간 확산과 응축…'한국의 자코메티'

경희대 조교수 시절인 1979년, 초빙 연수차 떠난 덴마크의 왕립미술학교 2년의 시간은 그의 작업이 '확산공간'시리즈로 변모하여 나타나게 만들었다.

"표면처리가 마치 거울처럼 매끈하여 어느 정도 공예품적인 함의를 갖고 있던 레일연작은 유럽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유럽의 현대 조각은 무엇보다 조각을 하나의 덩어리(

매스)로 보고 대결하여 그 극복의 흔적이 역력한 점이 압권이었어요. 나 자신 그동안의 작업에 대해 돌아다보는 계기였지요. 60년대부터 이어오던 일반적인 조각 작업은 덴마크 2년의 유학시절을 통해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브론즈에 매달리는 비구상을 추구하는 예술 세계에 접어든 것이죠."

선생은 경희대 미대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후, 현재 명예교수로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 62년, 65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의 역량은 1990년 김세중 조각상과 1991년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케 했다. 그런가하면 국전과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등 심사위원을 두루 역임한 한국 조각계의 거장이다.

새로운 금속의 신화

선생의 작품은 10년을 주기로 패턴의 변화를 보여 왔다. 60년대 작품은 구상작업으로 철제를 이용하여 여인상이나 동물상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물체의 구체적인 모티브의 본질적인 부분을 철조용접을 통해 표현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구상적이고 선적인 철조 조각은 본격적인 작품으로 나가기 위한 과외의 작품으로 약 10여 년간에 걸쳐 지속 되었다.

"70년대 들어 <레일>을 시리즈 작업으로 시작했어요. 토막 난 레일 부위를 여러 형태로 굴곡 시켜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결정지우는 작업이었죠. 레일의 기본형을 구체적인 모티브로 하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유형화한 것으로, 레일이란 강철의 본질적 속성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킴으로 안정된 형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였지요."

조각에 문외한인 인터뷰어의 관점에서는 선생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더라도 <레일> 연작의 의도성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다.

"이는 레일이 있기 때문에 구상적이지만 그러한 상식을 벗어나서 순수 조형적으로 생각한다면 비구상적이에요. 레일 시리즈는 덴마크의 왕립 아카데미에 초빙 연수를 떠나던 79년까지 약 5~6년 가까운 시기를 통해 지속되었어요."

80년대 들어 선생은 박스형과 파이프형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 형을 이끌어내는

구조체 형태의 확산공간이라는 작업을 진행한다. 80년대 후반, 조각과 그 조각이 놓이는 환경과의 관계가 새로이 부각되는 기술적 형상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산공간 시리즈는 앞선 작품들에 비해 형태 자체로 환원되며 구조의 단순화와 형태의 단순화를 동시에 이루었어요."

작가로서 원숙한 경지에 이른 90년대 들어서는 일체의 구조적 형태를 배제하고, 단순한 덩어리 자체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응축형의 변주는 선생의 후기 대표작 중 하나로 이미지화했다. 육중한 구조물이 진흙더미를 밀고 나갈 때와 같이 극적 긴장감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관람객들과 교감의 통로를 여는 공간

리각미술관 정문을 지나 길을 오르다 보면 누구라도 입이 떡 벌어지게 된다. 넓은 대지 위 야외 전시공간은 어지간한 조각 공원을 능가하는데, 주변 태조산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조경이 한데 어우러져 퍽 인상적이었다. 실내 전시 공간도 빼어나다. 850여㎡(260평)에 이르는 전시 공간은 높은 천장, 투명한 채광, 입체적인 공간 연출 등 현대미술을 수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보인다.

"리각미술관은 입체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해 다양한 현대미술을 수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안내를 맡은 이상원 관장의 말이다.

미술관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선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도 리각미술관을 다른 곳과 차별화시키는 힘이다. 1984년 한국미술관과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그의 개인전은 평론가 이일, 이경성 등 한국 미술평단의 대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당시 경희대학교 교수시절, 오로지 작업, 한 가지에 매달리던 그에게 '확산 공간' 연작은 일약 한국 조각계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왔다.

실제로 조각이 갖는 재료의 표피성과 재료감을 표출하는 데 주력한 그의 작업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보아도 그 존재감이 상당하다. 미술관 안팎을 수놓은 그의 작품은 당장 지금 제작했다고 보아도 믿을 정도로 세련된 조형 어법을 자랑한다. 여기에는 한 시절의 유행에 민감하기보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천착한 선생의 고집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은 1993년 3월 개관했어요. 야외조각공원 15700㎡(4750평), 지상 2층의 실내 전시공간 850㎡(260평)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은 그 규모면에서 결코 작은 편이 아닙니다."

설립된 지 30년. 천안에는 그러나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미술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1층 전시장 왼쪽에는 'Cafe M'이 있다. 커피를 비롯해 와인과 맥주를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테라스공간이 조각공원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미술관을 아끼는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단순한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 말이에요. 다양한 조언 속에서 우선 작은 소통의 공간을 곁들였어요."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고민일 터, 2009년 12월 오픈해 지금은 제법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래서 조각공원이 시작 됐지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생의 작품에 의존해 온 미술관의 컬렉션과 전시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할 텐데 다행히 그 어떤 공간에 비해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요소를 지녔다는 점이 리각미술관의 장점이 아닐까 싶었는데, 선생은 다르게 보고 계셨다.

"천안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방점을 두었어요. 운영하기에 따라 서울과 충남 지역을 잇는 문화적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이에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지척에 자리한 아라리오 갤러리의 사례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주변에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등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봐야합니다."

새로운 꿈, 천안의 문화 커뮤니티

역시 전문가는 달랐다. 일반인이 보는 각도와는 전혀 달랐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의 틀과 보는 각도가 달랐기에 누구도 생각지 않던 조그마한 지방도시 한 귀퉁이, 그것도 산자락에 가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법한 산등성이 위에 조각공원을 만들었으랴. 1층 전시실에서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여기 저기 흩어진 소품들에서 작가의 변모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잠시 눈을 돌려 야외조각공원으로 시선을 멈추자, 옆에 있던 선생의 큰아들인 이상원 관장이 안내를 하겠단다. 실내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시원한 잔디밭 위에 놓인 '확산 공간'은

견고한 대지 위에 턱 버티고 서서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조각 역시 미술에 속하는 것이니 시각예술에 해당하겠지만, 오히려 촉각예술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사실은 그의 작품에 퍽이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선생의 조각세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확산 공간' 시리즈는 태조산 묵직한 산세만큼이나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한껏 예술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선생의 미술세계, 나아가 그동안의 업적은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증명을 하고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각세계는 6번에 걸친 개인작품전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냈다. 1975년 '갤러리현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2년 '선화랑', 1984년 '한국미술관', 1984년 '갤러리현대', 1990년 '호암갤러리', 1993년 '갤러리현대'에서의 개인전 등이다. 특히 한국조각50년전,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현대조각회전, 서울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미술의해 유네스코파리전 등 무수한 국내외전을 통해 '공간의 확산과 수축'이라는 조각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각미술관은 이제 천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각계가 주목하는 미술관이다. 미술관을 알리는 번듯한 간판도, 미술관에 접속할 만한 소통의 구조도 충분치 않지만, 선생의 미술적 역량과 명성, 시대를 앞서간 조각예술의 세계는 내일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터뷰 정리를 시작한다.

올해 87살이 되신 조각가 이종각, 그는 천안이라는 지역사회에 왜 미술관이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주는 작가 겸 문화전도사이다. 그의 생각을 온전히 그려내고 뒤를 받치고 있는 이상원 관장은 천안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를 꿈꾼다.

"서울에 편중된 이 땅의 고질적인 문제도 지역의 자생적 문화 움직임이라는 대안에 의해 극복될 게 분명합니다. 미술은 물론 다른 예술 장르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리각미술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꿈입니다."

자신 손으로 빚어낸 흔적이 고스라니 남아있는 작품들 속에서 마치 스스로 창조주임을 암시하듯 거대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듯한 힘과 시간의 흔적을 동시에 느낀다는 그가 다시

원초적 생명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을 묻고 또 다시 새로움을 펼칠지는 또 두고 봐야한다.

그러나 향후 작품세계에 대한 질문에 선생은 “자유롭고 욕심 없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신선 같은 말씀으로 대답을 맺는다.

<인터뷰어_ 이정우>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임 무 정 (1942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인문학 연구에 매진하는 향토연구가 임무정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연이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렇지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어느 지역과 맺게 되는 인연이 예측할 수 없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향이 경상남도 창녕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줄곧 서울에서 살아온 임무정 교장은 정년퇴직 4년 전에 동성중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천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향이나 오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는 4년 동안에 천안과 정이 들어서 어느덧 25년째 살고 있다. 이제 완전한 천안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임무정 교장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교육계에 투신하여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 야간 고등학교의 교사로, 두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소설가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고, 시집이나 수필집을 여덟 권이나 펴낸 임무정 교장을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권위 있는 큰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중앙문단의 문학지 편집주간을 지금까지 맡고 있으며, 향토연구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특별하다. 참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부친의 유능함과 모친의 교육열, 고교 진학은 서울로

그의 고향은 '우포늪'으로 유명한 경남 창녕이다. 선대가 300년 전 숙종 때, 정착하여 살아오고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500석 지기의 부농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은, 공부를 잘해도 고등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의 부친이 대구고보(경북고등학교 전신)를 거쳐, 경성실천부기전수학원(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신)을 졸업한 1세대 상업부기 전문인이 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의 모태, 삼성상회 이병철의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하였다. 따라서 고향은 창녕이지만 그의 출생지는 대구이다. 부친 임종택과 모친 정옥기 사이에 두 누님 밑의 외아들로 자라서 가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미 군정청이 들어서며, 부친은 고향인 창녕군 이방면의 초대 면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대구에서 태어난 임무정은 3세 때부터 시골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낙동강 상류의 강변은 그의 놀이터가 되어 아름다운 추억의 보고로 자리한다. 부친께서 이방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교장 관사는 그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학

교는 모교가 되었다. 중학교는 인근에 있는 옥야중학교로 진학했는데, 이호우 시조시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시조 “낙동강 빈 나루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를 배우며, 작가의 꿈을 꾸게 된다.

1956년, 임무정은 뜻밖의 천붕지통을 겪는다. 6 · 25전쟁의 선혈로 오염된 낙동강의 잉어회 때문이었다. 그로 인한 간디스토마에 당시는 특효약이 없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친의 교육열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서, 서울 대신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1962년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며, 조지훈 교수와 정한숙 교수를 만나게 되고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받으며 습작 과정과 함께, 고대신문 기자와 문학동아리 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한다. 특히 지조의 시인 조지훈 교수로부터는 지도를 많이 받는다. 조지훈 교수의 자택인 침우당을 드나드는 특별한 인연이 맺어졌고, 그의 필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첨삭 원고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재벌이 부럽지 않은 제자 부자, 추호도 후회 없는 교육자의 길

그는 교직을 선택함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시종 추호도 후회가 없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첫 부임지는 1966년, 수원에 있는 매향여자상업고등학교(매향정보통신고 전신)였다. 이후 인창고를 거쳐 1974년에는 입시지도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옮겼다.

그 후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근무 여건이 좋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1980년에 댁에서 멀어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안양 소재의 산업체 부설 야간고등학교인 풍명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이는 본인의 삶을 반추하며 가장 훌륭한 선택으로 꼽고 싶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명의식의 소산이었다. 편한 교육자의 길보다는 더 보람 있는 교육자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산업역군으로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향학열을 불태우는 청소년들이 배움에 목마른 한을 푸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는 2019년에 펴낸 수필집『아홉 개의 빈 그릇』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책 제목은 어떤 학생의 글 제목이기도 한데 간단히 소개하면 내용은 이러하다. 1975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일이다. 극빈자였던 가족은 무려 아홉 명,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

고 6남매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쌀은 물론 보리와 먹을 양식은 완전히 바닥나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지자, 아버지는 아홉 개의 빈 그릇을 갖고 안방으로 들어와 가족을 다 모이게 했다. 그래도 농약은 남아있었던가 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죽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농약을 아홉 개의 빈 그릇에 똑같이 따랐다고 한다. 전율마저 느끼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집대성된 이 책은 인터넷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산업체 부설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다른 교직원은 모두 공립으로 특채가 되었지만 교장만 예외였다. 새 직장을 찾기에는 애매하던 차에 신문에 난 동성중학교의 교장 초빙공고를 보고 천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곳에서 교육자의 길을 마무리하며 마음껏 교육 철학을 펼치게 된다.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이대부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었는데, 효과가 나타나서 보람을 느꼈다. 특별히 소개할 만한 내용도 있다. 시골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 입학식은 산 정상에서, 졸업식은 문예회관에서 성대하게 가졌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임무정 교장은 교직생활을 회고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재벌이 부럽지 않은 제자 부자로서 지금도 졸업생들이 훌륭하게 살고 있는 소식을 듣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한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선물을 ‘알맞은 가난'으로 표현하였다.

세 장르에 걸친 왕성한 집필과 문단 활동

중학교 때 이호우 시조시인을 만나 갖게 된 작가의 꿈에 따라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한숙 교수와 조지훈 교수의 문학 수업과, 고대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며 발표지면을 갖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5개 대학(이화, 숙명, 연세, 고려, 서울대)의 연합 문학동아리 활동도 큰 즐거움이었다. 『학생 국어국문학』을 발간하기도 하고, 시화전, 문학의 밤 행사를 함께 열기도 하였다.

작가들은 누구나 첫 작품집이 발간되었을 때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왕성한 집필 활동에 비해 개인 작품집 발간은 좀 늦어져서 더 감격적이었다. 1994년에 시와 산문을 같이 실

은 첫 작품집 제목은『믜다가 괼지라도 괴다가 믜지 마소』이다. 나머지 저서는 지면 사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열한다.

수필집『내 지나온 빈자리에 풀꽃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1995
수상집『참을 수 없는 그리움』- 2003
북경 명산 답사기『에코 베이징 마운틴』- 2010
문화유산 답사기『시혼이 깃든 명시의 고향』- 2010
수상집『당신 뜨락의 별빛 그림자』- 2014
시집『우포늪 따오기』- 2014
수필집『 아홉 개의 빈 그릇』- 2019

앞으로의 집필 구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금까지 지면(紙面)에 발표하고 책으로 묶지 못한 작품들이 매우 많은데, 그 원고를 정리하는 일부터 하고 싶다고 한다. 세 장르에 걸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애정을 갖는 장르는 수필이다. 앞으로 독자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천안수필문학회'에 참여하여 문단의 원로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의 작가 정신은 한 마디로 '사상의 심연(深淵)'이다. 이 내용은『당신 뜨락의 별빛 그림자』에 실린 '사상의 심연 들여다보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1세대 철학 수필가로 유명한 김태길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철학적 수상이 깃든 작품은 문화적 자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작의 비결은 '글쓰기의 생활화'이다. 등산과 여행을 즐긴 덕분에, 북경 명산 답사기『에코 베이징 마운틴』문화 유산 답사기『 시혼이 깃든 명시의 고향』도 빛을 보았다. 그는 또 메모광으로 자처하기도 한다. 항상 펜과 메모지를 휴대하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이다.

그의 문학 활동은 창작이나 동인활동에 그치지 않고, 2013년부터 종합문예지『국제문예』의 주간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중앙 문단에서도 그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천안과의 인연이 준 선물, 향토연구가로의 입문

동성중학교에 근무하던 중에 당시 같이 근무하던 황서규 선생의 권유를 받아 향토연구가로 입문하게 되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천안향토문화연구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천안이 대단한 고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기쁨이다. 그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는, 본래 전공이 국문학인 만큼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로 연구한 분야는 새롭게 알게 된 시인으로서의 운초 김부용이다. 당시 한시 350수를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안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화마당』에 연구한 내용을 싣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려고 한다.

향토연구가로서 앞으로의 과제는 '봉선홍경사갈비'이다. 성환읍 대흥리 절터에 남아 있는 비석은 국보 7호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버이 사랑과 백성 사랑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 많은 연구를 거쳐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의 창작도 고려하고 있다.

구술채록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다. 지금은 좀 줄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 제대로 농사를 지으며 쏠쏠한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구술 내용으로 미루어 책벌레로 알았는데, 여행과 등산을 즐기기도 하고, 낚시를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성실과 근면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당하게 들렸다.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도 공감할 수 있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적도 더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하였다.

<인터뷰어_ 김세관>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윤 혁 민 (1938년생)
천안시 동면

「꽃피는 팔도강산」 집필자 드라마작가 윤혁민



초등학교 선생님의 큰아들

「꽃피는 팔도강산」으로 유명한 윤혁민 작가를 뵙는 날은 설렘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6 · 25전쟁의 폐허처럼 감정마저 메말랐던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한 분이 아니던가? 나뭇가지가 차창을 훑어대는 좁은 산길을 지나서야 그의 거처 몽각산방에 닿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한창 드라마작가로 명성을 날리던 그는 199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곳에서 시묘살이를 마치고 여태껏 그대로 눌러사는 중이다. 후배 작가들의 집필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드라마 패밀리'라고도 이름한다.

윤 작가는 1938년 몽각산방에서 조금 떨어진 수남리 167, 매재기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아버지 윤태원(太元)과 공주에서 밤새 가마를 타고 시집온 어머니의 6남 4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20리를 걸어 나가야 초등학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산골이었다. 고무신도 귀하던 시절, 나무로 깎아 만든 게다를 끌며 학교에 다녔다. 여린 살갗이 게다에 쓸리어 선혈이 배어난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던 어머니 얼굴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워낙 영특하여 학습 능력이 뛰어났지만, 아버지는 그의 중학교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먹물이 들면 대처로 나가기 마련이기에 장남만큼은 고향에 눌러 앉히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애향심이 남다른 분이었다. 일본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성역에서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귀향한 분이었다. 당시 수남리 인근의 토지나 임야 대부분을 물려받았으나 윤 작가를 비롯해 10남매를 키우고 가르치느라 하나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논 두 마지기마저 윤 작가의 대학 등록금이 되고 이후는 다들 그렇듯 어렵게 살았다.

윤 작가는 첫 국가고시 세대이다.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중학교에 갈 수 있던 시절이라서 6학년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마치고도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았다. 고향을 지켜야 할 윤 작가는 당연히 거기에 낄 수 없었다. 보충수업 받는 친구를 교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하곤 했다. 그런 윤 작가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긴 담임이 "당신이 못 보내면 내가 보내겠다. 아깝다."라는 단호한 설득으로 국가고시 날짜를 사흘 앞두고 아버지의 허

락을 얻어냈다. 가까스로 국가고시를 치른 결과는 놀라웠다. 충청남도에서 6등, 천안군에서는 1등이었다. 그렇게 해서 진천중학교와 청주고등학교를 거쳐 서라벌예술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다.

푸른문에서 문학의 씨앗을 틔우고

청주고 시절에는 연합 문학써클 '푸른문'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신동근 시인을 지도교수로 모셔다가 가끔 시 강의를 듣기도 했다. 그때 윤 작가도 신춘문예에 도전하여 「진눈깨비」라는 소설과 「제사」라는 시로 각각 당선한다. 그러나 신동근 시인의 뜻 모를 조언으로 시 쓰기는 일단 보류했다.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연속극을 즐겨봤는데 그때부터는 드라마에 빠져들었다. 1960년에는 방송국의 드라마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미처 퇴고를 못 했는데 입대 날짜가 다가와 부인이 원고를 마무리하여 접수했다. 바로 그 「내일에의 사랑」이 당선작 없는 가작이라는 소식을 훈련소에서 듣는다. 그런데 작품의 소재가 소록도 나환자들의 생활이었다. 당시로서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재모집한다기에 훈련소에서 열흘의 병가를 내어 「날개를 다오」라는 극본을 다시 썼다. 이번에도 당선은 됐으나 역시 가작이었다. 성공회 신부의 아들 이야기라서 방송불가라는 방송국 측의 설명이 뒤따랐다.

얼마 후 군대 상관으로부터 서류 두 장을 받는다. 한 장은 원형철이라는 중앙방송국 피디 이름의 공문이고 하나는 외출증이었다. 피디를 찾아간 그는 방송국 국장을 만나게 된다. 혁명 직후라 감독관이 나와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엄했다. 그 자리에서 현역군인인 그에게 현충일 특집극을 쓰라고 했다. 그 일로 참모총장까지 찾아다니며 집필 허락을 얻다보니 육군본부 내에서 방송작가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

그가 집필한 현충일 특집극의 반응이 좋았다. 담당자는 흡족하여 이담에 제대하면 찾아오라는 말로 호평을 대신했다. 전화도 흔치 않아서 다방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절이었다. 제대 후 방송국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다방 전화번호를 일러주고는 원고청탁을 기다렸다. 일주일 동안 다방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이까지 있는 가정형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홍은동에서 신촌까지 길 닦는 데 나가서 리어카를 끌며

막일을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다방에 들렀더니 연락이 여러 번 왔었다고, 당신 찾느라 난리가 났다고 주인이 반겼다. 조흔파 작가가 쓰던 드라마 「유쾌한 삼 형제」가 중단될 위기에 있으니 한 회만 이어 쓰라는 것이었다.

원고료 찾아가라 해서 조 작가를 만났는데, 자신보다 오히려 잘 쓴다고 계속 쓰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리어카를 내던지고 눌러앉아 4회 이후부터 죽 썼다. 드라마가 끝나고 이만 오천 원인가 원고료를 받았다. 공사장 일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돈이었다. 흥분한 나머지 "야, 택시 한 번 타보자!"하고 생전 처음으로 남산에서 신촌까지 택시를 탔다. 남은 돈으로 책상을 사고 밥상도 사고 그릇도 샀다. 그런데 택시에 윗옷을 두고 내린 게 아닌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맞춰 주신 옷이었는데, 아끼다가 그날 방송국에 간다고 꺼내 입었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다. 그만큼 큰돈의 원고료를 받았다.

그 일 이후 아예 방송국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월급은 원고료로 대신 받는 조건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 극본을 쓰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해서 「양지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5분짜리 방송 만필을 매일 쓰고 「김삿갓 북한방랑기」도 매일 쓰고, 스파트 드라마를 매일 열 편씩 써댔다.

그 많은 글을 쓰자면 도대체 영감은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궁금해하자, "글쎄요, 저두 그건 모르겠어요."라며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께서 어린 자신을 배에 올려놓고 둥개둥개 하며 얼러 주실 때의 느낌이 또렷하단다. 또 하나, 유년 시절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다가 마루에서 떨어진 일을 떠올리며 머리의 흉터를 가리켰다. 기억력은 물론 창조적 발상이 뛰어났다는 말이었다. 아이큐가 138이라니 타고난 게 분명하다. 고향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아버지도 서예, 조각은 물론 천동초등학교부터 마지막 근무지였던 초평초등학교까지 두루 교가를 지으실 정도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다.

또한, 윤 작가는 책은 많이 읽었다. 진천중학교 시절 왕복 50리 등하굣길의 어려움을 책으로 달랬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아버지의 친구가 진천 읍내에서 책방을 하는 바람에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가 있었다. 틈만 나면 책방으로 내달렸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책에 빠졌다. 지금도 책방 아저씨의 "저리 가, 인마!" 하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를 떠올리고는 긴 숨을 토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년에 3년 동안이나 누워지내던 어머니는 수남리를 몹시 그리워하셨다. 당장 모시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최소한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금년에 벌어서 내년에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해 5천만 원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 년만 더 계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귀향을 미루는 동안, 짧기만 한 어머니의 시간은 서둘러 흐르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1994년이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관 머리를 앞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각했다. '나중에 나도 죽으면 내려와야 할 텐데…, 덩치 큰 나를 이곳으로 끌고 내려오자면 동생들이 고생할 텐데….' 그래서 아주 눌러살겠다고 선언하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회한을 그렇게 표현한 셈이다. 마침 인근에 비어 있는 조카 소유의 집이 있어서 오천만 원 없이도 눌러앉을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남들은 시묘살이했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윤 작가는 흰옷이나 입고 다녔지, 시묘는 무슨 시묘냐며 겸연쩍어한다. 당시 《세계일보》에서 3년 시묘살이를 했다고 두 번이나 보도했었다.

공전의 히트작 「꽃피는 팔도강산」

윤 작가를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공전의 히트작 「꽃피는 팔도강산」 집필이다. 이 드라마는 1974년 4월 14일부터 이듬해 10월 4일까지 장장 1년 6개월 동안 KBS-TV에서 매일 방영된, 당시로선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다. 최장수 외에도 접두사 '최'로 시작하는 몇 가지 기록이 또 있다. 야외촬영에 최초로 VTR을 도입했고, 최다 야외 녹화에, 해외 로케이션도 최초였다. 《한국일보》에 드라마를 홍보하는 전면광고가 나기도 했다, 그것도 올컬러로! 그 또한 최초의 일이었다.

알려진 대로 「꽃피는 팔도강산」은 새마을 운동에 발맞춘 국책드라마이다. 그래서 더러는 낮춰보는 사람도 있지만, 윤 작가는 개의치 않는다. 처음 이 드라마 집필을 의뢰받았을 때 독일의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가 떠올랐다. 피히테는 프랑스제국의 독일 점령에 대응하여 목숨을 걸고 자국의 민족주의를 주장한 사람이다. 덕분에 독일 국민이 분기탱천해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 윤 작가도 6 · 25 동란으로 피폐해진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드라마로 일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가난을 몸소 겪은 그였기에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처럼 한국 국민에게 고하고 싶은 마음가짐이었다. 제목 '꽃피는 팔도강

산'은 당시 문공부 윤지영 장관이 지어주었다. 이후 그는 왕피디로 드라마 제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그 인연으로 지금껏 그와 친절하게 지낸다. 드라마 종결 파티 때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8개 부처 장관이 합석하여 축하해 줄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드라마가 뜻한 바 목적을 이루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을 받았을 때, "야, 작가가 문화훈장을 받아야지, 새마을훈장이 뭐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야, 문화훈장은 지역적인 거야. 새마을훈장은 전국적인 거다."라고 웃음으로 맞받아칠 정도로 자부심이 컸다. 윤 작가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새마을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배웠다고 해석한다. 일례로, 동네마다 시멘트 300포가 배당된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주민들은 밤늦도록 한곳에 모여 회의한다. 물론 여성들도 동석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해서 용처가 결정되었다. 민주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이루어 간 것이다.

밥은 굶어 본 사람이 잘 먹지만, 고기는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지 않던가, 국책드라마라고 무조건 싸잡을 일은 아니다. 식민지와 전쟁으로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국민에게 잘 살아보자고 용기와 힘을 주어 가난에 분기탱천 맞서게 했다면, 문학의 기능에도 충실한 일 아닌가. 시청률 40퍼센트대에서 울고 웃으며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드라마가 바로 윤 작가 쓴 「꽃피는 팔도강산」이었다.

「꽃피는 팔도강산」외에도 한동안 드라마는 으레 '극본 윤혁민'으로 시작할 정도로 써댔다. 시트콤까지 더하면 1,000편도 넘는다. 매일 세 개 방송국의 다섯 개 프로를 쓰기도 했다. 「알뜰부인 덜렁부인」, 「아차부인 재치부인」, 「즐거운 우리 집」…, 그가 죽으면 다섯 개 프로가 펑크 난다고 했을 정도였다.

집필 중에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와 부이사장직을 역임했고, 주식회사 한국유선텔레비전 대표이사와 국제합기도연맹 고문직 등을 역임했다. 주성대학교에서 드라마 교수로 2004년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드라마 창작을 어떻게 지도하셨냐는 우문에 천의무봉이라고 답했다. 글을 너무 다듬다 보면 누더기가 된다. 재봉질 너무 하지 말라고 가르쳤단다.

남은 숙제, 드라마기념관 설립

윤 작가는 드라마작가로서 여기까지 오도록 문학적 소양을 길러 준 건 그래도 청주고등학교라 여긴다. 72세가 되던 해였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그때 함께 공부한 동기생 500명 중 하나둘 먼 길 떠나고, 더러는 연락 두절이거나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생사일여! 연락 닿는 150여 명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다. 본인의 생전 장례식을 치른다고 불렀더니 105명이나 모였다. 본인의 사후 장례에는 번거롭게 사람들 부르지 말고 가족장으로 하라는 유언을 이미 해 놓은 터였다. 몽각산방 마당에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고 술과 고기와 떡을 준비했다.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춤과 웃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진도의 다시래기 의식처럼 상여 놀이에 이어 조사가 이어지고 춤판이 1박 2일 동안 벌어졌다. 그러고 나서도 그때 부득이 불참했던 동기나 주변 지인들이 아쉬워해서 남은 사람들과 사십구재까지 지냈다.

최근 펴낸 그의 비매품 저서 『나의 우주』에 유계(遺戒)에서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몸소 준비한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감 나는 묘사를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 윤 작가다운 발상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화두를 던진다.

지난날, 인기 극본 많이 썼으니, 수입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재테크하셨느냐는 부 인터뷰어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술 먹었죠!"

「일통 이반 삼번지」극본 쓸 때 당대 최고 인기배우 배삼룡과 함께 일했는데, 그의 출연료와 맞먹는 고료를 받았으니 많이 번 셈이다. 그런데 애들 키우고 남는 건 다 술 먹었다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코끝이 찡했다. 다른 취미활동을 못 한 게 아쉽긴 하지만, 술 먹고 글 쓰느라 보낸 세월에 여한은 없다. 많은 작품 중에 그래도 가장 애착 가는 작품을 묻자 「꽃동네 새 동네」라고 하며 탤런트 중에는 박주아 씨가 대본을 가장 잘 소화해 줬다고 기억한다.

이제 장례 의식까지 미리 치른 윤 작가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다. 그의 업적을 귀히 여기는 주변 지인들이 가칭 '드라마작가 윤혁민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화제는 많이 열리지만, 드라마제는 미미하다. 국내 방송 4사가 한국의 드라마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서울드라마어워즈를 매년 열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윤 작가는 남한 땅 중심인 천안에서 국제 드라마제를 열고 싶다. 또 각 방송국과 연계하여 드라마 박물관을 열고자 한다.

그런 연유로 지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2023년 5월 28일 천안 예술의전당 인근 그레이스 세븐 2층 갤러리에서 '드라마작가 윤혁민 기념관 설립 추진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동양일보 이화선 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탤런트 김병기 선생을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혁민 작가님은 우리나라 1세대 드라마작가인 한운사 선생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귀한 분으로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배이자 스승이라고 회고하며 기념관 설립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혜선, 이원종, 노주현 등 중견 탤런트와 성우 고은정, 주일창 감독, 최금녀 시인, 박영대 화백, 조철호 동양일보 사장, 김재관 청주 쉐마미술관장, 전 청주문화원장 박영수, 오효진 전 청원군수, 이종각 조각가, 박상규 상명대 예술대학장, 변영환 화가, 윤석례 글램핑 대표, 김대식 다영식품 대표 등 경향 각지의 정·재계,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윤 작가는 국제 드라마제 유치, 드라마박물관 유치, 방송작가학습원 설치, 작가들의 집필 공간 제공 등의 포부를 천명했다.

한 시간 이상 인터뷰하는 동안, 85세의 윤혁민 작가는 물 한 잔도 안 마시며 경쾌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윤혁민 작가가 이대로, 더는 늙지도 아프지도 말고 그의 가치 있는 포부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두 손 모으며 몽각산방을 나왔다.

<인터뷰어_ 김용순>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함께 한 인생이야기

조 유 정 (1951년생)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신앙에서 긷는 깊은 깨달음의 시적 개성화 조유정



사람은 저마다 생을 살아가며 각별히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명예를 쫓고, 누군가는 금전을 갈구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을 꿈꾼다. 앞선 두 가치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얼핏 유명무실해 보인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사물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아름다운 문장을 노래해온 시인이 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명징한 언어를 구사하는 조유정 시인은 가슴 깊이 온화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구술채록 인터뷰 스텝진들과 함께 그가 몸담고 있는 유치원으로 향한다. 산뜻한 라임색의 디자인이 간결해 보이는 유치원이다. 반가운 모습으로 맞아주는 시인한테서 장미향이 났다. 은은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은 풍모에 단박에 '시인'이라는 이름이 걸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박또박 생生을 쟁이는 그 무엇이 독자에게 삶을 노래하게 하고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뒤따랐다.

늘 그렇다. 조유정 시인을 만나면 도처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니, 이는 시인 곁에서 늘 시인을 보살피고 영감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내는 소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詩는 잠들어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우고. 깨워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쓰다듬어 재웁니다. 그래서 시가 좋아 쓰게 됐고, 결국 시인이라는 과분한 칭호를 받고 살지요."

천안에서 나서 자라고, 젊은 날 인생의 고비 고비를 넘겼던 서울살이 30년을 뒤로하고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와 유아교육자로 살고 있는 조유정 시인. 여름밤 짧은 하늘이 깊어감에도 한권의 책과 커피 향만으로도 괜스레 가슴이 푸근해지고 별을 헤는 것만으로도 숨 가쁘다는 모습이 여전히 순박하다고나 할까?

그의 시집『이 세상 어떤 말로도』의 발문 첫머리에서 윤성희 평론가는 '순진하게도, 문학이 삶을 구원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믿는 사람이 있다. 서정의 실핏줄 속으로 고요히 침윤되어 가며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낭만주의자가 있다. 문학의 어깨에 전 생애를 기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시를 부둥켜안는 시인이다'고 평했다.

깊은 눈매에 서리는 푸근한 분위기는 정작 그의 詩에서 보이는 삶의 진중한 성찰과 응시

를 자아내게 만든 마음가짐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 시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시인 특유의 섬세함 또한 그에게서도 마땅히, 고스란히 전해졌던 터 나지막하게 말하는 음성에서 섬세함에다 강직함을 곁가지로 붙이는 것이 낫겠다.

시인에게 강직함이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 세계를 일구면서 이에 매진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유아교육에 온 정성을 기울여

1951년, 천안 입장면 가산리에서 부친 조범식씨, 모친 이귀환씨 사이의 7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조부는 광산업으로 일군 재산 때문인지 근방에서 소문나는 재력가였다. 아버지는 일본 메이지대에서 수학한 후 돌아와 교편을 잡으셨다. 하지만 절실한 생업이 아니었는지 오래지 않아 배재고 교사를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 관리를 하셨다. 전답이 많았던 부농이었기에 아버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늘 넉넉한 살림을 이어가셨고, 그 덕분에 비교적 넉넉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입장초등학교와 입장중학교를 졸업한 후, 천안시내에 위치한 천주교 미션스쿨 복자여자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때 영세를 받으면서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여 평생 천주교 교인으로 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아버지의 유희와 낭비벽은 가세를 기울이는 단초가 되었다. 토지개혁으로 일부 전답은 소작농에게 돌아갔고, 마작에 빠진 아버지의 놀음벽은 헐값에 전답을 팔게 했다. 급격히 가세가 기울고 여자라는 편견은 그를 대학 진학으로 이끄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선생님들의 공주사대 진학 권유는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오빠와 남동생들 뒷바라지 명목으로 서울로 올라온 그는 낮에는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면서 숭의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야간으로 입학해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거처였던 창동의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교우들과 소통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진천을 친정으로 둔 어머니는 초년에는 입장의 부잣집으로 시집와 여러 명의 머슴과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거느리며 호강도 하셨지만, 후일 아버지의 가산 탕진으로 어려운 살림을 이끄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그가 대학 진학할 즈음 세상을 뜨셨다.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던 관계로 늦은 나이인 30살 때 사업을

하던 서울토박이 남성과 결혼을 했다. 의도한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유아교육 일선에서 너무나 분주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녀는 딸 하나만을 두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공을 살려 어린이집 운영에 나섰다. 창동성당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부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나 소규모유치원 통폐합하려는 서울시 당국의 조치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에 매각을 하고 2002년 고향으로 내려와 유치원을 시작했다. 그 유치원이 현재 운영하는 천안시 쌍용동 소재 '엔젤유치원'이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다. 아버지는 젊은 날의 방탕을 후회하며 지난한 세월을 탓하시더니 70을 갓 넘기시면서 어머니 곁으로 가셨다. 그렇지만 그는 9남매의 돈독한 우의 속에서 다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아교육 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가슴 한 켠 자리하고 있던 시에 대한 미련만은 버리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지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교내 백일장은 물론 천안시와 충남도내 백일장 등에서 상을 받았지요. 이를 기화로 삼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성취감이 좋아서 시작(詩作)에 매진했죠. 그러고는 사는데 집중하느라 미처 글 쓰는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카톨릭문우회' 활동을 하면서 문학과의 인연을 이어갔고, 선배 문인들의 권유 속에서 등단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어요."

전공을 살려 유아교육 사업에 평생을 바쳐오면서도 문학만은 늘 자리했던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인의 길은 좀 늦어 보인다.

"유치원 일이란 게 그리 간단치 않았거든요. 오십대 중반에 이르러 등단을 했어요. 그 때가 2006년이에요. '문예사조'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을 해 시인의 칭호를 달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함이 어느새 20여 년에 이르는 문단 경력으로 이어졌군요. 이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생의 후반부를 넘어가고 있지만요."

언제부터 문학에 관심을 두었는지 물었다.

"대학교 문학공모에서 '오직 부르고 싶은 이름이기에'라는 주제로 시를 지어 '숭의여대

문학상'을 받았어요. 친구들과 교수님의 관심과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늘 시인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가 봐요."

천안문인협회를 이끌다

2006년 문단 데뷔 후, 2007년에 첫 시집 <내 삶의 빛이 되신>을 펴냈고, 2010년에 <이 세상 어떤 말로도>를 펴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 천안문인협회장을 맡게 되었다. 지역 글 판 가꾸기의 선봉에 선 것이다. 이때 그는 그동안의 관념적이었던 협회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는 일을 시작했다. 역동적인 협회 이미지를 만들어야 문학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지론을 실천했다. 천안문단사에 길이 빛날 <40주년 기념행사>와 『천안문학』 60호 발간 헌정식, 문학세미나, 운초문학상 시상식, 양성평등 문학작품 공모와 시민애송시 낭송페스티벌 등 크고 작은 문학행사를 펼쳤다. 거기다 천안문협 최초로 일본으로의 <해외문학탐방>도 추진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의 맵고 예리한 통찰력이 4년이라는 천안문단의 대표자 역할을 맡게 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 동인을 이끌게 하였으며, 그에게 천안시문화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그는 지금도 꿈 많은 소녀처럼 새로움을 바라보고 있다. 교육자로써 시인으로써 그의 내면적 예술세계를 그의 풍부한 자질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낮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다듬을 수 있는 가슴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시인으로서 그동안 어떤 시를 써왔는지 궁금했다.

"문학은 삶의 현주소이자 양심을 성찰하는 거울이에요. 저는 시를 통해 가난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배울 수 있었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인내와 신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시는 양심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정직한 시를 쓰려고 노력해왔어요. 진정한 시는 독자에게 읽힌 다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용해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차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따듯하게 보듬어 주는 건, 손끝으로 쓴 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쓴 시에요. 무거운 나이를 이고 사는 제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지

상의 여정이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작품 활동을 남은 날 동안에도 숙명처럼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독창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한 시인의 길

자신만의 확실한 문학론을 피력하는 시인의 내공이 엿보인다. 교육 현장 곳곳, 혹은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는 자리에 가면 그의 헌정 시나 축시, 노래 가사를 심심찮게 듣고 볼 수 있어 또 물었다.

“시에 음률이 더해진 노래는 시공을 초월해 사람들 마음에 정서적인 위안을 주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에요. 오래전 한여름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아스팔트 바닥 틈새를 비집고 싹을 틔운 노란 민들레 한 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모습에 번뜩 용기를 내며 살아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소통하며 칭송하고 박수치고 격려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가하면 그의 작품 중에는 신앙 시가 유독 많았다.

“삶의 고통 속에서 승화되는 신앙은 인생에서 큰 힘이 되니까요. 신앙 시는 울지 않고는 못 써요. 실컷 울고 나서야 비로소 시구가 떠오르니까요. 시는 요란하고 큰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고 작은 것이에요.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난관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글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버팀목이라 여기는 거예요.”

2021년 세 번째 시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펴낸 시인은 요즘 혼자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를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시를 쓰는 게 단지 시인 자신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면 시인의 자세가 아니겠지요. 모두들 세상살이가 힘들 때, 한 줄 시에서 위무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국 시란 게, 문학이란 게 사람의 영혼을 고취하는데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시관詩觀을 엿볼 수 있었다.

‘시인에게 시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물음에 한 치도 망설임 없이 답을 내놓는다.

"제게 시는 신앙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시를 쓰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를 지탱해주었던 건 다름 아닌 시에 녹아 있는 제 넋이에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어느 시의 한 대목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하기도 해요. 많은 고민거리를 던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 많은 시간을 문학을 향한 목마른 갈증으로 지새우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미지화된 시가 만들어지면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기쁘다고 한다. 평생 산고와 같은 피말리는 작업을 되풀이 해 오면서 가끔은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형성된 시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자신과 떼놓을 수 없는 그 자체라고 한다.

"글쎄요, 좋은 작품은 소재와 영감이 동일선상에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연륜과 경륜, 이란 말은 늘 남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그런 말을 듣는 나이쯤에 다다르게 됐다면서, 이제는 세상을 새로운 안목으로 형상화하려는 자세로 작품에 전념하겠다고 한다.

인류애와 삶의 보편성에 뿌리를 둔 시작 활동

그는 줄곧 천안사람들의 삶을 시로 표현했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지역문학운동가로 자리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시에 대한 사랑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했으며, '자본주의'로 함축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시간이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의 여유보다 경제적 여유를 좇기도 바빠 시 한 줄 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시는 좁아진 사유의 범위를 넓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입니다."

시인은 '시'가 소홀히 취급받고, 가벼이 여겨지는 풍토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현실에 닫혀있는 상상력을 열어주는 이 좋은 도구를 쓰지 않는 현대인의 우매함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근래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엮어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할까 해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일상이 멈추어 섰었잖아요. 그만큼 더 부지런을 떨어야겠어요"

최근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그는, 절망과 희망의 끈을 주고받으면서도 가슴 한 켠 우러나는 시상을 묶어두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시 쓰는 일은 늘 어렵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시의 길을 찾다보면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천상 시인이었다. 사람이 숨만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니 말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의 시가 여전히 젊은 감각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관해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인은 나이를 먹지도 늙지도 않는다는 것, 육체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엔젤동산의 여름은 그렇게 시인의 영혼과 가슴에서 꽃이 피고 지듯 무르익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인터뷰어_ 이정우>

공주시

| 공주 할매 이야기

시아주버니의 시집살이 112
무당 시어머니의 효심 깊은 며느리 117
여인 담배 농사꾼 121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시아버지의 사랑 126
홀로 걸어온 어머니의 길 132
아들을 가슴에 품고 137
6.25가 바꾼 인생 141
친정아버지의 사랑 146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전 정 배 (1937년생)
공주시 의당면 월곡안골기

시아주버니의 시집살이



아들만 알던 친정어머니

전경배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서 2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전호병이 한섬기기 논에 밭이 1천500평 농사를 짓는 부농이라 마을에서는 부자소리를 듣던 집안이었지만 어머니가 아들 밖에 모르는 분이라 그녀는 친정어머니와 일한 추억뿐인 유년 시절을 보냈다.

"우리 엄니는 아들 배끼 몰렀어. 내가 동생덜을 때렸다구 그것두 남동생을 때렸다구 쫓어 댕기며 때리셨어."

도계리는 '명' 품앗이로 유명한 마을이었다. 집집마다 명을 짜는데 4-6명의 부인들이 모여 친구집을 돌아가며 명 짜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 명 품앗이다.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는 늘 삼베 짜고 명 잣는 일을 하며 자랐다.

더구나 아버지는 매우 엄한 사람이었다. 여자아이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놀면 안된다며 언제나 엄하게 훈계하였다. 소녀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이 많지 않은 이유다. 그래도 딸이라 차별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지만, 해방 되던 해 몸이 좋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놀려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다.

끔찍했던 6.25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인 선생으로 인해 힘들었고, 또 이웃이 산학리에서 일본인들에게 몽둥이로 맞는 일을 목격한 일도 있었다. 그런 경험으로 무조건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다.

"내 아이 열 여섯에 동난이 터졌어. 그런디 폭탄을 무지하게 떨어트리는 거여. 폭탄을 우리 친정집이다 때려 가지구 안방은 찌그러지구 웃방 한 칸 남구 골방두 찌그러 졌는디, 폭탄 떨어진디가 깊어서 물이 시퍼렇게 났어."

학교 사택 뒤에 있던 기억자 집에 폭탄이 떨어졌고, 이후 이 자리에 만든 우물에 남동생이 빠져 아버지가 꺼내고 울던 모습을 기억한다. 또 장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민군들이 모여 있다가 밀려간 후에는 미군들이 들어와 정신이 없던 시절 등 참으로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다.

당시 공주시 장기면은 금강의 북단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미군과 인민군들

이 양편에서 주민들을 고생시켜 매우 어려운 세월을 보낸 고장이다.

열일곱 살 새각시 그리고 엉뚱한 시집살이

6.25 전쟁이 벌어진 이듬해에 결혼을 했다. 아버지가 부자라 가마꾼을 사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갔는데 당시 시댁 식구는 8명으로 그리 많지 않았고, 살림도 넉넉한 편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시아주버니의 시집살이가 매웠다. 밥상을 차리면 언제나 타박을 하였고 손위 동서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놓고 잔소리가 심했다. 전경배는 길쌈 솜씨가 좋아 시어머니가 재주를 아껴 주었는데 길쌈을 하지 못하는 동서는 다른 것으로 시집살이를 시켰고, 심지어 손찌검을 할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21세에 큰딸을 시작으로 내리 4명의 딸을 두었고 41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다. 딸을 많이 낳는 문제를 두고도 그랬다. 남편이나 홀로 사는 시어머니는 눈치조차 주지 않는데 시아주버니는 걸핏하면 잔소리를 했다.

그뿐 아니다. 시아주버니는 노름을 즐겼다. 어려운 살림을 일으키려고 부부가 담배 농사를 시작해서 일찍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 한해는 담배 농사로 쌀 50여 가마니 소득을 올렸으나 20여 가마를 시아주버니의 노름빚 갚는데 써야 했다.

"그러구두 언제나 큰 소리여.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형을 끔찍이 위하여 그녀는 불평다운 불평도 하지 못한 세월을 살았다.

혼신을 다한 자녀 교육

"땅은 천평 밖에 못샀어. 그것두 논이 아니라 밭이여. 그런디 애덜 공부는 시켜야 한다구 생각해서 억척을 떨었어."

딸들은 제대로 공부시키지 않는 것이 당시의 풍토였지만 고등학교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고, 두 아들은 4년대 대학까지 보냈다. 대학생이 두 명이라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쩔쩔매기도 했지만 학비 만큼은 끝까지 마련하였다.

"애덜이 돈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일찍 말하면 좀 좋아? 그런디 꼭 책보들고 마당에 내려서서 돈 달라구 햐. 그때 가진 것 웁쓰면 꾸러 다녀야 하는디."

큰딸이 국제결혼으로 영국으로 시집을 갔고 재산 관리를 잘해서 영국에 집이 2채, 리투아비아에 1채를 가지고 살아간단다. 그리고 큰아들의 손자 손녀는 영국에서 공부하였고 둘째 아들의 손자 손녀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막내아들의 두 손자는 싱가폴에서 박사 공부 중이다. 자손들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자랑거리이다.

잘 자라 준 아들과 딸들

아이들은 잘 자라 주었다. 그중에도 4명의 딸들은 감기조차 앓지 않았지만 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았으나 큰 병은 아니라 우환이 되지 않았다.

"큰 딸은 제주도에서 농장을 크게 햐. 둘째 딸은 서울에서 회사댕기는 신랑만나서 사는디 나한티는 증외손자가 둘이구, 세째딸은 세종시에서 살구, 네째 딸은 대전 살어."

시아주버니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끝내고 딸들 이야기를 하며 생기를 찾았다.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녀를 어렵게 했던 시아주버니와는 의당면 월곡리 덕골에 집을 지어 분가하면서 멀어졌고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번번히 술을 담그는 것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평생 그녀에게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 그이 한갑 잔치에는 쌀 한 가마 떡하고 열서 말 술을 담어서 3일 동안 잔치했어. 원 없이 해 본 거여."

월곡리 민속 이야기

월곡리는 민속이 풍부했던 마을이다. 마을 뒷산인 동혈산에는 뿌리 깊은 사찰 동혈사가 있었고 덕골에서는 샘고사를 안골에서는 고목 대신제를 마을 고사로 올렸다. 특히 덕골의 샘고사는 농기를 세우고 돼지머리를 매년 쓰는 고사였으며 정월 한 달 동안 풍장을 쳤다.

"덕골 산제당은 할머니 한 사람이 지내다 싶이 했어. 마을에서 지내지 않으려구 했는디 두 고영근이 할머니가 고집을 세워서 지내는 바람이 마을 사람들이 안 지낼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산제당을 영근이 할머니 산제당이라구 불렀지."

의당면에 살며 마을 민속을 조사한 필자가 월곡리 덕골에 마을 산신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금번 전경배의 구술을 통해 확인했을 정도로 그녀는 마을 고사에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월곡리의 기우제는 덕골, 마을 앞을 흐르는 월곡천의 「덕골 보(洑)」 앞에서 올렸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덕골보 조금 위에는 마르지 않는 냇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물을 품어 논에 물을 대는 정도가 되면 언제나 기우제를 올렸다 한다. 대부분의 마을이 기우제를 지내는 기준이 없이 가뭄이 심해지면 여인들이 협의하여 기우제를 올렸는데 월곡리는 냇물 웅덩이 물을 두레로 품으면 지내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다.

월곡리 기우제는 공주의 중 산간 마을 기우제와 같다. 물이 마르지 않는 냇물에 나가 여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하늘이 비를 내려 준다하여 키로 물을 까부르고 모래로 물싸움을 하며 아무것이나 두드리며 비온다고 소리 지르는 형태였다. 그렇게 실컷 놀고 난 후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여인이 세가지 나물과 서되 서홉의 시루 떡을 놓고 하늘에 고사를 지내며 비 내리게 해 달라고 비는 방식이었다.

이 마을의 풍장(農樂) 꾼들은 다음과 같다.

상쇠 1 : 전경배의 시아주버니. 사람을 볶아도 깽매기는 잘 쳤다.

상쇠 2 : 홍씨. 성명 미상이나 마을에서는 「홍깽매기」라 불렀으며 평소에는 말도 크게 하지 않는 성품인데 깽매기만 잡으면 신명 좋은 사람이었다.

장구 : 김종태 큰아버지와 김준태 아버지. 그중 김종태 큰아버지는 이름이 김종구인데 마을에서는 「종구장구」로 불렀다.

북 : 양태주. 신명이 좋아 북을 잡으면 언제나 춤을 추며 북을 쳤다.

징 : 여러 사람이 돌려쳤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윤 을 용 (1935년생)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무당 시어머니의 효심 깊은 며느리



우환으로 가득찼던 어린 시절

윤을용의 나이 11세에 친정어머니는 동생을 낳고 산후 조리를 못하여 돌아가셨다. 집안은 한 번의 우환으로 어지러워졌다. 이제 막 태어난 동생은 암죽을 쑤어 먹여야 했고 살림은 어린 그녀에게 맡겨 졌다 초등학교를 한해 늦게 들어가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도 나갈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애한테 젖꼭지두 못 물려 보신 거여. 집안이 내 손에 매달리니께 우리 집이서 키우지도 못하구 작은아버지네루 보내 졌지."

임천에 사는 작은아버지네 집에 가 있던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다. 작은어머니가 암죽을 끓여 먹이고 정성을 다하여 한 달 정도를 살았다.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마을에서 살기 괴롭다며 부여 홍산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날 아이를 데리러 작은아버지네를 갔는데 그날 죽었다 한다. 아버지는 크게 상심하여 돌아왔다.

집안의 우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혼자 살지 못하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그 아이도 오래 살지 못했다. 첫돌이 지나기 전에 죽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서모는 나가버렸다.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그러니까 그녀의 두 번째 서모는 다행히도 혼인 후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잘 성장하였다. 11살에 시작된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가 친정을 떠나 결혼을 하기까지 집안의 불운은 계속되었고 그 어지러움으로 소꿉놀이의 추억 조차 없는 삶이 되었다.

일본어를 잘했던 친정아버지

그녀는 일제강점기를 어렵게 보내지 않았다. 친정아버지가 일본어를 잘해, 언제나 일이 끊이지 않았고, 일본인들도 그녀의 집안을 깔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로 인해서 친정 마을인 부여 임천과 이사해서 살았던 홍산 마을이 일본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적게 겪었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좋아했다.

서모가 들어 온 후 그녀는 집을 나와 남의 집 살이를 하였다. 부여 읍내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한국 전쟁을 겪었다. 이북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여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인민재판으로 추정됨)는 말을 들었지만 고된 식모 살이에 외출도 쉽지 않아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험한 일을 겪지 않고 보낼 수 있었다.

무당 시어머니를 모시고 32년

6.25 전쟁 후 19세였던 1954년에 혼인하여 지금까지 부부가 해로하였다. 하지만 시댁의 생활은 혼인 3년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가 3년상을 치르기 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것이다.

남편 박용남은 차남이라 그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는 없었다. 그리고 처음 신내림을 받은 시어머니는 장남의 집에 법당을 차리고 정각을 데려와 굿을 하였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며느리가 무당인 시어머니를 용인하지 못해 결국,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집에 모셨던 법당을 파하고 그녀가 사는 집을 고쳐 법당을 차리고 이사를 하였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돌라가실 때 까지 32년동안 내가 모시고 살었어. 그런디 시어머니가 신발이 좋아져서 돈을 벌게 되니께 큰아들이 우리 집이 와서 패악을 부리기두 했어."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어렵지 않았다 한다. 신을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속 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였던 것인데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일찍 죽어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깊었다.

70년 함께 사는 부부

그녀도 아들을 둘이나 잃었다. 큰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고, 둘째 아들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친정아버지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남아있는 아들과 네 딸들을 위해 진력하였다.

남편 박용남은 그녀의 표현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남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의 형이 농사일하고 공부하지 말라며 책을 모두 불 태우는 일이 있었다. 그로인해 학교 공부를 파하였는데 스스로 공부하여 마을에서는 한문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통했다. 마을 이장도 오래 보았고 그 과정에서 '소라실 장승제'를 구성하여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연하고 충청남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어머니가 무속 일로 돈을 제법 벌었지만 그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담배 농사를 지어 재산을 일구었다. 담배 보관실을 네 동이나 지었고 여름이면 담배 조리하는 일꾼 5명을 두었으며 담배 따는 장정 일꾼을 별도로 얻어 했을 만큼 큰 농사

였다. 그뿐아니다. 고추 농사도 많이 짓고 마늘 농사도 지었으며 맥문동 농사로 재산을 일구어 나갔다.

"겨울이면 멍가나무('토복령'의 공주 말) 뿌리를 캐다가 팔어."

결혼 후 59년. 두 부부는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일하며 해로하는 복많은 내외다.

아들 딸도 성가하고.

"나두 마흔한 살 때 다 죽다 살어 났어. 그런디 요즘은 딸덜이 잘해줘서 재미있게 살어."

가난과 집안의 우환으로 큰딸을 교육시키지 못했지만, 혼자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하고 사업을 벌여 서울에 집을 사 넉넉하게 살고, 둘째 딸은 공주에 살면서 자주 찾아온다 한다. 셋째 딸은 세종시에서 1남 2녀를 두고 살고 있고 막내딸 역시 혼인해서 집안을 이루고 걱정없이 산다 했다, 사고로 잃은 장남의 아들은 박사 학위를 얻어 대학교수가 될 예정인데 공부를 더 한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스스로 복많은 사람이라 말하는 그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되짚어 생각하게 한 여인이다. 아버지가 일찍 아내를 여의고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을 모두 잃었고, 첫 번째 서모의 자식까지 잃는 우환을 겪었으며 자신이 낳은 아들 둘을 앞세웠음에도 그녀는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남편과 70년을 해로하고 있으며 살아남은 네 딸과 아들이 잘살기 때문이란다. 채록하는 날 남편과 아들은 들에 나가 들일을 하고 채록이 끝날 즈음 들어왔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고맙다하여 점심을 준비하게 하였다. 함께하는 시간 내내 밝은 두 노부부와 이미 중노인이 되어 버린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윤을용이 구술한 탄천 장승제와 마을 기우제 등의 민속 이야기도 귀중한 자료로 남겨둔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오 경 예 (1937년생)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여인 담배 농사꾼



즐거웠던 소녀 시절

오경예는 의당면 가산리 출신이다. 마을의 중농으로 살아온 아버지는 매우 엄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다. 일찍 담배 농사를 지어 재산을 일구었고 딸들을 아들 못지않게 사랑하여 아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어도 딸들에게는 군밤도 때리지 않은 분이었다. 어머니가 명을 잣고 명주를 짜는 분이라 딸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아버지는 "시집가면 지겹게 할 일을 왜 지금부터 시키느냐?"며 어머니를 나무라곤 하였다.

어머니는 보살 같은 분이셨다. 당신은 명과 명주를 하느라 고생하셨지만 딸들에게는 권하지 않았고, 남편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들딸이 보는 앞에서는 불평 없이 아버지 술 시중을 드셨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소녀 시절을 자유롭게 보냈다. 성격이 괄괄하여 사내들이 즐기는 사방치기와 자치기를 즐겼으며 줄넘기며 고무줄놀이며 남자아이들의 놀이도 거침없이 함께 할 수 있었다.

"다른 애덜 부모는 여자가 사내 애덜 노는 놀이를 하면 혼내셨는데 우리집은 그걸루 말한 사람은 오빠였지, 아부지 어머니는 나무라시지 않었어."

친구들과 가산리에서 즐겨한 놀이로 보리풍년 윷놀이를 기억하고 있다. 닭이모가지 외에 15종을 떠올렸는데, 필자의 시연을 보고 가산리에서 하지 않은 놀이는 돼지보기, 떡장사, 허공 상투잡기, 솥단지 걸이, 돼지울간, 코찔찔이라고 했다.

15식구의 시댁 신혼 살이

1956년 그녀의 나이 열아홉에 결혼했다. 당시 시댁은 연기군 서면(현재의 세종시 연서면)이었고 가산리에서 서면까지는 가마를 타고 갔다. 그날 밖에서 떠드는 가마꾼들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설레었다.

시댁은 대가족이었다. 남편의 형제가 남자 5명, 여자 3명이고 한 명의 손위 동서가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 후 1년이 안 되어 군대에 갔다. 그러니까 시댁의 열세식구가 있는 집에서 스무 살 된 새댁 혼자 살게 된 것이다.

"그래두 시아주버니가 이상한 일을 하기까지 신혼 살이는 살만했어."

시아버지가 마음 착한 분이었고 새댁이 혼자 산다하여 집안사람들이 모두 아껴 주었단

다. 군대에 간 남편도 착한 사람이라 기다림이 흔들일 일도 없었다. 일에 야멸찬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무슨 일을 해도 빨리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시어머니였는데, 그래도 길쌈을 잘하는 그녀에게는 관대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손위 동서가 베를 제대로 짜지 못하고 음식만 끓여 낸다하여 시집살이를 시켜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신랑 없는 신혼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다.

다시 가산리로

안정적으로 살던 그녀의 인생은 시아주버니가 재산을 축내며 급속히 흔들렸다. 대가족이 한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산이 넉넉해서였다. 논이 이십 마지기가 넘었고 밭도 많았으며 임야도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아주버니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팔아먹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몰러.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감춰 두어 부자로 사는 것두 아닌디 그짓말처럼 그 좋던 재산을 다 팔어 먹었어."

결국, 그녀는 분가하면서 땅 한 필지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고향에 살기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친정 마을인 가산리로 이사하였다. 마을 안에 집을 지을 형편이 안되어 외딴 동네에 벽돌을 찍어 방 3칸 부엌 1칸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남의 농사로 소작 논 일곱 마지기를 얻고 친정 오빠가 개간해 놓은 밭을 빌려 담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2남 3녀의 자식을 얻어 집안을 이루었다.

"몸은 어려웠는디 맘은 편했어. 시아주버니 땅 팔어 먹을 때 하도 몸을 달고 살어서 그런지 맘편한 게 몸 편한 거보다 좋더라구."

담배 농사 10년 – 재산을 일구고

공주에는 '담배 농사는 고생 농사'라는 말이 있다. 논 밭 농사보다 돈은 더 버는데 몸을 쓰는게 고된 일이라 생긴 말이다.

잎담배 모를 부어, 한 뼘쯤 자라면 밭에 이식하고,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이면 담배잎을 딴다. 담배를 따는 일은 남녀같이 할 수 있으나 담배잎을 기게질로 날라 외로 꼰 새끼줄에 모두 꾀는 것은 힘이 필요했다. 꾀 놓은 담배잎은 건조실이라 불린 건물 장대에 빨래 널 듯

널어야 하는데 이 건조실의 높이가 5-6m라서 남자들도 담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담배를 널고 나면 석탄을 때서 열을 올려 말린다. 보통 1주일 동안 말리며, 불을 꺼트리면 안되는 일이라 한 사람은 지켜야 하고 말린 담배잎은 건조실에서 내려 줄에서 빼내 쌓아두는 것으로 1차 작업이 끝난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그때부터다. 이른바 「담배 조리」 작업이 시작된다. 담배 조리는 담배잎의 정도에 따라 고르고 상처 입은 곳을 오려내고 머리를 담배잎으로 감아 묶어 규격 된 생산품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서 여인들이 하는데 이를 위해 「조리꾼」이라 부르는 여인들을 고용해서 자업하였다. 조리한 담배 꼭지는 나무 궤짝에 넣어 일정한 무게를 맞추고 정해진 격식으로 묶어야 팔 수 있었다. 작업만 아니라 조리꾼이나 남자 일꾼들의 음식을 마련하는 일까지 더해지니 담배농사는 고생 농사였다. 이 어려운 농사를 10년 넘게 계속하여 자식들에게 물려줄 논 밭을 마련한 것이다.

도깨불에 홀려 고생하고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5-6백m 떨어진 외진 곳에 겨우 세 집 밖에 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담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품팔이할 곳이 있으면 언제나 들일을 했다. 특히 모내기는 매년 하는 일이었다. 어느 핸가 마을 부자 홍씨네 모내기를 하였다. 일이 끝난 시간이 늦어 이미 어두어진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이들만 있는 집을 비워 둘 수 없어서 자고 가라는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다. 마을과 집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애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집이 없는 산속이라는 생각에 머리카락이 솟는 판인데 도깨비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혼비백산하여 다시 마을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도깨비? 그거 즌기 둘오구 나니께 전부 웁써 졌어."

그 후로 도깨비나 귀신에게 홀려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한 말이다.

남편이 담이 약하여 건조실에 담배를 다는 작업이나 떼는 작업도 여인의 몸으로 혼자했다는 그녀는 아흔이 다 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복은 스스로 맨드는 것

스스로 복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경예씨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복은 지가 맨드는 기지 하늘이 주는 게 아녀."

자식들이 잘 성장하여 제 몫을 하고, 친정 동네에 살았던 덕분에 여러 동무들과 함께 노후를 즐기듯 사는 한 어른의 말 속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송 옥 순 (1937년생)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2길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시아버지의 사랑



이사만 다섯 번의 소녀 시절.

송옥순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노름을 즐기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공주시 사곡면의 마곡사 뒷마을로 이사를 왔다. 당시 나이가 열 서너살 경이었는데 경상도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서인지 그곳이 어느 군 어느 면인지 기억하지 못한단다.

일제강점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큰 언니가 끌려갈 위기라서 집에 있지 못하고 서울사는 큰아버지가 데리고 갔다는 것만 기억했는데, 훗날 그것이 위안부 징집이 나온 것이라 했다.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면 나오는 산골 마을의 이모 집에 얹혀 살았지만 돈벌이가 없어 고생했다. 봄나물을 뜯는 것조차 절박함에 식량을 구하는 마음이었고, 갖은 악식(惡食)에 굶는 날이 많아지면서 어머니는 1-2년만에 공주 읍내로 이사를 나왔다. 그리고 시장을 오가며 작은 보따리 장사로 연명하던 가족은 다시 짐을 꾸려 반포면으로 이사하였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친구를 사귈 틈도 없이 이사 다니면서 그녀는 누구나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도 없이 소녀 시절을 보내야 했다.

자식 먹여 살리는데 청춘을 보낸 어머니

"어머니? 자식들 멕여 살리느라구 안 한 일 없이 하구 사셨지 뭐."

아버지는 한량이셨다. 공주로 온 후에는 노름은 끊었지만 선거판을 오가느라 여전히 돈벌이는 전혀 하지 않았다. 공주 읍내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공주 씨름 협회의 간부가 되어 씨름대회를 주관하였다, 어려서 아버지와의 추억은 씨름 구경을 마치고 아버지가 시장 천막 식당에서 사준 국밥을 먹은 것 뿐이라 한다. 국회의원 선거다, 씨름 선수단 운영이다, 쫓아다니는 아버지 덕분에 살림을 책임진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굶어 죽지 않으려 애썼다. 마곡사 경내 마을에 살 때는 이모부가 은행의 지점장으로 부자로 살았지만, 자주 집에 오지 않는 분이라서 이모가 그녀의 집을 도와 줄 형편은 아니었다. 나물을 뜯어다 파는 일로 연명하였고 공주 시내에서 살 때는 직조공장에서 실을 받아다가 실꾸리를 짓는 일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다.

당연히 형제들 모두 학교 교육을 받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머리 좋고 총명한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모가 데려가 대학공부를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마쳐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공부하지 못했다.

험하게 치룬 6.25

그녀는 6.25 때 웅진동 곰나루에서 살았다. 하필 그 지역은 금강의 방어와 공격의 핵심이 되는 곳이었다. 전쟁이 터지며 인민군들이 공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피난길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피난처에 먹을 것이 없자, 굶어 죽으나 전쟁에 죽으나 매 한 가지라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들어와 밥을 지어 먹고 있었는데 피난에서 돌아온 가족이 굶었다고 하자 밥을 나누어 주었다.

곰나루 인근에는 미군들의 비행기 폭격이 심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집에는 부상병들이 몰려 들었다. 곰나루 숲에 짚차와 말을 감추고 있어서 폭격이 심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머니는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었고 인민군들은 댓가로 밥을 주었다. 그러다 집이 폭격을 맞게 되었는데 쓰러지는 집안에 여동생이 나오지 못하자 아버지가 들어가 데리고 나와 다치지 않았고 근처 빈집으로 들어가 살았다.

인민군들이 물러나고 미군이 들어왔다. 미군들은 지금의 박물관 뒷산에 본부를 차렸는데 인민군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찾는다며 무섭게 굴었다. 인민군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군들이 더 무서울 판인데 당시 아버지가 미군과 교류를 했던 모양인지 어머니가 인민군에게 밥을 지어 준 일은 조용히 넘어갔다.

혼인 후 안정적인 삶을 살다.

그녀는 19세에 지금 사는 반포면 하신리 김광석과 혼인했다.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어렵게 살아온 그녀에게 시집은 편한 곳이었다. 열두식구의 대가족이 한집에서 살며 끼니 때마다 절구에 보리를 갈아서 음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싸리비를 매서 유성장에 가지고 나가 팔아 오는 날이면 오징어나 꽁치를 사오는 시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마음이 편했다.

시어머니는 억척스러웠다. 시아버지가 사 온 해산물을 광에 넣어 두고 꺼내 주었는데, 한번은 시누가 오징어 사다 넣어 놓은 것을 몰래 먹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먹은

줄 알고 도둑질해 막은 년 운운하며 작대기로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도망을 쳐 친정집으로 가 차마 시댁에서 당한 일을 말할 수 없어 숨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그녀를 찾아 친정에 왔고, 하루 종일 굶은 딸이 자기 집에 와서도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때렸다.

"당신네 집이서 필요 웁다면 내가 거둘테니 그냥 돌아 가라구."

호통을 치며 사돈에게 손찌검을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친정어머니가 무서워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갔다 한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의 사랑

"특히 시누덜이 나한티 잘했어. 억척스러운 자기 엄니한티 잘하구 산다구."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아껴 장에 나가는 날이면 무엇이든 사다가 가족들 몰래 챙겨주며 너 혼자 먹으라는 말을 자주하였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지런히 돈을 모아 논 1천여평을 샀고 밭을 구입하여 밀이며 보리며 고구마, 팥, 콩 따위의 농사를 짓는데 그녀는 농사일도 재미있었다.

"곡식이나 채소가 생각보다 빨리 커. 그걸 보는 재미가 좋아서 시아버지가 일하지 말라고 하셔두 논밭에 나가 일하구 살었어."

그러는 사이 자식도 태어났다. 3남 2녀를 두었으나 아들 하나를 일찍 잃고 2남 2녀를 잘 키워 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딸을 모두 고등학교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큰딸은 그렇게 하지 못해 가슴아팠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줄어들어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

장에 가는 재미

"감은 하신(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감여. 유성장에서도 하신 감은 값이 비싸. 감 크기는 다른디 감보다 작은디 잘 썩지 않고 맛있다구 해서 언제나 더 비싸게 팔어 줬어."

모내기와 가을 추수 때는 시간이 없어서 장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 외에는 무엇이든 가지고 나가 물건을 팔아 돈을 만들었다. 시아버지는 싸리비를 잘 만들었고 도리깨며 갈퀴 따위의 작은 농기구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팔기도 했는

데 정작 그녀가 장날을 좋아한 것은 시집살이가 심하던 시절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좋은 것을 사다가 몰래 전해두던 일 때문에 생긴 것 같다 한다.

감을 장에 내는 계절에는 일이 많았다. 일꾼을 얻어 딴 감을 우려서 떫은 맛을 빼고 꼭 새벽 3시에 건져, 무거운 감을 이고 지고 유성장에 나가 판다. 물론 그 전에 감을 크기 별로 담아서 짐을 꾸려야 했다.

자장가와 함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어머니와 슬픈 추억이 있다. 두 분이 각각 운명하실 때의 이야기다.

바쁘게 일하는 철에 친정아버지가 불쑥 찾아오셨다. 밭에서 급히 집에 왔지만 집안이 궁하여 가시는데 돈을 마련해 드릴 수가 없었다. 겨우 이웃집에서 3백 원을 꾸어 드렸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병석에 누우셨고 문병을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 상태였다.

"니가 준 돈으로 소고기 사서 잘 먹었다. 고맙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말에 집으로 돌아오며 한없이 울었단다.

어머니는 64-5세경에 돌아가셨다.

자갈이 많은 산 밭에서 일하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놀라서 쫓아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생생한 모습으로 내가 죽기는 왜 죽느냐며 임종을 보러 온 자식들을 모두 돌려 보냈다. 먼 곳에 사는 형제들은 모두 떠났는데 홀로 남은 그녀 앞에서 친정어머니는 자장가를 부르셨다. 한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듯했다. 자식들에게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돌려보낸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친정어머니는 주무시는 듯 자장가와 함께 운명하셨다.

시부모 남편과의 이별

송옥순은 자신의 양가 부모님과의 이별과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들과의 이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사는 듯했다.

"우리 시아버지는 억척스러운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가시면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어."

79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둔 시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며느리에게 '나에게 잘해주고 시어머니 잘 보살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딴사람 마냥 시어머

니에게 호통을 쳤다.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그동안 잘못한 것도 너무 넘치니 앞으로는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소리 질렀다.

가족 모두는 숙연해 있으면서도 약간의 치매를 앓고 있던 시아버지가 치매의 영향으로 그러려니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인 듯 느껴져 슬펐다 한다.

시어머니는 사아버지가 사망한 후 치매 증세가 심해졌다.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잘라야 한다고, 작은 소동을 만들곤 했고 모든 열쇠를 칼로 따고 싶어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롱 속에 깊이 두었던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며느리에게 '그동안 고생 많었다.' 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소녀처럼 순박한 얼굴로 그렇게 말 한 뒤 며칠만에 조용히 돌아가셨다. 시어머니의 나이 88세의 일이었다.

"우리 애덜 아버지는 진짜 젊잔하게 가셨어. 이웃집에 도시서 이사 와서 사는 젊은 처자가 있었는디, 햇볕에 나와 있는 애덜 아버지 한티, 할아버지 얼른 낳으셔서 물구 보러 가셔야지요. 하니께 그러시더라구유. 틀렸어. 그라구는 이틀만에 돌아가셨슈."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당신을 씻겨 달라 하여 목욕 후 의자에 앉혀주니 눕혀달라 하고 곧 주무시듯이 떠나시더란다.

남편처럼 떠나는 것

송옥순은 지금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란다. 자식 굶길 걱정 없고 몸이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고, 입고 싶은 옷 잔뜩 쌓아두고 사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편할 것 다 편하게 하고 살았으니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디 꼭 바라는 게 하나 있어. 죽는 거. 더두 덜두 말구 우리 애덜 아부지처럼 조용하고 깨끗하게 죽는 거. 그거 하나 뿐여. 그래야 애덜이 속 썩지 않구 고생 안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식들이 본인 때문에 고생할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녀는 아흔의 나이에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였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윤 창 순 (1935년생)
공주시 이인면 금강로

홀로 걸어온 어머니의 길



소녀 시절을 잃어버린 여인.

윤창순은 청양군 청남면 윗상장리에서 태어나 결혼하기까지 한 마을에서 살아온 여인이다. 아버지는 칠원 윤씨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많이 수입되었던 일명 포대 자루의 재료가 되는 마포를 강경장에서 떠다가 정산장이나 청양장 청남 인근에 팔아 돈을 벌었기에 가정도 빈곤하지는 않았다. 또한 2남 6녀의 자손을 두어 성가를 이루었으며 자식 사랑이 남달랐다 한다.

어머니 임씨는 당시로는 신식 생각으로 산 사람이라 일찍 장사를 시작하여 집을 비우고 원행 장사를 다녔다. 모든 일에 솜씨가 좋아서 장사를 나가기 전, 그러니까 윤창순이 13-14세 경에는 길쌈을 가르쳐 배웠다. 논밭이 있어도 많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장사로 치부하여 논밭 일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밭일로 고생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을만한 생활환경이었다. 그런데 90을 넘긴 그녀는 자신의 유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핵교는 일제에 숨어 댕기느라구 못댕겼어."

그뿐아니다. 친구도 없었고 놀이를 즐기기도 못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것이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해서라 한다. 자신이 살아온 험난한 세월 속에 아마도 소녀 시절의 추억을 모두 잃은 것으로 보였다.

가난으로 시작했던 신혼

청양군 청남면의 금강변 마을에 살았던 그녀는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았다. 마을에서 숨어있다 나오는 정도였지만 인민군은 보지 못했고 마을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없었다. 그렇게 성장한 그녀는 당시로는 조금 많은 나이인 22세, 1954년에 공주사람 이한복과 혼인하였다. 신랑은 그녀보다 한 살 많았다. 신랑이 마음에 들어 친정에서 초례를 치루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왔는데 시집의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농토는 적고 소작으로 농사를 짓는 형편이었다. 전쟁을 겪고 가난에 빠져 허덕대고 있었다. 더구나 마을에 방앗간이 없어 절구질과 디딜방아로 삼시 세 때 음식을 만드는 형편이었다.

"일만 했어. 젖 멕이를 집에 뉘여 놓구두 일을 해야 했어."

그러나 신혼 생활은 농사일이나 살림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였다. 음식을 만들어도 의복 빨래나 바느질을 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때가 없었다. 친정에서 무얼 배우고 시집왔느냐는 말은 언제나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헤집었다.

37세에 홀로 되다.

그녀는 37세, 결혼한지 15년 만에 남편 이한복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 더구나 5년후에는 집안에 하나뿐인 남자형제 시동생도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만 남아버린 것이다. 이미 아들 둘 딸 둘 4남매를 둔 어머니였는데 모아 놓은 재산도 넉넉지 못한 형편에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팔자가 되어 버렸다.

"나무 장사 오래 했어. 복룡리 지어골 뒷산이서 나무를 해서 신작로 있는 곳까지 옮기구, 거기서는 리어카루 끌구 와서 파는 거여."

"어디서 팔어유?"

"나무해서 헛간에 채워 놓으믄 나무 장사가 와서 사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인근 논산시 상월면에 있는 고구마 농장에 일을 다녔다. 집에서 30리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새벽에 집 앞 큰길에 나가 있으면 농장 주인이 트럭으로 실어 가고, 종일토록 일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실어다 주는데 마을에서 밭일로 품팔이하는 것보다 품삯을 더 주었다.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자식은 가르쳐야 햐. 자식을 낳았으믄 가르쳐야 하는 거여. 그래야 딸래미덜은 못가르쳤지만."

봄에 뜯는 나물조차 향기 좋은 취나물이나 두룹 나물은 식량이 되지 못해 뜯지 않고 쑥이며 풍년초 새순을 뜯어 밀가루를 버무려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은 공부 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붙잡고 살아온 여인이다.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나무 장사, 고구마 농장 노역 등 혼신을 다하여 일한 결과로 그녀는 두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다. 당시로는 중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녀의 집안보다 잘사는 사람들도 자식을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는데, 엉뚱하게도 마을 사

람 중 일부는 없는 집안에서 두 아들을 진학시켰다며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내 가슴이 못 백힌 건 딸덜여. 두 딸은 국민 핵교 배끼 못가르쳤어. 큰 딸 머리가 좋아서 중핵교에 가구 싶어해서 나한티 달려들었는디 그래두 못보냈어."

아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에 겨워 딸은 진학을 못시켰는데 다행히 두 딸 모두 바르게 잘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단다.

"큰 딸은 부천사는디 아들 딸 남매 낳구 잘 살구 있구, 작은딸은 신랑을 잘 만나 안양이서 부자루 살어. 거기두 남매 뒀구."

"나두 여잔디 걔덜이 딸이라구 공부 못 시켰어."

마치 치매든 할머니가 쓸데없는 말을 하듯이 이 말을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아름다운 그녀를 어렵게 했던 일들.

아흔한 살의 홀로 사는 할머니 윤창순은 지금도 옛날의 미모를 짐작하게 할 만큼 곱게 늙었다. 옷차림도 정갈하고 홀로 사는 노인임에도 집이나 텃밭에 키우는 채소도 정갈했다. 그럼에도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말을 몹시 거칠게 하여 채록 현장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야기 중 대화 흐름과 상관없이 시누이를 욕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 일 많이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행동한 이면에는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사는 동네가 면 소재지 마을이면서 장이 서던 곳었다. 멀리에서 들어와 품팔이하는 사내들이 수작을 걸기도 했고, 동네 주민 사내가 담을 넘기도 했다. 때로는 식당 여주인이 자기 집에 끼니를 대 놓고 먹는 품팔이꾼과 엮어주려고 나서기도 했다 한다. 이런 일들을 거부하려는 몸짓으로 행동과 말이 거칠어졌다.

"쉰 전이는 내가 빨리 늙어 버렸으믄 했어."

자신의 아름다움이 짐이 되어 차라리 빨리 늙어 버리기를 바래야 했던 여인은 두 아들과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며 남자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싸움꾼으로 어머니의 길을 살아온 것이다.

억척이 윤창순의 민속에 관한 증언들.

소녀 시절의 추억 외에는 마을 대소사를 놀랍도록 많이 기억한다. 기억에 남아있는 이인리의 민속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인 장승백이 장승제 : 이인리에서는 매년 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우고 마을 고사를 올렸다.
2. 기우제 : 가뭄이 들면 처녀와 유부녀 관계없이 모든 여인이 장성리 가는 길 마을 앞 냇물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다.
3. 가정의 거리제 : 동네 사람들은 가을 농사가 끝나면 「시루 구녕 막는다.」하여 떡을 해 먹었는데 장독대에 시루떡을 놓고 빌기도 했지만 작은 사거리 십자 길목에서 거리제를 지내는 집이 많았다.
4. 남자 아이들의 보배놀이 : 똥장군 보배, 오징어 보배. 리을자 보배 놀이 등을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하였다. (땅에 그림을 그려 놓고 편을 나누어 승채를 겨루는 놀이의 공주 일원의 일반적인 명칭. 오징 게임을 오징어 보배라 하였음.)

자식 키운 보람.

“큰 딸하구 태국두 갔다 왔구, 교육청이서 일하는 큰 아들 며느리하구는 제주도 가서 구경두 하구 놀기두 하구 그랬어.”

어려운 시절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번 면담자를 당황시켰던 윤창순은 자식들의 효도자랑을 이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김 안 순 (1931년생)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름답던 소녀 시절

김안순은 인천에서 태어나 3세 이전에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로 이사했다. 2남 3녀의 막내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나 호강하며 컸어. 내가 언니하구 열 한 살 차이나는 늦둥이래서 아버지가 손수 그네를 매주셔서 집이서 그네 타구 살었어."

당시로는 드물게 아버지가 공부를 한 사람으로 마을 이장을 10년 이상 보았던 터라 어릴적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다. 어머니는 지독했다. 아버지가 돈벌이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모두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언제나 길쌈에 매달렸다. 명, 명주, 삼베를 모두 짜는 분이었지만 며느리와 길쌈을 하면서도 딸 김안순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 시집가면 평생 할 일을 친정에서부터 할 것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몰래 명을 잣고 베틀에 앉았다. 베 짜는 일을 유독 어려워한 올케를 도왔기 때문에 올케의 사랑도 받을 수 있었다.

일제의 만행을 몸으로 느끼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일본 말만 하라는 교육에 질렸다.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말만 하라니 그게 되지 않아 갖은 벌을 다 서야 했다. 결국, 학교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고 나서야 일본 사람들의 행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웃집의 친구 언니는 일본의 처녀 공출을 피하려고 14세에 시집을 갔고, 공출을 내지 못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한천리로 이사와서 오래지 않아 이장을 맡은 아버지는 아들 중 한 명을 징용보내야 한다는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작은 오빠를 보냈는데 어이없게도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뿐 아니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큰오빠는 소고기를 먹고 체한 것이 잘못되어 40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 집안이 한순간에 어지러워진 것이다.

결혼으로 찾은 안정

김안순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6살이나 많은 지금의 남편과 혼인하였다. 시동생이 2명, 시누이가 1명, 시부모, 어린 조카가 2명 등 8식구가 한집에서 살았다. 논은 1천여 평 내외였

지만 밭이 많아 고구마를 70-80 가마니 수확하는 살림이라서 배를 곯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김안순을 예뻐했다. 이유는 베를 잘 짜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하루 7자 내외를 짰지만 그녀는 20자를 짜는 재주가 있었다. 결혼 후 딸을 낳은 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시부모는 눈치를 주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그리고 32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고 그 후로 내리 딸 셋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후에는 집안에서 더욱 대접을 받았고 남편도 자상해서 더 할 나위 없는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하늘이 무너지던 날

시아버지가 배앓이가 심하여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을 몰랐던 것이 안타까워 마을에 열린 야학을 조금 다니고 혼자 공부해 한글을 깨우쳤다.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날 아침 갑자기 하늘이 무너졌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이다.

아들이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에서 출세하겠다며 군에 갈 날을 기다리던 아들이 어느 날 아침 심장마비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아들의 죽음에 부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남들이'아들 잡아 먹은 년'이라고 욕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못했다. 남편은 의연해 보였지만 재넘어 외진 산 밭에 가면 혼자 울기 일쑤였다.

"나 지금두 마을 경로잔치에 못가. 나이 아흔을 넘긴 노인네가 아들 앞 세우구 얼마나 더 살라구 이런디 나오느냐구 해서 못 가것어."

아들은 이미 40여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마을 경로잔치를 열고 같이 어울리자 권하는 마을 아낙들의 성화가 있었지만 끝내 잔치에 가지 못했다 한다.

장녀도 가슴에 묻고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다. 집안 형편이 안좋아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한 큰딸이 집안에서 오빠를 잃고 상심한 부모를 돕다가 결혼해서 대전에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다 죽은 것이다.

다행히 큰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손녀는 잘 성장하였지만 큰딸 생각이 나서 만나지 못하던 중 작년에 아이가 찾아와 만났단다. 손녀딸은 결혼을 앞두고 얼굴도 못 본 어머니 생각에 외할머니를 보고 싶다하였다.

두 딸의 효심으로 이어 온 목숨.

"우리 아들 잃구 나서 애 아버지두 속을 썩였던지 단명했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일흔여덟 살."

78세까지 살았다면 단명한 것은 아닌데 그녀는 요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이 큰아들과 큰딸을 앞세운 순간의 허망함으로 기억된 때문으로 보였다.

딸 둘의 효심 때문에 살아왔다 말한다. 둘째 딸은 지금도 집안 제삿날 축과 지방을 써 들고 찾아와 제사를 모신단다. 대학에 다니는 외손자는 일본 유학을 세 차례나 다녀와 늦게 군대를 다녀와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고 셋째 딸이 늦게 얻은 아들 둘은 고등학교에 다닌단다.

오빠 사망 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가족 여행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외국 여행도 여러 번 같이 했단다.

"우리 집안 깨끗하지? 우리 딸덜이 번차루 매주 찾어 와서 청소 싹 해주구 가. 음식두 해 놓구. 먹을 것두 시켜 놓구. 그래야 내가 먹지 않구 싸 두는디 매주 와. 효녀덜여."

부모 앞서 죽는 불효

김안순의 채록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 최고의 효도는 세상에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며 최고의 불효는 부모 앞에 죽는 것이라는 글을 읽었지만, 현실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절실히 일깨워 주었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손 애 자 (1935년생)
공주시 보물리

6.25가 바꾼 인생



6.25 전쟁이 바꾼 인생.

손애자는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 전쟁이 끝날때까지 서울에서 성장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 부자 소리를 들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몰래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기도 했단다.

"다 커서 친정아버지가 그러시대. 돈을 모아 놓으면 독립군 자금을 운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가지고 갔디야. '이런 일은 너희들두 알어야 된다.'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구. 오인리루 피난 왔을 때."

전쟁이 벌어져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에는 피난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1.4 후퇴 때 서둘러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온 곳이 의당면 오인리였다. 오인리에서의 생활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했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무병을 강하게 앓고는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오인리에 작은 절 비암사를 짓다.

어머니가 시작한 무속인의 길은 쉽게 풀려나갔다. 피난 시절에는 오인리에서 남의 집 방을 무료로 얻어 생활하며 무속인이 되었음에도 승려처럼 시주를 받으러 다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암사라는 작은 절을 지었다. 무당으로 굿을 하는데 절간에 모신 것은 부처님이었다.

절을 짓는 일도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다. 어머니가 시주를 다니던 중 비암사 자리를 보고는 단번에 절을 지을 결심을 하고 땅 주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땅 주인이 지난밤 꿈에 산신령이 현신하여 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면서 흔쾌히 땅을 팔았다 한다. 그것도 시주를 받아 갚겠으니 외상으로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토 달지 않고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산 땅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절을 지었고, 이 절에 사람들이 몰려 짧은 기간에 땅값을 모두 갚았다.

어머니의 신도였던 시어머니 간청으로 혼인하고.

1954년 그녀는 20세의 나이로 갑자기 남편 김경복과 결혼했다. 당시 지금의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신도로 절을 오갔는데 그녀를 보고는 어머니를 졸라 혼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시어머니 나한티는 둘두 없는 분여. 나를 데려 온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내 배는 골아도 며느리 배 골리믄 안된다.’고”

정안면 보물리에 사는 시댁은 땅이 없이 남의 농사만 짓고 살던 가난한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매년 미역국이라도 끓여 주며 덕담을 들려주었는데 당시로는 시집살이만 안 해도 고마워하던 시절이라서 마을의 새댁들의 부러움을 샀다.

식구도 많지 않았다. 시부모 내외와 손애자 내외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는 단촐한 가정이었다. 시아버지가 무학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시의 시선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아들 둘 딸 넷의 어머니.

그녀는 결혼 후 내리 딸 셋을 두었다. 그때도 시부모는 눈치주지 않았다. 특히 시어머니는 세 번째 딸을 낳을 때 서운해하는 시아버지를 나무랐다. 하늘이 주는 자식이지 며느리가 얻은 딸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넷째에 아들을 얻었고 다섯째가 딸 막내가 아들이었다. 장남을 얻었을 때 시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라도 열자는 말에 ‘손자 손녀가 같은데 아들이라고 잔치를 여느냐’며 반대한 시어머니였다.

“큰 딸은 서울서 미장원하는디 손자 하나 두었고, 둘째 딸은 세종시에서 사는데 남매를 뒀어. 사위는 공무원하다 정년했구. 셋째는 공주 신관에서 식당하는데 손녀 하나 두었고 장남은 세종시에서 소방관 일을 햐. 넷째 딸은 세종시에서 남매 두구 직장 생활하구, 막내아들은 대전 사는디 손자가 대학 댕겨요.”

자식 여섯이 한 명도 부모 앞서지 않은 효자 효녀라고 자랑하는 얼굴에 생기가 넘쳤다.

70년 해로 중인 부부

손애자 김경복 부부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간다. 95세인 남편은 들일을 하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분이다. 그런데 부인의 입에서 아주 엉뚱한 이야

기가 나왔다.

"우리 남편이 오락으루 내속 퍽 썩었어."

"오락요?"

"화투!"

자식을 키우느라 돈이 필요한데 남편이 논에서 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사라지면 영락없이 화투판에서 며칠씩 노름에 빠져 살았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까지 즐기니 살림이 남아날 수 없었다.

어느 핸가 농사를 지어 놓고 가을에 벼를 베를 베는데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 왜 남의 논에 벼를 베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한다. 알고 보니 남편이 여름에 노름으로 돈을 잃어 땅문서를 넘겨준 것이고, 땅을 산 사람이 쫓아 온 것이었다. 그때는 노름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싸움을 하여 벼를 베고 탈곡을 하였지만, 다음 해부터는 그 논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노름 때문에 보물리에서 도망을 나와 서울 친정 오빠네 집에서 산 세월도 있었다. 오빠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빚을 얻어 노름 빚을 갚고 보물리로 돌아오는 수모를 겪었는데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가 사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펴 다행스럽게 살 수 있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노름을 멀리했다. 그리고 5년이 되지 않아 온전히 화투판을 끊고 집안을 살폈다.

막내 딸을 위해 교회를 나가고

친정어머니는 절을 짓고 살던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부처님 마음으로 매달 보름이면 부엌과 장독에 맑은 물을 떠 놓고 비는 사람이었다. 내심 그녀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의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따랐고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친정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녀는 그와 관계되는 모든 물품을 없애 버렸다.

그 무렵 건강이 좋지 않던 막내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간청했다 한다.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살 것 같어."

집안 내력이 산신과 부처를 위해 왔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목숨을 걸고

애원하는데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딸의 간청은 계속되었고 성경책을 감추고라도 다녀야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 딸보다 더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반대란다. 아내가 집사가 되었을 때야 교회에 열심인 것을 알았고 2022년에는 권사가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회에 나가면서 깨달었어. 막내딸은 신앙심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니 하나님께 맡겨도 좋겠다고."

지금은 딸이 건강을 찾아 밝게 산단다.

<인터뷰어_ 이걸재>

공주시
공주 할매 이야기

김 창 순 (1936년생)
공주시 사곡면 중터골길

친정아버지의 사랑



정치인으로 살았던 아버지

김창순의 아버지 김무진은 본디 충남 홍성에 살았다. 홍성에서는 양조장을 하면서 부를 이루고 지역의 유지로 살았다. 일제강점기에 사업만하다 해방 후 동생이 정치판을 오가기 시작하자 집안 경제가 많이 기울었다. 해방 후 어지러운 정국에서 정치활동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양조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아버지는 공주로 이사를 하였다.

아버지가 공주로 이사를 한 이유는 한가지가 더 있었다. 창순의 어머니가 그녀 나이 9세, 1943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홍성에 있으면 동생의 영향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려웠고 아내를 잃은 슬픔 또한 컸기에 3남 1녀, 네 자식을 데리고 농사지으며 아이들만 열심히 키우자고 공주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집착한 작은아버지도 공주로 이주하였고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훗날 공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00과 함께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

혹독했던 일제와 6.25

김창순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정치에 매달린 것은 일제강점기에 겪은 멸시와 6.25 전쟁의 어지러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던 시절 일본인들이 걸핏하면 숨겨둔 쌀독을 찾는다고 쇠꼬챙이를 들고 헛간이니 잿간이니 쑤시고 다니는 것을 참아내셨고, 때로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피해 있던 때도 많았다. 더구나 '오름실'이라고 홍성 양조장 인근에 살던 이종 언니가 정신대에 끌려가 생사를 알지 못했고 사촌 오빠, 즉 작은아버지의 차남은 징용으로 북해도로 끌려가는데 이를 막지 못하여 마음고생이 심했다.

6.25 전쟁때에는 더 어려웠다. 공주로 이사 온 후 동원리에 비행기 폭격으로 옆집 노인이 죽었다. 더구나 그녀의 셋째 오빠는 전쟁통에 군인으로 참전하여 폭격이 떨어지는현장에 있었지만 천행으로 살아서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집안은 모두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사촌 오빠 한 사람이 경찰이었고 군인간 오빠가 있었으니 '빨갱이 한티 잽히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 휩 쌓여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라고 생각한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한다.

재혼하지 않고 살았던 아버지

"재혼하면 자식들 고생시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끝내 재혼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외동딸이었던 창순은 큰 오빠가 결혼하기까지 살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정치판을 오가면서도 농사를 지었고, 오빠들도 성장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살림은 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나이 꿈많던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철이 들어 아버지의 고생에 마음 아파하며 산 것이 소녀 시절의 전부였다.

"사람들이 인물 좋다고 아버지에게 재혼하라고 여러 번 권했는디 끝내 자식 생각하며 재혼하지 않고 살다가 가셨어."

훈훈했던 시댁

1956년 나이 21세에 사곡면 해월리로 시집왔다. 시댁 식구는 아홉이었고 시할머니가 살아 계시고 시누이가 넷이나 있는 집이었다. 일견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할만 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마음이 선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배우지 못한 길쌈을 시어머니에게 배우는데 꾸지람을 하거나 언성 한번 높이는 일이 없었다. 특히 명잣는 법을 시할머니에게 배웠는데 시 할머니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마을이 산골이라서 물래방아가 멀리 있어 결혼 후 4년 동안은 절구질로 음식을 지어야 했기에 어려웠으나 몸은 곤해도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세상 좋아진 거 느낀 것이 두 번유. 동네에 발동기 있는 방앗간이 생겼을 때 하구 즌기(電氣) 들어와 세상이 밝어졌을 때유. 그때는 정말 좋았어유."

잘 자라 준 3남매

그녀는 3남매를 두었다. 위로 두 딸 막내가 아들이었다. 다행히 3남매는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 주었다. 당시 자식을 고등학교도 가르치기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큰딸부터 대학에 보냈다. 큰딸은 집안일도 하면서 공부를 잘했다. 지금은 공주 시내에서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며 잘 산단다.

둘째 딸은 마을 입구에 농원을 차리고 마을 부녀 지도자 일을 하면 살아가고 막내인 외

아들은 중고등학교 내내 1 2등을 다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 분야 연구원으로 일한다.

"우리 아들은 대학교 수석으루 졸업했구. 필리핀,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을 댕기며 공부두 하구 연구두 한 사람여."

한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단다. 아들이 농촌진흥청 연구직이 되었을 때 수원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과 멀리 떨어지기 싫어 예산에서 근무하도록 권했다는 것이다. 수원에서 시작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 욕심으로 막아선 것 같아 후회된단다. 그런 아들도 이제는 정년퇴직을 하고 주말이면 어머니 집에 와서 농사를 돕고 있다.

아들의 권해서 교회에 나가고

남편은 사곡, 신풍에서는 명문 가문의 후손이다. 조선 초기 영의정을 지낸 정분 선생의 후손으로 정씨 종중의 임원을 맡아 일하였다. 집안이 유교적인 관습을 중요시하고, 매년 종중의 시향을 모시는 중요한 위치였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미신을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마을 교회 목사님께 여러 번 편지해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 어린 전도에 굴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주말이면 아들 며느리가 차로 데릴러 와서 신관동 교회로 나가. 그것도 좋지. 그거 아니래두 며느리가 가까이 산다고 자주 와 줘서 고맙지만."

농사일로 자주 오는 아들과 교회 때문이라도 며느리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었다.

마을의 민속과 부녀자 생활문화를 채록하고

김창순은 기억력이 매우 좋은 할머니다. 시아버지는 마을 반장 일을 오래 보았고 남편은 이장을 5년 동안 보았기에 마을 일을 아는 것도 많아 다양한 민속과 부녀자들의 생활문화를 채록할 수 있었다.

마을의 산진제와 거리제, 부녀자들의 기우제 등 마을 고사와 명절 음식이며 사시 절기음

식이나 풍습. 마을의 밤농사 도입 이야기,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 사항. 새마을 가꾸기 사업, 퇴비 증산 등의 내용이다.

<인터뷰어_ 이걸재>

보령시

| 보령의 바다 Ⅳ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의 농업과 김양식 152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의 어업 165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의 어업 184
소도와 학성리마을의 생활모습 변화 198
보령시 오천면 소도·추도, 천북면 학성리의 주민생활 220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의 어업 234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의 주민생활 258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고래 마을의 김양식 276
보령 웅천장 새우젓 상인의 생활 294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의 어업 307
오천면 원산도리 구찌마을 주민들의 생활 324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신 성 근 (1938년생)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의 농업과 김양식



출생과 성장

신성근 님은 1938년 출생하였다. 평산 신 씨로, 7대조 할아버지가 원산도로 들어왔다고 전하나 현재 원산도에는 7대조 할머니 묘부터 모시고 있다. 오천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원산도로 들어왔는지는 전해오지 않는다. 원산도에 거주하는 평산 신 씨는 주로 점촌과 진고지 마을에 산다.

할아버지가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어 많은 자손이 퍼졌고, 아버지는 딸 다섯을 낳고 막내로 신성근 님을 낳았다. 아버지가 52세, 어머니가 43세 때였다. 그래서 노인자제 소리를 들었고, 또래보다 15살이나 나이 많은 분들과 위친계 등을 함께하며 생활하였다.

학교는 광명초등학교만 졸업하였다. 당시 원산도에는 중학교가 없어 교육열이 높은 부잣집이 아니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결혼은 30세에 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아버지는 중선배를 탔고, 자신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신성근 님의 아버지는 남의 중선배를 타고 멀리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다. 남쪽 바다부터 연평도 구월이골까지 다니면서 조기를 잡았다. 신성근 님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옛날부터 김발도 맸지만, 1979년도를 마지막으로, 이후 김발을 매지 않았다. 이후 2년 동안 염전에서 일했고, 농사를 지었는데 논도 많지 않았다. 최초로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은 1950년 무렵 토지개혁으로 진촌 사람 논 322여 평을 소유하였다. 이 논은 1960년 6월 29일 날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논을 늘렸다. 최고 많이 농사지은 것은 남의 논까지 포함하여 17마지기 3,500여 평이었다.

지금 원산도에는 주민들이 늙어 어장을 할 수 없다.

현재 원산도 점촌마을에는 40여 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공동어장에 나가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는 3가구뿐이다. 3가구만이 나가서 굴이나 조개를 잡아 팔을 수 있다. 작년인 2022년에는 마을 앞 갯벌에 많은 굴이 있었으나 갯벌에 들어가 굴을 따올 수가 없어서, 단 3가구만이 작업하였다. 점말 뿐 아니라 짐말 부락은 70가구 중 15가구만이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원산도의 마을 어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원산도의 전기는 1980년 들어왔다.

원산도의 전기는 1980년 7월 19일 들어왔다. 당시 점등식 행사는 원산도초등학교 위쪽에서 했는데 안면도보다는 5~6년 늦게 들어온 것이다. 원산도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지하수를 파 논에 물을 넣을 수 있었다. 원산도에는 하천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지었고, 둠벙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했는데 이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큰 변화였다.

해방 후, 점촌마을에는

해방 후 1950년 무렵 점촌마을에는 10여 가구가 중선배를 부렸다. 개 건너에 3~4가구, 점촌 마을에 6~7가구가 부렸는데, 무동력선이었지만 많은 선원들을 싣고 남쪽바다에서부터 연평도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다. 주로 조기를 잡아 현지에서 팔았다. 신성근 님의 아버지도 남의 중선배에서 일했다.

중선배는 마을 앞에 대기 어려웠다. 바다가 얕아 왜사리[1] 때나 정월보름, 고사 지낼 때만 대고 고사를 지냈다. 다른 때는 바다가 깊은 진고지 당산 너머에 댔다가 출항하였다. 중선배가 출항하려면 선원들이 보름 동안 먹을 식량과 물, 나무를 싣고 떠났다. 물은 진고지 마을 샘에서 길어갔다.

출항한 지 대략 15일이 지나 한 사리가 지나면 배가 돌아오는데, 고기는 현지에서 팔고, 먹을 고기만 가지고 돌아왔다. 고기는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팔기도 하였다. 작은 뎀마에 싣고 육지에 나가 곡식과 바꾸어 왔는데 이것을 '등짐'이라고 하였다.

1979년까지 김 양식을

원산도에서는 옛날부터 김 양식을 하였다. 아마 일제강점기에도 김 양식을 했던 듯, 1938년생인 신성근 씨가 어렸을 때도 김 양식을 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갯벌에 말뚝을 박고, 대나무로 엮은 발을 매어 양식하였다. 말뚝은 철장으로 파고 끼워 넣었고, 대

1) 물이 많이 들어오는 큰 사리.

나무는 육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산도에서는 김 양식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집집마다 양식하였다.

그러나 1979년을 마지막으로 김 양식을 하지 못했고, 마을 앞에서의 양식이 없어진 뒤로는 3~4가구가 마을 남쪽, 해수욕장 앞에다 부유식으로 양식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로써 원산도의 김 양식은 끝났다.

1979년 김양식이 끝난 후 말뚝과 김발을 바다에 그대로 방치하여 문제되었다. 수협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품삯을 주고 정비하였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 했다.

샘이 있는 논에만 못자리를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 원산도에서는 물이 귀해 아무 논이나 못자리를 할 수 없었다. 샘(둠벙)이 있는 곳에 못자리를 하였다. 날이 가물면 둠벙의 물을 바가지로 퍼내어 모를 길렀다. 화학비료도 없어 인분을 못자리에 내기도 하였다. 인분을 바닷물과 섞어 썩혀 못자리에 뿌렸다. 모내기도 비가 와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떤 해에는 장마가 시작된 초복 때 모를 심었다.

논의 거름으로 나뭇잎을 베어 넣었다.

옛날 비료가 없던 시절, 논의 거름으로 산에서 풀이나 가랑잎을 베어다 넣었다. 가랑잎을 넣은 논은 물이 새카맣게 되었다. 거름이 귀했어도 해초를 뜯어다 넣지는 않았다. 해초는 거름이 되지 않았다.

쌀이나 보리를 빌려주고 50%의 이자를

어려운 시절, 식량이 없는 집에서는 쌀이나 보리를 얻어먹고 다음 해에 갚았다. 식량을 얻어먹고 갚으려면 50%의 이자를 내야 했다. 쌀 1가마를 얻어오면 15말을 갚아야 했고 보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것을 '장리'라고 하였다.

어려운 시절 고구마가 식량이었다.

원산도에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밭에 심은 고구마는 긴요한 식량이

었다. 원산도에서는 집집마다 고구마를 심어 방에 저장하고 겨우내 먹었다. 고구마는 김발에 사용한 대나무를 엮어 둥그렇게 만들어 방에 보관하였다. '붓장'이라고 하였다. 집집마다 5~6가마의 고구마를 캤다.

원산도의 원뚝

원산도의 원뚝은 278m인데 일제강점기 전라도에서 온 호쭉호쭉하는 사람들이 막았다는 전설이 있다. 원뚝 안에는 6정짜리 염전 2개가 있다.

호쭉호쭉은 훔치훔치의 와전이다. 일제강점기 증산도의 일파인 태극도 신도들이 원산도에 들어와 간척사업을 하였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부르는 훔치훔치가 와전되어 호쭉호쭉으로 전해지고 있다(면담자 추가)

원산도의 주 작물

옛날 원산도에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 당시 식량이 귀한 때라 밭에는 주로 보리를 심었다. 보리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 인분을 바닷물과 섞어 썩혀 사용하였다. 보리를 베어낸 뒤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2모작하였다. 콩, 고구마 등을 심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옛날 바슴할 때에는 들에서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다가 바슴하였다. 집이 좁아 마당이 없는 집에서는 부잣집 마당을 빌려 사용하였다. 보리도 모두 마당으로 져 날라 바슴하였으며, 벼도 베어 논둑에서 며칠간 놓아두었다가 약간 마르면 바람이 잘 닿는 곳으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마당으로 옮겨 바슴하였다.

보리 바슴은 옛날에는 도리께로 했다가, 원동기가 나온 이후에는 원동기와 탈곡기를 마당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슴하였다. 벼 바슴도 마당에서 홀태로 훑어서 하다가, 이후에는 회전식 탈곡기로 들에서 하였고, 콤바인이 나온 뒤에는 벼를 베면서 그대로 탈곡한다.

3개의 방앗간

원산도에는 선촌, 점촌, 짐말, 이렇게 3곳에 방앗간이 있었다. 옛날 방앗간에서는 벼만

방아찧는 것이 아니라 보리 바슴도 하였다. 보리 바슴은 각 가정의 마당에서 했는데, 원동기가 무거워 바닥에 통나무를 깔고, 끌거나 밀어서 이동하였다.

굴을 따고 바지락을 잡았다.

점촌 마을 앞에 있는 갯벌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갯벌이 높게 퇴적되어 사리 때 바닷물이 들어와도 수심이 얕아 중선배를 대지 못하였다. 그래서 갯벌에서 채취하는 어패류도 많지 않다. 굴도 많지 않았고 바지락도 많지 않았다. 바지락은 정부의 지원과 어촌계의 출연으로 종패를 구입해 뿌려 캐내고 있다.

덤장을 맸다.

점촌마을 앞 갯벌에서도 덤장을 맸는데, 1~2집에서 맸다. 기술이 없어 아무나 맬 수는 없었다. 숭어 같은 고기를 잡았다.

여파루 다니기도 어려웠다

섬 주민들은 사리 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나 암초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다녔다. 배를 타고 다녔는데 여파루라고 하였다. 그러나 점촌 주민들은 여파루를 다닐 수 없었다. 마을 앞 갯벌이 높아 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앞에 배를 댈 수 없어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다.

어촌계가 3개다.

원산도의 어촌계는 행정리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3리까지 있으므로 어촌계는 3개이다. 계원은 2리가 98명이다. 원산도의 북쪽, 원뚝 제방 수문 동쪽 부분은 1리 어촌계 소속이고, 수문 서쪽에서부터 사창마을까지는 3리 어촌계, 나머지 구간은 2리 어촌계 구간이다.

2리 어촌계에서도 어로구역은 마을별로 구분하였다. 2리에 속하지만 구찌 어촌계는 원산도 북쪽의 구찌 마을 북쪽에서, 점촌 마을은 마을 동쪽 부분에서, 도투마리 마을은 마을의 서쪽 부분에서 어로작업을 한다. 점촌과 도투마리 마을은 똥 섬 남쪽 갯고랑을 경계로 해산물을 잡고 있다. 해삼이나 전복양식장은 어촌계 단위로 하지만, 갯벌에서 조개나 굴

을 채취하는 것은 작은 마을 단위로 한다.

외지 사람들이 원산도에 들어가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점촌마을의 경우에는 300만원만 내면 곧바로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뒷박 김을 생산하였다.

점촌마을에서 김발을 지주식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김영준 씨다. 김해 김 씨인데, 그 분은 9남매를 두었고, 셋째아들이 1923년생이므로 대략 1890년대 생이다. 지금 생존했으면 130세 정도 된 분이다.

옛날 원산도 점촌마을에서는 뒷박 김을 생산하였다. 당시 보령지방의 다른 마을에서는 현재와 같은 규격의 김을 생산했지만 점촌마을에서는 전라도와 같이 4각형의 김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정사각형의 틀에 물에 섞인 김을 뒷박으로 부어 만드는 김이다.

당시 지주목은 원산도 나무를 많이 사용하였고, 대나무는 전라도에서 온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대나무의 길이는 180cm고, 이것을 10자 길이로 엮어 설치하였다. 이것 10개가 모이면 1떼가 되었다.

김발을 30년 동안 맸다.

신성근 님은 부모님부터 대를 이어 김발을 맸다. 15떼를 맸는데, 하루에 2000~3000장을 생산하였다. 김을 말리는 것이 문제였는데, 각목으로 만든 틀에 김발을 꽂아 말렸다. 각목으로 만든 틀을 '사지꼬'라고 하였다. 판매는 주로 장사꾼들이 들어와 사갔고, 마을 사람들이 사다가 팔기도 하였다. 입찰하지는 않았다.

김을 많이 생산했지만, 대출을 받아 시설을 하고, 풍년이 들면 김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큰 돈을 벌지 못했다.

김 포자는 고대도, 장고도에서

원산도 점촌 마을 앞에서는 김 포자가 잘 붙지 않았다. 그래서 고대도나 장고도에 김발을 가져가 붙여오기도 하였고, 원산도 안의 한여에서 붙이기도 하였다. 외지에서 붙여 와야 김이 촘촘하게 자랐다.

바지락은 종패를 뿌려 잡고

원산도 점촌마을 갯벌에는 바지락도 많이 서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정부의 보조를 받아 종패를 뿌려 수확하고 있다. 비용의 약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 정도는 어촌계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모든 어촌계원이 바지락을 잡을 수는 없다. 어촌계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주민이 절반인 20명에 불과하다. 신성근 님도 3년 전부터 바지락을 잡지 못한다.

점촌 마을 사람들 주벅도 맸다.

과거 점촌마을 주민들은 주벅도 맸다. 점촌마을 앞 갯벌은 주벅을 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선촌마을 북쪽 한여나 원산도 서쪽 풋살여 등에 맸다.

점촌마을 주민들은

과거 점촌마을 주민들은 광천 장을 보았다. 마을에는 장배라고 하는 장보기 전용 배가 있어 장에 다녔다. 당시에는 안면도와 장고도, 고대도 주민들이 모두 광천 장으로 다녀, 장배가 30여 척이 넘었다. 원산도에는 선촌, 점촌, 짐말에 각 1척의 장배가 있었는데, 점촌에서는 김수갑 씨나 김영옥 씨가 장배사업을 하였다.

장배도 중선배처럼 점촌마을 앞에서는 출항하지 못하고 진구지 마을 당산 너머에서 출항했다. 갯벌이 높아 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천 장은 예나 지금이나 4일 9일이었고, 점촌마을에서는 3일에 출발하여 독배에 닿았고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잔 뒤에 광천 장을 보고 돌아왔다. 당시 광천 독배에는 섬사람들을 괴롭히는 깡패들이 많았다.

이후 오천 장을 보기도 하였다. 오천 장을 볼 때는 오천에 있던 행정선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객선이 생기면서부터는, 객선이 대천과 왕래하기 때문에 자연히 대천 장을 보게 되었다. 현재 원산도 주민들은 대천 장으로만 다닌다.

의가사제대 하였다.

신성근 님은 23살에 군대에 입대하여 13개월 만에 제대하였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

고 대천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논산훈련소 교환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데, 독신아들이고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 13개월 만에 의가사제대 하였다.

30살에 결혼.

신성근 님은 30세에 늦게 결혼하였다. 안면도 누님 사는 마을에 간척사업을 하였고, 전라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았다. 누님 댁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 주었고, 누님의 중매로 전남 여천군에 사는 처녀를 소개받았다. 30세 때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 원산도 본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당시 20세로 여순반란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신부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광주교도소에 있다가 돌아왔고, 경찰들이 다시 잡아다가 배에 실어 마을 사람과 함께 수장시켰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시신이 발견되어 장사 지냈으나 신부의 아버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나무로 만들어 장례를 모셨다. 당시 신부는 3살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재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시집온 것이었다.

어렸을 때 공치기를 많이 하였다.

옛날 점촌마을 청년들은 원산도 백사장에서 공치기를 많이 하였다. 10여 명의 청년들이 양편으로 갈려 공치기를 했는데, 막대기는 밑이 우산대처럼 구부러진 막대였고 '공채'라고 불렀다. 공은 골프공처럼 나무로 만들었다. 백사장에 금을 그리고 끝에는 돌을 놓아 문을 만들었다. 공을 쳐서 문으로 들어가면 점수를 내는 것이었다. 문의 폭은 약 10m 정도 되었다.

점촌마을에는 위친계가 있었다.

점촌마을에는 위친계가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도왔다. 초상이 나면 마을 전체가 3일 동안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초상집을 도와주었으며, 상여를 메어 주는 등 장례를 모실 때까지 함께하였다. 상가에는 염하는 데 사용하라고 마포 2~3필을 주었다.

점촌마을의 상엿집은 현재도 남아 있다. 상여의 부품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장강틀도 모두 썩었지만, 1971년에 지은 블록건물은 현재도 남아있다.

점촌마을에서는 상여가 나갈 때 북을 치기도 하고 방울(요령)을 흔들기도 하였다.

점촌마을에는 초분이 있었다.

점촌마을에는 옛날에 초분이 있었다. 신성근 님도 보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가족 중에서도 초분으로 장사지낸 분은 없다. 나무하러 가서 보았으나 무서워서 피하였다. 초분이 있던 곳은 마을 남쪽, 방죽(방죽들)의 서쪽 산속이었다. 그냥 짚으로 덮어놓은 겉모습만 보았다.

점촌마을에서는 조상단지를 모셨다.

점촌마을에 사는 김해김씨 댁에서는 옛날 조상단지를 모셨다. 선반에 백지로 싼 단지를 올려놓고 조상단지라고 하였고, 절도 하면서 위했다. 신성근 님 집에서는 조상단지도, 성주도 모시지 않았다.

점촌마을 당제는 신성근 님 아버지세대에서 지냈다.

점촌마을 당집은 개 건너 마을 남쪽 산에 있었다. 원산도해수욕장과 점촌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당산에 당집은 없었고, 돌로 제를 올리는 곳을 만들어놓고 제를 올렸다. 신성근 님 아버지 세대에 제를 모셨고, 아버지가 마을의 당을 잘 모시고, 딸 다섯을 낳은 후에 자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집 자리는 현재 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점촌 마을의 서낭댕이는

점촌마을 서낭댕이는 원산중학교 옆 길가에 있었는데, 짐말, 사창 쪽으로 통하는 길가였다. 돌을 쌓아놓고 오색 천을 늘어뜨려 놓았었다.

원산도에는 마을마다 동네 산이

과거 나무를 때고 살았을 때는 원산도에 동네 산이 있었다. 선촌과 진고지 마을에도 있었고, 짐말에도 있었다. 선촌 마을은 간사지 옆 높은 산, 진고지 마을은 당산, 짐말은 오봉

산에 마을 산이 있어 공동으로 연료를 채취하였다. 그러나 연료가 바뀌어 나무를 하지 않게 되자 모두 팔아 버렸다. 짐말에서 판 산이 대명리조트 부지가 되었다.

6.25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신성근 님은 6.25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6.25당시 원산도에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고 안면도에 사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다. 신성근 님도 이들 20여 명이 산에서 총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원산도에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백사장 남쪽에 연도 같은 섬을 가리키며 어느 어린이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때 어린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저것이 군함인데 물이 들어오면 원산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공산주의자들이 뭍에 올려놓은 뗌마를 밀어내어 타고 안면도로 도망갔다.

이들은 이날 원산도의 유지들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유지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점촌은 점마지, 첨마지로도 불린다.

점촌마을은 옛날 점마지 또는 첨마지라고 불렸다. 점마지나 첨마지가 점촌이 된 것이다. 점촌 마을 안에서 그릇을 굽지도 않았고 그런 흔적도 없다.

점촌마을의 새마을운동 지도자.

점촌마을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는 김용채님이었다. 예비군중대장도 했고, 동 계장을 할 때 마을길을 넓혔다. 당시 도투마리로 통하는 큰 길은 이미 넓혀져 있었고, 마을안길, 논으로 통하는 길을 넓혔다.

원산도의 교회

원산도에 교회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60년경이다.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들어와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후 바닷가나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보다가, 교회를 지었다. 원산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선촌에 있는 감리교회이다. 이후 교회가 확장되어 구찌에도 감

리교회가 들어섰다. 신성근 님은 선촌의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점촌의 성결교회로 옮겼다.

점촌의 성결교회는 1964년경 원의중학교와 함께 생겼다.

점촌마을의 교회는 성결교회이다. 장항의 김옥선 씨가 정석모 목사 부부를 보내어 선교활동을 하였고, 선교활동을 위해 원의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김옥선 씨가 원산도에 거주하거나 자주 오지는 않았고 정석모 목사를 보내 선교활동과 교육 사업을 한 것이다. 김옥선 씨는 원산도 주민들에게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원산도 주민들은 김옥선 씨를 지지하였다.

몇 년 전 학생 수 감소로 원의중학교는 폐지되고, 학교 재단인 송죽학원에서는 보령시에 부지를 47억 원에 매각하였다. 그때 교회부지 1120평도 함께 매각되어 현재 보령시 소유이다.

원산도에는 3개의 염전이 있었다.

원산도에는 3개의 염전이 있었다. 원뚝 안에는 2개의 염전이 있는데, 모두 6정씩이고, 한 곳의 저수지에서 바닷물을 공급받는다. 동쪽 염전은 박성권, 서쪽 염전은 이익상 씨 것이었는데 박성권 씨는 이익상 씨의 처남이다. 남매간에 염전을 소유한 것이다.

구찌 염전은 5정7단으로 추술문 씨가 운영하였다.

염전 일은 4월부터 시작하였다.

염전에서 소금을 굽기 위해서는 음력 3월부터 움직였다. 3월이 되면 그 해 일할 일꾼을 구하고 4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일은 겨우내 무너진 염전을 손보는 일부터 시작하고 소금을 만든다. 소금 만드는 데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는 것이다. 높은 수위 때 담아 놓아야 저수지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저수지 물을 염판으로 끌어들여 순서대로 내리면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든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대개 염전 주인이 하였다. 마지작 결정지에서 물을 담으면 1일, 한 나절 만에 소금이 만들어졌다. 오늘 아침에 물을 넣으면 내일 점심때쯤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 소금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외발리어카로 담아 운반하였다.

신성근 님이 염전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경운기 엔진을 목도로 운반하여 염수를 퍼 올리는 일이었다.

원산도에서는 애기가 죽으면 평장(平葬)으로 묻었다.

원산도에서는 애기가 죽으면 구덩이를 파고 평평하게 평장으로 묻었다. 육지에서는 평평하게 묻은 위에 돌을 쌓아 놓는데, 원산도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이다. 원산도에는 여우가 없어 묘지를 훼손할 염려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점촌마을에서는 주벅 어업을 하다가 부자간에 죽었다.

1965년경, 점촌마을에 살던 박완태 님과 그의 아버지가 주벅에서 고기를 잡아오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박완태 님은 1932년생 정도인데, 아버지와 함께 원산도 서쪽의 고린여에 주벅을 매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너무 많이 실어 배가 침몰하였다.

원산도에서 중선배를 탄 사람들은 이북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다.

옛날 중선배는 조기를 따라다녔다. 남쪽 바다에서부터 조기를 따라 연평도까지 갔는데, 조기떼를 따라다니다 보면 자칫 이북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연평도 주변에서는 구월이골이라는데가 특히 조기가 많았는데 월북하기 쉬웠다. 그래서 북한에 잡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1925년생인 신성근 님의 4촌 형님도 이북에 잡혔었다고 한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이 상 환 (1936년생)
보령시 남포면 열린바다로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의 어업



출생과 성장

이상환 님은 1936년 2월 5일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서 출생하고, 1952년 이웃 섬인 죽도로 이주하였다. 용머리 마을은 경주 이 씨 집성촌으로 번창할 때 100여 가구가 살았으나 경주 이 씨 이외의 타성은 단 1가구일 정도로 밀집도가 높은 집성촌이었다. 경주 이 씨는 이상환님의 10대조가 용머리마을로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에 묘소가 모셔져 있다. 11대조는 부여군 옥산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여 옥산에서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환 님의 아버지는 6형제였고, 이상환 님은 3남6녀 중 2째 아들이었으나 형이 6.25때 전사하는 바람에 장남 역할을 하였다.

용머리의 경주 이 씨들은 마을에서 산출되는 애석을 이용하여 옛날부터 석공업을 하였고, 이상환 님의 선조들도 대부분 석공업에 종사하였다. 이상환 님의 아버지 6형제가 모두 석공업에 종사하였다.

이상환 님은 월전리에 있던 월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천수산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학제가 개편되어 대천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대천중학교는 후에 주포면 보령리로 이동하면서 보령중학교가 되었다.

이후 각자(刻字) 기술자인 아버지 이윤우(李潤雨, 1904)님을 따라 각자를 배워 46세까지 각자공으로 일하였다. 각자공으로 일하는 한편, 어업에 종사하여 17세부터 남의 배에서 일했고, 19세에는 작은 배를 구입하여, 75세까지 어업에 종사하였다.

26세에 이웃마을인 남포면 삼현리에 거주하던 제주 고 씨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대섬에서 자라 학교에 다녔다.

이상환 님은 석공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상환 님의 기억으로는 할아버지 이종복(李鍾福, 1871~1928)님이 석공장을 하였다고 들었다. 남포면 용머리마을에서 애석이 산출되는 주끝이에 석공장을 짓고 운영하였다. 당시 공장은 거적을 쳐 겨우 비가림만 한 정도였고, 일하는 사람이 5~6명이었다. 이후 큰아버지가 석공장을 인수하였으며, 아버지 6형제가 모두 석공업에 종사하였다. 6형제 중 네 분은 조각을, 두 분은 각자를 하였고, 두 분은 석공장을 운영하였다.

이상환님도 각자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각자를 배웠다. 일감을 찾아 여러 곳

을 다니면서 일했다.

할아버지 공장에서는 애석으로 각종 석제품을 생산했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주끝이 공장에서는 갓석, 대석, 상석, 망주석, 거북석, 원석 등 각종 석물을 생산해서 판매하였다. 여러 석물이 생산되었으나 비석은 생산되지 않았다. 비석은 주로 오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머리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석물은 주로 배로 운반했는데, 만조 때 공장 가까이에 배를 대고, 썰물이 되면 배에 나무를 걸치고 돌을 올렸다. 힘든 일이어서 이웃한 공장의 인부들까지 모두 나와서 힘을 합해 끌고, 밀어 올렸다. 공장 근처의 바다는 작은 돌들이 쌓여 단단했기 때문에 무거운 돌도 굴림목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었다.

이상옥 씨 할아버지 이종래(李鍾來)씨가 석공장을 운영하여 큰돈을 벌었다.

용머리에 거주하던 이상옥 씨는 큰 부자였다. 이상옥씨 집안이 돈을 벌은 것은 할아버지인 이종래씨가 용머리 주끝이에서 석공장을 했기 때문이다. 용머리 주끝이는 바다와 이어진 산지로 애석이 산출되었다. 이 애석을 이용하여 여러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들은 원석을 캘 때마다 산 주인인 이종래 씨에게 분철(分鐵)을 내야 했다. 분철은 땅 주인에게 내는 현물이다. 이종래씨는 공장도 운영했지만, 다른 공장에서 캔 애석에 대해서도 일부를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3000석의 소작을 받았다.

월전초등학교는 월전리에 있다가 양기리로 이동.

이상환 님이 졸업한 월전초등학교는 남포면 월전리에 있었다. 부자인 이상옥씨의 토지 희사 덕분이었다. 이상환 님이 1회로 졸업한 후 3회까지 졸업하고, 남포면 양기리로 이동하였다. 그래도 학교 이름은 월전초등학교이다.

대천수산중학교는 신흑동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이상환 님이 월전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입학한 대천수산중학교는 신흑동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이상환 님은 3년 동안을 통학했는데, 썰물이 되면 갯벌로 감

을 건너 다녔고, 들물이 되면, 남포면 소송리, 제석리, 삼현리를 통하여 걸어 다녔다. 아주 먼 길이라 새벽에 출발해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먼산나무를 다녔다.

이상환 님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먼산나무를 다녔다. 남포면 양기리, 웅천읍 두룡리 두루니를 지나 잔미산에서 나무하였다. 어떤 때는 잔미산 너머까지 가서 나무하기도 하였다. 아침에 누룽지를 싸 가지고 출발하여 저녁 늦게 돌아왔다. 잔미산이 아니면 나무가 없었다.

각자 기술은 정을 가는 것부터 배우고, 담금질하는 것을 나중에 배웠다.

각자는 처음 정을 가는 것부터 배운다. 각자에 사용하는 정은 아주 강한 줄쇠[2]로 만든다. 모정과 옆정이 있는데 모정은 모나고 뾰쪽한 정이고, 옆정은 납작한 정이다. 각자를 배울 때는 처음에 벼린 정을 가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정을 벼리는 것이다. 정을 벼릴 때 발갛게 달은 것을 식기 전에 때려 벼려야만 한다. 만약 식어 색이 새카맣게 변하면 무르게 되어 사용할 때 파리 주둥이처럼 되고, 다시 달구어 벼리면 사용할 때 부서지게 된다.

각자는 종이를 붙이고 각정으로 찍은 후부터 시작한다.

비석에 각자를 하려면 글씨를 비석에 붙이고 각정으로 찍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문연다'고 한다. 이때 글씨는 유명한 사람이 쓴 것이 많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후 글씨를 떼 내면 지렁이가 기어간 것처럼 볼품없다. 그러나 각자공은 글씨의 마제잠두(馬蹄蠶頭) 특징을 잘 기억해야 글씨체의 변형이 없이 잘 새길 수 있다.

명필가들은 글씨를 새길 때 점검하여 잘 새기지 않으면 각자공을 교체시키기도 한다.

각자의 방법은 주로 통각을 많이 하였다.

2) 쇠를 깎는 줄로 만들었음.

작자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주로 하는 각자는 통각이라고 불리는 바닥이 둥그스름하게 들어가는 각자이다. 대부분의 비석은 이 방식으로 하는데 꼭 대나무를 쪼갠 면과 같이 한다. 이상환님도 대부분 통각을 하였고, 일부 각자에서 바닥이 평평한 각자를 하였다.

각자공의 품삯은 비쌌다.

각자공의 임금은 아주 비쌌다. 임금은 글자 수에 따라 받았는데, 대자는 소자의 10배 값을 받았고, 아주 큰 글씨는 따로 계약하였다. 농사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받았으나 일감이 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놀 때가 많았다. 오랫동안 한 작업장은 국립묘지를 창설할 때였다. 국립묘지 전쟁기념관의 '념'자를 새겼다. 서산에서는 이용구씨 집안 바위에 글을 새겼다. 일감은 한식 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9월9일 무렵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기계화가 이루어져 품삯이 내려갔고, 각자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1952년도에 대섬을 사서 이사 왔고, 자신은 1997년에 대섬을 떠나 용머리로 다시 이사 갔다.

이상환 님이 17세 되던 1952년, 이상환 님의 아버지 이윤우(李潤雨, 1904)님은 가산을 정리하여 대섬을 사서 이사하였다. 당시 용머리에 집, 밭 800평, 약간의 산이 있었는데 모두 팔아 대섬 전체 2.7정보를 산 것이다. 당시 이상환 님의 아버지는 각자를 했는데, 6.25 전쟁 중이라 생활이 어려워 미래를 내다보고 대섬으로 이주한 것이다. 당시 대섬에는 9가구가 살았다. 대섬을 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약간의 토지세를 받았고, 이상환 님은 남의 배를 타는 선원이 되었다. 남의 배를 3년 탄 후, 품삯으로 배를 넘겨받아 선주가 되었으나, 1톤 미만의 작은 배였다.

이상환 님의 아버지는 1973년 대섬을 홍승만 씨에게 팔았고, 아들인 이상환님은 그대로 살다가 남포방조제가 완공된 후, 1997년에 고향인 용머리 마을로 이사 갔다. 이때 홍승만 씨 측으로부터 보상받아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대섬 주민들은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였다.

1950년대 대섬에 살던 9가구의 주민들은 모두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였다. 대섬 앞에서 주낙을 놓아 조기와 갈치를 잡고, 봄이 되면 멀리 녹도나 외연도 근해로 이동하여 주낙을 놓았다. 미끼는 주벅에 걸린 밴댕이를 잘라 사용하였고, 사용한 주낙은 낚시 120개 달린 줄 20바퀴였다. 자망으로 꽃게도 잡았다. 배에는 3명이 탔다.

잡은 고기들은 신두레에서 기다리는 부인들에게 팔았고, 녹도나 외연도 같이 먼 곳에서는 현지에서 팔았다. 필요한 쌀은 모두 외지에서 사왔다. 죽도에는 논이 없었고, 약간의 밭만 있었다.

그물은 만들었고, 해당화뿌리로 물들여 사용하였다.

자망 그물은 목실[3]을 사다가 직접 만들었고, 해당화뿌리로 물들였다. 물들이지 않으면 쉽게 썩었고, 해당화뿌리로 물들이면 뻣뻣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황포돛대도 광목을 물들인 것이다.

죽도 주민들은 현재도 자망복합 어업을 하고 있다.

죽도 주민들은 1950년대처럼 현재도 자망으로 꽃게를 잡고, 주꾸미를 잡고 있다. 어선도 옛날과 같이 1톤 내외로 무동력선 때와 다름이 없다.

형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형 이상조(李相助, 1925~1952.9.8.)님은 6.25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하였다. 9.28수복 후 입대하여 참전하였는데, 당시 결혼하여 대천 신흑동에 분가해서, 어항에서 일하면서 살았고 아들 하나가 있었다. 전사 후 부인은 재가하고, 아들은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자랐다.

죽도에서 간첩 잡는 것은 보지 못 했고 현장 검증하는 것은 보았다.

죽도 용굴에서 간첩 2명을 잡은 일이 있었다. 당시 이상환 님은 전북 옥구에서 각자 일

3) 면사

을 하느라고 보지는 못 했지만, 나중에 경찰들이 데려와 현장 검증하는 것을 보았다. 간첩을 데려오고, 땅에 묻은 물건을 찾기 위하여 파 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용구멍은 폭파하였다.

개목의 박명수는 수리섬을 꼭 수시럼이라고 하였다.

남포면 양항리 개목에 사는 박명수라는 사람은 1933년생으로 이상환 님보다 3살 위였는데, 대섬에서 뱃일을 하느라고 자주 왔고, 친절하게 지냈다. 박명수씨는 이야기할 때에 양항리에 있는 수리섬을 꼭 '수시럼'이라고 하였다. 왜 수리섬을 수시럼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하면 수시럼이 맞다고 하였다. 개목 사람 중에서도 박명수씨만 유달리 수시럼이라고 하였다.

남포면 양항리 쇳들은 '숫들'이라고 불렀다.

남포면 양항리에 있는 넓은 사구를 주민들은 '숫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재는 쇳들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우평(牛坪)이라고 쓴다.

죽도에서는 밭농사만 지었다.

대섬 주민들은 섬 정상부 평평한 곳을 개간하여 밭농사를 지었다. 주된 작물은 보리였고, 보리를 베어낸 다음 고구마 등 각종 작물을 심었다. 쌀은 외부에서 사다 먹었다. 죽도 주민에게 밭농사는 일부였고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하였다. 어업이 아니면 죽도에서 살 필요가 없었다.

이상옥 씨는 중선을 2척이나 부렸다.

월전리 죽도에는 작은 배만 있었고, 용머리 이상옥 씨는 큰 중선을 2척이나 부렸다. 배를 정박했던 곳은 용머리의 북쪽 해안이었다. 이곳에 방파제는 없었지만, 육지로 가로막혀 안전하였다.

이상옥 씨네 중선배들은 하나에 7명씩 탔고, 먼 남쪽 바다에서부터 연평도 바다까지 다니면서 조기를 잡았다. 사리 때면 나가 조업하고 조금이면 들어왔는데, 많은 고기를 잡으

면 배 뒤에 깃발을 달고 풍물을 치면서 들어왔다. 이 깃발을 '후기'라고 하였다. 먼 바다에서부터 풍물을 쳤지만, 서풍이 불면 소리가 잘 들렸다.

배 주인인 이상옥 씨는 쌍안경을 가지고 용머리 뒷산에 올라가 들어오는 배를 쳐다보곤 하였다. 이때 이상환 씨같은 어린이들이 따라다녔는데, 이상옥씨를 대감이라고 불렀다.

사리가 시작될 무렵, 뱃고사를 지내고 바다로 떠났는데, 제상은 노가 있는 미앞짝(왼쪽), 앞 부분에 차렸다. 음식은 일반 제사나 비슷했고 돼지를 잡아 지냈다. 이때 흥겨운 풍물도 치고 노래도 불렀는데, 이상환 씨가 기억하는 것은 '칠산 앞바다로 돈 실러 간다.' 등이었다. 용머리 마을에는 예부터 당집이 없어 배에서만 뱃고사를 지냈다.

죽도에서는 음력 2월 하순부터 어업을 시작

옛날 죽도에서는 음력 2월 하순부터 주꾸미 잡이를 시작하였다. 주꾸미를 잡다가 3월, 4월이 되면, 녹도로 이동하여 약 1달간 주낙으로 조기를 잡았다. 이후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 죽도로 돌아와 주로 보골치를 잡으러 다녔다. 보골치는 죽도 서쪽 바다에서 잡았고, 가을이 되면 죽도 근해에서 주낙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았다. 조기와 갈치는 절이지 않고 생것으로 팔았다. 사람들이 죽도로 와서 사 가는데, 물이 들어오면 신두레나 해안까지 나가 팔았다.

보골치 낚시는 속을 미끼로 하였고, 가조기를 만들어 팔았다.

보골치 낚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속[4]을 미끼로 사용하였다. 속은 죽도 포구 앞에도 있었고, 용머리에도 있었으며 밤섬 근처에도 있었는데, 밤섬 근처가 가장 많았다. 속이 많지 않은 죽도 포구 앞에서는 삽으로 잡았지만 힘들었다. 그래서 주로 밤섬 근처로 가서 잡았는데, 파지 않고 선 채로 구르면 다리가 펄 속으로 들어가고, 이후 앞뒤로 몸을 흔들면 속이 기어 나온다. 그래서 속은 잡는다고 하지 않고 '친다.'라고 말한다. 속이 많이 있는 갯벌일수록 땅이 물러 잡기 좋았다.

4) 쏙을 보통 보령에서는 속이라고 함.

보골치를 많이 잡은 곳은 큰골과 용섬샛골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배를 타고 낚시질 현장에 나가 잠을 잤다. 동틀 무렵에 제일 잘 물기 때문이다. 하루에 200~300마리를 잡았고, 잡은 보골치는 가조기를 만들어 팔았다.

가조기는 보골치의 등을 갈라 만드는데, 비늘을 벗기지 않고 만들어야 오그라지지 않는다. 머리까지 갈라 동그랗게 만들고 소금에 절여 말렸다가 팔았다. 누지지 않도록 따뜻한 방에 두었다가 팔았다.

보골치와 함께 가끔 민어나, 도미, 가오리도 잡혔다.

대섬 주변의 독살과 덤장은 부잣집에서 운영하였다.

대섬 주변에 있던 독살과 덤장은 양기리의 부잣집에서 운영하였다.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고, 잡는 고기도 많았다. 특히 덤장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우마차로 실어갈 정도였다. 당시에는 죽도 주민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낙이나 낚시질 하는 것보다 덤장에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았다. 용머리 독살도 부잣집에서 운영하였다.

죽도 주변의 바닷가에서는 애석이 산출되었다.

죽도 주변의 바닷가에는 애석이 노출되어 채취하였다. 죽도에도 노출된 암맥이 있어 채석하였고, 신두레도 모두 애석으로 되어 있어 채석되었으며, 용머리나 웅천 관당리 유수 물에도 애석이 바다에 노출되어 채석하였다. 갯벌에 노출된 애석은 지상부만 채석되고 지하에 있는 것은 들물 때 바닷물에 잠겨 채석할 수 없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온다고 했는데 대섬에는 오지 않았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섬에 온다고 하여 난리였다. 군인들은 배를 가져와 사열할 준비를 하였고, 군청에서는 죽도에 있는 송충이를 모두 잡아냈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웅천 관당리 각굴에는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죽도 주민이 보리 섬에서 군인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1970년대에는 바닷가에 모두 철조망을 쳤다. 남포면 월전리, 양항리 해안에도 모

두 철조망을 쳐, 죽도로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특히 밤중에 죽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리 섬에 있는 군부대를 통과해야 하였다.

1970년대 초 죽도에 거주하는 주민 한 분이, 외지에 나갔다가 술에 취한 채 들어오다가 보리 섬에서 군인들한테 맞아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군인들은 처벌받았다.

군부대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주민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죽도 반장인 이상환씨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문의하였다.

1960년대 말, 죽도 근처 미역양식장에서 형제가 죽는 사건이 있었다.

1960년대 말 이상환 씨 외 1명이 죽도 앞바다에 미역양식장을 설치하였다. 안흥에서 포자를 가져다가 설치했는데 성공하였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양식하였고, 은포리 사람까지 양식을 하였다.

어느 안개 낀 날, 은포리 사람 박상권과 박상돈 형제가 미역을 따서 배에 가득 실었다가 침몰하여 모두 죽는 사고가 있었다.

1980년대 초, 죽도에서 사람을 싣고 용머리로 나가던 배가 넘어져 5명이 사망했다.

죽도에서는 육지로 나갈 때, 물이 적으면 신두레에 배를 대고, 많으면 용머리에 배를 댔다. 1980년대 초, 안면도에서 손님이 왔고, 이 손님을 용머리로 실어다 주기 위해 떠난 배가 백합양식장 말뚝에 걸려 침몰하였다. 당시 물은 얕았으나 추운 겨울이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 배 주인인 전무성씨를 포함해서 5명이 죽고 1명만이 살아남았다. 전무성씨는 수영도 잘하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인데, 바위에서 떨어져 뇌를 다쳐 몸이 성치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당일 죽은 사람들은 전무성씨 처이모의 아들(이종사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무성씨 처이모의 아들이 죽도에 잠깐 살았는데, 그의 친척들이 들어왔던 것이다. 당일 전무성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당번이었고, 막 돌아온 배에 이들을 싣고 다시 뭍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죽도에서는 형편 되는 사람이 뭍에까지 실어다 주고 실어 오는 풍습이 있었다.

죽도 학생들은 당번으로 정해진 배를 타고 월전초등학교에 다녔다.

죽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정한 당번의 배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당번은 학생이 있는 가구가 모여 정하였다. 대략 1달이면 절반 정도는 물이 빠져 배를 타지 않고 학교에 갔지만, 절반 정도는 배를 타고, 신두레나 양항리 장벌에 나가야 되었다. 학생들은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하교하였기 때문에 당번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 일찍 끝난 학생들은 양항리 숫들 백사장에서 놀다가 늦게 오는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학생들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 놀면서 배를 기다렸다고 한다.

당번이 닿은 학부모도 큰 부담은 아니었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일을 하다가 데려오면 되었다.

죽도에 학습장이 생겼다.

죽도에서 배가 뒤집혀 5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난 후, 죽도에서는 학습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먼저 월전초등학교 구용서 교장[5]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에게 요청하였는데 교육 장소는 주민들이 제공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당국에서는 죽도학습장을 설치하고 교사 1명을 배치해 주었다. 교실은 이상환님 사랑방이었다. 약 7~8년 운영하다가 남포방조제가 만들어진 후 폐쇄되었다.

당시 학생들 교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뒤쳐진 학생은 밤에라도 가르쳤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였고, 현재도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생활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앞에 축대를 쌓고, 발전기를 돌려 전깃불을 켰다.

죽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하였다. 지도자는 이상환 님이었고, 마을 앞 바다에 축대를 쌓아 어구를 쌓아놓고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1975년경에는 발전기를 사다가 돌려 전깃불을 켰다. 발전기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시동을 걸었고, 끄는 것은 이상환 님이 하였다. 어두워지면 발전을 시작하고 밤 11시에 껐으며, 애경사가 있을 때는 더 연장하여 운영

5) 1982년 3월 1일 부임.

하였다. 각 가정에서는 등잔불을 함께 사용하였다.

당국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름 값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1970년대 중반 죽도에는 1대의 텔레비전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발전기로 전깃불을 켠 뒤에, 무창포에 사는 나도형 씨가 이상환 님에게 텔레비전을 1대 사 주었다. 이것이 죽도의 유일한 텔레비전이어서 밤마다 9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시청하였다.

죽도에는 옛 주민들이 만든 방파제인 몬돌이 있었다.

죽도 마을 앞에는 옛 주민들이 만든 방파제인 몬돌이 있었다. 바다에 있는 누룩바위와 연결해 독살처럼 쌓았는데 길이 15m, 폭 2m, 높이 1m쯤 되었다. 주민들이 몬돌이라고 불렀는데 이상환 님이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다. 옛 주민들이 쌓은 것이다. 바람이 불어 허물어지면 그때그때 주민들이 보수하였고, 온 동네 주민들이 날을 잡아 공사하지는 않았다. 다른 섬처럼 몬돌 역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6.25때 공산군이 들어와 대나루에 호를 파고 지키다가 밤이면 내려와 선전활동 펼쳤다.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는 6.25때 나이어린 공산군들이 들어와 마을 남쪽, 대나루(장군배 북쪽 산)에 호를 파고 지키다가 밤이 되면 이경희 씨 댁 마당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선전하였다. 김일성 노래 등을 가르쳤다.

9.28수복 무렵에는 미군 군함이 올라가면서 함포사격을 하였다. 당시 어린이들은 마을 장벌에 나가 구경했는데, 군함이 빤히 보였다. 나중에 보니 포탄은 대천 해양과학고등학교 너머에 떨어졌다.

죽도에서도 당제를 지냈다.

죽도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당제를 지냈다. 당제를 주도한 사람은 녹도에서 이사 온 박영순 씨였다. 박영순 씨는 한학에 밝아, 택일을 해서 당제를 지냈는데 당집은 없었고, 백지를 끼운 왼새끼줄을 두르고 소나무에 의지하여 당제를 지냈다. 바닥에는 약간의 돌을

깔고, 제물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술 등이었다. 이상환님 아버지(1904년생) 세대에서 지냈다. 당에 뱃기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죽도에 처음 들어온 주민은 남포면 제석리에 살던 정행봉 씨 아버지였고, 이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9가구가 거주하였다. 녹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대부분 수운교를 믿었다.

정행봉 씨 아버지는 독실한 수운교 신자로 죽도에 들어와 기도하면서 생활했다고 한다. 이후 죽도에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녹도에서 박병순, 전남식, 박창국 씨가 들어오고, 정행봉 씨가 남포 제석리에서, 오상근 씨는 서산 해미에서, 김승연 씨는 부여에서, 이윤우 씨는 이웃 용머리에서, 추운식 씨는 웅천 수부리에서 들어왔다.

죽도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수운교를 믿었다. 수운교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은 박병순 씨였고 도호는 교호장이었다. 교당은 없었고 다만 도호가 연호자인 분이 일년에 2~3차례 찾아와 모임을 가졌다. 이상환 님도 수운교에 입교하였는데 도호는 대호자(大虎子)였다.

죽도에 거주했던 주민들 간에 인척관계는 없었다. 아들들이 분가한 2가구뿐이었다.

죽도에는 샘이 2개 있었다.

죽도에는 샘이 2개 있었다. 큰 샘은 섬의 동쪽, 마을 앞, 해안에 있어 큰사리 때 바람이 불면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였다. 물이 좋아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았고 수량도 많아 생활하기 불편이 없었다. 이기환님이 이주한 1950년대까지는 그냥 웅덩이여서, 장마철에는 바가지로, 수위가 내려가면 두레박으로 퍼 먹었다. 이후 시멘트로 만들어 두레박으로 퍼 먹었다. 김 양식을 할 때는 물이 대량으로 필요하여 부족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서남쪽 해안에 있었는데 1집에서만 먹었다.

죽도의 방파제는 대산건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죽도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파제는 몬돌이라고 불렸는데, 작고 파도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현재와 같은 방파제 겸 물양장이 만들어진 것은 남포간척지 제방공사 때문이다. 당시 대산건설에서 바지선에 돌을 싣기 위해 만들었으나,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바지선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방으로 돌을 운반하여 공사하였다.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는 1950년대에 교회가 생겼다.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다닌 사람은 서산할머니라고 불린, 이상옥씨 할머니였다. 어디로 다녔는지는 모르고,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만 있다. 이후 월전초등학교에 유한정 선생님이 부임하여 기독교를 전도하였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주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열심히 전교하였다. 당시 교회에 적극적이었던 분이 이상옥 씨의 동생 이상익 씨였다. 그는 자기 집의 벽을 털어 교회로 개조하여 예배를 보도록 하였다. 이 교회가 현재 용머리의 아랫교회이다. 신도는 극소수이지만 이상익 씨의 유언으로 유지되고 있다.

월전초등학교가 옮겨진 후, 옛 학교자리에 들어선 교회가 윗교회이다. 용머리 주민들은 대부분 윗교회를 다니고 있다.

죽도 주민들은 용머리 주민들과 대동계를 함께 하였다.

남포면 월전리는 2개의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댈월과 대자울이 월전1리, 용머리와 죽도가 월전2리로 분리되었다. 죽도 주민들은 용머리 마을과 같은 이장 관할 하에 있어 대동계를 함께 하고 상여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포계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 따라 들었지 마을 주민들 모두가 들지는 않았다. 쇳들 마을도 일부 월전2리에 속하나, 속하기만 할 뿐 양항리 쇳들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상엿집은 용머리 마을 북쪽 고궁가든 자리에 있었다.

죽도에서는 섬 동쪽 마을 앞에 김발을 맸다.

죽도마을에서는 섬 동쪽, 마을 앞, 현재 배 대는 곳에서 김 양식을 하였다. 신두레 쪽에서도 양식을 시도하였으나, 파도가 심하고 깊어 양식할 수 없었다. 좁은 공간이어서 4집이 양식에 참여하였고, 가장 많이 맨 주민이 이상환 씨였다. 10떼를 매어 하루에 10톳(1동) 정도를 생산하였다.

김 포자는 현장에서 붙였고, 파도가 세어 품질이 아주 좋았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그러나 인공포자를 붙인 뒤에는 품질이 예전 같지 않았다.

죽도에서는 돌김도 생산되었는데, 양이 적어 상품으로 팔지는 못 하고 집에서 먹는 정

도였다.

김 양식은 1970년대 시작하여 제방을 막으면서 끝났으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김양식장이 정식 허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려고 하였으나, 좁은 면적이었고, 포구와 인접되어 있어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대천수산중학교는 감을 건너다녔다.

이상환 님은 용머리에 거주하면서 대천 신흑동에 있는 대천수산중학교에 다녔다. 이때 물이 빠지면 죽도를 지나 조잠갱구랑을 건너 갓 배로 그냥 건너다녔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조잠갱구랑은 물에 빠져야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썰물 때 갯벌을 건너는 것을 '감 건넌다.'라고 하였다. 물이 들어오면 개목-평촌-소뱅이-지석굴-흑포로 통하였는데 30리 길이었다. 한 달에 10여 일은 돌아다녔다.

죽도에서는 나무를 팔았다.

죽도에 9가구가 거주했지만, 나무는 충분하였다. 죽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상환 님의 아버지 이윤우님은 솔가지와 솔가루를 모아 소금 굽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용머리 주민들은 먼산나무를 했지만, 죽도 주민들은 먼산나무를 하지 않았다.

용머리나 죽도 주민들은 웅천 장을 주로 보았다.

옛날에는 웅천장이 컸고, 용머리나 죽도에서 가까웠다. 웅천 장에 가기 위해서는 대개 월전리 댈월-웅천 죽청리 진등-웅천 구룡리 고뿌래-웅천 대천리 구장터를 거쳤다. 지름길은 양기리 터굴-할미재-웅천 구룡리 고뿌래-웅천 대천리 구장터를 통하는 길인데 고개가 높아 잘 다니지 않았다.

대천장도 보았으나 웅천장보다 멀어 어쩌다 다녔다.

월전리 용머리 마을에서는 설날 하루 종일 세배를 다녔고, 정월보름날에는 월계(댈월) 사람들과 쥐불싸움을 하였다.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은 100여 호가 모두 경주이씨 집성촌이었다. 모두가 일가집이

라 설날이면 하루 종일 세배를 다니고 성묘를 다녔다. 큰 행사였다.

정월 보름에는 쥐불싸움, 연날리기, 널뛰기 등 각종 놀이를 하였는데, 쥐불싸움은 이웃 마을인 월계(댈월)마을과 하였다. 댈월 마을에는 남포 백씨들이 많이 살았다.

어렸을 때 꼬댁각시놀이 하는 것을 보았다.

이상환 님은 어렸을 때 마을에서 꼬댁각씨놀이 하는 것을 보았다. 처녀들 대여섯이 모여 꼬댁꼬댁 꼬댁각시 해가며 박수를 치면, 하나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죽도 주민들은 서로 태워다주어 불편 없이 살았다.

죽도 주민들은 모두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태워다주어 불편 없이 생활하였다. 먼 거리도 아니어서 부담 없이 육지까지 태워다 주었다. 육지에서 들어올 때도 신두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불을 놓아 신호하면 아무나 나가 실어 왔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죽도에서 배를 가지고 나가 태워 왔다. 다만 학생들 통학할 때는 당번제로 하였다.

따라서 배를 육지에 정박할 필요도 없었고, 정박할 곳도 없었다. 정박할 때는 용머리 북쪽, 수문 있는 곳에 하였다.

1달에 절반 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었다.

죽도는 원래 월전리 산 154번지였고, 소유권은 李英鎭-李相玉-李潤雨(1904)-洪承萬(1913~1986)으로 이어졌다.

죽도는 원래 한 필지로 월전리 산 154번지였다. 죽도를 처음으로 소유한 사람은 충남도지사(1948.10.18.~1951.12.17.)를 지낸 이영진 씨였다. 이영진 씨는 정부수립 후 초대 도지사를 지낸 사람으로 후에 아산 국회의원도 역임하였다. 이영진 씨한테 죽도를 산 사람은 용머리의 부자 이상옥 씨였다. 이상옥 씨는 쌀 3000석을 받는 부자였다. 이후 죽도는 용머리에 살던 이윤우 씨에게 팔렸는데, 작은 집 1채, 밭 800평, 좁은 면적의 산을 팔아 샀다고 하므로 쌀 몇십 가마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1973년 죽도는 홍승만 씨에게 쌀 500가마 값인 500만원에 넘어갔다. 홍승만 씨는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당시 국회의원

이었다. 현재는 홍승만 씨 아들, 홍승채 씨가 소유하고 있다. 홍승채 씨는 무창포 포구 근처에 별장도 가지고 있다.

죽도 부근에서는 굴, 바지락, 농올조개, 맛조개, 모시조개 등이 잡혔다.

죽도 부근의 갯벌에서는 굴, 바지락, 농올조개, 맛조개, 모시조개 등이 잡혀 소득원이 되었다. 굴은 죽도를 대표하는 해산물로 사방에서 잡혔는데 파도가 세서 품질이 아주 좋았다. 굴이 많이 나올 때는 남포읍내의 장사꾼이 사러 들어왔고, 직접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 바지락은 포구 안에서만 잡았는데 양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섬 주변에서 농올조개, 맛조개, 모시조개 등을 잡았으나 대량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바다에 나가면 산 가늠으로 위치를 찾아다녔다.

보골치 낚시질이 잘 되는 곳은 큰골인데, 장비 없이 찾아가는 것이 문제였다. 옛날 죽도에 살던 주민들은 정확하게 찾아 다녔는데, 원산도 도투마리의 장구막진 곳(평평한 지형) 위에 효자도가 살짝 나오게 보이는 곳이 바로 큰골이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는 것을 '산 가늠' 한다고 하였다. 죽도 주민들이 산 가늠하는 데 이용한 섬은 원산도, 효자도, 다보도, 석대도, 주끝이, 마량 등이었다. 주변의 섬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출항하려면 어선신고소에 신고하고 비표를 받아 출항하였다.

과거에 배가 출항하려면 어선신고소에서 비표(비밀표식)를 받아 출항하였다. 처음에는 사방 1M쯤 되는 여러 색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시하는 색을 꽂다가, 나중에는 노란 표식을 나누어 주었다. 항해하다가 군부대에서 수기 신호를 하면 보여주었고, 항공기가 나타나면 배에 깔아 보여주었다.

죽도 근해에는 나분여, 거문여, 조근여 등의 암초가 있다.

죽도 근해에는 대천해수욕장 밑에서부터 나분여, 거문여, 조근여라고 불리는 암초가 있다. 그리고 바닥이 돌로 된 곳이 있는데 글턱이라고 부른다.

죽도 부근에서 백합양식장을 운영한 기업은 동보산업, 충남물산이었다.

1960년대 말, 죽도 부근에는 넓은 백합양식장이 있었다. 남쪽에는 동보산업이, 북쪽에는 충남물산이 백합양식장을 하였다.

조기를 주낙으로 잡으려면 들물이 시작되는 시간에 놓아야 했다.

조기를 주낙으로 잡으려면 아주 민감하였다. 갈치는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데, 조기는 썰물이 끝나고 들물로 바뀔 때 잠깐 동안 물고 물지 않았다. 그래서 주낙도 이때 놓아 거두어들인다.

죽도 주변의 지명은 황새바위, 솟반여, 줄바위, 농바위, 하나시, 마파지가 있다.

죽도 입구의 북쪽에 있는 바위는 황새바위이다. 현재도 서 있다. 대천해수욕장 쪽으로는 솟반여가 있는데 물이 아주 많이 나가면 가슴까지 빠지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어 서북쪽으로 줄바위, 서쪽으로 농바위가 있다. 그리고 죽도 북쪽 해안을 하나시, 남쪽 해안을 마파지라고 한다. 옛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죽도에 살던 어민들 13가구는 죽도를 개발할 때 시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있다.

죽도를 개발하기 전부터 죽도에 살면서 어업을 하던 13가구는 죽도를 개발한 이후, 보령시 땅을 평당 18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약 3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있다. 2층으로 지었으나 좁은 땅에 13가구가 들어서 좁다. 위치는 심지를 뽑아서 결정하였다.

배를 지을 때나, 수항을 만들 때 삼나무[6] 껍질로 박을 쳤다.

박을 안 쳐도 물이 새지 않도록 배를 짓는 기술자가 외연도에 살던 김인재(김동섭) 씨였다. 나무로 배를 지을 때 판자와 판자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삼나무껍

6) 스기나무라고 함

질을 넣고 두드려 물이 새지 않도록 했는데, 이런 일을 '박친다.'라고 하였다. 배에서 사용하는 물통인 수항도 박을 쳤다. 배나 수항 모두 안쪽에서 박을 쳤다. 배를 정말로 잘 만드는 기술자는 틈이 없어 박을 칠 필요가 없었다. 외연도에서 배를 만드는 김동섭 씨가 그랬는데, 하도 기술이 좋아, 인재라고, 김인재라고 불렸다고 한다.

죽도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었다.

1950년대 이상환 님이 죽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주 오래된 묘지들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금초하러 오는 것도 보았다. 죽도에 살면서 만든 묘지가 아니고, 외지에서 살면서 죽도에 묘지를 만든 것이었다.

현재 죽도에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현재 죽도에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남포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근래에 만들었는데 정회원은 17명, 준회원은 47명이 가입되어 있다. 정회원은 배를 가지고 어업 하는 주민들이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황 광 현 (1948년생)
보령시 웅천읍 홀뫼1길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의 어업



출생과 성장

황광현 님은 장수 황 씨로 1948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에서 8남매 중 2째 아들로 태어났다. 장수 황씨는 인근 마을인 웅천읍 황교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황광현 님의 조상이 독산리로 들어온 것은 묘지로 보아 5대조부터라고 믿고 있다.

독산리에 거주한 선조들은 대대로 가난하여 논은 없었고, 밭농사와 바다에서 독살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다. 황광현 님도 가난하여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줄곧 농사일을 하거나 바다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아버지는 17살에 돌아가셔, 동생들을 돌보아야만 하였다.

29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현재는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웅천읍 독산리 홀뫼마을은 김해 김 씨의 집성촌이다.

황광현 님이 대대로 거주한 웅천읍 독산리 홀뫼마을은 김해 김 씨의 집성촌이다. 대부분이 김해 김 씨이고, 일부 설 씨도 거주하고 있다. 황광현 님은 5대조가 홀뫼마을로 들어왔으나 계속해서 독신으로 이어져, 4촌만 거주하였다. 마을에는 설 씨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초등학교 2년을 중퇴하고 줄곧 일하였다.

황광현 님은 황교초등학교 2년을 중퇴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동생들이 많아 학교를 그만두었다. 친구들은 학교에 갔지만, 황광현 님은 보리밭을 매거나 사방공사에 다녔고, 12살 때 마을에서 벌어진 양어장 공사장에 나가 일해 품삯을 받기도 하였다.

독산리 홀뫼마을에서는 섬 밭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황광현 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독산리 홀뫼마을 앞, 섬 밭에서는 소금을 만들었다. 바닷물이 들어왔고, 그것을 말려 지게로 져다가 큰 솥에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황광현 님은 아주 어렸을 때라 작은 게를 잡아, 소금 굽는 데서 구워먹곤 하였다.

황광현 님의 할아버지는 동업으로 큰 독살을 운영하였다.

황광현 님의 할아버지는 논이 없었고, 약간의 밭농사를 지으며 바닷가에 있는 큰 독살을 운영하였다. 큰 독살은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독살이었고, 이웃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독살의 길이도 크고, 굴곡이 있어 선창이 2개였고, 항상 2명이 물을 보았다.

독살은 1년 내내 관리하였고, 사리 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조금 때는 물이 빠지지 않아 잡지 못했다. 어떤 때는 독살 안에 들어온 많은 물고기를 보고도 물이 빠지지 않아 잡지 못했다.

독살에서 풍어를 위해 독살고사를 지냈다.

황광현 님의 할아버지는 1년에 두어 차례, 정월보름과 봄에 독살고사를 지냈다. 마을에 사는 무당인 추뱅이어머니를 불러다 지냈는데, 독살 들어가는 입구, 할미 섬 옆 바위에서 지냈다. 제물은 나물과 메밀범벅이었다. 메일범벅은 메밀가루를 개어 찐 것으로 3개를 만들어 지냈다. 맛은 없었다. 무속인이 지냈기 때문에 고장을 두드리면서 지냈다.

독살에는 선창과 독살 틀이 있다.

독살에는 긴 돌담인 독살 틀과 물이 빠지고, 고기가 모이는 선창이 있다. 고기는 선창에 쪽대를 대고 잡는다. 독살 틀은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선창 근처는 높고, 육지방향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독살에서는 턱지래기가 처음으로 잡히고, 이어서 까나리, 열치와 갈치, 갈멸, 숭어가 잡혔다.

독살에 처음으로 잡힌 고기는 입이 노랗고 반지처럼 생긴 턱지래기라고 하는 고기였다. 대량으로 잡히지는 않아 이웃과 나눠먹는 정도였다. 이어서 까나리, 다음에는 열치가 잡혔다. 열치는 손가락만큼 큰 멸치로 대량으로 잡혔고, 갈치가 따라와 잡혔다. 이어서 가을에는 작은 멸치인 갈멸, 이후에는 겨울까지 숭어가 잡혔다. 대량으로 잡히는 열치는 주로 젓을 담았고, 작은 멸치는 말려 팔았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삶아 말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으로 말대방석에 말려 팔았다. 생으로 말린 것은 좀 쌉쌀한 맛이 있었다.

열치가 대량으로 잡히는 것을 '가닥'이라고 하였다.

열치는 떼로 들어와 대량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온 독살이 열치로 가득했다. 어떤 때는 큰 독살보다 위에 있는 독살에 열치가 많이 들고, 큰 독살에는 열치를 따라 들어온 갈치가 많이 들어온 때도 있었다. 가닥하면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 잡아 가지고 갔다.

열치가 가닥하면 다 주워내지를 못 해 독살 바닥에 죽은 열치가 깔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물에는 열치가 들지 않았다. 아마도 냄새가 나 멸치 떼가 접근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꽃게나 오징어는 소량으로 들었다.

독살에는 꽃게나 오징어(갑오징어)도 들었는데 아주 소량으로 몇 마리 들었다.

독살은 늘 관리해야만 했다.

독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늘 관리해야만 했다. 고기를 잡을 때만 제외하고는, 독살을 점검하여 무너진 돌을 쌓는 일이었다. 바람이 불면 더 많이 무너져 일이 많았다. 큰 독살을 운영하지 못한 것도 1970년대 초, 황광현 님이 군대에 다녀온 후 무너진 돌을 쌓지 못해서였다.

독산리 홀뫼마을에는 두레를 했다.

황광연 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독산리 홀뫼마을에서는 두레를 했다. 논 맬 때 했는데, 어른들이 모여 술을 먹고, 풍물을 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어렸을 때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아마도 1950년대까지 두레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독산리 홀뫼 마을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 당제를 지냈다.

독산리 홀뫼 마을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 당제를 지냈다. 당집은 큰 동네 서북쪽 산 정상부 큰 소나무 밑에 있었다. 당집의 벽은 돌로 쌓고, 지붕은 짚으로 만들어 덮었으며 온돌 시설은 없이 그냥 움집 형태였다. 정월 초하룻날, 마을 가운데 김형일네 마당에 큰 깃발을

꽂아놓고, 정월 열나흗 날 저녁에 풍물을 치면서 깃발을 올려 제를 지냈다. 제물은 떡과 밥, 과일, 나물 등이었다.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을 제관으로 뽑아 제를 지냈는데, 밤에 마을 가운데에 있는 당샘에서 목욕을 하고 지냈다. 제물을 운반하는 등 돕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당제를 지내는 데 도움을 주면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물을 지고 갔더니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948년생인 황광현 님 아버지 세대에서 지낸 후 당제를 지내지 않았고, 1980년대 초 큰 소나무도 죽어 없어졌고, 당집도 뽕나무를 심기 위해 개간하는 바람에 훼손되었다.

독산리 해안에서는 굴과 바지락을 주로 잡았다.

독산리 해안에는 다양한 어패류가 있었으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굴과 바지락이었다. 굴은 전 해안과 근처의 여(물속 바위)에 있어 따다 팔았다. 바지락은 거치레 입구와 큰 독살, 무창포 쪽에서 잡아다 팔았다. 이외에 배꼽고둥, 소라 등도 많이 잡히고, 최근에는 노랑조개가 많이 잡혀 소득원이 되기도 하였다.

병무청 직원의 말을 들었으나 병역기피자가 되었다.

황광현님은 호적이 1년 일찍 되어 일찍 영장이 나왔다. 1968년도에 입대하게 되어 있었는데, 형이 입대해 있었고, 어린 동생들 때문에 연기하고자 하였다. 마을 이장이 대전 병무청에 가서 연기해야 한다고 하였고, 병무청에 갔더니 시골이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였다. 병무청 직원 이야기를 따라 그냥 집에 있었더니 병역기피자가 되었다. 1969년 자수하여 1969년 8월에 입대하였고 1972년 7월에 제대하였다. 입대한 후 불이익은 없었다.

옥마역에서 석탄 싣는 일을 하였다.

1972년 군대에서 제대한 후, 옥마역에서 화차에 석탄 싣는 일을 하였다. 당시 옥마역에서 석탄을 싣고, 서천화력, 서울 등지로 운반하였는데, 화차에 석탄을 싣는 일을 한 것이다. 당시는 기계가 없어 화차 하나에 5~6명이 삽으로 퍼 싣고, 품삯을 받았다. 수입이 괜찮았으나 3년 후, 석탄을 싣는 페이로드가 도입되어 해고되었다. 당시 대한통운 소속이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바로 해고되었다.

독산에서 꽃게와 도다리를 잡는 배를 탔다.

옥마역에서 해고된 후, 고향인 독산에서 선배의 권유로 배를 탔다. 2톤짜리 배로 주로 용섬과 황죽도 사이에서 도다리와 꽃게를 잡는 배였다. 5명이 타고 나가 조업했는데, 수입 중에서 절반은 선주 몫이었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원들이 나누니 소득이 없었다. 고기도 많이 잡지 못 하고, 술값 등을 공제하고 나면 돈이 없었다. 1년 정도 일한 후에 그만두었다. 당시 배를 정박한 곳은 동 뒤 바다였다.

주꾸미 배를 탔다.

황광현 님은 남의 배를 타고 꽃게와 도다리를 잡다가, 또다시 남의 배를 타고 주꾸미를 잡았다. 3톤짜리 배였는데, 작은 뎀마 2대를 달고 다니면서, 뎀마 1개당 3명씩 일하면서 봄에는 주꾸미를 잡고, 이후에는 대하를 잡았다. 주꾸미는 근해에서 잡고, 배가 컸기 때문에 외연도 밖으로 다니면서 대하도 잡았다.

배가 커서 주꾸미고둥을 약 1만5천 개~2만 개를 싣고 다녔는데, 원 줄은 새끼줄이었고, 가는 나이론 줄로 고둥껍질을 매달았다. 주꾸미고둥을 넣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다. 겨울에 넣는 때도 있었고, 오래 두었다가 꺼내기도 하고, 2~3일이나 당일에 꺼내기도 하였다.

작은 배로 바지락을 잡았다.

주꾸미 배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0.5톤짜리 바지락 배를 샀다. 당시 대천해수욕장에 많은 바지락배가 있었고, 5마력 바지락 배를 50여만 원에 사와 무창포 석대 섬 앞에서 바지락을 잡았다. 당시 바지락이 아주 많아 매일 많은 바지락을 잡을 수 있었다. 바지락은 배의 닻을 내려 고정하고, 망이 달린 바지락 그물을 내린 후, 2사람이 마끼를 돌려 물속에서 파는 방식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물을 내려 작업하였고, 하루에 양동이로 30~40개를 잡아 올렸다. 한 3년 동안 많은 소득을 올렸으나, 대형 동력선이 바지락 잡이에 참여한 이후 모두 고갈되었다.

웅천의 돌 공장에 다녔다.

결혼한 이후, 바지락 배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웅천의 석공장에 들어가 한 3년 동안 돌

자르는 일을 하였다. 무거운 돌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면서 석공장 일을 하였다. 다행히 규폐에 걸리지는 않았다.

작은 배를 가지고 통발을 놓았다.

1990년대, 0.5톤짜리 무동력선을 구입하여 통발을 놓았다. 작은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 하고 근해에서 통발을 놓았다. 배는 독대 섬에 대고, 경운기로 실어 올렸다. 경운기 트렉터 아래에 배를 올릴 수 있게 장치를 하고, 배를 뭍으로 이동시켜 놓았다가, 나갈 때는 경운기를 이동하여 바다로 나가는 방식이었다. 밀물이나 썰물 상관없이 배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1톤짜리 배에 40마력짜리 기관이 달린 배를 구입하였다.

무동력선이 너무 힘들고 작아 1톤짜리 배를 사고, 40마력짜리 기관을 달아 운행하였다. 정식으로 자망과 복합허가를 받아 고기를 잡았다. 당시에도 배는 독대 섬에 대고 경운기를 이용하여 뭍으로 올리고, 내렸다. 이때도 주꾸미를 잡았고 통발을 놓았다.

2톤짜리 배를 구입하여 외연도 밖에까지 나가 조업하였다.

황광현 님이 마지막으로 구입한 배는 2톤짜리였다. 이 배를 타고 근해에서 주꾸미를 잡고, 좀 멀리 나가 대하도 잡았다. 대하를 잡기 위해서 황도 밖, 윤선골까지 다녔다. 윤선골은 인천으로 오르내리는 대형 화물선이 다니는 갯골이다. 이때는 장비가 좋은 배를 따라 나가고, 나간 길을 따라 그대로 들어왔다. 그래야 암초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먼 바다까지 나갔지만, 대부분 새벽에 출발하여 당일로 들어왔다.

당시 천수만 안에 있는 죽도 근처에서도 대하를 잡았다. 이곳은 대하의 산란지여서 대하가 많았다. 어민들은 홍성군 죽도를 열두 대섬이라고 불렀다. 대하 그물은 대하삼마이 그물을 쓰는데, 썰물과 들물이 시작될 때 잠깐 놓아 잡았다. 오래 두면 걸린 대하를 꽃게나 오징어가 물어뜯어 팔 수 없게 된다. 대개 30분이면 걷었다.

당시 주꾸미는 30~40킬로, 어떤 때는 70~80킬로를 잡았다. 배의 정박지는 무창포 항이었다.

농사도 지으면서 배를 부렸다.

황광현 님은 주꾸미를 잡아 12마지기의 논을 사고, 남의 논을 빌리기도 하면서 많은 농사를 지었다. 모두 70여 마지기를 지었는데, 농기계도 마련하여 농사를 지었다. 어장 철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농사철이 되면 농사지은 것이었다.

독산 앞바다에서는 김 양식을 할 수 없었다.

독산 앞바다는 갯벌이 넓지만 김 양식은 할 수 없었다. 서천 사람들이 합자로 김발을 맸었는데, 모두 실패하였고, 황광현 님도 김발을 맸으나 실패하였다. 파도가 너무 세서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한 2~3년 김발을 맸으나 모두 실패하고, 이후 김발을 매지 않았다.

독산 앞바다에서는 덤장도 매지 않았다.

독산 앞바다에서는 덤장도 맬 수 없었다.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었고, 황광현님은 삼각망을 설치해 보았으나 이것도 실패하였다.

독산1리에서 상여를 마련하였다.

과거에는 독산리 전체에 하나의 상여가 있었으나, 독산1리와 2리가 분리된 이후에는 마을마다 각각 상여를 마련하였다. 독산1리 마을의 상여는 현재 교회 있는 곳에 있었다.

마을 청년들은 백중장날 장에 가서 놀았다.

독산리 홀뫼 마을에서는 백중장날이 되면 집에서 용돈을 받아 장에 가서 놀았다. 부모밑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부모한테서 용돈을 받아 웅천 장에 나가 놀았다.

웅천 장에 다니는 길은 두 길이 있었다.

독산 홀뫼 마을 주민들이 웅천 장에 다니는 길은 두 길이 있었다. 밑길, 윗길이라고 불렸는데, 밑길은 황교리와 곰내고랑을 지나 노천리 사그내를 거쳐 두루 다리를 건너는 길이다. 이 길이 웅천 장에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으나, 만약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닐 수 없어 윗길로 다녔다. 윗길은 구장터, 고뿌래, 서낭댕이, 죽청리를 지나는 길이었다. 먼 길이지만 바

닷물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돌아왔다.

독산마을에는 사혼이 있었다.

독산 홀뫼 마을에는 죽은 사람이 결혼하는 사혼이 있었다. 남자는 김해김씨로 병으로 죽었고, 여자는 1955년경 거치레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들어갔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은 처녀였다. 공동묘지에 합장하였고, 두 집안이 서로 사돈이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다.

독산 홀뫼 마을에서는 안택을 하였다.

황광현 님이 어렸을 때 독산 홀뫼 마을에서는 안택을 많이 하였다. 안택은 무속인이 주관하였는데 마을에 사는 추뱅이어머니와 이웃 죽청리에 사는 김학태 씨가 주로 하였다. 추뱅이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시영아들로 삼아 치성을 드려 주기도 하였다.

거치레와 황지기에서 나무를 하였다.

독산 홀뫼 마을 서쪽에 있는 거치레(직언도), 황지기(황죽도)는 개인이 소유한 섬이었다. 황지기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거치레는 3사람이 소유하였다. 이들 섬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다만 독산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다녔다. 주인한테 세를 내고 나무를 하였다. 현재 두 섬은 모두 공군사격장 부지로 수용되었다.

지근여는 할미섬 앞에 썰물 때 노출되는 바위너덜이다.

지근여는 독산마을 북서쪽, 할미섬 서쪽 바다에 썰물 때 노출되는 바위이다. 일부 구간이 깊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많이 빠져도 건너갈 수 없다. 썰물이 되어 노출되면 많은 해산물, 특히 굴이 많다. 독대섬과 황죽도 사이의 섬을 주민들은 거치레라고 부르나 해도에는 직언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지근여를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독산마을 어민들은 사격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독산마을 어민들은 마을 서쪽 섬인 황죽도와 거치레에서 어업을 하는데, 모두 공군사격장으로 편입되어 어로활동에 지장이 많다. 평일이면 사격훈련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휴

일 사격이 없을 때만 들어가 조업할 수 있다. 이들 섬, 특히 황죽도에는 포탄의 껍질로 인한 오염도 많이 되었다.

옛날 독산 마을 해안에서는 참조개를 양식하였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 독산 해안에서는 참조개를 양식하였다. 웅천천 하구가 참조개의 번식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종패를 가져다 넣었으나 성공하지는 못 했다.

소라는 횃불을 가지고 들어가 발로 더듬어 잡았다.

독산마을 해안에는 소라가 특히 많았다. 여름에 횃불을 만들어 들고, 작은 뜰채인 쪽바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잡았는데, 맨발로 더듬다가 소라가 있으면, 쪽바리를 대고 밀어 넣어 잡았다. 이때 소라가 퉁어리에서 부딪치는 소기가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잡았다고 한다. 어떤 때는 100개 이상도 잡아 지고 왔다고 한다.

소라젓을 담아 먹었다.

소라는 생으로 깨뜨리고 소금에 버무려 젓을 담아 먹었다. 생으로 썰어 양념해서 먹거나 밥솥에 넣어 쪄서(쪔반찬) 먹기도 하였다. 육질이 딱딱한 점이 단점이었으나 맛이 좋았다.

독산 앞바다에는 옛날에도 해마(海馬)가 있었다.

독산 앞바다에는 옛날에도 해마가 있었다. 작은 해마인데 독살 그물에 걸려 나오기도 하였다. 멸치처럼 작아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었다. 그저 하루에 두어 마리 보이는 정도였고,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있다.

1970년경, 독산 앞바다에 철조망을 쳤고, 독대섬에는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독산리를 비롯한 보령시 전 지역의 해안에는 1970년 무렵 철조망을 쳤다. 간첩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에 주민들도 밤에는 바닷가에 얼씬도 못 했고, 낮에만 나가 해산물을 잡을 수 있었다. 독대섬에는 레이더를 설치하여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1970년경, 독산마을에는 방첩대도 근무하였다.

1970년경, 독산마을은 간첩들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여, 방첩대도 배치되었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반 군인들과 달리 민간복장을 하기도 하였다.

1969년 간첩선이 원두막에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황광현 님이 군대에 입대하던 1969년, 간첩선이 독산해안에 들어와, 해안에 만든 원두막에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원두막에 불을 켜 놓아 사격을 당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독산마을에는 샘이 4개 있었다.

옛날 독산마을에는 샘이 4개가 있었다. 모두 수위가 낮아 노깡을 몇 개 묻었고, 물은 두레박으로 떠먹었다. 제일 큰 샘은 404-4번지에 있었는데 당제 지낼 때 목욕하는 샘이었고, 부근에 당기도 세워 놓았었다. 현재는 모두 메워졌다.

옛날에는 배를 손으로 들어 올려 뭍으로 올렸다.

독산마을의 작은 배들은 무창포 남쪽, 동 뒤라는 곳에 정박하였다. 이곳은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여럿이 들어 뭍에다 옮겨 놓았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무척 힘든 일이었다.

동뒤 마을에는 경상도 사람이 와서 살았다.

독산마을이나 무창포에 어업기술을 전해준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상도 통영에서 올라와 고기를 잡았으며 일부는 무창포나 동뒤 에서 살았다. 삼각망 등,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아 부자로 살았다. 현재도 후손들이 무창포에 거주하고 있다.

독산 마을에는 문둥병환자가 있었다.

독산 마을에는 문둥병환자가 있었다. 여자 분이었는데, 독산에서 태어난 분이고 현재

생존했으면 100살 정도 되었으므로 1920년대 생 정도이다. 문둥병에 걸려 밖에 잘 나오지 않고 생활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꺼려하지 않고 생활하였다. 꺼리지 않고 일도 해 주었다. 환자도 오래 살았다.

1955년경, 거치레에서 물멕이하다가 대여섯 명의 처녀가 죽었다.

1955년경, 독산 큰 동네 여자들이 거치레 섬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들어갔다. 썰물 때 들어갔으나 더 많이 잡기 위해 바로 나오지 않고, 들물에 배를 타고 나왔다. 이렇게 어로작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배를 타고 나오는 것을 '물멕이'라고 하였다.

이때 독대 섬에서 술을 마신 주민이 배를 가지고 거치레에 들어가 사람을 싣고 나오다, 키가 바위에 부딪쳐 전복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대여섯 명의 처녀가 죽었다. 모두 큰 동네 사람이었다.

당시 사고를 낸 분이 김한규 씨인데 죄책감으로 남포면 삼현리 조잠마을로 이사 갔다가 한참 후에 독산으로 돌아와 살았다.

독산 사람들은 소황 사람들과 염전에서 쥐불싸움을 하였다.

정월 열나흗날이 되면 독산리와 소황리가 염전에서 쥐불싸움을 하였다. 독산리 전체가 모이고 소황리 전체가 모여 싸웠는데, 당시 귀가 먹은 이완식이라는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전한다. 쥐불싸움으로 사고 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독산마을의 새마을지도자는 김형원, 지용범이었다.

새마을운동 당시 독산마을의 새마을지도자는 김형원, 나중에는 지용범이었다. 이들의 지도로 마을길을 넓히고 개울에 축대를 쌓는 등, 새마을운동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마을 창고만 있었고, 후에 노인정, 다음에 회관을 지었다.

독산마을 방앗간은 2번 옮겨 다녔고, 탈곡도 하였다.

독산 마을에는 1948년생인 황광현 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방앗간이 있었고, 2번을 옮겨 다녔다. 옛날에는 보리 탈곡도 방앗간에서 맡아서 하였다. 과거 보리 탈곡은 큰일이었다.

탈곡이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을 다투어 탈곡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 탈곡기를 이용하였다. 원동기를 분해하여 지게로 져 날랐고, 탈곡기도 지게로 져 날라 탈곡하였다.

독산마을 주민들은 두룡리 21호 국도까지 나와 길을 닦았다. 임부라고 하였다.

1960년대까지 보령시의 모든 주민들은 국도변에 나와 도로를 닦았다. 이를 '임부'라고 하였는데 품삯도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었다. 봄과 가을에 동원되어 한 번은 돌을 깔고, 한 번은 돌을 가에 모아놓는 일이었다. 독산리 마을 주민들은 배당구역이 여늬재 남쪽, 웅천읍 두룡리 구간이었다. 이곳까지 독산리에서 단체로 걸어와 작업하였다. 마을에서 징을 울려 모여 출발하였다.

독산리 서쪽에는 말구멍과 황새바위가 있다.

독산리 서쪽, 독대섬 남쪽 해안에는 말구멍이라고 불리는 해식굴이 있다. 해식굴의 천정부분에는 말 고삐를 묶어놓는 구멍도 뚫려 있다. 이곳에서 양씨가 태어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이 죽어 말무덤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말구멍 남서쪽에는 갯벌에 노출된 황새바위가 있는데, 공수부대가 훈련한다고 훼손했다고 한다. 부근에는 독살이 3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독대섬 부근에서는 자하(紫蝦)를 많이 잡았다.

독대섬 북쪽, 갯벌에서는 초가을에 자하를 많이 잡았다. 갯벌에서도 잡고, 바위너덜에서도 잡는데, 밀물썰물 상관없이 잡았다. 옛날에는 그물을 밀고 다녔으나 요즈음은 끌고 다닌다. 잡은 자하는 모두 젓으로 담아 팔거나 먹었다. 하루에 30여kg 잡을 때도 있었다. 자하젓은 15일쯤 되면 먹을 수 있다.

독산마을 해안에서는 후리그물을 많이 하였다.

독산마을 청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후리그물을 많이 하였다. 후리그물은 그물의 한쪽을 끌고 바다를 반원형으로 둘러싸, 잡아 다니는 것이다. 숭어, 전어 등 다양한 고기를 잡았다. 팔 정도는 아니었고, 주민들이 먹으려고 하였다.

할미섬과 감장바위, 지근여

독산마을 서북쪽, 무창포 남쪽에 있는 바위너덜이다. 바위너덜에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 바위가 할미섬이고, 그 남서쪽에 있는 바위가 감장바위, 감장바위 서쪽 바닷속에,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가 지근여이다.

흑섬이 닭벼슬로 변하였다.

무창포 비체팰리스 서쪽에 있는 섬을 옛날에는 흑섬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닭벼슬로 불린다. 비체팰리스 앞과 닭벼슬 사이에 모래 침식을 막으려고 축대를 쌓았으나, 최근 걷어내고 다리를 놓았다.

마여도 물에 잠기지 않는다.

독산마을 서북쪽, 할미섬 서쪽에 있는 바위가 마여이다. 마여는 식생이 없는 바위이지만 물에 잠기지 않는다. 옛날 숭어 낚시하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낚시하기도 하였다.

독살에서 큰 모두리상어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황광현 님의 할아버지는 독살에서 큰 모두리상어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어찌나 컸던지 2사람이 교대로 져 왔고, 집에서 갈러 주민들이 나누어 먹었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최 경 환 (1945년생)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도와 학성리마을의 생활모습 변화



출생과 성장

최경환 님(崔敬煥)은 경주 최 씨로 1945년 6월 10일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내 소도에서 태어났다. 가까운 친척들은 홍성군 결성면, 태안군 안면도 고남 등지에서 거주하였고, 소도에도 많이 거주하였는데, 아버지 형제들은 주로 소도에 거주하였다.

최경환 님은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돌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고, 6.25때는 두 형까지 잃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7남매를 낳았고, 17세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염생이 마을로 이주하였다. 19세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새 어머니와 9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1971년, 27세 때 19살 먹은 이웃 마을 처녀와 결혼하여, 4남 1녀를 낳았다.

최경환 님의 할아버지는 6형제였다.

최경환 님의 증조할아버지는 건장한 6형제를 두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결성에서 천북면 신덕리 숙굴 마을에 묘를 들였는데, 이때 숙굴 마을 주민들이 상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건장한 여섯 상제들이 주민들에게 호통을 쳐 무사히 장례를 마쳤다고 한다.

최경환 님 아버지(최동철)는 결성에서 군산으로 왕래하는 운반선에서 심부름을 하였다.

최경환님 아버지는 5형제 중 막내인데,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당숙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살았다. 최경환 님의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린 아들을 결성 불학리에 사는 4촌에게 맡겼다. 당시 4촌은 결성에서 군산으로 다니는 화물선을 운영하였고, 화물선이 출발할 때마다 이웃 마을에 다니면서 화물선이 언제 출항한다고 알려주어야 했다. 이런 일을 어린 최경환 님 아버지가 했던 것이다. 당시 결성에서는 화물선에 쌀 등 곡식을 싣고 군산에 가서 팔고, 고무신 같은 공산품을 사다 주었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그런 배에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형들이 있는 추도로 들어온 것이다. 당시 추도에는 형 둘이 살고 있었고, 한 형은 처가가 있는 녹도에 살고 있었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최동철)는 경상도에서 온 어머니와 결혼하였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소도에서 형들과 함께 어렵게 살았는데, 형들이 소개하여 안면도 딴뚝에 와 있는 경상도 처녀와 결혼하였다. 어머니도 가난하여, 어린 나이에 보따리 하나 가지고 안면도 딴뚝이라는 곳에 들어와 살다가 친분이 있는 큰아버지 소개로 결혼하였다.

어머니는 1946년 호열자(콜레라)로 사망하였다.

최경환 님의 어머니는 1946년 호열자로 사망하였다. 1945년 6월 10일생인 최경환님이 돌을 1달 앞둔 때였다. 소도에 거주하는 최경환 님의 당숙모가 안면도 영목에 있는 친정에 다녀온 후 마을에 호열자를 퍼트린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이 감염되었고 1주일 동안에 7명이 사망하였고,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

당시에는 호열자에 걸리면 물을 먹지 않아야 산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래서 호열자에 걸린 사람들이 일체 물을 먹지 않았고, 한 사람만 죽을 때 죽더라도 물을 먹겠다고 하여 물을 먹었었다. 결과는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고, 물을 먹은 사람만 살아남았다. 호열자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최연양(1936) 님의 증언에 의하면, 술을 먹고 싶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사람들이 소도에 들어와 소독하였다. 전해지는 말로는 소독할 때 시커먼 벌레들이 많이 나와 죽었고, 소독을 하지 않았으면 주민들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죽은 사람들은 주변 섬들의 공동묘지인 허육도에 묻었다.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없어, 최경환 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사람이 시신을 배에 싣고, 허육도에 가 묻었다고 한다. 당시 결혼한 부인들만 죽었고, 남은 남편들은 모두 재혼하였다.

최경환 님의 두 형은 6.25때 소도에서 불발탄이 터져 죽었다.

최경환 님의 형들은 6.25때 소도에서 불발탄이 터져 죽었다. 1950년 9.28수복 무렵이었다. 원산도에서 소를 싣고 광천 독배로 향하던 장배가 있었는데, 대천어항 근처에 있던 해군 함정이 불렀다. 그러나 장배는 해군 함정으로 가지 않고 광천으로 향하였다. 이때 해군 함정에서는 위협으로 포를 발사하였고, 포탄이 소도의 동쪽, 고추밭에 떨어져 불발탄이 되었다.

이때 고추밭을 매던 아주머니가 신기하게 생긴 포탄을 주워다 장롱 속에 넣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제일 먼저 최경환 님의 큰아버지가 가서 만져보았고, 이어서 호

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았다. (최연양 님의 이야기는 죽은 최석환 군이 포탄을 땅에 패대기쳤다고 한다.)

최경환 님의 기억으로 어느 여름 날, 점심밥도 허겁지겁 먹은 형들이 포탄을 주운 집으로 뛰어갔고, 잠시 후 큰 폭발음이 들렸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함대가 오는가 보다고, 아이들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하였고, 잠시 후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다.

최경환 님의 형들은 들것으로 운반해 마루에 놓았는데, 부엌쪽 마루에 눕힌 큰형(최인환, 당시 12살쯤)은 하반신이 엉망이었고, 다리 하나는 힘줄만 붙어있는 정도였다. 그래도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주자 바로 사망하였다. 웃방 마루에 뉘었던, 둘째 형(최요환, 9세정도)도 하반신이 엉망이었는데, 광천 독배로 이송하고, 홍성도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돌아왔으나 집에 와서 사망하였다. 당시 최경환 님의 4촌 형(최석환, 15세정도)도 사망했으므로 불발탄이 터져 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이다. 여자 아이들 2명은 발에 파편을 맞았으나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당시 광천에서 홍성으로 이송할 때 후퇴하는 인민군을 보았다고 하므로 9.28수복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형들은 소도에 매장하였다. 영목이 바라보이는 섬 동쪽에 매장하였는데, 성인처럼 큰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두두룩하게 묘를 만들었다. 육지처럼 돌을 올려놓지는 않았다. 섬이라 여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경환 님은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다.

최경환 님은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다. 최초에는 오천 소성리에 하숙하면서 오천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는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형들의 구박도 있었고 피부병이 생기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에는 천북면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 있는 친척집으로 옮겨, 천북초등학교를 다녔다. 천북에서 4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소도에 통학선이 생겨, 소도 집으로 들어왔고, 통학선을 타고 안면도 고남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은 고남초등학교에서 하였다.

중학교는 진학하지 못했다. 많은 동생들 때문에 어려웠고, 아버지의 손에 장애가 있어 도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님은 피부병을 덕산온천에서 치료하였다.

최경환 님이 오천초등학교에 다닐 때 온 몸이 헐어 딱지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덕산온천에 데려가 온천물로 치료하였다. 새 어머니의 친정이 덕산이기 때문에 덕산온천에 오게 된 것이다. 3~4일 온천물로 목욕하고 깨끗이 치료하였다.

덕산온천의 연못에는 구렁이가 사는데 흉년이면 처녀를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최경환 님이 덕산온천에서 치료할 때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온천 구탕 뒤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고, 흉년이 드는(군색이 드는) 해에는 처녀를 잡아간다고 하였다. 실제로 흉년이 드는 해에는 이 연못에서 처녀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소도에는 영목으로 건너다니는 통학선이 있었다.

최경환님이 천북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1955), 소도에 통학선이 생겼다. 학생을 둔 5집이 힘을 합쳐 작은 배를 만들어 통학 전용선으로 사용한 것이다. 동력은 없었고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였다. 학생을 둔 가정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당번을 정하여 학생들을 안면도 영목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 때 데려오고 한 것이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오후에 바람이 불면 소도에서 안면도 영목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기다리던 학생들은 안면도에 있는 친척 집으로, 친구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잤다. 최경환 님은 안면도 탄개에 사는 재종형님 댁이나, 달구지에 사는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그것이 아주 싫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당시 학생= 최경환, 최영환, 성식이, 기복이, 순자, 연월이)

외지에서 소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면도 영목에서 불을 피웠다.

외지에서 소도로 들어올 일이 있는 사람은 안면도 영목, 소도하고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웠다. 불 놓은 자리가 지금 횟집 있는 자리이다. 그러면 소도에 오는 손님인 것으로 알고 나가 태워가지고 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목에서 원산도를 왕래하는 객선을 타야 하였다. 객선을 타면 소도에 내려주었다. 당시 객선은 안면도에서 효자도와 원산도를 다녔다.

최경환 님 아버지(최동철)는 소도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작은 풍선배를 가지고 있었고, 근해에서 고기를 잡았다. 낚시로 잡았는데 농어, 도미 등 고급 고기를 잡았다. 낚시 미끼로는 새우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복어 껍질을 오려 낚시에 달았다. 일종의 가짜미끼였던 것이다. 이때 미끼는 몽곳돌에 묶었다. 혼자는 다니지 않고 대개 2명이 다녔다.

잡은 고기는 어항에 가져다 위판하기도 하고, 가을에는 말려서도 팔았다.

가을에 잡은 큰 농어를 '따오기'라고 하였고, 말려서 팔았다.

가을인 8, 9, 10월에 잡는 큰 농어를 따오기라고 하였는데 등을 타서 말려 팔았다. 이때 농어의 뱃속에는 큰 알이 들어있어 알도 함께 말려 팔았다. 농어를 널 던 곳은 동아시 돌밭이었다. 등을 타서 소금에 절인 농어와 큰 농어 알을 널어 말렸다. 이때 갈매기들이 달려들어 찍어먹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 서서 쫓아야 되었다. 새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의 몫이었고 싫어하는 일이었다.

농어의 알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맷돌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 팔았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다. 농어는 농어라고도 불렸지만, 작은 농어는 주로 깔대기, 점이 박힌 것은 점백이, 가을에 잡는 큰 농어를 따오기라고 불렀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최동철)는 주벅에서 잡은 고기를 사다가 팔았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있어, 고대도 등지에서 매는 주벅에서 반댕이, 열치 같은 고기를 사다가 광천 독배, 결성 해창, 서산 도비산 등지의 포구에 다니면서 팔았다. 이런 곳에 단골들이 있어 고기를 주고, 나중에 탈곡하면 보리로 받았다. 보리는 그대로 팔기도 하고 먹을 것은 방아를 찧어 소도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배고픈 시절에도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

1960년경, 소도에는 12가구가 살았는데 현재 4가구가 산다.

1960년경, 소도에는 12가구가 살았다. 최경환 님 아버지 형제들과 집안이 많았고, 그 외 여러 성씨가 섞여 살았다. 당시 어려운 사람들은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다. 최근,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떠났고, 대천 시내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2023년 현재, 단 4가구만 거주하는데 노인 혼자만 거주하는 가구도 있다.

소도에서는 195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다.

소도(추섬)에서는 195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는데,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을 정하여 당주를 맡겼다. 당주로 정해지면 집 주변과 당산에 새끼줄을 드리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성에 사는 이웃도 들어가지 않는다. 샘물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3일 동안 부정을 가렸다. 당제기간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임신부는 섬 밖으로 나갔다.

젯날은 정월초사흘이었는데, 당산 나무 밑에 정갈하게 추린 짚을 깔고 제를 올렸다. 제물은 육고기는 쓰지 않고, 떡을 해 가지고 올라가고, 밥이나 국은 당산에서 끓여 올렸다.

당산으로 뱃기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당제에 사용된 그릇은 당주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원래 당집은 없었고 나무만 있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최동철)는 1961년 소도에서 천북면 학성리로 이사하여 김 양식을 하였다.

최경환 님의 아버지는 1950년대에 천북면 학성리에 산과 논을 사 놓았고, 1961년 집을 사서 이사하였다. 가재도구와 가족들을 최경환 님네 배 한척에 싣고 한 번에 왔다. 가족은 많아도 이삿짐은 많지 않았다. 당시 대천으로 갈까 했는데, 땅이 있어서 학성리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최경환 님은 17살이었다.

최경환 님 가족은 학성리로 이사 온 뒤에도 소도에서처럼 김 양식을 대규모로 하였다. 당시 학성리 주민들은 4~5떼의 김발을 맸으나 최경환님 아버지는 12떼를 맸다. 뿐만 아니라 고대도 주벅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육지에 팔아 돈을 벌었다. 장사에 수완이 있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고대도에서는 고기 값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소도에는 거의 전 지역에 김발을 맸다.

1950~1960년대 추도에서 김 양식을 많이 하였다. 북쪽 해안이 파도가 약하여 좋았으나, 사방에서 모두 김 양식을 하였다. 다만 안면도 영목 맞은 짝은 경사가 급하고 물살이

세어 김발을 매지 못했다.

소도 주민들은 1950~1960년대 주벅을 맸다.

추도 주민들은 1950~1960년대 주변 바다에 주벅을 맸다. 큰 나무 말뚝을 새끼줄로 묶은 돌망으로 고정하고, 새끼줄로 만든 긴 그물을 매달아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소도 서북쪽에 큰 팽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동아줄을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주벅을 만들었다. 주벅에 사용되는 볏짚은 모두 육지에서 사왔고,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주벅을 만들고 고기를 잡았다.

주벅은 일단 설치하고, 물때마다 그물의 끝인 '황'을 열어 고기를 꺼냈다. 고기를 꺼내는 주걱같은 그물을 '바디'라고 하였다.

소도 땅에 추도 사람이 주벅을 맸다.

소도에서 주벅 매기 가장 좋은 곳이, 소도의 서북쪽(동아시), 마을 앞이다. 이곳은 지형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소도 땅이지만 추도 사람이 와서 주벅을 맸다. 추도 사람이 주벅을 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도 주벅에서 큰 모두리상어를 잡았다.

옛날 큰 모두리상어가 소도 근처에 나타났고, 주벅에 걸렸었다, 얼마나 컸던지 장정 4명이 목도를 해서 운반하였다. 새기 밴 암놈이라 장벌에 놓고 새끼를 꺼냈는데 50마리가 나왔다. 이빨이 톱날 같은 큰 상어였다.

천북면 학성리 간척지는 몇 번에 걸쳐 막았다.

1950년대에는 밤섬 들어가는 길이 제방이었다. 천북면 학성리 간척지는 최초 일본인들이 막았다. 이때는 밤섬으로 건너가는 길이 제방이었고, 길 서쪽 부분이 논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곳은 붉은 나문재 밭이었다. 이후 염전이었다가 현재는 태양광발전소로 이용한다.

천북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도 초분이 있었다.

천북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도 초분 골이 있다. 현재 마을의 남쪽, 저수지 남쪽의 산기슭인데 옛날 초분을 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최경환 님은 1952년부터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 거주했는데, 초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초분 골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

김발은 음력 7월 달부터 작업하여 8월에 넣었다.

김발은 말목과 대나무를 사다가 맸다. 말목은 육지에서도 사왔지만, 녹도에서도 사왔다. 녹도는 파도가 세어 김발을 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나무도 모두 사다가 사용했는데, 먼저 대나무를 6자 반으로 자르고 갈라 5m 정도로 엮는다. 이렇게 엮은 발 뒤에 부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를 대면, 평평하게 된다. 이런 평평한 발 10개가 1떼이다.

음력 8월 보름이 되면, 갯벌에 말뚝을 박고, 부죽을 끌어다가 김발을 매면 포자가 붙게 된다. 학성리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양식장에 설치하면 자연히 포자가 붙었다.

녹도에는 잿간화장실이 있어 신기하게 보였다.

최경환 님이 김발용 말뚝을 사러 다닌, 1960년대까지도 녹도에는 잿간화장실이 있었다. 마당 한켠에 가림을 하고, 돌을 2개 놓아 대변을 보았고, 대변에 재를 묻혀 죽가래 같은 것으로 옮겨 쌓았다. 당시 학성리의 화장실은 모두 독을 묻고, 판자를 걸쳐놓은 것이었는데, 녹도의 잿간변소는 특이하게 보였다.

김 양식에 사용하는 말목 때문에 고생하였다.

학성리에는 김 양식 말목으로 쓸 나무가 없어 외지에서 구입해야 했다. 당시 산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녹도에서 가져온 나무도 산림감수를 피하기 위해 일단 집으로 가져와야 했고, 말목을 준비했다가 면 직원에게 들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딱딱한 갯벌에는 종가래로 말뚝을 박았다.

김양식 말목을 박을 때, 무른 갯벌은 말목이 잘 들어가지만 딱딱한 갯벌은 문제였다. 이

때 종가래라고 하는 작은 가래를 땅에 박고 흔들어 뺀 후, 말목을 박았다.

학성리에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도 생산하였다.

학성리에서는 보령지방에서 최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김 양식을 하였고,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소위 스시 김을 생산하였다. 김이 좀 두꺼운 정사각형의 김이었다. 보령수협에서는 김을 검사하기 위해 창고를 지었고 이 창고는 현재까지 남아있다.

학성리에서 많은 김을 생산하였으나 1986년부터 중단하였다. 수온이 높아져 김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님은 어려서 통자락을 보았다.

최경환 님은 어려서 마을 북쪽에서 통자락을 보았다. 통자락에서 소금 만드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남은 통자락은 본 것이다. 통자락에 뚫린 구멍은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갈만 한데, 들어가면 넓어 어른 여럿이 앉을만하였다. 어른들이 통자락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화투놀이를 하면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불을 때서 소금 만들던 통자락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밤섬 근처에도 통자락이 있었다.

1950년대에 염생이 마을로 이주한 주민에 의하면 당시에 벗찌락에서 소금을 구웠다고 한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당시 마을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떡을 둥글려도 가랑잎 하나 묻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

최경환 님은 지근여 밖에 낭장망을 맸다.

최경환 님은 학성리 마을 서쪽, 지근여라고 하는 물속바위 밖에다가 낭장망을 맸다. 처음 3틀을 맸고, 안산으로 이주한 김도선 씨로부터 3틀을 구입하여 총 6틀을 맸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까지도 운영하다가, 1995년 홍보지구 간척사업 때 보상을 받고 철거하였다.

낭장은 주벅보다 발전된 형태의 그물로, 말뚝 대신 줄에 '우끼'를 매다는 방식이다. 돌을 그물로 쌓아 '망'을 만들어 바다에 넣고, 위에 '우끼'를 매달면 주벅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입이 크고 긴 그물을 매단다. 그물 입구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6~7m정도였

고 길이는 50m정도였다. 그물의 끝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망'은 3개가 필요하다. 당시 학성리 염생이에 사는 주민 15가구 정도가 낭장망을 맸다. 주민 대부분이 낭장망을 맨 것이다.

학성리에 맨 낭장망은 모두 들물 낭장으로 일직선으로 매지 않고 지그재그로 매어 좁은 면적에도 많은 낭장망을 맬 수 있었다.

염생이 마을의 들물 낭장망은 포구와도 관계가 있다. 들물에 고기를 잡아야, 해안까지 배를 접안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들물 낭장망을 보려면 바닷물이 80~90%들어올 때 나가야 했다. 물이 완전히 들어올 때는 겉물은 들어와도 속물은 빠져나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염생이 마을에서는 물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를 '참' 완전히 나간 상태를 '감'이라고 하였다.

낭장망은 봄과 가을에 넣었는데, 주로 뒷데기새우를 잡아 팔았다.

낭장망은 3월 정도에 넣었다. 농어, 민어, 도미, 복어 등 고기를 잡았다. 이후 4월, 5월이 되면 주로 새우를 잡았는데, 뒷데기라고 불리는 껍질이 좀 두꺼워 깔깔한 새우였다. 이들 새우는 잡히는 대로 드럼통에 젓갈을 담아 광천 독배 새우젓 굴에 저장하였다가 상인들에게 팔았다. 당시 한 드럼에 20~30만원 받았고, 1년에 약 10여 드럼 잡았다. 큰 소득이었다. 새우를 제외한 고기들은 사러 오는 장사꾼한테 팔았다.

가을에는 음력 8월에 넣고, 11월경에 뺐는데, 주로 멸치를 잡았다. 멸치는 솥을 걸어놓고 삶아 말려 팔았다. 그리고 빈댕이, 까나리 같은 것을 젓갈을 담아 팔았다. 주민들은 젓갈에 '간량'으로 소금을 넣었다고 한다. 경험으로 소금 량을 결정한 것이다.

학성리의 모래장벌은 모두 '술등'이라고 불렀다.

학성리 염생이마을 남쪽과 서북쪽은 모두 모래로 되어 있고, 사구가 발달하였다. 이 사구를 모두 '술등'이라고 불렀다. 즉 남쪽에 있는 사구도 술등이었고, 서북쪽에 있는 사구도 술등이었다.

소도에는 밭농사만 지었는데, 보리, 조, 고구마 등을 심어 먹었다.

소도는 논이 없고, 밭이 많다. 섬 위는 평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밭으로 개간되었다. 1950~60년대, 어려운 시절에는 보리, 조, 고구마를 심어 먹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 최경환 님 기억으로는 조도 많이 먹었다.

맨삽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묘지만 있었다.

맨삽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다. 다만 정상부분 평평한 곳에 윤씨네 묘지가 있다.

염생이 마을 서북쪽 술등에는 해당화와 마르새가 많았다.

염생이 마을 서북쪽 술등에는 해당화와 마르새라고 하는 사구식물이 많았다. 마르새는 잘라 김발을 엮는 재료로 사용하였고, 해당화는 뿌리가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외지인들이 모두 캐갔다.

마르새로 김발을 엮을 때는, 가을에 푸른 잎을 따다가 햇볕에 말린다. 잎이 마르면 동그랗게 말리고, 이것을 틀에서 고드랫독을 넘겨가면서 엮으면 김발이 된다. 마르새로 엮은 김발은 김이 잘 떨어지는 장점이 있어 돼지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었다. 짚으로 만든 김발은 돼지기름을 발라야 김이 잘 분리되었다.

학성리 염생이마을 간척지는 일본인이 막았는데 해방 후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 있는 간척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막았다. 최초의 제방은 밤섬으로 건너가는 제방이었고, 농사에 필요한 물은 저수지를 막아 공급하였다. 이들 논들은 해방 후 소작인들에게 분배되었고, 대금의 상환을 마친 후에는 개인 소유가 되었다.

작은 염전은 중낭굴에 사는 3사람이 소유하였다가 정영복 씨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학성리 밤섬 옆에 있는 작은 염전은 학성리 중낭굴에 사는 황종영, 정영복, 김동옥 씨 소유였다가 나중에는 정영복 씨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염전에서 일한 사람들은 학성리 주민들이었다.

큰 염전은 광천 독배에 살던 전영수 씨 소유였다.

큰 염전은 광천 독배에 살던 부자인 전영수 씨 소유였다. 전영수씨도 간척을 해서 염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든 염전을 산 것이다.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들은 학성리 마을 주민들이었다. 현재는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고,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었다.

1950년대에는 학성리 염생이마을에 방앗간이 없었다. 다만 중낭굴에 방앗간이 있었고, 염생이 마을에는 착착이라고 불리는 작은 발동기를 가져다 마당에 설치하고 방아를 찧었다. 발동기는 무거워 끌고 다니면서 찧었다. 마을에 사는 이중구씨와 홍재선 씨가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었다. 당시 물을 부어가면서 보리방아도 찧었다.

당시 착착이로 보리 바슴도 하였다. 무거운 기계를 운반해서 마당으로 다니면서 바슴하였다.

옛날에는 도리깨로 보리 바슴을 하였다.

착착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집마다 도리깨로 보리 바슴을 하였다. 보리를 베어다가 마당에 깔고 도리깨로 두드린 것이다.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껄끄러워 고생을 많이 하였다. 경운기가 나온 뒤에는 탈곡기로 쉽게 바슴하였다.

최경환 님은 경운기와 탈곡기를 장만하여 탈곡하러 다녔다.

최경환 님은 경운기와 탈곡기를 마련하고, 일꾼을 얻어 탈곡하러 다녔다. 여름에는 보리 탈곡, 가을에는 벼 탈곡을 했는데, 동사라고 불리는 일꾼 3~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했다. 돈은 벌었지만, 수확한 곡식을 집에까지 가져다 쌓아주는 일이 힘들었다.

낭장망 1틀에서 멸치 세 경운기를 잡을 때도 있었다.

최경환 님은 어느 해 11월, 낭장망 1틀에서 3경운기나 되는 멸치를 잡았다. 낭장망은 음력 8월에 넣었다가 11월이 되면 빼내게 된다. 11월이 되어 다른 낭장망은 모두 빼내고, 1개의 낭장망만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멸치 떼가 들어와 많은 고기를 잡았다. 배에 가득 싣고

들어와 경운기로 날랐는데, 모두 3경운기나 되었다. 이들 멸치는 모두 젓으로 담아 팔았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 주민들은 상풀에서 바지락을 잡아 젓으로 담아 팔았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 주민들은 상풀에서 바지락을 많이 잡았다. 상풀은 홍성군 남당항 남쪽에 있는 모래톱으로 썰물이 되면 노출되는데 바지락이 아주 많았다. 염생이 마을 주민들은 배를 타고 바지락을 잡아다가 젓을 담아 팔았다. 염생이 마을은 바지락으로 유명해서, 남당항의 대우식품에서도 조개젓을 사갔고, 밤섬에 사는 장사꾼도 사갔다.

배를 타고 상풀에 가는 것을 '여파루간다'고 하였다. 이때 배가 없는 주민들도 배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에 만 원 정도 뱃삯을 냈다. 여파루를 가장 많이 다닌 사람이 최경환 님이다.

상풀에서는 호롱빵을 돌려 바지락을 잡기도 하였다.

상풀은 모래로 되어 있고, 바지락이 많아 배로 잡기도 하였다. 작은 배를 닻으로 고정시키고, 바지락을 파는 틀을 물속에 넣은 후, 호롱빵이라고 불리는 틀을 돌리면, 바닥에서 바지락을 훑어내는 원리로 잡는다. 몇 시간만 잡아도 한 배씩 잡았는데, 경상도 삼천포에서 큰 동력선이 데레끼라고 하는 것을 달고 와 대량으로 잡는 바람에 고갈되었다.

서산 AB지구 사업 이후 새조개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후, 천수만 바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회유하는 물고기가 없어졌고, 조류의 속도가 줄어들어 낭장망은 맬 수 없었다. 반면 옛날에는 없던 새조개가 나타났고, 비싸게 팔렸다. 그러나 새조개를 잡는 어업권은 외지인들이 획득하여, 학성리 주민들은 불법으로 잡는 신세가 되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면서 잡지 못하게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월도 남섬 근처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업자한테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월도 북쪽, 남섬 근처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고, 썰물 때에는 물 밖으로 드러났다. 이 모래를 외지인들이 허가를 내어 채취하였고, 주변 어촌계에 보상을 해 주었다. 이 모래 채취 때문에 학성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여 1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염성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양식장을 개인별로 나누었다.

염성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양식장을 개인별로 나누었다. 논이나 밭처럼 경계를 두었고,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양식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자기 것을 관리하니까 관리가 더 잘 된다. 상풀 같은 곳에서 종패를 잡아다 넣고 개인적으로 관리한다.

염성어촌계는 1964년에 만들었다.

염성어촌계는 1964년도에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음 만들 당시에는 학성리에 염성어촌계와 회덕어촌계가 있어 각각 운영되었었으나 현재는 염성어촌계로 합병되었다. 염성어촌계의 초대 계장은 정홍원 씨였다.

염생이 주민들은 즉은여에서 박하지나 낙지를 잡는다.

염생이 주민들이 맨손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곳은 주로 즉은여이다. 즉은여는 마을 서쪽, 바다 속에 있는 바위인데,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염생이 주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 터전이다. 주로 낙지, 박하지 등을 잡는다.

밤에는 불을 켜들고 잡았다. 최경환 님의 기억은 석유를 묻힌 솜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잡았다. '남의 불에 게 잡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다.

염생이 마을에는 2개의 독살이 있었다.

염생이 마을에는 2개의 독살이 있었다. 하나는 맨삽지에 있었고, 하나는 마을 서쪽에 있었다.

맨삽지부터 낭어덕까지 박대진 씨가 덤장을 맸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 1980년대 덤장을 맸다. 덤장은 맨삽지에서부터 낭어덕까지 길게 맸는데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친 후, 그물의 아래는 뻘에 묻고, 물이 들어오면 배를 타고 그물을 들어 올려 말뚝에 매달았다. 그러면 덤장 안쪽으로 들어온 고기는 모두 잡혔다. 민물장어, 도미, 농어새끼 등 다양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천수만 안에서 복어를 잡았고, 복어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람을 보았다.

최경환 님은 매형네 배를 타고 낚시질을 다니기도 하였다. 갈치 주낙을 놓고, 복어 낚시질도 했는데 녹도 화사리 근처에서 큰 갈치와 준치를 주낙으로 잡았다. 복어는 외줄낚시로 잡았는데 굉장히 많아, 입뿐만 아니라, 몸에 걸려 나오는 놈도 있었다. 한 번은 낚시로 잡은 복어를 간[7]에 살려 두었는데, 안면도 군서랭이에서 한 사람이 배에 오르더니 간을 열고 손을 넣었다가 복어에 물려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일이 있었다.

당시 복어는 천수만 안으로 들어와 창리 근처에서 산란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천수만 안에서 잡는 복어가 유난히 컸다.

염생이 마을에서는 196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다.

염생이마을 당산은 마을 북쪽 산이다. 당집은 없고 소나무 밑에서 1960년대까지 당제를 지냈다. 제물을 마련하여, 제관만 올라가서 조용히 지냈는데, 당제를 지냈기 때문에 6.25 때도 군대 가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당제 기간에 출산하는 사람은 모두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염생이 마을의 배들도 뱃고사를 지냈으나 뱃기를 당집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냥 배에서만 지냈다.

소도와 추도, 안면도에 있는 초분을 보았다.

최경환 님은 소도에 살 때, 소도와 추도, 안면도에 있는 초분을 보았다. 소도에는 영식이 할머니의 초분이었는데, 밭 근처에 있었고, 밭에 가면 아주 무서웠다. 추도에는 소도 쪽으로 언덕에다 해 놓았었다.

안면도에는 고남초등학교 가는 길목인 마수굴에 있었는데, 애기 낳다 죽은 부인의 초분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애기 낳다 죽은 부인을 초분으로 하면, 나중에 애기를 낳아 옆에 데리고 있다고 믿어 초분을 하였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두려움의

7) 물에 고기를 넣는 칸.

대상이었다.

학성리 염생이마을에는 민며느리로 시집 온 분이 있었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 살던 홍재선씨(1927년생 정도)의 부인은 민며느리로 들어왔다. 대략 13살 정도에 시집 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는 청석집이 3채 있었다.

학성리 염생이 마을에는 특별하게 청석집이 3채 있었다. 성길네, 성천네, 석구네 집이었는데, 웅천에서 배로 실어다 만들었다고 한다(웅천에서 가져온 것은 1997년 필자가 조사).

학성리 염생이 해안은 썰물이 되면 배를 움직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학성리 염생이 해안은 모래로 되어있고 파도가 없어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썰물이 되면 배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큰 배들은 염생이 해안에 대지 않고, 학성리 회변에 댄다. 회변은 수심이 깊고, 해안이 급경사라 썰물 때도 배를 움직일 수 있다.

학성리 회변항은 예부터 배가 대기하는 곳이었다.

학성리 회변항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급하여 썰물 때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광천으로 통하는 만의 입구라 예부터 많은 배들이 대기하는 곳이었다. 광천 독배에 들어가는 배들이 이곳에 대기하다가 들물을 따라 들어갔고, 썰물을 따라 광천 독배에서 내려온 배들이 서산이나 홍성 남당항 쪽으로 가려면 다시 들물을 따라가야 했다. 이렇게 물이 바뀌는 것을 기다린 장소가 회변이었다. 그래서 예부터 회변에는 여러 배가 정박하였다.

소도 주민들은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순수 우리말로 불렀다.

소도 주민들은 북풍을 하누바람, 남풍을 마파람, 동풍을 높새바람, 서풍을 늦바람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 바람, 즉 서북풍을 느타니, 동남풍을 안마높새, 남서풍을 늦마, 북동풍은 노파니라고 불렀다.

소도에서도 꼬댁각씨 놀이를 하고 놀았다.

최경환 님의 누님, 최연양 님(1936)에 의하면 소도에서도 꼬댁각씨 놀이를 하고 놀았다.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여 놀지는 않았고, 가끔 신 내렸다고 꼬댁각씨 되는 사람이 우는 경우는 있었는데 흔치 않은 일이었다.

1950년대 소도 주민들이 오천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배가 전복되어 2명이 죽었다.

1950년대 소도에 사는 최 씨 집안들이 오천에 사는 일가친척의 제사에 참여하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월도 남섬에 걸려 전복되어 2사람이 죽고, 1사람은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밤인데도 요행히 안면도 영목 달구지에 사는 안석구씨가 지나다가 발견하고 구조해 주었다. 헤엄쳐 남섬에 상륙했어도 겨울이라 살기 어려울 터인데, 구조되어 살았다.

1960년대 안면도 신야리에 사는 사람이 광천 독배에 가서 김 양식에 쓸 대나무를 사오다가 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배는 통통배였고, 한 사람이 대나무 위에 누웠다가 떨어졌는데 알지 못했던 것이다. 떨어진 사람은 사망하여 소도 근처를 떠다니다가 주벅에 들어갔다.

최경환 님의 4촌 형 주벅이었는데, 밤에 물 보러 가서 황을 들어 올렸는데, 사람이 들어 있어 깜짝 놀랐고, 황을 열어놓아 바다에 흘려보냈다. 주벅에서 나온 시신은 소도와 추도 사이를 떠돌았고 가족들이 찾아갔다.

당시 속설에 의하면 육지로 나오고 싶은 시신은 멀리 가지 않고, 자꾸 육지 쪽으로 붙는다고 한다.

안면도 신야리, 독개 사람들부터 광천 장에 다녔고, 소도에는 전용 장배가 없었다.

과거 섬 주민들은 주로 독배 포구를 통하여 광천 장을 보았다. 장고도, 고대도, 원산도, 소도, 추도, 육도, 월도는 물론 안면도 주민들까지 다녔는데, 안면도에서는 중간 지역인 신야리와 독개 주민들까지 다녔다.

당시 소도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시장에 다니는 전용 장배가 없어 어선을 이용하였다. 이웃한 추도에는 전용 장배가 있었다.

오천장이 생긴 뒤에는 오천장도 보았다.

최경환 님 둘째 동생은 식모살이를 하였다.

최경환님 아버지는 어머니가 호열자로 돌아가신 후, 재혼하여 자녀를 7명이나 두었다. 1961년 학성리로 이주하였고, 1963년 50세로 사망하였다. 이때 최경환님의 동생은 7명이나 되었고 가장 어린 동생은 2살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동생들을 초등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고, 특히 둘째 동생은 12~13세 때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였다. 가족 수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식모살이 간 동생은 주인을 시영(수양)부모로 삼아, 밥과 빨래를 하며 생활하였다.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고 약간의 돈을 받았으며, 주인이 결혼도 시켜 주었다.

즉은여 안골에 주벅을 맸다.

1980년경, 즉은여 밖에 낭장망을 설치하기 이전, 마을 주민들은 소규모로 즉은여 안쪽에다 말뚝을 세우고 두어 틀의 주벅을 맸다. 이 주벅들은 규모도 작았고, 고기를 많이 잡지도 못했다. 썰물 때 고기를 잡는 썰물 주벅이었다.

최경환 님은 돌 안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쌀을 씹어 끓인 미음을 먹고 살았다.

최경환 님의 어머니는 돌이 되기 한 달 전에 호열자에 걸려 사망하였다. 돌이 지나지 않은 최경환 님은 젖을 먹을 수가 없어, 미음을 먹고 살았다. 미음은 아버지와 누나가 쌀을 씹어 투가리에 담고, 밥솥에 넣어 만들었다. 당시 젖을 먹지 못해 마르고 배만 뽈록하게 나왔었다고 전한다.

염생이마을에는 수리계가 있었다.

염생이 마을에는 저수지 물로 간척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리계가 있었다. 수리계장이 있었고, 물 감독이 따로 있었다. 수리계장은 명예직이었고, 물 감독은 급여를 주었다. 따라서 몽리구역에 있는 논들은 면적에 따라 수세를 부담하였다. 수세 이외에도 봄에 수로를 정비할 때에는 나와서 일을 해야 하였다. 이때는 논의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나와 일

하였다.

날이 가물어 논 1마지기에 쌀 1가마를 수확하는 것을 '대석'이라고 하였다.

날이 가물면 모를 늦게 심었고, 자연히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래도 1마지기에 1섬 정도는 수확할 수 있었다. 이를 '대석'이라고 하였다.

1980년경에는 저수지에 물이 없어 모를 늦게 심었다. 이 해에는 1마지기에 쌀 1가마를 수확하였고, 이때 '대석'이라고들 하였다.

염생이 마을 저수지에는 뱀장어가 많았고, 요즘에는 빠가사리도 있다.

염생이 마을 저수지에는 과거 뱀장어, 붕어, 가물치 등이 아주 많았다. 특히 뱀장어가 많아 물이 빠지면 장어 칼로 칼질을 하여 큰 뱀장어를 많이 잡았다. 그러나 간척지 제방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뱀장어가 없어졌다. 주민들은 새끼뱀장어가 여러 수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붕어도 많았는데 모두 참붕어라 외지인들이 좋아하였다. 염생이 마을 주민들은 붕어를 먹지 않아 잡지도 않았다. 가물치도 많았다.

그래서 외지의 양식업자가 2000년 수리계에 300만원을 내고 양식하기도 하였다. 업자들이 빠가사리를 풀어 넣어 현재는 빠가사리도 잡힌다.

사호리는 감으로 건너다녔다.

현재는 천북면 사호리와 학성리 사이에 간척지 제방이 완성되어, 제방으로 통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깊숙한 만입지가 발달하여, 바다를 통해 건너다녔다. 주민들은 갯벌에 빠지지 않도록 돌을 놓아 징검다리처럼 건너다녔다. 이 징검다리를 '감'이라고 하였고, 갯벌을 통하여 건너다니는 것도 '감 건넌다.'라고 하였다. 감에서 굴을 따기도 하였다.

최경환 님 댁에서는 경을 자주 읽었다.

최경환 님 댁에서는 경을 자주 읽었다. 소도에 살 때도 했고, 학성리로 이사 온 뒤에도 자주 읽었다. 매년 무당이 안택을 해서, 안방 벽에다가 성주를 붙였고, 통티를 잡으려고 고추

를 태우고, 팥을 뿌리기도 했으며, 눈에 삼이 서면 늘 무당이 삼을 잡았다.

한번은 아버지가 수숫대를 뽑고 허리가 아파 꼼짝도 못했는데, 떡을 만들어 영목 탄개에 있는 점쟁이를 불러온다고 하니까 말끔하게 나은 적도 있었다. 이후 경을 읽고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살이에 걸리면 묘지에 가서 재주곰뱅이를 넘었고, 작은어머니는 남의 집 경 읽을 때 대를 잡기도 하였다. 대가 잘 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최경환 님의 작은어머니는 잘 내렸다.

멍덱이 북쪽에 있는 여파장 근처에서 갈치를 잡았다.

삽시도 밖에 뾰쪽한 섬이 있는데 멍덱이라고 불렀다. 그 북쪽에 물속 바위가 있는데 여파장이라고 불렀다. 썰물이 되면 물 속에 있는 바위가 보이는 정도였다. 이 여파장 근처에 고기가 많아 주낙을 놓았다. 옛날 갈치 주낙도 이 근처에 놓았다. 좋은 어장이었다.

최경환 님은 뱃고사를 지냈다.

최경환 님은 배를 처음으로 사올 때나, 매년 팔월 열나흗날 뱃고사를 지냈다. 배에서 지내는데 뱃기를 걸어놓고, 시루떡과 돼지머리, 탕국, 삼색실과 등을 놓고 지냈다. 당제와 상관없이 지냈다. 옛날 소도에서도 주민들은 뱃고사를 지냈다. 아이들이 떡을 얻어먹으려고 추위에 떨기도 하였다.

소도에서는 수룡동이나 황도 중선배가 풍물 치는 소리를 들었다.

옛날 안면도 안쪽에서 유명한 포구는 황도와 수룡동이었다. 이들 포구에는 많은 중선배가 있어 멀리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다. 이들 중선배가 왕래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안면도 영목과 소도 사이의 좁은 바다였다.

이들 중선배들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를 달고 풍물을 치고 흥겹게 하며 들어왔다. 외지 포구에서 돼지를 잡아 싣고 온다고도 하였다. 배가 나갈 때도 고사를 지내고 나가기 때문에 술을 먹고 풍물을 치면서 나갔다. 중선배들은 징·꽹매기 같은 풍물을 늘 싣고 다녔다.

빼섬(추도) 주민들은 주벅을 매어 부자로 살았고, 대학생도 많았다.

빼섬(추도) 주민들은 일찍부터 주벅을 매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안면도에 논을 사 농사를 지어다 먹기도 하였으며, 일찍부터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소도에는 대학생이 없는데, 추도에는 대학생이 5명이나 되었다. 모두 주벅 때문이었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최 연 양 (1936년생)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보령시 오천면 소도·추도, 천북면 학성리의 주민생활



출생과 성장

최연양 님은 1936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내 소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4형제 중 막내였고, 결혼하여, 첫딸로 최연양 님을 낳고 이어 아들 셋을 두었다. 어머니는 9살 때 콜레라로 사망하고, 남동생 2명은 1950년 군함에서 쏜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이후 가난한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지도 못 하고 동생들을 보살피며 생활하다가 19살에 이웃섬인 추도로 시집가 살았다.

1946년 소도에 호열자(콜레라)가 들어와 7명이 죽었고, 초분으로 모셨다가 허육도로 옮겨 매장하였다.

1946년 여름, 안면도 영목에 호열자(콜레라)가 들어왔고, 소도에 사는 부인이 영목 친정집에 갔다가 호열자에 걸려, 소도에 전파시켰다. 소도는 샘 하나를 가지고 전 주민이 먹었기 때문에 전 주민에게 호열자가 전파되었고, 7명의 주민이 사망하였다.

최연양 님의 어머니도 이때 사망하였다. 병에 걸린 지 3일 만에 사망하였고, 최연양 님도 걸렸는데, 온 몸에 쥐가 나고 틀어졌었으나 살아남았다. 당시 방역 때문에 주변 섬들과는 소통하지 않았고, 경시선에서는 환자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여 먹지 못 하게 하였다. 환자 중에서는 물을 먹고 싶은 나머지, 영목 맞은 짝에 있는 두내기 샘까지 기어가 실컷 먹은 사람이 있었고, 결국 물을 먹은 사람만 살아남았다. 죽은 사람들은 남자가 2명, 어린이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들이었다. 여자들이 많이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처음에 영목 맞은 짝에 초분으로 장사를 지냈으나 당국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당시 공동묘지였던 허육도로 옮겨 묻었다.

어머니가 호열자로 사망한 뒤에 새어머니를 맞이하였다.

어머니가 호열자로 사망한 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하였다. 4명의 자식이 있었고, 막내 아들은 1살밖에 안 되어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결혼하였다가 자식을 낳지 못 한다고 쫓겨 온 분이었다. 그러나 재혼해 온 어머니는 7남매를 낳았다.

1950년 주워온 포탄이 터져 동생 둘과 사촌동생 하나를 잃었다.

1950년 여름, 원산도 밖에서 군함이 함포사격을 하였다. 소도 마을에서는 방공호를 파고, 포탄을 쏠 때마다 들어가 숨었다. 그때 원산도 안쪽에 들어온 군함이 있었고, 효자도에서 광천 독배로 다니는 장배가 사람과 물건을 싣고 지나갔다.

이때 군함이 장배를 불렀고, 장배가 다가오지 않자, 위협으로 함포를 쏘았는데, 소도 고추밭에 떨어져 폭발하지 않았다. 이것을 고추밭을 매던 부인이 주워왔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 전해지는 말로는 사촌동생이 땅에 패대기를 쳐 폭발했다고 한다. 이 폭발로 최연양 님의 남동생 2명과 4촌 동생 1명이 사망하였다.

겨울에는 주로 고구마를 먹고 살았다.

최연양 님은 가난하였다. 밭에다가 보리를 심어 수확하고, 콩, 고구마, 조, 수수 등을 심어먹었는데 특히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 고구마는 방 한쪽에 통가리를 만들어 보관하고, 겨우내 쪄 먹었다.

보리는 절구에 3번 찧고, 2번 삶아 먹었다.

1950년대, 소도에서는 주로 보리를 먹었는데, 절구에 찧어 먹었다. 보리를 먹으려면 먼저 절구에 통보리를 넣고 물을 부어가면서 찧었다. 이것을 '아시 벗긴다'고 하였다. 아시 벗긴 보리를 말렸다가 다시 물을 부어가면서 찧는데, 이것을 '갯낀다'고 하였다.

갯껴서 저장한 보리를 먹으려면 또다시 찧어야 하는데, 이것을 '물 묻힌다'고 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보리를 찧고 삶아 밥을 했던 것이다. 보리를 먹으려면 3번을 찧고, 삶아 밥을 하기 때문에 2번을 삶아야 되었다. 보리를 여러 번 잘 찧지 않으면 밥이 껄껄해서 먹을 수 없었다. 보리쌀을 삶은 물은 김치를 담을 때 국물로 썼다.

소도에는 돌로 된 절구통도 있었고, 나무로 된 절구통도 있었는데 대부분 나무로 된 절구통이었다.

스슥(조)은 물을 붓지 않고 찧어, 보리쌀과 함께 밥을 지었다.

소도에서는 스슥(조)도 많이 심었다. 스슥은 절구에 찧을 때 물을 붓지 않고 찧었다. 절

구로 찧어 까부르기만 하면 되었다. 스슥은 찰기가 있어 보리쌀에 넣어 밥을 지어 먹었다. 보리는 찰기가 없고, 스슥은 찰기가 있어 같이 밥을 해야 좋았다.

수수는 한 번 찧어 먹었다.

수수도 절구에 찧어 먹었다. 보리와 같이 물을 넣어가면서 찧었으나, 보리처럼 여러 번 찧지 않고 한 번 찧어 먹었다. 밥에 넣어 먹었고, 삶아서 맷돌에 갈아 엿을 고기도 하였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뭇국이나 진잎국을 주로 끓여 먹었다.

최연양 님이 섬에 살 때, 국은 주로 뭇국이나 진잎국이었다. 뭇국은 무를 썰어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것이고, 진잎국은 배추김치 담을 때 겉잎을 함께 담았다가 국을 끓여 먹는 것이다. 김치에 간이 들어있어 물만 부으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끓일 수 있는 국이었다. 진잎국에 빈댕이 말린 것을 넣으면 맛이 좋았다. 봄에는 세모국도 끓여 먹었는데, 소도나 추도에서는 세모가 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여에 가야 뜯을 수 있었다.

밭에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나물로도 국을 끓여 먹었다.

생선국도 끓여 먹었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생선으로 국을 끓여먹기도 하였다. 국을 끓인 생선은 농어, 우럭 등이었다. 맛이 좋았다.

최연양 님은 19살에 추도(배섬)으로 시집갔다.

최연양 님은 19살에 큰어머니의 중매로 이웃 섬인 추도(배섬)로 시집갔다. 4살 위 이 씨 총각과 결혼했는데, 바로 이웃 섬이지만 가마를 타고 갔다. 가마를 타고 배에 올라, 배에서도 가마 속에 있었으며, 추도(배섬) 백사장에 내려 다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가 결혼식을 하였다.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다. 당시 대부분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결혼식에 온 하객은 추도(배섬), 소도(추섬), 영목 주민들이었다.

최연양 님의 친정인 소도와 시집인 추도는 안면도 영목과 같은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결

혼식 때도 같은 효자도리에 속하는 월도, 육도 주민들은 오지 않았지만, 소도와 추도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안면도 영목 사람들도 참석하였다. 소도, 추도는 예부터 영목과 한 마을처럼 생활하였다. 월도, 육도보다 더 가까웠다.

추도(빼섬)은 부자 섬이었다.

추도 주민들은 주변 섬 주민들보다 오래 전부터 주벅으로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추도에는 부잣집이 많았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 추도에는 논이 없었지만, 안면도에 논을 사 농사를 지어다 먹었다.

최연양 님의 시집은 가난하였고, 남편은 주낙배로 고기를 잡았다.

추도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주벅을 해서 부자로 살았지만, 최연양 님의 시집은 가난하였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연양 님의 시집에서는 김발을 매고, 남편은 주낙배로 고기를 잡았다.

최연양 님은 두부를 만들어 주고 비지를 얻어 돼지를 길렀다.

최연양 님은 추도에서 돼지를 길러 팔았다. 1년에 2~3마리를 길러 팔았는데, 사료가 문제였다. 사료를 얻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두부를 해 주었다. 콩을 불려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고, 콩 주인에게는 두부만 주고, 부산물로 나오는 비지를 사료로 사용한 것이다. 보릿겨와 비지를 먹여 돼지를 길러 팔았다.

최연양 님은 섬에 살았지만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지 않고 간수를 받아 두부를 만들었다. 소금을 사다 놓으면 간수가 나와 사용할 수 있었다.

최연양 님의 아버지는 생선 장사를 하였다.

최연양 님의 아버지는 고기를 잡기도 하였지만, 생선 장사를 하였다. 주로 주벅을 매는 녹도나 고대도 등지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육지에 팔았다. 주로 빈댕이 같은 고기를 결성에 갖다 팔았는데, 아는 주민들이 많아 외상으로 팔았다가 보리로 받아다 먹거나 팔았다.

소도, 추도에서는 말을 많이 먹었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겨울이 되면 말을 많이 뜯어 먹었다. 옛날에는 부드러운 참말이 많아 많이 뜯어 찌개도 끓이고 밥에도 넣어 먹었으나 요즘에는 오염되어 없어졌다. 요즘까지 남아있는 말은 기름 말이다. 지금도 기름 말은 먹는다. 그리고 장죽 말이라고 둠벙에 나는 말이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맛이 좋다. 요즘도 뜯을 수 있다.

밀을 심어 수제비나 국수를 해 먹었다.

소도에서도 밭에 밀을 심어 수제비나 국수를 해 먹었다. 밀을 맷돌로 갈아 체로 치면, 가루로 나오는 것이 밀가루이고, 남는 것이 밀기울이다. 밀가루를 개어 손으로 떼어, 끓는 물에 넣어 만드는 것이 수제비였고, 홍두깨로 늘려 썬 것이 국수였다.

밀을 맷돌로 갈고 체로 쳐 밀가루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야 수제비나 국수를 만들 수 있었다. 바쁜 섬에서는 특별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다.

보리술을 만들어 먹었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보리술을 만들어 먹었다. 쌀이 없고 보리만 있기 때문에 보리쌀을 삶아 누룩과 섞어 놓으면 술이 되었다. 쌀로 만드는 술과 같이 만들었다.

식초병에 식초를 만들어 먹었다.

최연양 님은 섬에 살 때도 늘 식초를 만들어 먹었다. 식초는 식초병을 부뚜막에 놓고 담는데, 술과 밥, 누룩 등을 넣어 담고, 마른 고추를 불에 구워 넣었다. 최연양님 댁에는 술이 없어 이웃에서 얻어다 넣었고, 가끔 밥과 누룩을 넣어 만들었다. 술과 밥, 누룩을 가끔 넣으면 초가 계속 생성되었다.

추도에서는 잔치에 다식을 박았다.

추도에는 잔치 때 다식을 박아 먹었다. 마을에 다식판이 있었고, 잔칫집에서는 빌려다 사용하였다. 다식은 쌀, 콩, 흑임자, 송화 등을 엿과 함께 버무려 만들었다. 육지와 다름이 없었다.

최연양 님은 해마다 2~3말의 콩으로 장을 담았다.

최연양 님은 섬에 살 때도 해마다 2~3말의 장을 담았다. 먼저 콩을 삶는데, 불린 콩을 삶으면 쉽게 삶고, 마른 콩을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삶아진 콩은 옛날에는 절구로 찧었는데, 김 양식을 할 때는 김 까시는 조빠에다 넣어 찧었다. 이후 적당한 크기로 메주를 만들어 꿰 달아 말렸다가 장 담는 날이 정해지면 띄웠다.

정월이 지난 뒤 장 담는 날 20일 전에 따뜻한 방에다가 메주를 쌓아 놓고 이불을 덮어 놓으면, 적당하게 뜨게 된다. 매달지 않고 띄우면 질척해서 썩을 염려가 있어, 말려 가지고 띄우는 것이다.

띄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약 2달이 지난 후, 메주를 건져내고 달이면 간장이 된다. 이때 묵은 간장을 넣어 같이 달이기도 하였다. 건져낸 메주에 소금을 넣고 치대어 독에 넣으면 된장이 되었다. 된장에는 소금만 넣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최연양 님은 보리고추장을 담아 먹었다.

최연양 님은 섬에 살 때 보리고추장을 담아 먹었다. 보리고추장은 먼저, 보리쌀을 맷돌에 갈아 시루에 찌고 띄웠다. 뜨거운 방에 이불을 덮어놓고 한 3일 띄우면 곱게 부서지고, 여기에 고춧가루와 메줏가루, 소금물을 끓여 넣어 만들었다. 엿이나 설탕을 일체 넣지 않았다.

쩜장을 만들어 먹었다.

최연양 님은 섬에 살 때, 쩜장을 만들어 먹었다. 잘 띄운 메주를 물에 담갔다가 곱게 찧고, 여기에 파짠지 국물이나, 배추짠지 국물, 이런 걸 넣고 주물러서 만들었다. 쩜장은 바로 먹을 수 있었고, 맛이 좋았다.

섬에서는 빈댕이와 풀치젓을 담아 먹었다.

빈댕이는 주벅이나 낭장에서 잡은 작은 생선이었다. 대량으로 잡혀 젓을 담아 먹었다. 젓은 바닷물로 씻어 소금에 버무려 담았다. 풀치는 작은 갈치다. 갈치가 작기 때문에 내장을 꺼내지 않고, 비늘도 벗기지 않은 채로 바닷물에 씻어 소금에 담았다. 한 2년 지나면 모

두 녹아 젓국이 되었고 맛이 좋았다.

갈치속젓이 가장 맛이 있었다.

큰 갈치를 잡으면 내장을 떼어내고 절여 팔았다. 이때 떼어낸 갈치 내장을 소금에 버무려 젓을 담는데 가장 맛좋은 갈치속젓이 되었다. 섬 주민들도 갈치속젓을 가장 맛있는 젓갈로 여겼다.

학성리는 조개젓으로 유명하였다.

천북면 학성리는 조개젓으로 유명하였다. 주변 바다에서 바지락을 많이 잡았고, 바지락을 생으로 까서 바닷물로 씻어 젓을 담았는데, 주변에서 유명한 젓이었다. 광천 상회에서 학성리 조개젓이라고 하면 유명하였다.

굴젓도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그대로 바닷물에 씻어 담았다. 굴젓은 익으면 빨갛게 되는데, 먹을 때 고춧가루와 양념을 섞어 먹는다.

소도의 샘물은 부족하여 나누어 먹었고, 안면도 그늘 뫼에서 배로 길어왔다.

소도의 샘은 하나였다. 두레박으로 퍼먹었는데, 김발을 하느라고 늘 부족하였다. 그러나 물을 더 많이 가져가느라고 다투지 않고, 새벽에 나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갔다. 그래도 부족한 물은 안면도 그늘 뫼에서 배로 길어다가 사용하였다. 독을 여러 개 묻어 저장하였다가 사용하였다.

추도에는 샘이 두 개가 있었는데, 김발을 매지 않아 딸리지 않았다.

추도에는 샘이 두 개여서 하나는 먹는 물로 사용하고, 하나는 빨래하는 허드렛물로 사용하였다. 김발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딸리지는 않았다.

소도에서는 박하지를 젓국에 담아 먹었다.

소도에서는 박하지를 잡으면 젓국에 담아 먹었다. 소도에는 간장보다 젓국이 흔했고, 젓국에 박하지를 담그면 더 맛이 좋았다. 젓을 담은 뒤에 젓국을 끓여 사용하지만, 구더기

가 생기면 버리고 새 젓국을 사용하였다. 섬에서는 간장에 담지 않았다. 간장보다 젓국이 흔했고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추도에서는 애를 낳으면 삼신상과 함께 수부상을 놓았다.

추도에서는 애를 낳으면, 삼신상과 수부상을 놓았다. 삼신상은 밥 3그릇, 미역국 3그릇, 물 3그릇을 담아 애기 낳은 방의 윗목에 놓았고, 수부상은 밥, 미역국, 물을 한 그릇씩 놓아 마루에 놓았다. 삼신상이나 수부상에 수저는 놓지 않았다.

소도에서는 광목이 최고의 옷감이었다.

소도 주민들이 옛날 입던 옷감은 무명이나 광목이었다. 아이들 배내옷조차도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었고, 광목 앞치마는 자랑거리였다.

소도와 추도 여자들은 길쌈을 하지 못했다.

소도와 추도 여자들은 길쌈을 하지 못했다. 보령지방의 육지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무명이나 모시를 만들었으나, 소도나 추도 같은 섬에서는 할 줄 아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조개를 잡고 굴만 딸 뿐이었다.

결혼식은 대부분 신랑 집에서 했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대부분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했다.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 소수이지만 신부 집에서 한 경우도 있었다. 최연양님도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였으나, 홍성 수룡동으로 시집가는 시누이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최연양 님이 결혼식을 할 때는 친정집에서 큰어머니 혼자만 참석하였다. 큰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친구였다.

최연양 님은 가난해서 이불을 만들어가지 못 했다.

최연양 님은 19살에 이웃 섬인 추도로 시집가면서 이불을 가져가지 못 했다, 큰 농 대신 작은 머릿장과 작은 경대만 가져갔을 뿐이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사주는 농 밑에 깔아두었다.

최연양 님은 어린 나이에 시집갔고, 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주는 받았다. 사주는 시집갈 때 가지고 가서 농 밑에 깔아두었다.

추도에서는 정월에 여러 제사를 지냈다.

추도에서는 정월달에 여러 제사를 지냈다. 최연양님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떡국을 끓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정반차례라고 하였다. 이어서 아침에 밥과 국, 과일, 나물 등으로 차례를 지냈다.

정월보름날에도 초하룻날과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냈는데, 보름차례라고 하였다.

1960년대까지 추도에서는 아플 때 경을 많이 읽었다.

최연양 님의 시어머니는 1960년대 초에 사망하였다.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경만 7번이나 읽고, 침만 맞았다. 결국 병원에 가서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소도에는 산나물이 많았다.

소도에는 산나물이 많았다. 많이 먹은 산나물은 잔대싹, 어르레, 원추리 등이었다. 이웃한 추도보다 땅이 넓어 나물이 많았다.

추도 주민들은 대부분 정월에 안택을 했다.

추도 주민들은 대부분 정월에 안택을 했다. 안면도에서 무당을 불러서 했는데, 할 때마다 성주를 내려 안방의 벽에 붙였다. 이때 터주라고 하여 장광도 위했다.

최연양 님의 시어머니는 용왕을 특별하게 모셨다.

최연양 님의 시어머니는 용왕을 특별하게 모셔, 매년 용왕제를 바닷가에 가서 지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바다에서 잃었기 때문에 용왕제를 특별하게 지냈다. 용왕제는 밥 3덩어리를 김에 싸서 바다에 넣으면서 축원을 하였다.

소도의 당제는 아주 오래전에 지냈다.

소도의 당제는 아주 오래전에 지내고 없어졌다. 최연양 님(1936)이 어렸을 때 노인들이 지냈는데, 당산 나무 밑에 돌을 놓고, 짚을 깔고, 밥, 국, 등으로 제를 올렸다. 당시 과일이 귀했기 때문에 과일도 놓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돼지 같은 것을 잡지도 않았다. 다만 애기를 낳을 부인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최연양 님이 시집간 1954년경에는 당제가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도도 소도와 비슷하게 당제를 지냈다.

최연양 님은 아들 교육을 위해 학성리로 이주하였다.

추도에서 거주하던 최연양 님은 아들 교육을 위해 학성리로 이주하였다. 1955년에 태어난 큰아들이 1962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안면도 승언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다니도록 했으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교육을 위해 학성리로 이사하였다. 교육을 위해 이사하였으나 초등학교밖에 가르치지 못 했다. 가난해서 광천에 하숙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성리에서 김 양식을 하여 성공하였다.

최연양 님이 학성리로 이사 온 첫해, 학성리 해안에 김 6떼를 맸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너무나 작황이 좋아 사람을 얻어 뜰 정도였다. 김양식의 성공으로 돈을 모아 논 3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 추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도에서도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였다.

소도는 작은 섬이고, 몇 가구 살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함께 놀았다. 여자 어린이들은 공기놀이, 목자치기, 고무줄놀이, 널뛰기 등을 하였고, 남자들은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을 하였다. 마을 앞 팽나무에 그네를 매고 타기도 하였다.

소도에서는 나무가 없어 고생하였고, 안면도 서름 밖에서 사다 땠다.

소도는 작은 섬이고, 밭으로 개간했기 때문에 산이 적었다. 그래서 나무는 늘 부족하였다. 겨울이 되면 땔감이 없어 방이 추웠고, 어린애의 손에 얼음이 박힐 정도였다. 그래서 안

면도 서름밖이라는 곳에서 나무를 사다 땠다. 추도와 가까운 영목에도 나무가 없었다. 배로 사오는 나무는 장작, 솔가지, 푸장나무 등이었다.

소도와 추도에서도 꼬댁각시 놀이를 하였다.

소도와 추도에서도 처녀들이 꼬댁각시 놀이를 하고 놀았다. 소도에는 처녀들의 숫자가 적어 몇몇이 모여 놀았지만, 추도에서는 여럿이 모여 제대로 놀았다. 대를 잡은 처녀에게 신이 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큰 일 난다고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합 김을 강요하였다.

소도는 주변 섬에서 가장 일찍 김 양식을 하였다. 갯벌이 김 양식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에서 조합에 김을 납품하도록 강요하였다. 아무 김이나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김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였고, 귀퉁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었으며, 접어 띠지를 둘러 포장하였다. 됫박으로 김이 섞인 물을 떠 부어 만들기 때문에 '됫박 김'이라고 불렀다. 가격도 조합에서 마음대로 해서 불리하였다.

주민들은 재래식으로 직사각형 김을 만들어 사적으로 팔려고 하였다. 이 김이 비싸게 팔려 이득이었다.

이에 어업조합에서는 감시를 하였고, 조합배가 들어오면 주민들은 직사각형 김을 모두 감추었다.

섬에도 술 조사를 다녔다.

섬에서도 술을 해 먹었다. 쌀이 없어 주로 보리로 담아 먹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섬에까지 술 조사를 다녔다. 술 조사가 나오면 주민들은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벌금을 물었다.

6.25당시 인민군을 피해 안면도 영목에서 두 사람이 수영으로 건너왔으며, 수룡동에서 인민군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6.25당시 인민군을 피해 안면도 영목에서 소도로 헤엄쳐 건너온 사람이 있었다. 2명이었

는데, 인민군들은 배가 없어 잡으러 오지 못했다. 당시 인민군들은 영목에서 들어오지 않고 홍성 수룡동에서, 배타고 건너온 적이 있었다.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갔다. 그들이 정규 인민군인지, 지역 사람들인지는 모른다.

학성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담당하였고 구판장도 열었다.

학성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담당하였다. 옛날에는 마을의 큰 상들과 그릇을 모아 손님을 치렀다. 돼지를 잡고, 음식으로는 고깃국, 동태찌개 등을 마련하여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상을 마칠 때까지 부녀회원들이 모두 모여 도와주었다. 초상난 집에서는 20~30만원을 부녀회에 기부하였다.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없어진 풍습이다.

부녀회에서는 구판장도 운영하여, 물건을 팔았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당번 집으로 물건을 옮기면서 판매하였다.

어머니가 돌 안 동생을 남겨놓고 사망하여, 동생을 키웠다.

최연양 님의 어머니는 1946년에 콜레라로 사망하였다. 이때 동생은 11개월이었고, 최연양님은 만 10세였다. 돌이 안 된 동생은 아버지와 최연양님이 키웠는데, 보리 삶은 물에 사카린을 타 먹이고, 쌀을 깨물어 끓여 먹였다. 쌀을 깨물어 끓이면 침이 들어가 달착지근했다.

추도에서 청국장을 만들어 먹었다.

최연양 님은 추도에서 살 때, 시어머니한테 배워 청국장을 만들어 먹었다. 청국장은 메주를 쑤어 찧기 전에, 적당량을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아랫목 따뜻한 곳에 이불을 덮어놓아 2일 정도 띄웠다. 이때 볏짚으로 꾸게미를 만들어 찔러 넣었다. 그래야 잘 떴다. 이틀 정도가 지나면 콩에서 액체가 나와 느른하게 되고, 절구통에 넣고 찧었다. 이때 소금은 넣고 찧었고, 그릇에 담은 뒤에도 위에 소금을 얹어 보관하였다. 그래야 변하지 않았다.

먹을 때는 적당량을 풀어 찌개를 만들어 먹었다. 어떤 경우에는 띄운 콩을 말려 빻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먹었다. 이 가루는 고추장을 만들 때 넣기도 하였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지충을 넣고 무릇을 고아 많이 먹었다.

최연양 님은 소도나 추도에 살 때, 무릇을 고아 많이 먹었다. 무릇은 산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소도나 추도에 특히 많았다. 봄에 뿌리를 캐어 깨끗이 씻고 삶아 아린 물을 버린 후, 솥 바닥에 해초인 지충을 뜯어 깔고, 위에 삶은 무릇을 올려놓고, 물을 조금 부은 뒤 졸인다. 이렇게 졸인 뒤에 위에 보릿가루를 넣으면 보릿가루가 개떡처럼 되어 맛이 있었다. 이것을 끼니로 먹기도 하였다.

솥에 눌어붙지 말라고 까는 것을 겅그레라고 하고, 가운데에 양을 늘리고 독한 맛을 흡수하라고 넣는 것을 적심이라고 하였다. 무릇을 골 때 지충을 겅그레로 사용하였고, 적심 역할도 하였다. 지충이 부드러우면 먹었고 뻣뻣하면 버리고 무릇만 먹었다.

소도나 추도에서는 무릇을 골 때, 쑥이나 수리취, 시래기 등을 넣지 않았다. 지충만 넣었다. 봄에는 지충의 싹이 부드러워 무쳐먹을 수도 있었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유 영 오 (1949년생)
보령시 대천동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의 어업



출생과 성장

유영오 님은 강릉 유 씨로 1949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송도 아래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2남1녀 중 장남이었고, 두 분의 부인이 일찍 사망하여, 세 번째 부인을 얻어 유영오 님과 3명의 동생들을 낳았다.

유영오 님은 10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6살에 졸업하였고, 집안이 가난하여 17살부터 중선배 선원생활을 시작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아버지가 17세에 사망하여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26세에 24세의 처녀와 결혼하여 3남 1녀를 낳아 길렀다.

송도 아래 섬은 강릉 유 씨의 집성촌이었다.

매년 7월 보름날 벌초를 하고, 10월 보름날 시제를 지냈다. 타성은 문 씨, 오 씨, 장 씨, 김 씨가 각각 1가구씩 있었고 모두 강릉 유 씨였다. 10가구쯤 되었다. 송도에 최초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귀양 와서 정착하였고 이후 후손이 퍼졌다고 한다. 송도에는 강릉 유 씨네 종중산이 있어 선조들을 모셨다. 음력 7월 보름날에는 후손들이 모여 벌초를 하였고, 음력 10월 보름날에는 시앙차례(시제)를 지냈다.

시제를 지내기 위해 송도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쌀 1되와 콩 1되씩을 거두어, 쌀로는 밥과 떡을 하고, 콩으로는 두부를 만들어 제를 올렸다.

송도 아래 섬에 있는 종중산은 한전에서 보상받기 전에 3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주교면 주교리 궁아난 마을에 산을 마련하였고, 납골당을 만들어 조상들을 모셨다.

유영오 님의 아버지는 중선배의 선원이었는데, 늘 가난하였다.

유영오 님의 아버지는 중선배의 선원이었다. 당시 하송도에는 중선배가 2척 있었는데, 유씨 집안에 2척이 있었고, 하나는 오씨네가 가지고 있었다.

유영오 님의 아버지는 집안사람이 운영하는 중선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업을 하였다. 당시 중선배에는 7명 정도가 타고 다녔고, 1월 달에 나갈 때, 쌀 1가마씩을 선 돈으로 내 주었다. 아버지는 쌀 1가마를 받아 가족에게 주고, 배 타고 나가면 5월이나 되어야 돌아왔는데, 돈은 벌어오지 못하고, 선원들에게 준 고기를 가져다가 팔아서 쓰는 정도였다. 배를

탔어도 큰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포구에서 쓰는 돈 때문에 늘 가난했던 것이다. 고기를 잡아 들르는 포구에는 술집과 여자들이 있어 거기에 많은 돈을 썼다.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다.

유영오 님은 17세에 안마군도에서 새우를 잡았다.

유영오 님은 아버지가 타던 중선배를 타고 17세에 처음으로 출항하였다. 전라도 알마도(안마군도) 근해에서 잡았는데, 바람이 불면 석만자라고 하는 포구에 들어와 피항하고, 날이 좋으면 근해에서 잡았다.

배는 3매날 7~8명을 싣고 출항하여 새우를 잡는데, 하루 종일 잡았다. 들물에도 잡고 그물을 반대로 설치하여 썰물에도 잡는 것이다. 하루에 4번 투망해서 새우를 잡는다. 배치기 노래에 나오는 안안팍 네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물썰물을 다 보는 것이다.

3매 날 출항한 배는 조업을 계속해서 11매 날까지 잡는다. 이후 조금에는 물살이 약해 새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잡은 새우는 깨끗이 손질하여, 젓을 담았다. 워낙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배의 간[8]에 그대로 담았고, 목포나 법성포에 들어와 드럼으로 옮겨 담아 팔았다. 새우젓을 배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은 선원들의 몫이었고, 통을 막대기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다. 한 사리에 20~30드럼을 잡았다.

1965년 유영오 님 1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뇌일혈로 쓰러졌는데, 무당을 불러 경을 읽다가 돌아가셨다.

1965년, 유영오 님이 17살 먹었을 때, 아버지는 62세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고령으로, 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유영오님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 보니, 고정리 조금나루에 사는 여자 무당을 불러 부엌에서 정[9]을 읽고 있었다. 당시에는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었고, 교통편도 없

8) 배에 나누어진 칸.
9) 경

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뇌일혈로 쓰러진 뒤, 3시간 만에 임종하였고, 무당도 돌아갔다.

유영오 님은 10살에 송학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6살에 졸업하였다.

송도는 주교면 송학리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목다리라고 하였는데, 밀물과 썰물의 중간, 즉 반물 정도만 되면 건너갈 수 있었으나, 매우 위험하였다. 그래서 송도 어린이들은 8살에 학교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형이 있어서 함께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몇 년씩 늦게 입학하였다. 유영오 님도 형이 없어 2년이나 늦게 입학하여 16살에 졸업하였다.

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닐 수가 없었다. 물이 들어오면 배를 타고 건넜는데, 바람이 불면 갈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바람이 불면 일찍 보내주었다.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에 가다가 놀고, 가지 않았다.

송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통학하는 배가 있었다.

송도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돛단배가 있었다. 송도와 고정리 사이만 운항했기 때문에 내항선이라고 불렀다. 배는 2척으로 윗섬 학생들은 고정리 고만으로, 아랫섬 학생들은 고정리 솥바리로 건너 주었다. 바닷물이 반물만 되면 목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배는 물이 들어왔을 때만 이용하였다.

배는 관리하는 주민이 따로 있었다. 그는 물이 들어올 때만 주민들과 학생들을 건너 주었고, 맞은쪽 고정리 해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문객을 실어 오기도 하였다. 물이 들어왔을 때만, 낮에 운행하여 온종일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관리하는 사람의 품삯으로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벼 1말씩을 거두어 주었다.

나중에는 정부에서 기계배를 마련해 주었는데, 송도 윗섬에서 고정리 고만까지 왕래하였다. 송도 윗섬과 아래 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였다.

목다리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다.

목다리는 위험하여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다. 유영오 님(1949)의 기억으로는 후배 여학생이 학교에 다녀오다 휩쓸려 죽었고, 송학초등학교 송도분교에 근무하던 선생님의 어머

니가 건너오다가 휩쓸려 죽기도 하였다. 물 들어올 때 건너기가 위험하였다.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고정리를 돌아 고만에 가서 배를 타야 되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송도에는 밭이 대부분이었고, 논도 있어 농사를 지었다.

송도에는 밭이 대부분이어서 밭농사를 지었다. 주로 보리를 심어 먹었고, 보리를 베어낸 뒤에 콩, 고구마와 잡곡을 심어 먹었다.

송도에는 논도 있었는데 아래 섬의 경우에는 부잣집 4집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3마지기짜리도 있었고, 4마지기짜리도 있었다. 대부분 비가 와야 모를 심는 소위 봉천지기였으나, 문 씨 집에서는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댔다. 윗섬에도 마을 앞 간척지에 논이 있었다.

송도에 살던 주민들은 풋보리 가루를 만들어 어르레 나물과 함께 죽을 쑤어 먹기도 하였다.

송도에 살던 주민들은 늘 가난하였다. 밭이 있기는 해도, 생산된 보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생산량이 아주 적었고, 비료가 나온 뒤에 식량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었다.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식량이 떨어지면 풋보리를 베어다가 먹었다. 아직 딱딱하게 여물지 않아 그대로는 먹을 수 없었고, 보리를 털어 솥에 삶아 낸 후, 말리면서 비비면 껍질이 벗겨졌다. 껍질이 벗겨진 보리를 완전히 말린 후, 맷돌에 갈아 죽을 쑤어 먹었다. 이것을 '풋보리를 잡아먹는다.'라고 하였다.

풋보리로 만든 가루는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어르레'[10]라고 하는 나물을 뜯어 함께 죽을 쑤어 먹었다.

바슴은 거름마당에서 하고, 방아는 오천으로 찧으러 다녔다.

송도에서도 다른 마을처럼 보리 바슴을 도리깨로 하였다. 마당에다 보리를 널어 도리깨로 두드려 털어 내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보리방아는 절구통에 찧어 먹다가, 이후

10) 송도에만 땅두릅처럼 나오는 나물. 면담자도 확인을 못함.

에는 발동기를 가지고 송도로 들어와 찧어주기도 하였다. 아래 섬의 경우에는 바슴을 거름마당에서 하였다.

그리고 벼를 찧는 것은 주로 오천에서 하였다. 거리상으로는 고정리나 송학리가 가깝지만, 오천이 편리하였다. 배에 싣고 오천으로 들어가면 방앗간에서 리어카로 운반 해다 방아를 찧어 주었다.

인천으로 올라가 동지나해에서 조업하는 큰 배를 탔다.

유영오 님은 19살 정도 되었을 때, 인천으로 올라가 큰 배를 타고 동지나해에 나가 조업하였다. 120톤 정도 되는 큰 배였고, 동지나해에서 조기나 갈치를 잡았다. 당시 동지나해에는 조기와 갈치가 많아 재수가 좋으면 한 그물에도 한 배 가득 잡았다.

잡은 고기는 주로 얼음을 채워 가지고 오거나, 소금에 절여 가지고 들어왔다. 갈치를 절일 때에는 내장을 빼내고 절여야 되었는데, 빼낸 내장은 소금에 버무려 갈치속젓을 담았다. 아주 맛이 있었고, 선원들이 나누어 먹거나 팔았다. 이것도 선주에게 절반을 주었다.

동지나해에서 조업한 배는 고기를 부산, 마산 등지에 팔았다. 선주가 생선 값이 좋은 포구를 지정하여 무전으로 연락하면 들어와 하역하였다.

1966년경 송도 중선배가 군산앞바다 개야도에서 침몰하였다.

유영오님이 알마도에서 새우를 잡을 때, 송도 아래 섬의 한 중선배가 군산 앞바다 개야도에서 침몰하여 2명이 구조되고 모두(5명) 사망하였다.

파도에 휩쓸려 침몰했는데, 당시 알마도에서도 큰 파도가 일어 유영오 님도 경험하였다. 그날 가을이었는데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다. 북쪽에서 갑자기 큰 용오름이 일어났고, 얼마 후에 물을 퍼붓는 것 같은 큰 비가 내렸다. 이후 바람과 함께 파도가 몰려왔는데, 유영오 님이 탄 배도 기관이 멈춰 가까스로 침몰을 면했다. 큰 파도를 타고 풀등을 넘는 바람에 무사했지 풀등에 걸렸으면 침몰할 뻔하였다. 이 바람으로 개야도에서 송도의 중선배가 침몰했던 것이다.

연평도에서는 구월이골에서 남방한계선을 넘나들며 조기를 잡았다.

유영오 님은 연평도에서도 조기를 잡았다. 연평도에 가려면 덕적도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올라갔다. 이때 덕적도에서 고기를 가져가는 상고선을 정하고, 돈을 받아쓰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상고선이 중선배를 끌어다 주기도 하였다.

연평도에 도착하면 부근 구월이골이라고 부르는 바다에 조기가 많았다. 구월이골 근처는 진줄[11]이라고 불리는 풀이 많이 있어, 조기가 알을 낳는다고 하였다. 구월이골은 남방한계선 근처에 있어, 밤에 경비선을 피해 남방한계선을 넘어가 조기를 잡아 왔다. 조기를 잡으면 덕적도에서 약속한 상고선이 와서 가져갔다.

중선배에는 직책에 따른 업무가 뚜렷하였고, 수입은 비율에 따라 나누었다.

중선배에는 보통 7명이나 8명의 선원이 탔다. 가장 높은 직책은 선장이었고, 다음은 기관장이었다. 선장은 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업에 나섰으며, 기관장은 기관에 관한 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선원 중에는 이물사공과 고물사공이 있다. 이물사공은 배의 앞부분을 책임지는 선원이고 고물사공은 배의 뒷부분을 책임지는 선원이다. 이물사공과 고물사공은 선장이 휴식할 때 키를 잡기도 하였다. 나머지는 일반 선원인데 그냥 '동사'라고 불렀다. 동사 중에서 나이 어린 신참은 화장이라고 하여 요리를 하였다. 요리만 전담한 것은 아니고, 일반 일을 도와주면서 식사를 도맡아 하였다. 그리고 제일 고령인 사람을 영자님이라고 대우해 주었다.

수입의 대부분은 선주의 몫이었다. 대개 수입의 70%를 선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선원들이 분배한다. 분배하는 방식은 선장과 기관장은 1.5, 이물사공과 고물사공은 1.1, 나머지 선원은 1.0의 비율로 나누어 분배한다.

선원들은 잘 먹고 일했다.

선원들은 일이 힘들었지만 최고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일했다. 배가 나갈 때는 많은 술을 싣고, 돼지를 잡아 소금물에 담가 가기도 하였고, 흑산도 같은 섬에 들어가 돼지를 잡아 싣

11) 진잘

기도 하였다. 술이나 고기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밥은 쌀을 바닷물로 씻어 받쳐 놓았다가 민물을 넣어 했는데, 순 쌀밥이었고 간간하여 맛이 좋았다. 반찬은 미리 준비해간 것과 잡은 생선을 먹었다. 선원들이 먹는 생선은 최고 좋은 생선이었다. 조기도 갈치도 크고 좋은 것을 선원들이 먹었다.

배에서 사용한 연료는 32공탄이었다. 옛날에는 나무를 땠지만, 유영오 님이 일할 때는 32공탄을 땠다.

관창초등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고정리 한여에서 방위로 근무하였다.

유영오 님은 방위병으로 근무하였다. 당시는 군사교육을 훈련소에서 받지 않고 관창초등학교에서, 예비군 중대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4주간 받은 후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주교면 고정리 사당굴에 있는 무기고에 배치되었으나, 마을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위해 고정리 한여에 있는, 현역 군인이 근무하는 18분초에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였고, 하루 근무하면 4시간씩 계산되었다. 송도에서 한여까지 육지로 다닐 수가 없어 배로 다녔다. 4명의 방위병이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육지로 나갈 때 이용하는 배로 노를 저어 다녔다. 이 배는 밤에는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이동하는 방위병들이 이용한 것이다.

썰물이 되어 송도까지 배가 들어오지 못하면, 한여에서 낙지를 잡아 가지고 왔고, 한여 해안에 배를 댈 수가 없으면 옷을 벗어 대야에 담아 밀고 들어가기도 하였다. 송도에서는 썰물이 되면 목다리를 건너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 배가 필요하지 않았다.

당시 방위병은 격일제로, 하룻밤 근무하면 다음날 저녁은 근무하지 않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였다. 생업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결혼하였다.

유영오 님은 방위병으로 근무할 때, 어머니의 중매로 결혼하였다. 당시 어머니는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큰 바위에 치성을 드렸는데, 이 바위가 유명하여 부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 부여에서 온 사람과 어머니가 합의하고 중매를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26세에 24세의 처녀와 결혼하였다.

제대하고 안강망 어업을 하였다.

유영오 님은 방위를 3년 만에 제대하고, 군산에서 안강망 어선을 구입하여 본격적인 어업을 하였다. 당시 안강망 어선은 질대라고 하는 긴 막대를 옆에 차고 다니는 배였고, 그물 4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업하였다. 대천 남해선구에서 그물을 마련해 주었는데, 3000여 만 원의 자본이 들었다.

조업장소는 용섬 근처였고, 3개의 그물을 넣었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고기가 들어 실패하였다. 멸치, 까나리, 빈댕이 같은 고기가 드는데, 이런 고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다. 삶아서 말려 팔기도 했지만, 제때 처리를 못하여 제값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1개의 그물만 묶어놓고 잡았는데 그것도 다 처리하지 못했다.

크고 좋은 고기는 팔 수 있었으나, 고기를 골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멸치를 가져와 송도 포구에서 삶아 말려 팔기도 하였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바닷물에 담가놓았고, 비린내를 맡은 숭어 떼가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다. 숭어의 지느러미가 물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으며, 훌치기낚시로 훌치면 큰 숭어가 걸려 올라왔다. 물반 고기반이었다.

이어서 자망배로 외연도 근해에서 꽃게와 강개미를 잡았다.

안강망 사업을 실패한 후, 좀 작은 배를 구입하여 자망으로 고기를 잡았다. 주로 외연도 근해에서 꽃게와 강개미를 잡았다. 자망은 조금 때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어법인데, 아침에 그물을 넣고 다음날 걷어 올렸다. 당시 한 조금에 100여 만 원을 벌어, 이전 안강망에서 손해본 것 이상으로 돈을 벌었다.

당시 5명 정도가 한 배에서 일했는데,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남의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망배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통발배를 부인과 같이 운영하였다.

자망 사업을 접은 후, 더 작은 배를 구입하여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통발을 놓았다. 통발을 놓은 곳은, 송도 근해로 천수만 안쪽이었다. 통발의 미끼는 정어리였다. 처음에는 대

천 동부상회에서 사왔고 나중에는 송도에도 파는 집이 있었다. 통발은 아침에 넣고 다음 날 아침에 꺼냈는데, 통발에 든 고기는 우럭, 놀래미, 바카지, 아나고 등이었고, 아주 많이 잡았다. 나중에는 대형 통발이 나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잡은 고기는 대천에 가져다가 팔았다. 당시 고정리까지 버스가 들어왔기에, 고정리까지 배로 운반해 주면 버스로 대천 장에 가서 팔았다. 부인이 팔았는데 힘든 일이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송도는 크게 발전하였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송도까지 제방이 만들어졌고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송도의 어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통발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에 200kg을 잡기도 하였다. 주로 우럭, 놀래미, 아나고, 바카지였다. 잡은 고기는 장사꾼들이 송도로 들어와 사갔다. 이제 잡기만 하면 판로는 걱정 없었다. 이때부터 송도에는 아나고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생겨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한전에서 어업보상을 받았다.

유영오 님은 한국전력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송도 안쪽 바다를 회 처리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발 10m까지 보상을 해 주었다. 송도 마을은 모두 회 처리장으로 수용되었고, 배와 어업권 모두 보상을 받았다. 이때 송도의 대부분 주민들은 외지로 이주하였고, 주교면 주교리로 집단 이주하기도 하였다.

16가구는 송도에 그대로 남아 어업을 하였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수용한 토지는 해발 10m까지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10m 이상 되는 곳에 주택을 마련하고 어업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송도 윗섬 입구에 대지를 마련하여 8만 원씩 분양하였다. 모두 16가구였다.

유영오 님도 한 가구를 분양받아 송도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거주지는 윗섬의 입구였지만, 배는 옛 포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배도 보상받은 배를 새로 사서 이용하였다.

신 보령화력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송도에 신보령화력이 들어서게 되면서, 송도 전 지역이 수용되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주민들도 모두 이주하였다. 17세부터 일생 동안 어업에 종사하였던 유영오 님도 대천 시내로 이주하여 어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송도 갯벌에는 바지락, 굴, 낙지, 박하지 등이 많았다.

송도 갯벌에는 바지락과 굴, 낙지, 박하지 등이 특히 많았다. 윗섬은 모래로 된 갯벌이 넓어 바지락이 많았고, 아래 섬에는 자갈로 된 갯벌이 많아 굴과 바카지[12]가 많았다. 양쪽 섬 모두에는 낙지도 많아 하루에 70~80마리를 잡기도 하였다. 모든 주민들이 이주한 현재도 송도에 다니면서 낙지를 잡는 옛 주민들이 있다. 낙지를 잡을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였다.

갯벌에서 이런 해산물을 잡으면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파는 데 문제가 없었다.

김 양식은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하였다.

송도의 김 양식은 유영오 님 아버지 세대부터 하였다. 유영오 님 댁에서도 30떼 정도를 맸는데, 힘든 일이었다. 유영오 님은 김발에 주력하지 않고, 어업에 주력하였다.

송도 어촌계는 송학리, 은포리와 함께 하였다.

송도 어촌계는 송학리, 은포리와 함께 하였다. 그래서 송학리 은포리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어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송도 근해에서, 송학리 산고래나 은포리 주민들은 송학리 산고래 앞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송도 아랫섬 주민들은 김 양식을 윗섬인 목다리 근처나, 학교 근처에서 하였다.

송도에서 사용한 물 때

12) 민꽃게

송도 주민들도 다른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15일 주기의 물때를 사용하였다. 송도에서 사용한 물때는 한매, 두매, 스매, 느매, 다섯매, 여섯매, 일곱매, 여덟매, 아홉매, 열매, 한조금, 아침조금, 한객기, 대객기, 무시였다. 그리고 한매, 두매로 다시 시작하였다.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된 주민이 있다.

6.25 이후 연평도 근해에 조업하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이 한 사람 있다. 이향우 님이 운영하던 중선배를 타고 갔는데, 중선배 자체가 실종되면서 송도 주민 한 사람도 실종되었다.

송도 어린이들은 자무질을 하고 놀았다.

송도 어린이들은 자무질을 하고 놀았다. 흰 돌을 바다에 던지고 찾아오기, 배 밑으로 들어가 반대쪽으로 나오기 등은 송도 어린이들이 자무질을 하며 노는 놀이였다. 송도 어린이들은 자연히 수영을 잘했다.

유영오 님은 공치기하는 것을 보았고, 공치기 작대기를 만드는 것도 보았다.

유영오 님은 어렸을 때 공치기 하는 것을 보았다. 당산 근처 공판에서 청년들이 놀았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을 치고, 공이 굴러 내리면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 어렸을 때라 규칙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공치기 작대기를 만드는 것도 보았다. 쪽나무를 뿌리까지 캐내어 자귀로 다듬어 만들었다. 구부러지고 납작하게 깎아 만들었다.

유영오 님은 민요를 스스로 익혀 불렀다.

유영오 님은 어렸을 때부터 민요를 좋아하였다.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기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요 책을 구해 혼자 불렀고, 일하면서도 불렀다. 배에서 일하면서 부르면 동사들이 모두 좋아하였고, 흑산도 같은 곳에서, 배에 설치된 마이크에 대고 부르면 주변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모두 나와 듣기도 하였다.

유영오 님은 송도의 요령잡이였다.

송도에서는 상여가 나갈 때, 요령을 흔들고 상부소리를 하였다. 옛날에는 유정석씨가 맡아서 했는데, 사망한 다음에는 유영오 님이 이어받았다. 20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상여가 없어질 때까지 하였다. 송도의 상여꾼들은 유영오 님의 지휘에 따라 외나무다리도 잘 건너다니고 모심은 논둑길도 잘 건너다녔다.

요령잡이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해 주었고, 사위를 달아 생기는 돈을 떼어 주기도 하였다.

송도에는 위친계가 있었다.

송도에 사는 주민들은 또래에 맞추어 위친계를 하였다. 유영오 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 11명이 모여 위친계를 조직하고 상을 당하면 쌀 3가마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경로잔치를 두 번이나 해 주기도 하였다. 현재는 모두 없어진 계이다.

현재 젊은 사람들은 송도에 살던 사람끼리 계를 만들어 1년에 2번씩, 섣달그믐날과 팔월 열나흗 날 만나기도 한다.

송도에는 사혼이 있었다.

송도에서는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사혼이 있었다. 송도의 죽은 총각하고, 고정리의 죽은 처녀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 유영오 님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

송도에서는 집집마다 안택을 하였다.

옛날 송도에서는 정월에 집집마다 안택을 했다. 무당이 들어와 집집마다 돌아가며 안택을 했는데, 그때, 떡을 해서 마루나, 굴뚝, 장독대 등에 놓으면 마을의 아이들이 훔쳐 먹기도 하였다. 송도에서는 정월에 안택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송도 아래 섬에서는 섣달그믐날 당제를 지냈다.

송도에서는 윗섬과 아래 섬이 당제를 따로 지냈다. 아래 섬에서는 섣달그믐이 가까워지면, 걸립을 하거나 거출하여 당제 비용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당산에 올라와 길을 깎고 정리한다. 당산에는 함석으로 당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

는 정도였다. 솥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방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함석으로 바람막이를 할 정도였다.

당집에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당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서 누룩과 섞어 술을 빚어 놓았다. 단술이라고 하였다. 솥을 걸어 놓는 등 제 준비를 하고 마치고 내려온다. 이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당샘도 품고 깨끗이 청소한 후, 떼우적으로 덮어 놓는다. 주민들은 당제 기간에 다른 샘물을 사용하였다.

이후 당주는 시장에 가서 삼색과일, 미역 등 제물을 사온다. 젯날은 섣달 그믐날이었다. 원당주와 발당주는 목욕을 하고 당산에 올라가 밥을 하고 북어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제를 올렸다. 밥은 노구솥이라고 하는 놋쇠로 된 솥에 하였다. 이때 중선배의 선원 중에서 젊은 사람이 뱃기를 가지고 올라오면, 당주가 깃대의 꼭대기에 소나무 가지를 묶어 주고, 소나무에 기대 세웠다.

제가 끝나면 뱃기를 든 선원들이 일제히 뛰어 내려가 배에서 뱃고사를 지내는데, 북을 쳐 제 지냄을 알렸다. 이 북소리가 제일 먼저 나는 배가 그해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다고 생각하였다.

거름마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용왕제와 거리제를 지냈고, 음식을 먹고 풍물을 치며 놀기도 하였다.

당제를 마친 당주 일행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거름마당으로 내려와 밥과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었다. 거름마당은 마을에서 바슴도 하는 큰 마당으로 솥이 걸려 있었고, 바람막이가 쳐져 있었다. 거리제 음식도 거리마당에서 만들었고, 제를 올린 음식은 거름마당에서 주민들이 나누어 먹었다. 주민들이 모두 나와 풍물도 쳤다.

거름마당은 뻘흙을 파다가 맥질하면서 관리하였다.

바다에(즉은쩌쩌물) 나가 금줄을 치고 용왕제를 지냈다.

거름마당에서 금줄을 만들어 바닷가인 즉은쩌쩌물 입구에 치고, 금줄을 통과하여 들어가 용왕제를 지냈다. 용왕제는 밥, 국, 그리고 김이었다. 제를 올리고 당주가 김에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지면서 축원을 하였다. 모두 3덩이를 집어던졌다. 이때 풍물패들도 풍물을 치

면서 허리 굽혀 절을 하였다.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샘제를 지냈다.

이어서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풍물패와 함께 샘제를 지냈다. 샘제를 지낼 때는 풍물패가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을 뚫어라"라고 하면서 풍물을 쳤다. 이어서 제에 사용한 음식을 섞어 사방에 뿌리고 거리제를 지내러 갔다.

송도 아랫섬 입구에서 거리제를 마지막으로 지냈다.

이어서 윗섬에서 아래 섬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금줄을 걸은 막대기를 세우고, 거리제를 지냈다. 거리제 음식은 밥, 국, 삼색 과일이었다. 제를 마친 뒤에는 큰 바가지에 음식을 섞어 사방에 뿌렸다. 서낭제는 마을에서 지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냈다.

거름마당에서 제를 마무리하였다.

모든 제를 마친 다음에 거름마당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면서 놀았다. 밤이 깊어지면 마당을 정리하고 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대개는 밤 12시쯤 되었다. 다음 날에는 각 가정에서 정초 행사가 있었다.

당제 기간에 출산하는 부인들은 외지로 내보냈다.

당제 기간에 출산이 예정된 부인들은 외지로 나갔다. 유영오님의 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만 아이를 출산해서(1954년) 그해 당제를 지내지 못했다. 그 해에, 유영오님의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거나 바람이 불면 쌀을 떠 놓고 마을에 아무 일 없기를 빌었다. 다행히 마을에 아무 일도 없었고, 다음 총회에서 무릎을 치면서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송도 아래 섬에서는 용구멍 위에서 돼지머리를 잘라 기우제를 지냈다.

송도 아랫섬의 마여 맞은쪽에는 용구멍이 2개 있다. 큰용구멍과 작은용구멍이라고 불렀는데, 용구멍 속에 돌을 던지면 멀리 나가떨어지면서 '첨벙' 소리가 났다. 속에 물이 있다

는 것이다. 송도 주민들은 이 용구멍이 송도 동쪽 목다리 안쪽에 있는 깊은 바다인 용둠벙(목다리둠벙)과 통하고, 속에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송도 아래 섬에서는 큰용구멍 위에 산 돼지를 가지고 올라가 목을 잘라 피를 내어 아래로 흘리고, 머리를 굴려 떨어뜨렸다. 하느님이 가장 신성시하는 용구멍에 가장 부정한 피를 뿌렸으니 비를 뿌려 닦아 내라는 의미였다.

유영오 님이 6~7세 되었을 때 실제로 보았다고 하므로 1950년대 중반까지 돼지 목을 잘라 기우제를 지냈다.

배에 걸린 송장에 쌀을 뿌렸더니 스스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영오 님이 들은 이야기이다. 조카뻘 되는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하루는 밥을 짓기 위해 배 뒤에 가서 두레박을 내렸는데, 물이 떠지지 않았다. 이상해서 내려다보니 배 구멍에 송장이 끼어있었다. 깜짝 놀라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한 어른이 쌀을 뿌려주면서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니 다른 데로 가라"고 주문을 외자 바로 없어졌다는 이야기이다.

금강에 떠내려 온 송장을 실어다 잘 묻어 주었더니, 조기를 아주 비싸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투망배가 조기를 가득 잡아 가지고 군산으로 팔러 들어갔는데, 값이 너무 싸서 팔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경으로 가기 위해 바닷물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 금강에 떠다니는 여자 시신을 발견했는데, 선장이 건져 배에 싣도록 하였다. 이후 강경에 도착해서 조기를 팔려고 했더니 모두 새카맣게 썩어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군산으로 내려오다가 여자 시신을 강변 산에 묻어주고 내려왔다.

군산에 도착해 보니, 강경에서 새카맣게 썩었던 조기가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었고 조기 값도 폭등해 있었다. 조기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 여자 시신을 잘 묻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강경에 올라가다가 풀등에 걸리면, 썰물에 배가 뜬다는 이야기가 있다.

강경에 올라가려면 밀물을 따라 올라갔다. 이때 강 속 곳곳에 있는 모래톱인 풀등에 걸

리면 배가 꼼짝도 못 하였다. 물이 더 많이 들어와도 물에 뜨지 않았다. 풀등의 모래가 계속 이동하면서 배가 걸치기 때문이다. 결국 썰물이 되어 물 흐름 방향이 바뀌어야 물에 뜬다는 것이다.

마여는 돌밭으로 되어있고, 바카지, 살조개, 우뭇가사리, 청각, 고둥 등이 많다.

송도 서남쪽에는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 마여가 있다. 목이 깊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 돌밭으로 되어있어, 바카지, 살조개, 우뭇가사리, 청각, 고둥 등의 해산물이 많다. 남쪽으로 연이은 바위가 나타나, 큰 사리 때에는 성인 남자들이 건너갈 수 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바위를 '우무녀'라고 부른다. 우뭇가사리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우뭇가사리뿐만 아니라 홍합도 많다. 주민들은 배 타고 마여에 가는 것을 여파루간다고 한다.

송도 주민들은 옛날에 납작섬 북쪽에 있는 서들기에 여파루 갔다가 바람을 만나 남당항까지 떠내려갔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무녀 아래에 주벅을 맸고, 마여와 송도 사이에도 주벅을 했다.

마여 서남쪽, 우무녀 아래에 주벅을 맸다. 처음에는 월도 주민들이 맸고 나중에는 송도 주민들이 맸다. 이곳에는 30여 년 전까지 주벅을 맸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다.

마여와 송도 사이에도 주벅을 맸는데, 송도와 대천어항을 다니는 뱃길이라 없앴다. 이 주벅은 송도 서남쪽에 있는 바위를 이용하여 맸다. 당시 와이어가 지금도 남아있다.

삽시도 불멈은 정박하는 곳이었다.

유영오님이 자망배를 운영할 때, 용섬 근처에서 강개미를 많이 잡았다. 자망을 놓고, 송도까지 들어오기는 너무 먼 거리여서, 불멈과 삽시도 사이의 바다에 정박하고 다음날 그물을 거두러 나갔다. 삽시도와 불멈 사이 바다는 사방으로 막혀있어,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하였다.

컴퍼스를 가지고 항해하였고, 산가늠을 하여 그물을 놓았다.

유영오님이 배를 운영할 때는, 주로 컴퍼스를 가지고 방향을 알았다. 특히 안개 낀 날은 컴퍼스를 가지고 운항하였다. 그물을 놓을 때는 산가늠을 하여 놓았다. 산가늠은 섬과 섬이 겹쳐지는 모양을 보고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송도에서는 뚝제도 지냈다.

송도 아래 섬의 뚝제는 마을에서 지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냈다. 간척지 제방이 있었고, 제방 관리와 수멍관리는 가장 아랫논을 짓는 사람이 했다. 뚝제도 아랫논을 짓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냈다. 제는 정월 열나흗날에 지냈다.

송도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었고, 방위병들이 함께 근무하였다.

송도 근처에는 몇 곳에 군부대가 있었다. 송학리 현장마을에 16분초가 있었고, 송학리 안산, 즉 송도로 들어오는 목다리 입구에 17분초, 주교면 고정리와 오천면 오포리 사이인, 한여 마을에 18분초가 있었다. 이들 초소에는 방위병이 배치되어 현역병과 함께 근무를 섰다.

송도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들어온 뒤에는 송학리 안산에 있던 부대는 없어지고, 송도에 부대가 들어섰다.

새마을운동 당시 송도 이장은 황선학 씨였고, 새마을지도자는 김경옥 씨였다.

새마을운동 당시 송도 이장은 황선학 씨였고, 새마을지도자는 김경옥 씨였다. 송도에서도 여느 마을처럼 마을길을 넓히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마을회관은 윗섬에 있었고, 윗섬에 물양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송도에 교회도 있었다.

송도에도 교회가 있었다. 송도분교 근처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오천면 오포리 짚은골로 옮겼다.

정월보름날 송도 주민들이 모두 나와 목다리를 고쳤다.

목다리는 송도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예부터 정월 보름날에는 전 주민이 목다리에 나와 다리를 손보았다. 이날은 물이 많이 나가는 사리이기 때문에 일하기 좋았다. 파도에 날아간 돌을 주워 제자리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돌은 밑에 작은 돌을 고여 놓아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

같은 고기라도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송도에서는 같은 고기라도 크기에 따라 달리 부르는 생선이 있다. 가장 작은 숭어는 '모쟁이' 다음은 '몰치'라고 불렀고, 농어의 새끼를 '깔때기', 감성돔의 새끼를 '비되미'라고 불렀다.

송도 화장실은 대개 비가림이 없었고, 독이 3개 정도 묻혀있었다.

송도의 화장실은 대개 독을 묻은 화장실이다. 별도의 건물은 없었고, 후미진 곳에 수수깡 등으로 울타리를 친 정도이다. 항아리는 여러 개를 묻어, 똥을 옮겨 담아 바닷물과 섞었다. 일정시간이 지나고 썩으면, 뒤적거려 풀어지게 해서 밭에 거름으로 내었다.

송도분교는 주민들이 만들었고, 운동회 날은 섬 주민 모두가 잔치하였다.

송도분교는 송도 주민들이 만들었다. 주민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나와 터를 닦아 만들었다. 학생들이 최고 많은 때는 70~80명 되었고, 운동회도 본교와 따로 하였다. 운동회 날은 송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잔치를 하였다.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명절 때는 조상 상과 함께 성주 상, 기제사 때는 조상 상과 함께 손님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다.

유영오 님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제를 올리고 있다. 명절 때에는 조상 상과 함께 성주 상을, 기제사 때에는 조상 상과 함께 손님상을 놓는다. 성주 상은 방 안에 차리고, 손님상은 마루에 차리는데, 숟가락을 하나만 놓으며 과일과 나물, 밥, 국 등을 놓는다. 과일은 하나씩 한 그릇에 간단하게 놓는다.

송도 군부대에서 판 지하수를 모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염도가 높아져 사용하지 못했다.

송도에 군부대가 들어온 직후에는 마을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이것이 불편하자 군부대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수질도 좋고, 수량이 풍부하였다. 군부대는 물론 전 주민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만들고, 송도 전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에 대한 이주 문제가 대두되자, 보상금을 노리고 주민들이 급증하여 물이 딸리게 되었고, 점차 염도가 높아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하였다.

보상 때문에 인구도 급증하고, 배도 많이 늘어났다.

보령화력에서 송도 안쪽 바다에 탄재처리장을 만들면서, 해발 10m까지 보상하고,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상금 때문에 송도의 가구가 급증하였다. 평소 약 30가구였는데, 130여 가구가 되었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퇴거해서 들어왔다.

배들도 많이 늘어났다. 외지에서 못 쓰는 배들을 사다가 등록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것이었는데, 출항일지, 어획물 판매기록 등이 있어야 되어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

윗동도와 아래송도의 구분은 염전과 학교였다.

송도는 예부터 윗송도와 아래송도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서로 따로 생활하였고, 당제도 따로 지냈다. 그러나 목다리를 통하여 육지와 소통하였기 때문에 아래 섬과 윗섬을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특히 아래 섬 주민들은 윗섬을 통하여 왕래하였다.

아랫섬 주민들은 학교의 북쪽에 쪽다리를 놓아 걸어 다녔고, 염전 제방자리에는 징검다리를 놓아 걸어 다녔다. 징검다리는 썰물 때만 건널 수 있었다.

염전이 만들어진 후에도 윗섬과 아래 섬은 구분되었다. 제방과 학교를 연결하는 선이 구분선이었고, 학교는 아래 섬에 속했다.

송도의 염전은 1960년 경 막았다.

송도의 염전은 1960년경, 은포리에 사는 강 씨가 막았다. 당시 장비가 없어 순전히 지게

로 막았는데, 제방의 동쪽 산에서 흙을 파 막았다. 염전의 저수지는 남쪽에 있다. 만조 때 남쪽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저장했다가 염전에 공급하였다.

염전에서 일한 사람은 대부분 송도 사람들이었고, 염전의 곳곳에 '새지'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농도가 높아진 소금물을 저장하였다가 날이 좋으면 품어 올려 소금을 만들었다. 비가 오려고 하면,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지에 소금물을 저장하느라 바빴다.

솥바리는 한여 주민들이 이사와 한여라고 불렸다.

송도 아래 섬 북쪽은 원래 솥바리였다. 솥바리는 주교면 고정리 마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았었고, 송도 아래 섬 주민들이 들물 때 배를 타고 건너다니던 곳이었다.

그러나 고정리 한여 마을에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뒤, 주민들이 솥바리로 집단 이주하여 마을이 생겼고, 주민들은 새로 생긴 마을을 한여라고 불렀다. 자기들이 살던 마을 이름을 붙인 것이다.

송도와 고정리 솥바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한전에서 만들어 주었다.

보령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송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송도 안쪽 바다를 회처리장으로 만들기 위해 주교면 고정리 조금나루에서 송도까지 제방과 함께 찻길을 만들었고, 송도 아래 섬과 고정리 솥바리 남쪽 끝을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하였다. 이 제방은 가운데를 다리로 만들어 배가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배들을 마을 앞에 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제방 밖에 방파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송도 윗섬 마을은 산 밑에 만들어졌다.

송도 윗섬마을은 해안 산 밑에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져 반원형을 이루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 집을 지었고, 집 앞 갯벌을 간척하며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다. 아랫섬보다 농토는 적었지만, 목다리를 통하여 육지로 나다니기도 좋았고, 물이 들어와도 고정리 고만 아래쪽뿌리로 통행하기도 좋았다.

송도 아래 섬은 퇴적된 갯벌에 마을이 들어섰다.

송도 아래 섬은 비교적 큰 만입지가 만들어졌고, 만입지는 갯벌로 퇴적되었으며, 만입지의 입구는 마치 풀등과 같이 높은 퇴적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높은 퇴적지에 가옥이 들어서 마을이 되었다. 따라서 큰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 솥단지가 떠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 남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퇴적지형이라 논으로 일찍부터 개간되었다. 그래서 논은 윗섬보다 아랫섬이 많았다.

송도 아래 섬에는 모감주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었다.

송도 아래 섬에는 큰 나무로 모감주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었다. 이중 모감주나무는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나무였다. 줄기가 울퉁불퉁하였고 파랗고 검은 열매가 열렸다. 아주 오래된 나무였고, 농사에 피해가 있었지만 베지 않았다.

기우제 지내는 곳은 가까스로 건너다녔다.

송도 아랫섬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낸 용구멍의 위쪽은 좁은 길을 지나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었다. 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목이 잘리면 섬이 될 뻔한 지형이었다. 이곳을 통과해서 좀 넓은 곳에 이르러 돼지 목을 잘랐던 것이다.

송도 아래 섬 당산은 울창하고 묘가 없었으나, 윗섬 당산은 당집 부근에만 소나무가 있었고, 묘도 많았다.

송도 아래 섬의 당산은 소나무가 울창하였고, 묘도 없었다. 반면 윗섬의 당산은 1980년대까지 헐벗은 산이었고, 당집 근처에만 소나무가 있었다. 묘도 많았다. 아래 섬이 넓고 산이 많았고, 윗섬은 좁고 산이 적었기 때문이다.

송도 윗섬에서는 물탱크를 만들었고, 아래 섬에서는 옹달이를 만들었다.

송도 주민들은 썰물 때도 바닷물을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만들었다. 윗섬 주민들은 큰 물탱크를 만들어 들물 때 들어온 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아래 섬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갯벌에 작은 샘을 파, 들물 때 들어온 물을 썰물 때 사용하였다. 이 작은 샘을 '옹달이'

라고 하였는데, 물을 다 써도 바로 고여 또 사용할 수 있었다.

상송도는 팽나무 아래가 거름마당이었고,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상송도는 마을 서쪽, 큰 팽나무 밑이 거름마당으로 마을 행사를 하였다. 팽나무는 보호수였으며, 마을에서 제도 지냈다. 팽나무에서 당산으로 오르는 언덕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송도와 마동사이에 있는 풀등에서 많은 바지락을 잡았다.

송도마을과 고정리 마동, 고만마을 사이에는 높은 갯벌이 있었다. 이것을 풀등이라고 불렀다. 해산물의 보고였다. 바지락이 많아, 송도, 마동, 고만, 한여 주민들이 바지락을 잡았으며, 낙지도 잡았다.

□ 지명

○ 배암술: 주교면 고정리 솥바리 서남쪽 돌출부, 소나무가 많았다. 송도 주민들이 조금 때 배를 대기도 하였다.

○ 술등: 주교면 고정리 솥바리 배암술 북쪽, 모래 언덕이다.

○ 할매바위: 주교면 고정리 솥바리 서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구멍이 뚫려있다. 서쪽에 할아배바위가 있어, 할매바위가 아이를 업고 도망가면 할매바위가 쫓아오는 형국이라고 한다.

○ 할아배바위: 주교면 고정리 솥바리 서남쪽 해안, 할매바위 서쪽에 있는 바위.

○ 작은쩌쩌물: 용왕제 지내던 곳.

○ 진장벌: 부대 밑 해안.

○ 상쾡이바위: 송도 진장벌에 있는 바위이다. 뾰쪽하여 마여보다도 높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꼭대기에 오리가 알을 낳기도 하였는데, 송도 사람들이 꺼내먹기도 하였다.

○ 마여: 송도 서남쪽에 있는, 물에 잠기지 않는 여이다. 모두 바위로 되어있고, 썰물이 되면 주변이 노출되어 송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어로활동을 하였다. 서식하는

해산물이 많았으나 1960~1980년대까지는 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주민들은 마여는 남자의 성기와 같고, 효자도 사이에 있는 멍덱이는 여자의 성기와 같다고 하였으며, 이승만대통령의 얼굴과 같다고도 하였다.

○ 샘장벌: 송도 중앙의 남쪽 해안이다. 염전을 만들기 전, 작은 간척지 제방 밑에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라 인 균 (1937년생)
보령시 웅천읍 관당2리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의 주민생활



출생과 성장

라인군 님은 나주 라 씨로 4남2녀 중 장남으로 1937년 태어났다.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의 나주 라 씨는 라인균 님의 7대조가 서천군 비인면에 살다가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7대조의 묘를 무창포에 모시고 있다. 나주 라 씨는 관당리 무창포와 각굴마을에 20여 호까지 거주하였다. 무창포에서는 경주 김 씨에 이어 많이 사는 성씨이다.

라인균 님은 웅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몇 년 동안 한문을 배우다가, 사업을 하였다. 장사도하고 택시 운전도 하였으며, 어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군에 입대하기 전 22세에 이웃마을의 처녀와 결혼하여 5남 2녀를 두었다.

무창포는 많은 성씨가 모여 살았다.

무창포 마을은 모산 지대라고 하여 많은 성씨들이 모여 살았다. 제일 먼저 들어온 성씨는 경주 김 씨들로 마을에 묘지를 만들어 모시고 있는데 오래 되었다. 다음은 의령 남씨와 나주 라 씨들이다. 의령 남씨와 나주 라씨는 비슷한 규모이다. 그 외로도 많은 성씨들이 모여 살았다.

일제강점기, 봄이 되면 무창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봄이 되면 전국에서 배들이 모여들었고, 10여 곳이 넘는 술집이 활성화되었다. 많은 기생들도 들어와 성황을 이루었다. 자연스럽게 난장이 생겨 전국에서 씨름꾼들이 모여들어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씨름을 하였다. 천안의 조병태라는 사람이 유명하였다.

노름도 성행했는데, 참외껍데기라고 불리는 화투를 가지고 놀음을 하였고, 경찰들이 단속하였다.

라인균 님은 6㎞ 떨어진 웅천초등학교에 다녔다.

라인균 님은 6km 떨어진 웅천초등학교를 걸어 다녔다.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당시 아버지가 만들어준 소리[13]를 신고 다녔는데, 학교에 다녀오면 떨어져 버렸다. 한번은 신을 잃어버려 맨발로 걸어왔는데, 겨울철이라 4촌 형이 업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라인균 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문을 배웠다.

라인균(1937)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한문을 배웠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축·지방을 잘 쓰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데, 대학을 나와도 축·지방을 못 쓰니, 한문을 배우라고 해서 배운 것이다.

선생님은 서천군 비인에서 온 한 선생이라는 분이었다. 10여 명이 배웠고, 선생님에 대한 급여는 당시 상머슴[14]의 1년 새경에 해당하는 쌀 7가마였다. 선생님의 숙식과 배우는 장소는 1달씩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당시는 6.25사변 중이라 방이나 굴에 이불을 쳐 불빛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부하였다.

한 선생님은 각자 능력에 따라 공부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은 천자문부터 배우고, 어떤 사람은 계몽편부터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진도도 제각각이었다. 라인균 님은 통감을 읽다가 그만두었다.

무창포는 위뜸과 아래뜸이 서로 다른 마을이었다.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는 위뜸과 아래뜸이 있는데, 서로 문화가 다른 마을이었다. 위뜸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앞장벌에 나가 굴을 따거나 바지락을 잡는 정도인데 반하여, 아래뜸은 어업을 주로 하였다. 외지에서 들어온 뱃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술집도 10여 곳이 되었다. 시내의 유흥가 같은 곳이었다. 밤이 되면 카바이드를 이용하여 간드레불[15]을 켜고 살았다.

무창포 창뜸은 창고가 있던 곳이다.

무창포에 창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집이 5가구 정도 있었는데, 토박이들만 아는 이름이고,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다. 이곳에 옛날 창고가 있었고, 덤불에 기왓장도 나왔다.[16]

---

13) 짚으로 만든 신발

14) 소를 부리는 등 일을 잘 하는 머슴

15) 카바이트로 켜는 불. 주로 광산에서 사용하였다.

16) 이곳이 해창이 있던 곳인데, 면담자가 기왓장을 찾아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옛날 창고가 기와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창포도 창고창자를 써야 하는데, 창성할 창자로 하였다.

6.25당시 무창포에는 인민군 중대가 주둔하였다.

6.25당시 라인균 님은 14살이었다. 인민군들이 들어와 경비하였는데, 벼락재 구도로 북쪽 솔밭에 인민군들의 중대본부가 있었고, 예하 부대가 해안에 배치되어 있었다. 벼락재 경주김씨 묘지 위에는 포를 설치하려고 구덩이도 팠는데, 포를 설치하지는 못 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호를 팠다. 라인균 님도 아버지 대신 호작업을 하였다.

6.25당시 무창포에서 미군 포로를 보았다.

라인균 님은 6.25당시 무창포에서 미군포로를 보았다. 당시 석대섬 밖 먼 바다에 군함이 줄줄이 이어져 북상하고 있었다. 북상하는 모습이 육안으로도 보이고 소리도 났다. 어느 날 저녁,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다음날 석대섬에서 미군을 데려왔다. 저녁에 미군 보트가 몇 대 들어왔다가 인민군들의 사격을 받아 1명이 죽고, 1명이 석대섬에 은신하다가 포로가 된 것이었다. 죽은 미군은 현재 비체팰리스 근처 장벌에 묻었는데, 나중에 미군들이 수습해 갔고, 생존한 미군은 보트와 함께 무창포 아래뜸 술집으로 데리고 왔다. 석대목을 통하여 걸어서 왔다. 당시 보트를 대놓은 곳은 현재 제1주차장, 초원 슈퍼 앞이었다.

인민군들은 미군을 방에 감금하고, 마루에서는 미군의 기관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어떤 인민군은 자기가 미군을 쏘아 죽인다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때 포로 된 미군은 한국말로 “죽이질랑 허지마”라고 애원하였다. 이때 말한 “죽이질랑 허지마”라는 말은 무창포 아이들의 유행어가 되었다. 당시 무창포에 있던 인민군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다.

포로로 잡힌 미군들은 수심을 재러 왔다고 하였고, 이후 각굴을 통하여 남포에 있는 상급부대로 이송되었다. 당시 남포면 양기리 턱굴 마을에 인민군들의 상급부대가 있었다.[17]

무창포에서는 자염도 만들었다.

17) 면담자가 미군포로의 이송을 추적해 보았다. 양기리 현재의 월전초등학교 근처에서 끌려가는 미군을 보았다는 증언을 들었으나, 이후의 행적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무창포 현재의 제1주차장 자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입지이고, 뻘로 되어 있었다. 바닷물은 당산 뒤쪽으로 열려 드나들었다. 옛날 이곳에는 갈통을 묻고, 갯뻘을 말려, 갈통 위에 덮은 후, 바닷물이 들어오면 스며들어가,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만들어졌고, 이 물을 큰 솥에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소위 자염을 만든 것이다. 이곳은 만입지의 입구를 막아 바닷물이 출입할 수 없게도 만들 수 있어, 쉽게 농도 높은 염수를 만들 수 있었다.

자염을 만들던 곳에 논을 만들었다.

갈통을 묻었던 제1주차장 자리에 서천군 기산에서 주꾸미 장사하러 이사 온 김윤곤 씨가 간척 하였다. 초원 슈퍼 앞에서 흘러드는 물을 빼내는 수로를 만들고, 안쪽은 간척지로 만들어 벼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염도가 높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땅은 개인이 차지하자 못 하고, 철도국 땅이 되었다가 주차장이 되었다.

석대섬은 마른가리 3마지기 값에 팔렸다.

석대섬은 김재남 씨 아버지 소유였다. 6.25 무렵, 김재남 씨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돼지를 사 가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 사망하였고, 이에 실망한 가족들이 석대섬을 소황리 최 씨에게 싸게 팔았다. 당시 마른가리 3마지기 값인 3만원에 팔았는데, 최 씨는 금방 240만원에 넘겼다고 전한다.

1950년대 황죽도로 굴따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950년대 어느 날, 황죽도에 굴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무창포와 각굴에서 여러 배가 황죽도로 갔다. 라인균 님 아버지도, 큰어머니도 갔다. 이날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 몇 척이 전복되고 여러 주민이 죽었다.

라인균 님 큰어머니가 탄 배는, 선창까지 들어오지 않고, 석대목에 대어 무사했고, 라인균 님 아버지가 탄 배는 선창에 다 들어와 전복되어 걸어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각굴 라 씨네 배 1척은 선창 입구에서 전복되어 전원이 죽었고, 하나는 몇 명이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굴마을 주민들이었다. 각굴마을 주민들이 친분 따라 배를 함께 탔기 때문이다.

각굴 마을은 이날 대부분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굴제사'라고 하였다.

라인균 님은 1950년대, 연탄장사를 하였다.

라인균 님은 20여 세 되었을 때, 무창포에서 연탄장수를 하였다. 당시 성주에서 석탄을 캐내고 있었고, 주민들도 연탄을 땔 수밖에는 없었다. 무창포는 다른 마을과 달리 땔감을 구하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봄에 벼 포기를 캐 땔 정도였다.

연탄은 직접 만들어 팔았는데, 연탄 만드는 기계는 예산에서 사 왔다. 수동식으로 틀에 석탄을 넣고 누르는 식이었다.

당시 연탄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연탄이 탄 뒤에 깨지지 않는지, 열량은 적당한지 등을 평가하여 찍어 팔았다. 탄재가 부서지지 않도록 황토를 섞어 찍어 팔았다. 당시 무창포는 물론이고, 이웃한 죽청리까지 공급하였다.

라인균 님은 1950년대, 막걸리 장사를 하였다.

라인균 님은 1950년대 막걸리 장사를 하였다. 당시 무창포에도 양조장이 있었는데, 웅천양조장의 막걸리를 받아다가 판 것이다. 당시에는 막걸리에 물을 섞어 파는 경우가 많아, 양조장에서 가져온 그대로 팔면 잘 팔렸다. 막걸리는 웅천양조장에서 배달해 주었다. 당시 무창포양조장에서도 웅천시내까지 배달하고, 웅천양조장에서도 무창포까지 배달하였다.

무창포양조장은 김응원 씨가 만들었다.

무창포양조장을 운영한 사람은 노천리가 고향인 김응원 씨였다. 김응원 씨는 소주 내리는 기술자로 무창포에서 셋방살이 하면서 소주를 내려 팔았는데, 양조장 허가를 내어 술을 만들어 팔았다. 당시 양조장은 많은 이익을 내는 사업이라 부자로 살았다.

라인균 님은 1950년대 무창포에서 기름장사도 하였다.

옛날 무창포에서 기름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웅천에서 기름집을 하던 유선돈 씨와 김동만 씨였다. 그들만이 기름을 팔 수 있는 허가가 있어 팔 수 있었다. 여기에 보령군수 차를 운전하던 곽해경 씨가 기름허가를 내어, 라인균 님이 운영하였다.

기름 창고를 짓고, 광천에서 가져다가 팔았는데, 당시는 어리숙헌 세상이라 군 함정에서 모비류를 사다가 팔기도 하였다. 기름장사는 잠시하고 그만두었다. 경상도에서 온 배들이

기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버려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창포에는 경상도 통영, 거제도 어민들이 올라와 조업하였다.

무창포에는 매년 봄이 되면 경상도 통영, 욕지도, 거제도 석포, 성포리 등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올라와 조업하였다. 작은 배를 가지고 올라와 조업하였는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다. 어장 철이 끝나 돌아가려면 술집에서 외상값을 받으려고, 묶어놓은 배에 지켜서 있기도 하였다. 외상값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는데, 다음 해에 다시 오면 서로 반가워하였다.

라인균 님은 군대에서 3.15부정선거를 하였다.

라인균 님은 군에 입대하여 철원 지포리에서 근무하였다. 이때 3.15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를 연습하였다. 처음에는 5명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한 후, 서로 보여주어 확인하고 넣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가 기표한 후, 서로 보여주고 확인한 후 넣는 연습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투표 당일에 가니, 기표를 한 후, 본인을 보여주고, 대령에게 주면 대령이 투표함에 넣었다. 당시 이렇게 했어도 사단에서 1명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신기하다고 하였다.

라인균 님은 1962년도에 유성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대천에서 택시를 몰았다.

라인균 님은 1962년 제대한 후, 유성에 있는 운전학원에 입학하여 1달 동안 연습한 후,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후 코로나 택시를 사서 대천 중앙택시에 소속하고 운전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천에서 택시영업은 잘 되었으나, 고장이 문제였다. 버는 돈이 모두 자동차 고치는 비용으로 들어가 이익이 없었다.

라인균 님은 김제에서 연탄공장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였다.

라인균 님은 택시사업을 그만두고 전라북도 김제에서 연탄공장을 시작하였다. 당시 전국에서 연탄 값이 가장 비싼 곳이 김제였고, 김제에는 5개의 연탄공장이 있었다. 이중 하나를 사서 시작했는데, 석탄을 캐는 고장에서 이주해 와 연탄공장을 한다고, 기존 업자들이

긴장하고 담합하여, 견딜 수 없었다. 결국 크게 실패하였다.

라인균 님은 5남 2녀를 모두 경기도 부천에서 교육시켰다.

라인균 님은 5남 2녀를 두었는데, 항상 교육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웅천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도두 경기도 부천으로 이주시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 부천 부근에서 생활한다.

무창포 마을에는 당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있으나, 당제 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

1937년생인 라인균 님은 무창포에서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 했다. 다만 선창 서쪽에 있는 작은 2개의 산을 당산이라고 부를 뿐이다. 뱃고사를 지낼 대도 당산에서 지내지 않고 배에서만 지내고, 유왕제도 그냥 바다에서 지낸다. 이웃한 갓굴 마을에는 당집이 있어 당제를 지냈으나 무창포에서는 지내지 않았다.

무창포에서는 정월 보름날 여자들이 제를 지냈고, 어린이들 목에 짐승의 뼈를 걸어주기도 하였다.

무창포 동쪽에는 벼락재에서 내려오는 긴 성이 있었고, 이 성과 들이 만나는 곳을 말밑이라고 하였다. 옛날 무창포의 여자들이 풍물을 치면서 걸립을 해서, 정월 보름날, 떡과 밥, 과일 등 음식을 차리고, 짚으로 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말밑에서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낸 뒤에는 짚으로 만든 말을 불태웠다.

이때 어린이들에게는 짐승의 뼈를 실로 묶어 목에 걸어주었다. 그래야 눈병도 안 걸리고, 홍역도 안 걸린다고 하였다. 이런 행사는 무당이 주도하였다.

무창포의 목장성을 경상도 사람들은 만리장성이라고 불렀다.

무창포 주민들이 말밑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긴 토성이 있고, 이 성은 죽청리, 황교리를 거쳐 소황리까지 이어진다. 무창포 주민들은 이 성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지만, 경상도에서 온 어민들은 만리장성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배가 나가지 못 하면, 성을 둘러보곤 하였다. 경상도까지 소문난 성이다.

무창포 위뜸 동북쪽 논은 바다를 간척한 땅이다.

무창포 위뜸 동북쪽 논은 바다를 간척한 땅이기 때문에, 늘 바닷물을 관리해야 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 쪽을 막고, 썰물이 되면 개방해야 물이 빠져 나갔다. 이런 작업은 수문과 가까운 논을 가졌던 라인균 님 몫이었다. 처음에는 마개로 막았다 열었다 하였으나, 나중에는 작인들한테 돈을 걷어 문을 여닫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군산에서 배 만드는 나무를 사다가 설치하였다.

라인균 님 논에는 뱀장어와 참게가 많았다.

라인균 님 논은, 각굴 앞들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다. 그래서 뱀장어와 참게가 많았다. 참게는 하도 많아서 여름철 크지 않을 때는 그대로 밟아 땅 속에 넣는 정도였다.

마을의 두레는 없었고, 부잣집 논 맬 때 풍물 꾼을 얻어 논을 맸다.

무창포 마을에 옛날에는 두레를 하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없어지고, 부잣집에서 논을 맬 때 일꾼과 함께 풍물 꾼도 얻어 흥겹게 맸다. 부잣집 머슴들이 주인에게, 풍물 꾼을 같이 얻어야 일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주인의 허락을 얻은 후, 풍물 꾼을 얻어 풍물을 치면서 논을 맸다. 이때 흥에 겨워, 피를 양쪽 손에 쥐고, 논바닥을 문지르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논 가운데는 매지 않고, 가에만 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부잣집 농사는 잘 된다고 하면서 맸다.

흉년에는 해초를 많이 먹었다.

무창포에서도 흉년에는 생활하기 어려웠다. 먹을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주로 바다에 나가 해초를 뜯어 먹었다. 많이 먹은 것이 말이었다. 말을 썰어 넣고 밥도 하고, 죽도 끓여 먹었는데, 화장실에는 말만 둥둥 떠 다녔다. 고구마를 심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끼니로 먹었다.

복쟁이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무창포에서는 복쟁이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흉년이 들었을 때 외지 사람들이

먹고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다에 버려진, 먹음직스런 복쟁이 알을 가져다 끓여 먹고 죽은 것이다. 무창포 주민들은 복어에 중독되면 쇠 젓가락을 씹어보면 안다고 한다. 쇠 젓가락을 씹었을 때 물렁하게 씹히는 감각이 있으면 무조건 중독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지 않도록 밖으로 데리고 다녀야 죽지 않았다.

라인균 님은 배를 사서 도다리와 꽃게도 잡았다.

라인균 님은 김제에서 연탄공장을 운영하여 실패한 뒤, 무창포에서 끌망으로 도다리와 꽃게를 잡았다. 배는 전라남도 녹동에서 만들어, 자동차로 실어왔고, 그물은 한 40폭 마련하여, 황죽도 밖에서 잡았다. 황죽도 밖은 웅천천의 하구이기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져 고기가 아주 많았다. 꽃게는 장항 앞바다에서 많이 잡았다.

1950~1960년대 무창포는 박대로 유명하였다.

1950~1960년대 무창포에는 경상도배들이 올라와 박대를 잡았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어민들도 영세 어민들로 작은 배에 2~3명의 선원이 타고 왔다. 이들은 무창포 앞바다에서 박대를 잡았는데, 처음 박대를 잡은 배들은 구멩이배라고 하는 배였다. 이후 우디시배, 고대구리배 등이 박대를 잡았다. 박대 중에서도 삽시도와 녹도 사이에 있는 멍덱이 근해에서 잡은 박대를 제일로 쳤다. 멍덱이 박대가 두껍고 살이 많다고 하였다.

박대는 소금에 절여, 껍질을 벗긴 후 말려 팔았다. 아주 맛이 좋아 유명하였다.

1950~1960년대에는 고기를 잘 몰라 팔기 어려웠다.

1950~1960년대에는 생선으로 조기와 갈치만 알아주었다. 도시민들은 물론이고, 무창포와 가까운 곳에서도 주꾸미, 우럭 같은 고기를 잘 몰랐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먹물이 묻은 싱싱한 주꾸미보다 물에 불은 흰색의 주꾸미를 선호했으며, 고개만 넘어가도 주꾸미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몰라서 안 사먹는 것이다. 특히 잠뱅이는 바다와 가까운 독산리나 남포 월전리를 벗어나면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창포해수욕장 북쪽 해안은 예쁜 밤자갈로 되어 있었다.

1950~1960년대에는 무창포해수욕장 북쪽 해안은 예쁜 밤자갈로 이루어졌었다. 2개의 당산 사이에는 만조때 바닷물이 유통되어, 현재 별장이 있는 당산이 섬이 되었고, 당산 근처 해안은 예쁜 자갈이 퇴적되어 있었다. 얼마나 깨끗한 자갈이었던지, 박대를 지게로 져다 널어 말릴 정도였다.

이 자갈은 업자들이 모두 사가서 없어졌다. 처음에는 지표에 있는 것을 주워갔으나 나중에는 굴착하여 가져갔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돌을 주워 바둑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석대섬 앞에서 많은 바지락을 잡았다.

석대섬 앞에는 바지락이 많았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미로 많은 바지락을 잡았으나 점차 고갈되어, 긴 장화를 신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잡다가, 배를 이용해서 잡았다. 조개를 잡는 망을 끌어 잡는데, 매일 한 배씩 잡았고, 두 배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많던 바지락이 현재는 없다. 웅천 천에서 옛날처럼 민물이 들어오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바지락 집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1950년대에는 낚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무창포 주민들은 낚시를 즐겼는데, 1950년대에는 낚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낚시는 자건거 살 같은 것을 구부리고, 이늘은 줄로 깎아 만들었다. 낚시줄은 노끈으로 만들고, 돼지피나 땡감으로 물들여 사용하였다. 그래야 잘 끊어지지 않았다. 납은 녹여 대나무 대롱 속에 부어 잘라 사용하였다.

무창포 주민들의 어장은 석대목이었다.

무창포 주민들이 맨손으로 어로작업을 하던 곳은 석대목이었다. 이곳에는 바지락, 굴, 박하지,[18] 낙지 등 모든 해산물이 풍부하여 무창포 주민들의 터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주민들도 석대목으로 모여들었다. 무창포 주민 중에는 은산여 같은 곳을 자주

18) 민꽃게

다니는 주민도 있었다.

6.25당시 저녁에 석대목에 갔다가 비행기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6.25당시 저녁에 불을 켜는 것은 금기였다. 비행기의 공격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녁에 불을 켜고 석대목에 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솔로 횃불을 만들어서 석대목에 갔다. 가서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비행기의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직접 공격하지 않고, 위협사격만 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무창포 방파제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무창포의 선창과 방파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다. 어업조합 근처는 원래 술집만 있었는데, 파도가 치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깎여나가고 해서 경치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았고, 방파제는 큰 돌로 쌓았다.

방파제를 쌓은 큰 돌은 유수물쪽 해안에 있는 큰 돌을 발파해서 마련하였다. 당시 폭약을 설치한 후, 발파하기 전에 '기냄이 남포'하고 소리 지르면 모두 대피하였다. 아마도 폭약 기술자가 기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파한 큰 돌을 목도로 운반해 쌓았는데, 큰 돌은 6명이 목도하였다. 2명이 하는 목도는 두다리, 4명이 하는 목도는 느다리, 6명이 하는 목도는 엿다리라고 불렀으며, 제일 큰 돌은 6명이 목도하였다. 6명 중 대표자는 왼쪽 제일 앞에서 메는 꼬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꼬쟁이의 지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운반하였다.

목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동, 휴식 등 모든 것에 그들만의 노래가 있었다.

무창포 어린이들은 톰방오리라고도 불렸다.

옛날 무창포 어린이들은 노는 곳이 바다였다. 발가벗고 바다에 들어가 잠수질하는 모습이 꼭 톰방오리 같아, 톰방오리라고 불렸다. 검게 탄 모습이나 잠수질하는 기술이 톰방오리(가마우지) 같았다.

옛날에는 간암(가늠)으로 그물을 놓고, 통행하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장비가 없어, 항로나 그물 놓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모두 섬과 섬의 겹쳐진 상태, 섬과 육지의 겹쳐진 상태 등을 보아 위치를 확정하였다. 이를 간암(가늠)이라고 하였다.

1950~1960년대, 봄이 되면 무창포 술집에 20~30명의 기생들이 들어왔다.

1950~1960년대 무창포에는 100여 척의 어선들이 몰려들었고, 10여 곳의 술집이 번창해서 기생들도 20~30명 모여들었다. 무창포에는 이들 기생들에게 빨래를 해 주고, 옷을 다려주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무창포에는 여러 샘이 있어 이용하였다.

무창포에는 위뜸에 큰 두레 샘이 있어 주민들과 선원들이 이용하였고, 물이 부족하면 논에 있는 샘에서도 떠다 먹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 남쪽, 도로의 남쪽에 샘을 팠는데, 아주 깊었으나 물은 시원하고 좋았다. 양조장에서는 독자적으로 마당에다 샘을 파서 이용하였다. 좀 염기는 있어도 맛은 좋았다.

무창포에서는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다가 방앗간을 만들었다.

무창포에서도 다른 마을과 같이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리 바심도 하고 방아도 찧었다. 그러다가 방앗간을 지어 정착했는데, 무창포에서는 벼락 재 밑, 간드리하고 갈라지는 곳에 있었다. 방앗간을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진원 씨였다.

무창포양조장은 웅천양조장과 합병되었다가 없어졌다.

무창포양조장은 1950~1960년대에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경영이 점차 어려워져 웅천양조장과 합병하여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양조장이 문을 닫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지근여와 우러녀는 처녀들이 죽은 슬픈 이야기가 전한다.

독산 앞바다에 있는 지근여는 무창포 주민들도 여파루 가는 곳이다. 옛날 처녀들이 이곳에 배를 타고 들어갔고, 배 주인은 처녀들을 데려다 준 뒤, 마을의 잔칫집에 들렀다가 술에 취해 그만 잃어버렸다. 지근여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처녀들은 배를 기다리다 모두 죽어, 주민들이 지게로 져 왔기 때문에 지근여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 처녀들은 독산 4거리에 길쭉하게 봉분을 만들어 묻었다고 한다. 처녀들이 죽으면 길가에 길쭉하게 묻는다고 한다.

우러녀도 배를 기다리며 울다 죽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유수물에 짱안여, 무창포 등대가 있는 바구녀, 황죽도 밖에 있는 독배 등이 있다. 짱안여나 바구녀는 잘 다니지 않고, 독배는 어로작업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초 무창포에서는 X동생이나 X누나를 삼는 것이 유행이었다.

1960년대 초 무창포에서는 X동생이나 X누나를 삼는 것이 유행이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 의형제처럼 지내는 것이다. 자연히 그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다. X동생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이 흐르는 시신을 상여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무창포양조장 주인이 죽었는데 시신이 많이 상해있었다. 고향이 웅천읍 노천리라 무창포에서 노천리까지 상여로 이동하였는데, 시신에서 물이 많이 흘러 고생하였다. 당시 가마니를 상여에 쌓고, 위에 재를 놓은 뒤 시신을 올려놓았으나 그래도 물이 흘러내려 힘들었다. 냄새는 물론이고, 장화에까지 물이 들어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상여로 노천리까지 시신을 모셨다.

무창포에서는 정월달에 대부분 안택을 하였다.

무창포에서는 정월달에 무당을 불러 안택을 하였다. 이때 바다에 나가 용왕제를 지냈다. 당제는 지내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용왕제를 지냈다. 이때 어린이들은 떡을 주워 먹으러 따라다녔다.

무창포 교회 근처에는 뗏집이 있었다.

현재 무창포 교회 근처는 산 능선이지만 평평하였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뗏집을 짓고 살았다. 뗏집은 잔디를 날카로운 삽으로, 사각형으로 잘라 엎어 쌓아서 벽체를 만들고 안팎으로 흙을 발라 집을 짓는 것이다. 특별한 기초공사도 필요 없이 맨땅에다 그대로 쌓아 짓는데, 벽체가 두껍고, 흙으로 되어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였다. 무창포에는 이런 뗏집이 많았다.

노태우대통령이 당선된 후 4일 만에 무창포를 방문하였다.

노태우대동령이 당선된 후 4일 만에 무창포를 방문하였다.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과 점심도 함께하였다. 라인균 님도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날 마을회관과 새로운 방파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1956년경 무창포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무창포에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1956년경 미국선교사가 무창포해수욕장에 휴양관을 지으면서였다. 침례교인데 무창포 젊은이들이 캠프를 하였다. 이후 휴양관은 없어지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였고, 겨울에는 어업조합 바닥에 멍석을 깔고 예배도 보았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젊은이들은 여자, 남자가 함께 모일 수 있으니 많이 모였다.

라인균 님의 아버지 라영원 님은 무창포해수욕장 입구에서 석공장을 하였다.

라인균 님의 아버지 라영원 님은 석공기술자였다. 남포 용머리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처음 3년간은 메질만 하고 이후에 배웠다고 한다. 라영원 님은 무창포해수욕장 입구에 석공장을 만들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석공장을 하였다. 1960년대 무창포에는 3곳의 석공장이 있었다.

당시에도 석공기술을 배우려면 3년간은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배웠다. 라영원 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0~30명이었고, 돌은 석대, 용머리, 수부리, 심지어는 황등에서도 가져왔다.

당시도 석물을 만드는 기술자가 따로 있고, 돌을 캐내는 기술자가 따로 있었다. 돌을 캐

내는 기술자들은 석대섬에 들어가 며칠 동안, 밥을 해 먹고 자면서 돌을 캐어, 배로 운반해 납품하였다. 석공장에서는 이들에게 선 돈을 주어 일하게 하였다. 캐낸 돌은 배에 막대를 걸치고 양쪽에 매달기도 하였고, 통나무로 만든 뜰배에 올려 끌어오기도 하였다.

무창포 석공장에서 만든 석제품들은 구루마로 실어 웅천으로 가져갔다. 돌을 싣는 구르마기 때문에 큰 황소가 끌었다. 관당리 삼정굴에 사는 김두경 씨 구루마가 돌을 운반하는 구루마로 유명하였다.

무창포 방파제 자리에는 옛날 독살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무창포에 방파제가 만들어졌다. 첫 방파제를 만들기 전에 그곳에는 독살이 있었는데, 앞독살이라고 불렀다. 고기를 잡지 않는 독살이었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박하지를 잡고 망둥이 낚시질도 하였다. 무창포에 들어오는 배들도 이곳에 접안하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 전에 묶어놓기도 하였다.

이 앞독살 뒤에, 유수물에 있는 돌을 발파해서 방파제를 쌓았다. 옛날에 무창포로 많은 배들이 들어온 것은 항구시설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안장벌은 무창포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

무창포 주민들은 방파제 안쪽에 있는 장벌을 안장벌, 현재의 해수욕장을 뒷장벌이라고 불렀다. 안장벌 동쪽에 술등이라고 불리는 사구가 있었고, 사구 동쪽에 마을이 들어섰다. 마을 주민들은 늘 안장벌 백사장에서 생활하였다. 이곳은 아침 10시까지 햇볕이 들지 않아 시원하였기에 여름에도 주민들이 모여 일하고, 쉬기도 하였다. 어린이들은 앞장벌 앞 바다에서 수영하였다.

앞장벌 앞에는 바지락이나 꽃게 새끼 등 해산물도 많아 무창포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이곳은 물도 늦게 들어와 온종일 바지락을 잡을 수 있는 곳이었다.

생선은 주산장(간재장)이 잘 팔렸다.

무창포에서 나온 생선이 잘 팔린 곳은 주산장이었다. 주산장에서는 좋지 않은 생선도 잘 팔렸다. 도다리의 경우, 특대,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아주 작은 것은 잿도라리라고 하여

무더기로 팔았는데, 이런 생선도 주산장에서는 잘 팔렸다. 주산장에서는 썩은 생선도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부여 · 은산 · 공주 등지에서도 장사꾼이 자전거를 타고 무창포에 왔다.

무창포에서 생선을 사가는 장사꾼들은 먼 곳에서도 왔다. 부여·은산·공주 등지에서도 자전거를 타고와 생선을 사갔다. 무창포의 장사꾼이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의 장사꾼들이 와서 사갔다.

무창포에서는 엿장수도 생선으로 받아갔다.

무창포에는 웅천읍 대천리 구장터에서 엿장수가 다녔다. 그들은 엿목판에 엿을 가지고 와서 뱃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생선으로 받아갔다. 돌아갈 때는 생선을 무겁게 지고가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 이분들이 돈을 벌어, 무창포에 돌집을 지었다.

라인균 님은 군대 가기 전 구식으로 결혼하였다.

라인균 님은 군대에 가기 1년 전, 이웃 마을인 삼정굴 처녀와 결혼하였다.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도 신부가 외부출입을 하지 않아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눈여겨보았다가 청을 넣어 중매로 결혼했다.

당시 결혼은 대개 신부 집에서 하였고,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을 '마당을 빌려 준다'고 하였다. 결혼하는 날에는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신부 집으로 갔다. 작은 할아버지는 상객으로 참석한 것이다. 상객은 신부 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신부집안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접대하였다. 접대가 예의에 어긋나면 서로 깔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 이웃집에 머무르다가 초례상에 나가는데, 말이 없어 친구들이 기마전 할 때처럼 말을 만들어 신랑을 태워갔다. 사모관대를 차려 입은 신랑이 친구들이 만든 말을 타고 입장했던 것이다.

결혼식 후에는 신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신랑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신랑은 걸어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갔다. 무창포 마을에는 가마와 가마를 보관하는 가마 집이 있었다. 신랑 집에서는 별도의 예식이 없이 잔치를 벌였다.

라인균 님 집안에서는 옛날 마루에 짚을 깔고 손님상을 차렸다.

라인균 님 집안에서는 옛날에 철저하게 전통을 따랐다. 축·지방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중학교도 보내지 않고, 서당에 보냈을 정도였다.

제삿날이 되면 방에서 조상님을 모시고, 마루의 한쪽에 짚을 깔고 간단한 음식을 놓았다. 조상 상에는 밥, 국, 삼탕(3가지 탕) 등 제물을 풍부하게 차리지만 마루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조금씩 놓았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김 순 규 (1937년생)
보령시 주교면 산고래길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고래 마을의 김양식



출생과 성장

김순규 님은 김해 김 씨로 주교면 송학리 안산고래 마을에서 1937년에 태어났다. 김순규 님 집안이 송학리로 들어온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이다. 할아버지는 서천군에 살았는데, 워낙 빚이 많아 갚을 수 없게 되어, 밤에 배를 타고 왔다고 전한다. 이후 송학리 안산고래에서 남의 소작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김순규 님의 아버지는 4남 2녀를 두었고, 김순규 님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송학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6.25사변 때 6학년이었는데, 전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 그대로 중퇴하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다. 천자문과 명심보감 정도를 배웠다. 이후 농사일과 김 양식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29살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와 결혼하여 4남 2녀를 낳고 유복하게 생활하였다.

할아버지는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여 일본인 소유의 고정리 간척지 3마지기와 밧산고래 논 4마지기를 소작으로 얻어 지었다. 김순규 님 기억으로, 하루에 2번씩 살포를 들고 논에 다녔다. 돌아가실 때도 살포를 들고 논에 다녀오다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해방 후, 일본인 소유의 간척지 논 3마지기를 불하받았고, 밧산고래 논도 소유하였다. 밧산고래 논은 물이 잘 나오는 논이라 농사 짓기 좋았다.

고정리 간척지 논은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었다.

고정리 간척지의 논은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었다. 송학리 척굴고랑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었으나 양이 적어, 척굴 양지뜸 앞이나, 조금나루 앞에 물을 대기도 버거웠다. 간척지 논들은 모두 저수지 물을 이용하였다. 간척지에 논을 가진 사람들은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대표자는 수감이었다. 봄에는 모든 작인들이 출동하여 수로를 정비하였고, 가을에 수확하면 1마지기 당 벼 5되씩을 수세로 냈다. 수세로 수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날이 가물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 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때는 물길을 내고, 두레로 퍼내 물을 댔다.

결혼 후 밧산고래 마을에 집을 지어 독립하였다.

김순규님은 결혼 후, 밧산고래의 밭에 집을 지어 독립하였다. 당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독립하지 않으면, 모두 어려울 것 같아 독립하였다. 밭에 목수를 얻어 초가삼간 집을 지었다. 방은 비교적 크게 9자로 하였고, 앞에는 툇마루도 두었다. 목수가 한 일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일이었고, 지붕은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었다. 지붕에 흙을 개어 얹는 (새우 얹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었다. 새우를 얹을 때 도와주는 것은 마을의 오랜 전통이었다.

벽체를 만들고, 구들장을 놓는 것 등, 나머지는 김순규 님 부부가 자력으로 하였다. 낮에는 논밭이나 바다에서 일하고 밤에만 일해 완성하였다. 구들장 돌은 바다나 산에서 주워와 하였다. 벽체의 골격은 '왜'라고 하였는데, 쪼갠 대나무를 새끼줄로 엮었다. 벽체에는 안쪽에서 흙을 바르고, 흙이 마르면 밖에서 발라 완성하였다. 집 지은 밭이, 황토라 흙은 쉽게 얻을 수 있었다.

흉년에는 고구마와 각종 나물로 연명하였다.

6.25당시 흉년이 들어 고생하였다. 당시 고구마를 많이 심어,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고, 쑥을 뜯어 곡식가루를 묻혀 쪄 먹었다. 바다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잡아다 먹었다.

부모님은 갯벌에서 잡은 해산물을 팔아 곡식으로 바꾸어 왔다.

부모님은 사리 때, 갯벌에서 고기를 잡았다. 옛날에는 꽃게가 특히 많아 많이 잡았다. 아버지가 지게에 지고 어머니와 함께 팔러 나가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팔러 가는 고기도 무겁고, 가지고 오는 곡식도 무거워 어려웠다.

산고래라는 마을 이름은 산골에서 유래하였다.

산고래라는 마을 이름은 허리 아픈데 먹는 약인 산골에서 유래하였다. 안산고래 당산 바닷가에서 났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에 닿는 곳이었다. 빤짝빤짝하는 것이 들어있는 흙으로, 먹으면 허리 아픈 것이 낫는다고 하여 파서 먹었다. 김순규 님도 먹어보았다. 사람들이 파갔기 때문에 파여 있었다.

산골이 나오는 자리는 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묻혀버렸다.

산고래 마을에 두레는 없었고, 부잣집 논을 맬 때 풍물을 치는 정도였다.

김순규 님이 아는 한, 산고래 마을에 두레는 없었다. 다만 부잣집에서 논을 맬 때, 풍물을 치는 사람도 함께 얻어, 논둑에서 풍물을 쳐 가면서 논을 맸다. 당시 산고래의 일꾼들은 25~26명 되었고, 여럿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즐겁게 논을 맨 것이다. 풍물 치면서 논매는 일은 거칠었다. 고정리에서는 새납을 부는 등, 두레를 크게 하였다.

김순규 님은 줄반장이었고, 모를 잘 쪘다.

김순규 님은 마을 주민들을 인솔하여 모를 심는 줄반장이었다. 마을의 남녀 주민 수십 명을 인솔하여 모를 심어주고 품삯을 받았다. 모를 심을 때는 새벽에 나가 못자리판에서 모를 쪄야 되는데, 김순규 님이 기술자였다. 모를 찔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습관이 되지 않아, 모의 중간을 잡고 잡아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새끼손가락으로 모의 아랫부분을 잡아당겨야 흙도 묻지 않고 부러지지 않으면서 잘 뽑혔다.

모내기를 할 때 김순규 님은 못줄을 잡았다. 그래서 줄반장이라고 불렸다. 모를 심을 때는 서로가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경쟁하였다. 가운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줄반장은 일꾼들을 가운데로 골고루 배치하여 심었다.

모를 심을 때는 자기 앞에서 옆으로 심어 가는데, 다 심으면 뒤로만 움직이도록 하였다. 뒤로 두발 나가서 다시 심어오면 원위치가 되는 것이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뒤로만 물러나면 모두 동시에 심을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심는 것을 끝내야 능률을 올릴 수 있다.

모심기를 마치면 그간 수익금을 참여 인원으로 나누어 품삯을 지급하였다. 당시 모두 어려운 때라 큰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고, 약간의 남는 돈으로 음식을 사 먹었다.

산고래 마을에는 주교리 사람이 들어와 방아를 찧었었다.

산고래 마을에는 방앗간이 없어 주교리 사람이 들어와 방아를 찧었다. 겨울이 되면, 큰 마당에 방아를 설치하고, 동네 방아를 모두 찧어 주었다. 이후 밧산고래에 사는 주민이 방앗간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안산고래 마을에는 연자방아가 있었다.

안산고래 마을에는 연자방아가 있어 벼도 찧고 보리도 찧어 먹었다. 주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가서 방아를 찧었는데, 무료였다. 방아 주인의 마음씨가 좋아 돈을 내지 않고 찧어 먹었다. 다만 소는 자기소를 가지고 가서 돌렸다.

연자방아에는 벼도 찧었지만, 보리도 찧었다. 보리를 찧을 때는 물을 주어가면서 찧었는데, 잘 벗겨졌다.

벼나 보리 탈곡은 자리개질부터 하였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보리나 벼를 탈곡할 때, 자리개질을 먼저 하였다. 자리개질은 벼나 보릿단을 새끼줄로 묶어 절구통에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잘 떨어지고, 나중에 홀태로 훑을 때나 호롱기에 털 때도 모가지 채로 떨어지지 않아 방아 찧기 좋았다. 자리개질을 하지 않으면 모가지 채로 떨어져 방아 찧기 곤란하였다.

소는 태어난 지 1년 뒤, 코를 뚫고 오줌을 발라 소독하였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태어난 지 1년 된 소에 코를 뚫었다. 소의 코를 뚫을 때는 노가지나무를 가지고 코뚜레를 만든 후, 한쪽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찔러 뚫었다. 이때 덧나지 않도록 사람 오줌을 발라주었다.

소는 코 뚫은 지 1년이 지나야 길들여 쟁기질을 하였다.

소는 태어난 지 1년쯤 지나면 코를 뚫어 코뚜레를 매었고, 그 후 1년쯤 지나면 길을 들일 수 있었다. 길들일 때는 나무토막이나 끄시렁쿠 같은 것을 장벌에서 끌게 하였다. 장벌에서 오래 끌어 훈련이 되면, 쟁기를 끌게 했는데, 이때 한 사람은 쟁기를 잡고, 한 사람은 코뚜레를 잡아야 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야 완전히 길들인 소가 되었다.

쟁기질은 외골치기와 네골치기가 있다.

쟁기질은 외골치기와 네골치기가 있다. 외골치기는 보리나 콩, 고구마를 심을 때 가는 방식으로 한 번 갔다가 돌아와 한 두둑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두둑과 하나의 골이 만들어

지면 쇠스랑으로 꾸며 보리도 심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다.

반면 네골치기는 외골치기한 두둑에 한 번 더 갔다 와서 두둑을 넓게 만드는 것이다. 들깨를 심는다던가, 마늘을 심을 때 그렇게 하였다.

쟁기질은 논과 밭에서 모두 하는데, 밭에서 하는 쟁기질이 훨씬 어려웠다.

송학리에 김발을 처음 맨 사람은 박용규(1925)님이었다.

송학리에 김발을 처음으로 맨 사람은 밧산고래에 살던 박용규 님이었다. 박용규 님이 젊었을 때인 일제강점기 말, 대섬 앞에다가 김 살을 매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 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보령 최고의 김 양식장이 되었다.

김 양식장은 12수문부터 송도분교 앞까지였고, 은포리, 송학리, 고정리 주민들이 김 양식에 참여하였다.

김 양식장은 대천간척지 12수문부터 서쪽으로 송도분교 앞까지 가능하였다. 이곳에서 은포리(주로 간디뻘과 안뻘), 송학리, 고정리 주민들이 양식을 했는데, 우선 마을별로 크게 구획을 정하였다. 12수문 근처는 은포리 간디뻘과 안뻘 주민들이 맸고, 그 서쪽으로는 송학리 현장, 산고래, 척굴, 고정리, 송도 순으로 맸다.

마을별로 매는 장소는 고정되어 있었고, 나누어진 마을 안에서는 매년 심지를 뽑아 양식하는 곳을 결정하였다. 심지를 뽑을 때는 2줄 단위(40떼)로 번호를 부여하여 심지를 뽑았고, 40떼 미만으로 양식하는 주민들은 몇 명이 모여 40떼를 채워 심지를 뽑았다. 이렇게 양식장의 질서를 잡아준 분이 척굴에 사는 천씨였다.

양식장은 낮은 바다부터 깊은 바다까지 한 줄이 되게 하였다.

송학리 산고래 마을 앞에는 '후내기'를 쳐서 고기를 잡았다.

나일론 그물이 나오기 전에, 송학리 앞바다에는 성주산에서 사온 싸리로 엮은 후내기를 쳐서 고기를 잡았다. 후내기는 9~10줄을 엮었는데, 가운데는 높고, 가에는 낮았다. 무겁기 때문에 물에 띄워 끌고 들어가서 쳤다. 그리고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래에는 갈구리진 나무를 꽂아놓았다. 가운데에는 통발을 설치하여 고기가 들어가도록 하였다.

어떤 가을에는 열치가 많이 들어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것을 '가닥한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 누구나 가져가도록 하였다.

후내기는 봄에 설치하는데 대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설치하여 멸치, 갈치, 조기, 오징어 같은 것도 잡혔다. 봄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발과 상관없이 고기를 잡았다.

후내기는 물살이 센, 대천천이 만든 중앙의 갯고랑에는 만들지 못했다.

살막이마에 살막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대천간척지 공사 현장사무실이 있어 현장이라고 불렀다.

송학리 동쪽, 현재 대천간척지 12수문 있는 곳을 과거에 '살막이마'라구 불렀다. 김순규 님은 살막이마라고 부르기만 했을 뿐, 살막이 있던 것은 보지 못했다, 나중에는 대천간척지 공사 현장 사무실이 있어 현장이라고 불렸다.

송학리 산고래 마을에서는 배를 부리지 않았다.

송학리 산고래 마을은 바닷가에 있었지만 포구가 없어 배를 부리지는 않았다. 마을 앞 갯벌에서 각종 어패류를 잡고, 김 양식을 하였다.

송학리 앞 갯벌에서는 많은 어패류를 잡았는데 주로 눈을 보고 잡았다.

송학리 마을 주민들은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을 때 눈을 보고 잡았다. 백합도 많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랭이'를 사용하여 긁었으나, 송학리에서는 그랭이를 사용하지 않고 눈을 보아 잡았다. 여름에 백합조개가 내품는 희스름한 액체를 보고 잡는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 낙지 구멍도 '부릇'이라고 하여 새파랗게 표가 나는데 그것을 보고 잡았다.

잠은여에서는 박하지를 잡고 굴을 땄다.

송학리 산고래 마을 앞 바다는 갯벌이 넓은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잠은여라고 부르는 바위너덜이 나타난다. 죽도의 남동쪽에 있는 바위너덜이다. 이곳에 가면 바위에 서식하는 각종 해산물을 잡을 수 있다. 박하지도 많고, 굴도 많았다. 잠은여는 산고래 주민

들의 큰 어장이었다.

송도 마여 근처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송도 남쪽에 마여라고 불리는,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 바위가 있는데 그 근처가 가장 위험한 바다였다. 이곳은 천수만과 대천으로 들어오는 만이 갈라지는 곳이라 밀물 썰물 때에는 물살이 세어 웬만한 동력선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다. 김순규 님도 섬에서 김 포자를 붙여오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옛날 김 포자는 섬에서 붙여왔는데, 안면도 영목에서 많이 붙여왔다.

옛날에는 김 양식을 대나무로 발을 엮어 했고, 포자를 섬에서 붙여왔다. 안면도, 고대도, 장고도 등 여러 섬에서 붙여 왔는데, 안면도 영목에서 붙이는 것이 가장 좋았다. 포자를 붙이는 것은 양력 9월 말, 대나무 발을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깔아두는 것이다. 대개 5겹으로 깔아 2사리 동안 두었다.

2사리가 지나면 육안으로 깜작깜작하게 보일 정도 되었고, 이때 걷어다가 양식장으로 옮겼다. 가져오는 대로 바로 걸었다.

기술이 발달한 뒤에는 인공포자를 붙였다.

기술이 발달한 뒤에는 인공포자를 붙였다. 인공포자는 조개껍데기나 굴 껍데기에 포자를 배양하여 붙이는 것인데, 1떼에 수백 개를 붙여야 되었다. 비닐주머니에 넣어 붙였다.

현재 산고래 마을에는 인공포자를 생산하는 업자가 있어, 인공포자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결혼하기 전 집안에 큰일을 자주 치러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살림을 할 때 집안 살림이 아주 어려웠다. 살림이 어려웠던 원인은 연속해서 큰일을 치렀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모두 3년 상을 치렀고, 형님과 본인, 동생이 결혼하였으니 큰일만 9번 있었던 것이다. 큰일 때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접해야 했기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것이 빚으로 남았다. 당시 1년 이자는

쌀 1가마를 가져다 먹으면 다음 해에 쌀 2가마를 갚아야 했다. 곱장례(장리)라고 불렀다.

김순규 님의 결혼은 장인이 한 번 보고 결정하여, 1달 후에 예식을 올렸다.

김순규 님의 결혼은 장인이 한 번 보고 결정하였다. 장인 되는 분이 선보러 왔다고 하여, 일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갔는데, 몇 마디 물어보고, 딸을 굶기지는 않겠다고 하여 결정하고, 1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사자끼리는 만나지도 않고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였고, 마침 2월 그믐이라 당일 신랑 집으로 걸어왔다. 달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당일 신랑 집으로 온 것이었다.

김순규 님은 29살에 결혼하여 3년 후 분가하였다.

김순규 님은 29살에 이웃한 팔봉마을의 23살 처녀와 결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 분가해야만 하나라도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분가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제금 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소유하던 밭에 집을 지어 분가하였는데, 목수가 지었지만, 벽체나 방고래 등 내부시설은 김순규 님이 밤으로 일해, 완성하였다. 봄에 짓기 시작한 집을 가을에야 완성해서 제금 날 수 있었다.

송학리 산고래 마을에서는 김발 매는 장소를 사고 팔았으며, 분가할 때도 나누어 가지고 나왔다.

김순규 님은 분가할 때 아버지한테 김발 3떼 매는 장소를 나누어 가지고 분가하였다. 이후 장소를 구입하여 22떼를 맸는데, 1떼 매는 장소는 대략 쌀 5가마를 주어야 살 수 있었다. 22떼를 맬 수 있는 권리금이 쌀 110가마나 되었던 것이다.

김발 한 떼는 대나무 100쪽을 엮은 발 5개이다.

김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를 6자(180cm)로 잘라 손가락 굵기만큼 쪼개, 양쪽으로 엮어 발을 만들었다. 이때 대나무 100쪽을 엮으면 길이가 약 5m쯤 되었는데, 이것 5개를 1떼라고 하였다. 장정들은 1떼 이상을 지게에 져 운반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물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발 1떼에 말뚝은 15개가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손으로 박고 나중에는 양수기로 박았다.

김발 1떼를 매는데 말뚝 15개가 필요하였다. 필요한 말뚝은 모두 사다가 사용하였고, 갯벌에 박는 게 문제였다. 과거에는 줄로 매어 밟고, 2사람이 흔들어 박았으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발달하여 양수기의 수압을 이용하여 구멍을 파고 끼워 넣었다. 말뚝을 뺄 때도 양수기를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김 양식이 끝나면 말뚝을 뽑아, 해안에 세워놓았는데 태풍이 불어 떠나가기도 하였다. 당시 대천 쇳개에서 주워왔는데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였다. 말뚝은 참나무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3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김은 11월 말경부터 시작하여 3월 달까지 수확하였다.

김은 9월 말경 포자를 붙이기 시작하여, 2사리 동안 포자를 붙이고, 양식장에 넣으면 11월 말경부터 수확하였다. 김 수확은 가위로 하는데, 길어 나오는 것을 가위로 자른다. 한번 자르면 2사리(1달) 지난 뒤에 또 자를 만큼 자라나 수확할 수 있다. 김발을 많이 매야 계속해서 잘라 수확할 수 있지, 적으면 수확하지 못하는 사리도 있게 된다.

김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길어져 작은 노력으로도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모두 잘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라는 대로 수확하는 것이 제일이다.

양력 3월이 되면 김은 자라지 않고 모두 떨어져 나갔다. 김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한 사리 동안에 김발을 철거하고, 다음 사리에는 말뚝을 철거하였다. 철거한 김발과 말뚝은 뗏목에 실어 끌어왔다. 말뚝은 해안에 쌓아 두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하였다.

김은 3매 날부터 10매 날까지 수확하였다.

김은 조금 때는 수확할 수 없었다. 3매 날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10매 날까지 수확하였다. 물이 나가는 대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나가는 날은 가에서 수확하고 물이 많이 나가는 사리 때는 깊은 물에서 수확하였다. 15일 중 7~8일은 김을 뜯을 수 있었다.

김을 수확하면 우선 바닷물로 씻어 다지고, 민물로 씻어 떴다.

김을 수확하면 우선 바닷물로 깨끗이 씻었다. 깨끗한 바닷물을 얻기 위해 마을 해안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았었다. 바닷물로 씻은 김은 집에 가져와 조빠라고 하는 기계를 돌려 잘게 부순 다음, 민물로 씻었다. 민물로 씻은 뒤에 조빠에 넣으면 김이 죽처럼 되어 반드시 바닷물로 씻은 뒤에 조빠에 넣어야 하였다.

민물로 씻은 김은 손으로 펴서 떴고, 됫박 김은 바가지로 퍼서 만들었다.

민물로 씻은 김은 손으로 적당량을 집어내어 김발 위에 올려놓고 펼쳐 김장을 만들었다. 이때 김발은 다라에 담고, 김 틀을 올려놓은 다음, 물을 채워 쉽게 펼쳐지게 하였다. 김발을 여러 개 겹쳐 놓아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 김 틀을 올려놓은 김발 위에 물에 섞인 김(김물)을 바가지로 퍼 부어 만드는 김을 됫박 김이라고 했는데, 됫박 김은 정사각형이었고 두꺼워 구멍이 없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이었다. 됫박 김은 수협에서 수매하였고, 일반 김은 상인들이 사갔다.

산고래 주민들은 햇볕이 아까워 점심을 먹지 못했다.

김발에 뜬 김은 햇볕에 말리는데, 날씨가 좋으면 3시간이면 말랐다. 햇볕이 가장 좋은 시간이 점심때이기 때문에, 김 양식을 하는 산고래 주민들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점심때가 가장 햇볕이 좋은 시간인데, 시간이 아까워 점심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김순규 님은 빚더미 속에 제금 나서 살림을 일궜다.

김순규 님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부모님 밑에서 제금 나면서 빚까지 절반을 가지고 나왔다. 열심히 농사일과 김 양식을 해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논을 샀다. 술을 잘 먹었는데도 논 한 다랭이(900평)를 살 때까지 술을 먹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실행하였다. 결국 논을 샀고, 이후 부자가 되었다.

김 수확하는 기계가 도입되어 편리하게 수확하였다.

처음에는 대나무로 김발을 엮었으나 나중에는 그물로 대체되었다. 그물로 대체된 뒤에는 김 수확도 기계로 하였다. 작은 배에 기계를 싣고 들어가 김을 채취했던 것이다. 기계로

채취할 때에는 한 집에서 경운기를 2대씩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한 경운기에는 배를 싣고, 한 경운기에는 김을 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계로 채취하면서 수확량은 크게 늘었으나 김 값이 싸져 돈 버는 것은 옛날과 같았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뒤 김양식이 안 되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뒤, 온배수와 먼지 때문에 김 양식이 안되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모두 폐업하였다. 당시 보상 가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고, 대략 1년 양식해서 버는 값 정도였다.

대섬에는 명당자리가 있었다.

대섬에는 예부터 대나무가 있었고, 묘가 하나 있었다. 그 묘 자리가 명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손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가 된 후손들이 조상을 육지에 잘 모신다고 팠는데, 연기가 났고, 이후 후손들은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산고래 주민들은 배 타고 쇳개로 다니기도 하였고, 사고도 났다.

산고래 주민들은 대천 시내에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나 벼를 매상할 때는 배를 타고 갔다. 한 번은 김순규 님을 포함하여 마을 청년 7명이 구시 쇳개에서 배를 타고 나오다가, 살막이마 앞에서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 배는 전복되었으나 배를 붙잡고 버텼고, 썰물이 되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안산고래 당제는 1968년경까지 지냈다.

안산고래 마을에는 1968년경까지 당제를 지냈다. 당산은 마을 남동쪽 해안에 있는 산이었고, 꼭대기에 큰 소나무가 있었다. 소나무 밑에는 돌이 있어 돌에서 제를 올렸다. 젯날은 좋은 날로 잡아 지냈고,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돼지머리, 떡, 삼색과일, 밥, 국 등 제물을 차려 지냈다. 남자들만 올라가 지냈다.

김순규 님이 밧산고래로 이사 온 해인 1968년경까지 지냈다.

밧산고래 당산의 소나무를 캐다가 사고가 났다.

밧산고래 마을도 안산고래와 비슷하게 당제를 지냈다. 당산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정상부분에 있는 큰 소나무 숲에서 지냈다. 김순규 님이 이사 온 1968년경에는 이미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므로 1960년대 후반기쯤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래 당산은 외지인에게 팔렸고, 개발하기 위해 소나무를 캐다가 사고로 포클레인 기사가 허리를 다쳤다. 주민들은 당소나무를 건드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밧산고래에서는 정자나무 제를 지냈다.

밧산고래 당제가 없어진 뒤, 마을에서는 정자나무 제를 지냈다. 정자나무 제는 정월 열나흗날 정자나무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찬동하는 주민들이 협조해서 지냈다. 여자들이 지냈고, 제물은 밥을 해 놓는 정도였다. 제물은 간략했어도 지극정성으로 지냈다.

옛날 산고래 아이들은 고정리, 은포리 아이들과 쥐불싸움을 하였다.

옛날 산고래 아이들은 척굴마을 아이들과 힘을 합쳐, 고정리 아이들과 쥐불싸움을 하였다. 장소는 주로 고정리 간척지였다. 은포리 아이들과도 싸웠는데, 장소는 옻고개였다. 서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은포리 간디벌 아이들이 셌다고 한다.

은포리 간디벌 아이들은 나중에 대천가는 길목을 지켜 섰다가 시비를 걸어 곤란했다고 한다.

나무하러 갔다가 공을 차고 놀았다.

산고래 마을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나무하러 다녔는데, 나무하러 갔다가 공을 차고 놀았다. 새끼줄을 뭉쳐 공을 만들고, 묵은 밭에 돌을 넣고 차 넣는 것으로 축구와 같았다. 전 세대에서 놀던 공치기는 없었다. 공을 차다가 때가 되면, 아무 나무나 적당히 해 가지고 돌아오곤 하였다. 나무를 조금 해왔다고 혼나기도 하였다.

나무는 주로 가그말재에서 하였다.

산고래마을 사람들은 나무하러 가그말재로 다녔다. 어떤 때는 성주산으로도 갔는데, 성주산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 했으며, 너무 멀어 힘들었다. 가그말재도 높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까워 오후 2~3시경에는 돌아올 수 있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다. 나무하러 10여 명이 몰려다녔다.

마을 처녀총각들이 서리를 많이 하였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처녀총각들이 밤에 모여 놀다가 서리를 하였다. 서리는 감자, 고구마, 참외 등이었고, 친구네 밭에 들어가 가져다 먹는 것이었다. 오늘은 갑네 것을 가져오면 내일은 을네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다음날 날이 밝으면 서리를 해갔다고 난리가 나지만, 당사자들은 다 아는 것이었고 아무 말도 안 할 뿐이었다.

안산고래 경희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안택을 하였다.

옛날 안산고래 마을에 살던 경희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무당이었다. 집에 신당을 차려놓지 않았지만, 안택도 하고, 빌기도 하였다. 경희할머니는 마을에서 신뢰를 받았다. 비용을 많이 받지도 않고 헌신적으로 치성을 드려 주었다.

안산고래 마을에는 초분이 있었다.

안산고래 마을에는 초분이 있었다. 김순규 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초분을 했는데, 김순규 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10여 세 때였으므로 1945~1950년경이었다. 산에 가니까 나래로 둘러치고 안에 시신을 모셔놓은 것이 있어, 아버지께 무어냐고 물었더니 초분이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한다. 안산고래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한 후, 산에 초분을 해 놓고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장례를 모셨다. 이때 염한 매듭이 터지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분으로 모셨다고 한다. 김순규 님은 실제로 살아난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산고래 주민들은 상이 나면 모두 함께 일했으며, 시신은 3번 다져 묻었다.

산고래 주민들은 상이 나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모두 상가에 가서 일했다. 안산고래와

밧산고래가 한 마을이기 때문에 함께 일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돼지를 잡았고,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일하였다.

부정을 가려 상여를 메지 못할 사람은 산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상여를 멨다. 산고래에서는 관 째로 매장하는 경우는 없었고, 시신을 운반한 뒤, 관을 빼서 태우고 시신만 매장하였다. 매장할 때는 3번에 걸쳐 다졌다. 먼저 흙을 1/3쯤 넣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밟았고, 2/3쯤에서 밟고, 지표면과 평평한 높이에서 마지막으로 밟았다. 그러고는 줄로 원을 그려놓고, 잔디를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잔디를 파는 곳이 없었다. 잔디는 사람이 밟는 곳에 있었으므로 산길 주변에 있는 잔디를 떠다가 묘를 만들었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칠월칠석날 샘 제도 지냈다.

산고래마을에서는 칠월칠석날 샘 제를 지냈다. 1960년대 말까지 지냈는데, 풍물을 치면서 지냈다.

6.25당시 마을 뒷산에 인민군들이 호를 팠다.

6.25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산고래 마을 뒷산에 호를 팠다. 국군이 배를 타고 상륙하면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폭격을 피해서 밤에만 작업을 시켰다. 인민군 치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도 있었는데, 주민들은 수복 후 보복하지 않았다. 모두 무사하였다.

산고래 해안에는 방위병들이 보초를 섰다.

1960년대, 1970년대에는 해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었다. 산고래 해안에도 초소를 만들어 놓고, 방위병들이 보초를 섰다. 보초 서는 방위병들이 마을에서 라면을 끓여먹기도 하였다. 해안에 철조망을 치지는 않았다.

산고래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밤에 많이 하였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밤에 많이 하였다. 산고래도 여느 마을처럼 새마을운

동 때 마을길을 넓혔는데, 낮에는 각자 자기 집 일을 하느라고 모일 수가 없어, 주로 밤에 많이 하였다. 특히 겨울에는 김 양식 때문에 자기 일이 바빴다. 저녁을 먹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갔다.

석유로 불을 켜 들고, 갯벌에서 고기를 잡았다.

산고래마을에서는 밤에 갯벌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밤에 불을 켜기 위해서, 큰 병에 석유를 담고, 속이 빈 쇠 파이프를 연결하여, 솜방망이를 매달았다. 병을 거꾸로 들면 석유가 솜방망이로 들어가 불을 켤 수 있는 것이다. 하룻밤에 1병의 석유를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

바지락은 6월쯤 산란하여, 9월쯤 종패로 채취할 수 있다.

산고래 마을 앞은 우리나라 최대의 바지락 산란지이다. 바지락은 김 말뚝을 뺄 때쯤 산란한다. 바지락이 산란하면 뻘 위에 주름처럼 알이 나타나고, 싸라기만 한 조개가 나타난다. 이것이 양력 7월쯤 되면 육안으로도 보인다. 조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9월쯤 되면 종패를 채취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종패지만 잡아 소득을 올렸다. 어떤 해에는 종패가 아주 많이 생겨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종패가 너무 많아 잡아내야 조개가 자랄 수 있다.

산고래 해안에는 바위가 많았는데, 대천간척지 공사 때 가져다 제방을 만들었다.

산고래마을 해안에는 원래 큰 바위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천간척지 제방공사를 하면서 모두 가져갔다.

김순규 님은 초가지붕 만드는(헤이는) 기술자였다.

김순규 님은 초가지붕 만드는(헤이는) 기술자였다. 초가지붕을 새로 헤이려면 묵은 지붕을 걷어내야 했다. 대개 골지고 썩은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완전히 걷어내고, 새 짚을 가운데 꺾어 채워야 한다. 이때 굽드리[19]는 위로, 초리[20]는 아래로 가야 흘러내리지 않는다. 옆보다 좀 높게 채워야 나중에 평평하게 된다.

그 뒤 지붕을 깨끗하게 쓸어내고, 새끼줄을 약 1m간격으로 깐다. 이 새끼줄에 나래를

매달아야 흘러내리지 않는다. 썩지 않은 부분의 나래는 그대로 둔다. 그러면 매년 지붕이 두꺼워진다.

나래는 볏짚으로 엮는데 7~8뭇을 엮어야 1촉이 되고, 3칸 집을 헤이려면 50촉의 나래가 필요하였다. 나래는 1뼘 간격으로 촘촘하게 둘러야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다.

나래를 얹은 뒤에는 새끼줄로 묶고, 맨 위에 용구새를 올려놓았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소가 1일 일하면 사람이 2일 갚아야 했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소가 1일 일하면 사람이 2일 갚아야 했다. 소와 사람이 함께 와서 일하면 3일 품으로 갚아야 했다. 그래서 소를 기르지 않는 사람은, 소를 기르는 집에 가서 늘 일해야만 하였다. 소가 일한 품을 '쇠품'이라고 하였다.

김순규 님의 고모부는 감을 건너다가 사망하였다.

김순규 님의 고모부는 남포면 제석리에 살았다. 처갓집인 산고래를 다닐 때, 사리 때는 바다를 건너다녔다. 바다를 건너다니는 것을 '감 건넌다.'라고 하였다. 1960년대 말, 고모부가 약 50세 되었을 때, 저녁을 먹고 감을 건너 남곡리 쪽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바다 가운데 대천에서 내려오는 갯고랑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힘도 좋았고, 바다를 잘 알았으나 사망하였다.

팔봉 마을에는 대천간척지 때문에 외지에서 주민들이 들어와 거주하였다.

김순규 님의 처갓집은 팔봉마을에 살았다. 처갓집은 원래 서천군 판교면에 살았는데, 대천간척지를 막고, 논 한 다랭이씩 나누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팔봉마을로 이주하였다. 팔봉마을에는 이렇게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들만 거주하였다. 그래서 성씨도 제각각이었다.

팔봉마을에는 똑같은 집들이 있었다.

19) 볏짚의 아랫부분.
20) 볏짚의 윗부분

팔봉마을은 모두 간척지 때문에 이주해 온 마을이었고, 집도 모두 똑같았다. 모두 방 2칸에 작은 부엌이 있었고, 초가지붕이었다. 부속건물도 없어 불편하게 거주하였다. 축사도 없고 헛간도 없었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초상이 나면 밤정거를 해 주었고, 팥죽을 쑤어다 주었다.

산고래 마을에서는 초상이 나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 해 주었으며, 밤을 새워주었다. 3일장이나 5일장이나 상례를 치를 때까지 밤을 새워 주는 것이다. 밤을 상주와 함께 새우는 것이 상례를 잘 모시는 것으로 알았다. 밤정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주민들은 팥죽을 쑤어다 주었다. 팥죽은 부정을 막는 의미가 있고, 지친 상주들이 먹기에도 좋았다. 밤정거하는 주민들에게도 팥죽을 주었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한 점 예 (1930년생)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보령 웅천장 새우젓 상인의 생활



출생과 성장

한점예 님은 청주 한 씨로 웅천읍 대창리 한내마을에서 1930년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웅천 대창리로 이주하였고, 아버지는 한점예 님을 잉태한 지 3개월 만에 사망하여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큰집에서 식모처럼 살면서 1남2녀를 키웠다.

한점예 님은 집이 가난하여 나물 뜯고 우렁을 잡으면서 성장하였고, 초등학교에는 입학하였다가 1학년 때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였다.

16살이 되던 해, 올케언니의 권유로, 중매에 의해 대창리 접동굴 사는 31세의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나무장사, 머슴, 선원 등으로 일했고, 한점예 님은 장사를 시작하였다. 주산 장에서 생선장사 하는 것을 시작으로 웅천 장, 대천 장, 임수대장[21]등에서 젓갈장사를 오랫동안 하였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16살에 31살 총각과 결혼하였다.

한점예 님은 16살에 31살 먹은 총각과 결혼하였다. 중매는 비단장사하는 이모가 했다. 어린 나이인데, 올케언니와 싸운다고 일찍 보낸 것이다. 신랑은 접동굴에 살았고 가난하고 식구가 많은 집이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4명, 시누이 1명 등 총 10식구였다. 남편은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처지였다.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했고, 혼수도 농은 못하고 이불만 했는데 신랑이 부담하였다. 옷까지도 신랑이 사다 준 옷을 입고 갔다. 이렇게 혼수 일체를 신랑이 부담하는 것을 '싸간다'고 하였다. 신랑 집도 어려운 가정이었으나 마을 잔치는 하였다.

남편은 나무장사와 머슴살이를 하였다.

시집간 뒤 남편은 나무를 해다 팔았다. 집에 농토도 없고 비축된 식량도 없어, 매일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보리쌀 같은 식량을 구입하였다. 식구가 많아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택으로 머슴살이 갔다. 신랑이 머슴살이 간 뒤에는 나무하고, 식량을

21) 외산장

구입하는 일이 모두 한점예 님의 일이었다.

남편은 중선배의 선원이 되었고, 연평도에서 월경하여 징역살이도 하였다.

한점예님의 이종사촌 남편이 접동굴에서 중선배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점예 님의 남편은 중선배 선원이 되었다. 그런데 여느 중선배처럼 연평도에 가서 조기를 잡다가 그만 이북 쪽으로 월경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몇 개월간 징역살이를 하였다.

한점예 님은 이종언니와 같이 주산 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한점예 님과 이종언니는 중선배가 잡아온 고기를 주산 장에 팔았다. 웅천 장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 창피해서 못 갔고, 주산 장으로 갔다. 주산 장에서는 생선이 아주 잘 팔렸다. 생선은 모두 머리에 이고 다녔다.

한점예 님은 혼자 새우젓장사를 시작하였다.

한점예 님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살림이 어려워 새우젓장사를 시작하였다. 이종언니와 주산 장에서 생선을 팔았던 것이 큰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으로 새우젓장사를 시작하였다. 한 40세 되어서 시작했는데 웅천 장, 대천 장, 임수대장을 보았고, 물건은 광천에서 사왔다. 임수대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9일날 광천 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10일장인 임수대장에서 팔았다. 당시 임수대(외산)은 광산이 있어, 주민들이 많았고, 장사가 잘 되었다. 젓갈, 굴, 조개, 말린 생선, 주꾸미 등 뭐든 가져가면 다 팔았다. 많은 돈을 벌었다.

새우젓 장사 할 때, 기차에서 떨어져 3일 동안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

한점예 님은 기차를 타고 대천 장을 보러 가다가 떨어져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 당시에는 기차의 오르내리는 문을 닫지 않고 다녔는데, 대천에 거의 다다를 무렵, 빨리 내리기 위해 여러 다라를 문 앞에 내놓다가 그만 다라와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진 곳이 망대 밖이라 기차의 속도가 빨랐을 때라 많이 다쳤다. 머리가 깨져 의식을 잃었고, 대천제일병원에 입원하여 3일 만에 의식을 찾았다. 본인 잘못이라 보상도 받지 못했다.

바다에 나가 굴을 따고 조개를 잡아 팔기도 하였다.

한점예 님은 바다에 나가 굴도 따고 조개를 잡아 팔기도 하였다. 완장포 배턱에서는 민물조개인 재첩을 잡아 팔았고, 소의섬에서는 굴을 따다 팔았다. 그리고 광암 앞바다나 소의섬 근처에서는 대합을 잡았다. 대합은 그랭이로 잡았는데, 그랭이를 허리에 매고 물속에서 잡아당겨 대합을 잡았다. 대합 잡는 일은 위험하였다. 대합 잡는 데 열중하여 늦게 나오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 한때는 대합 치패(대합 종패)를 잡아 팔기도 하였다.

돈은 남편과 아들이 없앴다.

한점예 님은 많은 돈을 벌었으나, 남편이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바람에 모두 날리고,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까지 없앴다. 많은 돈을 벌었으나 현재는 가난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웅천 장을 큰 다리 밑으로 옮겼다.

웅천 장은 날이 가물면 큰 다리 밑으로 옮겼다. 주로 면사무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때는 모든 장사가 다 큰 다리 밑으로 옮겼다. 한점예 님 기억으로 3번 옮겼다.

기우제는 제물을 차리고 축을 읽으면서 지내기도 하고, 상인들이 간간히 물속으로 들어가 키로 물을 까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었다. 농악대는 풍물을 쳤다. 풍물패는 남자들이었으나 물속에 들어가 물을 까부르거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들이었다. 보령지방의 기우제는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지냈다.

한내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정자나무 제를 지냈고, 성황제도 지냈다.

웅천읍 대창리 한내마을에는 초가로 지은 산제당이 성동리 가는 쪽에 있었고, 정월 열나흗날 마을 어른들이 산제를 지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에도 제를 올렸다. 성황당은 성동리로 가는 길가에 있었는데, 마을에서 지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제를 올렸다.

한내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큰 다리 밑에서 지냈다.

한내마을에서는 날이 오래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낸 장소는 큰 다리 밑이

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큰 다리 밑, 냇물에서 지냈다. 집에서 쌀 까부르는 키, 수수비, 바가지 등을 가지고 가서 물을 까불러 비오는 흉내를 내고, 키에 물을 묻혀 수수비로 닦아내면서 비오는 소리를 내면서, 바가지로는 물을 떠 끼얹었다. 비오는 소리나 흉내를 낸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풍물을 가져가 쳤다. 가락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냥 친 것이다. 기우제는 주로 여자들이 가서 지냈다.

한점예 님 어머니는 미륵모퉁이 미륵에 매월 치성을 드렸다.

한점예 님의 어머니는 매월 초사흗날에 미륵모퉁이에 있는 미륵에 치성을 드렸다. 쌀 한 되를 빻아 떡을 하고, 삼색실과, 나물 등 제물을 준비하여 극진하게 제를 모셨다. 자손들, 특히 독신 아들이 건강하고 잘 되라고 한 것이었다.

미륵의 코를 떼어다가 끓어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고, 한점예 님의 어머니는 망치로 코를 떼다가 백지에 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였다.

한점예 님은, 미륵 옆에 있던 채석장에서 돌이 날아와 미륵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믿고 있다.

완장내의 중선배에서는 늘 제를 올렸다.

완장내에 있던 중선배에서는 매월 초사흗날 제를 올렸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등이었다. 출어할 때도 제를 올렸다.

6.25당시 비행기가 큰 다리를 끊는 것을 보았다.

한점예 님은 6.25당시 비행기가 큰 다리를 끊는 것을 보았다. 비행기 몇 대가 빙빙 돌면서 폭탄을 투하하여 큰 다리를 끊었다. 폭탄이 인가 근처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큰 다리 근처에는 집이 없었고, 온통 밭이었다.

새우젓장사는 육젓이 맛있고 좋았다. 새우젓은 오젓, 육젓, 추젓이 있다.

한점예 님이 새우젓장사를 시작한 것은 이종언니네 중선이 잡아온 육젓 때문이었다. 당시 중선배가 나갈 때,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새우젓 독을 싣고 나가 새우젓을 담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맛이 좋았다. 그래서 새우젓 장사를 시작하였다.

새우젓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음력으로 5월에 잡은 것은 오젓, 6월에 잡은 것은 육젓, 가을에 잡은 것은 추젓이다. 오젓은 껍질이 부드럽고 김장하기 좋으며, 육젓은 껍질이 단단하고 살이 쪄 최고의 맛이다. 추젓은 어린 새우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았다.

뚝새우젓은 노린내가 난다.

군산에 가면 가을에 잡는 뚝새우가 있다. 뚝새우는 새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작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 산다. 젓을 담으면 노린내가 난다.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들 담으나 맛이 없고, 김장하는 데도 좋지 않다.

독산에서는 자하와 곤쟁이가 나온다.

가을이 되면 웅천읍 독산리 앞바다에서 자하가 잡혀 젓을 담는다. 아주 작은 새우로 육젓을 만드는 새우와는 종류가 다르다. 아주 맛이 있고, 익으면 붉은 빛을 띤다. 치매와 암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슷한 것으로 곤쟁이가 있는데, 익으면 검을 빛을 띤다. 맛은 비슷하고 값은 같다. 한점예 님은 독산 주민들한테 사서 판다. 서울에서 단골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

옛날에는 쓰리 꾼(소매치기)이 많았다.

옛날에는 웅천 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붐볐다. 서로 비비고 다닐 정도였다. 그래서 쓰리 꾼(소매치기)이 많아 장꾼들 주머니를 털었다. 면도칼로 주머니를 찢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점예 님은 대천 장을 보고 기차를 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기차를 타지 않고 쫓아가자, 돈을 버리고 가서 찾은 적도 있었고, 외산 장에서 돈 통을 노리는 소매치기를 물리친 적도 있었다. 기차에서나 버스, 시장 안 등 곳곳에 소매치기가 많았다.

새우젓은 소금을 3:1로 넣어 담았다.

새우젓을 담을 때는 잡고기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골라내고 바닷물로 씻어 소금에 버무려 담았다. 소금은 3:1로 넣었는데, 새우 3바가지에 소금 1바가지를 넣었다.

꼴뚝젓은 재간해서 담았다.

꼴뚝젓은 두 번 절여 담았다. 먼저 먹통을 따고 소금에 절였다가 바닷물이나 소금물로 씻어 다시 소금에 절인다. 먹을 때는 썰어서 민물에 씻어 무쳐 먹는다. 이때 민물에 담그지 않고 씻어서 양념해야 한다. 양이 많을 때는 먹통을 따지 않고 그대로 절였다.

박대젓은 그대로 담아 껍질을 벗겨 먹었다.

박대젓은 배도 따지 않고 그대로 소금에 절여 담았다. 새우젓처럼 3:1로 소금을 넣어 담았다.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고 민물에 씻어 회로 무쳐 먹었다.

장대젓은 소금을 많이 넣어 담는다.

장대젓은 다른 젓보다 소금을 더 많이 넣는다. 장대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알이 붙어있는 채로 소금에 세게 절인다. 장대를 민물에 씻으면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씻지 않고 그대로 절였다가 먹을 때는 뜨물에 담갔다가 양념을 해서 쪄 먹는다. 1년 지난 뒤에 먹으면 아주 맛있다.

갈치젓은 무쳐 먹기도 하고 김장하기도 한다.

갈치젓은 작은 갈치로 담는다. 풀치라고 불리는 작은 갈치의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한 뒤 씻지 않고 그대로 소금에 절인다. 이때 소금은 3:1 비율이다. 익은 뒤에 썰어 무쳐 먹어도 좋고, 젓국으로 김장해도 맛이 좋다.

조기는 대가리에 소금을 많이 넣어 빳빳하게 절였다.

옛날 중선배가 조기를 잡아오면 빳빳하게 절여 팔았다. 대가리에 소금을 많이 넣어 빳빳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이 비지밥이 되어 팔 수 없었다.

광어젓은 아주 맛이 있었다.

광어를 젓갈로 만들면 아주 맛이 좋았다. 좀 잘잘한 광어를 사다가 내장만 빼고 3:1비율로 소금을 넣고 담는다. 1년은 지나야 먹을 수 있는데, 건더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젓국

을 내어 먹는다. 김장을 해도 아주 좋다.

멸치젓보다는 까나리젓이 좋았다.

한점예 님에 의하면, 멸치젓은 기름기가 있어 좋지 않았고, 오히려 까나리젓이 좋았다고 한다.

조개젓은 재간해서 담았다.

한점예 님은 조개젓을 재간해서 담아 먹었다. 생으로 깐 바지락을 소금에 절였다가 소금물로 씻어 다시 소금을 넣고 젓을 담는 것이다. 그래야 미끈미끈한 것이 없어지고 맛이 좋았다. 먹을 때는 민물로 씻지 않고 그냥 양념해서 먹었다.

굴도 소금에 절였다가 어리굴젓으로 담아 먹었다.

한점예 님은 굴을 어리굴젓으로 담아 먹었다. 어리굴젓은 깐 굴을 소금에 절여 1주일 정도 익혀 씻어 바쳐 놓았다가, 물에 불린 마른고추, 마늘, 생강을 갈아 양념하여 먹는 것이다.

갈치속젓은 중선배에서 담는데 최고 맛이 좋은 젓갈이었다.

갈치속젓은 갈치 내장으로 담는 젓갈이다. 중선배에서 갈치를 많이 잡을 때, 내장을 빼서 담는데, 이물질을 훑어 제거하고 모아 3:1비율로 소금에 절인다. 한점예 님이 기억하는 한 가장 맛있는 젓갈이다. 중선배가 출어할 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면 화장[22]이 특별히 담아준다.

한점예 님은 북어와 옻나무를 넣고 장을 담았다.

한점예 님은 매년 3~5말의 장을 담았다. 장을 담글 때는 삶은 콩을 찧어 메주를 만들어 매달아 말렸다가 따뜻한 방에서 약 10일간 띄운 다음, 다시 말려 두었다가 음력 정월 초 닷새날이나 엿새날로 날을 잡아 담았다.

22) 배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선원

장을 담을 때는 황태를 댓 마리 찔러 넣고, 위에는 옻나무를 잘라 넣는다. 숯이나 고추, 깨소금도 넣는다. 이렇게 한 달이 넘으면 발효가 되는데, 이때 옻나무는 꺼내 버리고, 메주는 소금을 넣고 치대어 항아리에 담는다. 이것이 된장이 된다. 이때 황태는 된장의 밑바닥에 찔러 둔다. 맨 위에는 소금을 덮고, 천을 덮은 후, 파리가 꼬이지 못하도록 베 보자기를 덮는다. 이렇게 담은 된장은 1달쯤 뒤부터 먹을 수 있다. 옻나무를 넣었어도 옻오르는 사람은 없었다.

간장은 메주를 분리할 때 끓여 담아두는데, 당일부터 먹을 수 있다. 묵은 간장을 섞지는 않았다.

고추장은 주로 찹쌀로 담아 먹었다.

한점예 님은 고추장도 담아 먹었는데, 주로 찹쌀로 만들었다. 고추장을 만들려면 먼저 메주를 쑤어야 된다. 메주를 쑤면서 위에 쌀가루를 반죽하여 놓고 찐 뒤, 콩과 쌀떡을 함께 섞어 절구에 찧어 둥글게 만들어 약 3일간 띄운다. 이후 말려 두었다가 가루로 만들어 고추장을 담는다.

고추장을 담을 때는 찰밥을 하여, 엿기름으로 삭힌 후,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치대서 만든다. 이때 꿀을 넣으면 맛이 좋았다. 만들어진 고추장은 장독대에 놓고 햇볕을 쬐어 익혔다. 당장도 먹을 수 있었지만, 1달쯤 지나면 더 맛이 있었다.

마늘로 마늘고추장을 담아 먹었다.

한점예 님은 마늘고추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다. 마늘고추장은 생마늘을 갈아놓고, 거기에 액젓, 소금, 꿀, 고춧가루를 넣어 치대어 만든다. 마늘고추장은 젓국이 꼭 들어가야 한다. 삭힐 것도 없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맛이 좋다.

된장에다 각종 장아찌를 박았고, 무장아찌는 간장으로 만들었다.

한점예 님은 된장의 윗부분 등 먹지 못하는 된장을 모아 장아찌를 박았다. 장아찌는 깻잎, 참외 등이었다. 참외는 소금에 절여 꾸덕꾸덕 말렸다가 된장에 박았다. 장아찌를 막으면 된장은 버리게 된다. 무장아찌는 끓인 간장에 담아 먹었다.

옛날에는 조기젓국을 끓여 먹었다.

옛날에는 조기젓국을 끓여 먹었다. 조기젓국은 쌀뜨물에 절인 조기를 넣고 끓이는 것인데, 파, 고춧가루 등 양념을 해서 먹었다. 노인들이 특히 좋아하였다.

요즈음은 새우젓도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즈음은 중국에서 새우젓도 수입한다. 중국 새우젓은 암염으로 절여 담았기 때문에 쓴 맛이 나고, 방부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대량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싼 맛으로 사간다. 국산이 킬로에 2만원이면, 중국산은 만원이다.

한점예 님은 혼자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어다 땠다.

한점예 님이 분가해서 살 때, 남편은 머슴으로 나가고 한점예 님이 나무를 해다 땠다. 뒷산에서 나무를 하지만, 묶어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였다. 나무를 묶을 때는 줄을 3가닥으로 늘어놓고, 위에 거친 나무를 놓은 후, 솔가루 같은 나무를 쌓고 묶었다. 큰 원기둥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바위 위에 만들어야 했다. 바위 위에서 세우고, 사람 있는 곳으로 넘어뜨리면서 머리에 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무겁고 큰 것을 머리에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묶은 나무를 바위에 올려놓고 혼자 머리에 일 수 있었다. 집에 올 때까지 쉴 수도 없었다. 쉬면 다시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글씨는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외워 외상을 주었고, 물건 값 계산은 스스로 터득하였다.

한점예 님은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여 한글도 모르고, 산수도 배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새우젓장사는 아주 잘했다. 외상도 주었는데, 노트에 적을 수가 없어 그대로 외웠다가 받았다. 계산도 배우지 못했으나 물건 값만큼은 더하기, 곱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혼자 터득한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수로 빚을 내 사용하였는데, 50일 만에 이자가 20%였다.

한점예 님은 일수 빚을 얻어 사용하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수로 돈을 빌려 장사하였다. 일수로 얻으면 이자가 매우 비쌌다. 10만원을 빌리면, 1장(5일)이 지나면 1만원을

갚고 이자로 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10장(50일)이면 원금 10만원과 이자 2만원을 주는 것이다. 50일 만에 20%의 이자를 주는 것이다. 매우 비싼 이자였다.

웅천 장에서 일수 돈놀이를 한 사람은 조모 씨였다. 그는 부인을 3명씩 두고 일수놀이를 하였다.

웅천의 장사꾼들은 장차를 타고 다녔다.

옛날 5일장이 잘 될 때는 웅천 읍내에 장차라는 트럭이 있었다. 장차는 웅천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짐을 싣고 다른 장으로 가는 것이다. 비인 장, 판교 장, 임수대장 등에 가는 짐과 사람을 싣고 돈을 받는 것이다. 운전수가 짐의 양에 따라 운임을 받았다.

장짐 위에 사람도 탔는데, 지서 앞을 지날 때가 문제였다. 임수대장에 갈 때는 도화담 지서가 문제였다. 이때 장사꾼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보자기를 둘러쓰고 타기도 하였다.

한점예 님은 임수대장만 보았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혼자 트럭을 불러(독차) 가기도 하였다.

완장포에는 창고도 있었고, 배를 묶어두는 말뚝도 있었다.

완장포에는 중선 여러 척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창고가 2개쯤 있었다. 창고에는 주로 새우젓독 같은 것을 저장하였다. 배가 들어오면 묶어두는 시멘트 말뚝도 있었다. 여느 포구와 같았다.

박대 껍질로 우무를 만들어 먹었다.

과거 무창포에서 많은 박대가 나왔다. 한점예 님은 무창포에서 박대를 사다가 하룻밤 절였다가 껍질을 벗겨 엮어 팔았다. 이때 껍질이 많이 모이는데 이걸 말렸다가 우무를 만들어 먹었다.

우무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말린 박대껍질을 물에 담갔다가 빤다. 빨래를 빨 듯 치대고 주물러 빨아서 솥에다 넣고 끓인다. 이때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되고, 밥물을 붓 듯 조금만 부어야 한다. 끓인 후 양파 생강 같은 양념을 넣고 끓인다. 그러면 박대껍질이 녹는데, 이것을 시아(보자기)에다 짜고, 고운체로 받힌 뒤, 참기름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솔아 탱

글탱글한 우무가 된다.

복어는 손질을 잘 해서 말렸다.

한점예 님은 복어를 손질해서 말렸다가 먹었다. 복어는 내장과 피에 독이 있으므로 손질을 잘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우선 복어를 머리에서부터 꼬리 쪽으로 갈라 내장을 완전히 빼낸다. 이후 아가미를 제거하고, 눈을 제거한 뒤, 등에 붙은 피를 떼어낸 후, 소금으로 버무려 깨끗하게 닦아낸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복어를 말려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검은색의 복어보다 노란 복어가 더 맛이 좋았다.

중선배가 가져오는 꽃게장이 맛있었다.

한점예 님의 기억으로, 중선배가 담아오는 꽃게장이 아주 맛있었다. 옛날 완장포에 중선배가 들어올 때, 중선배들은 꽃게를 잡아 장을 담아오기도 하였다. 완장내 중선배들의 꽃게장은 꽃게의 딱쟁이를 열고, 소금을 넣은 후 닫아 가마니에 담아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먹을 때는 민물에 씻어 양념으로 무쳐 먹는데 정말 맛이 있었다.

메주에 김치 국물 등을 넣어 삭혀서 쩜장을 만들어 먹었다.

한점예 님은 쩜장을 담아 먹었다. 쩜장은 마른 메주를 빻아 솥에 넣고, 무, 김치, 김치 국물 등을 넣어 삭힌 후 끓여 만들었다. 많이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무릇에 쑥과 수리치를 넣어 고아 먹었다.

한점예 님은 무릇을 고아 먹었다. 무릇은 양지바른 묘지 같은 데에 많이 나왔다. 창으로 캐면 알뿌리가 나왔고 이것을 다듬고 씻어 고아 먹었다. 우선 무릇을 1말쯤 캐면 깨끗이 씻어 삶고, 물을 버린 뒤 다시 은근한 불로 졸인다. 이때 솥의 가장자리에 쑥이나 수리치를 삶아 넣고, 쑥이 없으면 시래기를 삶아 넣고 졸인다. 옛날에는 졸일 때 엿기름물을 넣고 함께 졸였으나 함점 예님은 당원을 넣었다. 사카린은 쓴맛이 있어 당원을 넣었다. 약한 불로 3일을 졸이면 맛이 좋았다.

옛날 가난한 집에서 무릇을 고아 먹었고, 이웃집에 나누어 주면 보리나 쌀 같은 곡식으

로 보답하기도 하였다. 아주 맛있는 별식으로 근래까지도 시장에서 팔았다.

상수리 묵은 떫은 맛을 빼고, 갈아 쑤었다.

한점예 님은 상수리 묵을 잘 쑤었다. 상수리를 주워오면 껍질을 까서 빻아 시루에 담아 떫은 맛을 뺀다. 시루 밑에 짚을 깔고, 상수리 빻은 것을 넣은 후, 수시로 물을 부어 떫은 맛을 뺀다. 이후 맷돌에 갈아 자루에 짠 후, 가만히 두면 녹말이 가라앉는다. 이때 위에 있는 물을 버리고 녹말만 채취해서 끓이면 묵이 되는 것이다. 이 녹말을 말렸다가 나중에 묵을 만들 수도 있다. 녹말과 물의 비율은 1:3으로[23]해야 맛있는 묵이 될 수 있다. 마른 녹말로 묵을 만들 때에는 녹말가루를 보자기에 넣어 치대면서 풀어야 쫄깃한 묵을 만들 수 있었다.

<인터뷰어_ 황의호>

23) 다른 사람은 1:6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황 춘 연 (1942년생)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의 어업



출생과 성장

황춘연 님은 장수 황 씨로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에서 4남 2녀중 셋째 아들로 1942년에 태어났다. 광암마을은 장수 황 씨 집성촌으로 최고 100여 호가 거주하였고, 타성은 박씨로 3가구에 불과하였다. 마을 안에는 장수 황 씨의 정문이 2개나 있었고, 큰 은행나무가 3개나 있었다.

아버지는 어업과 농업을 하였고, 논이 몇 마지기 있었으나 10여 명의 가족 때문에 늘 식량이 부족하였다.

황교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난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고 아버지와 함께 어업과 농업을 하였다. 29세에 이웃마을 처녀와 결혼하여 1남 3녀를 낳았다.

논은 수문 안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개답한 논이었다.

황춘연 님 집에서 농사 짓던 논은 무성굴 마을 앞 수문 안에 있었다. 이곳은 옛날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할아버지가 둑을 막아 개답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들의 마지막 논이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넘쳤고, 홍수 때에는 물에 잠겨 농사 짓기 힘들었다. 수확량도 많지 않았다.

광암마을의 정문은 황인갑 씨가 관리하였다.

광암마을에는 장수 황 씨의 정문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황정직의 정문이고, 하나는 황유업의 정문이었는데 관리는 황유업의 종손인 황인갑 씨가 하였다. 주변에 있던 은행나무도 황인갑씨가 관리하였다. 이들 정문은 공군사격장 때문에 웅천읍 대창리 접동굴 장수 황씨 묘지 앞으로 옮겼다.

광암마을에는 3개의 바위가 있었다.

광암마을에는 삼형제바위라고 하는 3개의 큰 돌이 밭에 있었다. 납작한 돌이었는데, 밭을 일구면서,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둔 돌이었다. 마을에서는 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광암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바위 때문인지는 마을 주민들도 알지 못한다.

공군사격장 때문에 이주한 뒤, 논으로 만들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묻었는데, 포클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크기였다. 뿌리가 없는 납작한 돌이었다.

광암마을에는 돌이 많았다.

광암마을에는 돌이 많았다. 어디든 건드리면 돌이 나왔고, 주민들은 돌이 많기 때문에 광암(廣岩)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도 하였다. 돌은 모두 둥근 자갈이었다.

광암지역은 지리적으로 단구지형에 해당되어 둥근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담자 의견)

광암마을은 농업용수 때문에 고생하였으나 청천저수지 물이 넘어오면서 해결되었다.

광암마을은 냇물도, 저수지도 없어 농업용수 때문에 고생하였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이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웅천읍 노천리 두루 다리에서부터 4km에 이르는 구간에 경운기로 돌리는 양수기 5대를 놓고 양수하여 물을 대기도 하였다. 원전재를 넘기는 일이었는데 너무 힘들어 단 1번만 시행하였다. 당시 오두희 씨가 이장이었고, 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죽청리에서부터 황교리에 이르는 구간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청천저수지 물이 공급되어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되었다.

서오개 마을 앞에는 겨울에만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었다.

광암 마을 앞들에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서오개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었다. 이 저수지의 수심은 약 1~1.5m 정도었는데, 겨울에만 물을 저장하였다. 가을에 농사를 마치면 저수지의 수문을 닫아 물을 저장했다가 이듬해 봄, 모내기철이 되면 개방하여 아래 논에 모를 심고, 저수지 바닥에도 모를 심었다. 이후로는 저수지 기능은 없어지고 논이 되어 농사 짓는 것이다.

이 저수지도 제방이 있었고, 문틀은 시멘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판자를 끼워 수위를 조절하였다.

이 저수지는 겨울철에 마을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는 놀이터가 되었다. 겨울 동안만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많지 않았다.

황춘연 님이 아버지와 함께 잡은 고기는 주로 숭어, 도다리, 꽃게였다.

황춘연 님이 젊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어업에 종사했는데, 주로 잡은 고기는 숭어, 도다리, 꽃게였다. 숭어는 겨울에 잡았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잔잔한 날, 썰물이 되면 바닷가에 그물을 펼치고, 안으로 들어가 삿대로 물을 두드리면 숭어 떼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당시 숭어는 맛도 좋았고,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고기였기 때문에 비싸게 팔렸다. 요즘은 바다가 오염되어 숭어 고기의 맛이 없어졌다.

옛날 그물은 목실로 만든 것이었고 귀했다.

옛날, 황춘연 님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목실로 만든 것이었다. 상당히 귀한 것이었고, 사다가 사용했다. 그물이 질기고 뻣뻣해지도록 물을 들였는데, '갈들인다'고 하였다. 특히 꽃게를 잡을 때는 갈을 들여야 뻣뻣하여 게를 떼기 좋았다. 갈도 사다가 사용하였다.

나일론 그물이 나온 뒤부터 그물을 흔하게 사용하였다.

음력 2월에 주로 용섬 근처에서 도다리를 잡았다.

음력 2월이 되면 도다리를 잡았다. 잡은 곳은 용섬 근처인데 바다가 낮아 불과 10여m 되었다. 이렇게 낮고 모래로 된 바다에 도다리가 많았다.

어장은 산 가늠으로 찾아다녔다.

옛날 바다에서 어장을 찾아다니기가 어려웠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은 산 가늠이었다. 육지의 어떤 산과 바다의 어떤 섬이 겹쳐지거나, 섬과 섬이 겹쳐지는 모양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렇게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산 가늠이다. 가늠으로 찾아가는 것이지만 정확하였다.

황춘연 님은 황지기, 동백정 등을 산 가늠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대하를 잡기 위해 외연도에 가기도 하였다.

대하를 잡기 위해 외연도 같은 먼 바다에 가서 조업하기도 하였다. 대하는 봄에도 잡고 가을에도 잡는데, 봄 대하는 연안에서 잡고 가을 대하를 잡기 위해 외연도에 갔다. 외연도에 가면 대략 10일 정도씩 묵으면서 잡았다. 배에서 자고, 잡은 대하는 상고선에 팔았다.

겨울철에는 숭어를 잡기 위해 녹도나 원산도에 가기도 하였다. 숭어는 잔잔한 겨울날 낮은 해안에서 잡았다. 겨울에는 숭어가 뭉쳐 다녔다.

꽃게는 연안에서 잡았다.

꽃게는 도다리보다도 더 가까운 바다에서 잡았다. 종달산 앞에서도 잡았는데, 낮은 바다라 꽃게가 작았다. 좀 더 큰 꽃게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밖으로 나가야 했다. 작은 배들은 종달산 앞에서도 꽃게를 잡았다. 옛날에는 배가 작고 낡아,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면서 다닐 정도였기에 먼 바다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옛날 완장포에서도 중선배를 지었다.

과거에는 웅천읍 대창리 완장포에서 중선배를 지었다. 정창호와 정태호 씨 형제가 완장포에서 중선배를 지어 조업하였다.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은 새로 배를 짓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배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돛단배였고, 1970년대부터 기계배를 이용하였다.

광암마을 어선은 뱃마티나 과녀쭉뿌리에 대었다.

광암마을에서 운영하던 배는 석진개 너머, 구진쪽에 댔는데 뱃마티라고 불렀다. 방파제 시설은 없었으나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어 파도가 없었다. 태풍이 불어도 뱃마티는 안전하였다. 조금때는 뱃마티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갯골과 맞닿는 과녀쭉뿌리에 댔다.

광암마을의 어선들은 아무 때나 출어할 수 없었다. 뱃마티에 물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뱃마티에서 물이 빠지기 전에 출어하였다. 어떤 때는 출어하여 바다 가운데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잡은 고기는 주로 웅천 장에 팔았다.

광암마을 어선이 잡은 고기는 주로 웅천 장에 내다 팔았다. 어지간하면 완장내까지 들어와 리어카에 싣거나 지게에 지고 웅천 장에 가져다 팔았다. 웅천 장에서 경매는 하지 않았지만 장사꾼들이 있어 팔 수 있었다. 완장내까지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뱃마티에서 지게에 지거나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웅천 장에 내다 팔았다. 먼 거리라 가급적 완장포까지 배로 들어왔다. 옛날 완장내에 들어온 배들은 10여 척 되었는데 모두 광암이나 무성굴 배들이었다.

고기를 특별히 많이 잡으면 무창포항이나 홍원항으로 들어가 경매에 부쳤다.

중선배들은 연평도를 오가면서 조기를 잡았고 선원들이 납북되기도 하였다.

옛날 중선배들은 웅천읍 대창리 사람들이 운영하였다. 이들 중선배는 사리 때 나가 조업하다가 조금 때 들어왔는데, 먼 바다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다. 조기를 잡기 위해 연평도까지 갔다. 연평도에서는 납북되는 경우도 많아서, 몇몇 사람들은 이북에 납북되었다가 풀려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도 있다.

부사지구방조제 건설로 황교리의 어선어업은 중단되었다.

황교리 광암마을과 무성굴 마을 주민들이 하던 어선어업은 부사지구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중단되었다. 당시 홍원항이나 무창포항으로 이동하여 사업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고 어업을 그만두었다.

황교리에서는 은포리 사람이 김 양식을 하였다.

황교리 마을에서는 1970년경, 주교면 은포리 사람이 와서 김 양식을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김 양식을 할 줄 몰랐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도 따라하게 되었는데, 마을 앞 갯벌에서는 못하고, 웅천천이 흘러내리는 갯골의 볼때기에서 주로 하였다. 수심이 깊어 노출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김은 품질이 좋아 잘 팔렸다.

황춘연 님도 20떼를 맸는데 장소가 부족하여 무조건 넓힐 수도 없었다.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었고, 양식장을 넓히려면 개인 간에 거래하여 사서 넓혔다. 어촌계는 현재도 남아있다.

부사지구 간척지에는 벼와 함께 콩을 심고 있다.

황교리 어촌계원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우대를 받아 부사지구 간척지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요즈음은 벼농사만 짓지 못하고 휴경을 하거나 콩을 심고 있다. 대략 절반은 벼를 심고 절반은 콩을 심고 있다. 국가에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리 마을의 갯벌에서는 대합과 가막조개를 그랭이로 잡았다.

황교리 마을 갯벌에는 바지락은 없고 대합과 가막조개만 있었다. 민물이 섞이는 곳이라 대합조개가 특히 많았는데 그랭이로 긁어 잡았다. 가까운 바다는 조개가 작았고 먼 바다에 나가면 조개가 컸다. 대합은 값이 비싸 황교리 주민들의 큰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그랭이로 잡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는 없었다. 하루에 불과 한두 됫박을 잡았고, 몬돌자리라고 불리는, 몰려있는 곳을 만나면 1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사철 잡았는데 봄에 영글어 맛이 좋았다.

황교리 주민들은 과거 대합의 치패를 잡아 돈을 벌었다.

대합 조개는 여름이 되면 산란하여 어린 치패가 생겼다. 치패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황교리 앞바다에 많았는데, 그랭이에 모기장을 달아 긁어 잡았다. 육안으로 보면 모래가 많았고, 치패가 섞여 있었지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을 수 있었다.

치패는 전라도 지방에서 자루에 담아 배로 실어갔고, 치패를 마을 주민들로부터 모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일반인도 하루에 10만원은 벌었고, 모아주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한 3년 동안 치패를 잡아 돈을 많이 벌었다. 당시 모래를 팔아 돈을 번다고 하였다.

황교리에는 대합양식장과 가무락양식장이 있었다.

황교리 갯벌에서 대합이 많이 잡히자 외지의 자본가들이 양식장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갈릴리양식장인데, 양식장 관리를 위해 지은 집이 현재 구진 황의송 씨가 사는 집이다. 가무락도 양식을 하였는데 양식장은 배랑모랭이라고, 현재 양수장이 있는 곳이다. 양식장을 해서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광암마을 주민들은 공군사격장 때문에 이주하였고, 농사는 그대로 짓고 있다.

광암마을은 공군사격장에 2차로 편입되었다. 1차로 편입된 곳은 소황리 지역이었고, 광암마을은 한 3년 후에 2차로 편입되었다. 1차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서 당진으로 집단 이주시켰으나, 광암마을 주민들은 보상만 해 주었을 뿐 이주는 신경 써 주지 않았다. 스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공군에서는 이주만 하고 농지는 그대로 경작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대표자를 뽑아 전남 영광에 있던 옛 사격장에 가 보았다. 주민들이 이주한 뒤에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주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보상받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에서 울타리를 친 곳은 들어갈 수 없어 경작할 수 없다. 경작권이 없어진 것이다.

광암마을 주민들은 함께 장안마을로 이주하였다.

광암마을 주민들은 22가구가 함께 모여 이주하였다. 이주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래를 생각하여 바닷가로 가기로 하였고, 부사지구 간척지 제방 옆에 있는 장안마을로 가기로 하였는데 한양대학교 땅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땅을 관리하던 사람은 무창포에 사는 임흥빈 씨여서 대화하였으나 진척되지 않아, 당시 시의원이었던 백일기 씨가 직접 한양대학교를 방문하여 해결하였다.

한양대학교로부터 땅을 구입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분배하였는데 1가구당 80평씩 분배하였다. 당시 이장은 황두철 씨였고 고생이 많았다. 80평을 대지로하여 보상금과 주택자금 5000만원씩을 대출받아 좋은 집을 지었다. 당시 이주한 22가구 중 장수황씨가 20가구, 타성은 2가구뿐이었다. 이곳에서 20년을 거주한 후 다시 이주하였다.

장안마을에서는 해수욕장을 열었다.

장안마을은 소황사구 옆이어서 모래장벌이 좋아 여름이면 해수욕객이 모여들었다. 첫해에는 그냥 지났으나 다음 해부터는 마을에서 시설을 하고 자릿세를 받기로 하였다. 마을의 부녀회가 나서 그늘막을 만들어 자릿세를 받고, 음료수 등을 팔아 돈을 벌었다. 1년이면 1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짭짤한 수입이었다.

장안마을 앞바다에는 해산물이 많았다.

장안마을 앞바다, 즉 부사지구 간척지 제방 너머는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밀조개, 골뱅이, 개불 등이었는데, 특히 밀조개가 아주 많았다. 밀조개는 모래가 들어있어 먹기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해감을 잘 하면 아주 맛이 좋았다. 이런 밀조개를 대량으로 잡아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소황사구 안쪽에 있는 석호인 마름둠벙에는 메기가 살았다.

소황사구 안쪽에 있는 석호를 마름둠벙이라고 불렀는데, 예부터 아주 깊어 명주꾸리가 3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장안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가뭄을 이용하여 양수기로 품어 보았다. 품어보니 1길 정도 깊이였고, 가운데에는 뻘이 많이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뱀장어가 많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한 마리의 뱀장어도 나오지 않았고, 붕어나 미꾸라지도 없었다. 다만 몇 마리의 메기만 나왔다.

장안마을에서 다시 황교리 무성굴로 이주하였다.

장안마을로 이주하여 거주하는데,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포탄이 밭에 떨어졌고, 모형이라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장안마을 주민들은 다시 함께 옮기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원래 살던 광암마을과 가까운, 무성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 토지는 원래 산이었었는데 대산건설에서 흙을 채취하여 평평하게 된 땅이었다. 땅도 넓어 가구당 200여 평씩 분배할 수 있었고 가격은 대략 평당 20만원 정도였다. 처음 구입비는 저렴하였으나 대지와 도로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 비싸졌다.

주민들은 7000만원씩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아주 좋은 집을 지었다. 넓은 대지에 좋은 집을 지어 2013년경 이주하였다. 20가구 중 타성은 3가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장수 황씨였다. 장수 황씨는 광암마을에 살 때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장안마을에서도, 무성굴로 다시 이주하면서도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광암마을 주민들은 흉년에 고구마를 많이 먹었고, 겨, 독사풀씨, 나문재 등도 먹었다.

흉년에 광암마을 주민들도 고생하였다. 고구마를 심어 끼니를 때웠고, 겨를 볶아서 먹거나, 독사풀씨를 먹기도 하였다. 독사풀씨는 바가지로 훑어 볶아 먹었다. 보릿가루처럼 만들어 먹은 것이다. 나문재는 바닷가에서 뜯어 밀가루와 섞어 쪄 먹었다.

광암마을은 바닷가라 해산물을 먹고, 나물을 뜯어먹어 흉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

광암마을 두레는 부잣집 논 맬 때 하였다.

황춘연(1942)님의 기억으로는 광암마을에서 행하던 두레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논을 맬 때 두레처럼 한 경우는 있었다. 부잣집이었던 황의태 씨 댁에서는 논을 매려면 일꾼을 20명 정도 얻고, 풍물치는 사람도 얻어, 논둑에서 풍물을 쳐 가면서 맸다. 개인의 논을 매면서 마을 두레처럼 한 것이다. 술을 먹고 풍물을 치면서 흥겹게 일했기 때문에 일이 거칠어, 풀을 뽑지 않고 밟고만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황의태 씨 집에서는 으레 풍물을 치면서 논을 맸다.

광암 마을의 방앗간은 이주하기 전에 폐쇄되었다.

광암 마을에도 여느 마을처럼 방앗간이 있어, 보리 탈곡을 하고, 벼 탈곡을 하였으며 각종 방아를 찧었으나, 소규모 방앗간이 없어질 때 함께 없어졌다. 처음 방앗간을 지은 사람은 황의신 씨였고, 다른 사람이 사서 운영하다가 공군사격장으로 이주하기 전에 폐쇄되었다.

광암마을에서는 탈곡기가 들어오기 전, 보리는 천치도구로 훑었고, 벼는 개상과 회전기로 하였다.

광암마을에서는 동력탈곡기가 들어오기 전에 보리를 천치도구로 바슴하였다. 천치도구라고 불리는 홀태에 훑어 이삭을 딴 후, 도리깨로 두드려 바슴하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벼는 개상질을 하여 낱알을 떨어뜨린 후, 와룽이라고 불리는 회전기를 돌려 털어내었다.

개상질은 볏단을 새끼줄로 묶어 뉘어놓은 절구통에 메치는 것이다.

광암마을에서는 찌껭이쌀을 만들어 조상에게 천신하기도 하였다.

광암마을에서는 추석 때 햅쌀로 밥을 하여 조상에게 올렸다. 추석이 일러 벼가 익지 않으면 풋벼를 천치도구로 훑어 쪄서 말린 후, 절구에 찧어 쌀을 만들었다. 이런 쌀을 찌껭이쌀이라고 하였다.

광암마을에서는 흉년에 민댕이보리를 만들어 먹었다.

광암마을에서는 흉년에 보리를 일찍 베어 민댕이보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보리가 완전히 여물기 전, 보리를 털어 쪄서 말리다가 비비면 껍질이 벗겨지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보리를 민댕이보리라고 하였는데, 죽을 쑤어 먹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방편이었다.

황교리에는 독살이나 덤장은 없었다.

황교리 마을은 웅천 천 하구로 갯벌은 넓었지만 독살이나 덤장은 만들지 않았다. 독살이 없었던 것은 갯벌에 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덤장도 없었는데 황춘연님은 물살이 세고, 완장포에 배가 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완장포에서는 실뱀장어도 잡았다.

완장포는 웅천천의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실뱀장어가 올라왔다. 이광복씨 등 몇 사람들이 잡았는데, 모기장으로 그물을 만들어 아주 작은 실뱀장어를 잡아 팔았다.

대합 잡는 그랭이는 대장간에서 만들어 팔았다.

황교리 마을 주민들은 사시사철 그랭이로 대합을 잡았다. 집집마다 몇 개의 그랭이가 필요했는데, 그랭이의 쇠 부분은 대장간에서 상품으로 만들어 팔았다. 호미를 사듯이 사다가 나무로 자루를 만들고 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랭이는 칼날이 모래 속을 수평으로 지나가게 만든 것으로, 허리에 묵고 끌어, 조개와

부딪치는 소리가 나면 잡았다. 물속에서도 작업했는데 매우 힘든 일이었다.

여름철,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은 보골치 낚시를 다녔는데 1/5을 배 삯으로 냈다.

황춘연 님은 봄 어장 철이 끝나면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끔 낚시질을 다녔다. 여름에는 보골치가 많아 잡혔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까운 바다에 나가 보골치를 잡았다. 함께 배를 타고 나가는 주민들은 잡은 고기의 1/5을 배 삯으로 내는 것이 관례였다. 보골치 낚시의 미끼는 쏙이었다. 쏙은 소의섬 남쪽에서 잡았다. 소의섬 남쪽에는 속이 많아 속바탕이라고 불렀다.

조기는 외연도 둠벙에서 낚시로 잡아 소금에 절여 팔았다.

황춘연 님은 여름철 외연도에서 조기를 낚아 팔기도 하였다. 외연도 부근에는 조기둠벙이라고 불리는 깊은 바다가 2곳 있어 그곳에서 낚시하였다. 잡은 조기는 입에 소금을 많이 넣어 빳빳하게 절여두었다가 팔았다. 조기는 빳빳하게 절여야 잘 팔렸다. 외연도는 멀기 때문에 여러 날 머무르면서 낚시하였다. 조기의 미끼는 미꾸라지였다. 미꾸라지를 세로로 갈라 미끼로 썼다.

황교리 무성굴마을 안쪽에서 소금을 구웠다는 이야기

황춘연(1942)님은 황교리 무성굴마을 안에서 소금 굽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었고, 논에 박힌 말뚝을 보았다. 말뚝은 과거 갈통에 박았던 말뚝이었다.

황교리에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는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황교리에서는 어선어업을 하거나 양식업에 종사하고, 갯벌에서 어업을 한 주민들이 모여 어촌계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부사지구 간척사업 이후에는 육지화되어 어업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어촌계가 유지되고 있다. 부사지구 간척지의 일부 토지를 어촌 계원에게 임대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되는 면적은 1500평이다. 전에는 5다랭이까지도 임대해 주었으나 점차 줄어들었다.

황교리 어촌계의 계원이 사망했을 때는 부인에게는 상속되지만 아들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에는 계원자격이 소멸된다. 현재 80여 명의 계원이 남아 있다.

버스가 들어오기 전 황교리 마을 주민들은 주로 원전 재를 넘어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버스가 들어오기 전, 황교리 주민들은 시장이나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 원전 재를 넘어 다녔다. 원전 재는 황교리와 노천리 사이에 있는 높은 산으로 자전거도 탈 수 없는 가파른 길이었다. 무성굴, 석진개, 광암 주민들은 무조건 이 원전 재를 넘어야 되었고, 부주굴 주민들은 죽청리를 통해 다녔다.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목장성을 성뚝이라고 불렀다.

황교리 광암마을에는 토진곶목장성이 지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성이 목장성인지는 모르고 그저 옛날 전쟁을 위해 쌓은 성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성뚝이라고 불렀다. 성뚝을 기준으로 북쪽은 광암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석진개라고 불렀다. 황춘연 님은 성과 관련된 전설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황교리 주민들을 노천리 사람들이 괴롭혔다.

황교리 주민들은 원전 재를 넘어 노천리를 통하여 웅천 장에 가거나 면사무소를 다녀야 했다. 1960년대까지는 노천리 사람들이 황교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당시는 건달들이 무법천지로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시대였다. 웅천 읍내에도 건달 깡패들이 많아 시골에서 온 사람들을 괴롭혔다.

황교리 광암 주민들은 바다 건너 대창리에서 나무를 하였다.

황교리는 산이 낮고 가옥이 밀집되어 늘 나무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 대창리 산에서 나무하였다. 대창리에 있는 산은 광암 주민들의 종중산이라 나무하기 좋았다. 다만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워서 아랫궁뎅이라고 불리는 곳을 건너다니며 나무하였다. 아랫궁뎅이는 썰물 때 지게를 지고도 건널 수 있었다. 황춘연 씨는 배를 가지고 가서 나무하였다.

황교리 전체가 하나의 상여를 사용하였다.

황교리 마을에는 하나의 상여가 있었다. 상엿집은 광암마을 앞 산 너머에 있었는데, 이주하면서 부주굴 제방으로 옮겨 놓았다. 상엿집이 현재도 있다.

광암마을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정월에 안택하였다.

광암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19670~1970년대까지 대부분 가정에서 정월에 안택을 하였고 환자가 있으면 경을 읽었다. 마을에는 무당이 없었고, 주로 남포 소뱅이에서 철행 씨라고 하는 남자 무당이 와서 안택하였다. 대개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읽고 아침에 떠났다.

광암 주민들이 종달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광암 주민들은 산신제는 지내지 않았지만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낸 곳은 종달산 꼭대기였다. 어느 해 날이 몹시 가물어 종달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종달산 꼭대기의 구덩이에 강릉 최씨 집안에서 묘를 써 놓았다. 이에 광암 주민들은 종달산 꼭대기의 웅덩이에 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여겨, 호미로 파는 시늉을 하였는데, 이것이 고발되어 경찰서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당시 기우제는 주로 여자들이 지냈고, 떡시루를 가져다가 제를 올리고 불을 피웠었다. 주로 여자들이 지냈으나 황춘연 님은 어린애라 구경으로 따라가 보았다. 키로 물을 까부르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고 한다. 기우제를 지낸 뒤에 실제로 비가 왔다고 한다.

광암마을에서는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팔월 열나흗날과 섣달 그믐날 용왕제를 지냈다.

광암마을에서도 용왕제를 지냈는데,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냈다. 1년에 2번, 팔월 열나흗날과 섣달 그믐날, 즉 명절 전날 지냈다. 떡을 한 시루 쪄 배에 올려놓고 절하는 것이었다.

6.25당시 광암 뒷산에 호를 팠다.

6.25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광암 뒷산에 호를 팠다. 주로 밤에 팠는데, 외지 사람들을 동

원해 다 팠다. 당시 인민군들은 밤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치곤 하였다. 황춘연 님도 장백산 줄기줄기 하는 노래를 배운 기억을 하고 있다.

종달산 절에 간첩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종달산 서쪽 골짜기에는 절이 있었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절에 사는 사람이 간첩이고, 북에서 내려온 간첩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사람이 없어지고 절도 흐지부지 없어졌다. 사실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두문개 앞에 수수 실은 중국 배가 좌초되어 주민들이 가져다 먹었다.

황춘연 님이 철 들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소황리 서쪽 바다, 장안마을 서쪽 해안을 두문개라고 불렀는데, 수수 실은 중국배가 소황 앞바다에 떠밀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끌어다 두문개에 댔다. 이후 근동 주민들이 수수를 가져다 1년간은 잘 먹었다. 황교리 광암마을 주민들도 수수를 가져다 잘 먹었다.

종달산 서쪽 기슭 술둑이마에서 나오는 숫돌은 근동에서 유명하였다.

종달산 서쪽 술둑이마에서는 숫돌이 산출되었다. 근동에서 유명한 숫돌이라 업자들이 구덩이를 파 채굴해다 팔았다. 주변 마을 주민들은 버려진 돌을 주워다 숫돌로 사용하였다. 황춘연 님은 현재도 그곳에서 캔 숫돌을 사용하고 있다.

해방 후, 광암마을 배 3척이 황지기에 굴 따러 갔다가 폭풍으로 3일 만에 돌아왔다.

해방 후, 황지기에 굴이 많았다. 이 굴을 따기 위해 광암마을에서는 배 3척에 15명 정도가 타고 들어갔다. 배를 땅에 걸어놓고 굴을 땄는데,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 배가 파손되고 꼼짝없이 섬이 갇혔다. 이때 대나무를 베러 들어간 황의병 님이 낫을 가지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성냥을 가지고 있어 불을 피울 수 있었다. 굴을 까먹고,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면서 버텼는데, 3일 후 바람이 가라앉았고, 마을에서 배가 들어가 구출하였다.

마을에서는 다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처리하려고 준비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관당리 주민들이 탄 배는 돌아오다가 2척이 전복되어 수십 명이 죽은 상황이었다. 황춘연 님의 어머

니도 굴을 따러 들어갔는데, 2살 먹은 동생이 젖을 먹지 못해 울었던 모습이 선연하다고 증언하였다.

광암마을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배를 뭍에 걸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관당리 주민처럼 배를 바다에 띄워 놓았으면 배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을 텐데, 배를 뭍에 걸려놓아 들어올 수가 없었다. 광암마을로 들어오려면 물이 많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황지기섬에서도 높은 곳에 걸어 놓았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배를 탈 수 없었고,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황교리의 굴 양식은 과녀쭉뿌리와 소의섬에서 하였다.

황교리 바다는 모래와 갯벌로 되어있어 굴양식을 할 수 없었다. 다만 과녀쭉뿌리의 볼 때기는 유일하게 바위가 있어 굴양식을 할 수 있었다. 민물이 들어오는 곳이라 굴의 품질이 좋았다. 그리고 주산 땅 소의섬에서도 광암 주민들이 김 양식을 하였다. 소의섬이 광암사는 황씨네들 섬이라 황 씨네가 들어가 살면서 굴 양식을 하였다.

부사호에는 한때 재첩이 많이 나왔다.

부사호에는 한때 재첩이 많이 나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잡아 팔았다. 요즘에는 잡는 사람이 없는데, 호수가 오래되어 뻘이 퇴적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국에서도 위험하여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과거 대량으로 나올 때도 근처에 사는 장안마을 주민들이 잡지는 않았다.

장안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하였다.

황교리 광암마을에서 공군사격장 때문에 이주해간 장안마을에서는, 초창기 교통문제가 심각하였다. 버스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주민들은 서천군청에 찾아가 서면에서 장안마을을 통과하여 보령까지 버스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거절되기도 하였다. 할 수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봉고차를 구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웅천까지 하루에 5번 정도 운행하였다. 이렇게 한 5년을 운영한 뒤에 보령 시내버스가 장안마을까지 들어왔다. 당시 이장이 황두철 님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대합 잡다가 2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

1960년경 광암마을에 사는 부인 2명이 밤에 대합을 잡으러 갔다. 이들은 대합을 잘 잡는 사람들로 주로 물 속에서 그랭이질로 잡았다. 그런데 안개가 끼어 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고가 있었다. 시신은 2일 후에 찾았다.

석진개 아랫궁뎅이에서 숭어낚시질을 하였다.

석진개 아랫궁뎅이에서는 숭어낚시질을 많이 하였다. 이곳은 썰물 때는 바닥이 드러나지만 들물이 되면 깊은 바다가 되고 숭어가 많았다. 마을 주민들은 대나무 낚싯대로 숭어를 잡았다. 미끼는 쏙이었다. 황정연 님이 많이 하였다.

무성굴을 주민들은 무성끝이라고 불렀다.

황교리의 남쪽에 있는, 토진곶 목장성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을 현재는 무성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황교리 주민들은 예부터 '무성끝'이라고 불렀다.

석진개의 간척지는 황장연 님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석진개마을 남쪽에 있는 간척지는 황장연 님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간척지 안에 있는 토지는 분양하였지만 제방은 아직도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다.

<인터뷰어_ 황의호>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김 현 성 (1944년생)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오천면 원산도리 구찌마을 주민들의 생활



출생과 성장

김현성 님은 경주 김 씨로 1944년 8월 10일 원산도 구찌마을에서 태어났다. 고조할아버지는 안면도에 살았고,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머니를 모시고 원산도 구찌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후 원산도에 많은 후손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김현성 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김현성 님도 5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종손이 되었다.

7살에 광명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4학년 때 백일해에 걸려 오랫동안 결석하는 바람에 1년을 더 다니고, 7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다.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16명 중 2명만이 육지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29세에 군산에 거주하는 신부와 결혼하여 4남 2녀를 낳아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장배를 운영하였다.

김현성 님의 할아버지는 원산도 구찌마을에서 광천 독배로 다니는 장배를 운영하였다. 광천장 안날 들물에 구찌마을 포구를 출발하여 독배에 대었다가 다음날(광천장날) 장을 보고, 썰물을 따라 돌아왔다. 당시 구찌마을에는 방파제 시설을 할 포구가 없었고, 마을 북쪽 밤섬 근처의 갯벌(현재의 대하양식장)에 배를 댔다.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마을 앞에 배를 댈 수 있었으나 대개는 밤섬 옆에 배를 대 주민들이 내렸다. 주민들의 무거운 짐은 들물 때 마을 앞에 배를 대고 내렸다.

아버지는 중선배를 타고 조업하다가 연평도에서 북한에 피랍되기도 하였다.

김현성 님의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가정형편도 어려워 남의 중선배를 탔다. 풋살마을에 사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선배를 탔는데, 20년 넘게 한 배를 탔다. 중선배는 사리가 시작하는 산지미[24]에 나가 고기를 잡고 조금 때 들어왔다.

아버지가 잡은 고기는 주로 조기였고, 흑산도부터 연평도까지 다니면서 잡았다. 연평도

24) 3매날이 산지미임. 김현성님은 2매날 저녁부터 산짐한다고 주장함.

구월이골에서 조기를 잡다가 월경하여 북한에 잡혀갔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다. 이 일 때문에 1970, 1980년대까지 형사들의 감시를 받았다.

원산도 주민 중에 간첩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원산도 도투마리에 사는 주민 중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포섭되어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원산도 주민들도 체포되었다는 사실만 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원산도 간척지는 승지 장인 되는 사람이 막았다고 전한다.

김현성 집안은 원산도 간척지를 소작으로 농사 지었다. 간척지는 승지였던 분의 장인이 막았다고 전한다. 해방 후, 농지분배 과정에서 이장을 보던 사람들이 중간에 잘못을 저질러 징역살이를 했다고 전한다.

원산도의 논농사는 저수지와 냇물이 없어 힘들었다.

원산도의 논농사는 저수지와 냇물이 없어 힘들었다. 둠벙을 파고 두레로 품어내야 했고, 아랫논에서 윗논으로 품어 올리기도 하였다. 염전이 생긴 뒤로는 무자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떤 해에는 모를 심을 수 없어, 못자리판에서 벼의 이삭이 나오기도 하였다.

구찌마을에는 착착이라고 불리는 발동기를 돌려 방아를 찧었다.

김현성 님이 청년이 되었을 때인 1960년대, 구찌마을에는 착착이를 설치한 방앗간이 생겨 방아를 찧었고, 착착이를 이동하여 보리탈곡도 하였다. 김현성 님은 힘이 좋아 발동기를 지게에 지고 다녔다. 발동기의 플러그만 빼고 엎어서 끌고 다니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구찌마을 주민들이 풋살 고르녀에 굴 따러 갔다가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구찌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풋살마을 앞 고르녀로 소위 여파루를 갔다. 굴을 따고 돌아오다가 배가 전복되어 1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대부분이 처녀와 젊은 부

인들이었다. 당시 물에 빠진 남자들이 자기 친척들만 구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삿날에는 마을의 대부분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당시 처녀였던 김현성 님의 고모도 사망하였다. 주민들은 사람을 많이 싣고 운항하다가 여에 부딪쳐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1930년 9월 26일 14명이 사망하였다)

1950년대 미네미라고 불리는 풀등으로 바지락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가라앉는 사건도 있었다.

구찌마을 주민들은 안면도 남쪽에 썰물 때 나타나는 여에 다니면서 바지락을 잡았다. 1950년대 구찌 주민들이 미네미라는 여로 바지락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가라앉는 사고가 일어났다. 배가 없는 상황에서 물이 들어와 주민들은 급한 대로 높은 곳으로 대피했고, 이런 사실을 안 안면도 주민들이 배로 구조해 주었다. 현재 미네미는 안면도 주민들의 어장이 되었다.

구찌마을에는 방파제가 없어도 안전하게 배를 댔다.

구찌마을에서는 북쪽 밤섬근처에 배를 댔다. 이곳에는 방파제 등 파도를 막는 시설이 없었는데, 배를 대는데 지장이 없었다. 만약 서북풍이 강하게 불면 약간 이동하여 딴밤섬 옆에 대면 안전하였다. 다만 배를 대는 곳이 마을과 멀어, 불편하였고 만조 때 마을 앞에 배를 댔다.

구찌마을 주민들은 여파루를 다녔다.

구찌마을 주민들은 원산도와 안면도 주변에 썰물 때 나타나는 바위(여)나 풀등에 다니면서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이런 일을 '여파루 다닌다.'라고 하였다. 구찌마을 주민들이 여파루 다닌 곳은 미네미, 검은여, 눈풀 등이었다.

구찌마을 남서쪽에 있는 염전은 외국자본으로 만들었다.

구찌마을 남서쪽에 있던 염전은 누가 처음으로 제방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구획정리를 하여 염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사창에 있는 교회 덕분이었다. 교회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염전으로 만들었다.

구찌마을 북동쪽에 있는 염전은 1965년에 만들었다.

구찌마을 북동쪽에 있는 염전은 김현성 님이 군대 가기 전인 1965년에 만들었다. 제방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는데, 염전으로 만든 시기는 1965년이다.

당시 염전은 윗부분의 흙을 아래쪽으로 운반해서 평평하게 하여 만들었는데, 레일을 깔고 밀차에 흙을 담아 운반하였다. 외지인(홍성 서부)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이 강권으로 일거리를 받아 절반 정도의 일을 했다. 구찌마을 동북쪽의 염전은 1965년도에 만들어졌다.

밤섬 간척지는 1966년도에 흙을 지게로 운반하여 만들었다.

구찌마을 북쪽에 있는 간척지는 1966년 흙을 지게로 져다가 만들었다. 처음부터 대하를 키웠고 현재까지 대하를 키우고 있다.

구찌마을 상여는 김현성 님 윗세대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구찌마을에는 옛날 상여가 없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짐말이나 첨마지 마을에서 빌려다 사용하였고, 그때마다 삯을 내야 했다. 이에 구찌마을의 어른들 20여 명이 계를 만들어 상여를 장만하였다. 1944년생인 김현성 님 윗세대들이다. 상엿집은 조금재라는 바닷가에 만들었다.

구찌마을 청년들은 마을 동북쪽 염판 자리나 마을 남쪽 해안에서 방치기를 하였다.

구찌마을 청년들은 봄에 나무하러 다니면서 방치기를 하였다. 방치기를 한 장소는 마을 동북쪽에 있는 염전의 염판 자리나 마을 남쪽해안의 모래밭이었다. 염판 자리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풀도 없이 하얀 맨바닥이어서 언제나 방치기를 할 수 있었다.

방치기를 하려면 공과 작대기가 필요하였다. 공은 꽃장다리라고 불리는 진달래나무 둥치나 소나무 가지가 뻗어나간 옹이를 이용해서 탁구공만 하게 깎았다. 공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작대기는 아래쪽이 필드하키의 스틱처럼 꼬부라진 것을 준비하였다. 당시는 모든 나무하는 청년들이 공치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 꼬부라진 작대기를 사용하였다.

방치기를 하려면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야 했다. 10명이면 양쪽으로 편을 갈라, 골문을 정하고 공을 쳐 넣으면 이기는 것이다. 경기장이 넓어 골문은 어떤 바위와 바위 사이, 이런 식으로 넓게 잡았다.

경기의 시작은 공을 모래 속에 묻고 시작하였다. 묻은 뒤에 서로 꺼내 자기편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몸이 빠른 사람, 특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였다. 혼자 몰고 가서 넣어도 그만이었다. 상대편이 공을 몰고 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가르쟁이 속에 작대기를 넣어 잡아당기는 반칙을 범하기도 하였다.

공이 1번만 들어가면 승부가 결정되었는데, 마을 청년들끼리는 친선으로 했지만, 다른 마을, 등 넘어 선촌, 진고지, 첨마지 청년들과 할 때는 나무내기를 하였다. 나무는 한 짐이 아니고 조금이었다. 당시 나무도 없어 나무뿌리(등걸)를 캐 주었다.

방치기 놀이에 참여하는 나이는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30여세에 이르는 청년들이 하였다.

당시 청년들은 승부욕에 불탔고, 이 놀이를 통하여 단합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출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해, 이웃집 친구와 함께, 개를 오천 장에 팔아 돈을 마련하여 서울로 가출하였다. 서울에 가서 1주일 정도 머무르니 돈이 떨어졌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 철길만 따라 걷고, 얻어먹으면서 왔는데 광천까지 꼬박 1주일 걸렸다. 오다가 홍성역에서는 철길에서 탄 덩어리를 줍는 아이들과 싸움을 하기도 했다.

방치기 하다가 복숭아뼈에 공을 맞아 다쳤다.

방치기를 할 때, 복숭아뼈에 공을 맞아 다치는 일이 있었다. 뼈가 물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지금 같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할 테지만 그때는 어른들이 황토를 개어 붙여 주었다. 오래 지난 뒤 나아졌지만, 80세가 된 현재도 저녁에 누워있으면 아픈 후유증이 있다.

김현성 님은 천연두를 앓았다.

김현성 님은 아주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았다. 다행히 살아남았으나 한쪽 눈의 시력을

많이 잃었다. 다행히 얼굴이 얽지는 않았다. 원산도에는 김현성 님 또래 3명이 천연두를 앓았다.

결혼 후 군산으로 이주하여 5년 정도 거주하였다.

김현성 님은 29살에 군산에 사는 처녀와 결혼한 후, 아이를 낳은 뒤에 군산으로 이주하였다. 군산에서는 그물 손질하는 일, 건설현장의 노동자 등으로 일했고, 숟가락 만드는 공장에도 다녔다. 마지막으로는 백화양조 공장에 다녔다.

김현성 님은 풋살 고리녀 앞에 처음으로 주벅을 맸다.

김현성 님은 젊었을 때, 풋살마을 고리녀 앞에 주벅을 맸다. 그곳은 얕은 바다라 물이 완전히 나간 마른 바닥에 주벅을 맸다.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작은 고기들을 잡았다. 고기는 빈댕이, 멸치 같은 거였는데, 백사장에 말렸다가 사료로 팔았다.

당시 전통방식으로 주벅을 맸지만, 도르래를 이용하여 줄을 잡아당겨 편리하게 작업하였다.

외연도에 가서 주벅을 맸다.

김현성 님은 청년시절 외연도에 가서 주벅을 맸다. 당시 외연도 사람들은 주벅을 맬 줄 몰랐고, 원산도 사람 한장선, 박진포, 한광수 씨 등이 외연도에서 주벅이나 낭장망을 매고 있었다. 김현성 님은 박명규 씨의 사업장에서 봉급을 받고 일했다. 명금과 횡견도 오도 사이에 주벅을 맸는데, 횡견도와 오도 사이에는 고기가 들지 않아 철거하였다. 명금 앞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기존 주벅 안쪽으로 3틀을 맸다.

외연도의 명금 앞쪽은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와이어로 대체하였다. 와이어의 밑에 망을 1개 넣어 고정시킨 후, 드럼통 3개를 용접해서 와이어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드럼통 있는 곳에서 줄 3개를 늘여 망으로 고정시켰다. 기둥 대신 와이어를 넣고, 위에 드럼통을 연결하는 것이 기존 방식과 다른 것이었다. 외연도 근처나 불모도 남쪽, 큰화사리 남쪽 등 깊은 바다에서는 기둥을 못 세우고 와이어와 드럼통으로 대체하였다. 깊은 바다에서는 와이어의 길이가 16~18발이나 되었다.

명금 앞바다에서는 처음에 고기가 잘 들지 않았으나, 주벅을 장덕천 씨에게 넘긴 뒤에는 까나리가 많이 들어 많은 수입을 올렸다. 삶는 기구를 2대나 놓고 삶아 말려 팔았다. 많이 잡아 말린 까나리 1관짜리 2000포를 쌓아놓기도 하였다. 까나리는 벙커C유를 때어 삶았다.

청해수산이라는 젓갈공장이 생겨, 까나리액젓을 만들어 팔았다. 외연도가 아주 호황이었다.

낭장망은 주벅과 비슷하게 맸는데, 화리그물을 설치하였다.

외연도에서 낭장망은 관쟁이 앞에 맸다. 낭장은 큰 돌을 가져다 넣고 와이어를 연결하고 드럼통 3개를 매단다. 이런 것은 주벅과 같으나 연사줄을 만들지 않고 그물의 입구에 화리그물을 단다.

주벅 그물에는 골탄을 먹였다.

옛날 주벅에 사용한 그물은 면사였다. 면사를 그대로 쓰면 쉽게 절단 나기 때문에 골탄을 멕여 사용하였다. 골탄은 벙커C유보다 좀 되직한 기름으로, 그물에 먹이면 서로 붙고 난리였다. 그래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 힘으로 펼쳐지고 그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녹도에서는 질멈에 주벅을 맸다.

김현성 님은 녹도에서도 주벅을 맸는데 질멈(추녀) 동쪽으로 맸다. 얕은 바다였으나 고기가 많이 들었다. 주로 멸치를 잡아 녹도에서 가공해서 팔았다.

농어는 주벅에서 고기를 먹고 나간다.

주벅에는 큰 고기들도 들어온다. 아구 같은 고기는 불둑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먹고, 잡히지만 농어는 많은 고기를 잡아먹고, 물을 거슬러 나가 버린다. 힘이 세고 영리하기 때문이다.

김현성 님은 거북을 잡기도 하였다.

김현성 님은 용섬 근처에 안강망을 설치하였을 때, 안강망에 들어온 거북을 잡았다. 영물이라고 생각되어 살려주었다. 호흡할 수 없는데도 살아있는 상태로 잡아 살려줄 수 있었다. 김현성 님은 상괭이를 잡아본 적은 없다.

구찌마을에서는 섣달 그믐날이나 정월 초하룻날 저녁에 당제를 지냈다.

구찌마을에는 당제를 대동계에서 지냈다, 마을 당산 꼭대기에 있는 참나무 밑에서 지냈는데, 섣달그믐이 되면 마을 청년들이 제 지내는 곳을 청소하고 황토를 깔고, 떼우적을 쳐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한 뒤, 지붕은 차일로 덮었다. 임시로 집을 짓는 것이다.

젯날은 매년 보아 정하였는데, 섣달그믐날 저녁이 아니면 정월 초하룻날 저녁이었다. 제는 당주와 부당주가 지내는데, 당주는 현장에서 물을 길어다가 목욕을 하였으며, 제물 중 밥과 국은 현장에서 끓여 지냈다. 그리고 마을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잡은 돼지고기를 모두 삶아 당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제가 끝나면 다음날 마을 모든 가구에 돼지고기를 나누어 주고, 당주네 집에 모여 음식을 먹었다. 제를 엄숙하게 지냈는데 1970년대에 없어졌다. 현재도 제를 올리던 참나무는 남아있다.

원산도에는 8개의 당이 있었다.

원산도에는 마을마다 당제를 지냈는데, 당제를 모시는 당산이 8개였다. 따라서 8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당제를 지낸 마을은 선촌, 진구지, 첨마지, 도투마리, 구찌, 사창, 짐말, 풋살이다.

김현성 님은 제사를 통합해서 지내고 있다.

김현성 님은 종손으로 증조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제를 지낸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등 각각 제사를 모셨으나, 현재는 증조할아버지 부부와, 할아버지 부부 제사를 증조할아버지 제삿날 함께 모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는 아버지 제일에 함께 모시고 있다. 명절 차례는 옛 풍습대로 지내고 있다.

기제사 지낼 때는 손님상을 차렸다.

김현성 님은 기제사를 지낼 때는 방에 조상 상을 차리고 마루에 손님상을 차렸다. 손님상은 밥과 국, 수저와 젓가락 1개씩을 놓아 간단하게 차린다.

기제사에는 반드시 듬북탕을 썼고, 보골치나 부서는 절대 쓰지 않았다.

김현성 님 댁에서는 기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듬북탕을 썼다. 왜 썼는지는 모르고 현재는 듬북을 뜯을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생선은 조기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조기가 없을 경우에도 부서나 보골치는 절대 올리지 않았다. 아주 금기였다. 우럭이나 숭어는 상관없었다.

옛날에는 편탕제를 꼭 지냈다.

김현성 님 집안에서는 섣달그믐날 저녁, 즉 정월 초하룻날 이른 새벽에 편탕제를 지냈다. 편탕제는 조상님께 떡국을 올리는 제로, 제상에 떡국과 수저만 올린다. 절도 하지 않는다. 제상에 올렸던 떡국은 가족들이 먹는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은 밥과 국, 그리고 각종 과일과 음식을 차려 차례를 지낸다.

어머니 때에는 매년 안택을 하였다.

김현성 님의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매년 무당을 불러다 안택을 하고 성주를 모셨다. 안방의 벽 가운데에 모셨는데, 매년 정월에 새로 받아 모셨다.

굴 따러갔다 죽은 고모는 안택할 때 자주 나왔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1930년 고르녀로 굴 따러갔다가 죽은 고모는 처녀였고, 굿할 때 자주 등장하였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굿으로 조치하였다. 김현성 님의 할머니, 죽은 고모의 어머니가 한 일이었다. 죽은 고모는 호적에도 등재되지 않아 집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다.

증조할머니 신체인 웃줄을 모셨다.

김현성 님 집안에서는 웃줄을 모셨다. 웃줄은 증조할머니의 신체이다. 증조할머니가 굉

장히 똑똑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모셨다. 아마도 무당이 모시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체는 동고리 속에 명주로 치마저고리를 만들어 넣은 것인데, 안방의 선반 한쪽에 모셨다. 성주는 가운데에, 웃줄은 가에 모신 것이다. 웃줄을 위해서 매년 가을에 굿을 하였다.

웃줄은 할머니에 이어 어머니까지 모시다가 없앴다. 어머니가 본인까지만 모실 테니 없애라고 하여 돌아가신 뒤에 불태웠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에 따라 할아버지 산소를 옮겼다.

김현성 님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는 등 어려운 일이 많았다. 1980년대, 어떤 스님이 할아버지 묘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고 이장을 권하였다. 할아버지 산소에 물이 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장하기로 하였고, 스님이 원산도 독개에 묘 자리까지 새로 잡아 주었다.

동생들과 상의를 하고 할아버지 묘를 팠는데 정말로 물이 찬 흔적이 있었고, 벌레가 들어왔던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있는 할머니 산소는 깨끗하였다. 파묘한 시신을 가지고 밤중에 안면도 영목에 배를 대고 이장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이장 터는 안면도 독개 산꼭대기 8부 능선이었다. 5~6명이 땅을 파서 묘를 만들고, 위에 있는 큰 소나무도 베어 제거하였다. 산소를 옮긴 뒤에는 집안의 걱정이 없어졌다. 이때 옮긴 산소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그 스님은 어떤 절에 사는 스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산도에 자주 와서 여러 집안의 묘를 옮겼다. 김현성 님의 작은아버지 묘도 옮겼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죽은 6촌 여동생이 꿈에 나타나 경을 읽어 해결하였다.

김현성 님이 군대를 제대한 1967년,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 연애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6촌 여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와 "오빠 고생하고 왔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죽은 동생이 나타나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무당을 불러 큰 경을 읽었다. 무당은 신장을 불러서 그 처녀귀신을 잡게 하였고, 처녀 귀신을 병에 넣어 산에 묻었다.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M1 탄피로 불을 켜고 다니다가 귀신에 홀려 논으로 들어간 일도 있었다.

10여 세 되었을 때, 6.25가 끝난 뒤였다. 김현성 님이 이웃 마을에 놀러 갔다가 M1 탄피로 만든 등을 켜고 비춰가면서 집으로 왔다. M1 탄피에 솜을 넣고, 석유를 넣어 불을 붙인 후, 통조림 깡통을 뚫고 넣으면 작은 등이 되었다.

마을 대동우물 근처에서 불을 켰어도 너무 깜깜하여 논으로 들어가 헤매다가 가까스로 기어나와 울고 있었다. 이때 마을 주민 2명이 지나갔고, 이후로는 불을 켜지 않아도 길이 훤히 보여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하였다.

구찌마을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는 김사진 씨였다.

구찌마을에서도 다른 마을처럼 새마을운동을 하였다. 지도자는 김사진 씨였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에 주력하였다. 당시는 새끼줄을 띠고 길을 만들어도 할 수 없었다.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

<인터뷰어_ 황의호>

아산시

| 아산의 폐교 이야기

도고면 화천국민학교 이야기 338
선장면 삼선국민학교 이야기 344
선장면 신정국민학교 이야기 349
선장면 학선국민학교 이야기 354
송악면 동화국민학교 이야기 359
염치면 삼서국민학교 이야기 364
영인면 백석포국민학교 이야기 368
음봉면 대동국민학교 이야기 372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김 윤 직 (1948년생)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 화천국민학교 이야기



김윤직은 아산시 도고면 도산1리(느랭이)에서 5만 2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느랭이 마을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산으로 덮혀 있으며 마을 뒤에는 도고산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느랭이 마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사람은 금녕 김 씨들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금녕 김 씨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춘추제향을 올리는 마을이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농작을 하며 살았고 당시 나라에서 양잠을 아주 중하게 여겼는데 아버지는 양잠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후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면서 생활하였다.

김윤직은 마을에 있는 도고초등학교 도산분교에 입학하였다. 당시에 도고국민학교로 다녀야 하지만 길이 험하고 너무 멀어 마을 어르신들과 학교 측이 수차례 논의하여 1947년 10월 1일 도산분교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학년만 도산분교에 다닐 수 있었고 고학년은 본교인 도고국민학교로 다니고 있었다.

도산1리(느랭이) 마을은 윗말, 중말, 아랫말, 개울말, 점촌 5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큰 마을이었다.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점촌에는 옹기를 만드는 가마터가 있었으며 삼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찌는 삼굿터도 있었다. 그리고 마을 위에는 포저 조익선생과 치곡 조극선을 모시는 도산서원이 있는 마을이었다. 도산분교 학교 건물은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교실 1칸과 교무실 1칸을 만들어 저학년만 사용하였다. 당시에 도산분교에는 인근에 있는 농은리, 화천리, 덕암리, 도산리 5개 마을 8개 부락에서 학생들이 다녔는데 교실 1칸을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해도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식학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주민들은 화천리에 살고 있던 임규영, 최석규와 도산분교 사친회가 중심이 되어 화천리 마을 중심부에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이 부지를 교육청에 기부하면서 1952년 4월 1일 화천초등학교 6학급이 인가되었다.

김윤직은 1954년에 화천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에는 7학급에 정식교실 3교실이 있었다. 이듬해에 정규교실 3교실이 신축 되었고 1958년도에 2교실이 더 신축되어 학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962년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인근 군부대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닦아 주는 공사를 하였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삽과 삼태기 등 연장을 가지고 와서 함께 노역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다. 물론 학생들도 틈만 나면 고사리 손으로 돌을 골라 날랐다. 이때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내 자식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는

일념으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면서도 웃음꽃이 그치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이 완성되던 날 5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나누면서 고생한 군인들과 감사의 인사와 동네잔치를 하였다. 이로써 나름대로 학교 교실과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완성 되었다.

그가 1학년 입학했을 때 학급 수는 약 50여명 이었는데 평균 나이는 많게는 6살 형과 누나들도 있었다. 수업 시간에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고 가장 힘든 것은 구구단 외우기였다.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나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이때에는 교실이 부족한 시절인지라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나 또는 교실 처마 밑에서 했는데 어떤 애들은 몰래 집에 가서 소꼴도 베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다시 오는 애들도 있었고 동생을 업고 와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적당히 혼내시곤 하였다.

반에서도 매년 학기 초에는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 선출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수줍어서 안 하려고 하였고 선생님이 지명하는 학생이 반장이 되는데 대개는 잘사는 집 애들이나 사친회장 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윤직이 학교 다닐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친회비를 내야 했는데 당시에는 나라도 가난하고 각 가정도 어렵게 살던 시기이기에 한 번도 제때에 내기가 힘들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사친회비 못 낸 학생들을 집에 보내어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집에 간들 아침에 없는 돈이 지금 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는 같은 처지의 학생들과 산이나 개울가에서 놀다가 공부가 끝날 때 즈음에 선생님께 '낼 모래 방아 찧어서 준대요.' 라며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 자리를 모면 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후다닥 집에 가서 먹고 오곤 하였는데 당시의 학생들 중에 벤또(도시락)를 싸오는 학생은 한 학급에 두세 명에 불과하였다. 그 외 학생들은 굶거나 일주일에 두 번 정부에서 주는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 죽으로 허기를 달랬다. 그는 학교에서 뒷간(화장실)가기가 정말 싫었다. 뒷간은 땅에다 구덩이를 판 다음 큰 항아리를 넣어서 만든 거 였는데 항아리 구멍이 너무 커서 가끔은 빠지

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시절에 학교에서 대변을 보고 뒤처리는 마분지나 쑥잎으로 하였는데 아무리 깔끔하게 처리해도 기분은 개운하지 않았다. 당연히 선생님들도 똑같이 뒤처리를 하였다.

그는 소풍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봄가을 소풍은 매번 도고산 국사봉으로 갔는데 같은 장소로 가는 소풍 일지라도 가을 소풍이 제일 즐겁고 신났다. 어머니가 싸 주신 변또에는 특별히 계란 프라이가 있었고 밤, 사과, 감 등이 있어 먹을 게 풍부하였다. 이날은 학교 앞 송방 아저씨도 지게에다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한 바지게 지고 산에까지 쫓아 오셔서 학생들에게 팔았다.

소풍에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역시 보물찾기 시간이다. 장기자랑하고 도시락 까먹다 보면 어느새 보물찾기 시간이다. 보물이라고 해봤자 연필하고 노트였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김윤직이 가장 아쉽고 서러웠던 것은 6학년 학급이 예산군에 있는 수덕사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집안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는 갈 수가 없었다. 수학여행 경비는 일부 현금으로 걷고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쌀이나 콩을 가지고 왔다. 아침 새벽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당시에는 버스가 없어 50리 길을 걸어서 예산역까지 갔다. 예산 기차역에 도착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 아래 모두 가져온 곡식을 한데 모아 예산 장에서 팔아 돈으로 바꾸었다. 이 돈으로 기차표를 끊어 삽교역에 도착하니 어느새 점심때가 훨씬 지났다. 버스 타고 수덕사에 도착하여 수덕사 대웅전을 관람하고 내려와서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수덕사 인근을 구경하고 집으로 오는 길은 전날보다 더 어렵고 고생스러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는 그저 부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는 화천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본인은 군대를 안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입영통지서가 왔다. 밥숟가락 하나 줄이려고 바로 입대를 하였다. 3년간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화천국민학교에 학교 직원(소사)을 모집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합격하여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가 학생이 아닌 학교 직원으로 왔을 때에는 많이 변해있었다. 번듯한 교실과 교무실, 별도로 있는 교장실과 숙직실 모든 게 학교다운 모습이었다. 운동장에도 골대와 철봉 등 각종 운동기구가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전기가 들어와 저녁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교실을 밝히고 있었고 전화도 개통되어 있었다. 전에는 추운 겨울날 동네 분들이 솔방울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학교 난방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개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교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동네 애경사 일도 함께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예를 들면 동네에 초상이 나면 마을 이장이 그를 찾아와 부고를 돌려야 하니 학교 등사실에서 인쇄를 부탁했다. 그는 거절을 못하고 등사기를 밀면서 인쇄를 해 주었는데 어깨와 팔이 여간 아픈 게 아니었다. 또한 학교는 도시와 시골집을 연결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서울 사는 김 씨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학교로 전화하면 김윤직은 자전거를 타고 김 씨 집에 가서 서울서 전화 왔다고 알리고 김 씨는 부지런히 학교에 와서 전화를 받으며 아들하고 통화 하면서 좋아하였다. 이처럼 화천국민학교는 동네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이었다.

화천국민학교가 개교한지 30여년이 지나면서 학교는 벽지학교로 지정되었고 5년 후에는 병설유치원도 개원하면서 학생수가 500명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1960대 부터 1980대 중반까지는 평균 80여명이 꾸준하던 입학생이 어느덧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수는 90년대에는 30명대로 떨어졌다. 젊은 청년들이 도시고 빠져나가면서 시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바람은 화천국민학교도 피해갈 수 없었다. 1995년 화천국민학교는 다시 도고국민학교 화천분교장으로 격하되면서 2005년에는 화천분교가 완전 폐교되었다.

분교로 격하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도 하고 주소를 옮겨서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하였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들을 더 이상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총동창회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대안을 요구 하였지만 폐교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윤직, 그도 폐교와 함께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는 수년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도 낡았다. 김윤직은 가끔 트랙터를 이용해 운동장 잡초도 제거하고 울타리 보수도 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근근이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폐교를 미디어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다문화. 청소년. 지역 주민 등에게 콘텐츠에 대한 이해, 활용,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자 한국 방송콘텐츠 진흥재단이 들어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하였다. 이 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찾아오고 있으며 인근 마을이나 면 행사시에는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융화가 잘 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하 상 근 (1951년생)
충남 아산시 용화동

선장면 삼선국민학교 이야기



하상근은 선장면 궁평리에서 아버지 하종춘과 어머니 조황분 사이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궁평리는 오룡리, 오가물, 나루터 세 마을로 나누는데 하상근씨는 오가물에서 태어났다. 오가물 마을은 당진 합덕과 선장을 잇는 유일한 나룻배의 교통지로서 선장의 3대 명당의 하나인 광대고 북형의 자리가 있으며 삽교천 물위에 북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마을로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마을이다.

그의 부모님도 논 3마지기로 농사를 하였지만 팔 남매의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늘 가난하고 배가 고팠다. 다행히도 마을 앞에는 삽교천 물줄기가 있어 몇몇 사람들은 배를 제작하여 물고기를 잡아 생활에 보탬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었다. 지인의 권유로 하상근씨의 부모님도 배를 제작하여 물고기 잡이를 하였는데 자식들 굶기는 일은 면할 정도로 수입이 생겼지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가난은 크게 면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흥리에 있는 선장국민학교 선흥 분교로 입학하였다. 당시에 학교 건물은 아래 운동장에 5개의 교무실이 있었으며 그 중 1개는 교무실로 사용하였다. 위 운동장에는 1개 교실이 있었으며 이 교실은 나무판자를 엮어 붙인 교실과 일부는 초가집 지붕에 이엉을 엮어 올렸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학생들이 집에서 볏단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마을 학부모들이 이 볏단으로 이엉을 만들어 교실 지붕을 보수해 주셨는데 보수는 없었다.

학교 화장실은 위에 동 교실과 아랫동 교실 중간에 있는 평탄한 땅바닥에 항아리를 묻어 사용하였는데 항아리에 똥이 가득차면 밭에 거름을 하려고 마을 아저씨가 똥지게로 퍼날랐으며 용변 처리는 호박잎이나 볏짚으로 처리하였다. 그가 5학년에 되던 해에 선흥 분교에서 삼선국민학교로 승격되면서 학급수도 10학급으로 편성되었고 제1대 이명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학교는 더욱 더 활기가 넘쳤다. 정식학교로 승격되면서 인근 11개 부락에서 학생들이 다녔는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였다. 반의 교훈은 착실한 어린이, 행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라고 하였고 교가는 이후에 생겼다.

학교 부지는 신작로 옆 조그마한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밀어 만들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곡물을 각출하였고 일부의 금액은 마을에서 잘 사는 분들이 기부를 하였다.

교실은 평균 75명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평상시에는 결석하는 학생은 적었다.

간혹 한글을 모르거나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는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하고 나와 오는 도중에 산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하교할 시간에 같이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봄철 모내기나 보리 베기, 가을걷이 등 농번기에는 출석률이 매우 낮았다. 이때는 집에서 부모님을 돕거나 동생들 돌보기를 하는데 학습열이 좋은 학생은 동생을 학교에 데리고 와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였다. 얼마가 지난 뒤에는 학교에서 가정 일을 도우라고 가정학습을 일주일 주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봄과 가을이면 소풍을 갔었는데 1-2학년 때에는 주변 산으로 갔고 3-4학년 때는 삼봉산, 도고저수지로 갔으며 5학년 때는 부여로 가서 고란사, 군창터, 낙화암 등을 견학하였다. 6학년 때에는 서울로 가서 청와대, 중앙청, 중앙방송국, 경회루 등을 견학하였다. 점심은 김밥을 가지고 오는 학생보다 벤또를 가지고 오는 학생이 많았으며 점심을 못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보내온 김밥이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다. 소풍가서 주로 하는 놀이는 수건돌리기,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을 하였는데 상품은 언제나 연필 한 자루나 공책 한 권이었다.

당시에는 학교에 다니려면 사친회비를 내야 했는데 제날짜에 내는 학생들은 사친회장 아들이나 마을 지주 아들 정도였다. 사친회비를 못 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봉투를 주면서 부모님께 받아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집에 가도 어차피 당장 돈이 없이 못 주는 걸 알기에 산으로 가서 놀다가 학교 수업이 끝날 때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으로 가곤 하였다.

그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에는 전교생 쥐잡기 운동을 하였다. 마을에는 가정집은 물론이고 동네 들판에도 쥐가 너무 많았다. 애써서 가꾸어 놓은 곡식을 쥐가 먹는데 너무 아깝기도 하고 위생상 너무 불결하기도 하여 나라에서는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학생들에게 쥐를 잡아 몸통은 버리고 쥐꼬리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모범생인 학생들은 열심히 쥐를 잡아 꼬리를 가지고 왔지만 일부 학생들은 등잔불에 오징어 다리를 검게 그을려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궁이 재를 묻혀서 가지고 오기도 하였는데 선생님은 진짜 쥐꼬리인 줄 알고 통과 시켜 주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셨는

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와 친구들은 모든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 겨울철 학교에 가려면 손과 발은 물론이고 볼 따기도 얼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면 집에서 가져온 솔방울로 난로를 피웠는데 이 양도 오전에 사용할 양만 주었다. 몹시 추운 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온 장작으로 불을 지펴 주었는데 그 날은 하루 종일 교실이 따뜻하였다. 겨울철에는 친구들의 손등과 무릎에는 때가 수북이 있었고 머리와 몸에는 이가 득실거렸는데 선생님이 하얀 가루약을 머리와 온몸에 뿌려주었지만 이가 쉽게 죽지는 않았다.

그의 동네에는 이발소가 없었다. 선장면 소재지에 가야 이발소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고 이발 가격도 비쌌다. 가끔 동네 아저씨가 나무 의자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바리깡으로 빡빡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성능이 매우 안 좋아 깎이는 머리보다 뽑히는 머리가 더 많아 머리 깎는 날이 큰 고통이었다.

삼선국민학교는 추석 다음날 가을 운동회를 하였다. 객지에 나갔다가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오신 분들과 마을에 사는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정담도 나누고 함께 부락 대항 경기도 참여하는 등 마을 축제 잔치였다. 학생들은 운동회 준비를 위하여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였는데 남자들은 기마전, 짝체조(탑쌓기), 여자들은 고전무용, 부채춤, 꼭두각시 등을 하였다. 남녀 함께하는 운동은 행진, 개인달리기, 손님 모시기와 학생 부락 대항을 하였다. 동네 어르신들의 경기는 마을별 달리기시합을 하는 청년 부락 대항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어느 부락이 우승 하는지가 운동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초 관심사였다.

하상근, 그는 1964년 삼선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입학식 할 때에는 70여명이 입학하였는데 학기 중 가래기, 동암말, 신문리가 갯벌을 막아 논이 된 간척지가 생기자 마을이 형성되고 외지에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 이사 온 전학생들 때문에 졸업생은 남자 38명 여자42명 총 80명이 졸업을 하였다.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우느라 노래가 엉망이 되었다. 대부분 중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더 서럽게 울었던 거 같다. 졸업앨범에는 교장, 교감, 교직원 사진과 전체 학생, 남학생, 여학생, 소풍사진, 운동

회 사진 등 9장으로 되어있다.

제1회 졸업생이 80명 이었는데 10년 후에는 1천명이 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천 제방을 막으면서 농토가 확충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보급되니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학생 수도 증가되고 1984년에는 병설유치원까지 개원하였다. 1990년 8월 19일 제1회 동창회가 기금 약200만원을 기부하여 학교 운동장에 시계탑을 건립하였다. 이듬해에는 근검, 협동의 생활화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994년에는 군 지정 영어 특활 교육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삼선국민학교도 도시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분교로 전환한다는 소문과 통폐합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민들과 총동창회에서는 폐교 불가 운동을 벌이고 객지에 나가 있는 동문들도 반대운동을 하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과 개인컴퓨터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여 2007년 봄에 과소규모 통폐합에 의한 폐교를 하였다.

그는 선장중학교, 온양고등학교, 공주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영인국민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이듬해 1974년 모교인 삼선국민학교로 전근을 하면서 모교에서 후배들을 교육하였다. 이후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와 대구대학교에서 석, 박사를 취득하였고 인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박 응 진 (1950년생)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장면 신정국민학교 이야기



박응진은 선장면 신덕리에서 아버지 박금돌과 어머니 신갑득 사이에 육남 사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평장원이라는 부락과 봉다원이라는 부락이 합쳐지면서 신덕리가 형성되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산이 없고 들(예당평야)에 속한 서들 평야 또는 서들 광문 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전형적인 논농사를 경작하는 마을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갯벌을 막아 한 사람씩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열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농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나마 있던 논마저도 다 빚쟁이에게 넘어가면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박응진은 초등학교에 입학 할 때에는 선장면 면소재지에 있는 선장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마을에서 선장면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십 리가 조금 안 되었지만 비포장도로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진흙탕 길로 변하면서 어린 박응진 씨가 걸어 다니기에는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자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돈포리 1.2구, 신덕리 1.2구, 장곳리, 대정리 6개 부락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대정리 마을 입구에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교육청에 기부하면서 1946년 10월 1일 선장국민학교 대정분교실이 설치되었다가 1954년 4월1일 대정 분교로 승격 되었다. 이후 1955년 8월 31일 교장 1명 교사 6명 소사 1명으로 이루어진 정식 신정국민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59년 2월에 83명이 제1회 졸업식을 하게 되었다. 박응진씨는 3학년이 되면서 신정국민학교로 다니게 되었지만. 당시에 학교 건물은 2칸 창고 교실이었으며 한 학급에 약 60명이 수업을 받는데 당연히 교실 공간이 부족하였기에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 수업을 하였다.

운동장은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부역하러 오셔서 매일 작업을 하였으며 마을 아주머니들은 주먹밥과 국수를 만들어 오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수업을 마치면 운동장 평판작업과 둘레 나무심기를 하였지만 누구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가을운동회에 맞추어 운동장 공사가 완공되면서 처음으로 신정초등학교 운동회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습한 달리기와 기마전 줄다리기 등을 마을주민들 앞에서 보여 줄 수가 있었다. 전교생 대표가 나와 청백계주를 할 때에는 전교생의 응원 소리가 장관이었다.

가을운동회는 학생들의 잔치이지만 동네 주민들의 자존심 대결은 때로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마을 청년들의 400m 릴레이경기와 장년부의 마라톤 대회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우승을 한 동네 사람들은 풍물패를 앞세워 우승기와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자기네 마을까지 행진을 하면서 가는데 이때에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신이 나서 따라 다녔다.

그는 5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배구부 활동을 하였다. 선생님의 지도로 시작한 배구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 박응진씨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세터로 활약하였다.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배구는 온양 군 1승을 목표로 방과 후에 1년간 피나는 연습을 하였다. 6학년이 시작되면서 온양군 춘계배구대회에 첫 출전한 신정국민학교 선수들은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시내 팀들을 모두 이겨 공동우승을 하면서 온양군 대표로 충남도 대회에 나가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지도하신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선수 본인들도 너무 놀라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단상에서 우승기를 받고 나서야 우승을 실감하였다. 우승기를 안고 학교에 도착하고 선생님과 선수들은 더욱 더 놀라웠다. 교장선생님, 면장님, 우체국장님, 사친회장님과 전교생 외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오셔서 교문 앞에서부터 환영식을 하였는데 시골 신생 학교에서 군 체육대회 우승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학교가 위치한 대정리는 학교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두 논으로 둘러져 있었다. 예로부터 서들 평야라고 불렀는데 예당평야에 속한 동네인지라 논농사가 주된 수입원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여 벼 베기 대회도 하였는데 인근 모든 주민들이 참가하였고 상품으로는 삽, 곡괭이, 낫 등이 지급되었다. 이때 행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루어 졌는데 대통령이 방문하다보니 학교에 새롭게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운동장도 평평하게 고르고 마이크 확성기도 새로 구입하는 등 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특히나 학생들이 좋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자갈 포장으로 단단하게 다져주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벼 베기 대회가 끝나면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하면서 막걸리를 즐겨 드셨다. 이 마을은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새마을 사업을 일찍 시작하면서 마을회관 건립 및 전기, 전화, 마을 안길 포장과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였고 마을 입구에는 박정희대통령 방문 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는 신정초등학교 4회 졸업생이다. 6학년 60여명이 졸업을 하였는데 상급학교(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50%정도였다. 그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상급학교에 가지를 못하였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인근 마을에 있는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삼경 등을 배웠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는데 돈 대신 받아온 나룻배를 보고 그는 집안 살림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선장 앞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삽교천 재방 둑을 막기 전이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던 시절이었다. 숭어와 잉어 뱀장어 등 많은 어종의 고기가 잡히는데 어느 순간 농사일해서 버는 수입보다 고기잡이 수입이 더 좋았기에 전문적인 고기잡이 일을 하였다. 상상외로 수입이 들어오니 집안 살림도 좋아지고 동생들은 학비 걱정 안 하고 상급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다. 그는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못 간 것이 평생 한이 되어 남모르게 모교에 장학금을 보내면서 본인처럼 돈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을 수년간 도와주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면 소재지가 있는 군덕리에 이사 와서 아내와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농협이 활성화 되면서 운전기사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 합격을 하여 농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8년간 근무하던 농협에서 퇴직한 그는 마을 이장을 맡게 되었다. 부지런한 성격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농촌 정비사업과 낙후된 마을 활성화 사업 등으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유치하여 마을 소재지 가로등 정비, 상가 간판일원화 사업, 독립유공자공원 조성사업, 선장포 노을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외지 타 도시에서 찾아오는 마을이 되었다.

신정국민학교는 1964년 3월에는 11학급까지 편성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닌 적도 있었지만 1980년 들어와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청년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한두 학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84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 급기야 1994년에는 신정국민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분교장으로 통폐합 되었으며 전교 학급 수도 4학급으로 줄어들었다.

폐교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주민들은 폐교만은 막아 보겠다고 교육청을 찾아가 사정도

하고 총 동문에서는 온양시내에 있는 동문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면서 내 자식 모교 보내기 운동도 하였지만 1998년 졸업식에는 12명, 이듬해에는 10명, 2000년 졸업식에는 8명 뿐이었다. 2003년 신정 분교와 병설유치원이 본원과 통합되면서 57년의 신정국민학교는 폐교가 되었다.

폐교의 재사용 용도를 모색하던 아산시와 주민들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용인원 286명 연면적 3,399㎡ 의 공간에 31개의 숙박시설과 5개의 활동실, 체육관, 단체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전통문화, 자연생태, 농촌생활체험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오 원 근 (1960년생)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선장면 학선국민학교 이야기



오원근은 선장면 신성리에서 칠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신성리는 삼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이며 오 씨 집성촌이다. 아버지 오대영과 어머니 김숙배 사이에 태어난 오원근은 어려서부터 효자 소리를 들으며 성장하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칠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오원근은 늘 마음이 무거웠고 어머니가 한 없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일찍 철이든 그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풀을 베어다가 소여물을 쑤어 먹이고 농번기에는 책가방 놓기 무섭게 일손을 거들었다.

그는 동네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 친구 다섯 명과 선장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동네가 워낙 시골이고 보니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또래들이 있는 줄 몰랐다. 1학년 입학하고 학교에 가는 왕복 이십 리 길은 어린 오원근과 친구들에게는 너무 멀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학년은 오전반 수업을 하였고 고학년은 오후반 수업을 하였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연동지역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를 안 시키고 대신 매타작을 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은 언제나 배가 고팠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면 일반 작물과 함께 고구마, 수박, 참외 등이 있었고 가을날에는 사과 과수원이 있어 가끔 서리도 많이 해 먹었다. 어떤 날에는 덜 익은 과일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있었지만 재수 좋은 날에는 과수원에서 일하는 누나들이 사과를 주인 몰래 던져주어 받아먹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십리 길을 걸어다는 걸 안타까워하던 김용기씨가 본인 소유의 땅을 기부하면서 1698년 선장초등학교 학선분교 설치인가가 나면서 동생들은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였다. 그는 본교로 등교하고 동생들은 분교로 등교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분교의 교실은 3칸으로 되어 있었다. 그가 5학년 초에 선장국민학교에 남을 반과 이사 갈 반으로 나누어 1학기 수업을 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은 이사 갈 반 학생들을 구박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때렸는데 부당함을 항의 하는 학생들은 더 많이 맞았다.

1971년 3월 1일 학선분교로 승격되면서 정식으로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고 6명의 선생님이 오셨다. 학교가 있는 마을은 연동이라(선창2리) 불렸고 당시에는 근방의 큰 부잣집(조씨)이 살고 있었으며 학성 저수지 물을 받은 넓은 들판을 앞에 두고 쌀 생산이 많아 그

나마 살만했던 동네였다.

선장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대략 50명씩 3개 반이었다. 선장국민학교에서 54명이 학선국민학교로 전학 왔다. 남여 비율로 보면 남자가 월등하게 많았고 여자가 적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못가고 부잣집 식모로 가던 시절이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반별로 줄 서 있는 걸 보면 모든 학년의 남학생 줄이 길었다.

학선국민학교는 신설학교다 보니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았는데 특히 운동장은 동네 아저씨들이 날마다 오셔서 땅을 고르셨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황토로 된 운동장이 패여 질퍽거렸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삽으로 고랑을 만들어 물길을 만들었다. 어느 날에는 성환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땅 미는 도자라는 차를 가지고 와서 운동장을 넓히며 미는데, 가끔 시체를 담은 관이 나왔다. 어떤 관은 뚜껑이 분리되어 운동장에 널부러져 있었는데 아이들은 관 뚜껑으로 널뛰기를 하면서 놀다가 동네 아저씨들한테 혼나기도 하였다. 이후 관이 나올 때마다 마을 아저씨들이 어디론가 메고 가셨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운동장 가장자리 둑에 키 큰 붉은색 칸나를 무지막지하게 심으라고 해서 남자들은 날마다 칸나를 심었다. 특히 덩치가 큰 학생들은 방과 후에 아니면 청소 시간에 학교 변소에서 똥을 퍼다 주었는데 나무가 더 잘 자랐다. 그도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 똥을 퍼서 날라서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당시에는 선생님이 때리기는 잘했어도 칭찬은 거의 안 하고 어쩌다 이장 아들이나 학교 설립자 자식들한테 만 칭찬 하는 시절이었다.

오원근, 그가 학선국민학교로 이사 왔을 때 학교 규모는 교실 4개 가운데 한 교실을 적당히 막아서 교무실과 교장실로 사용하였고 교실 뒤편에 관사에는 교장선생님 부부와 다른 선생님 가족이 살았다. 이미 입학해서 다니던 후배들이 있었고 재래식 변소는 교사 동서쪽으로 열 평 정도의 푸세식이었다. 그때는 학년별로 남녀 별 한 칸씩 배정해 주었는데 그 칸 청소는 그 학년에서 하였다. 깜짝 놀란 것은 선생님들은 변소를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칸이 따로 있고 선생님들도 볼일 보시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후 교무실과 교실을 증축해서 모두 일곱 칸이 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실이 길

게 되어 있어서 쉬는 시간에 동생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선생님들을 위한 방도 있었는데 가끔은 학생들도 사용하였다. 여름 조회 시간에 쓰러지는 학생들은 양호실로 사용하기도 했고 나머지 공부를 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습 분위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보다는 집에서 있으면 부모님이 일이나 시키니 그냥 학교나 가서 놀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농번기에는 특히 모내기 때는 못 줄 잡으라고 해서 결석하고 고추 수확기에는 고추 따느라고 결석하고 그 외에도 밭이 있는 집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농사일과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다. 집안이 좀 살만한 애들은 공부만 하고 오원근처럼 그럭저럭 사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소 풀을 먹이거나 밭에 풀 매러 나갔다. 그도 모내기 때나 고추밭 매러 갈 때, 벼베기 할 때 2~3일 빠지곤 해서 개근상은 아주 포기하였다.

학선국민학교에는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 주는 커다란 쇠 종이 있었다. 종속에는 시계추가 매달려 있었고 그걸 소사 아저씨가 종을 때려 알려 주셨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도 학생도 손목시계가 없었다. 시작종과 끝나는 종소리는 비슷하였는데 수업 시작은 좀 늦게 쳐도 별일 없었는데 공부 조금 더 하자고 끝나는 종을 늦게 치면 가끔은 오줌 싸는 사건이 벌어지곤 하였다. 당시의 선생님들은 공부시간에는 절대로 변소에 안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 가끔은 오줌 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옷을 빨아서 다시 입혀 주셨다.

1972년 그는 졸업식을 하였는데 학선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선생님과 단체 사진 찍었다. 졸업식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밭일이 너무 바빴고 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몸저 누워 계셨기에 졸업식에 못 오셨다. 졸업식에는 동네 친구들 부모님도 아무도 안 오셨다. 친구끼리 사진 찍고 집에 오던 길에 삼봉산에서 저녁 늦게까지 실컷 놀다 들어갔는데도 이날은 아무도 혼나지 않았다. 아마 부모님들도 졸업식에 참석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애처로웠던 것 같다.

학선국민학교는 1970년대 학생 수가 정점을 찍더니 80년대 후반에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줄기 시작하였다. 젊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병설유치원도 설립하고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소이전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1995년 다시 선장초등학교

분교장으로 통합되면서 서서히 폐교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폐교가 되면 마을의 구심체가 없어지고 총동문회 모임 장소와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였다.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이 기부한 땅이니 도로 반환하라는 요구도 하였지만 폐교를 막지는 못 하였다. 폐교 이후 학교는 귀신이 나올 정도로 흉물스러웠는데, 몇 년간은 마을 체육대회도 하고 가을 추수를 하며 수확한 벼를 말리는 장소로도 사용하다가 충남 교육청으로부터 아산시가 매입하여 2013년 8월9일 정규 규격을 갖춘 아산 학선 하키장으로 조성하였다.

<인터뷰어_ 안종은>

박 석 주 (1955년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면 동화국민학교 이야기



박석주는 아산시 송악면 동화2리에서 아버지 박만길 과 어머니 장기자 사이에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지리적 여건상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동화2리 마을은 서봉골과 백학동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에 백학이 모여 놀았다 하고 이곳에 송장을 아무 곳에 버려도 별 탈이 안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부모님의 고향은 궁평(송악)저수지가 고향이다. 궁평 저수지가 마을이고 이 마을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해방되고 이듬해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둑을 쌓아 댐(송악저수지)을 만들면서 마을과 농경지는 모두 물속에 잠기면서 수몰 지역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해 온 곳이 지금의 마을이다.

그의 형과 마을 선배들은 송악면 소재지가 있는 송남국민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1954년 박석주가 만 2살이 되던 해에 송남국민학교 동화분교장에서 동화국민학교로 승격 분리되면서 정식학교가 되었는데 교실 6칸과 교무실 1개가 있었으며 학생 수는 7개 마을에 12개 부락 에서 약 350명이 학교에 다녔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수시로 오셔서 돌과 자갈을 골라내시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고학년 형들도 수업 시간 외 특별시간에 운동장에서 돌을 줍고 나무를 심곤 하였다. 교장선생님 사택을 지으면서 일부 어르신들은 우물을 팠는데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방식이었고 선생님께서는 저학년은 위험하니 우물가에 가지말라고 늘 말씀 하셨는데 우물에 빠지는 학생이 있었다.

그가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약 50명에서 55명 정도였다. 한 반에서 책가방을 들고 다니던 학생은 1~2명에 불과하였고 거의 보자기에 책을 담아 다녔다.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학생도 거의 없었고 모두가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식은 꽁당보리밥이나 감자 삶아 놓은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하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부에서 강냉이 가루를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죽을 끓여 놓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날은 모처럼 배부르게 먹는 날이기도 하였다. 학교 앞에는 잡다한 물건을 파는 가게와 막걸리를 파는 대폿집 그리고 방앗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간혹 동네 어르신들이 방아 찧

으러 왔다가 막걸리 한 잔에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면 까까 사 먹으라고 10원짜리 하나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친구들과 십리사탕 사 가지고 빨아먹으면서 집에 와도 다 먹지를 못하였다.

그가 3학년이 되던 해 운동장이 완공되어 가을 운동회를 한다고 선생님이 발표하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다. 이장님은 부락 대항에 출전 할 선수들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셨고 전교생들은 운동회 날 발표할 탑 쌓기, 기마전 등을 매일 연습하였다. 운동회 당일은 인근 7개 마을 12개 부락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는데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도 다 오셨다. 학생들보다 먼저 오신 잡상인 아저씨들은 벌써 이것저것 펼쳐놓았고 면장님과 우체국장님도 한껏 멋을 내고 오셨고 자녀가 없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도 한껏 들떠서 구경 오셨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 달리기와 청백계주, 줄다리기에 이어 점심시간은 동네잔치와 똑같았다. 삶은 닭과 모처럼 먹는 돼지고기, 밤, 사과, 감등 온갖 과일들이 넘쳐났으며 엄마가 특별히 주는 용돈 100원은 너무 좋았다.

박석주는 청백계주에 늘 대표로 출전하였으며 반 달리기에서는 언제나 1등을 하여 공책을 3권 받았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학생대표 동네별 이어달리기하고 동네 청년부락 대항이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되는 청년부락 대항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엄청난 응원 소리와 함성이 학교를 들썩이게 하였는데 가끔은 취객으로 인해 마을간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는 6년 개근상을 못 받은 것이 지금도 늘 아쉽다. 개근상을 제일 큰 상으로 생각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홍역으로 인해 결석하면서 6년 개근상을 못 받았다. 하지만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어서 우등상도 여러 번 받았다.

반 친구들 중에는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도 있었고 한글도 다 못 읽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서 그에게 검사 맡고 집에 가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야간 학습시간이 생겼다. 중학교 입학 준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보충수업이었다. 지금은 의무교육이지만 당시에는 시험을 봐서 입학하고 떨어지는 학생도 있던 시기였다.

그가 사는 마을은 평야지대는 전혀 없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쌀이 귀하였고 감자나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날이 허다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점심 도시락을 싸 간 적이 없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밭일을 거들어야 했고 맨손으로 고추밭 풀을 뽑다 보면 손톱 밑은 언제나 까맣게 때가 끼곤 하였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가서 재를 뿌리고 부리나케 학교에 갔는데 용의 검사를 하는 날이었다. 모두 손을 내밀고 손톱 및 목에 때 검사를 하는데 반 전체 학생들이 용의 불량으로 걸렸다. 선생님은 난감하셨는지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앞 개울가로 가서 물장구를 치며 고기잡이를 하라고 하였는데 정신없이 한참을 물장구 치고 놀다 보니 몸에 있는 때가 불어 서로 서로의 등을 돌멩이로 문지르니 잘 벗겨졌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한 목욕시설이 없었기에 개울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러 고기잡이 명목으로 목욕을 시키신 거 같다.

졸업식 날은 면 소재지에서 국회의원님, 면장님, 우체국장님, 파출소장님, 육성회장님 등 많은 지역 유지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특히 관심은 누가 국회의원 상을 받나 하는 거였다. 그 외 여러 가지 상이 있었고 상품은 주로 사전이나 크레파스 외 노트를 주었다.

졸업하던 날에는 온통 학생들의 울음바다였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운하였지만 상급(중)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중학교에 못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여자를 공부 가르치기에는 돈도 부족 하였지만 교육열은 매우 적었다.

그는 동화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중학교와 천안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다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훈련소에서 체격이 좋고 몸이 민첩하여 공수 특전사로 발탁되어 군 생활을 하던 중 어느새 특전사 조교가 되었다. 직업군인이 되라는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만 3년 2개월 만에 제대하였다.

고향에 온 그는 아산시내에 있는 온양관광호텔에 취업해 출퇴근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 동화리에서 다녔다.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안정되어 갈 무렵 평생을 함께 할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1남2녀를 두었다. 큰 아이를 동화국민학교에 입학시킬 때부터 시골에는 청년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자연스레 아이들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한 학급에 30명에서 1년 만에 20명 이듬해에는 10명 채 안 되는 일이 일

어났다. 아이들이 줄어들자 다니던 아이들도 인근 면 소재지로 전학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 면 소재지 학교로 전학을 시키면서 동생들은 아예 면 소재지 송남국민학교로 입학을 시켰다. 결국 1991년 3월1일자로 동화분교장으로 격하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큰 걱정에 직면하였다. 폐교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을 사람들과 총동창회에서 교육청에 찾아가 의논도 하고 항의도 하였지만 3년 뒤에는 결국 폐교를 인정하였다. 비록 동화국민학교는 폐교는 되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배정되고 컴퓨터 1대씩 지급하였다.

폐교가 되면서 교문이 굳게 닫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운동장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건물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명절이면 고향에 온 동문들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총회도 하면서 도란도란 고향의 정을 나누고 만나는 장소였는데 폐교가 되면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총동창회마저도 사라졌다.

그와 주민들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아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젊은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이 작품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폐교가 되고 6년이 지난 2001년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연구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이 들어왔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진 풍 호 (1941년생)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치면 삼서국민학교 이야기



진풍호는 신창면 신달리 2구에서 아버지 진수영과 어머니 정운빈 사이에서 5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지만 3살이 되던 해에 곡교천 건너 마을인 강청리로 이사하였다. 강청리는 강척골, 말, 아랫말, 새터말, 속새말, 주마거리로 나뉘며 이 마을은 돌이 많아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을 이르면 지하로 흘러 내가 늘 말라 있으므로 간척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강청리가 되었으며 지금도 마을 냇가에는 물이 조금씩 밖에 흐르고 있지 않다.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다. 마을이 영인산 골짜기 아래로 형성 되어 있다 보니 쌀을 수확할 논은 전혀 없고 돌을 걷어내어 만든 밭을 일구어 겨우 목에 풀칠하는 정도였다.

진풍호는 염치면 소재지에 있는 염치국민학교에 입학하는 날 부모님들은 날일을 가시고 대신에 큰형의 손을 잡고 입학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십리가 넘었지만 함께 가는 형들이 있었기에 안심이 되었다. 1학년 학기를 마치고 산양리에 있는 삼서국민학교로 전학했다. 말이 전학이지 기존 염치국민학교는 그만 다니고 산양리에 있는 학교로 가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신규학교로 왔다. 그는 어려서 몰랐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이미 신규학교를 세우려고 학교 부지를 공동 구입하여 교육청에 기부하면서 1947년 염치국민학교 산양분교실이 설치되었다.

당시에 학교 건물은 나무판자를 엮어 만든 교실과 짚 이엉을 얹은 지붕, 그리고 교실은 흙바닥이었는데 6학년 때 마룻바닥으로 교체하였다. 학교 교직원은 교장1명, 교사7명이 있었으며 교장 선생님이 생활하시는 관사가 1개 있었다. 선생님들은 마을에다 방을 얻어 놓고 생활을 하셨는데 총각 선생님들은 하숙을 하셨고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가족 모두가 이사 와서 생활 하셨다.

학교 이름은 석 삼자에 서녘 서자를 써서 삼서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삼서국민학교는 인근마을 서원리, 인주 금성리, 강청리, 산양리에서 모인 아이들이 다녔는데 한 학급에 약 5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았으며 진풍호씨와 같은 마을에서 오는 학생은 10명이었다. 이 당시에 남학생들은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고 부잣집 아이들은 검정고무신(만월표)을 신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나무 게다(슬리퍼)를 신고 다녔다.

학교수업은 국어, 셈본(산수), 음악, 체육 등 4개 수업을 하였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한

문을 배웠다. 한문책은 따로 없었고 국어책 뒤에 한문 교본이 있었다.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들이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는데 한글과 셈본 구구단 외우기 등을 하였다.

강청리에서 학교까지는 2km 조금 안 되었지만 여름 장마철에는 신작로 옆 곡교천 물이 범람하여 고무신을 벗어들고 다녔고 겨울에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매서워 학교 오가는 길은 언제나 고생이었다.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였는데 반 친구들 중에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은 절반이 채 안 되었다. 그도 가끔은 꽁당보리밥을 싸 가지고 오기도 하였는데 반찬은 김치와 무짱아찌 정도였고 조금 살만한 집 친구는 멸치볶음을 싸 오기도 하였다. 점심을 못 싸오는 날에는 철 따라 열리는 과일이나 밭에서 고구마를 몰래 캐 먹기도 하였다.

그가 2학년 되었을 때 학교선생님이 북한공산당이 쳐 들어와 전쟁이 났다고 하셨다.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학교는 휴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친척 집으로 피난가고 그의 가족도 당숙네 집으로 피난을 갔다. 인민군이 북으로 도망가고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다. 학교 건물 일부가 폭격에 무너졌고 운동장도 이곳저곳 웅덩이가 패여 있었다. 동네 아저씨들과 교육청에서 오신 아저씨들이 학교를 수리하고 전교생들은 운동장 고르는 일을 하였다. 그가 5학년 되었을 때 학교에 풍금이 들어왔다. 모든 학생들이 처음 본 물건이라 신기해하였다. 당시에는 풍금을 칠 줄 아는 선생님이 없어서 음악 시간이면 이웃 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였는데 모두 즐거워하였다.

6.25가 끝난 직후라 학생들의 가정이나 학교 수업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몸에 때가 많이 끼고 머리와 몸에는 이가 많았다. 가끔 선생님이 하얀 가루약 같은 것을 뿌려 주시도 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용의검사를 하였지만 비누도 없고 특히 못 먹었기에 몸에 기름기가 없어 겨울에는 손과 발이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가 없었다.

진풍호와 같은 동네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못 하였다. 사친회장 아들이나 동네 유지 자녀 외에는 아무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였다. 남자들은 농사일을 거들거나 공사장 날일을 다녔고 여자들은 공장으로 취직을 하였다. 내년에 재수라는 것도 없었다. 그는 31살 되던 해에 외사촌 누님의 소개로 결혼을 하고 슬하에 딸 하나를 낳았다. 살면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직업군인을 하시는 큰 형님이 보내주시는 곡식을 팔아 모은 돈으로 농토를 하나하나 늘려 나갔다. 그의 자녀가 삼서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온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마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이탈은 마을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특히나 삼서국민학교는 학사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한해 두해 아이들이 줄어들더니 아산교육청에서는 1993년 삼서분교장으로 격하시켰다. 놀란 동네 이장님과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축구부를 창단하자, 특수학교를 만들자, 등 논의 하였지만 한번 떠난 아이들은 다시 오지 않았고 2004년 염치국민학교와 통폐합을 하였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문 주 일 (1958년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면 백석포국민학교 이야기



문주일은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에서 아버지 문병희와 어머니 진영하 사이에 무녀 독자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동네는 마을 입구에 흰 조약돌이 많다하여 유래 되었다. 옛날에는 배가 많이 드나드는 포구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상업과 어업이 발달하였었으나 아산만 방조제를 막고 나서 포구가 없어지고 대신에 넓은 간척지가 조성되어 현재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부농 부락이다. 마을 뒤 포구에는 날마다 통통배가 드나들면서 소금, 새우젓이나 숭어 등 각종 생선들을 팔고 사는 장사치들로 늘 북적이고 큰 창고가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어 식당, 대폿집 기생집들이 들어서고 구한말에는 성공회 교회가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은 이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집에는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과 머슴들이 항상 북적거렸고 할아버지는 손자(문주일)를 끔찍이 사랑하여 발에 흙이 묻지 않았다. 가령 서당에 오고 갈 때에는 머슴들이 업어다 주었고 면 소재지나 장터에 가려면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태우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는 인근 동네에서도 한 대밖에 없었다.

그와 백석포 아이들은 십 리길에 있는 영인면 소재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비나 눈이 내리면 진흙길로 변하여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동네 아이들은 날마다 이 길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금지옥엽 손자가 먼 길 걸어 학교 가는 게 여간 딱하고 불안한 게 아닌지라 당신이 자전거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태워다 주고 데려오곤 하였다. 그가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동네에서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백석포에 초등학교를 건립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지역 유지, 서울에 사는 친인척 등 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하여 마을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자리를 구입하고 교육청에 기부하면서 1965년 영인초등학교 백석포 분교를 시작되었는데 당시 1학년들은 마을회관 한쪽 공간과 방앗간 방을 교실로 사용하였다.

백석포 1, 2구 마을과 모원리, 구성리 1, 2구 5개 마을의 아이들이 1967년 백석포분교장이 되면서 교장실 1개와 교무실 4개 변소 등을 갖춘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한 학급에 50~60명의 아이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절반의 학생들이 글씨도 몰랐다. 부유하게 자란 그는 개인과외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늘 1등을 하였다. 또한 백

석국민학교에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학생은 전교에서 그가 유일하였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검정고무신을 신었으며 조금 여유가 있는 집 학생들은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운동화(비비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도 문주일 씨가 유일하였다.

신설 학교는 학생들이 할 일도 많았다. 다섯 개 마을 어르신들이 교대로 오셔서 삽과 괭이로 운동장 평탄 작업을 하시면서 돌을 골라 한곳에 모아 놓으셨다. 그와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책보에 돌을 나르고 운동장 울타리에 나무를 심고 물을 길어다 주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쳐가던 어느 날 성환에 주둔하는 미군부대 군인들이 불도저를 가져와서 운동장 평탄작업을 일주일 해주었는데 어르신들이 한 달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았다.

학교 운동장은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 놀고 소 풀 베고 뛰어 놀던 공동묘지이자 놀이터였다. 군인들이 불도저로 운동장평탄 작업을 할 때에 동네 아저씨들이 흰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주워 담아 옆 동산에 가서 묻곤 하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연고 없는 사람의 뼈가 나와 묻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와 아이들은 학교 변소(화장실)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 당시에 화장실은 나무판자 건물에 큰 항아리를 묻고 널빤지를 깔아 사용하는 푸세식이라 비오는 날에는 달걀귀신이 나와 잡아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나기에 더욱더 무서웠다. 학생들 대부분이 집에서 대변을 보고 오지만 가끔은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는 날이 있는데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휴지가 아닌 짚이나 호박잎으로 처리하였다.

그가 다니는 학교는 물론 동네에도 전기 시설이 없었는데 6학년 시작되면서 전기가 들어왔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시면서 사 오신 텔레비전은 온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녁밥만 먹으면 그의 집으로 와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갔다.

당시에 학생들의 출석률은 아주 저조하였다. 농번기와 벼 베기를 할 때에는 한반에 절반이 결석하였다. 문주일 씨는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을 받았고 중학교 3년 정근상을 받았다.

그는 백석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온양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 두 명을 두었다. 함께 다니던 동네 친구들도 결혼하여 자식

들이 생겼지만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한 명 두 명 온양시내로 전학을 시키거나 아예 이사를 갔다. 이곳은 학원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니 젊은 여자들이 살기에도 불편하였다.

큰 아들이 백석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4학년이 될 때에는 폐교한다는 소문이 한참 돌았다. 백석포국민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그는 교육청에 찾아가 불가함을 주장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및 주소 퇴거 운동을 주장하였지만 2007년 영인국민학교와 통폐합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너무 속상한 문주일 씨는 6개월간 폐교에 가보지 않았다.

어느 날 찾아간 폐교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고 교실 건물은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 앞 교문에 있던 학교명 동판은 어느 고물 장수가 가져갔고 학교 자료도 없어진 걸 안 그는 매우 후회하였다. 본인이라도 학교 자료를 모아 기념관이라도 설립할 것을 하고 말이다.

지금 백석포국민학교 건물은 모두 철거하였고 흰돌 유치원을 새로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아산시
아산의 폐교 이야기

김 인 근 (1956년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대동국민학교 이야기



김인근은 서산시 운산면에서 아버지 김용두와 어머니 정서운의 사이에 2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육사를 졸업하시고 군 생활을 하시다 동기들과 전역하시면서 국민학교에서 선생을 하였다. 운산면에서 국민학교 3학기를 마칠 무렵 아버지께서 갑자기 학교를 그만 두면서 고향인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로 이사 오게 되었다. 송촌리는 예전부터 뒷산에 소나무가 많은 농촌이라 송촌리라 하였고 마을의 형성 년대는 약 1500년쯤으로 추정되며 김해김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그가 어린 나이에 송촌리로 왔어도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는 전혀 낯설거나 서먹하지가 않았다. 김해김씨 집안 집성촌이다 보니 웬만하면 친척이고 사돈이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인근 마을에 있는 월랑국민학교까지 거리는 십 리가 넘었는데 실제로 다니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다. 평편하지 않은 도로는 비나 눈이 오면 늘 질퍽거렸고 울퉁불퉁 거리는 자갈길은 고무신 신고 가기에는 발바닥에 늘 물집이 잡혔다.

어린 자손들이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안타깝고 딱해 보였는지 김해 김씨 대종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김씨 대종회종친 땅을 교육청에 기부하고 월랑초등학교 대동분교를 인가하게 되었고 1963년 3월1일 정식으로 대동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학교 이름은 큰 대자에 고을 동자를 써서 대동국민학교라고 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송촌리, 동암 1.2구, 대동리 3개 마을 4개 부락으로 약 250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학생 수는 한 학급에 평균 40여명에 전교 학생 수는 약200여명 정도였다.

개교 초기건물은 목재 건물에 기와지붕을 한 교실 3칸과 교무실 1개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사택이 이었는데 당시 마을 뒷산 아래에 기와 공장이 있어 일부는 돈을 주고 사왔고 일부는 공장에서 기부를 받았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변소는 교실과 사택 사이에 있었는데 나무와 흙 수수깡을 엮어서 만든 구조였는데 부서지거나 수수깡에 묻은 흙이 떨어지면 고학년 학생들이 진흙으로 보수를 하였다. 가끔은 짖궂은 남학생들이 구멍 난 곳으로 몰래 보다가 선생님에게 걸려서 매타작을 받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는 재료는 사료 푸대나 신문지를 사용하였고 선생님들은 학교 소사 아저씨가 신문지를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철사 고리에 매달아 놓았다.

허허벌판 같은 운동장에 그늘을 만들려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남학생들은 교장선생님

과 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으며 나무에 심은 사람 이름을 써서 달아 놓으셨다. 여학생들은 운동장 풀 뽑기를 하였다.

그가 4학년 때에는 학급 반장을 반 학생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직권으로 성적순으로 뽑았는데 그는 분단장에 뽑히기도 하였지만 이 후에는 한 번도 학급 임원이 되지 못 하였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어렵고 가난한 시기였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기 초에는 기성회비 못 내는 학생들은 등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선생님은 기성회가 가지고 오라고 집에 다시 보내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 하면 다음에 준다고 하고 함께 온 친구들은 학교도 집에도 못 가고 공부시간 끝날 때까지 산에서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가곤 하였는데 한 집에 3명의 학생이 있으면 1명분은 면제해 주었다.

그가 4학년 되었을 때 1~3학년은 가까운 꾀꼴성으로 갔고 4~6학년은 현충사로 소풍을 갔다. 버스를 타고 갈 형편이 안 되었기에 황골산을 넘어 현충사까지 가는 길은 어렵고 험해도 모두들 신났는데 학교 앞 송방집 아저씨도 지게에다 군것질거리와 딱지, 다마(구술), 장난감 등을 지고 따라오셨다. 현충사에 도착해 이순신장군 영정에 참배하고 반별로 노래자랑을 하는데 반 친구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특별히 싸 주신 삶은 계란과 김밥을 먹는 점심시간은 너무나 행복하였는데 더러는 보리밥만 싸오는 친구도 있었고 밥도 없이 고구마나 계란만 싸오는 친구도 있었다. 보물찾기 시간은 모두가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그는 한 번도 보물을 찾지는 못하였다.

대동국민학교 가을운동회는 마을 잔치였다. 학생들은 풍물놀이, 기마전, 탑 쌓기 등을 연습 하였고 각 마을 이장님들은 부락대항 달리기 준비를 몇 달 전부터 연습하였다. 가을운동회 당일에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국밥을 준비하였고 동네마다 마차에 싣고 온 음식들이 넘쳐났다. 교문 옆길에는 어디서 왔는지 장사치들이 자리 경쟁을 마치고 물건 파느라 혈안이 되었다. 학년별 달리기와 줄다리기, 고학년들의 기마전, 청백계주와 동네계주는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두가 응원 속에 파 묻혔다. 마지막에 열리는 동네 청년 부락 대항은 패싸움이 날 정도로 치열 하였으며 어떤 동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선수를 몰래 데리고 온 게 발각되어 망신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학교 다닐 때에는 유난히 추웠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멀지는 않았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은 손과 발 모두 얼어버렸다. 학교 교실은 난로가 하나 있었다. 추운 겨울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동네 아저씨들이 장작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지만 한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학생들이 산에 가서 솔방울과 광솔을 주어다 저장한 것으로 겨울을 보냈다.

대동초등학교 졸업식 날에는 면장님과 우체국장님, 파출소장님, 육성회장님 등이 오셨고 학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졸업식 노래가 시작되면 어느새 졸업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하였다. 특히나 상급학교(중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은 더 서럽게 울었다. 그와 함께 졸업하는 학생들은 남녀 5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남자 20명, 여자 2명뿐이었다.

그는 대동초등학교 6회 졸업생이다. 온양시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군대 제대 후 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취업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자 국민학교 동창회도 만들고 총동문회에도 가입하면서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학교의 기능이 조금씩 상실되어가던 1986년 대동국민학교는 다시 월랑국민학교 대동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인근 도시로 떠나는데 막을 방안이 없었다.

온 주민들이 나서서 폐교만은 막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내 놓았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는 막지를 못 하였다. 육성회장과 주민들의 폐교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다소 과격해지자 교육청에서 3년 안에 1명의 학생이라도 증가하면 폐교를 보류하겠다고 하였지만 1명도 증가되지 않았다. 결국 남은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과 학생 개개인 컴퓨터 지원 받는 거로 1994년 폐교되었다. 대동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는 매각되어 동물가축위생연구소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어_ 안종은>

서산시

|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다시 찾은 아버님의 명예 378
애국지사 유동렬 선생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 384
노인봉사와 독립운동사 강의를 통한 독립정신의 전파 391
콘크리트 비석에 담긴 조부님의 독립운동사 400
조부님의 유훈 1일 1선을 실천하며 407
혈서 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한 조부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리 412
부친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에 봉사하다 416
뒤늦게 발굴된 아버지의 독립운동사 421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유 승 웅 (1945년생)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다시 찾은 아버님의 명예



유승웅님은 유한종(劉漢鍾, 1901~1950) 애국지사의 아드님이다. 본적은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38번지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유한종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24일 일어난 해미공립보통학교(현 해미초등학교) 학생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 옥고를 치렀다. 지사께서는 다행히 주동 인물에서 제외되어 체형을 받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징역형을 수형한 동료 학생과 달리 2019년에 와서야 대통령표창을 추서받게 되었다.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모두 16명 내외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표창 이상의 서훈을 받은 분은 현재까지 7명으로 아직도 9명이 미서훈 상태로 남아 있다. 미서훈의 원인은 후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24 해미공립보통학교 학생만세운동은 서울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만세운동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칠 때, 해미에서도 3월 19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남상철(南相喆)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만세운동이었다. 하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았고, 남상철도 일본 경찰에 붙잡히면서 만세운동은 진정되었다. 이때 해미면에는 이계성(李啓聖, 1900~1976)이 저축조합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천주교도인 한병선(韓炳善)과 정(鄭) 신부로부터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입수하였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량 인쇄한 후에 만세운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3월 23일, 해미공립보통학교 제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생은 10명이었고, 반장은 김관룡(金寬龍, 1900~1975)이었다. 마침 졸업생을 축하하는 고별식이 다음 날인 3월 24일 시내 음식점에 개최되었다. 이계성은 해미공립보통학교 4회 졸업생으로 1918년 3월에 이미 졸업한 선배였다. 그는 이 고별식을 만세운동의 좋은 기회로 판단하였다. 그는 해미면 동암리에 사는 김관룡을 찾아갔다. 김관룡은 이계성의 만세운동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고, 뒤이어 같은 졸업생인 유세근(柳世根), 김연택(金然澤)의 찬동도 얻어냈다. 이들은 3월 24일 저녁, 고별식이 열리는 박인양(朴寅陽)의 음식점으로 갔다. 김관룡은 연회가 종료되는 시점을 이용하여 동기생과 선후배들에게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강권하였다.

유승웅 님의 부친인 유한종 애국지사는 김관룡과 동기생인 졸업생 자격으로 연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관룡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만세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심



그림1 해미읍성과 만세운동 표지석

하였다. 밤 11시경,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해미면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렸고, 해미면 읍내리의 우시장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해미면 경찰관 주재소에 돌진하였다. 시위대는 200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일본 경찰관 앞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떳떳이 선언하였다. 그리고 영원하도록 무궁하라는 “만세”를 크게 연호하였다. 그 결과 20여 명의 주도 인사는 일본 경찰에 황급히 제압당했고 서산경찰서로 끌려갔다. 그 중심에 유한종 애국지사도 있었다.

그러나 유승웅 님은 부친의 독립항쟁 사실을 몰랐다. 아니 부친에 대하여 자세히 알 겨를이 없었다. 유승웅 님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잔인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의 연속이었다. 형제는 8남 2녀로 많은 편에 속했는데, 유승웅 님은 막내에서 두 번째로 어렸다. 1946년생으로 부친이 46세 때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출신으로 성명은 김흥래(金興來)였다. 강인하고도 억척스러운 어머니셨다. 그런데 유승웅 님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형님이 태어났는데 일찍 사망하고 말았다. 형님의 사망신고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승웅 님은 자신의 이름이 유승룡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이름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승웅 님은 1945년 7월 5일생이 되었고, 1년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

으며, 군대도 형님 이름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형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가정의 고난은 여전했다. 큰형님은 유영래(劉永來)인데,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다. 그리고 필리핀 제14방면군 제35군 제30사단 제77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45년 7월 1일 필리핀 레이테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유승웅 님이 실제로 태어나기 1년 전이다. 광복을 한 달여 남기고 큰형님은 돌아가시고 만 것이다. 집안의 큰 기둥 하나가 무너졌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부친은 대단히 학식이 깊었다고 한다. 부친은 해미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해미면사무소에도 근무하였고, 대서소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소송 관련 대필을 많이 해주었다고 한다. 부친이 쓰셨다고 전하는 족보와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붓글씨가 보통 수준을 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학식이 깊었던 부친도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가지 못했다. 시골로 확대된 한국전쟁은 민간인 학살로 자행되었고, 무고한 양민의 무수한 희생을 낳았다. 부친은 이 과정에서 좌익으로 몰렸고 우익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일제강점기 노무자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둘째 형님과 함께였다. 하늘이 무너졌다. 어린 시절 유승웅 님은 부친의 사망 원인을 어머니께 여쭈어본 일이 있었다. 어머니 말씀은 한마디였다. "똑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집안의 액운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셋째 형님이 전사하셨다. 이 형님은 한국전쟁기에 경기도 연천 광진지구 전투에서 참여하였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황망했다. 넷째 형님은 동두천 헌병대에 근무하던 중 트럭에 모래를 싣고 나오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형님도 이 사고로 끝내 사망하였다. 다섯째 형님도 서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유승웅 님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젊은 시절을 해미면 조산리 238번지에서 지냈다. 슬픔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1960년대 4-H운동에 참여하면서 농업기술 개선과 근검절약의 정신도 익혀나갔다. 하지만 20대에 접어든 유승웅 님은 군에 입대해야 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해미와의 인연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군 생활은 유승웅 님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때로는 부친의 사망과 관련한 신원 문제로 남모를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승웅 님은 장기 하사에 지원하였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1960년대 월남전에 파병될 때에도 대대장은 유승웅 님의 파병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대장은 "유승웅이 파병되면 우리 부대가 쓰러진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유승웅 님은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씨름, 육상, 스케이트 등에 열정이었다. 운동 실력은 월등해서 부대를 넘어 사단에서도 1등을 다퉜다. 1년에 두어 번씩 표창을 받았고 포상 휴가를 갔다. 부인을 만난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 신혼살림을 내게 되었다. 연천은 군부대와 가깝기도 하였지만, 풍광도 좋았다. 새로운 삶을 영위할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군 생활은 20년 정도로 끝냈다. 그리고 가정을 보살피며 생업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연천군청 소속의 씨름단을 이끌면서 코치 생활도 하였다. 연천경찰서 방범위원으로 10년 넘도록 활동하였고, 의정부 검찰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10년 정도 일했다. 그리고 소년원에 유치된 범죄 청소년을 계도하여 사회로 환원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보람도 그 이상으로 많았다. 그러던 2019년경, 해미면 조산리 집안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친께서 독립유공자에 해당 되시니 서훈을 신청하라는 전갈이었다. 예전에는 조산리에 일가 어른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한 집 정도밖에 없다. 그 형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제야 부친의 행적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부친은 2019년 대통령표창에 서훈되었고, 애국지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부친께서는 유승웅 님 앞에 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자 형제는 모두 떠나갔지만, 두 분의 누님은 살아 계신다. 90대의 두 누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현재 유승웅 님은 79세다. 형님 나이로 살고 있으니 실제 나이는 78세다. 몸은 종합병원이다. 군 생활 도중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사용했던 고엽제 때문에 그 피해를 현재 당하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장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도 자주 발견되는 군 생활의 후유증이다. 유승웅 님도 암 수술을 4번이나 하고 완치되었다.

이제 유승웅 님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부친의 독립운동 행적을 더듬고, 이를 선양하는 사업에 남은 생을 다하는 것이다. 연천에 사는 두 아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위업에 대하여 단단히 말해 두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굳게 하자고 말이다. 아울러 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 그러나 꿈만 꾸면 나타나는 해미면 조산리에도 자주 내려오겠다고 다짐한다. 서산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참뜻을 펼쳐나갈



그림2 유한종 애국지사의 서훈을 축하하는 현수막(2019년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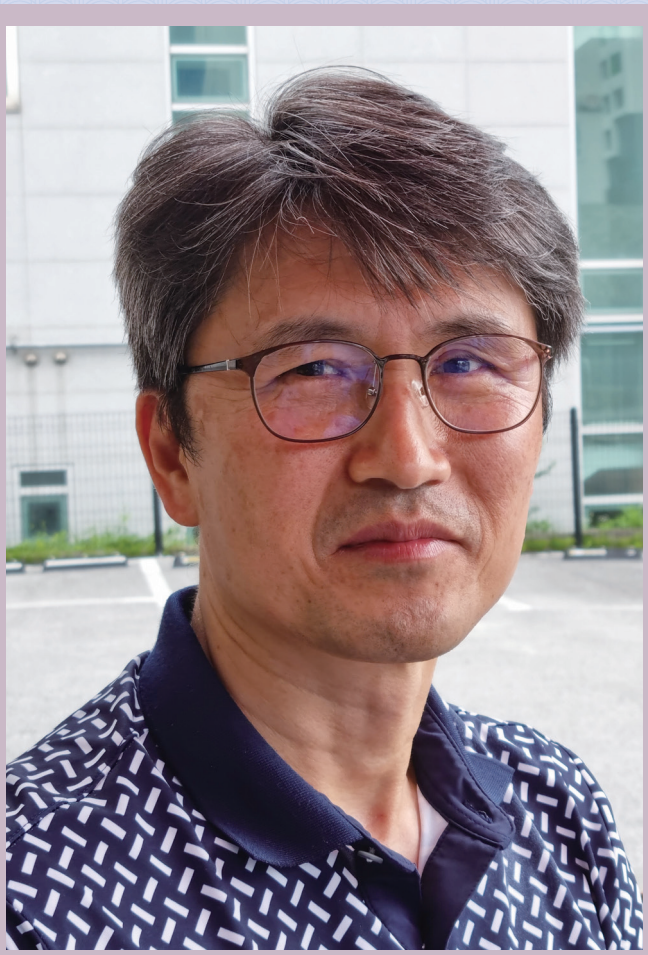
의지도 있다. 동시에 기울어가는 몸을 올바로 추스르고 희미해져 가는 정신도 강하게 여미는 중이다. 옛날 여름, 마당에 멍석 깔고 어머니와 단둘이 잠을 잘 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애야,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똑똑하면 안 된다, 정직하고 참되게만 살아라.”라고. 유승웅 님도 한없이 기억하며 다짐한다.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도 강하고 올곧게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인터뷰어_ 김남석>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유 승 기 (1964년생)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애국지사 유동렬 선생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



유승기 님은 독립운동가 유동렬(柳東烈, 1896~1956) 애국지사의 손자다. 본적은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이며 본관은 서령(瑞寧)이다. 부모님께서 조부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정작 유승기 님은 조부님을 직접 뵌 적이 없다. 세상에 태어나기 8년 전에 이미 조부께서 작고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형제는 3남 2녀인데, 막내 고모님만 제외하고 모두 돌아가셨다. 큰아버지는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에서 '유창상회'라는 옷 가게를 하셨는데 인천으로 이사 가서 돌아가셨으며, 둘째가 아버지인데 운산면 가좌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소중리에서 돌아가셨다. 막내 삼촌은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 전사하셨다. 막내 고모만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데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에서 거주하신다. 수당리는 함평 정씨 집성촌인데 돌아가신 고모부도 역시 함평 정씨이다. 가깝게는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신다.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요양보호사에 의존하며 생활하신다. 결국 조부님의 흔적은 막내 고모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물론 어린 시절에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도 조부님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조부이신 유동렬 애국지사는 1896년 9월 19일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180번지에서 태어났다. 천성(天性)이 온후(溫厚)하고 결백(潔白)하였다. 운산면 소중리와 가좌리는 서령 유씨가 많이 거주하는 동족 마을이었다. 조부도 서령 유씨의 가풍을 계승하며 학업을 연마하는 데 전념하였다. 조부는 6세이던 1901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당진시(당시 서산군) 정미면 도산리에 가서 남순희(南純喜) 문하에서 한학과 유도(儒道)를 수학하였다. 그리고 공부가 끝날 무렵인 1917년 11월, 혼인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신부는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에 살던 조병기(趙炳基)의 장녀로 이름은 근행(謹行)이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유동렬 지사는 혼인 이후 당진시(당시 서산군) 대호지면 장정리로 이거 하였고, 이곳에서 서당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대호지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이라고 현재 명명된 독립만세운동은 대호지면 유생들이 시작한 것이다. 1919년 1월 고종이 급서(急逝)하자, 남주원(南柱元), 남계창(南啓昌), 남상돈(南相敦), 남상락(南相洛), 이대하(李大夏) 등 도호의숙(桃湖義塾-대호지면

도이리에 있던 사숙) 유생들은 고종의 장례식에 참례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참례한 이들은 3.1운동을 목격하고 대호지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입수하여 일본인 백화점에서 구입한 '램프' 안에 숨겨서 귀향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호지면장인 이인정(李寅正)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우국충정이 뛰어나 이들과 합류하였다. 만세운동은 면사무소 행정력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림3 4.4 독립운동기념탑(충남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소재, 만세운동 당시 천의경찰주재소 자리에 세웠다.)

유동렬 지사도 '독립운동추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그는 24세의 양반 신분으로서 서당을 운영하는 학식이 높은 선비였기에 도호의숙 유생들과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다.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음 3월 4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정미면 천의리의 장날이었다. 천의장은 정미면과 대호지면 주민은 물론 운산면 주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오일장이었다. 장은 음력으로 4일과 9일에 열렸다. 한편, 주민동원은 '도로수선병목정리(道路修繕竝木整理)의 건'이라는 문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건은 대호지면장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면내 9개 리 구장(현 이장)에게 발부되었다. 대호지면 내 전 주민은 이 문건에 의하여 농기구를 지참하고 대호지면사무소가 있는 조금리에서 정미면 천의리에 이르는 신작로에 집결하여 도로를 다듬고 가로수를 정비하였다. 도로는 7km에 달했다. 만세운동 행동

대를 비롯한 200여 명의 주민은 따로 대호지면사무소 광장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이인정 면장과 남주원 등의 지휘 아래 만세운동의 발대식을 가졌다. 61세의 노(老) 면장인 이인정은 말을 타고 태극기를 앞세우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시위대가 장정리 앞 도로에 이르자, 기다리던 유동렬 지사는 제자와 주민을 이끌고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시위대가 천의 장터에 도착하고 중앙에 태극기를 게양하자 군중은 1,000여 명으로 늘었다. 이때 천의 장터를 감시하던 일본 경찰들이 태극기를 빼앗고 만세운동을 억압하려 하였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들을 제압하고 시위대에 강제로 합류시켰다. 독립선언식은 엄숙히 진행되었고, 뒤이어 연호하는 "독립 만세"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일제는 근거리에 있던 당진경찰서 소속 무장 경관 2명을 천의리에 급파하였다. 이들은 시위대를 억압하면서 대형 태극기를 탈취하고자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중과 분쟁이 일어났다. 일제 경관은 군중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였고, 크게 분노한 주민들은 돌을 던져 경찰을 물리쳤고, 경찰관 주재소에 돌진하여 각종 기물을 파괴하였다 치열한 시위는 날이 저물면서 종료되었고, 해방을 만끽한 주민들은 흥분을 억누르며 귀가하였다. 뒤이어 천의 장터에 도착한 홍성수비대는 대호지면으로 향했고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주도 인사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비대의 탄압에 맞서 4월 8일 봉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대호지면 조금리와 송전리에서 타오르는 봉화는 정미면 수당리 안국산 봉수로 연결되었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해미현의 대표 봉수로 서울로 올라가는 통신로였다. 봉화 시위는 치열하면서도 의연하게 진행되었고 봉화대에 불을 지펴 올림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만세운동이 결과, 200여 명의 주민이 체포되었고 현장 순국한 분이 1명, 옥중 순국 3명,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분이 39명, 태형 90도를 받은 분이 88명에 이른다. 현재 독립 유공 사실이 확인되어 서훈받은 분만 150여 분에 달한다. 벽지 중의 벽지인 대호지면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가장 낮은 단계 민중의 항일정신을 극명하게 보여 준 식민 시대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다. 그 한가운데 유동렬 애국지사가 있었다.

만세운동이 끝난 뒤, 장정리에도 홍성수비대와 일본 경찰은 들이닥쳤다. 유동렬 지사

는 만세운동의 주도 인사로서 이미 경찰의 수배 대상이었다. 유동렬 지사는 미리 산중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경찰은 부인을 구타하고 총구를 들이대며 지사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심문을 가하였다. 부인에게 업힌 큰딸은 소스라치게 놀라 울었다. 유승기 님의 구술에 의하면, 할머니(부인)가 어린 큰고모(딸)를 업고 물동이를 길어왔는데, 일본 순사(경찰)가 물동이를 내팽개치며 남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큰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는 임종이 가까워져 오자, "이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이"하고 허공을 향해 외치셨다고 전한다.

결국 4월 18일까지 피신했던 유동렬 지사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만세운동의 주도 인사로 소위 정치령 위반 및 소요죄가 적용되어 공주검찰청으로 넘겨졌고, 1919년 6월 17일 검사 기소되었으며 예심이 종결되어 9월 8일부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유동렬 지사는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태형 90도를 선고받았고, 집행 후 방면되었다. 태형 90도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태형을 집행하면 선혈이 낭자하고 살이 문드러져 하루에 30도 이상 집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태형 90도는 3일에 걸쳐 집행되며 형장을 나올 때는 들것에 실려 나왔다. 유동렬 지사도 매한가지였다. 유승기 님의 구술에 의하면, 조부의 동생이 셋인데, 돌아가면서 감옥에 사식을 해 날랐다고 한다. 이들이 유동렬 지사의 귀갓길을 도왔을 것이다.

유동렬 애국지사는 대호지면 장정리를 떠나 운산면 가좌리로 이거 하였다. 훈학은 계속되었다. 유동렬 지사는 장정리를 포함하여 가좌리까지 모두 5개 사숙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배출한 제자만 150명이 넘는다고 한다. 평생을 양반 유생답게 꼿꼿한 자세와 정신을 잃지 않으셨다고 한다. 한편, 유동렬 지사는 신앙생활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우선 독립만세운동이 끝난 후부터 1930년대까지 약 10년간, 보천교에 입교(普天敎)하여 활동하였다. 보천교는 차경석(車京石)이 1921년에 창시한 증산교(甑山敎)계열의 신종교였다. 말년에는 기독교인이 되어 많은 전도 활동을 전개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유동렬 지사는 1956년 8월 20일 운산면 가좌리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지사의 장례식에는 인근 교회의 송은광 목사가 참석하여 지사의 61년사 기록을 추도사로 낭독하였다. 이 추도사에는

유동렬 지사가 공주 감옥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구전되던 내용을 적시하였다. 당시 1956년만 하여도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고, 각종 자료도 미비했지만, 고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조문객의 칭송을 받았다. 다만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유승기 님의 어머니는 "3년만 더 사셨더라면 따뜻한 쌀밥을 해드렸을 텐데, 보리밥 찬밥을 해 올려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회상하였다고 한다.

유동렬 지사에 대한 서훈 신청은 1978년 12월부터 진행되었다. 운산면 용장리에 살던 장남 유병철(柳炳哲)에 의해서다.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신청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서훈은 징역형을 받은 애국지사에 한정되었고, 태형 90도를 받은 분은 아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하였다. 유병철 님은 1956년도의 추도사와 대호지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범죄인 명부', 그리고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이석윤(운산면 가좌리 거주)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징역형 내용은 인정되지 못하였고, '형사사건부'가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태형 90도로 확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2년 4월 13일 대통령표창을 유동렬 지사에게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자 서훈의 범위가 태형 90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태형 90도를 받은 애국지사 대부분은 서산경찰서에서 집행에 반하여 유동렬 지사는 공주검찰청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결수에 대한 검찰의 고문은 혹독했다.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킨 대호지면의 김도일(金道一) 지사가 5월 26일, 박경옥(朴敬玉) 지사가 6월 5일, 이달준(李達俊) 지사가 8월 12일에 옥사하였고 끝내 시신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유동렬 지사는 이곳에서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공주지방법원으로 회부되어 10월 24일 재판을 받았고 태형 90도를 선고받은 것이다. 정부가 이분의 옥중 기간을 배제하고 태형만을 기준으로 대통령표창을 추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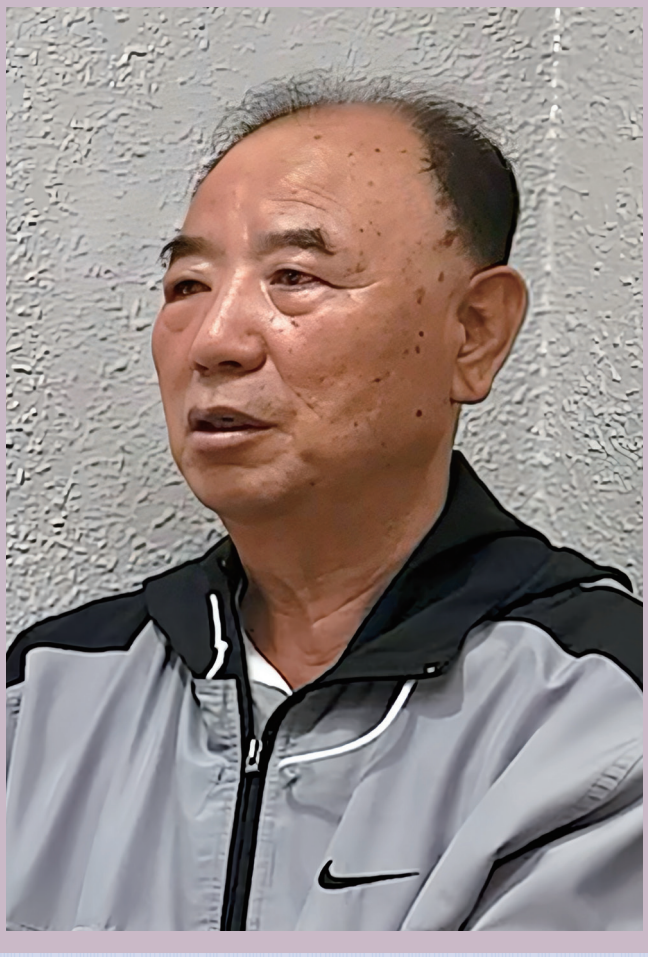
유승기 님은 조부이신 유동렬 지사의 행적을 더욱 소상히 알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유학자로서 많은 서적과 유묵을 남겼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들 대에서 손자 세대로 바뀌면서 조부의 유품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유승기 님은 굳은 자긍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본인도 수학을 전공하는 이학박사로서 대학 강단에 서고 있고, 국

문학을 전공한 부인도 원주에서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1녀 1남의 자녀도 미술교육과 영어교육을 전공하여 교직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구술자 유승기 님은 앞으로 한 두 가지의 희망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정미면 천의리 종산에 모셔진 조부 유동렬 애국지사의 묘를 잘 관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부의 독립 의식과 훈학의 정신을 계승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일이다.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구술자는 가족과 더불어 끊임없이 학문 연마와 교육에 진력하는 중이다.

<인터뷰어_ 김남석>

김 영 배 (1945년생)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3동

노인봉사와 독립운동사 강의를 통한 독립정신의 전파



김영배 님은 독립유공자 김관룡(金寬龍, 1900~1975) 애국지사의 장손이시다. 본적은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82번지이며, 현재 거주지는 인천광역시다. 본관은 김해다. 생년월일이 1945년 9월 1일로 해방 직후에 태어났다. 동암리는 집촌(集村)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독특한 마을이었다. 해미 읍내와 인접하고 있는데, 조그만 마을을 산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서산 방향으로만 트였다. 트인 곳에 비옥한 논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늘 함께 움직였다. 농사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짓고, 집안일도 이웃 사람과 함께하였다. 김영배 님은 어린 시절의 등하교도 늘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닌 것으로 기억하였다. 마을 주민 남녀노소는 항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식구였다.



그림4 김관룡 고택(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308-8)

김영배 님은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내야 했다. 집안은 먹고살 만한 정도로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99세로 장수하신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유지셨는데, 중농 이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삼 형제 중의 장남이셨는데, 일찌감치 승려 생활을 했고,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도 5살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이 없다는 것은 김영배 님께 늘 한눈팔 수 없게 하였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남동생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때 장수하신 증조할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작은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를 봉양하고 계셨다. 물론 식구처럼 살았던 주변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다. 지금도 마을에 대한 추억은 힘겨우면서도 따뜻함, 푸근함이다. 승려가 되신 할아버지, 마을 어른들은 한

결같이 할아버지를 존경하였다. 김관룡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이다.

김관룡 애국지사는 1900년 10월 17일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8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다. 이 때문에 동네 아이들과 놀 때, 그는 항상 골목대장의 위엄을 뽐냈다. 이들은 항상 해미읍성에 올라가 놀았다. 해미는 1417년(태종 17년) 이래로 충청병마절도사가 군영을 갖추고 군사를 지휘하던 병영 도시였다. 병마절도사가 청주로 이전한 1652년(효종 3년) 이후에도 해미 현감은 겸영장(兼營將)으로서 군사를 통솔하였다. 해미는 조선시대 충청도 서북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방의 원활한 행정과 안정적 통치의 거점 도시였다. 군사적 성격의 지역적 특성은 '애국애족의 상무정신'을 주민들에게 고취했고, 일제를 비롯한 외세 침투에 대한 강력한 투쟁 정신을 함양하였다. 어린 시절의 김관용 애국지사도 해미읍성에 오르면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나라를 생각하며 울분을 머금고 있었다.

한말 근대교육 운동은 해미에서도 전개되었다. 1909년 5월, 해명학교(海明學校)가 해미향교의 전교를 지낸 윤세영(尹世永) 등 민족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김관룡 지사가 이 학교에 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제는 해명학교를 강제로 통합하여 해미공립보통학교를 출범시켰다. 이 학교는 1912년 3월 8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5월 10일 4년제 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개교한 곳은 해미읍성 안의 객사 건물인 지성관(枳城館)이었다. 현재의 해미초등학교가 이렇게 세워졌다.

김관룡 지사는 1915년 4월 늦깎이 16살의 나이로 해미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입학생 정원은 30명인데 지원한 학생도 같은 30명이었던 것을 보면, 보통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냉소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일제강점 초기의 보통학교에 대한 한국인 학생의 지원율은 매우 낮았다. 주민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헌병경찰통치로 불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강렬한 저항 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서당이나 사학에 자제들을 입학시켰고 한학을 익히며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김관룡 지사는 해미공립보통학교에의 입학을 결심하였고 소위 근대학문이라고 선전하는 일본식 교육을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림5 해미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사진(지성관(枳城館)은 해미읍성 내 객사의 현판으로, 1920년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출처 :『해미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화보집』)

4개년의 보통학교 수업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교육과정도 구한말 근대학교의 교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어와 일본 역사교육이 강조되는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정도였다. 교사는 훈도라고 하여 일본인 교장과 2명의 한국인 선생님이 근무하였다. 해미보통학교에는 김두현(金斗鉉), 권민옥(權敏玉), 김현구(金顯九), 이동진(李東鎭), 권경태(權敬泰) 선생님들이 근무하였는데, 대략 2년 정도 근무하고 전근하였다. 김관룡 지사가 졸업하던 1919년에는 양태원(梁泰元), 이응남(李應南) 선생님이 근무하였다. 이분들은 식민지 시기 교육 체제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은연중 강조하였던 은사들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교장 수옥달성(守屋達成)이 무서운 훈도였다. 그는 한국인 학생들을 멸시하였고 식민지를 겪음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근대화되었다는 소위 식민지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김관룡 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정의감이 충만한 덕에 4개년간 반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도 일본인 교장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식민지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23일 제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생은 김관룡 지사를 포함하여 11명이었다. 당초에 입학한 동기생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30명이었으니, 중도에 탈락한 친구들이 19명이나 된 셈이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알았지만, 졸업식을 마쳤던 김관룡 지

사도 졸업 대장에서 제외되었다. 수옥 교장의 횡포와 억압의 결과였다. 이 때문에 현재 해미초등학교 졸업 대장에는 김관룡 지사를 제외한 졸업생 10명의 명단만 나와 있다. 어쨌든 졸업식을 마친 김관룡 지사는 졸업 후의 미래를 구상하게 되었다. 엄혹한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즈음 독립의 '봄'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촉발된 독립선언은 만세운동으로 발전되었고, 들불과 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해미에서도 3월 19일 남상철(南相喆)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한차례 휘몰아친 바 있었다. 김관룡 지사의 마음도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계성(李啓聖)이 김관룡 지사를 찾아온 것은 3월 24일이었다. 마침 이날은 해미보통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별식이 해미 읍내에서 예정된 날이었다. 이계성이 찾아온 목적은 다름 아닌 만세운동 건이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계성은 김관룡 지사의 해미보통학교 1년 선배로 4회 졸업생이었다. 나이는 이계성이 1901년생이니 오히려 김관룡 지사보다 한 살 어렸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해미면사무소에 있는 해미저축조합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해미면 기지리 출신으로, 3월 16일에 일어난 서산 읍내 만세운동과 3월 19일에 일어난 해미 읍내 만세운동에 이미 참여하였다. 나아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입수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해미면사무소에서 다량으로 복사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계성은 김관룡의 의협심을 인정하고 있었고, 김관룡은 이계성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이때 이계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이를 부르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고별식이 있는 오늘 밤에 만세를 부르자."라고.

김관룡 지사는 이계성과 함께 동기생인 유세근(柳世根), 김연택(金然澤)의 동의를 얻어낸 후에 저녁 7시경 고별식(告別式)이 열리고 있는 해미 읍내 음식점으로 갔다. 이곳에는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 다수가 참석하고 있었다. 김관룡 지사는 이곳에서 동기생과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별연이 끝난 뒤에 일동은 해미면사무소 앞과 기타 지역에서 조선 독립의 운동 방법으로 독립 만세를 불러야 한다. 만약 이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구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협남아로서 김관룡 지사의 기개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그리고 밤 11시경, 김관룡 지사를 비롯한 십수 명의 학생들은 해미면사무소 앞과 우(牛)시장에서 군

중을 이끌고 만세를 불렀다. 이어서 김관룡은 해미면의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렸다. 아울러 시위 군중을 이끌고 해미경찰관 주재소로 돌진하였다. 그 결과 총으로 무장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군중은 200여 명에 이르렀고, 서산경찰서에 송치된 인원도 수십 명에 이르렀다.

만세운동이 끝난 뒤에 주동자로 지목된 김관룡 지사는 이계성, 김연택, 유세근과 함께 공주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이곳에서 1919년 4월 21일 김관룡 지사는 이계성과 함께 보안법 위반 및 협박으로 징역 1년, 김연택과 유세근은 태형 90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관룡 지사는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였고 5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관룡 지사는 승복하지 않았다. 또다시 '자신이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는 의사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919년 6월 19일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말았다. 나머지 3분은 공주지방법원의 선고대로 형량을 치렀다. 당시 조선총독부 법원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한국인의 형량을 감형한 사례는 극히 적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투쟁한 김관룡 지사의 옥중 항쟁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관룡 지사의 독립정신과 함께 해미지역의 상무 정신이 배합된 결과라 하겠다.

일본 경찰은 형기를 마치고 석방한 김관룡 지사를 감시와 억압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문에 김관룡 지사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특히 해미보통학교 수옥교장의 학적부 삭제와 졸업대장 삭제는 김관룡 지사로 하여금 상급학교 진학의 꿈도 없애버렸다. 김관룡 지사는 결국 산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삭발식은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있는 개심사(開心寺)에서 거행하였다. 그후 공주의 마곡사(麻谷寺), 덕산의 수덕사(修德寺), 보덕사(報德寺)를 거치게 되었다. 김관룡 지사는 이곳을 전전하면서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교 신자에 대한 강연과 대담을 통해 은연중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는 해방 후 잠시 환속하였으나, 좌우의 대립 속에 혼돈에 빠진 해미의 정국은 독립운동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회의를 품은 김관룡 지사는 식민지기 자신을 받아준 산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덕산의 보덕사와 당진의 영랑사(影浪寺) 주지로 활동하다가

1975년 6월 20일 태안의 흥주사(興住寺)에서 입적하였다. 산사 주지로 활동하던 시기의 일화 중 특별한 것은 예산읍 3층석탑을 되찾은 일이었다. 원래 이 탑은 덕산 가야사지에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일본으로의 반출을 시도하였다. 김관룡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탑의 반출을 제지하여 예산군청으로 되찾아왔다. 이 탑은 2000년 보덕사 경내에 이전하였고 현재 경내에 세워져 있다.

김영배 님이 김관룡 지사를 다시 뵌 것은 1960년대일 것이다. 해미면 동암리에서 해미초등학교와 해미중학교를 마친 김영배 님은 어머니께서 작고하시자 할아버지가 주지로 계신다는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의 영랑사를 찾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당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성인이 된 김영배 님은 대림택시라는 택시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여 틈틈이 학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1966년경, 인천교대부설 교원양성소를 졸업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첫 부임지는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초등학교였고, 줄곧 인천에 머물면서 인천 약산초등학교(남동구 간석로 26)에서 평교사로 40년간의 교편생활을 마감하였다.

김영배 님은 김관룡 지사에 대한 선양사업도 계속하였다. 우선 1990년 조부의 독립운동과 수형 사실을 조사하여 보훈처



그림6 예산읍 삼층석탑. 보덕사 경내에 있으며 안내판 내용을 다음과 같다.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조형물로 실제 사리를 모시지 않았더라도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사찰안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삼층 석탑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극락전 앞에 있는 석등과 함께 인근의 가야사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몰래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것을 당시 보덕사 주지였던 관용 스님이 찾아와 예산군청에 보관(당시에 문화재 지정 1984.5.17)하다 2000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4개의 판으로 구성된 받침돌 위에 단층의 기단을 만들고 3층으로 이루어진 몸돌을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원래는 5층이었으나 일부 훼손되어 지금은 3층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 서훈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1994년 11월 16일 꿈속에나 그리던 김관룡 할아버지를 동암리 선산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게 되었다(독립유공자 묘역 2-290). 대전현충원 안장식에는 열 분의 애국지사가 한꺼번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그런데 김영배 님 가족이 가장 많았고, 다른 애국지사에게는 가족이 한두 명에 불과한 분도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실감 났다. 김영배 님도 당신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자신의 다음 대부터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 하였다. 손자 중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도 여럿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였다.

정년퇴직 후의 김영배 님은 정말 바쁘다. 그중 한 가지는 노인봉사 활동이다. 인천지역 노인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역사교육과 한글 지도를 병행하였다. 특히 문맹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한글을 깨우치게 하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서전을 쓰게 하여 인천문화원에서 전시회도 가졌다. 문맹을 깨우친 할머니들은 시내버스의 노선표를 읽게 되었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숫자를 터득함으로써 통장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들은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김영배 님을 정말 고맙게 여겼다고 한다. 김영배 님의 봉사활동 실적은 각종 노인봉사 경진대회에 나가게 했고 인천광역시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일본 노인시설을 둘러보는 호사를 누렸다고 한다. 그 위에 노인의 교통 봉사, 공무원 환경정화 활동도 부수적으로 진행하였다.

최근에 겪은 가장 보람찬 활동은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일이었다. 이것은 인천교육청과 광복회 인천지부의 업무협약 결과였다. 인천지역 초중등학교에 독립운동사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다. 강사의 조건은 교사 출신으로 수업 기술이 있어야 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나,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 출신이어야 한다. 인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의 희망을 받아 교과를 개설하였다. 강사는 5명으로, 1인당 한 달에 20시간 정도 배분되었다. 김영배 님도 김관룡 애국지사의 직계 장손이며 교사 출신으로 수업지도안을 준비하여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생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독립운동사 수



그림7 애국지사 김관룡의 묘(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2묘역, 묘비번호 290)

업은 생생하게 진행되었고, 독립운동가의 현실과 꿈과 희망은 적나라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산교육에 다름 아니었다. 학생들은 독립유공자의 아들, 혹은 손자의 강의를 통해 독립운동의 모든 모습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현재 김영배 님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독립운동사 강의를 쉬고자 하였으나, 교육청 담당자의 완곡한 요청으로 한 학기만 더 하기로 했다. 희망 사항이지만, 김영배 님은 이러한 강좌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다. 급한 대로 충남의 서산지역에서도 독립운동가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서산과 해미의 3.1운동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서산의 독립운동 사실이 서산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잡는 것, 독립운동가 김관룡 애국지사도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터뷰어_ 김남석>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김 증 하 (1945년생)
충남 서산시 대산읍

콘크리트 비석에 담긴 조부님의 독립운동사



콘크리트 비석, 조부님이신 김정규(金廷圭) 애국지사께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유일한 단서이다. 구술자 김증하(金澄河) 님은 이 비석에 얽힌 사실을 바탕으로, 조부님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일생을 바쳤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김종우(金鍾宇)의 말씀, 각종 서적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사실들, 주위 어른들의 기억 이야기를 모아 조부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입증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였다. 서훈에 필요한 형벌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증하 님은 낙담했지만, 다시 일어나 관계기관에 발품으로 뛰고 또 뛰었다. 서산경찰서와 홍성보훈지청, 각종 국가 기관에 문의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그래도 김증하 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탐문에 조사를 거듭하였다. 동시에 매일매일의 경과를 메모장에 기록하며 혹시라도 잊은 부분이 없는지,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재확인한다. 농사를 지으며 또 몇 년째 나가는 대산읍사무소 청소일을 하면서도 온통 머리는 이 생각뿐이다. 생각이 멎을 때면, 조부의 묘소와 콘크리트 비석을 찾아 몸을 숙인다. 조부의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 38번지에 있다. 김증하 님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김정규 지사의 일생과 독립운동사를 재구성해 본다.

김정규 애국지사는 1873년 5월 8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725번지에서 태어났다. 자는 원봉(元鳳), 호는 가환(可煥)이다. 아버지는 용택(容澤)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다. 본관은 김해(金海)로, 김수로왕의 70세손이다.[1] 조선시대 성종과 연산군 때 활약한 김일손(金馹孫 1464~1498, 호:탁영)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김일손의 기개와 절의를 본받



그림8 김정규 애국지사가 세운 콘크리트 비석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 38번지)

으려 노력하였으며 '우리는 탁영(濯纓) 선생의 후손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추고 있었다.[2] 한학을 수학한 그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고, 일제를 비롯한 외세의 침투에 항쟁하는 유학자로 성장하였다.

김정규 지사는 1893년 11월 30일 서산군 대산면 대죽리에 거주하던 전주 이씨 이상헌(李相憲)의 장녀와 혼인하였다. 1877년생인 이분은 17세의 나이로 21세의 신랑과 혼인한 것이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김종우(金鍾宇)로 1899년생이고, 차남은 김종린(金鍾隣)으로 1909년생, 장녀는 김종의(金鍾義)로 1912년생, 삼남은 김종호(金鍾顥)인데 1914년생이다. 특이한 점은 이 부부가 혼인한 지 6년 만에 첫아들을 보았고, 둘째 아들은 그로부터 10년에 낳았으며, 그 이후 약 3년 정도 터울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김정규 지사가 가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치중한 탓이다. 김 지사는 한번 출가하면 2년, 3년을 보낸 뒤에 돌아왔다. 이 때문에 부부 금실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후일 부인은 유언으로 남편과 합장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처했던 구한말, 20대 김정규 지사는 서울로 향했다. 일제는 1895년 음력으로 8월 스무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을미사변을 일으킨 것이다. 일제는 뒤이어 단발령을 공포함으로써 서양식 근대화라는 핑계로 한국인의 전통인 효(孝)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격분한 유생들은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만행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김정규 지사도 이 을미의병에 참여하였다. 나중에 서울의 어느 여관방, 몇 명의 갓 쓴 유생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은 고종의 사진을 들고 왔다. 이를 본 김정규 지사와 유생들은 한편으로 기가 막혀서 하면서도 박장대소하였다. 어떤 유생은 너무 웃은 나머지 의원이 와서 침을 놓은 다음에야 일어났다.

1) 『김해김씨삼현파대동보』 권13, 참판공하편, 797쪽.

2)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는 김해 김씨 집성촌이기도 하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관련된 김일손의 기개와 절의를 숭상하면서 내려왔다. 지금도 화곡리에는 김해 김씨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독립협회가 1896년 6월 조직되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워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였고, 자주국의 기틀을 잡고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수만 명이 종로광장에 모여 자주독립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김정규 지사는 이곳에도 참여하였다. 당시는 1898년으로, 김정규 지사가 첫아들인 종우를 낳기 1년 전이었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김정규 지사는 공동회를 억압하는 보수 세력에 맞서 시위를 전개하였고, 친일 정권의 매국 행위를 규탄하였다. 아울러 을사늑약이 강제적으로 공포된 1905년 이후에는 오산학교에 가서 민족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오산학교는 이승훈(李承薰)이 1907년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안북도 정주에 설립한 민족학교였다. 그는 이곳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정 기간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의 나이 35세의 일이다.

1910년 8월 29일은 국치일이다. 세상에 없었던 일이 벌건 대낮에 일어났다. 김정규 지사는 경술국치 반대운동을 비밀리에 전개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경성 관훈동(현,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엿도가'라는 비밀 은신처가 있었다. 이곳을 통해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였다. '엿도가'는 엿을 고아서 팔던 집으로, 일본인들이 설탕을 이용한 사탕을 판매하면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갔다. 김정규 지사는 경술국치를 전후로, 이승훈(李承薰, 1864~1930), 안태국(安泰國, ?~1920), 양기탁(梁起鐸, 1871~1938) 등과의 관계를 넓혀갔다. 김정규 지사는 10살이 넘어가는 아들 종우에게 강조했다.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누구냐. 이완용이, 이지용이, 이근택이, 권중현이, 박제순이 아니냐. 반드시 기억해서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1919년 봄이 왔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19일, 김정규지사는 해미 읍내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이때 남상철(南相喆)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지사는 힘껏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대에 참여하였다. 그는 수많은 군중의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었고, 그 결과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고 서산경찰서에 넘겨져 고문당하게 되었고, 단순 가담자로 인정되어 석방되고 말았다.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은 특이하다. 일제강점기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 해진 책자 중간에 '해미군'이라고 쓴 부분

이 있다. 누군가 여기에 연필로 밑줄을 긋고『一九一九, 參, 一九, 獨立만세 부름, 참석, 伐 받았음.』[3]이라고 썼다. 이곳에 참석할 분은 당연히 김정규지사일 수밖에 없다.

대산면 대산리에 보통학교가 세워진 것은 1922년 3월이었다. 일제가 서산공립보통학교(현 서산초등학교)를 1911년 서산면 읍내리(현 서산시 중앙로 38-1)에 세운 이래로 각 면에 공립보통학교를 세워가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대산면의 어린이들도 보통학교 취학 여부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학생이 부담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일본인에 의한 교육에 불신감이 컸기 때문이다. 김정규지사에게도 학령 아동이 셋이나 되었다. 당시 차남 김종린이 14살, 장녀 김종의가 11살, 삼남 김종호가 9살이었다. 그러나 김정규지사는 단호히 취학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1933년생인 손자와 1938년생인 손자의 취학도 허용치 않았다. 이때 김정규지사는 '삼세지습(三歲之習) 지우팔십(至于八十)이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지금 일본 식민 지배에 젖어놓으면 나중에 일본말하고 일본에서 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일본교육을 거부한 것이다.

일제강점 말기인 1940년대에 이르면서 일제의 한국민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가혹해졌다. 일본의 전쟁은 확대되었고, 부족해진 전쟁물자를 한반도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공출제라 하여 농민이 생산한 '쌀'을 수탈하였고, 각종 쇠붙이와 아울러 송진 기름까지 할당제로 빼앗아 갔다. 김정규지사는 이에 결사적으로 항쟁하였다. 그는 일제가 무기 제작을 위해 징발하는 숟가락, 밥그릇, 놋그릇 강제공출에 반대운동 추진위원회 대표로 활동하였고, 송진 채취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서산경찰서에서 유치되기도 하였다. 이때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40년이었다. 김정규지사에게 광복군 운영 경비를 모금할 지령이 내려왔다. 순간 서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일본경찰의 감시망도 강화되었다. 당시 김정규 지사의 가산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송 씨라는 머슴을 한 명 고용했는데, 머슴의 시선이 매우 날카로웠다. 나중에 드러

3) '伐'은 '罰'의 오기로 생각됨.

난 것이지만, 이 머슴이 김정규 지사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밀정이었다.

김정규 지사는 독립자금 모금의 서산군 대산면 면책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그는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을 거듭하였다. 이때 기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 부모님 묘소의 상석과 비석을 세우는 것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었다. 당시 묘비의 제작 비용이 벼 2석이었다. 1933년~1939년 머슴의 1년 고용 비용이 벼 1석 반임을 참작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었다. 그는 서산금융조합에 상석의 제작 비용이라며 자금을 융자받았다. 그리고 추적을 피한 자금을 비밀리에 광복군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광복군 측에서는 김정규 지사에게 자금 수령의 증표로 김구 주석의 친필 서명과 인장이 찍힌 증명서를 내주었다. 증명서는 김구, 이시영, 이승만 등이 발급한 것으로 각 1장씩 3장이었다. 한편, 묘비는 보령의 오석 대신 콘크리트로 제작하였다. 비석 전면에는 '孺人慶州金氏(유인경주김씨) 學生金海金公(학생김해김공) 之墓(지묘) 嗣子廷圭(사자정규)'라고 새겼다.[4]

독립자금을 보낸 결과는 참혹했다. 김정규 지사는 곧바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서산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혹독한 고문을 치르게 되었다. 마침 고문을 담당한 경찰이 지곡면에 살던 지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너는 지곡면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조선 사람이 이러면 되느냐'라고 훈계했더니 사라졌다고 한다. 김정규 지사는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 석방되었다. 그리고 여생을 고문의 여독으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일제 강점의 식민지도 막바지로 치달았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이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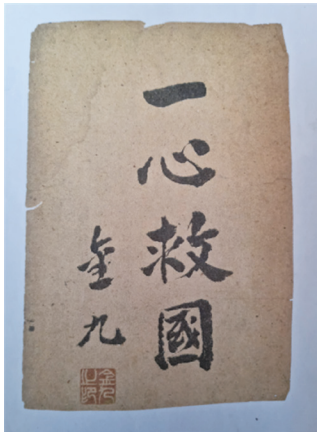


그림9 김구 주석의 서명과 인장이 찍힌 증명서

4) 비석의 무게는 18킬로밖에 안 될 정도로 가볍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비석은 후일 도난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비석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이 비석을 절도한 것이다. 그 후 유족이 현수막을 내걸고 협조를 구한 결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김정규 애국지사는 누구보다도 해방을 반겼다. 그는 온 동네는 물론 서산 시내까지 나가서 조국의 광복을 환희로 맞이하였다. 73년 평생을 싸워 얻은 우리 민족의 광복이었기에 누구보다도 값진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그러한 감격에 젖어있던 1946년 4월, 김정규 지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꿈에 그리던 김구 주석이 공주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김정규 지사였지만, 김구 주석을 맞이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결국 노구를 이끌고 만류하는 가족의 손을 뿌리치고 죽더라도 가다가 죽겠다며 집을 나서게 되었다. 마침 사전에 함께 가기로 계획한 동지들이 힘이 되었다. 어렵게 공주에 도착하여 환영식장의 맨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김구 주석을 만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환영회는 공주를 거쳐 마곡사까지 이어졌고, 계속 수행하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공주에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귀향길은 일주일 이상 걸렸다. 광복의 여유로움은 너무도 평온했다. 그리고 한동안 김정규 지사의 집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의 회고담은 많은 이웃에게 흥분과 희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김정규 애국지사는 1947년 4월 30일 자택에서 평화롭게 별세하였다. 향년 75세였다. 평소 말씀하시던 '막야사금(莫夜謝金-늦은 밤의 금은 사절하고) 조빈래복(助貧來福-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복을 얻는다)' 구절은 유언이 되었다. 그리고 '보상받으려고 일하지 말아라,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품값 받으려 하지 말아라.'도 후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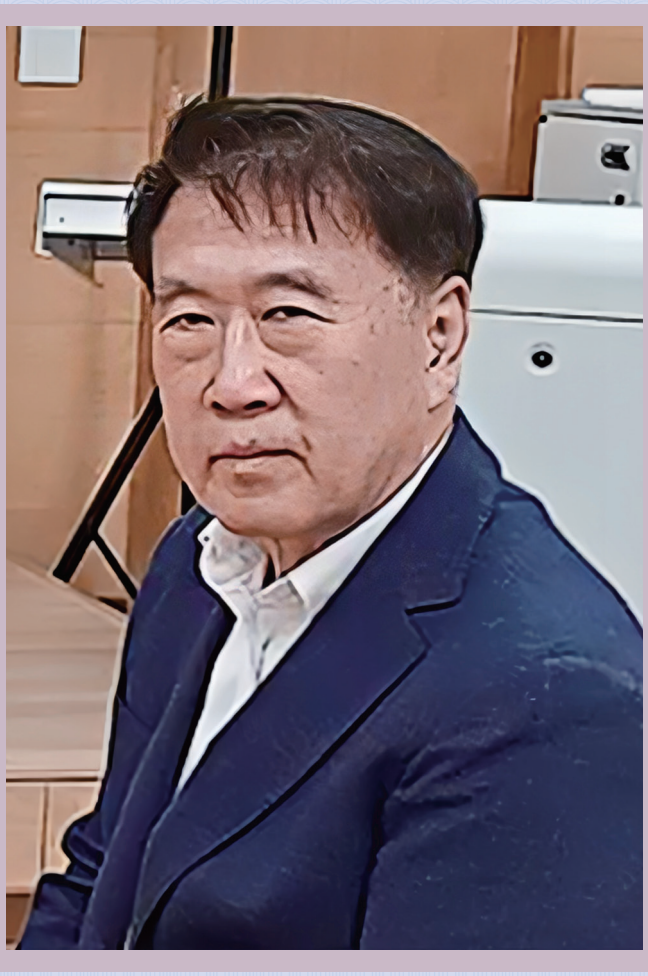
구술자 김증하(金澄河) 님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관계기관에 문의하면서 조부이신 김정규 애국지사의 서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고인의 독립운동사가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명 독립운동가'에서 검증된 독립운동가로 거듭나시길 고대한다.

<인터뷰어_ 김남석>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서 경 석 (1954년생)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6길

조부님의 유훈 1일 1선을 실천하며



구술자 서경석(1954~)은 애국지사 서병철의 장손이다.

서병철(徐丙轍, 1893~1977)은 해미 억대리 출신으로, 해미에 있던 해명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의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그의 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개시된다. 1919년 7월경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이 단체는 1919년 5월 논산 출신의 신현구가 서울에 조직한 임시정부 지원단체로 상해의 임시정부와 연결되면서 임시정부 활동의 선전과 자금 조달, 국내 조직망 구축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8월경 비밀결사 대한독립청년단 단원인 이종성(李鍾聲, 이명: 李在厚)을 서울에서 만났다. 이종성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황해도 신계군 대평시 소재 기독교 학교 교사로 있었다. 서울에서 그를 만나 함께 활동했는데, 당시 서병철은 이종성에게 자신을 임시정부 재무원이라 하면서, 이종성에게 서산으로 내려가 지역민에게 독립사상을 선전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종성은 서산으로 내려가 먼저 인지면 야당리의 부호 박준용(朴準用)한테 1천 엔을 요구했으나 현금이 200엔밖에 없다고 하여 잔금은 후일 송금하기로 약속을 받고 200엔 수령증을 주었다. 안면도로 가서 승언리의 박봉래(朴鳳來)한테 10엔을 수령하고, 편무연(片茂捐)한테 200엔을, 창기리의 염성환(廉成煥)한테 40엔, 이재국(李宰國)한테 10엔을 수령하고 군자금 출금증서를 주었다. 또 승언리 사립 광영학교 교장 이종헌(李鍾憲)을 설득하여 동지로 가입시켰다. 안면, 태안, 부석 등지의 동지를 포섭하여 1919년 9월 19일 안면도에 독립집단(일명 결사대)을 조직하고 이종헌을 단장에 추대하였다. 이종헌은 단원 오몽근(吳夢根), 임정호(林楨鎬), 가재창(賈在昌) 등 단원과 함께 250엔을 모집하였다. 이종헌은 서울로 올라가 박준용에게 잔금 800원을 보낼 것을 독촉하였으나 회답이 없자 1920년 3월 9일 이기환(李基煥)을 그의 집으로 보냈으나 오히려 왜경한테 체포되었다. 이때 이종성, 이종헌, 가재창, 오몽근도 체포되었으나 서병철은 체포되지 않았다.[5)]

서병철은 1920년 5월에는 김상옥(金相玉), 윤익중(尹益重), 김동순(金東淳), 신화수(申華秀), 김화룡(金華龍) 등과 함께 서울에서 암살단(暗殺團)을 조직하고 총독부 고관과

5) 密 제102호 其814, 高警 제9432호「獨立資金募集者 檢擧에 관한 件」, 1920.4.2.,『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6)』.

친일분자를 처단하여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군자금을 수합하여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를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다. 암살단 단장 김상옥은 1920년 8월 11일 광복단결사대 단장 한훈과 만나 미국 의원단이 내한하는 8월 24일 이를 환영하는 조선 총독 등을 암살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예비 검속으로 한훈 등이 체포되었다.[6]

이때 체포를 면한 서병철은 1920년 11월 상순경 경성 관철동 113번지 김영호(金英鎬) 집에서 김동준(金東濬)을 만나 서산군 운산면 신창리의 김동준 백부인 김순제(金舜濟)에게 임시정부 군자금 1천 원 차용증과 군자금을 제공하라는 편지를 주어 김순제 집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김순제가 이에 불응함에 군자금을 수합하는데 실패하였다.[7] 서병철은 결국 이 일로 일경에게 붙잡혀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결정을 받고, 그 해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였으나 1922년 4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8]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애국지사 서병철은 옥고를 치른 후 고향 해미에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 집안의 농사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으나 옥고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여 직접 농사일을 하지는 못했고 자식 교육에 힘썼다. 해방 후에 일체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생수 사업을 계획한 적은 있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그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 받게 된 것은 그의 사후의 일이다. 애국지사께서는 1920년대 일제의 강압적인 옥고를 2년간이나 겪으면서 무릎 관절이 망가져 평생 다리가 펴지지 않는 뻐정다리로 살아오셨다. 또 어깨뼈가 망가진 채 고통 속에 살아오셨지만, 생전에 자신의 독립운동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씀을 잘 안하셨다. 그래서 훈장 신청 같은 것을 생각지도 않았다. 1977년 작고한 뒤 아들 정익 씨가 비로소 공훈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곧바로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아들

6) 서병철 등 예심종결결정(경성지방법원, 1921.6.21.).
7) 서병철 등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2.4.28.).
8) 서병철 등 예심종결결정(경성지방법원, 1921.6.21.). 서병철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1.11.15.). 서병철 등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2.4.28.).

정익 씨가 2004년에 죽으면서 부친을 현충원에 모시라는 유언에 따라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였는데, 구술자인 장손 서경석 씨는 조부님의 비문에 “자신의 공로는 낮추고, 다른 동지들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 치켜세우시던 당신”이라고 조부님을 추앙하였다.



그림10 애국지사 서병철



그림11 애국지사 서병철의 묘(대전 현충원)

애국지사께서는 ‘1일 1선’을 가훈으로 삼아 자녀 교육에 힘썼다. 이에 따라 그의 큰아들 정익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친의 유훈을 실천하였다.

서병철 애국지사는 정익(廷翼, 1915~2014)과 정일(廷一, 1925~?) 등 아들 둘을 두었다. 그런데 둘째인 정일은 부인과 1944년생인 딸과 1946년생인 아들을 두고 1960년 6·25 때 인민군한테 납북되어 생사를 모르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큰아들 정익이 해미에서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 의사고시에 합격한 후 경성대학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개업하여 집안을 이끌어 갔다. 혼인 후에는 일본 동경의과대학에 유학하여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6·25 때는 해미로 피난 내려와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 1954년부터 3년간 수도경찰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1964년에는 광화문 네거리에 연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74년에는 의료법인 한독의료재단을, 1982년에는 의료법인 영남의료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들 비영리 의료법인에서는 영세민 무료진료,

외상후유증 연구소 개소, 언청이 무료 성형수술 등의 활동을 했다. 장자인 서정익은 이와 같은 공로로 1986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선친의 독립유공자 보훈 연금과 사재를 보태 선친의 호를 따서 후산장학회를 설립하여 많은 인재의 학업을 후원하였다. 이처럼 그는 부친인 애국지사 서병철이 내려 준 가훈인 하루에 한 가지의 착한 일을 하라는 '1일 1선'을 실천하였다.

구술자인 서경석은 그의 장자로 부친의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부친을 도왔다. 그 역시 조부의 가르침인 1일 1선을 부친을 도우며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는 조부의 이름을 딴 후산기념농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광복회원의 일원으로서 학생을 비롯한 이웃에 독립운동의 사실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어_ 김상기>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김 동 벽 (1936년생)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혈서 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한 조부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리



구술자 김동벽(1936~)은 애국지사 김상정(1875~1954)의 손자이다.

김상정(金商玎, 1875-1954)은 고종 12년(1875) 9월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에서 출생하였으며, 6·25 동란을 겪은 직후인 1954년 8월 서산군 성연면 고남리 상현 마을에서 타계하였다. 그의 본관은 경주요, 자는 명옥(明玉)이요, 호는 한월당(寒月堂)이다. 남당학파(南塘學派) 계열의 유학자로, 김한록(金漢祿)과 김일주(金日柱) 등을 통해 내려온 호론적(湖論的) 학풍을 가학(家學)으로 계승하였으며, 김복한(金福漢) 등 호서지역 척사유생의 영향을 받아 위정척사론에 철저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는 존화양이론과 토적복수론, 그리고 척왜론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항일의 논리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4세에 부친과 사별하였는데, 어버이를 모시고 싶어도 모셔볼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로부터 만 60년되는 날을 맞이하여 선친을 위한 상복을 입었다. 64세의 나이에 옥고를 치르면서 상한 몸이었지만 살아 계시는 부모를 섬기는 정성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3년상을 예법대로 지켰다. 1910년 국망 후 궁벽한 시골에서 두문불출 은거하며 나무와 돌을 이웃하면서 울분을 달래던 그는 1918년 고종의 시해 소식을 듣고 혈서 투쟁을 시작하여 해방 때까지 줄기찬 항일투쟁에 나섰다. 1919년 격문을 발표하여 일본의 고종 시해를 규탄하였으며 혈서로 쓴 글을 총독에게 보내거나 깃대에 걸고 시위하는 등의 혈서 투쟁을 통해 민족의 봉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군중 집회에서 항일투쟁의 방법으로 납세 거부투쟁을 제시하면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항일투쟁을 선도하여 서산 지역에서 3·1운동을 봉기하였으며, 왜경의 가혹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는 모두 다섯 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상복 차림의 그를 체포하여 강압적으로 회유하려 하였다. 그는 손가락과 왼편 귀를 자르는 등의 저항으로 이에 대항하였다. 또한 일제에 의해 단행된 담배전매제도를 반대하여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투쟁도 전개하였으나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일전쟁 후에는 격문을 발표하여 일제의 총동원령과 창씨개명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찾아가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사후인 1960년 서산 군민들은 「한월당선생의열찬송비 寒月堂先生義烈讚頌碑」를 세워 "서산(西山)의 맑은 바람이요, 동녘 바다의 밝은 달일러라."라고 그의 인품과 공적을 기리고 아울러 그를 '열사'라 호칭하며 추앙하였다.[9]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그림 1) 김상정 애국지사



그림 2) 김상정 애국지사 추모비(서산시청 앞)

김상정 애국지사는 4남 3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3남인 김홍제(1916~2012) 선생이 선친의 뒤를 이어 한학을 수학하고 가학을 이었다. 부친한테 천자문을 배우고 나서는 서산시 음암면에 거주하던 직암 이철승(1879~1951, 호: 直菴) 선생 문하에 나아가 경서를 비롯하여 한학을 수학하였다. 김홍제는 서산에 거주하면서 한학을 가르치면서, 부친의 문집인 『한월당집』을 번역하여 이를 출판하였다. 또 부친의 공적을 정리하여 국가보훈처에 훈장을 신청하여 국가에서는 김상정 애국지사의 공적을 인정하여 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1990년에 애족장). 또한 김홍제 선생은 우암 송시열 사적인 남간정사의 도유사를 지내기도 하는 등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선친의 유학 사상을 계승하고 보급하였다.

구술자 김동벽은 김홍제의 차남이다. 어려서 조부이신 김상정 지사와 같은 방을 쓰면서 특히 애국지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부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서를 크게 낭송하였다 한다.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오얏나무를 심고 키웠으며,

9) 김상기 「김상정의 학문과 항일투쟁」, 『충북사학』 제11, 12 합침, 2000.

집 근처의 개울을 한월탕이라 하고 상탕에서는 얼굴을 씻고 중탕에서는 몸을, 그리고 하탕에서는 발을 씻게 하였다는 증언도 하였다. 또 증조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례를 못했다고 60이 되는 해부터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모셨다는 말도 전해주었다. 조부님께서 혈서를 써서 일제에 항거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김구를 찾아갔던 얘기도 들려주었다. 1960년 서산시청 앞에 조부의 기념비석이 건립된 상황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고등학교 때 조부께서 주신 가르침이 “사람이 재색(財色)에서 초탈하지 못한 이는 끝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人於財色不能超脫者 終不得爲完人也)”라면서 이를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음도 밝혔다. 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절대로 친일적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부이신 김상정 애국지사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인터뷰어_ 김상기>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김 기 흥 (1938년생)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친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에 봉사하다



김기흥은 김용환 애국지사의 아들이다.

김용환(金用煥, 1892~1919)은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서 김태제(金泰濟)와 전주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백림(白林)이고, 본관은 경주로 충민공파이다. 태어난 집은 바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생가이다. 현재 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때 이모부인 정주영(鄭周永, 1860~1923, 남작) 집에서 기거하였다. 정주영의 부인 이 씨와 김용환의 모친 이씨는 자매간으로 대원군 집안이었다. 궁내부 주사에 임명되어 관료 생활을 하였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기울면서 사직하였다. 그 후 1910년대에 정주영의 장자인 정두화(鄭斗和, 1882~1939, 남작)가 경영하는 충남상업에 취업하였다. 정두화는 독립운동가 정정화(鄭靖和, 1900~1991, 애족장)의 오빠이다. 정정화는 정주영의 셋째 딸로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金毅漢, 1900~1964, 독립장)과 결혼하였으니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 1846~1922, 남작)의 며느리가 된다.

김용환은 이러한 관계로 1919년 대동단 (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동단은 1919년 3월 말 전협과 최익환 등이 서울에서 조직한 단체이다. 대동단은 김가진을 총재에 추대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신규식과 연결하였다. 또한 의친왕 이강(李堈)을 상해로 탈출시켜 상해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김용환은 광희문 안에 살며 상업에 종사하던 중 대동단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전협이 의친왕을 상하이로 탈출시키기 위한 자금 조달을 요구하자 340원을 마련해주었다. 같은 달 중순경에는 전협이 펑톈(奉天)으로 이주할 때 680원을 제공하였으며, 의친왕을 상하이로 탈출시키기 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전협을 대신해서 거금을 한성은행에 맡겨두었다. 그런데 이 자금은 모두 이종형인 정두화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한다. 1919년 11월 대동단 사건이 발각되어 이강 공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체포되어 압송되었으며, 전협 등 여러 동지들 역시 체포되었다. 이때 정두화도 체포되어 심문받았으나 1920년 6월 방면되었다.

김용환은 별도로 자금을 준비하여 미리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음력 6월 중국 항주(杭州)에 거주하던 신규식(申圭植)에게 대동단의 외교 사무를 위임하라는 대동단의 밀명을 받고 항주로 건너가 자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행히 콜레라에 감염되어

항주의 절강병원(浙江病院)에서 치료받던 중 순국하였다. 김용환은 병으로 공무에 지장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국내의 본가에도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객지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구술자인 김기흥의 증언에서 그동안 김용환 애국지사의 활동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우선 김용환의 국내에서의 행적이 묘연했으나,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또 궁내부 주사라는 벼슬도 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정두화로부터 거금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면담에서 정두화의 모친과 김용환의 모친이 자매간임을 알려주었다. 또 이분들은 대원군 집안으로 왕족이었음을 알려주었다. 비록 정두화의 부친인 정낙용이 1910년 남작 작위를 받고 정두화 역시 부친의 사망 후 그 작위를 이어받는 친일행적이 있지만, 김용환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했던 사실도 알게 해주었다.

구술자 김기흥은 부친의 순국 후의 사정을 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보초막을 짓고 일본 순사들이 보초를 서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느닷없이 철수했다고 한다. 그 후 작고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용환의 유해를 항주에서 모셔오면서 비석을 운반해 온 과정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김용환은 항주에서 활동 중 1919년 8월 18일 절강병원에서 콜레라에 걸려 순국하였다. 그의 묘소는 2003년 아들 김기흥과 국가보훈처 유해발굴단에 의해 항주의 고탕산에서 발견되었다. 신규식 선생의 동생인 신건식(申健植)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 친필로 새긴 비석이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는 2003년 12월 국내로 송환되어 2004년 1월 7일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제3묘역에 안장되었다. 비석도 배편으로 운송했다. 일체 비용은 아들인 김기흥 (당시 서산시장)이 부담했다 한다. 또 비석을 서산 집의 앞 마당에 건립하는 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었다.

부친의 건국훈장 추서 받은 증언도 흥미롭다. 김기흥 시장은 부친의 훈장 추서 사실을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김용환 애국지사 비석(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순국선열 김용환의 묘(대전 현충원)

『김상기 : 이 자료로 훈장 신청하셨나요?

김기흥 : 그거 전혀 우리는 관심도 없다가 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내가 서산시장 당선되기 전에는 집에서 동아일보 하나만 봤어요. 근데 그 시장실에 아침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쫙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 운이에요. 8시 반에 딱 출근을 해서 시장실까지 갔는데 신문을 쫙 늘어놨는데 보니까 독립유공자 서훈 내역이 중앙일보에 났더라고. 이렇게 자세히 빼서 보니까 독립유공자로서 우리 아버지 함자를 쓰고서 밑에다 '서산인' 이렇게 쓴 게 서훈 대상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그날로 저기 국가보훈처를 찾아간 거에요. 나 이런 신문 보고 온 사람이다. 근데 이제 갈 때는 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제적등본 호적등본 이거 다 떼고 갔어요. 떼고 가서 이렇게 대조하고 하더니 이분이 맞다고 말이여. 생년월일 다 맞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김용환 애국지사는 1995년 8월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그러니 1995년 8월 어느 날 우연히 중앙일보의 기사에 부친의 이름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찾아가 후손 확인을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훈장 수여식은 서산 시장실에서 했다고 한다.

김기흥은 1938년에 김상환(金尙煥)의 아들로 태어나 1956년도에 김용환의 양자로 입

적되어 김기흥의 가업을 이었다. 집안을 지키느라고 남들처럼 대학도 못 가고 칠순 양어머니를 모시면서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30대 중반인 1973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된 이래 충남도 도의원을 거쳐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서산시장을 지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는데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당선되었는데, 그 공을 조상 덕이라고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김상기 :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경쟁이 안 될 정도였나요?

김기흥 : 그건 하나의 가문의 덕이지. 가문의 덕. 첫째 우리 양어머니가 굉장히 후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인들 거의 다 식량 없고 밥 굶고 배고플 때 우리 집에 와서 다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김상기 : 많이 베푸셨군요.

김기흥 : 그리고 우리 생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웃이서 살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식전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단장 짓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봄 같은 때는 아무개 네집 밥 못 먹더라. 일꾼 시켜서 쌀 갖다주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걸 왜 갖다 주라고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시며 싸워가면서도 전부 일꾼 시켜서 그걸 돌려.

김상기 : 그러셨군요.

김기흥 : 이제 그런 덕이.. 나 잘해서가 아니라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조상 덕이지.』

애국지사의 아들 김기흥은 충청남도 도의원과 서산시장 등 공직에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는 등 부친의 가업과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식 교육에도 힘써 아들 김석호(1972~)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큰딸은 영화진흥공사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가문의 역사와 부친의 독립운동 사항들을 자료를 보완하여 좀 더 상세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인터뷰어_ 김상기>

서산시
서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

허 영 일 (1937년생)
충남 서산시 동문동

뒤늦게 발굴된 아버지의 독립운동사



독립운동가 허경(許璟)가문의 민족의식

허영일(許英一)님은 애국지사 허경(許璟, 1918~1950)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1937년생이다. 원래 이름은 허철회(許哲會)였으며, 본관은 양천(陽川,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다. 부친의 본적은 충남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40번지로, 이곳은 서산시의 남단에 있으며 홍성군 갈산면과 인접하고 있다. 갈산면은 독립운동가 김좌진(金佐鎭, 1889~1930)의 고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조부께서도 김좌진의 독립정신을 평소 흠모하였고, 아들인 허경을 김좌진이 설립했다고 전해지는 갈산공립보통학교(현 갈산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10] 집안 자체가 일제 강점과 식민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강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다.

조부는 참봉 벼슬을 지냈다. 그리고 상업에도 손을 댔는데, 규모가 제법 컸다고 한다. 조부는 쌀을 배에 싣고 군산으로 나가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조모이신 차광일의 역할도 컸다. 조모는 매우 지혜로우신 분으로 기억된다. 조모는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출신인데, 기억력과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셨다. 조모는 98세로 장수하시면서 가산을 늘렸고, 식구들이 고북에서 집에 들어올 때 밟고 오는 길은 모두 자신의 소유지일 정도로 부유해졌다. 또한, 동네 사람들이 조모를 향해 "여군수"라고 부를 정도로 조모는 배포도 컸다. 부친인 애국지사 허경은 선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20마지기 논을 매각하여 독립운동 자금으로 임시정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불행과 비극

구술자인 허영일 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왔다. 해방 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허영일 님의 가족사에 엄

10) 김좌진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학교는 호명학교(湖明學校)이다. 이 학교는 '호서지역을 개명하겠다.'라는 의미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기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으나 1906~1907년 사이이며, 당시 김좌진의 나이는 17~18세 때였다. 교육 내용은 신학문으로, 개화사상과 민족의식의 함양을 강조하였다. 갈산공립보통학교는 1917년 호명학교의 교사(校舍)를 이용해 고도면 상촌리(현, 갈산 중고등학교 옆)에서 개교하였고, 192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호명학교의 학생 수는 1908년 현재 100여 명에 이르렀고, 소학과와 중등과로 구분하여 교수하였으며, 법률과를 설치하는 등 홍성지역 교육 운동과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청난 비극을 가져온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께서 경찰에 피체된 것이다.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인 6월 26일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갔고, 그 후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날이 아버지의 기일(제사일)이 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온 가족은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들은 고북면 봉생리를 벗어나 곧바로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지는 외가인 홍성군 은하면이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것은 아버지의 행방불명이었고,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전에 터진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것이 분명하였다. 당시 허영일 님의 나이는 14살이었고, 막내인 여동생은 3살이었는데 실제는 유복자였다.

허영일 님은 졸지에 가장이 되었다. 그는 조모님과 어머님 그리고 동생 4명을 챙겨야 했다. 학교는 서산중학교를 자퇴하였고, 2년 정도 지나 가정이 안정되면서 인근에 있는 해미중학교에 다시 입학하였다. 그리고 당진의 합덕농고를 졸업하고 단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기울어지는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보령군청의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평소에도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공직자였다. 그 결과 고북면장과 해미면장을 거쳤고, 퇴직 후에는 충남도의원을 두 번이나 선출되었으며, 서산시 노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산시를 이끄는 원로 유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허영일 님에게는 항상 마음 한켠에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시켜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었다. 허영일 님도 당신의 아버지께서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작고하셨지만, 결코 공산주의와 관련된 행적은 없었다고 확신하였다. 더욱이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적을 꾸준히 모았다.

독립운동가 허경의 생애와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허경(許璟)은 부친의 도움으로 홍성의 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성실업전수학교에 입학하였다. 경성실업전수학교는 1928년 9월 개교한 학교로 독립신문이 발간된 역사적인 관동(館洞) 독립관에서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1939년 4월 한성상업학교로 변경되었고, 해방 후에 한성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김좌진 장군

의 고향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운 허경이 독립협회가 활동한 독립관의 학교를 찾아 학업을 이은 것이다. 민족의식의 맥락이 허경의 학업 과정에서도 묻어나오고 있었다. 경성실업학교를 졸업한 허경이 일본 유학의 문을 두드린 것은 20세이던 1937년 2월이었다. 학교는 교토중학교로 1937년 4월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허경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의 사실은 이랬다. 당시 송길한(宋吉漢)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출신지는 홍성군 고도면(高道面, 현 갈산면)이었다. 그는 1933년 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애지현의 뇌호시(瀨戶市) 소학교를 거쳐, 1934년 나고야(名古屋) 형영(亨榮) 상업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다. 1936년에는 교토 양양(兩洋)중학교 4학년에 전학하였고, 1937년에 중도 퇴학하였다. 중요한 점은 송길한이 나고야에 있을 때,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송길한은 같은 하숙생이었던 정문용(鄭文容)에게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독립사상을 지도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는 중국 상해로의 망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그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고, 부득이하게 1937년 6월 18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송길한은 귀향 후인 1937년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고도면에서 신안서당(新安書堂) 교사를 하던 박영달(朴英達, 1916~미상, 2018년 애족장)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박영달에게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민족 해방이라는 신사상을 설명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이에 박영달은 8월부터 서당의 학생들에게 창가(唱歌)를 가르치거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송길한이 허경을 찾아온 것은 1937년 7월 23일경이었다. 두 사람은 일본 나고야에 있을 때부터 친교를 맺은 친구 사이였다. 허경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송길한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사회제도 모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모순인 사회 상태를 타파하고 진실로서 자유 평등한 인류애(人類愛)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야 함은 우리 청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허경이 반대로 송길한을 찾은 것은 한 달 뒤인 8월 23일이었다. 허경은 송길한과 함께 시

국을 논의하는데, 송길한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으로, 신앙자가 많으면 그것만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가 늦어지니 동인과 함께 무지한 무산대중에 대해 반종교적 의식을 환기하자.” 라고 말했다. 9월 상순경에도 허경은 다시 송길한을 만났다. 이때에도 두 사람은 조선의 독립 및 신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제휴하여 활동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송길한은 국내 북부지역과 만주를 돌며 동지를 규합하기로 약속하였다. 허경은 송길한에 대응하여 서울에서 중학교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장차 홍성으로 돌아와 조선 독립과 사회주의운동 실현에 매진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은 일제 경찰에 곧바로 탐지되고 말았다.

1938년 7월 1일 허경을 비롯해 송길한과 박영달 등 7명이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홍성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이때 허경을 비롯한 5명은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검사국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사건을 주도하였던 송길한과 박영달은 예심에 회부되었고, 1939년 9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1940년 칙령 제45호에 따라 징역 11개월 7일로 감형되었다. 허경은 당시 주동자에서 벗어나 있던 관계로 송길한이나 박영달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허경도 16일 동안이나 홍성경찰서와 홍성지청 검사국의 조사와 고문을 받았고 악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석방된 허경은 또 다시 배움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일정한 학력시험을 치르고, 1942년 일본에 건너가 풍도전문학교 경제부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학업은 지속하지 않았다. 허경의 독립운동 사실은 끊임없이 그를 감시의 눈과 함께 따라다녔고, 결국 입학한 학교마다 퇴학당하였다. 이제 허경에게 남은 것은 일제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친일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 것만이 남아 있었다. 허경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 허경이 가산으로 내려오던 논 20마지기를 매각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자식을 잘 이해하고 있던 어머니는 허경에게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다. 허경은 어머니에게 “중국의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일본 경찰에 자신을 찾으면, 중국에 있는 일본인 경찰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떠났다고 말하라고 전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독립운동가 허경에게도 광복은 감격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허경은 마음껏 해방의 환희에 잠길 수 없었다. 허경은 일제강

점 말기 내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다. 그런데 해방 정국을 장악한 군정 경찰은 일제 경찰에 가담했던 친일 한국인 경찰로 채워졌고, 허경은 또다시 군정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감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한 순간에 커다란 비극으로 마감한 것이다.

난관을 극복하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

구술자 허영일 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평생을 견뎌냈다. 아울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아버지의 공적을 되살리고 해방 후의 공산주의 세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보도연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독립유공자 포상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 결과 허영일 님 가족은 아버지 허경의 서훈을 신청하게 되었고, 2018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신지 무려 68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구술자 허영일 님도 이제 87세다. 평생 아버지의 불행을 가슴에 한(限)으로 안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지난 5년 동안만큼은 독립운동가 허경 애국지사의 아들로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웠고 모든 것이 떳떳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여느 집안과 달리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 것, 이점이 인생 말년에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었다.



허경 부부를 모신 대전 현충원 충혼당

<인터뷰어_ 김상기>

논산시

| 논산의 옛 장터

추억 속에 자리한 마산장 428
지금은 사라진 벌곡면 도산장 433
신기한 놀이터 같던 강경장 437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양촌장 443
세상을 만나 성장한 곳 448
여전히 사람들 곁을 지키는 연무읍 삼거리장 453
비상을 꿈꾸는 논산시장 458
연산장의 풍경 463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권 선 옥 (1952년생)
충남 논산시 연무읍

추억 속에 자리한 마산장



마산리의 번성

권선옥 씨는 어릴 때부터 준성년이 될 때까지 마산장을 오갔다. 부모님이 장을 볼 때 따라다녔고 국민학교 5학년 때에는 물가 동향을 조사하는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장에 갔던 기억이 있다. 권선옥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산장과 삼거리장의 초기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마산장은 4, 9일 장이었고 삼거리장은 5, 10일 장이다.

예전 전북 익산시 황화면 지역을 제외한 연무읍 지역과 가야곡면 왕암리·삼전리, 은진면 시묘리가 합하여 논산군 구자곡면이었다. 이때 구자곡면사무소가 마산리에 있었다. 그 전에도 인구가 많았지만, 1951년에 육군훈련소가 창설되고 면회 제도가 생기면서 인구가 급격히 팽창했다.

마산리의 구자곡국민학교가 1950년대 중반쯤에는 논산군에서 가장 큰 학교였다. 오전·오후반이 있을 정도였다. 구자곡국민학교에서 연무초등학교, 연무중앙초등학교, 가야곡에 있는 왕암초등학교가 분리되었다. 1960년대 초에 치과, 일반 의원, 약국 두 곳, 아이스크림 공장 두 곳, 당구장, 여러 개의 사진관 등이 있을 정도로 마산은 번창했다.

마산장의 번창

마산장은 구자곡국민학교 길 건너편에 있었다. 장이 커져 장꾼이 늘어나면서 장옥이 지어졌다. 당시에는 각목이 귀해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함석을 덮는 것이 일반적인 장옥의 형태였다. 마산장에는 20~30채 정도의 장옥이 있었다.

시장은 단지 물건의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친교의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는 재화가 많지 않고 일상이 단조로웠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날이면 으레 장에 갔다. 술 먹고 비척거리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흔해, 쓸데없이 장에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는 정부의 권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마산장이 먼저 생기고 삼거리장이 후에 생겼다. 마산리에 구자곡면사무소가 있을 때는 현재 연무읍 시가지 일부가 전라도 지역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도의 경계이다 보니 삼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나중에 국도 1호선이 생겼다. 삼거리 지역에 직행버스가 다니면서 접근성이 편리해져 점차 삼거리 지역의 인구도 증가

했다.

권선옥 씨는 마산장이 한창 활발했을 때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일대, 고산에서까지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말한다. 가야곡면 삼전리·왕암리 일대, 은진면, 여산에서도 마산장에 왔다. 그 당시에는 장날이면 사람들이 줄지어 왔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여자들은 온갖 물산을 머리에 이고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걸어 다녔다.

고개 너머 삼전리에서 가져오는 곡물이나 채소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입하려고 여러 명의 농산물 수집상들이 마산장에서 5리 정도나 떨어져 있는 소룡리까지 올라왔다. 그들이 오면 길거리에서 흥정이 벌어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까지 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거래 물품

진열해야 할 것이 많은 포목점, 건어물, 옷 장사들이 일찍 장에 나오는 편이었다. 9시 이전에 대개의 점포가 판매 준비를 마쳤다. 50~60년대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옷을 몇 번 입지 않아도 탈색됐다. 특히 검정 교복은 금방 희끄무레해져서 물감으로 검게 물들였는데, 염료 장사가 작은 통에 든 많은 색의 염료를 리어카에 싣고 다녔다. 빨래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잿물을 내려 썼지만, 양잿물을 풀어서 삶기도 했으므로 세탁용 양잿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곡물전은 장옥을 차지하지 않고 장마당을 이용했다. 곡물전 장사는 10센티 높이 깊이가 있는 멍석에 곡물을 쏟아 놓고 팔았다. 쌀은 큰 멍석에, 잡곡류는 작은 멍석에 쌓아놨다. 개인이 파는 곡물은 주로 잡곡류였다.

명절을 낀 직전의 대목(설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은 거래가 무척 활발했다. 고무신이나 운동화 같은 신발은 평소에도 거래량이 많았지만, 명절에 수요가 더 많았다. 형편이 어려우면 옷은 못 사더라도 양말을 꼭 샀고 선물로도 많이 쓰였다.

건어물 중에서 북어와 오징어는 제사상에 올려야 하니 수요가 많았다. 명태포를 구하지 못하는 집은 마른오징어를 올렸다. 그때는 마른오징어를 잘라서 오징어볶음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압축기로 눌린 오징어포가 상품화되었다.

생선 가게에는 명태, 오징어, 홍어, 상어 등이 있었다. 격식 있게 제사를 지내는 집은 상어를 사다 짚으로 껍질을 벗겨 찜을 해서 제상에 올렸다. 권선옥 씨에게 명절이면 놋그릇을 닦고 뜨거운 물로 상어를 닦던 모습이 선명하다. 또한 꽁치, 고등어, 아지 등이 많았다. 신선한 홍어는 거의 없고 약간 발효된 것이 많았다. 홍어 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했다가 과하게 삭은 것임을 알고 민망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산장 주변의 주택가에는 몇 집의 가게가 있어 장날이 아닌 때에도 물건을 팔았다. 장날과 상관없이 언제나 열리는 곳은 정육점, 신발가게, 포목점 등이었다. 문방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용품이 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는 않았다. 연무 읍내에는 서점이 있었지만, 장날 시장 바닥에 멍석을 펴놓고 유충렬전 등 여러 책을 진열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권선옥 씨가 국민학교 1~2학년 때, 매형이 시장에 가서 국사 이야기책을 사 주었는데 그 책을 수십 번 읽어서 이차돈, 우산국, 탐라국 등을 꿰뚫었다.

권선옥 씨는 장에 갈 때마다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국밥집이 짜장면집으로 바뀐 후에도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시고 국밥을 사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국밥집에 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떤 시장에서는 서커스단이 판을 열기도 한다는데 연무대는 이미 극장이 두 곳이 있었다. 서울에서 오는 화려한 쇼가 펼쳐지기 때문에 마산장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행상과 물물교환

60년대에는 젓갈의 소비량은 많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다. 새우젓은 값이 헐한 편이었으나 조개젓은 월등하게 비쌌다. 젓갈류는 장에서 거래되기도 하면서, 젓갈을 머리에 이고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파는 여인들이 많았다.

그 당시 죽세공품을 갖고 마을마다 다니는 행상이 있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간혹 거래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현금 대신 곡식을 주고 죽세공품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권선옥 씨가 기억이 또렷한 60년대에는 쌀을 판 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한다.

마산장의 쇠퇴와 삼거리장의 발전

구자곡면이 전라북도 황화면과 합쳐져서 연무읍으로 개편되면서 읍사무소는 삼거리(안심리)에 자리 잡았다. 삼거리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군인과 군인 가족이 물건을 사러 오기 편리했기에 서점과 가방가게, 양복점 등이 생겼다. 마산장이 활발하게 운영됐을 시기에도 이미 현대적이고 고가의 물품은 삼거리에서 판매되었다. 권선옥 씨도 국민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와 가방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70년대 중반쯤 마산장이 쇠퇴했다. 버스 정기노선이 없어져 장의 규모가 줄었다. 마산장이 폐쇄 위기에 몰리자 그 부흥책으로 우시장을 개장했다. 장날이 아닌 다른 날에 열렸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그 마저도 몇 달 만에 폐지됐다.

권선옥 씨에게 시장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곳이다.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좋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흥겨운 시간, 이웃의 안부를 묻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사교의 공간. 권선옥 씨는 시장이 화려한 축제장 같지만, 파장 무렵에 느껴지는 고즈넉함과 쓸쓸함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여 자꾸 시선이 간다고 한다.

<인터뷰어_ 한인성>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김 광 제 (1927년생)
충남 논산시 벌곡면

지금은 사라진 벌곡면 도산장



도산장을 기억하는 사람

김광제 씨는 벌곡면의 도산리에서 출생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벌곡면 농협 2대 조합장을 맡았고 벌곡 노인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도산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되기 전 이장을 맡아 마을을 이끌었고 도산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리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1927년에 출생하여 올해로 96세인 김광제 씨는 도산장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전 과정을 함께 하였으며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주민의 뜻으로 세운 도산장

도산 사람들은 논산으로 장을 다녔다. 교통이 좋지 않을 때여서 양촌장, 연산장. 논산장 등 가리지 않고 다녔다. 도산은 논산까지는 30km 정도 되고 양촌은 약 10km 되는 거리에 있다. 금산까지는 20km 떨어져 있어 금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전 가는 길은 교통이 좋지 않아 대전까지 왕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논산지역의 장은 교통이 좋지 않은 벌곡에서 최소 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도산에 장을 세우기로 했다. 약 60년 전 일인데 당시에는 벌곡에서 도산리가 큰 동네였다. 도산리에 거주하는 가구가 50호에서 60호 정도 되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벌곡면 소재지보다도 도산리의 규모가 컸다.

논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시기는 1996년 3월 1일이었다. 따라서 도산장을 만들려고 했던 시기는 논산군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이었다. 먼저 군청에 문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장을 세우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에서는 시장터가 먼저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을 주었다. 군의 재정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군에서 장이 설 부지를 마련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마을 자체적으로 장터를 확보해서라도 장을 세우겠다는 뜻이 모였지만 비축된 자금이 없었다. 따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풍물을 치면서 집마다 방문해서 희사금을 걷었다.

시장터로 생각했던 곳에 집 한 채가 있었다. 마을을 돌며 걷은 기금으로 집주인에게 비용을 치르고 이사하도록 하고 마련한 곳이 도산초등학교에서 30m 정도 상단 좌측에 있는 땅이었다. 도산장을 세울 당시 김광제 씨는 삼십 대 후반이었다. 장을 만드는 일이 도산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한 일이 장옥을 세우는 일이었다. 장옥을 두 줄로 지어 한 칸에 상인이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산장의 이모저모

도산장은 4일과 9일에 섰다. 상인들은 연산에서 트럭으로 짐을 싣고 왔다. 싸전, 포목, 건어물, 생선전, 옷 가게와 난전이 섰다. 장날이면 200평 정도 되는 장터에 이백여 명이 북적여 시골 장터치고는 잘 되는 장이었다. 국밥집도 들어와서 장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도 팔고 국밥도 팔았다.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대장간도 있었다. 장이 서는 날에만 와서 대장간을 열었다.

상설 가게도 두 개 있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도산상회가 그중 하나다. 도산장이 섰을 당시에 도산상회는 김광제 씨가 직접 운영했다.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하고 가게 규모도 컸다. 다른 하나는 작은 가게였다.

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도산 사람을 제외하면 금산의 진산면 사람이 많았다. 진산과 도산의 거리는 약 8km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진산에 장이 있었다가 없어진 뒤였기 때문에 진산 사람들에게 도산장은 인기가 많았다. 벌곡면에서는 대덕리, 검천리, 덕곡리, 수락리, 만목리 사람들이 찾았다.

자연스럽게 사라진 도산장

처음 장이 서기 시작해 4개월에서 5개월 후부터 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번창했다. 장옥에 들어가는 상인들 말고도 물건을 내놓고 파는 난전 상인들도 찾아와 장날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장을 찾는 장사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던 도산장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장과 함께 장터도 사라졌다. 도산장을 시작하면서 군에다 기부채납(寄附採納)했던 장터는 논산시에서 개인에게 팔아 현재는 주택과 미용실이 들어섰다.

도산상회

벌곡면 도산리는 금산에서 강경으로 소금을 져 나르는 상인들이 다니던 길목이었다. 하

루에 이동하기에는 먼 거리여서 상인들은 숙박할 곳이 필요했다. 김광제 씨가 도산상회를 열기 전 한 일이 그것이었다. 상인들이 묵고 가는 숙박업을 했다. 상인들이 묵고 가기 좋은 위치에 집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일이었다. 상인들이 자주 찾으며 수입도 괜찮았다.

지금 도산상회 자리에는 원래 주택이 있었는데 6.25 전쟁 당시 집이 불에 탔다. 주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집을 한 번에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그 아들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고치며 어렵게 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이 김광제 씨를 찾아왔다. 김광제 씨에게 그 집을 사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왔다. 특별히 장사에 관한 생각이 없었던 김광제 씨는 그 제안에 고심했다. 지인이 여러 번 찾아와 권하는 바람에 마음을 먹고 김광제 씨의 땅과 그 집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집을 살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래가 성사되어 천여 평의 밭을 주고 집과 바꿔 장사를 시작했다.

도산상회를 시작하고 가게에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갖춰놨다.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는 건축 자재도 팔았다. 나무와 슬레이트도 도산상회에 오면 살 수 있었다. 중국 사람이 대전에서 철물 공장을 했는데 거래처로 삼고 솥과 같은 철물 종류도 가게에 가져다 놨다. 장사가 제법 잘 되었다.

도산상회가 생기고 몇 년 후 도산장이 생겼다. 도산장이 생기면서 도산상회는 더 번성했다. 진산면에서 온 사람들이 도산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돌아가면서 진산면과 경계에 있는 도산상회에 들러 철물을 보따리로 사서 돌아갔다. 도산장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도산리에는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 도산상회가 건재하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김 무 길 (1942년생)
충남 논산시 강경읍

신기한 놀이터 같던 강경장



강경장 속으로

김무길 씨는 1942년에 강경성당 골목에서 태어나서 중앙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장이 서는 날이면 놀이터에서 놀듯 장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무길 씨는 성인이 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강경과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강경장의 변화를 목도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옛 강경과 강경장의 다채로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강경은 100여 년 전에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다. 조선은 외적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남과 호남, 관동과 영동의 대로를 제외하고는 육로를 발달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한강, 금강, 대동강에 인접한 고을이 발달하였다. 금강의 줄기에 자리한 강경은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강경장은 4·9일이다. 한때는 3·8일인 논산장이 서는 날에 비가 자주 와서 논산과 바꿔 장이 열린 적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4·9일로 고정되었다.

강경장은 크게 번성하였고 장날 연무대에서 둑을 따라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은 장관이었다. 부여 반조원과 석성, 갓개(양화), 입포, 세도 등에서 거룻배를 타고 와서 서편에 정박하고 장을 보았다. 전라도 망성, 낭산, 여산, 용안, 함열 등에서 달구지를 타고 왔다.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강경의 인구가 약 3만 정도였는데, 장날에 강경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5만이었다고 한다. 한일은행 쪽, 다음에 중앙동 쪽, 그다음에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본정통인 성결교회 길 그리고 강가 쪽으로 난 길을 전체적으로 옥녀봉 쪽에서 보면 ㅌ자 형이다. 장날이면 각각의 길마다 사람에 치여서 못 다닐 정도였다.

강경장은 윗장터인 상시장과 아랫장터인 하시장 두 곳에서 열렸다. 상시장의 규모가 커져 포화상태가 되자 1910년쯤에 하시장이 형성됐다고 한다. 상시장은 지금은 사라진 강경극장 뒤편인 홍교리와 옥녀봉이 있는 북옥리에 섰고 하시장은 강경 구 연수당 건재약방(이하 연수당 건재약방)이 있는 중앙리 일원과 배우 강부자 씨가 살았던 집 근처에 섰다. 하시장이 더 늦게 형성되었지만, 장의 규모가 상시장의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윗장터와 아랫장터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달랐다. 윗장터는 주로 곡물과 가축, 옹기 등이, 아랫장터에서는 포목, 잡화, 주물 솥, 죽제품 등이 거래되었다. 또한 아랫장터에 연수당 건재약방, 남일당 등 한약방이 있었다. 배가 들어오는 뱃전이라는 곳에서는 생선과 건어물 등이 팔렸다.

가뭄이 들 때는 주 무대인 북옥리, 홍교리, 중앙리를 벗어나 태평리, 서창리 등으로 장터를 옮겨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장을 보게 한 일도 있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장에 가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활력이 되었다. 그래서 장날이면 장구경하는 것이 예삿일이 되었다.

윗장터의 풍경

싸전에서는 멍석을 펴 쌀, 보리, 콩 등을 산처럼 쌓아 놓고 말, 되, 가마니 등으로 판매하였다. 쌀을 가마니로 팔 때는 대저울에 달아 90kg씩 팔았다.

강경장에 우시장인 소전은 없었지만, 가축과 야생동물 등이 거래되었다. 닭, 돼지, 개 등과 야생의 노루, 산토끼, 멧돼지, 날짐승인 두루미, 독수리 등을 팔았다. 식용의 고기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물이 판매되었다. 부모를 따라 장에 온 아이라면 이곳에 들러서 살아 있는 동물들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에서 또 하나의 재미는 윗장터와 아랫장터 두 곳에 있었던 약장사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서커스였다. 서커스는 장날만이 아니라 한 번 마을에 들어오면 1~2개월 정도 머물렀다. 서커스단은 북옥리에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쪽에 돔처럼 천막을 치고 단원들이 나팔을 불면서 호말에 원숭이를 태워 강경 시내를 한 바퀴 돌곤 했다. 그 광경 자체가 또 하나의 볼거리여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서커스는 줄타기, 마술, 연극 등으로 관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무길 씨도 국민학교 때 서커스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개구멍으로 구경하기도 하였다. 단원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아랫장터의 풍경

연수당 건재약방 앞길 건너에 죽제품 가게와 소쿠리전, 가마솥전(주물소) 등이 있었고 우측 길 건너에 농악 악기를 파는 꽹과리집이 있었다. 두레패들이 새 악기를 사기 위해 찾는 날이면 구성진 가락이 울려 퍼졌다. 홍교리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옷 가게와 비단 가게, 사기그릇 가게가 있었다. 후에 사기그릇은 놋그릇으로 60년대에 스뎅(스테인리스) 그릇

으로 품목이 바뀌었다. 후에 상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김공평 씨가 읍장일 때 죽제품 가게와 소쿠리전이 대흥리 쪽으로 이전하였다.

오늘날 연달아 있는 재래시장의 상가처럼 장날에 장옥이라고 불리는 나무 칸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물건을 팔았다. 장옥은 연수당 건재약방 쪽에 스무 칸 정도, 가마솥전 쪽에 대략 열 칸 정도, 홍교리로 올라가는 데 약 열 칸 정도 있었다. 현재 북옥리 경로당(윗장터) 앞에 장옥이 두 칸 남아 있다. 아랫장터에도 한 칸이 남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없어졌다. 장옥이 끝나는 조선산업주식회사로 가는 길과 김무길 씨 삼촌 댁으로 가는 길에 개인 가게들이 있었다.

김 씨가 어린 시절 서커스보다 더 재미났던 경험은 난전을 구경한 일이었다. 여기서 난전은 허가 없이 길에 임시로 벌여 놓은 가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난전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입장료를 받았다. 서커스보다 허술하게 설치되어 몇몇 아이들은 개구멍으로 드나들다가 붙잡혀 혼나기도 했다. 난전에는 약장사, 연극 패, 씨름 등이 별쳐져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찼다.

아무리 시선을 끌어당기는 구경거리가 많더라도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냄새를 물리치기는 어렵다. 아랫장터에 있는 국밥집으로 수많은 사람이 향했다. 개장국(보신탕)과 소·돼지 내장, 순대 등이 들어간 국밥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다. 여러 개의 국밥집이 있었지만, 몰려든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밖의 풍경

나무전은 윗장터와 아랫장터와는 별개로 지금의 중앙장로교회와 삼진한약방 앞에 있는 조선산업주식회사 근처에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소달구지에 솔가지를 높이 쌓고, 장작은 좀 낮게 쌓아서 가져와 팔았다. 갈퀴나무는 칡넝쿨로 엮어 둥글게 만들어 지게에 지고 오는 사람이 많았다.

조선산업주식회사 앞이 인력시장이었는데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다. 적은 물건은 리어카로 실어 나르고 크고 무거운 것은 마차로 했다. 그 옆에 충남자동차주식회사가 있어 버스와 택시가 대전으로 다녔다. 이때의 버스는 뒤에서 불을 때서 운행했다. 삼일약국 앞 황산국민학교 가는 길에 마차조합이 있었고 현재 우체국 위쪽에 인력거 조방이 있었다. 인력거

는 개인택시처럼 이용되었고 광복 이후까지 이동 수단으로도 쓰였다.

마차조합의 끄트머리 우측에 대장간이 있었다. 칼, 호미는 물론이고 말발굽 등을 만들었다. 대장간 옆에 말발굽을 달거나 교체해 주는 곳이 있었다. 말발굽을 다는 것을 신 신기기라고 했다. 말의 발에 있는 굳은살을 다듬고 말굽을 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말이 느끼는 고통에 안쓰러움이 일었다.

강경성당 옆에 있는 지금의 태평식당 뒷골목을 섬말고삿이라고 불렀다. 거기에 중국집 화학루를 비롯해서 중국 음식점이 쭉 있었다. 중국집 뒤로 양탄자와 비단을 파는 가게들이 자리했다.

섬말고삿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경성당 옆이 섬이었다. 60년대 후반까지 양쪽으로 물이 흘렀고 현재 노동조합 앞도 강이었다. 김무길 씨가 중학생일 때 뒷집에 사는 김유득 씨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노동조합장을 맡았었다. 대흥천을 따라 배가 들어왔고 이곳을 뱃전, 서편 또는 세편이라고도 불렀다. 조금 때는 배가 약 열 척쯤 들어오고 사리 때는 무척 많이 들어왔다. 배와 육지 사이에 널빤지를 놓고 망태기에 생선을 담아 목도를 메서 내렸다. 두 사람이 목도로 생선을 배에서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았다. 큰 생선은 마리당으로 팔고 조기 같은 작은 생선은 멍석 위에 놓고 되나 말에 담아서 또는 저울에 달아 팔았다. 장날과 상관없이 뱃전이 섰지만, 장날과 겹칠 때는 더욱 붐벼서 다니기 어려웠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생선이 가장 풍성했다. 새우는 물론이고 황새기(황석어)가 제철이었고 홍어, 상어, 갈치 등이 흔한 시기였다. 파장에 장꾼이 상어나 홍어를 지게에 메고 갈 때 꼬리가 땅에 질질 끌려가곤 했다. 이때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다. 생선 비린내가 묻은 지폐가 먹을거리인 줄 알고 물고 간다는 뜻으로, 그만큼 돈이 흔하다는 뜻이다. 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새우나 황새기로 젓갈을 담가 여름 내내 반찬 등으로 먹고, 남은 것은 가을에 김장할 때 쓰였다. 가을에 젓갈 끓이는 냄새가 골목마다 진동했다.

오일장 이외에 상설시장도 있었다. 윗장터 강경극장 앞에서 ㅌ자 길로 중앙동을 내려와서 중앙장로교회까지 장이 섰다. 상설시장으로 인해 태평식당이 있는 골목이 늘 복잡했다. 또한 1955년 개설된 상가건물형 전통시장인 대흥시장이 점점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강경장의 쇠퇴

강경장의 쇠퇴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 또 철도와 신작로,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해로를 이용한 물산유통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금강하굿둑을 막으면서 강경장은 완전히 침체되었다.

김무길 씨는 72년도에도 장옥에서 옷을 샀다며 70년대 초까지 강경장이 활기를 띠었다고 했다.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윗장터가 없어지고 이어서 아랫장터가 없어졌다. 지금은 상권을 중앙리 일원에서 황산리로 이전하여 장날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김 씨의 강경장에 대한 첫 마디가 '밖에 나가면 장꾼들이 득실득실했다.'였다. 현재 장날의 풍경과 규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김 용 제 (1946년생)
충남 논산시 양촌면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양촌장



소전이 유명했던 장소

김용제 씨는 대대로 양촌에서 살았다. 대전에서 사범부설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계신 양촌을 떠난 일이 없다. 양촌은 면적이 77㎢, 2023년 9월 인구가 6,400명으로 면 단위로는 큰 편이다. 1946년에 출생한 김용제 씨는 5살 무렵인 1950년대와 1960년대가 양촌장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양촌에서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양촌면장으로 퇴임하고 현재까지 양촌에서 생활하는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인내장이라고도 부르는 양촌장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았다.

김용제 씨가 기억하기로 논산장보다 컸다는 양촌장에는 거래되지 않는 산물이 없었다. 양촌에는 과일, 곶감, 대추, 밤, 생각, 마늘, 고추 등 모든 농산물이 다 나왔다. 논산 시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하기만 했던 밤도 양촌에서는 흔했다.

그중에서도 유명했던 것이 소전이다. 김용제 씨는 금산서부터 소를 끌고 양촌까지 오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다. 양촌면 반암리에 물한이재가 있는데 그 재를 넘으면 벌곡면 도산리로 갈 수 있고 도산리를 지나면 바로 금산군 진산면이었다. 2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소를 끌고 이동해야 했지만, 양촌장이 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친구 아버님 중에도 소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도 다른 지역에서 서는 장에 가기 위해 밤이 되면 양촌에서 소를 끌고 출발하곤 하셨다. 주로 금산의 장에 소를 내다 파셨다. 가까운 양촌장에 소를 내지 않고 금산까지 가는 이유는 양촌 소가 인기가 좋아서였다. 양촌 소가 유명했던 이유는 예전엔 강변에서 소를 풀어 먹였기 때문이었다. 강변의 풀을 실컷 먹고 자란 소는 품질이 좋았다. 강변이 소들로 꽉 차서 벌겋게 보일 정도였다. 한 동네에 50호 정도의 집이 있다고 하면 30호 정도는 소를 키웠다. 집마다 소를 애지중지 돌봤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부인에게 물어보는 말이 “소 밥 줬어?”라고 할 정도였다. 함께 모시고 사는 어른의 안녕을 확인하지 않고 소가 잘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귀하게 돌봐서 양촌 소는 도체율이 높다고 소문이 났다. 같은 근수의 소를 사도 양촌 소는 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소전에 소가 많을 때는 200마리까지 나왔다. 소를 묶어 놓으면 말뚝세라는 것을 받았다. 말뚝세를 헤아리면 장에 나오는 소의 수를 대략 알 수 있었다. 소전 옆에는 도축장도 있었다. 김용제 씨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1975년 혹은 1980년도에 도축장이

연산으로 이전했다고 했다. 그 이전까지는 양촌장에서 직접 도축을 했다. 소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축장도 없어진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번성했던 양촌장

처음 양촌장이 섰던 장소는 현재 양촌면사무소, 양촌초등학교, 우체국이 있는 자리였다. 가끔 이곳에 난장(정해진 장날 외에 특별히 며칠간 더 여는 장)이 서기도 했다.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먼저 씨름판이 열렸다. 씨름대회가 커서 논산뿐만 아니라 공주, 대전에서도 사람들이 모였다. 한 번 난장이 서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는데 장정들이 씨름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시범 경기를 했다. '애기 씨름'이라고 부르는 경기를 먼저 진행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상품은 상인들에게 걷어서 마련한 비용으로 준비하고 농악 연주 등으로 흥을 북돋웠다. 큰 볼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1980년이 넘어서 건너 장터가 생겼다. 지금의 인천2리가 그 위치다. 그때도 양촌장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양촌에서 생산되는 감, 밤, 대추뿐만 아니라 새끼 돼지나 닭도 팔았고 달걀을 10개씩 짚에 묶어 팔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장이 서면 큰 볼일이 없어도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장에 나와 팔았다. 팔고 받은 적은 돈으로 지난 장에 이웃집 형님한테 얻어먹은 술을 갚으려고 찾아다녔다. 술집이 열 곳이 넘을 정도였다. 양촌에서 보기 어려운 삶은 오징어를 안주 삼아 먹고 돈이 조금 남으면 생선전에 들러 명태나 조기를 샀다. 짚으로 묶은 생선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중국 사람 왕씨가 운영하던 포목전은 현재 우체국이 있는 자리 옆이었고 상설로 운영했다. 상설로 운영하는 가게에는 석유집, 고깃집, 국박집, 약방이 있었다.

양촌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촌 주민들이었으나 연산, 금산, 벌곡, 운주, 가야곡 사람들도 양촌 생활권이라 찾아왔다. 상인들도 많이 몰려들었다. 운주에서 오는 상인들은 고추, 마늘을 주로 가져왔다. 연산에서 전날 마차에 짐을 싣고 오는 상인들도 많았다. 운주장이 1일과 6일, 양촌장이 2일과 7일, 논산장이 3일과 8일, 강경장이 4일과 9일, 연산장이 5일과 10일에 열리면서 다섯 개의 장이 딱 맞아 돌아갔다.

김용제 씨가 기억하는 장날은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이었다. 국수, 떡, 국밥을 파는

난가게가 섰는데 장날이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장으로 갔다. 김용제 씨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찾아 장터를 돌아다녔다. 한집에 살고 있었지만 장에서 만나면 맛있는 것들을 사 주셨기 때문이었다.

김용제 씨는 양촌장이 생긴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양촌초등학교가 개교했던 1919년에도 양촌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장이 서려면 연산 사람들이 미리 곡식 같은 것을 양촌 주민들에게 사들였고 공산품을 팔았다. 양촌 양조장의 역사가 100년 됐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장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양촌장에는 대장간도 두 곳이나 있었다. 낫, 호미, 쇠스랑 같은 연장을 만들어 팔았는데 둑 옆에 있었고 많을 때는 3곳으로 늘기도 했다. 그게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로 양촌장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장옥이 6채가 있었지만 장옥에 들어가는 상인들은 규모가 큰 편이었고 대개 길바닥에 늘어놓고 옷 등을 파는 상인이 많았다. 장옥 한 채에 10명의 상인이 들어가 가게를 벌여 큰 장사만 해도 60개가 열리곤 했었다. 지금 남아 있는 현대식 장옥을 지은 것이 2000년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양촌장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인들이 많기는 했어도 인근에서 왔기 때문에는 숙박업이 발달하지는 않았다. 장이 끝나면 마차로 짐을 싣어 돌아갔다. 김용제 씨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장에 쌀, 콩, 마늘 등을 팔았는데 주로 상인들이 사들였다. 상인들은 집에서 농사지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농부들에게 물건을 싸게 사서 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매겨 팔았다. 장에서 팔리는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상인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던 장

장이 서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약장사나 동동구리모 장사라고 불렀는데 발로 북을 치는 사람, 춤추는 사람들이었다. 중국 사람이 운영하던 포목전 건너편에 공터가 있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약장사들이 파는 품목도 다양했다. 웅담을 가져오는 약장사도 있고 보명수라고 하던 약도 있었다. 치통에 좋은 약을 시범을 보이면 구경꾼은 현혹되었다. 어른들을 모아 놓고 뱀을 팔기도 했다.

장은 인심이 오가는 장소였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챙겨주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시절에 모처럼 풍족함을 누리던 장소였다.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길바닥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김용제 씨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 중 하나가 장에서 할머니가 사 주시던 음식이다. 할머니는 인절미, 빵, 순대, 국수 같은 것들을 사서 손주에게 먹였다. 특히 지단을 가늘게 채 썰어 올린 국수의 맛을 잊지 못한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 무렵 할아버지를 장에서 만났는데 돈이 다 떨어졌는지 아무것도 사 주지 않으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가 한 2㎞ 정도 되는데 중간에 무밭이 있었다. 당시에는 무밭에서 무 뽑아 먹으면 죽는다는 낭설이 있었는데 김용제 씨는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무를 뽑아먹었다.

장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하는 장소다. 장의 규모는 줄었어도 장이 서지 않은 적은 없었다.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지금도 존재한다. 김용제 씨는 여전히 양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지금은 대형마트에 밀려 특별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되었으나 여전히 서로 만나 먹거리를 권하게 된다고 한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박 상 구 (1964년생)
충남 논산시 해월로

세상을 만나 성장한 곳



전통시장의 변화

조선시대에는 보부상과 객주를 중심으로 물품과 재화가 거래되고, 상인들이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따라 이동하는 5일장이 열렸다. 17세기 이후에 발달된 5일장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정보 교환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각처에서 도보 이동으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장이 섰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논산지역도 각 읍면의 행정 중심에 장이 섰으나, 이제는 상설시장으로 또는 각 지역에 들어선 대형 마트로 대체되었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에는 상설시장과 더불어 5일장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통시장(2010.7.1.,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일괄 변경)이라고 불리는 재래시장은 논산지역 상인들에게 안정된 판매처를 제공하고, 논산 서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논산지역 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6년에 화지동에 조성되었다.

시장의 규모는 대지 총면적 7,701㎡에 건물 총면적은 4,008㎡이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화지시장과 중앙시장은 통합되어 4차례에 걸쳐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 1차는 2004년 2월, 2차는 2005년 12월, 3차는 2006년 2월, 4차는 2007년 12월에 완공되어 현재는 편리성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논산은 아직도 5일 장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시장의 이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즉 논산화지시장, 논산공설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논산장 등으로 불리고 있다.

시장, 처음 만난 세상

박상구씨의 부친은 시장에서 철공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각 집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어느 집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동네의 뒷골목은 아이들이 몰려 다니며 노는 가장 좋은 놀이 공간이었지만 박상구씨는 어린시절 동네 옆의 아랫장터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나무 기둥에 함석을 이은 장옥이 늘어서 있었고, 장날만 사용했기에 장이 서지 않는 날은 장옥이 텅 비어 있어, 좋은 놀이터였다. 장날에는 주로 가축이 거래되었다. 큰 소는 우시장이 따로 있고, 이곳에서는 강아지, 염소, 병아리, 닭 등 작은 가축만 팔았다.

어느 집에서 데리고 나온 강아지와 노란 병아리, 토끼가 거래되었다. 아이들은 작은 동물들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키우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시장은 마을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세상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였다.

어린 나를 유혹하던 장날

3일과 8일은 논산 장날이다. 박상구씨는 철공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옆에 있기 보다는 흥성거리는 장날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리곤 하였다.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물건들을이 넘쳐나 모두가 장날을 기다렸다. 특히, 성모의원 옆에 자리한 연필 장수는 조그만한 원숭이(원숭이의 이름은 삼돌이였다.)를 데리고 나와 구경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였다.

원숭이는 재주넘기와 그네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경꾼이 들고있던 먹을 것을 채가기도 하였다. 어린 마음에 5일마다 오는 논산 장의 원숭이 삼돌이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삼돌이는 아이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였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원숭이 흉내를 내는 아이는 특히 인기가 좋았다. 박상구씨도 원숭이를 좀 더 잘 흉내 내기 위해 그 모습과 행동, 소리를 세심하게 관찰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장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났다. 당시 장을 돌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장똘뱅이(장돌뱅이)라고 불렀는데 그중에서도 약장수는 어른들 마저도 감탄을 할 정도로 장사를 잘 했다. 당시에는 횟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약장수는 똥구멍(항문)이 가려운 사람들은 나와보라고 해서 무료로 약을 주었는데 잠시 후 약을 먹은 사람의 바지를 벗겨 항문에서 회충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 너도나도 약을 사들고 갔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글자를 말하면 금방 그림으로 그려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화 중 문자도(文字圖)였다.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꽃, 잉어, 새, 잎 등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기위해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한가한 동네가 되었지만, 아래 장을 끼고 흘러가는 중교천(흔히 구강이라 한다) 주위로 식당, 선술집, 함석집, 철물점, 목재소, 이발소 및 한약방과 한의원이 특화되어 있었다. 술 냄새와 국밥 냄새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한 번쯤 호기를 부리기도 하였다. 한약

방과 한의원에서 배어 나오는 한약 특유의 냄새도 잊혀지지 않는다.

시장, 소년기의 몸살을 앓던 곳

박상구씨의 아버지는 한국관 옆에 있는 고씨네 철공소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독립하기 전까지는 생활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눈썰미가 좋고 손재주가 있어 당시 논산에서 유일하게 큰 양곡 도정 공장인 한국산업사의 기계 수리를 도맡았다. 밤새 돌아가야 하는 기계가 멈춰 서면 아버지는 아무리 늦은 밤이나 첫 새벽에도 달려가 고쳤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였던 아버지는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사의 기계를 전담하였는데 논산에서 제일 큰 공장의 기계를 고친다는 것은 최고 기술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공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었고, 부여, 석성에서까지 일이 밀려들었다. 특히 물을 품어 올리는 펌핑(긴 쇠통으로 수로에서 물을 끌어올려 논에 물을 대는 역할 및 품어서 빼내기도 함)을 잘 만들기로 유명해 농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아버지 덕분에 집안의 경제적 형편도 조금씩 좋아졌다. 어머니는 아들 박상구씨를 지금은 시장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국수 공장 옆에 있던 '모임(지금의 학원과 비슷하다)'으로 공부하러 보냈다. 이층에 있던 새힘 모임은 당시 꽤 인기가 있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던 곳이었다. 모임 옆에는 떡을 팔았고, 국밥도 팔아 늘 좁은 골목에 사람이 넘쳐났다. 장날이면 모임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장을 돌아다녔다.

장은 점점 커지고, 거래되는 물건도 점점 늘어났다. 한때 인기 있던 장사 품목도 시간에 따라 변했고, 생소한 물건도 등장했다. 세상의 변화가 장으로 밀려들었다. 박상구씨에게 시장은 전부였고, 시장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시장, 나를 성장시켰다.

시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불이 꺼진 후에 자석을 이용해서 못을 줍던 기억도 있다. 옛 기민중학교 옆에 나락을 쌓아놓고 거래를 하기도 하였고, 대교 다리 뚝 너머에서는 개를 절굿공이로 도살하기도 하였다. 또 시장 안 항아리전 옆에 있던 은하 목욕탕 옆에서는 배를 묶던 흔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아마도 강경 쪽에서 실려 온 생선 배들이 드나들던 곳이라 하겠다. 중교천 변(흔히 구강이라고도 함)은 집들로 가득 차서 꽉 들어찼다.

당시에는 자장면이 50원이었다. 화지시장 안에는 양은 솥단지, 냄비 등을 때워주는 땜장수, 우산 살을 고쳐주는 사람, 싸움 연(방패연)을 잘 만드는 사람, 석유 곤로 심지 갈아주는 사람 등 다양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변하면서 그 많던 포목 가게들이 사라지고, 기성복 집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슈퍼가 들어서 소비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신발가게도 메이커 대리점에 밀려나기도 하였다. 파는 물건도, 가게도 많이 달라졌다. 물건들도 풍성해졌고, 시장 안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변했다. 비가림 시설도 좋고 전에 없던 주차장도 많아져 장을 보기에 매우 편리해졌다. 하지만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오복 전파사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아직도 가게가 그 자리에서 운영(조카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박상구씨처럼 어린시절 시장이 향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공간이다.

장날이 예전만 못하고, 상설시장도 많이 쇠퇴했지만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물 한 주먹, 콩 몇 되박, 채소 몇 단, 그 밖의 양념거리들을 팔기 위해 장에 오는 시골 사람들이 있다. 예전처럼 딸이나 사돈,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소중하게 들고나온 물건 중에는 여전히 입맛을 돋우는 제철 과일과 나물, 잘 띄운 된장과 청국장이 보인다. 오래 전 그시절의 삼돌이와 엿장수 아저씨, 튀밥을 먹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하다.

시장이야말로 박상구, 나를 성장시킨 공간이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이 근 양 (1944년생)
충남 논산시 시민로

여전히 사람들 곁을 지키는 연무읍 삼거리장



삼거리장과 이근양 씨의 인연

이근양 씨는 1944년 논산시 채운면 우기리에서 태어났으나 가족이 연무읍으로 이사하면서 생활의 중심지가 연무읍이 되었다. 성년이 되어서는 공직에 몸담았고 연무읍장도 역임하였다. 약 60년간 연무읍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연무읍에 있었던 삼거리장과 관련된 자세한 기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삼거리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육군훈련소가 1951년 11월에 창설되면서 집이 늘기 시작했다. 육군훈련소에 이어 육군병원도 들어왔다. 채운에서 태어난 이근양 씨 가족도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육군병원 옆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장과 가까워 이근양 씨는 장이 설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장 구경을 갔다. 시간이 지나서는 가족들이 삼거리장에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장사를 시작해 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기에 장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갖게 되었다.

연무읍에 있었던 여러 장場

현재 연무지역에는 마산장, 신촌장, 황화장, 삼거리장 등 여러곳의 장이 존재했다. 마산장은 규모가 컸다. 면사무소와 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겼다. 신촌장은 육군훈련소의 창설 이후인 1960년대 초반에 생긴 장이다. 육군훈련소의 길 건너편에 장이 섰었는데 면회제도가 없어지면서 지역 경기가 안 좋아져 장이 서지 않게 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금과 달라 황화장은 전라북도 익산군에 속해 있었다. (황화장이 서던 황화면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산군에 편입되어 연무읍으로 변경되었다.) 이근양 씨의 기억에 의하면 황화장은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 초 생겼다가 5~6년 존속 이후 사라졌다.

삼거리장의 시작과 옛 모습

삼거리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시작된 것은 1945년이다. '삼거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목포~신의주선'이라고도 하는 국도 1호선이 들어서면서부터다. 국도 1호선이 주선이고 구자곡 방향으로 가는 길이 옆에 있어 자연스럽게 길이 삼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길의 형태를 보고 '삼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원래 이 지역의 지명은 작촌(鵲村)이었다. 현재는 동네가 전부 사라졌으나 원래는 기와집 몇 채가 있었고 미루나무들이 줄지어 있던 마을

이었다. 그 나무에 까치가 떼를 지어 살아서 동네 이름이 작촌이 되었다.

삼거리장은 당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안심리였다가 후에 논산군에 편입되었고 지금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연무안심시장'이다. 처음 시작했던 장터는 현재 장의 위치보다 북쪽으로 약 100m 위에 있었다.

처음 삼거리장은 5일과 10일에만 서는 장이었다. 육군훈련소가 연무읍에 들어선 이후 건물들이 들어서고 지역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설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연무안심시장'이 있는 위치의 땅을 이근옥 씨, 김경식 씨, 강신혁 씨 외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행정기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면서 삼거리장은 자연스럽게 공설시장이 되었다.

초기 삼거리장

상설시장으로 변하기 전 초창기 삼거리장에도 장옥이 있었다. 삼거리장을 찾는 상인들이 가져오는 품목은 다양했다. 가재도구, 식품, 의류, 건어물, 옷감, 생선, 농기구 등 안 파는 물건이 없는 만물장이었다. 장을 찾는 상인들만 1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이근양 씨는 기억한다. 소를 제외한 개, 닭, 돼지 등 가축을 사고파는 시장도 한편에서 열렸다. 난장도 큰 규모로 섰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 번영회가 주관한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이근양 씨는 시장 번영회의 초대 회장을 강신혁 씨가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거리장을 찾는 사람들은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떠돌이 장꾼들이었다. 외부 상인들이 와서 돈만 벌어 간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으나 지역민들이 물건을 싸게 사는 기회도 되는 터라 장이 서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삼거리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곳에서 왔다. 연무읍, 은진, 채운, 가야곡, 전라북도 화산과 완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화산의 범어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무읍이 일상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범어리 사람들은 연무읍에 소룡리 말랭이를 기점으로 화산에서 넘어오는 길은 자신들이 낼 테니 말랭이부터는 연무읍에서 길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삼거리장의 번창

삼거리장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1950년도 중반 ~ 1980년도로 약 30년 동안이다. 이근

양 씨의 가족도 삼거리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다. 둘째 형의 주도로 논산의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장에서 팔았다. 제사를 중요한 집안 행사로 생각했던 시절이라 명태포, 문어포, 민어포 같은 품목이 잘 팔렸고 반찬으로 자주 먹는 미역이나 멸치도 판매가 잘 되었다. 특히 시제가 많은 음력 10월이 되면 수입이 평상시의 몇 배가 되어 상달이라고 불렀다. 수입금을 정산할 시간도 없어 돈을 포대에 담아두었다가 집에서 정리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연무읍의 거주 인구도 60년대 말에는 42,000여 명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었다. 장이 서면 2,000 ~ 3,000명이 운집해서 몸을 스치지 않고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다. 소매치기들이 장을 찾은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경우도 빈번했으나 인력이 충분치 않아 경찰이 상주하지는 못했다.

대장간과 국밥 가게는 상설로 있지 않고 장날만 장사하는 이동식 가게였다. 지금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화력을 얻던 시절이 아니고 풀무로 숯에 불을 붙여 화력을 높이던 때라 이동하며 장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뻥튀기 장사도 장을 찾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다.

삼거리장에 관한 특별한 기억

장날이 되면 나무 장사꾼들이 마산길에서부터 한 줄로 서 지게보다 높게 나무를 쌓아서 가지고 오는 풍경을 이근양 씨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나무를 사고파는 일은 1970년 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다. 솔가지나 나뭇잎도 동그랗게 말아 장에서 연료로 팔았다.

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싸 주는 특별한 포장지는 없었다. 지푸라기나 비료 포대, 회 포대(시멘트 포대) 등이 사용되었다. 생선도 상인이 지푸라기에 묶어주었고 지푸라기에 묶인 그대로 생선을 들고 다니다 집으로 가져갔다.

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도 받았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상가번영회나 동네 이장이 일정한 금액을 걷었다.

장이 서면 소규모 서커스단도 따라서 들어오곤 했다. 수준 높은 공연은 아니었다. 큰 공을 굴리는 재주 정도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으나 장을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구경꾼들이 모였다. 적은 액수의 돈을 걸게 하는 야바위꾼들도 단골로 장을 찾는 사람 중 한 무리였다.

삼거리장에는 극장도 있었다. 연무극장이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는 사람마다 조

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근양 씨는 연무극장에서 춘향전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무로 세워진 허름한 극장으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성보극장이 생기면서 문을 닫았다.

이근양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건어물 장사를 하던 형이 비단으로 취급 품목을 변경했다. 당시 최고급으로 사람들이 취급했던 옷이 나일론으로 만든 곰보 셔츠였다. 직조할 때 위로 톡톡톡 나오게 해서 사람들은 그걸 곰보 나일론이라고 불렀다. 옷을 빨아 툭툭 털어 빨랫줄에 널면 2~3분 안에 다 마르는 신기한 옷감이었다.

삼거리장의 쇠퇴기

번성했던 장은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삼거리장과 근접한 은진면 토양리에 큐마트가 문을 열었다. 큐마트는 대형 마트 중에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가게였다.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서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 익숙해졌다. 자연스럽게 장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삼거리장은 상설시장으로 장을 현대화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 현재도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이 창 구 (1946년생)
충남 논산시 시민로

비상을 꿈꾸는 논산시장



논산의 물길

이창구 씨는 1946년 논산 새터에서 태어났다. 제대 후에 농산물 상회, 건어물 상회, 목재상을 운영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으며 논산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번영회 연합회장,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다. 그는 논산에 흐르던 수많은 물길과 논산장 등에 관해 많은 것을 들려주었다.

논산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논산우체국이 있다. 논산우체국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중앙 갈국수 쪽으로 내려오면 중교천(몇 년 전에 물 순환형 수변 도시 조성 사업을 마치고 꽃가지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구술자의 말을 사용하여 중교천으로 부름)이 있다. 중교천 위로 올라가면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노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친다고 하여 합천이 있다. 거기서 다시 물줄기가 갈린다고 해서 가름내라는 곳이 있다. 중교천이 원래 논산천의 본류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수로 직선화 공사로 둑을 쌓아 새로운 강줄기를 현재 위치로 잡아 강경까지 이어지게 했다. 중교천을 구강으로 부르고 현 논산천을 새강으로 불렀다.

논산에 여러 개의 물줄기가 있었지만, 등화동에 있는 황하산성 앞에 흘렀던 물줄기가 가장 세찼다. 예전에 논산을 놀뫼라고도 하지만 황등야산군이라 했다. 또한 저녁때가 되면 노을이 아름답게 진다고 해서 논산을 황산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노을과 물에 비친 노을이 어우러져 그런 이름을 얻은 것 같다. 대둔산과 노성산에서 내려온 물이 내려와서 황하산성 인근에 배를 댈 수 있었다. 그 세찬 물줄기를 막기 위해 보를 쌓아 물길의 흔적이 사라졌다.

논산장 개요

논산장은 은진군 화지산면에 개설되어 있었다. 1909년 대한제국 농상공부의 조사에 따르면 논산장의 연 거래액이 104만 원이 넘었다. 논산장은 주변에 논산평야가 있고, 논산천을 통해서 물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은진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물산이 모이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논산장은 많을 때는 1만여 명, 적을 때에도 5,000여 명이 장을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논산장의 규모가 커지자 외국인의 거주도 늘어났다. 1909년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이 116명, 중국인이 25명 거주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했다.

논산장에서 거래된 물품들은 쌀과 잡곡, 면포, 마포, 연초, 어물, 소금, 소가죽, 잡화 등이

었고,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쌀과 소가죽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품은 주로 개항장인 군산과 인천을 통해 유입되었다. 따라서 수산물의 유입도 많았다. 명태, 조기, 새우젓 등이 대부분 작은 배에 실려서 논산천을 통해 논산장으로 유입되었다.

논산천의 풍경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창구 씨는 네 살이었고 전쟁이 끝나고 여덟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논산 시장의 근간을 이룬 것은 위탁상회 덕분이었다. 그 당시 논산에는 이 씨의 외갓집인 경북상회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아위탁상회 두 개가 있었다. 새강 다리(현 대교다리) 밑에 배가 접안했다. 강경에서 물길을 따라 들어왔다.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위아래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 뱀이 요동치는 것처럼 대교다리 아래를 가득 메웠다. 배에서 내린 생선의 일부는 위탁상회와 선주의 집으로 가져가 팔렸다. 뱃일꾼들이 먹고살기 위해 나머지 생선을 사람들이 가져온 콩, 팥, 쌀 등과 물물교환을 했다. 이 씨의 집에 배가 있었다.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고군산열도에서부터 연평도까지 조기가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조업했다고 한다. 배가 들어오는 날에 다리에 나가 보면 뱃일꾼들이 조기와 곡물을 교환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배가 접안하는 장소에서부터 사람의 행렬은 장터로 죽 이어졌다. 그때 구 기민중학교가 대교동 밑에 있었고 그 앞에 둠벙(논의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나 빗물을 가두어 두는 인공 습지)이 있었다. 이 좁은 골목을 따라가면 논산에서 제일 큰 시장통 거리가 나왔다. 현재 대교성당에서 다리를 건너오면 공중화장실이 있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다. 3일과 8일에 장이 열린다고 해서 삼팔시장이라 했고 여기를 아랫장터라고 불렀다.

1960년대 중반에 이창구 씨는 경북상회에서 일 년 동안 근무했었다. 그때 배를 타고 강경에서 논산을 오가기도 했다. 강경옥녀봉 밑에 있는 접안시설에 수십 척의 배들이 오갔다. 슬레이트로 지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나와 배에 생선을 싣고 나르는 것을 확인했다. 그 옆으로 커브를 돌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냉동 창고가 있었다. 그 물길을 따라서 배가 논산천으로 왔는데 후에 논산천 대교다리 밑에 있던 접안시설이 없어졌다. 논산역을 지나 채운 쪽으로 고압선이 하나 있고 성동 쪽으로 가는 고압선이 하나 있었는데 토사와 흙이 쌓여 배 밑이 얕아졌다. 돛대가 고압선에 걸려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논산에 배

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거래된 품목

윗장터는 현재 논산약국에서부터 나중에 화지시장(공설시장)이 되는 곳까지 이어졌다. 대우약국에서 약간 내려오면 좌측에 골목이 있다. 이곳이 싸전 골목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쌀을 미방(쌀 수집상)이라는 곳으로 버스나 달구지를 타고 가져갔다. 미방에서 중간상인들이 쌀을 수집해서 대전이나 서울 등에서 팔았다.

논산이 번창하면서 나무전이 생겼다. 논산이 번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군 면회 때문이었다. 군대에 간 아들을 보러 온 부모들이 논산역에서 내리면서 논산에 이동인구의 밀도가 높아졌다. 인구가 늘면서 나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졌다. 그 당시에는 솥 등을 가져와서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한다. 대우약국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공설시장이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다리가기 전까지가 나무전이었다. 주로 논산 주변의 산골 마을에서 나무를 팔러 왔다. 대부분 장작이 거래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쏘시개 하기 좋은 솔가지를 지게에 지고 와서 팔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전에서 나무를 사지 않고 물가에서 자라는 줄대를 말려서 땠다. 그밖에 톱밥이나 말린 참깨나 들깨 줄기 등을 땠다.

논산약국 주위에 치마저고리, 이불, 솜 등을 판매하는 포목점이 있었다. 논산약국에서 약간 서쪽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마솥전이 있었다. 그 옆 골목은 떡전 골목이었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 온 떡을 그곳에서 팔았다.

논산장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시장이었다. 논산 사거리에서 하나은행 동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거기에 왕생당약국으로 가는 길과 강경으로 가는 길이 교차하는 곳에 작은 다리가 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가면 넓은 공터가 나온다. 이곳에 우시장이 섰고 사람들은 그곳을 소전머리라고 불렀다. 소전머리 주위에 있던 순대국밥집과 팥죽 가게가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았다.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우시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있는 주공아파트 근처로 옮겨갔다.

이한의원에서 아래쪽 전체에 노점이 열렸다. 그 밑으로 양침술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염소, 닭, 토끼 등을 팔았다. 흥미롭던 시장 풍경이 있는데 조기를 비스듬하게 엮어서 걸어놓고 피리를 불고 징과 꽹과리를 치면 생선을 팔았던 상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무에 굵

은 동아줄을 매놓고 패랭이를 쓰고 줄은 타기도 했다.

상설시장의 변천

한국전쟁 이후 논산에는 과거 논산장의 명맥을 이은 정기시장이 오랫동안 개설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상설시장인 중앙시장이 설립되었고, 그 뒤를 이어 1976년에 화지시장(공설시장)이 개설되었다. 두 시장은 논산의 중심 시장으로 1990년대까지 상권을 주도하며 번영을 누렸다. 이때는 인구가 17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2000대년 이후 지역 인구의 감소와 대형 마트의 설립, 주차 공간의 부족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소비 패턴과 유통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앙시장과 화지시장의 장세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두 시장의 통합과 시설 현대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2004년에 화지시장과 중앙시장이 화지중앙시장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변모하였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점포 184개와 노점 80개를 합쳐 총 264개의 상점을 갖춘 말끔한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4년에는 전국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시장 12곳에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점포 10곳을 열어 청년상인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딸기찐빵과 수제디저트, 수예체험, 3D 프린팅 제조 등 다양한 공방을 열어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높였다. 2023년 현재 3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논산화지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과 농산물, 잡화, 먹을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논산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개최해서 시장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전하고 있다.

시장은 단순히 상거래 장소라기보다는 사람의 희로애락이 응축된 대표적인 공간이다. 시대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침이 있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생명을 이어가듯 시장은 늘 그렇게 사람들 곁에 남아 있다. 시장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곳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식지 않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어_ 권선옥>

논산시
논산의 옛 장터

홍 의 선 (1948년생)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장의 풍경



1970년대의 연산

홍의선 씨는 1948년에 연산면 신암리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연산리로 이사했다. 홍 씨가 스물네 살에 제대한 후에 사업으로 타지에 계신 부친을 대신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서 자리를 잡았다. 홍 씨는 77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30대 초반에 이장을 맡았고 201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의선 씨는 어린 시절 연산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대전으로 새벽 열차를 타고 통학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연산역까지 기차 시간에 맞춰 10~15분 정도 뛰어갔다. 학교가 끝나고 열차를 타고 집에 오면 저녁 6시나 6시 30분이었다.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연산역 근처에 잡상인이 십여 명 이상 있었고 다소 거친 사람들이 기차 내에서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팔았다.

홍 씨의 부친은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번에 서울로 사업을 나가기 전까지 석유판매업인 석유소매상을 했다. 제대 후에는 홍 씨가 72년부터 82년까지 부친을 대신해서 석유소매상을 맡았다. 논산에서 마차로 큰 드럼통 세 개에 석유를 사다가 판매했다. 논산에는 주유소가 있었지만, 면 단위에는 주유소가 없고 대신 석유판매소가 있었다. 밤에 석유가 떨어지면 상월면, 부적면, 양촌면에서도 홍 씨의 집으로 사러 왔다.

50년대부터 연산에는 전기가 들어왔으나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곳이 많았다. 당시에는 백등유를 사다가 호롱불을 켰고 취사하기 위해 석유풍로를 사용했다. 70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지붕과 아궁이를 개량해서 19공탄인 연탄이 공급되면서 생활 취사로 사용됐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서 80년대 초까지 석유풍로가 쓰였다. 석유는 비싸고 10~20리를 싣고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만 석유가 난방으로 쓰였다. 대부분 산에서 나무를 했고, 추수가 끝난 후 고춧대나 깻대 등 농작물을 말려서 땠다.

연산장의 개요

연산장은 1911년에 개설된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시장으로 매월 5일과 10일 5일 간격으로 열린다. 연산 장터는 홍의선 씨의 집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 당시 한 마을에 자전거 한 대가 있을 때여서 거의 모든 사람이 걸어서 장에 왔다. 장날이면 2차선 정도의 7미터 폭인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논산, 상월, 부적에서 사람들이 오고 연산은 구

사거리에서 내려왔는데 많을 때는 2000명 정도가 되었다. 장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장소였다. 농민들은 직접 생산한 쌀, 콩, 깨 등을 두 말 정도 갖고 와서 되로 팔았다. 상인들은 농민이 가져온 곡물을 서로 사려했고 그것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거나 때로는 다른 장에 가져가 팔았다. 농민들은 물건을 팔고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샀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은 연산에 와야 살 수 있었다.

연산 지역 사람들과 양촌, 벌곡, 두마의 일부 상인들이 마차에 짐을 꾸려서 연산장에 왔다. 연산에 마차꾼이 다섯 명 정도 있었다. 그들은 연산, 양촌, 전북 운주장까지 마차에 실어 무거운 짐을 날라주며 운임을 받았다. 홍 씨의 친구 한 명이 마차를 10년 정도 끌며 여러 시장을 다녔다고 한다.

장옥과 난전

78~79년에 비가 새고 낮은 장옥을 보수했다. 제재소에서 각목을 사다가 기둥을 만들고 함석지붕을 올렸다. 양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50미터짜리 장옥을 네 동 지었다. 그날 장사하는 사람이 가운데를 천으로 나누면 한 칸에 2평 정도 되는 100여 개의 상점이 만들어졌다. 장옥과 상관없이 곡물만 파는 싸전을 30평 정도 다시 지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싸전은 비만 안 맞을 정도로 벽돌을 찍어서 만들었다. 장옥에는 옷, 옷감(비단), 신발 등 생활필수품이 많았다. 싸전에는 쌀, 콩, 팥 등 여러 곡물이 거래됐다. 상인들은 단골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장날마다 사용하는 장옥을 유지하려고 했다. 본인이 장사를 그만둘 때까지 같은 장소를 고수했다. 장사를 그만두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했고 면이나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

논산군에서 연산1, 2리 이장에게 장옥과 시장을 관리하도록 했다. 군은 이장들과 1년씩 계약하고 상인에게서 받은 임대료로 군에 임대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이장이 운용하게 했다. 77년에 연산1리 이장 홍의선 씨와 연산2리 이장 안석근 씨가 장옥을 관리했다. 고가의 상품을 파는 가게는 사용료를 500원 정도 받고 일반적으로 200~300원을 받았다. 홍 씨와 안 씨는 2~3년 정도 관리를 했다. 바쁜 시간에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 홍 씨는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번영회를 조직해서 관리하게 했다. 번영회가 군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10년 정도 관리했다.

장옥에 들어갈 수 없는 상인들이 길거리나 공터에서 물건을 파는 난전도 있었다. 난전에서 인상적인 것은 라이터 장사였다. 당시 라이터는 기름으로 켰다. 세 명의 라이터 장사가 있었는데 작은 책상 하나를 놓고 안경 등 소소한 물건을 고쳐주기도 했다. 20~30년 정도 라이터를 장사한 분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난전 역시 200원 정도 사용료를 냈다. 당시에 대장간이 세 곳이 있었다. 그때는 거의 모든 농기구를 직접 만들었다. 평소에도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농기구의 거래가 많았지만, 장날에는 특히 더 활발했다. 지금도 대장간 한 곳이 남아 있다. 2010년에 논산시가 되면서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춧돌을 만들고 기둥을 깎아서 장옥을 새로 만들었다. 12칸에 12명의 상인이 쓰고 있는데 밀폐식이어서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다. 이전의 장터는 철거해서 주차장, 백중놀이회관, 화장실 등을 지었다.

우시장의 모습

현재 논산계룡농협 옆에 우시장이 있었다. 시장 입구에 있는 연산묵집이 우시장 자리였다. 연산장과 같은 날에 우시장이 열렸는데 100여 평 남짓의 공간에 소가 50마리 이상이 나왔다. 소를 몰고 돼지를 싣고 10~20여 리를 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일찍 거래가 시작되었다. 소, 돼지, 개, 닭 등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무척 지저분했다.

도축장을 전담한 수의사 전일두 씨가 논산군청 축산과에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우시장의 이전을 건의했다. 군에서 땅을 사서 옛날 시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400평 정도를 사서 우시장을 만들었다. 현재 렉스턴아파트 근처에 대구상회라는 대추 가게 앞이 우시장이었다. 80년대에 이전해서 90년대 초까지 10여 년 우시장이 열렸다. 축협이 대단위 축산시장을 부적에 만들면서 연산리뿐만 아니라 면 단위 우시장이 사라졌다.

우시장과 더불어 도축장이 있었다. 현재 연산제일감리교회 앞에 300평 정도가 도축장이었다. 홍 씨의 집에서 도축장이 300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떠오를 때면 몸서리쳐진다고 한다. 우시장 없어지면서 도축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옛날 건물은 대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서 지금은 창고와 집을 짓고 있다.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어서 재료를 구하기 쉬워서인지 장날에 간이의자를 놓고 순대국밥을 파는 곳이 여럿 있었다. 시장을 정화하고 80년대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상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열악한 시설에서 국밥을 팔던 사람들이 상가를 임대하거나

본인 집에서 장사를 이어갔다. 현재도 성업 중인 할머니순대는 부부가 60년대부터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고 매우 성공했다. 지금은 아들이 승계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연산장의 쇠퇴와 현재

1980년대 이후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인근의 대전광역시가 팽창함에 따라 점차 연산이 활기를 잃으면서 연산시장의 규모와 기능도 함께 축소되었다. 또한 도로가 포장되고 자가용이 늘고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굳이 소규모 장에 와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

다행히 1990년대부터 연산장은 유명한 대추 집산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70년대에 정부가 유실수를 심도록 하자 연산, 벌곡, 양촌, 전북 운주면이 유휴지에 밤, 대추 등을 많이 심었다. 70년대에 이재호 씨가 도로변에 있는 본인의 가게에서 대추장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 씨가 운영하는 한국상회와 다른 한 곳이 더 있었다. 80년대에는 대추, 밤, 등 과일을 취급하는 가게가 열서너 개가 있었고 현재는 7~8곳이 있다.

연산이 대추 집산지로 이름을 얻으면서 2022년에 '대추 축제'가 시작되었다. 연산대추축제는 전국적인 대추 집산지로서 연산대추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면서 기존 연산대추축제에 새로운 '문화적 색채'를 더해 연산대추문화축제로 거듭났다. 대추의 인기 덕분에 연산장은 여전히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 가을에 대추는 물론 감, 고구마 등 각종 먹거리가 풍부하다. 연산장에서 요즘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종과 묘목이다. 모종과 묘목을 파는 가게가 몇 개 있다. 고구마, 배추, 고추 등 각종 채소의 모종이 있고 감, 대추 등의 묘목이 많이 거래된다.

홍의선 씨가 이장을 보던 77년도에 연산에 250~60세대에 1300 이상이 살았다고 한다. 한 집에 7~9명이 거주하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2023년에는 80세대에 130명 정도가 살고 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서 지금은 연금을 받는 노인만 있다고 한다. 홍 씨는 시장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마을이 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의 온기로 침체된 것이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어_ 권선옥>

계룡시

|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계룡시 탄생의 일등공신 470
한마음 한뜻으로 가꿔온 소라실 마을 476
지역 정체성을 살린 미래도시 설계 481
면장님, 면장님, 우리면장님! 486
백지계획(白紙計劃)과 신도백반(新都白盤) 491
특이한 학교, 특별한 학생들 496
선로 마디마디에 새긴 형제애 502
철도는 나의 인생, 두계역은 나의 고향 507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이 덕 재 (1953년생)
계룡시 엄사면 사랑재길

계룡시 탄생의 일등공신



계룡시가 탄생하기까지

1982년 삼군본부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이듬해부터 620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순수했던 농촌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직감했다. 산골오지에서 현대적인 도시로의 탈바꿈에 대한 기대 반, 그리고 혹여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까 걱정 반으로 세상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620사업은 신도안 주민 이주정책과 엄사리와 유동리 일대의 주거 및 상업 시설 확충, 도로 개설 등의 도시 인프라를 설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었다. 이윽고 1989년 육·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였다. 이듬해는 신도안과 두마면을 중심으로 도직할 계룡출장소 두마·남선 지소가 설립되었다. 1993년 해군본부가 이전함으로써 삼군본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명실상부한 국방도시로 불리게 되었다. 논산군은 1996년 논산시로 승격하면서 논산시 두마면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가 2001년 대통령의 특례시 약속을 계기로 두마면은 자치행정의 서막을 열었다. 마침내 2003년 9월 19일 계룡시로 승격되어 도농복합 행정도시의 기능을 갖추었다.

물 흐르듯 순탄하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그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숨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과거 논산군 두마면 시절부터 오늘날 계룡시가 탄생하기까지 갖가지 우여곡절을 목전에서 맞닥뜨린 이덕재 유동1리 이장은 계룡시 탄생 비화(秘話)를 생생히 증언해주었다.

"시작은 (계룡시 승격) 5년 전부터 했었고, 막바지 한 3년 정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죠. 계룡출장소는 시로 가는 길목이었으니까. 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중앙정부, 행자부(구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나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죠. 2000년도에는 그랬죠."

'신도시 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 승격 운동을 시작했다. 농사만 짓던 농부들이 법과 행정절차를 연구하고, 실전에서 좌충우돌 부딪치면서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기세 높다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중히 부탁도 하고, 때로는 생떼를 쓰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소위원회)는 7명의 의원이 법안심사를 하는데, 그 양반들 지역구를 우리가 다 쫓아 댕겼어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다. 강원도, 부산, 경주, 광

주, 인천 7명을 다 쫓아 댕겼어. 싹싹 빌었죠 뭐. 법안심사는 어렵게 통과됐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통과되어야 해.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가 23명인데 거기도 과반의 찬성이 되어야 하잖아?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지역 정서를 잘 아는 대전,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지."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다. 당시 31,000명의 인구로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아무리 삼군본부를 이전하면서 대통령이 시 승격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렵사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의에 상정되었지만, 정부는 계룡시 승격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때 전국에는 동해출장소, 증평출장소, 계룡출장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계룡시보다 1년 앞서 동해출장소는 동해시로, 증평출장소는 증평군이 되었다. 유일하게 남은 계룡출장소는 인구미달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기에 '계룡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 승격에 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단,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말이 쉽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나가야 했다. 결국, '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 시설 등에 관한 법률안'은 159명 출석에 140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덕재 단장을 비롯한 마을의 리더들이 생업은 뒷전에 둔 채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손으로

시로 승격만 하면 저절로 예산이 확보되어 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출장소에서 시로 명칭만 바뀌었지 여전히 논산시 관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껏해야 시청 청사만 덩그러니 자리한 채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하나 없었다. 주민들의 행정소재지는 계룡시로 바뀌었지만,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논산시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620사업과 더불어 도로망 및 상업·주거 지구가 확충되면서 인구는 급격히 유입되었다. 당연히 '계룡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다. 한 고비 넘었다 싶었는데 또 한 고비, 산 너머 산이었다.

이덕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다운 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설립했다.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원 법원등기소, 소방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유치를 목표로 정신없이 발로 뛰었다. 서울에 있는 관계부처를 수없이 드나들며 공공기관 개설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에서 청양군과 계룡시만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청에 가서 인가를 재촉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 분과위원장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계룡시 출범 이후 2년이라는 단기간에 세무서 민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를 유치했고, 3년 전 계룡소방서가 신설되었다. 경찰서는 시청 옆에 부지를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체계적인 구상과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유경험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한 시민일 뿐이었다. 오로지 '애향심(愛鄕心)'하나로 똘똘 뭉쳐서 구태여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했다. 지름길이 아닌 다소 멀리 돌아가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활동비용이나 재원 마련도 녹록치 않았다. 이른바 맨땅에 헤딩하기 식이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오로지 주민들의 손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칭찬이 무색하다.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냈죠. 애향심 때문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들 기꺼이 동참했어요. 도시 하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우리 원주민들이 주로 열심히 했고, 의기투합이 잘 되었죠."

이만하면 어느 정도 시로서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야흐로 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시대가 도래했다. 계룡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두마면에서 엄사리, 유동리, 향한리 인근은 2006년 엄사면으로 분면(分面)되었다. 당시 이덕재 유동1리 이장은 엄사면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다. 농업, 상업,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나갔다.

엄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맨 먼저'주민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진, 댄스, 그림, 글쓰기, 컴퓨터 등 강좌과목을 선정하고, 유능한 강사를 섭외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헬스장도 운영하였다. 처음엔 수강료 없이 무료로 강좌를 운영했는데, 여기저기 등록만 해놓고 출석률이 저조했다. 명목상 1년에 2만원씩 수강료를 받기로 하였다. 물

론 볼멘소리도 잇달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 외에도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을 조직하였다.

자타공인 일등공신

새마을지도자, 유동1리 이장, 신도시 발전협의회 부회장 및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계룡시 의용소방대 대장, 계룡대 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의 화려한 직함이 인정하듯, 지난 20여 년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늘날 계룡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단체를 조직하고 첫 테이프를 끊은 장본인이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단임으로 본분으로 마친 후 현재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후임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유동1리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손이 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다.

"지금은 뿌듯해요. 계룡시가 발전해가는 걸 보면, 아, 나도 일조를 했구나... 아쉬운 점도 있긴 있는데 열심히 했다. 잘했든 못했든 그냥 지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이 동네를 위해서 그래도 욕먹지 않고 할만치 했다. 훌륭하단 소리는 못 들을망정 나쁜 놈 소리는 안 듣고 살았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제 욕심만 채우면 동네가 시끄러워지잖아요."

뭐든지 시작은 어렵다. 어려운 일에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움닫기에 나선 역군들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는 조금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작한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잘 이어받아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올해 계룡시 출범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덕재 이장은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민간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온 집안을 장식한 무수한 공로패와 표창장이 그의 노고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걸어온 삶을 초연하게 되짚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계룡시가 더욱 발전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잘 사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인터뷰어_ 김조연>



〈한국타임즈 2012.09.10.〉
공공기관유치 시민 서명운동



열정과 헌신의 증거
명패와 공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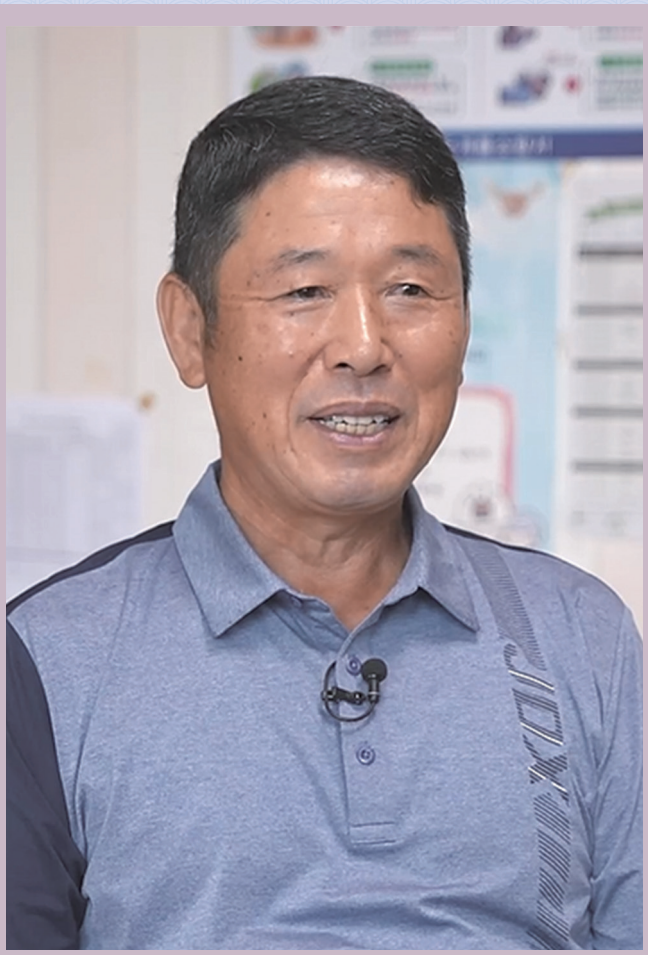


〈충청메시지 2023.09.19.〉
개청20주년기념식 민간부문 표창
(왼쪽에서 세 번째 이덕재)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송 인 석 (1958년생)
계룡시 엄사면 소라실

한마음 한뜻으로 가꿔온 소라실 마을



어여쁜 소라실 마을

유동리는 과거 논산군 두마면에서 계룡시 엄사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나마 옛 모습을 보존한 마을이다. 유동1리는 사랑재, 버들골, 배나무골, 여담 4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2리는 마을 모양이 소라를 닮았다 하여 소라실 마을로 불렸다. 야트막한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양지바른 언덕 위에 옹기종기 자리한 집터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동네이다. 3·4리는 원통골이라 불리는 공동묘지였고, 5리는 임야지대로 옛날에는 고사리가 지천으로 깔려있다 하여 고사리바탕이라 불렸다. 현재, 1·2리 한복판에는 4차선 국도가 포장되어 오고가기가 쉽지 않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신도시 개발붐으로 3리에는 대동황토방아파트 632세대, 5리에는 블루힐스아파트 304세대가 생활하고 있다.

유동2리는 작고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 호남선 복선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50가구 육박했으나 점점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 한때는 22가구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서 소라실 마을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 40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도시로 나갔다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옛집을 고쳐서 살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쁘게 새집을 지어 살고 있다. 마을은 신구세대가 잘 융화하면서 차근차근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면 떡을 해서 집집마다 나눠먹었어요.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 계시는 집에서는 동네사람들 다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했어요. 또, 향우회를 만들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객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설·추석 명절 때 한 번씩 모여 산신제를 지내면서 연대감을 조성했죠."

그러나 유동2일 송인석 이장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 큰돈벌이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농토는 점점 줄어들어 소농으로 변했고,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틈날 때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식이었다. 계룡시로 승격하면서 도로망이나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언뜻 보기엔 삶의 질이 나아진 듯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기자기한 시골마을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서로 돕는 미풍양속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동2리는 전통마을의 형태와 도시형 기반시설이 공존한다. 예전에 축사로 쓰였던 넓은 땅은 도시형 편의시설인 계룡 문화예술의전당과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다. 2020년 9월에는 계룡소방서가 둥지를 틀면서 유동리 마을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줄 거란 믿음 때문에 더없이 안심하고 있다.

젊은 일꾼의 힘찬 도전

유동2리 송인석 이장은 소라실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리고 젊었을 때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업무를 보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거나 주민의 편의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공사와 영농조합 설립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는 차분한 성격만큼이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꼼꼼하고 착실하게 활동범위를 넓혀왔다.

소라실 마을길은 산비탈에 자리한 데다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해서 예전에는 우마차 정도만 간신히 다닐 수 있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도로 일부를 겨우 포장해놓았을 때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폭이 넓지는 않았다.

"제가 20대 때 새마을지도자를 맡았어요. 주로 도로 포장사업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죠. 그때만 해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1년에 몇 미터씩 이어나갔어요. 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실어다가 삽으로 버무려가며 길을 깔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레미콘으로 혼합한 것처럼 잘 섞이지 않아서 겨울이면 부풀어서 부서지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추수가 끝난 이른 봄이나 늦가을이면 각 가구마다 한두 명씩 나와서 공사에 참여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다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단합이 잘 되었다. 게다가 도로 폭을 넓히다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 논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기꺼이 땅을 조금씩 내놓았다. 하지만 620사업으로 인해 8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은 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며 야박하게 구는 주민도 있었다. 모두를 위해 조금은 양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송 이장은 어지간히 마음고생을 했다.

공공예산을 따내는 일도 쉽지 않았다. 열악한 예산으로 큰 공사를 진행하려면 혁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마을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일부는 마을 조성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고

심한 끝에 영농조합을 설립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면 그만큼 규모도 커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저마다의 손익을 따지다보니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젊은 나이에 이장을 맡은 송인석은 정겨운 옛 모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더불어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도 힘썼다. 선대 이장은 계룡시에서 제일 먼저 비닐하우스 농법을 도입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송 이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동네를 둘러싼 야산에는 대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대나무는 번식력이 뛰어나 온 산을 덮었다. 요즘처럼 대형 파이프로 뼈대를 세우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깎아 살을 구부려 뼈대를 만들었다. 끈도 귀하다보니 볏짚으로 묶어서 둥글게 터널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비닐을 덮는 원초적인 방식으로 딸기농사를 시작했다. 산주인은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대나무를 베어가도록 허락해주던 시절이었다. 대나무를 깎고 마름질하는 공정은 마을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로 공동작업을 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서로 돕던 인심 좋고 정겨운 소라실 마을이 가끔은 그리워진다며 송 이장은 아쉬운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동네 초입에는 소 등에다 덮어주는 덕석처럼 생겼다 하여'덕석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그 옆으로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여전히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예전에는 그 물을 길어다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화합의 상징이 된 이·통장연합회

송인석 이장은 마을 일 외에 대외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운동 중에는 세무서 유치 분과위원장을 맡아 가장 먼저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 2017년부터 이·통장연합회 계룡시지회장에 임명되어 투철한 사명의식과 근면함으로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계룡시 87개 동리 이통장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행정기관에서는 이통장을 준공무원으로 지칭하면서 민원업무를 분담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단체로 구분되어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제약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장들은 봉사정신을 앞세워 서로를 독려하면서 주민화합과 행정업무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열어 사업성과 보고 및 계획안을 발표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범회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체육대회를 주최하여 회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인터뷰를 말미에 송 이장은 지난날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토닥였다.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래도 보이지 않게... 내가 한 건 별로 없지만, 서로 힘 합쳐서 성과가 나타나고, 시민들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리해지면 그래도 내가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룡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며, 계룡시 역사로 기록되는 구술채록사업에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소망은 농업 분야도 제몫을 할 수 있도록 계룡시에서 좀 더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을 실시하여 계룡시 농산품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계룡시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어_ 김조연>



유동2리 소라실마을 전경(1997)



원통골 입구



이·통장연합회 계룡시지회장 취임
〈중도일보 2017.02.12.〉

강 호 성 (1957년생)
계룡시 엄사중앙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미래도시 설계



계룡시 준비위원단

각계각층에서 '계룡특례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4년여의 세월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왔다. 200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 등에 관한 법률안' 은 159명 출석에 140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계룡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 2003년 9월 19일 '계룡시' 개청을 선언했다. 그리고 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지방자치의 역할과 행정업무를 수행을 위해 지역 연고자를 비롯한 충청남도 각 지역에서 약 50여 명의 공무원이 계룡시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예전 공무원들은 산골오지인 논산군 두마면사무소로 발령받으면 '좌천'되었다고 실망했지만, 계룡출장소가 되면서부터는 '영전'했다며 기쁨이 차올랐다.

강호성은 논산시에서 22년간 근무하고, 2002년 계룡시 승격을 앞두고 계룡출장소로 발령을 받았다. 2003년 계룡시 승격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시정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계룡시 준비위원단'을 발족했다. 호적, 건설, 세무 등 각 분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새로운 미래도시 설계에 착수했다. 각종 공부(公簿) 정리 작업과 사업관련 인수인계에만도 몇 달이 걸리는 만만치 않은 업무량이 주어졌다. 매일매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한편, 타 지역에서 차출된 공무원들은 단기간에 지역 정서와 특색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적잖은 혼선이 야기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시대 초대 시의회를 구성하는 일 또한 시로서 자격을 갖추는 한 가지 요건이었다. 2003년에 계룡시로 출범할 당시에는 과거 논산시 소속 시의원인 최홍묵 의원 1명뿐이었어요. 시의회 의원 정족수는 최소 7명으로, 2003년 10월 30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최홍묵 의원은 사직을 하고 시장에 출마해서 초대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계룡시의 첫 시의원 선거에서 시의원 7명을 뽑는데 32명이 입후보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강호성은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를 회상하며 웃지 못 할 사연을 털어놓았다.

"엄청 많은 거죠. 시장 입후보자 6명을 더해서 총 38명이 출마했어요. 시의원 후보가 한꺼번에 32명이 나오니까 투표용지만 해도 58.5cm로 그렇게 길었어요. 그때 대략 500표 정도만 얻으면 시의원이 됐었죠. 시의원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득표한 후보는 약 600표, 좀 적게 얻은 후보는 465표 정도였어요.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었죠."

담당공무원으로서도 황당한 경험이었다. 인근 논산에서는 1~2만 표를 얻어야 시의원에 당선되는 데 반해, 인구 3만 도시에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표만 얻어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네마다 앞다투어 후보자를 냈다. 단, 유권자 절반은 새로 전입한 군인 세대이고, 또 절반은 한 동네 사람들이다보니 약간의 안면만 있어도 인지상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다행히 선거는 부정이나 비리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최다 득표 또는 최저 득표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었다.

미래도시를 디자인하다

그즈음 시장과 시의원, 소속 공무원까지 하드웨어적인 행정체계는 웬만큼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는 '계룡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의한 도시기반 설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강호성은 선거구 획정 업무를 별다른 잡음 없이 무사히 완수하고, 계룡시 CI(City Identity=도시 정체성) 디자인 업무에 관여하였다. 학문적 고증에 의한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 새로 탄생한 도시의 독창성 등을 두루 고려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야 했다. 계룡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과정은 각계각층 인사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했다.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시안을 두고, 자문단 내에서는 역사성이냐 예술성이냐를 따지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일 내로 확정지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해냈다.

앞서 계룡출장소라는 이름이 있었고, 삼군본부 계룡대와 대한민국 명산 계룡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시'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견이 없었다. 우선, 순탄하게 흐르는 물결 모양의 계룡시 로고를 상표등록하고, 용(龍)을 형상화해서 계룡시청 정문을 디자인했다. 시조(市鳥)는 계룡산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새, 팔색조로 정했다. 시목(市木)은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로 올곧은 기개를 의미하는 소나무로 정했다. 계룡시의 마스코트는 용도령이 선정되었다. "계룡산이니까 용을 마스코트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 전통의 꼬마 도령들처럼 용도령이 좋겠다. 귀여운 한복도 입히고, 꼬리도 조금 달고 해서 재밌게 표현을 했죠."

강호성은 계룡시 개청 당시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도시 설계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극복

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계룡시의 초석을 바로세운 장본인임에 틀림없다. 1년 동안 계룡시 준비위원단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후 계룡시청에서 감사계장, 의회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엄사면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현재의 계룡시를 바라보면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100% 만족스러울 리는 없다. 자신의 친구이자 향토사학자 권태영 은 문화재 발굴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계룡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후세에 전해줄 얘기가 많았을 텐데, 좋은 시절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작고했다. 엄사면장 시절에 대한 회한도 주저 없이 밝혔다. 단기간에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던 엄사면은 미개발지에 신규주택 및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건립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나 효율성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또한 크다.

조용히 성장하는 도시 계룡시

계룡시는 계획도시인 만큼 첨단공법으로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비했다. 전기통신망은 땅속에 매설해서 도시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했고,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가로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 인구유입의 본격화를 예측하여 인접 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였다. 대용량 하수·오수 집중처리장치를 설비해서 개인이 아닌 관(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여느 도시에 견줄 바 없는 청정도시로 평판이 나있다. 더욱이 다른 도시는 인구과밀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계룡시는 적정인구를 유지하여 농업·상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고 있다.

조화로운 전원도시 계룡시는 차근차근 제 모양새를 갖춰 어느덧 개청 20주년을 맞이했다. 계획도시로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대부분 배제해온 계룡시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오래된 도시는 성장과 변모를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나 간절한 호소가 빗발치는데 비해 계룡시는 걸림돌 없이 순항을 이어오고 있다.

예부터 도읍예정지로 점찍어둔 이유가 분명 있었는지, 계룡시는 지금까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풍수해도 없었다.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에 동원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허다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업무 비중이 가벼운 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여유롭게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꾀하는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계룡시다. 강호성은 공무원들이 그 여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했다.

"계룡시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올망졸망한 산이 즐비하고, 아기자기한 둘레길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계룡시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가서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 계룡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사뭇 기대된다.

<인터뷰어_ 김조연>



계룡시의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003.10.30)



계룡시의 새 팔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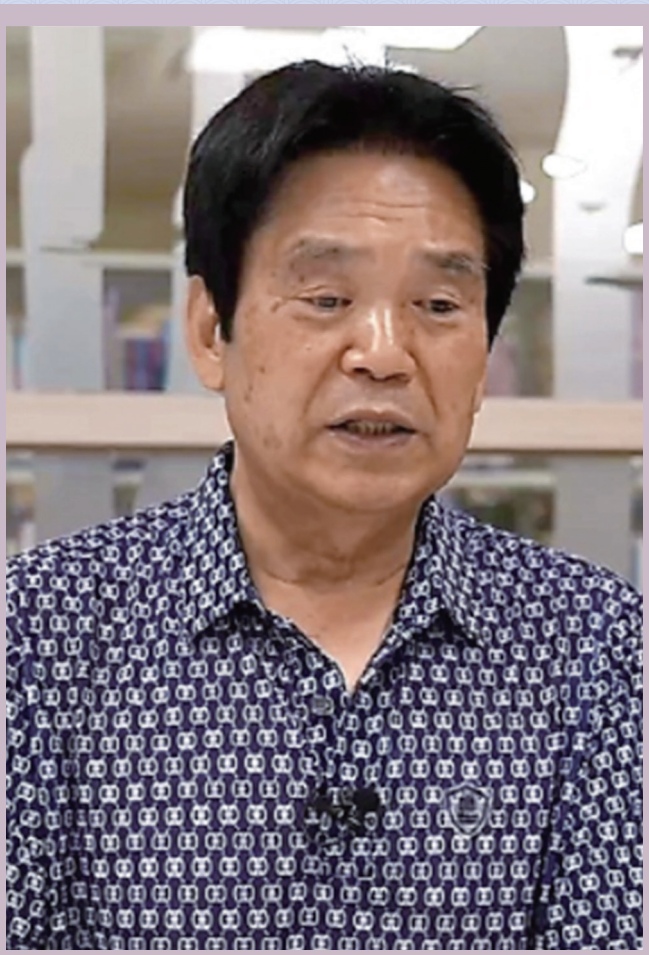


계룡시 마스코트 용도령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안 교 도 (1955년생)
계룡시 장안1길

면장님, 면장님, 우리 면장님!



신도안(新都案), 이름을 되찾다.

28년간 충남 도청 공무원으로 일해온 안교도는 계룡시 개청 소식을 듣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각오을 다지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곧바로 2005년 2월 계룡시 남선면장으로 취임했다. 1983년 620사업 당시,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와 신도안 지역이 합쳐진 남선면은 현재 신도안면의 옛 이름이다.

계룡산 신도안은 국도풍수도참의 탁월성을 감안하여『정감록』에서 조선왕조가 끝난 후 새로운 도읍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지역이다. 1393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모색하다가 계룡산 일대를 둘러본 후, 신도안에 새로운 도읍 건설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경기좌우도관찰사 하륜의 반대상소로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궁궐공사에 쓰였던 주초석이 남아있어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2003년 9월 계룡시가 개청하면서 남선면으로 통합된 부남리, 석계리, 장정리 등 신도안 지역의 유식자와 '신도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몹시도 안타까워했다. 주민들 또한 제 이름을 되찾아야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의 후손인 한상병 광복회 회장은 몇 번이나 면사무소를 찾아와 안교도 면장에게 행정명칭 변경을 건의했다.

언뜻 생각하기엔 이름 하나 바꾸는 간단한 일 같지만, 조례 지정을 비롯하여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수정만 해도 대대적인 인력이 필요했다. 주민등록표 및 토지대장 등 76종의 공부(公簿)를 일일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일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남선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여기가 왜 남선면이냐? 두마면 신도안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남선면 하니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남선면은 몰라요. 어쨌건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전국 지명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일단은 명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안 면장은 시청 총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면장 시절에 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2007년'남선면 명칭변경 추진 기본계획'을 제안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각 언론사에 홍보자료 배포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2009년 4월 명칭 변경조례 개정을 공포하고, 5월 20일에 남선면에

서 신도안면으로 변경함으로써 드디어 '신도안(新都案)'은 25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면장실은 행정의 모세혈관

유동리에서 태어난 안 면장은 유독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더욱이 지역 전통을 중시하여 어른 공경과 가족의 화합을 으뜸으로 삼는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근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남선면 면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원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새로 이주해온 군인가족이 주민의 대다수였다. 면장으로서 이들이 잠시를 머물더라도 고향처럼 정을 느끼고, 편안하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이었다.

"어떻게 보면 면장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모세혈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의 제일 기초단위가 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면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면장실을 '주민대화방'으로 고쳐서 열린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면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면장이라는 호칭이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있고, 더 반갑고 그러지. 정말이에요."

당시 남선면 인구는 8,375명으로 거의 100% 군인가족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남선면은 남성이 모두 현역군인이었기 때문에 마을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은 100% 여성이었다. 두마면이나 엄사면은 농촌지역이므로 농사 지원업무가 많았지만, 전답이 없는 남선면은 주민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면장 취임 후,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2005년 4월에 나주시 이창동과, 7월에는 태안군 근흥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매년 2회씩 서로 왕래하면서 민간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상생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때는 명절선물로 나주 배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나주시로부터 8톤 트럭 한 대분의 나주 배를 구매했다. 태안군은 해안지역으로 소금과 수산물이 유명하다. 1년간 품질 좋은 소금 600포와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애초에 면장의 권위의식은 내려놓았기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체 선정 및 수송까지 직접 나섰다. 계룡 군문화축제 때는 반대로 나주와 태안 주민들을 초대해서 1박2일 동안 계룡시에 머무르게 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양계지역 주민들이 축제 관람 및 계룡

산 등산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의를 다졌다.

흔히 노년세대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4고(四苦)에 시달리고 있다. 어른 공경과 경로복지에 특별히 주목했던 안 면장은 부임하자마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선면 큰효실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사회까지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솔선수범하였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처음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안 면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어르신들은 여기가 본인의 고향도 아니고, 자녀분을 따라왔으니 많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잔칫날 면장실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울먹거리시면서 '면장님, 경로잔치에 가고 싶은데요. 아파트 4층인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군인사택인 5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그랬죠. 연세가 제일 많으신 그분을 업고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제 등에 업혀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또 효도관광을 다녀와서는 박수를 치고요. 아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나았어요."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끝마친 후, 연이어 효도관광을 추진했다.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혹여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귀가해서 병이라도 날까, 주위에서는 만류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밝고 건강해진 모습을 본 안 면장은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에 찼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피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경로당 순회를 빼놓지 않았다. 자기자랑 같아 부끄럽고 민망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면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서 부모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정이 많다. 이런 현상에 착안한 안 면장은 '부모와 자녀들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르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자매결연도시 태안군의 협조를 얻어, 관내 초중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바다캠프'를 운영했다. 단돈 십 원의 예산도 없이 그를 지지하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행사를 무사히 치러냈다. 예상했던 대로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은 모두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면장님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민의 공복(公僕), 프로 공무원 시대

그야말로 대민 지원업무나 민원서류 발급만 하는 면사무소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공무원상을 그는 강조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강력한 추진력, 뜨거운 열정,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공무원도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고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실, 공직자는 시민들의 '공복(公僕)'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보람을 느낀다는 건 결국 내가 베풀면서 또 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그게 보람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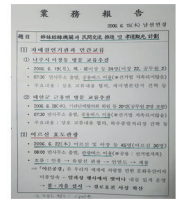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주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원리원칙을 따져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한 배려야말로 공무원의 참모습이 아닐까?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인본행정(人本行政)의 출발이고 궁극의 목적이다.

사회간접자본에만 의존한 현실안주형 행정과 과거의 고질적인 병폐나 시민을 도외시하는 행정은 반드시 쇄신해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공무원, 바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프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안교도 선배의 진심어린 조언에 공무원 후배들이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인터뷰어_ 김조연>



남선면에서 신도안면으로 변경
(2009년 5월 20일)


業 務 報 告

안교도 면장의 업무보고



주민복지와 행정혁신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김 정 수 (1947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백지계획(白紙計劃)과 신도백반(新都白盤)



백지계획, 새서울을 꿈꾸다.

'행정수도 건설 방법은 먼저 백지(白紙)계획부터 수립한다.' 백지계획(白紙計劃)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및 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던 계획이었으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런 서거로 무산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씻고 한창 발전가도를 달리던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 과밀화로 주거부족, 교통체증,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한편,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발표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연일 신문 1면은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관련기사로 도배되었다. 후보지로는 휴전선에서 70km,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80~200km 범위 이내이며 (남한)국토의 중심점과 근접한 충청남도 천원군(현 천안시), 연기군, 논산군으로 압축되었다.

"저는 1974년도에 충남도청 소속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백지계획을 발표한 후로는 대통령께서 한 달에 두 번씩 충남도청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도안에 불법건물을 철거할 때 감(感)으로 알았죠. 그 당시에 소문이 막 났었지. 아 여기 신도안을 드디어 청와대로 만들려고 하는가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께서 특정지역을 자주 올 리도 없고..."

그 무렵, 도지사 수행비서로서 충남도청에서 일하고 있었던 김정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자신의 고향땅이 행정수도가 되고, 대통령이 온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620사업이 본격화되자, 신도안 지역이 새 도읍이 된다는 예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바로 이곳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서울처럼 되는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 그 자체였다. 그는 정부 실무기획단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다. 하지만 도지사 수행비서로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조차도.

620사업은 신도안 약 1,210만 평, 그리고 자운대가 있는 대덕구 탄동면 숯골 74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신도안에 삼군본부를 이전하고, 자운대에 한미연합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 반석동에 국가정보원 대전지부가 있는데,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본부 부지로 100만 평을 확보해둔 상황이었다.

당시 이주민 보상대책 책정된 보상액이 신도안 600억, 자운대 400억, 합계 1,000억 예산이 편성되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620사업소장으로 이태호 서기관과 국방부 조성록 장군, 충청남도 최인기 부지사가 관장했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로 보고하는 체계였다.

신도안을 떠나는 사람들

계룡산 신도안 돌이 하얗게 변하면 도읍지가 된다는 '신도백반(新都白盤)', 이상향을 꿈꾸며 전국각지에서 신도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게다가 237개 종파의 종교시설이 똬리를 튼 곳이 바로 신도안이다.

77년 백지계획 발표 이후, 신도안을 점거하고 있던 무허가 종교시설은 1~2년 사이에 강제퇴거가 진행되었고, 예외적으로 이전보상금을 지급하여 철수를 명령하였다. 1983년 620사업 시행 이전에 웬만한 종교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 주민들은 적지 않은 보상금을 손에 쥐고선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만 했다. 낯선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다는 섭섭함보다는 오히려 들뜬 기분으로 이삿짐을 꾸렸다.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양보하고, 근처 어딘가에 가서 살면 곧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 많은 주민이 같은 날 동시에 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여에 걸쳐 날마다 이사 행렬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983년이면, 이 지역도 이제 막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피난 가는 행렬하고 똑같았어. 보따리를 이고, 달구지에다 싣고, 리어카를 끌고, 그런 식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주민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잘 아는 익숙한 곳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620사업에 착수할 즈음, 김정수는 충남도청에서 이주민 보상대책과 계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의 지휘 하에 각 시군에서 차출된 60여 명의 직원이 보상업무를 수행했다. 2천만 평이 넘는 방대한 토지와 1,000억이라는 돈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막대한 자본력의 끝판왕이었다. 토지를 제외하고도 보상 대상은 수백 가지가 넘었다. 심지어 집집마다 숟가락 한 자루에서 나무 한 그루까지 별의별 게 다 있었다. 40여 명이 밤낮으로 주판알 튕겨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다. 그 시절엔 컴퓨터는 고사하고 변변한 전자계산기조차 없었다. 오로지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돈이 오가는

민감한 사안이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뒤탈이 날 게 뻔했다.

직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새벽 2~3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피로는 계속 누적되어갔다. 그때는 근로조건도 확립되지 않을뿐더러 초과업무 수당도 전혀 없어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해줄 수 있는 위로라곤 직원들이 밥심으로나마 버틸 수 있도록 끼니라도 든든히 챙겨주는 일뿐이었다. 요즘 들어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직원들을 만날 때면, 도청 옆 자유대반점에서 제일 비싼 메뉴였던 잡탕밥을 먹었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며 추억담을 나누기도 한다.

고향을 지키기 위한 노력

백지계획이니 신도백반이니 하면서 지금의 계룡시가 있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전개되었다. 그 북새통 속에서 김정수는 굳건하게 직무수행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광산김씨 자손으로서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들의 기색도 살펴드려야 했다. 수도 이전계획이 발표된 순간, 자칫하면 고향 왕대리에 있는 의정공 김국광 할아버지의 묘소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둘러 광산김씨 묘역과 재실 모원재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부모로서 출세한 아들이 이참에 고향마을을 위해 번듯한 공적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당연한 욕심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공직에 있다 보니 드러내놓고 자기 고향의 편익만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애향심이 부족해서는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고심 끝에, 대전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내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전에서 향한리까지 확대개편 하였다. 계룡시는 대전과 일일생활권이었지만, 대전에서 신도안까지 하루에 겨우 버스 몇 대만 운행하고, 시외버스를 타려면 양정까지 가야해서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근무지까지 찾아와 어렵사리 부탁한 일을 냉정하게 뿌리치지 않고 작게나마 배려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 한 일이라 자부한다.

현재 김광수는 공직 은퇴 후, 8대가 30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집터에 새로 집을 짓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그동안 계룡시는 그의 바람대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이 편리해져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문화예술, 공공기관, 상업지구 등 도시 기반시설이 순조롭게 구성되어 더욱더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게 그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온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화려한 시절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원동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김정수는 당부했다.

"제 성격이 그래요. 바지선이 구겨져도 안 되고, 구두에 때가 묻어도 안 되고, 머리가 흐트러져도 안 되고. 그게 내 일상의 하나의 조감도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때도 내 본연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많이 노력하고..."

이 말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40여년 공직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왔다는 걸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의 고백이다.

<인터뷰어_ 김조연>



행정수도 이전 백지계획
출처: 세종시청



신도안 옛 사진
출처: 계룡시청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제308호
1989년4월20일 지정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강 진 학 (1952년생)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특이한 학교, 특별한 학생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고

용남초등학교는 1989년 9월 7일 개교했다. 삼군본부가 이전과 더불어 군인가족들이 이주해옴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설립되었다. 신도안 원주민은 그 무렵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신도초등학교 역시 폐교된 상태였다. 한때 신도초등학교의 복교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재학생 모두가 군인 자녀들로 구성된 특수한 학교였기에 용남중학교 바로 옆에 새로운 이름으로 개교한 것이다. 1990년, 옛 남선초등학교 부지에 용남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군인 가족은 전출입이 빈번하여 용남초등학교에는 늘 들고나는 전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군인 자녀들만 다니다보니까 전·퇴학이 많아서 선생님 두세 분에게 전퇴를 담당하는 업무를 따로 배정했죠. 아침에 전학을 오면 오후쯤엔 다 친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요. 군인들은 서울을 비롯해서 계룡대 또 어디어디 거치는 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저기 가서 만나고. 자주 있는 일이다보니 애들이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또한, 용남초등학교만의 특이한 풍경이 있다. 군에서 진급 발표가 있는 날이면, 학교 공중전화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지금처럼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승진 발표를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서 쉬는 시간이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줄을 그냥 10m 20m 쭉 서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야~ 우리 아빠 승진했다!'며 막 좋아하고, 아버지가 승진을 못해서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승진하실 테지...'위로를 했죠. 그게 참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독특한 장면이었어요."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용남초 아이들은 다른 학교의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아마도 강인한 아버지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출전하면 언제나 1등은 용남초의 몫이었다. 용남초를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조회시간에 줄을 세워놓으면, 덩치가 큰 아이 때문에 왜소한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낯이 익지 않은 전학생을 만날 때는 '설마 중학생이 잘못 온 건 아니겠지?'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

학교생활 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교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거의 없었다. 가정환경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제아도 없었고, 생활수준도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두뇌가 명석하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들의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편하게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복에 겨운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약간은 무미건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게다가 신학기 3월에 40명의 학생을 맡았다면 2학기 11월쯤에는 전학생이 절반을 차지했다. 용남초에서는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 맞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애정을 쏟은 학생도 별로 없었다.

아이들도 금방 전학을 왔어도 처음부터 함께 생활해온 것처럼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활발하고 명랑하게 잘 어울렸다. 헤어질 때도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만날 테니까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고, 쿨~하게 인사를 나눴다. 한편으론 아이들에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6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추억을 쌓을 겨를이 없다는 게 못내 아쉬웠다.

학생이 중심인 학교

군인가족 전입과 더불어 엄사리에 상업지구가 형성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래서 용남초등학교 한 곳으로는 늘어나는 학생수를 전부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등하교 거리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95년 엄사초등학교가 전체 12학급, 전교생 469명으로 개교했다. 당시, 거주지를 토대로 학구조정이 이루어져 용남초등학교에서 약 350명의 학생을 엄사초등학교로 분리시켰다. 또 두마초에서 일부 학생이 편입되었고, 폐교를 맞은 도곡초 학생들도 더해졌다.

엄사초는 개교 7~8년 사이에 52학급으로 늘어났고, 재학생 수는 약 2,300명에 달했다. 학급당 인원수도 다른 학교보다 많은 과밀학급이었고, 교실도 턱없이 부족했다. 임시방편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일 수가 없어 학년별로 나누어 3일에 걸쳐 운동회를 개최해야 했다. 급식실도 포화상태라 학년별로 시간차를 두고 점심을 먹었다. 1학년은 10시 50분이면 점심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밥을 먹어야 했다. 결국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여름방학을 연장해서 부랴부랴 급식실 확장공사를 완공했다.

2004년 9월, 근처에 신도초등학교가 복교하면서 학생 일부를 분산시켰다.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해의 엄사초는 전교생 1,730명으로 학급당 인원수도 줄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재정비되었다.

강진학 선생님은 2005년도에 엄사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여자 배구부를 창단하고, 5년간 감독을 맡았다. 계룡시는 창단 기금 5천만 원을 쾌척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엔 선수육성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취미생활 클럽활동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충남도 학교별 대항전에 나가 우승한 적도 했다. 그러다가 2017년 충남도민체전 초등부 배구시합에 계룡시 대표로 출전해서 첫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용남초와 달리 엄사초는 학부모의 직업도 다양하고, 가정형편도 천차만별이다. 학생들도 여느 학교처럼 개성이 뚜렷하거나 때로는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학생도 있었다. 하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을 배회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강 선생님은 아침에 교문 앞에서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눈을 살핀다고 했다. 눈을 보면, 이 아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 알 수 있다.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학교생활이 즐거운 아이는 눈빛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발걸음이 가볍다.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아이는 잘 다독여서 학교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평소의 지론을 밝혔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에요. 학생을 향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해요. 교실을 짓는 것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교장 교감은 물론 행정실 직원은 선생님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을 향상시키는 바로미터에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걔들이 커서 잘되고 못되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득세를 하다보면, 선생님들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강진학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학생이 중심인 학교'라고 힘주어 말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학교

계룡시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어엿한 도시로 발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학교가 설립

되고, 학생 수도 점점 늘어났다. 반면에 소리 없이 사라진 학교도 있다. 이제는 그 이름마저 기억이 가물가물한 계명중학교와 동광재건학교이다. 강 선생님은 정식 교사로 발령받기 전 6개월 정도 근무했던 동광재건학교와 두마면에서는 유일한 중학교이자 신도안에 있었던 자신의 모교인사립 계명중학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계명(鷄鳴)중학교는 새벽에 닭이 울면 만물이 깨어나듯 세상을 깨우는 인재육성의 뜻을 담고 있다. 당시 신도국민학교 뒤에 있는 불사(佛舍) 두 채를 개조해 1954년 문교부 인가를 받은 사립 중학교로 시골마을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교했다. 당시 두마면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개는 논산에 있는 연산중학교나 원정리에 있는 기성중학교로 진학했다. 입학시험 제도가 있던 시절이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전에 있는 중학교로도 진학했다. 계명중학교는 객지로 나갈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다.

"옛날엔 중학교 시험을 봤잖아요? 합격하면 대전에 있는 중학교를 갔죠. 신도안은 두계 사는 애들이 오기엔 거리가 멀잖아요? 걷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다 계명중학교로 왔죠. 저쪽 향한리에 있던 도곡초등학교 애들, 심지어 동학사 학봉리 사는 애들도 이곳으로 다녔어요."

전교생 180명으로 출발한 작은 학교였지만, 최고로 많을 때는 학생 수가 300명 정도에 이르렀다. 1983년 620사업 시행으로 군부대에 자리를 내어준 계명중학교는 29회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했다. 고향마을 풍경을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을 가리키던 강 선생님은 어린 시절 공부하고 뛰어놀던 학교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향땅 석계리는 더 이상 가볼 수조차 없는 머나먼 곳이 되어버렸다.

1971년 두마면 유동리에는 김선문 선생이 설립한 동광재건학교라는 곳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이 중등교육과정과 기술교육을 받는 비인가 학교였다. 농사를 짓다가 온 아이들도 있었고, 가난해서 학비가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찾아온 곳이다. 두마면 뿐만 아니라 논산 일대 또는 공주, 청양 등지에서 온 2~300명의 학생들이 근로와 학업을 병행했다. 비록 일반 학교와는 분위기도 다르고 가르치는 교과목도 차이가 났지만, 교복을 차려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했다.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부여해야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남다른 철학에 감명 받은 분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그때는 교장선생님의 사위가 대전에서 과자회사를 운영했는데, 학생들에게 소일거리로 과자 포장작업을 시키며 적게나마 월급을 지급했다.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3~4명이 함께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역시나 620사업으로 유동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동광재건학교는 엄사리로 잠시 자리를 옮겨가는 듯 했으나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터뷰어_ 김조연>



용남초등학교 전경



엄사초 개교 10주년 기념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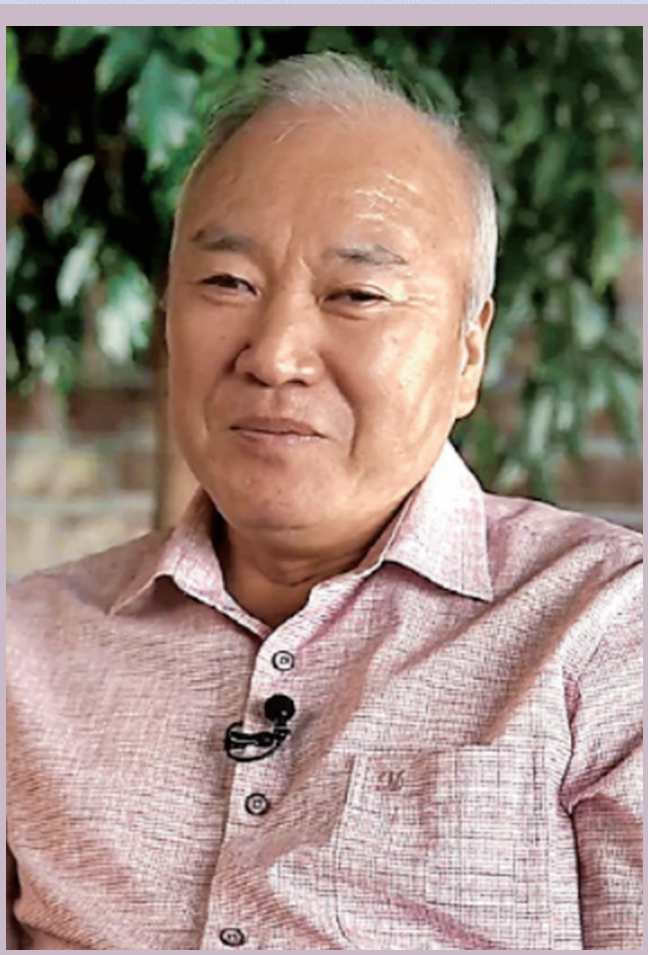


신도안 계명중학교 옛 모습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김 성 중 (1958년생)
계룡시 엄사면 향한번영8길

선로 마디마디에 새긴 형제애



무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며

1990년 7월, 33살의 나이로 뒤늦게 천직을 찾아 28년간 근무한 철도청(現 코레일) 시설국(現 시설장비사무소) 직원 김성중. 입사 1년 6개월 후, 199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근무지를 두계역으로 옮겨 10여 년간 근무했다. 그때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고된 육체노동을 하던 동료들은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쳐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요즘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사람의 힘보다는 대부분 기계화로 선로 보수를 비롯한 모든 설비를 하고 있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무조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했어요. 그 뭐...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 힘든데요. 특히 철도 시설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겨울엔 혹한에, 또 여름엔 혹서에 노출돼요. 철길 위는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더워요. 정말 이글이글한다고 할까? 굉장히 극한직업이에요. 중노동인데다 위험하기도 한데, 오롯이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마땅한 장비도 없어 오로지 삽이나 곡괭이로 땅과 자갈을 고르고, 침목을 깔고, 개못을 두드려 선로를 정비했다. 칼바람이 불고, 살을 에는 추위에도 변변한 방한복도 입지 않은 채 철길 위를 걸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철저하게 점검했다. 뜨거운 땡볕아래서도 안전모나 보호장구도 없이 달랑 밀짚모자 하나 눌러쓰고 불볕더위를 견뎠다. 울퉁불퉁 구불구불해진 선로를 육중한 해머로 내리치면서 몇 시간씩 작업하느라 온몸이 구슬땀으로 뒤범벅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철길에 포클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 손으로 맨땅에 자갈을 깔고, 침목과 레일을 들어 옮겼다. 이른바 인력보수(人力補修)라 일컬었다. 오래되거나 부서진 침목을 교체하고,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나사는 조이거나 갈아 끼웠다. 또, 철길 부근에 나무나 풀이 무성하면 낫으로 베어냈다. 처음엔 반듯반듯하게 선로를 놓지만, 날씨나 기후에 따라 들뜨거나 휘어진다. 게다가 땅이 꺼지거나 자갈이 유실되어 선로가 변형되면, 그 위를 달리는 기차가 탈선해서 엄청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잠시 한눈팔 새도 없이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다.

선로보수 작업은 두 가지로 나뉜다. 열차가 다니지 않는 사이사이 철길에 올라가서 하는 상례작업(常例作業)과 열차를 못 다니게 막아놓고 하는 차단작업(遮斷作業)이 있다. 레일은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자주 발생한다. 겨울에는 레일이 수축되어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무턱대고 당기다가는 한계점에 다다른 쇠가 끊어진다. 또 선로 자체나 침목은 용수철처럼 반동이 있어야 하는데,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위험하거니와 승객들도 불편을 느낀다.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불면,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서 퇴근은 어림도 없었다.

끈끈한 형제애로 뭉친 나의 동료들

요즘 새로 부설하는 고속철도는 침목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깔고, 그 위에 레일을 올려놓는 직결도상 공법을 쓰기 때문에 선로 보수 자체가 필요 없다. 예전에는 레일 1m당 37kg이었는데, 열차 하중이 무거워지고 자주 빨리 다니다보니까 50kg로 바뀌었다가 60kg 70kg 80kg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성중이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 레일의 길이가 20m이었는데, 1m당 50kg이니까 1톤인 셈이다. 도저히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여러 명이서 레일 밑에 바퀴를 달아 옮기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올리고, 한쪽에서는 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리를 잡도록 조정했다. 요즘엔 레일 한 마디가 50m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나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다.

레일의 특성상 겨울에는 한없이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응력이 발생한다. 열차통행을 차단하고 2~3시간 내로 끝내야 하는 장대레일 재설정 작업은 인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장 힘든 작업이다. 200m가 넘는 긴 레일을 전부 해체했다가 다시 부설하는 대규모 공사다. 장대레일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제일 혹서기와 혹한기의 중간인 중간온도쯤에서 해체해서 적당히 풀어놓았다가 다시 연결해야 한다. 어느 때는 하루에 수 킬러미터씩 작업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굉장히 즐거운 시절이었어요. 그 세월이 언제 지났나 모르게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사무실에 있는 무쇠난로에다 나무 침목을 쪼개서 불을 때는 거예요. 열기가 대단해서 언 몸도 녹이고, 퇴근시간이면 목욕한 후에 매일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씩 했죠. 힘들게 일하고 기분 좋게 먹으니까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시설국 직원들이 느끼는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상부에서 순시를 나오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 받아주고 갈 정도였다. 너무 고돼서 체력이 바닥날 지경이면, 때론 근무 중에 술 한 잔씩 하는 것도 눈감아주었다. 동료들끼리

는 연차나 직함에 상관없이 '형님, 동생'하면서 사이가 아주 돈독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 특성상 협동작업, 즉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했다. 대개 엄청난 무게의 자재를 다루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 혼자만 잘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믿고 합심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늘 가족처럼 지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해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다.

김성중은 20대 때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상처받으면서 허송세월만 보냈지만, 철도청에 입사한 후로 두계역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삶이 안착한 시기라고 말했다. 두계역은 지금의 계룡역과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담하고 소박한 역이었다. 고색창연한 역사(驛舍)는 두 번 정도 변신해서 현재 KTX가 정차하는 훌륭한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다. 예전엔 승강장 길이도 50m로 짧았지만 지금은 200m로 늘어났다.

"여기 오면 너무 바뀌어서 방향감각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변한 데가 계룡역이에요. 옛날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선로든 홈이든 역사든 그 주변의 도로든 집들조차도 옛날 집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오래 근무하고 제집 앞마당처럼 다녔는데 가장 낯선 역이 계룡역이에요. 지금 가보면, 낯익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며 정년까지 일해 온 김성중에게는 옛 동료들이 모두 떠난 계룡역은 그저 낯설기만 하다. 자갈 하나하나 침목 하나하나, 선로 마디마디마다 옛 동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게 변해버렸다.

기차가 달리는 동네

1968년 대전-익산 간 호남선 복선화 사업은 착공 후 10년 만에 완공했다. 김성중은 학창시절 기차로 통학했고, 기차를 타고 도시로 나갔다. 아직도 논산, 부항, 연산, 개태사, 신도, 두계, 원정, 흑석리, 가수원 그 옛날 역명을 줄줄 외고 있다. 지금의 개태사역은 그 시절에는 광석역이었다. 신도역은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현재는 폐역이 되어 이름만 남아있다.

빗가리 동네(現 향한리)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도나 건널목도 없는 철길을 넘어 다니기 일쑤였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사람들은 철길 통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차가 지나는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짐을 이고지고 철길을 따라 기차역까지 걸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는 몇 명씩 다치기도 했다. 김성중은 고등학교 시절, 신도역에 내려 향한리 집까

지 걸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회상했다.

향한리 옛집 바로 앞에는 철길이 놓여있어 기차는 늘 익숙하면서도 동경의 대상이었다. 어렸을 때는 기차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곤 했다. 철길 때문에 동네를 가로질러 다닐 수 없는 불편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서는 가족의 행복과 형제보다 든든한 동료들을 선사해준 것이 바로 철도, 기차역이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작년 12월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열차 지나가는 게 참 멋진 풍경이에요. 우리 손주들도 오면 아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길로 많이 다니고 주변에 살고 또 거기서 몇 십 년 동안 벌어먹어서 그런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도 기차 지나가는 걸 몰라요."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너머로 기적을 울리며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는 김성중의 눈빛은 향수에 젖은 듯 행복해보였다. 게다가 오늘은 보슬비까지 내려 낭만적인 시골풍경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와 농막 하나 짓고 게으른 농부로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다. 소원대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만끽 중이다. 그 기찻길 옆에서!

<인터뷰어_ 김조연>



두계역 선로


선로보수 작업


건널목 통행 캠페인

계룡시
계룡시 도시개발을 함께한 사람들

강 병 용 (1953년생)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철도는 나의 인생, 두계역은 나의 고향



차표장사 강 서기로 금의환향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태어난 강병용은 호남선 복선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두마면으로 이사를 왔다.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지라 고깃배나 여객선은 많이 봤지만, 처음 타보는 기차는 신기했고 설레었다. 공부는 꽤나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그때만 해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심정이었다. 마침 아버지 친구 소개로 열여섯 나이에 두계역 소사로 들어갔다. 낮에는 두계역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월급 3,000원을 받았다. 밤에는 대전에 있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는데, 밤 11시가 되어야 수업이 끝나는 바람에 늘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엔 기차가 연착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집에 도착하면 새벽 3시, 잠깐 눈을 붙인 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두계역으로 출근해서 청소를 했다.

당시 두계역에서 대전으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대략 500명쯤 됐다. 신도안에서부터 두마면, 그리고 대덕군 진잠면, 논산군 벌곡면에 사는 학생들이 모두 두계역을 이용했다. 두계역은 아침 7시15분에 출발하는 통학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든 교복 입은 학생들로 새까맣게 물들었다. 그는 또래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마냥 부러웠다. 어린 마음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한 나머지 학생들과 마주치는 시간대는 피하고 싶었다. 새벽에 청소를 마치고 잠깐 집에 들러 아침밥을 먹고는 8시면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일을 했다.

그 사이 외지로 나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5년 만에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마침 두계역 게시판에 '철도청에서 유능한 철도 공무원을 널리 모집합니다!'라고 쓴 채용공고문이 눈에 띄었다. 73년도에 철도청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서는 날아갈 듯 기뻤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철도맨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웃 어르신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그를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어엿한 철도청 공무원이 되어 두계역으로 금의환향한 그가 대견스러웠다.

"저는 꿈이었죠. 예전엔 차표장사가 제일 부러웠어요. 두계역에 가서 차표를 팔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하고 제일 접점에서 만나니까요."

두계역에서 제일 막내였던 강 서기는 맨 처음 한 일이 그의 소원대로 차표 파는 일이었다. 그런데 소사 일을 할 때와는 달리 역명과 차비를 외워서 승객에게 빨리빨리 전달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그날그날 쓰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100장 소출한 걸 또 써요. 저녁에 마감할 때, 차표 뒤를 보면 숫자가 9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8장이 팔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8장에 300원이면 3×8=24, 2,400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잘못 팔았으면 빨간 걸로 × 치고, 폐표라고 써요. 하루 종일 차표를 팔고,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날 하루 판 걸 마감해서 그 수익금을 다음날 은행에다 갖다 넣어요."

역무원은 24시간씩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다. 간혹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내어주거나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표를 주는 일도 있었다. 마감 때, 계산이 맞지 않으면 밤새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내야 했다. 돈이 남으면 '과납'이라고 쓰고 추가로 입금을 하면 되지만,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꺼내 숱하게 메워 넣었다. 처음엔 실수 연발이었다. 더구나 노인들이 정식 역명이 아니라 옛 동네이름으로 목적지를 말하면, 못 알아듣기 일쑤였다. 그럼 옛말도 모른다며 쩌렁쩌렁 목청을 높여 호통을 치는 손님과 고개를 갸우뚱하며 몇 번씩 되묻는 역무원 사이의 실랑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익산역을 솜리, 백양사역은 사거리역으로 불렸다.

그때 그 시절엔 그랬죠.

70년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발급하는 통학증명서를 기차역에 제시하면, 학생할인요금이 적용된 통학패스를 끊어주었다. 일반운임의 1/3이었는데, 간혹 학생들이 통학패스를 지참하지 않거나 위조하는 일이 빈번했다. 역무원들은 한 달에 두어 번씩 불시에 일제 단속을 벌였다. 개찰구 밖으로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일일이 정기권 검사를 했다. 정기권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빨간색 도장을 찍어 날짜를 명시했는데, 달력의 일요일 날짜를 교묘하게 오려붙이면 감쪽같아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쩌다 위조 차표를 발견하더라도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를 불러다 주의를 주고는 훈방조치 정도로 눈감아 주기도 했다.

신도역은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인데다 호남선에서 제일 높은 양정고개는 마의 구간이다. 젖 먹던 힘을 다해 올라오던 기차는 기껏해야 사람이 달리는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

었다. 무임승차한 학생들은 늘 고갯마루쯤에서 열차 밖으로 뛰어내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허다했다.

또한 예전에는 무개차(無蓋車)라고 지붕이 없는 기차가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 붓는 날에 무개차에 무연탄을 싣고 가면, 빗물이 잔뜩 차올라 무게가 3배나 불어나고 화물칸이 출렁거렸다. 대개 20량을 매달고 달리는데, 두계역 전역인 흑석리쯤 와서는 '비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으니 10량은 떼어내고 다시 달리겠다'는 무전이 온다. 속도는 이미 사람 걸음 수준이고, 빗물 때문에 레일의 마찰력이 떨어져 단숨에 올라갈 수가 없다. 바퀴가 헛돌고 미끄러지다가 결국엔 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태사역과 두계역은 비만 오면 무전기를 통해 나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설 추석 명절에는 귀성인파로 기차역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작하는데, 차표를 사려는 사람들은 이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대전역에는 전날부터 돗자리를 펴놓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두계역 대합실에는 늘 50명씩 줄을 섰다. 75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국도가 건설되어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귀성수단은 기차가 유일했다.

"사람들이 객차 지붕까지 다 타요. 기관차 옆에까지 매달려서 올라탔어요. 평균 10칸을 매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분산해서 타야 되는데, 대개 대합실에서 나가서 곧장 앞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올라타는 거예요. 뒤로 나눠 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명절 때만 되면 난리죠. 뒷칸은 한 100명이 탔다고 하면 바로 앞칸은 300명씩 타는 거예요. 그럼 열차 스프링이 가라앉아요. 바퀴가 닿아서 못 가요. 밧데리(배터리) 상자가 밑에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레일에 걸려갖고 주저앉아서 끌려와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거긴 완전히 콩나물시루에요."

1989년 9월, 비둘기호만 정차하던 두계역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통일호가 정차하는 역이 되어 역무원은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그 무렵 삼군본부가 이전하면서 국군 철도수송지원반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가 설치되었다. 특히 주말에는 오가는 장병이 많아 특별수송 열차를 배차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두계역을 출발하여 일요일 오후에 다시 두계역으로 돌아오는 주말열차이다. 잠시 두계역을 스쳐지나가는 손님

이 아니라 오늘 떠나보내면 모레 다시 또 보는 가족친지나 다름없었다. 배웅하고 마중할 때는 언제나 색다른 기분을 느꼈다.

"군산 바닷가에서 오는 그 차는 소화물 칸에 항시 다라에다 생선이나 조개 같은 게 잔뜩 실려 있어요. 그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하니까 밥을 싸오거나 해먹었어요. 그럼 냄비나 바가지 하나 들고 소화물 승무원한테 막 뛰어가서 '아 그 뭐 찌갯거리 좀 줘봐' 그러면 제 것도 아니면서 생선도 몇 마리 넣어주고 조개도 확 퍼서 주고 그래요. 사과 같은 것도 궤짝으로 부치면 몇 개씩 빼 먹는 거 알고 그랬어요. 하하하...그게 다 용서가 될 때에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강병용은 사람 사는 냄새나는 그때 그 시절의 인간미 넘치고 푸근한 인정이 오가는 7~80년대 기차역 풍경을 이야기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기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1911년 7월 20일 두계역(豆溪驛)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1978년 2월 10일 낡은 역을 다시 신축하고, 같은 해 3월 3일 호남선 철도를 복선으로 개통하였다. 2004년 4월 고속철도 KTX 개통에 맞추어 선상역사를 신축하고, 2005년 9월 23일 두계역에서 계룡역으로 역명이 바뀌었다.

100여 년 가까이 두계역이라는 낯익은 이름은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시간 너머로 사라졌다.

강병용의 두계역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다. 역내를 매일 쓸고 닦았다. 역명 간판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플랫폼 도색도 깨끗하게 새로 했다. 구석구석 꽃을 심고, 대합실에는 멋진 풍경사진도 손수 걸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공손하게 늘 웃는 얼굴로 대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기관사와 침착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았다.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는 깨끗하고 멋졌다기보다는 그의 손때가 묻은 옛 모습이 사라져 오히려 야속했다. 다만, 주차장 한 귀퉁이에 플랫폼으로 나가는 건널목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자신이 계룡역의 산증인임을 뿌듯해했다.

"서울역에서 새마을호를 타면 여객전무가 주요 정차역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서대전 다음에 두계역이 나와요. 저는 그 안내방송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계룡시였으니

까 계룡이라고 바꾸는 게 대세인데,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두계역에서 근무했으니까. 제 표창장도 신분증도 모든 게 다 두계역이에요. 두계역은 나의 인생에서 철도하고 살면서 고향이죠. 소사부터 시작해서 퇴직까지 했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의 기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지요."

집안 곳곳에 달리는 기차 사진이 걸려있고, 밥을 먹다가도 TV에서 열차 장면만 나오면, 시선이 고정된다. 현재 사는 집도 호남선 철길이 바로 옆이라 이사를 오게 되었단다. 지나가는 열차소리, 기관차 엔진소리만 듣고도 지금 어떤 종류의 열차가 몇 량을 달고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 단박에 알아맞힌다. 지금까지도 당시 열차 지연 안내방송을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왼다.

"손님 여러분, 열차가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루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13시 10분 서울행 무궁화호에 대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소지하시고 개찰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찰을 받은 손님께서는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는 3번 승강장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는 매우 위험하오니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호차 2호차 3호차는 중앙에 서고, 4호차 5호차 6호차는 조금 뒤쪽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차'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천생 철도맨 강병용. 그의 철도사랑은 유난스럽다.

<인터뷰어_ 김조연>



두계역(1973)


두계역 환경미화


계룡역(현재)

당진시

|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II

삶의 향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화포도 514
왕매실로 주민들의 꿈을 키우다 519
소득증대와 건강을 다잡은 '둥근마' 523
백련 막걸리로 지역 특산품이 되다 529
쌀 영농법인에서 찾은 당진 농업인의 미래 533
당진포리 지킴이, 감자 농사는 숙명 540
한진포구 특산물의 변화와 나아갈 길 546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한동네 만들기 551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II

이 종 선 (1963년생)
당진시 순성면 본리

삶의 향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화포도



포도 재배 시작

구술자의 아버지 이재억(李在億) 씨는 송산면 동곡리 출신인 어머니와 결혼한 후 광천리에서 본리로 이사하여 3남 1녀를 낳았다. 그중 장남인 구술자는 무남독녀 외동딸을 두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구술자는 포도가 돈이 되는 것을 알고 1996년부터 포도 재배를 시작하였다. 처음 비 가림 300평을 시험 재배하였으며 성공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캠벨 품종을 많이 재배하였고 거봉 종류도 일부 재배하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샤인머스캣, 썸머블랙, 자옥 등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다. 2005년 새농민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새마을지도자로 일했다.



탐스러운 가화포도 | 구술자 사진제공

당진에도 포도 재배단지인 본리가 있다

구술자에 의하면 6·25전쟁 때(1953년경) 옹진반도 한 마을 28가구 150명 정도가 피난민으로 내려와 정착한 곳이 본리1리 7반 지역이다. 당시 그곳은 국유지였다고 한다. 정착하고 3년 동안 나라에서 주는 배급에 의존하며 척박한 땅을 일구어 살았는데 이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재환(당시 피난민) 씨의 친구가 합덕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는데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추천하여 1969년 750평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몇 년 후 포도밭에서 당시 쌀 150가마에 버금가는 상상도 못 할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오재환, 오

덕환, 고재복 등이 처음 재배하기 시작하자, 소득이 다른 작물보다 좋은 것을 본 마을주민 한두 명이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게 되었다. 농가 소득 작물로 알려지면서 널리 퍼지게 되어 1982년 당진 가화포도 작목반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이들의 3, 4대 후손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본리1리 지형은 분지 형태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토양에 모래가 섞인 사질양토로 물 빠짐이 잘 되어 포도 재배에 최적지이다. 그래서 당도와 향이 우수한 좋은 품질의 포도가 생산된다. 순성면에 포도 재배 가구 수는 약 35가구이다.



본리1리 마을비 | 면담자 사진제공

가화포도에서 가화가 뭐유?

구술자에 의하면 순성면이 예전에 면천군 가화면이었기에 순성면 본리 일대에서 재배되는 포도를 가화포도라 부른다고 한다. 가화포도가 가화라는 품종인 줄 알았는데 옛 지명에서 가져온 이름이었다. 현재의 큰말을 가화면사무소가 있었던 중심 즉, 근본이 되는 마을이라 하여 본말이라고도 불렀다. 그때의 본리를 중심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오산리의 공수동 일부를 통폐합하여 본리라는 마을 명으로 당진군 순성면에 편입되었다. 본리는 지형상 편안하고 아름다우며, 미풍양속의 전통을 이어온 마을이다. 1997년부터 당진군에서 실시한 우리 마을 사랑 운동에 전 주민이 뜨거운 애향심으로 참여하여 2000년도에는

당진군 250개 마을 중 1위를 차지했다. 그외에도 상위권에 여러 번 들었다. 그 기념으로 순성면 새마을 탑과 순성면 전 마을에 영산홍 1,000~2,000그루를 기증했다.

포도 재배의 1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포도수확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한다. 거름은 지표면에 뿌린다. 품종에 따라 수확기가 다르다. 캠벨은 중생종으로 8월 말경, 샤인은 만생종으로 10월 초에 수확한다. 한 그루에 50~60송이로 세력이 좋으면 70~80송이도 수확한다.

겨울에는 전지와 거름주기를 한다. 가지는 세력에 따라 단초, 장초, 전정을 하며, 포도나무의 수형은 덕식과 평덕식, 울타리식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덕식이 많았으나 현재는 일하기 편한 울타리식을 많이 한다.

5월에는 세력을 보아가며 정리 유무를 결정한다. 5월 말~6월 초에 꽃 피고 난 다음 알솎기와 봉지 씌우기, 곁순제거를 한다. 7월은 관리에 중점을 두며 소독, 살균, 살충한다.

가화포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

1982년 당진 가화포도 작목반이 조직되고 1992년 가화포도 축제를 개최했다. 2002년까지 11회에 걸쳐 포도 축제를 해왔으며 구술자는 1996년 8월 말 당진 가화포도 축제를 직접 진행하였다. 포도 재배 농가들이 모여 예산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였지만,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의 미비로 막을 내렸다. 6회를 진행했던 구술자는 가화포도를 알리기 위해 1998년 12월 21일 당진 가화포도 포도즙 공장 건립하고 저온저장고 20평을 마련했다. 1999년에는 당진 가화포도 포도즙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그리고 2006년 당진시 포도연구회를 결성했다. 2013년에는 베트남으로의 수출길을 열고 한편으로는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인터넷을 통한 판로 개척에 노력했다. 2001년 8월 당진에서 쌀, 꽈리고추에 이어 세 번째로 도지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샤인 품종이 과잉생산되고 당도 문제로 인식이 좋지 않은 면도 있으나 저장 기간이 6개월 정도라 분산 출하가 가능하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천, 상주, 영동보다 당진, 서산, 태안 지역에는 포도밭이 별로 없어 생산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과잉생산이라

고 할 수 없다. 아직은 매력이 있다.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 현재 전국 포도 재배 농가들이 3·3·3 운동을 벌이고 있다. 30% 수확량 감소와 30% 노동력 감소, 30% 가격을 더 받자는 내용이다. 구술자는 샤인 뿐만 아니라 자옥, 블랙 사파이어, 썸머블랙 등 다른 품종도 재배하고 있다. 좋은 품종의 포도일지라도 소비에 따른 물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한번 유행에 그치고 만다고 한다. 구술자는 당진시 농업 기술센터에서 가화포도 와인개발을 위해 '와인 양조 기초교육'을 받았다. 와인 양조 제조 방법, 보관, 기초 이론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당진 가화포도 축제를 다시 시도해 보면 어떠할지 물어보니 당진시의 그린 컴퍼니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고내현, 박상일, 구술자(이종선)의 포도밭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포도와의 인연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합덕에 포도밭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어_ 최재근>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Ⅱ

이 상 훈 (1946년생)
당진시 순성면 버들길

왕매실로 주민들의 꿈을 키우다



유교 가문의 유년 시절 서당에서 조부에게 한문 공부

구술자 이상훈 선생은 전의 이씨로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었으며 현재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있다.

아버지는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탓에 자연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소년 가장으로 유년 시절부터 주경야독하며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 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농사지으며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학자 공무원

19세에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수색 중대에서 근무했다. 그 당시 폭풍 지뢰를 밟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도 있었다. 23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앞으로 살길을 찾으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입산하여 시험에 합격했다. 그 후 양장점을 운영하는 처녀와 결혼하여 맞벌이하며 근검절약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또한 모범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했다. 보상계장 업무를 맡아 보던 어느 시기였다. 보상금의 형평성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원만히 처리하여 준 결과 학자 담당관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여러 부서를 거쳐 2000년도 순성면장으로 부임하여 내 고향 순성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벚꽃 나무를 식재하였다. 구술자는 원래 나무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터라 일차 벚꽃나무를 심고 보니 보기가 좋았다. 그러나 화려한 꽃나무가 전부가 아니고 동네 주민과 순성 17개리 면민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소득 되는 수종은 무엇일까 연구한 끝에 유실수인 매실나무를 떠올린다. 꽃도 좋고 매실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저기에서 매실 수 묘목을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고향 사랑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창의적 생각으로 순성면민을 위한 고소득 왕매실나무 식재

걸으면서 생각하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구술자는 2002년부터 왕매실나무 묘목 구입에 뜻을 세운다. 왕매실나무 식재에 대한 결심을 한 다음 순성면 내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30개 단체에 본인의 뜻을 설명해 보았다. 아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없었다. 일차적으로는 각 가정에 식재하여 각 농가 소득을 올려 보자는 취지

였다. 다음에 하천을 정비한 넓은 공유지 하천 둑에 잡목과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한 것을 떠올린다. 나무가 뒤엉켜 사람도 못 다닐 정도였다. 저곳에 나무들을 정비하고 매실나무를 식재해야겠다 생각하고 과감히 잡목들을 정비하고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 하천 상류 지역, 면천 저수지 밑, 순성면 양유리 일부는 잡목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땅에 왕매실나무 식재를 시작하였다. 사실 하천 변 공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하천 변에 매실을 심는 중에 도청에서 담당관이 단속하러 왔는데, 오히려 참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매실나무 묘목이 귀하고 비쌌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과 재배하는 과수원 농가에 피해가 없을까 걱정도 하였다. 하지만 사과 재배 농가에는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매실나무 병충해에 관하여 더 도움을 주었다.

매실나무 구입에 고충을 겪던 중 재인 면민회, 재경 면민회에 고향 사랑 나무 심기에 동참하여 주십사 간청하니 많은 분이 도움을 주었다. 어느 재인 면민회 회원님은 환갑잔치할 돈을 모두 매실나무 구입하라고 협찬하시는 분도 있었다.

매실 재배에서 수학까지는 개인이 아니고 17개 동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해야만 매사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왕매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끊임없는 왕매실 제품개발 노력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다.

구술자 님은 매실의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분야는 무궁무진함을 알게 되었다. 매실은 인체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어서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처음에는 생매실을 판매했다. 매실이 모자랄 정도로 판로가 좋았다. 생매실 가격이 좋아 개인 농가에서도 생매실 판매를 좋아하였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생매실 가격이 내려가자 되자 매실 판로가 걱정이었다. 결국 매실나무를 심었던 농가에서 매실나무를 뽑아내는 현상도 일어났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매실청 제품생산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품생산, 식품 인허가, 제품생산 인력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러던 중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 민생을 살피고자 시골에 나가 모내기를 함께 하던 중 막걸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다. 구술자는 아, 저거다! 왕매실 막걸리를 만들어야 하겠구나! 생각하고 매실 막걸리 생산에 전념하였다. 우선 막걸리는 대중적이어서 판로에도 별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되었다.

매실에 대하여 노력한 결과 2005년도 농어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에서 73억 원을 지원해 줘서 왕매실 막걸리 공장 200평, 저장고 100여 평, 왕매실청 공장 100평, 체험 교육관 70평이 지어졌다. 또한 매실 특화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매실 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매실 축제 등을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다.

후배 영농인을 선도하며 왕매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개발

우리 술 품평회 전국대회에 왕매실 막걸리가 2010년에 출전했으며 2011년에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후 수 회에 걸쳐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왕매실 제품생산과 판로에 매진했다. 회의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되면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구술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 왕매실영농조합법인을 맡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다. 누구에게든 물려주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왕매실영농조합법인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왕매실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열매가 열리어 유실수로 가치가 있다. 매화가 아름다워 순성 관내의 관광 자원으로도 훌륭하다. 이러한 매실 숲이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터뷰어_ 남기은>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Ⅱ

박 미 연 (1962년생)
당진시 송악면 상중말길

소득증대와 건강을 다잡은 '둥근마'



억척스러운 농업인 – 박미연 님

구술자 박미연 님은 현재 당진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당진 해나루 둥근마 연구회' 회장님이기도 하다. 연령은 62세다. 작년에 환갑을 지내 연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농촌 실정상 노인층에 들지도 못한다. 실제로 매우 젊은 분이다. 더군다나 억척스럽게 농사일을 하는 전문적인 농업인이다. 한두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주 종목은 '둥근마'이다. 또한 당진시에서도 맡은 일이 한둘이 아니다. 동분서주한다. 하루의 시간을 수없이 쪼개면서 일하고 또 일한다. 실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여성 일꾼이다.

부천 아가씨에서 당진 새댁으로 – 스님이 맺어준 인연

박미연 님은 원래 부천 출신이다. 애당초 당진은 박미연 님에게 꿈도 꾸지 않은 생소한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심이 깊었던 박미연 님에게 당진 절에 갈 일이 생겼다.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대성사였다. 절 일을 마치고 귀경하려는데, 마침 대성사 아래에 있는 밭에서 감자를 수확할 일손이 부족했다. 박미연 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꾼으로 합류했다. 도시 아낙네의 범상치 않은 억척스러움에 스님이 감동했다. 스님은 넌지시 한 남자를 소개했다. 그 후 젊은이가 수박을 한 통 들고 절에 왔고, 그렇게 당진의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난 날은 6월 16일이었다. 이로써 결혼을 포기할 뻔했던 37살의 도시 여인은 38살의 봉교리 청년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신랑의 이름은 김영만(金榮晩)이다. 2남 2녀 막내딸이 시골로 시집가자, 일가 어른들은 아쉬움에도 큰 축복을 기원해 주었다. 부천의 복숭아밭을 뒤로 하고 박미연 님은 그렇게 송악읍 봉교리에 자리를 잡았다.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남매를 키우며 어느덧 26년이 흘러갔다.

논보다 밭이 많은 송악읍 봉교리 – 끝없이 이어지는 '농사일'

봉교리에 오니 천지가 밭이었다. 물론 논도 있었지만, 집 근처는 온통 밭이었다. 그런데 밭은 붉은 황토였다. 비스듬히 남향으로 기운 밭에는 온갖 작물이 자랐다. 작물은 풍성했고 토실한 열매를 가져다주었다. 맛도 뛰어났다. 봉교리의 주민들은 밝고 친절했다. 땅이 비옥해서 화목한지 몰라도 서로들 위해주고 품앗이로 일하며 돕는 풍습이 만연했다. 100

여 호가 넘는마을인데 서로 가족처럼 지냈다. 시댁에는 비닐하우스도 5동이나 있었다.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답게 남편은 새벽부터 일했다. 부천댁이 된 박미연 님도 남편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농사가 신기했다. 일한 만큼 소출이 꼭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진실되면 농사도 늘 정직했다. 그렇게 밭과 논, 들일을 하였다.



둥근마 꽃 | 구술자 사진제공

농사에 관하여 연구에 연구 – 소득증대의 길을 찾아서

농사에 전념하던 박미연 님에게 어느 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매년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른 봄에 감자를 심었다. 봉교리는 지금도 감자의 주생산지이다. 황토에서 자란 감자는 최상품으로 맛도 뛰어났다. 6월경 감자를 일제히 수확하면 주민들은 배추나 무를 심었다. 김장용이다. 그리고 겨울을 난다. 또 해가 바뀌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다시 감자를 심었다. 여기서 박미연 님은 연작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작물의 재배를 고민한 것이다. 박미연 님은 남편과 함께 작물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감자를 하우스에 옮겨 심어보기도 하고, 꽈리고추를 재배해 보기도 하였다. 박미연 님은 남편과 함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나가 작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시설에 대한 당진시의 지원도 얻

었고 각종 농자재에 대한 보조를 받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였다.

'둥근마'의 재배를 시작하다 – 소득증대와 '건강'을 위하여



수확된 둥근마 | 구술자 사진제공

그러던 어느 날, 2008년이던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둥근마'를 소득증대의 주요 작물로 채택하고 농업인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늘 연구하던 박미연 님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그리고 시험 재배를 시작하였다. 의외로 '둥근마' 재배는 어려움이 없었고 재미까지 있었다. 농약도 쓰지 않았다. 수확량도 기대 이상이었다. 소득증대의 작물로 제격이었다. 무엇보다 봉교리의 토질이 '둥근마' 생산에 매우 적합하였다. 박미연 님은 본격적으로 '둥근마' 연구와 재배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에서 나오는 액체, 즉 '뮤신'이라는 성분이 인체에 매우 좋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위장에 너무 유용하여 위장이 안 좋은 환자에게는 탁월한 보양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소득증대와 '건강'을 다잡는 '둥근마' 재배는 대단한 유혹이었다.

'둥근마'의 재배과정

'둥근마'는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다. 길거나 모가 나지 않는다. '마'의 생산지는 경상북도 안동과 충남 부여, 그리고 당진이다. 안동마는 '황금대마'라고 한다. '황금대마'는 길다. 마의 주성분인 '뮤신' 성분도 많다. 그런데 '황금대마'는 결정적으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곰팡이가 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분말'을 해서 먹는다고 한다. '황금대마'에 비하여 당진의 '둥근마'는 보관에 뛰어났고, '뮤신' 성분도 많았다. 무엇보다 생김새가 매우 예뻤다. 오죽하면 '둥근마'라고 했을까.

'둥근마'의 재배과정은 이렇다. 우선 3월 20일경 '둥근마'를 절단한다. 개당 대략 50g에서 60g정도로 잘게 썰어 놓는다. 씨앗용 '둥근마'가 없으면 구입해야 한다. 1kg에 대략

7,000원 정도다. 다음에 노지를 갈고 두둑을 만들어 비닐 멀칭을 한다. 퇴비는 1년 전 연말에 내는 것이 좋다. 한우 퇴비로 1년이 지나 숙성된 것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숙성되지 않는 퇴비는 굼벵이가 낀다. 굼벵이는 '둥근마'에 결정적인 피해를 준다. 엉뚱한 말이지만, 굼벵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밭은 깊이 갈아 겨울을 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밖으로 나온 굼벵이는 겨울에 모두 죽게 되고 살아있는 것은 봄에 굼벵이 약으로 없애야 한다.

4월 10일경, 두둑에 '둥근마'를 정식한다(깊이 심지 않는다). 4월 10일 이전에 심는 것은 안 좋다. 냉해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은 지 50일이면 싹이 올라온다. 동시에 지주대를 세운다. 약 180cm의 막대를 세우는데 30cm는 심고 지상 150cm높이로 세운다.(지주대는 여름 태풍을 대비하여 단단히 박는다). 싹도 몇 개씩 나오는데 가장 좋은 하나 정도만 남기고 잘라준다. 싹이 자라면서 이번에는 지주대에 오이망을 씌운다. 망은 주의해서 설치한다. '둥근마'가 잘못 망에 들어가면 마를 버린다. 중간에 엉키면 또 안 된다. 줄기가 오이망을 잘 타고 올라가면 뿌리식물인 '둥근마'도 잘 자란다.

'둥근마'는 200일 정도 지나면 성장이 끝나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시작한다. 이때가 되면 줄기는 마르며 무성한 줄기의 양분이 뿌리로 내려가 저장된다. 주의할 것은 가급적 11월까지 가서 캐는 것이 좋다. 더울 때 캐면 '둥근마'의 껍질이 약해져서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 수분이 날아간다. 최대한 늦춰서 날이 찰 때 캐야 껍질이 단단해져서 보관이 쉽다. 캘 때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한다. 수확한 마는 저장고에 섭씨2°로 보관한다. 2°도로 정해주면 1년을 보관해도 싹이 안 난다. 수확량은 대략 1ha(3,000평) 기준으로 5톤을 생산할 수 있다. 매출액은 5천만 원이다. 높은 수익이다.

'해나루둥근마연구회'의 발전전략

'둥근마'는 판매가 문제다. 이 때문에 '둥근마연구회'도 판매 촉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둥근마'의 생과를 판매하기 위해 각종 축제, 인터넷 판매를 활용한다. 그리고 남은 '둥근마'는 분말로 가공하여 스틱에 넣어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분쇄기를 비롯한 보조기계를 도입하고 가공공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인셉트 라온'이라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굼벵이와 '둥근마'의 뮤신 성분을 배합하여 '환'과 '젤리'를 제조해 판매하였다. 최근에는 '화장품'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



둥근마 분말스틱 | 구술자 사진제공

였다. 이 같은 다양한 방법은 '둥근마'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시 해나루 둥근마연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둥근마 생산과 가공,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5명에 불과한 '둥근마' 재배 회원의 증대도 앞으로의 목표다. 특히 안전 농산물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GAP 인증을 획득하였다. 나아가 당진시로부터 해나루 상표 사용 인증과 로컬푸드 인증을 획득하여 당진시 주민과 전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습득과 농사 소득 증가, 고품질 친환경 생산으로 당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박미연 님은 죽산 박씨 박혁거세 65세손이며 아버님은 박희재(朴熙在)라고 밝히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강조하고 있다. '둥근마' 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자부심이 가문과 조상에 대한 명예와 함께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득증대를 통해 정체된 농업의 활로를 활짝 열어 주리라 염원한다.

<인터뷰어_ 박미연>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Ⅱ

김 용 세 (1943년생)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백련 막걸리로 지역 특산품이 되다



신평양조장의 시작

구술자는 아버지 대부터 시작하여 현재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이어오는 지역의 오랜 기업 신평양조장의 2대 대표이다. 원래 주단이나 포목 사업을 하던 구술자의 아버지(김순식)는 외삼촌의 영향으로 1933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현재 자리에 양조장을 새로 짓고 양조장 사업을 시작하였다.(당시 신평양조장의 전신은 화신양조장) 구술자는 1943년 양조장의 사택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까지 당진 신평에서 살았고, 중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는 서울 고모 집이나 하숙집에서 살았다. 어릴 때 겪은 6.25전쟁과 관련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구술자는 인근 아버지 지인의 집으로 피난을 갔고, 양조장은 당시 지역 노동당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수복 이후 황해도 출신의 기술자가 내려와 쌀누룩 제조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였다. 서울에 살 때는 4.19 시위를 무장 진압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하며 현대사의 굵직한 현장들을 몸소 겪었다. 해방이 되자 구술자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재건운동위원, 구호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신평우체국 건립, 시내 전화 개통, 흥국사 사찰 창건 등에 기여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상보다 일찍 시작한 양조장 사업

구술자는 우선 자기 일을 하다 나중에 양조장을 물려받을 생각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이른 나이에 양조장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여 아버지와 함께 양조장을 경영하였다.

60년대 후반 당시 구술자는 양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였다. 특히 술이 발효되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술의 발효 온도와 환경을 체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교본에 나오는 환경과 동일한 여건과 조건을 조성하여 완성도 높은 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과거 경험에 의해 눈대중으로 계량하고, 손을 넣어 온도를 체크하던 전 근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화와 계량화로 균질한 품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버리는 술이 없어져 재정적으로도 개선되었다.

70년대부터는 국민들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개인과 지역 단체의 잔치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신평양조장은 전성기를 구가한다. 당시 개인이 술을 담는 것은 법으로 금하였으며 밀주 단속 또한 심했다. 이때 밀주 단속에 걸린 주민들의 사건을

오히려 무마시켜 주기도 하고, 공짜 술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척 술을 대접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양조장 사업이라고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60년대 부족한 쌀을 대신해 밀가루와 옥수숫가루로 술을 담그는 과정에서는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많은 술을 버리기도 했다. 이는 이후 80년대 후반 다시 쌀로 막걸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계속되었다. 제조 원료가 바뀜에 따라 제조 방식도 변화하게 되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 보급되던 맥주와 소주가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면서 막걸리는 사양산업화 되었다. 지역 양조장들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 국가 정책으로 양조장 통폐합을 강제하여 합동제조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신평양조장 역시 결국 90년대 초반 인근 양조장들과 함께 통합되면서 구술자는 합동 제조장의 주주로서 양조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술 백련 막걸리

구술자는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새로운 술을 연구하고, 제조방식을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70년대에도 주류품평회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90년대 이후 변화하는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전수 받은 연잎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막걸리에 연잎을 덖어 함께 발효하는 백련막걸리를 출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였다. 그 결과 2009년 청와대 만찬장 막걸리 선정을 비롯하여 우리술품평회에서 대상을 총 3회 수상하며 또 다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생막걸리와 생막걸리 프리미엄, 살균막걸리, 맑은 술 등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요구)에 맞게 제품을 세분화하였다. 2010년대에는 일본 수출, 2023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79호에 지정된 그는 소비자와의 만남과 막걸리 문화의 보급과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5년 개원한 백련양조문화원(신평양조뮤지엄)은 옛 양조장 창고 건물을 활용해 체험과 전시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그곳에서 관람객은 전통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양조장의 역사 기록물도 관람할 수 있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며

구술자는 현재도 고구마소주 출시 준비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술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는 문화이자 철학이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구술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술을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에 담긴 것이 문화이자 철학이라면 효모를 통해 발효되어 완성되는 술의 원리는 과학이요, 담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술인 것이다. 구술자는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 신평양조장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3대 대표인 아들 김동교 씨가 신평양조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서울에서의 행사에서 도우미 열활을 하다가 약 15년 전쯤 결국 신평양조장의 경영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구술자의 아들(김동교 대표)이 합류하면서 2011년에는 국내 지역양조장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 핵심 상권에서 직접 운영하는 '셰막'이라는 막걸리 전문점을 내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셰막은 서울 가로수길, 홍대, 강남역 등 요지에 3곳에서 운영해 왔고 특히 강남역점은 120평 규모의 국내 최대 막걸리 전문점으로서 10년 넘게 장수해 온 매장이기도 했다. 2021년에는 자동화 설비로 양조장을 신축하면서 술 개발에 매진하고자 2023년 '셰막'은 폐점하게 된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양조장'에 1호로 선정되었고 신평양조장은 양조장 투어 분야에서 한국 양조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연잎주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위해 신평양조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산업관광지 11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구술자의 아들은 구술자의 뒤를 이어 신평양조장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전통주 계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협회와 축제 등의 활동을 통해 유통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온라인과 바틀샵 등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 밝혔다. 체험과 문화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신평양조장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구술자가 바라는 목표, 세계 최고의 술이라는 꿈도 멀지 않은 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어_ 남기은>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Ⅱ

김 동 헌 (1950년생)
당진시 우강면 소반1길

쌀 영농법인에서 찾은 당진 농업인의 미래



우강면 소반리에서 태어나 고향을 지키다

김동헌 님은 1950년 우강면 소반리에서 태어났다. 소반리는 삽교천 줄기가 내륙 깊숙이 치고 들어온 마을로, 이백오십 년 전 고래가 물길 따라왔다가 돌아가지 못했다던 내경 동네가 인근에 있다. 1979년 10월, 삽교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고래 품은 마을 이야기는 우강평야의 초록색 벼포기 속에 숨어 전설로만 내려온다.

김동헌 님의 본관은 경주로, 증조할아버지 대에 신평면 운정리를 떠나 현재의 주소지로 이주했다. 백여 년이 지난 가옥은 4대에 걸쳐 신축과 증축을 거치면서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한다. 김동헌 님은 글재주와 손재주가 좋은 부친 김택제와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의 전형인 모친 최순례의 이남 육녀 중 차남이다. 우강초등학교를 거쳐 합덕중학교와 합덕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고혈압으로 쓰러진 선친을 대신하여 집안을 이끌어 왔다.

부친께서는 쉰아홉에 작고하실 때까지 소반리 동네의 유지였으며 글방(서당)도 운영하시고, 목수일 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다. 한국전쟁 때는 발동기를 이용한 정미소 운영과 함께 구장(일제 강점기 때는 통장과 이장을 묶어 구장으로 불리었음)을 맡아 일을 보시면서 주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셨다. 시골 부잣집에서 자란 김동헌 님은 이웃들의 어려움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으며 그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져, 영농법인을 만든 후 더불어 잘사는 동네를 만들기에 앞장섰다.



고래탑[1] | 면담자 사진제공

푸른 고래원의 전설을 품은 마을

김동헌 님이 사는 이곳 소반리는 과거 바닷물이 흐르던 곳으로, 안개라고 불렸다. 안개(안쪽의 갯가) 즉 내포(內浦)로 불리며, 주위에는 소포원, 부리포, 남원포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각종 어류가 풍성하던 곳이다. 소반리에서 합덕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상포(上浦), 중포(中浦)라는 마을이 있으나, 지금은 지형이 변하여 바닷가가 아닌 소들강문(서(西)들강문) 평야가 펼쳐져 있다. 홍성군 오서산 홍동저수지 물이 북쪽 마을과 평야에 골고루 물을 나누어주면서 굽이굽이 흐르다가 이곳 소반리를 거쳐 삽교천을 따라 바다로 내달린다.

예당저수지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이곳 우강(牛江)평야는 크게 물 걱정이 없다. 김동헌 님의 선친 은 머슴을 두어 명씩 두고 농사를 짓던 부농이었으나, 그 시절 형편은 너나없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포구에 살던 아낙네들은 강다리(조기), 수어, 꽃게, 가물치 등을 잡아서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인심만은 넉넉하여 명절은 물론 마을 어른들 생신날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예전, 농사를 지을 때는 수로에 흐르는 예당저수지 물을 봇장이라는 포강에 가두어 뒀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두레나 물구르마(수차)로 그 물을 이동시켜서 천수답에 물을 대어 농사짓기도 했다. 그때는 수로에 흐르던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개구리, 지렁이, 때론 뱀 등도 떠다니는 물을 퍼와 끓여 먹곤 했다.

노동의 힘겨움을 짚가리 술 한잔으로 날리다

과거, 집안에서 술을 빚어 먹는 것이 위법인 시대도 있었다. 술은 기존에 허가된 양조장에서만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집집마다 술을 빚어 먹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안에서 술을 만들 때 쌀 주사의 점검을 피하느라 짚가리 안에서 숨겨놓고 숙성을 시킨다. 삼 개월 후 잘 익은 술 항아리에 용수를 박아 놓으면 그 위로 맑은 술이

1) 고래탑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內鯨里)의 마을 이름과 연관되는 조형물이다. 고래가 마을을 상징하는 동물이라 하여 1993년에 돌로 고래탑을 세웠고, 1994년부터 고래탑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걸러지는데 이를 짚가리 술이라 칭한다. 이처럼 짚가리 술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쌀 부족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짚가리 술 주원료 누룩 | 사업담당자 사진제공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육체노동을 전제로 한다. 논밭의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거름 삼아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벼농사는 이른 봄부터 시작된다. 먼저, 원하는 벼 종자를 골라 준비한다. 잘 준비된 볍씨를 소독한 후 싹을 틔운다. 볍씨에 싹이 나면 논에 못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잘 뿌려준다. 낮에는 햇빛을 쪼여주고 밤에는 비닐을 덮어서 보온하며 여러 날 동안 관리한다. 모판의 모들이 한 뼘 크기로 자라면 본격적인 모심기가 시작된다. 모심기는 도저히 호락질이 안 된다. 이때는 부엌의 부지깽이라도 손을 빌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 온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품앗이로 모내기를 한다. 수확하기까지 수시로 피사리도 하고 농약과 비료를 준다.

이때 농부의 허리를 펴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새참 시간이다. 밥도, 국수도 다 좋으나 이때 막걸리가 빠지면 서운하다. 이런 막걸리를 사 먹기 어려우니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다. 물론 쌀이 부족한 시기이니 술을 담가 먹는다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 수 있겠으나 법으로까지 규제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배고픈 시절을 면하게 해준 것이 통일벼 종자가 나오면서다. 통일벼를 심으면 같은 넓이의 경작지라도 다른 종류를 심었

을 때보다 월등히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 밥맛은 떨어졌으나 이때는 밥맛보다는 수확량이 우선이었다.

지게질로 시작한 농사, 농업 선진화를 통해 부농으로의 물꼬를 트다

김동헌 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랑방에서 어른들에게 농사일을 배웠다. 농사일이 적성에 맞았다. 친구들이 대학에 간다, 직장을 구한다 할 적에도 농사짓는 일을 가업이라 여겼다. 스물이 되던 해, 본관이 언양인 김사영(金司寧) 님과 중매로 결혼을 한다. 결혼과 함께 명실공히 집안의 가장으로 거듭났다. 결혼 이듬해 장녀(김명환)를 얻고 연이어 장남(김덕환)과 차남(김효환)을 낳았다. 부인 김사영 님은 김동헌 님의 현재를 만든 일등 공신이다.

소반리는 삽교천에 방조제가 생기고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물이 많은 동네였다. 요즘처럼 장화가 흔하지 않았기에 좁고 꼬불꼬불한 논두렁길에 고무신을 신고 지게질로 일을 했다. 청년 김동헌 님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농촌사회를 교육으로 혁신하여 부농으로 만들고 싶었다. 타고난 뚝심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청년들을 이끌던 김동헌 님은 동네에서 경운기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기계 농업의 서막을 열었다.

이제는 인력으로만 쌀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이른 봄부터 집집마다 시작했던 못자리는 이제 대형 묘목장에서 시작된다. 모를 키우며 일일이 비닐을 씌우고 걷고 하던 일은 묘목장의 전자동 시스템 버튼 하나로 이루어진다. 다 자란 모를 뽑아 한 묶음씩 묶어 내어 몇 포기씩 손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모판째 이앙기에 옮긴다. 운전자와 보조 한 명만 있으면 하루에 수만 평을 심는다. 칠팔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일이 손으로 주던 농약은 45kg의 드론으로 순식간에 마친다. 요즘엔 모내기가 아닌, 볍씨 직파를 연구하면서 농업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동헌 님은 정미기를 포함하여 대형 드론 2대, 굴삭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은 물론, 장비 이동을 위한 여러 대의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장비는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수십만 평의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선진화된 농업 장비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였으며, 영농법인을 만들면서 더욱더 기계화, 자동화로 진행되면서 수입은 가속적으로 늘었다.

해나루쌀을 당진의 대표 쌀에서 전국적인 쌀로 만들기 위해

당진은 벼 재배 면적이 전북에 이어 전국 2위였으며, 쌀 생산량은 전국 1위다. 그중 우강평야는 약 600만 평으로 그 농지에서 나오는 쌀은 대략 이만 톤 정도이다. 20kg 포대로 백만 개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라 하니 삼십오만여 명이 1년간 먹을 양이다. 우강평야를 지나다 보면 평야 가운데 우뚝 선 건물이 있다. 바로 통합 RPC(Rice Processing Complex:미곡종합처리장)다. 2023년 6월 7일 준공한 이곳은 건조 시설 30톤급 10기, 저장시설 500톤급 12기를 갖추고 있으며 일일 120톤의 백미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다.

우강평야의 흙은 진 찰흙이다. 과거 바닷가였던 덕분에 오랜 풍화작용을 통하여 누적된 흙이기에 쌀농사에 적합하다. 각종 미네랄도 많으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단백질 함량이 적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쌀이 생산된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표 브랜드는 해나루쌀이다. 해나루쌀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쌀은 당진의 대표 품종인 삼광미와 당찬진미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각종 혼합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서해대통당진쌀, 청풍명월쌀, 한눈에 반한쌀, 뜸부기쌀 등 여러종류가 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각종 농산물의 품평회를 연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품질을 홍보하는 행사인데, 이때 당진 쌀농사 연구회에서도 해나루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14년 카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뫼에 방문했다. 이때 김동헌 님은 솔뫼성지 해나루쌀 브랜드를 론칭하고 당진을 넘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애썼다. 교황님은 세계적인 분이시기에 나름 크게 기대하면서 홍보하였는데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으로 용두사미가 된 것이 지금도 아쉽기만 하다.

농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으로

과거, 농사를 짓던 아버지들은 농사일을 대부분 본인 대에서 끝내기를 원했다. 워낙 힘겨운 육체노동과 그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입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동헌 님은 운수업을 하던 장남에게 농업을 권유했다. 기계화된 농업에서 미래를 본 것이다. 자신이 육십여 년간 열정을 바쳐 일구어 온 자산을 대부분 장남에게 넘겨줬다. 일찌감치 경영 이양을 한 것이다.

장남 김덕환 님은 풍채는 물론 사람들을 이끄는 성향까지도 부친인 김동헌 님을 닮았다.

부친으로부터 영농법인을 이어받아 협업과 분업으로 농촌지역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 과거 김동헌 님이 영농 기계화를 꿈꾸고 이룩하였듯이 아들 김덕환 님은 기계화와 더불어 정보화, 대형화, 자동화를 이루어 간다.

누군가는 김동헌 님에게 말한다. 너무 일찍 경영 이양을 해줬다고. 그러나 김동헌님은 이렇게 항변한다.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농업에 매진하여야 우리나라 농업에 비전이 생긴다고. 과거의 방법을 고지식하게 고수하며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 선진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말이다. 의사 결정을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오늘도 김동헌 님은 농업기술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여러 루트를 통하여 쌀농사연구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올해 쌀 수매 가격 이십 만원 고수를 위해서다. 김동헌 님의 뜨거운 열정과 힘찬 발걸음에서 선진농업 젊은이의 희망을 보았다.

<인터뷰어_ 이시연>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II

유 근 성 (1950년생)
당진시 고대면 온동1길

당진포리 지킴이, 감자 농사는 숙명



당진포리에서 태어나 고향을 지키다

유근성 님이 고대면 당진포리에서 태어난 해는 1947년이다. 부친은 구술자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큰댁이나 삼촌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노동자로 잡혀가면 살아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 봐 이북으로 피신했다. 그때는 남북이 왕래할 수 있는 때였다. 하지만 너나없이 먹을 것이 모자랐던 시절이라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해 몸이 허약해진 상태로 고대면 당진포리로 돌아와 해방을 맞이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허약한 부친은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몇 년 후 결국 돌아가셨다. 이미 어머니는 유근성 님을 임신한 상태였다.

유근성 님은 유복자로 태어나 큰댁에 의지해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 그것도 잠시, 순성이 친정이었던 어머니도 유근성 님이 고산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일곱 살 때 재가했다. 유근성 님은 도회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누가 시킨 적 없어도 고산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짓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몇 살에 농사일을 시작했는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농부였는지 모른다.

큰댁도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큰아버지는 후처를 들였다. 하지만 아들 하나 더 얻겠다는 뜻은 이루지 못해 사촌도 혼자 컸다. 유근성 님은 혼자 자라서 그런지 누구하고 앉아서 다정다감하게 정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자녀들이 늘 아빠는 너무 인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담금술이나 밥을 꼭 먹여서 보낼 만큼 푸근하고 정이 많다.

유근성 님은 절대 나쁘게 살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자랐다. 또 남한테 억울하게 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위에서 부모를 닮아 순하다고 하는데, 부모든 친구든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다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 없이 살았어도 지금까지 남으로부터 나쁜 소리 안 듣고 산 것이 가장 큰 자랑이다.

아내와는 1년 교재하고 스물여덟 살에 결혼했다. 그 당시 농촌 총각이라 결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스물다섯 살 먹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물으니 기억나는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흔 넘은 노부부의 대화를 듣다 보면 아직도 꽁냥꽁냥 신혼부부 같다. 구술자의 말투도 부드럽지만, 남편을 대하는 배우자의 마음

씀과 말씨에 사랑이 가득하다. 구술자는 결혼하기 어렵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직장에 다니던 여인과 결혼했음을 은근슬쩍 자랑한다.

슬하에 자녀는 2녀 1남을 두었는데 세 자녀 모두 고산초 후배다. 자녀들은 당진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친 후 도시에 나가 대학 수업 받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 모두 결혼하여 여러 명의 손주를 안겨 주었다. 고대면 당진포리에는 유근성 님 부부만 살고, 자녀들은 모두 대전과 서울에 거주 중이다.

당진포리에는 어느 선대부터 어떤 이유로 정착했는지 모른다. 다만 먼 선대부터 정착한 것은 틀림없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근성 님도 일흔두 해 동안 살아오면서 당진포리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그야말로 선산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당진포리를 지켰다.

고산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교 교육

유근성 님은 7살 때 고산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 추억을 질문하자 별거 없다고 운은 뗐지만 일곱 살로 돌아간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신났다. 유근성 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는 고산초등학교 창설 단계였다. 1학년에 입학할 때 고산초등학교는 초가집에 강의실 하나 있었다. 78명이 입학했는데 교실이 작아서 흙먼지가 푹석푹석 나는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공부했다. 그 당시 학생의 나이는 여덟 살 전후뿐만 아니라 아홉 살 더 많은 사람도 있었다.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하여 학교 공부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다. 유근성 님이 입학하던 해는 78명을 1개 반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4개 반으로 늘렸다. 교실의 위치도 2023년 현재의 위치와 같은 곳이고, 두서너 번의 증설과정을 거쳐 현재의 고산초등학교 모습을 갖추었다. 유근성 님의 학교 교육은,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마저 7세 되던 해에 재가하여 고산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당진포 지명 유래와 온동 방죽과 용샘 전설 품은 마을 이야기

당진포리라는 지명은 백제 때 당나라로 왕래하던 나루터인 당진포(唐津浦)가 있었다고 하여 얻은 이름이다. 조선 중종 9년(1514년)에 쌓은 둘레 1,340자, 높이 9자의 당진포진성이 있어서 수군만호 1인과 수군 병사 2,075명이 주둔하여 서해를 지키던 요지였다. 실제로

유근성 님도 어렸을 때 해창에서 불에 탄 곡식의 흔적을 본 적 있다. 당진포리는 해창과 초락도로 가는 바다를 막고서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2구로 분구됐다가 현재 3구까지 되었다.

당진포3리에서 북쪽 10km에 위치한 곳에 온동 방죽과 용샘 전설이 있다. 온동방죽(온동저수지)은 넓이가 20정보이고, 평균 수심은 3.23m로 잉어, 장어, 붕어, 새우 등이 많이 잡히는 낚시터다. 옛날 이곳에는 토족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이문경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하인으로 곰쇠가 있었다. 그는 주인이 행차할 때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하인이었다. 하루는 뜨거운 여름에 주인은 말을 타고 곰쇠는 말고삐를 잡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주인이 날이 더워 목이 마르니 샘물을 찾으라고 하였다. 곰쇠는 물 위에 서서 물을 찾는다고 하였다. 주인은 농담하지 말라며 표주박에 물 좀 떠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곰쇠는 말채찍으로 발밑 길가를 찔러 구멍을 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맑은 옥수가 솟아 그 물을 표주박으로 떠서 주인에게 주었다. 이 물이 수원이 되어 지금도 가뭄에 절대 마르지 않는 유명한 그 온동 방죽이 되었고, 그 물이 나오는 샘을 용샘이라 부른다.

유근성 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용샘에도 전설이 전한다. 성산2리 작동(가출)의 앞들이 해마다 물이 없어 흉년이 계속되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곰쇠는 경작인들을 보고 물줄기를 줄 터이니 가을에 가서 해마다 수세를 조금씩 내놓으라고 했다. 경작인들이 쾌히 승낙하여 곰쇠는 금방 물이 펑펑 솟아 나오도록 하여 대풍이 들었다. 몇 해 동안은 수세를 잘 바치다가 수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 물은 자연수이지 곰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수세를 주지 않았다. 이에 괘씸하게 생각한 곰쇠는 자기 상전댁 집 앞이나 물이 풍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동의 물줄기를 온동으로 돌려 용샘과 합쳐지게 하여 용샘 물이 더욱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였다. 작동마을은 물이 나오지 않아 흉년만 계속되어 살기 힘들었다. 그 후 작동 경작자들은 곰쇠에게 달려와 물줄기를 다시 돌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다. 당진포리는 물이 풍부하여 7년 대한에도 물 걱정 없는 좋은 동네가 되었다.

용샘은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고 김이 무럭무럭 나고, 여름에도 등목을 칠 수 없을 만큼 시원한 물이 솟는 샘인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서 방치한 상태다. 그 이유를 구술자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로 전한다. 당진포3리를 가려면 마을을 감고 도는 산이 하나 있다. 그 산을 한 십 년 전에 외지 사람이 사서 다섯 개 단지의 공장을 짓겠다며 산봉우리에 둥근 구

멍을 냈다. 그 뒤부터 용샘 물이 흙탕물로 바뀌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시의원이 면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싸워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다른 곳에 우물을 하나 파 주었다. 그래서 흙탕물이 나오는 용샘은 방치된 상태다.

태어날 때부터 농부, 감자 농사에 평생을 바치다.

유근성 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농부의 길에 접어들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중에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연구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결성하도록 도왔다. 언제라도 감자는 심는 거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 연구회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초대 총무가 되었다. 1대 회장은 조명호 씨로 3년 동안 회장과 총무로 손발을 맞췄다. 2대 회장은 박유신 씨로 유근성 님보다 나이가 어려서 1대 회장과 함께 퇴임하려 했다. 그러나 2대 회장의 권유로 다시 총무를 맡았다. 2대 박유신 회장이 팔 년 정도 봉사하는 바람에 구술자도 총무직을 총 11년 맡았다. 2대 회장이 자리를 내놓아서 유근성 님이 3대 회장을 맡았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8년의 임기를 마쳤다. 4대 회장은 백용관 씨가 취임하여 현재 약 2년이 지났다. 고대감자연구회의 연혁 및 업적을 말하려면 유근성 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본격적으로 감자 농사에 집중한 기간은 약 50년이 넘는다. 현재 농사짓는 감자밭 면적은 5,000평 정도다. 감자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식량이 부족하여 구황작물로 심었다. 그 당시는 감자 한 박스를 심으면 열대여섯 박스에서 많게는 30~40 박스까지 나왔다. 지금은 더 많은 양이 나온다. 감자는 맨 첫해에 수확량이 많고 같은 자리에 연작하면 수확량이 줄고 품질도 떨어진다.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해도 토양에 남은 병균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다. 특히 친환경 농사는 살충과 살균 처리 문제로 연작이 어렵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는 친환경에 비해 수확량이 좋다.

식량으로 농사를 짓다가 감자연구회를 결성하면서 수확량이 늘어 판로를 찾아야 했다. 농산물 시장에 올리거나 오리온, 농심, 당진농협APC(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처 등과 계약 재배하고 있다. 당진의 감자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마사토에 황토질과 게르마늄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보다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다.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점은 판로개척만이 아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른 만큼 감

자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점이다. 또 있다. 기후변화도 문제다. 감자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심을 수 있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로 발아는 물론 냉해의 피해가 예전보다 심해졌다. 또 낮 기온이 28도를 넘더라도 밤 기온이 10도 이하를 유지하면 감자는 성장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밤 기온이 18도 이상 나가는 날이 지속되어 굵기도 전에 성장을 멈춘다.

당진에서 재배하는 감자의 종류는 대략 네 가지다. 수미, 두백, 추백, 조풍이다. 수미는 전국적으로 제일 관심받는 종이다. 보편적으로 쪄 먹거나 찌개용으로도 무난하나 두백에 비해 파래지는 속도가 빠른 단점이 있다. 두백은 과자(칩)나 쪄 먹는 용으로는 좋으나 조리용로는 적합하지 않다. 흐트러져 찌개나 감자탕이 죽처럼 변한다. 그래도 두백을 심는 이유는 쉽게 파래지지 않고 칩으로 좋은 재료여서 오리온이나 농심에서 원하기 때문이다. 추백은 찌개용으로는 최고 맛있으나 가장 빨리 파래지는 단점 때문에 중간상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속이 노르스름한 조풍은 쪄 먹거나 찌개용으로도 괜찮다는 말은 들었으나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는 않아 한 번도 재배한 적 없다. 그래서 맛을 잘 모른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도 개발하고 우리나라 개인업체가 배양에 성공한 홍심이 또는 홍감자가 있다. 홍심이는 쪄 먹는 용으로는 최고의 맛이나 찌개용으로는 풀어져 맛이 없으며 2년 연속 재배하면 울퉁불퉁해져 상품 가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 개발하거나 국립종자원 또는 지역종자원에서 개발한 것을 포함하면 감자의 종류는 대략 열다섯 종류가 넘는다.

유근성 님이 바라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농사지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선한 성품이라 유근성 님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뷰어_ 이종미>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II

방 우 진 (1950년생)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한진포구 특산물의 변화와 나아갈 길



한진포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방우진 씨 일가

방우진 님의 일가는 증조부님 때인 1920~30년대부터 한진포구에 정착하여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다. 한진포구는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포구로 삼국시대에는 당나라와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항구였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 1960~70년대에도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이 다닐 정도로 해상교통의 요지인 곳이다. 최근에는 서해대교의 건설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더욱 쉬워진 곳이다. 방우진 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한진포구에서, 초대 어촌계장인 아버지를 따라 준치, 삼치, 꽃게 등을 잡으며 생활을 하였다. 그 후로 본인이 한진포구의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며 김 양식, 바지락 축제, 한진포구 뉴딜 300사업 등과 관련하여 한진포구 어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던 어린 시절의 한진포구

방우진 님의 어린 시절이었던 1960년대 한진포구는 어항으로 엄청난 호황이었다. 대표적인 어획물로는 준치, 삼치, 꽃게, 숭어, 민어, 농어 등이다. 특히 5월달에는 준치가 성어를 이루었는데, 이 시기에는 충남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서도 많은 어선이 준치를 잡으러 아산만 쪽으로 진출할 정도였다. 준치는 서천 앞바다에서부터 아산만에 이르는 지역에서 주로 잡혔고 5월부터 6월 하지까지 많이 잡혔는데 하지 즈음에서는 준치가 아산만에서 산란을 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준치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준치가 성어를 이루는 5월경에는 어획량이 너무 많아 다 팔지도 못했다. 조류를 이용해서 준치를 잡았는데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3시간여 동안 어획이 이루어진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잡는 어획량은 천 마리 단위로 세어야 할 정도로 많았다. 준치는 가시를 제거하고 회덮밥으로 해 먹거나 소금구이, 맑은탕을 끓여서 먹는 방법이 있었다.

꽃게 또한 어획량이 어마어마했다. 그 당시에는 냉장, 냉동시설이 어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잡은 꽃게를 보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은 짚으로 만든 가마니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잡은 꽃게를 가마니에 넣고 바닷물을 뿌려 보관기간을 조금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장사치들이 한진포구에 오지 않아 판로가 막혔다. 이때에는 잡은 꽃게들을 방우진 님 아버지의 연락선으로 모아 논에다 뿌렸

다. 딱딱한 꽃게 껍데기가 농업에 방해될 것 같지만 논에서는 금방 삭아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되었다.

민어는 고급 생선으로 유명한데 민어 또한 한진포구에서 많이 잡혔다. 민어 머리를 염장해 두었다가 김장 김치를 담글 때 함께 넣을 정도로 민어가 흔했다. 이외에도 숭어가 많이 잡혀 숭어 알을 이용해서 어란을 만들었고 이는 고급 선물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었다.

본격적인 바다에서의 삶, 기르는 어업

방우진 님은 아버지가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바다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하시던 여객선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큰아버지에게 운행 실무를 배우고 독학으로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덕분에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여객선을 운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했다.

1983년에 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하지만 한진포구 일대의 어족자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산만방조제와 삽교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어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다. 고기잡이 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어선을 팔아 고기잡이 어선들이 없어졌다. 방조제로 인해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물살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뻘이 더 넓게 형성이 되었다. 이때부터 갯벌에 돌을 가져다 깔고 굴과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굴과 바지락이 생겨나니 소라와 낙지도 늘어났다. 낙지가 조개들을 잡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낙지가 많았을 때는 간조 시간 동안에만 혼자서 120마리 정도의 낙지를 잡기도 했다.

이 시기가 바지락이 최고로 많이 잡히던 시기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간조 3시간 동안 어촌계원 한 명이 보통 70~80kg 정도의 바지락을 잡았다. 바지락이 너무 많이 잡혀서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바지락을 매입하는 상인들이 1인당 잡는 양을 정해줄 정도였다.

한진포구의 김

방우진 님은 한진포구에서 김 양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김 양식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남해의 김 양식은 부유식으로 하는데 한진포

구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지주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김 양식장을 건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주식 양식장을 건설하기 위해 큰 나무 말뚝을 갯벌에 박아야 하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주변 어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새로운 시도에 동조하지 않는 어민들이 많은 탓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안에서 김 종자를 구해와 인공채묘 방식을 적용하기까지 했다. 9월 22일경에 채묘를 시작하는데 이때의 수온이 22~23도 정도여서 채묘의 적기이다. 굴 껍데기에 종묘를 넣어서 바닷물에 담가 인공채묘를 하여 활착시켰다. 두달 만에 첫 수확을 할 수 있었다. 한진포구 지역은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곳이어서 김의 성장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1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혹독한 추위가 다시 한번 시련을 안겨줬다. 바다가 유빙으로 가득 차서 김 양식장에 실치해 놓았던 지주가 뽑혀 나간 것이다. 하지만 첫해에 작은 성공을 맛보고 다른 어촌계에도 보급을 하여 김 양식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특히 한진포구의 김은 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경매에서 항상 최고 금액을 받았다.

바지락 축제와 뉴딜 300

7~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한진포구의 바지락은 당시에 비해 요즘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7~80년대에는 한진포구 어민 수입의 80%는 바지락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여 그 당시만큼 바지락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서해대교의 완공으로 서해안으로 찾는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고 인근 왜목마을 해돋이 축제가 성황을 이루면서 한진포구에서도 바지락 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바지락 축제에서는 바지락 캐기 체험, 바지락 중량 맞추기, 바지락 많이 까기, 바지락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기획하여 관광객들의 호응도 좋았다. 바지락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는 5월경에 주로 바지락 축제가 열렸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가 만연하기 전인 2019년에 열렸었다.

이 당시에도 2017년부터 조성한 215m 구간의 해안 데크시설이 완공되어 야경이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이름값을 했다. 바지락 축제는 바지락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진포구를 알리고 당진의 바지락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지락 개체수가 많이 감소해 바지락 축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바

지락 개체수 증가를 위해 종패 살포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패 활착률이 낮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다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변의 산업단지나 농경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오염수들을 관리할 필요가 절실하다.

당진시에서는 한진포구의 현대화를 위해 뉴딜 300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현대화된 건물을 건설하여 깨끗한 수산물 시장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2017년에 완공한 해안 데크시설을 연장하여 확대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된 수산물시장 건물이 어촌계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크기라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진포구 어촌계에도 젊은이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선진 어업, 양식업, 관광산업들을 배워와 어려워지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인터뷰어_ 박찬렬>

당진시
당진 특산물의 변화과정과 마을 이야기 Ⅱ

김 금 순 (1951년생)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한동네 만들기



남편의 고향인 당진으로 귀향하다

김금순 대표는 충북 단양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남편의 고향인 당진시 순성면으로 귀촌하였다. 남편은 당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퇴임하고, 자회사의 대표를 지내다가 퇴직하면서 고향인 대덕리로 귀향했다. 도시의 번화함을 피해 순성면 백성리로 귀촌하여 논 1,500평, 임야 2,000평에 농사를 시작하였다.

순성면 백석리로 귀촌하여 부녀회장이 되다

백석리에 귀촌 후 부녀회에 나갔다가 부녀회장에 선임되었고 이후 여기저기서 마을 사업을 하라고 독려함으로 집집마다 전화해서 70여 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면사무소 회의에 참석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돌보기도 하고, 분기별로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당시 이 활동으로 매년 상을 받았는데 2천만 원, 1천만 원 등 상금을 모아서 노인 잔치도 열었다. 이전부터 마을에서 권역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양유리, 봉소리의 마을을 합해 50억여 원규모의 매실 막걸리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녀회의 소득 사업으로 이것을 새로 맡아서 진행하였다.

마을기업을 계획하고 백석올미영농조합을 만들다

처음에는 마을 부녀회원들 소득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70평 정도의 한과 공장을 지었다. 마을 회의를 통해서 33명의 동의를 구하여 정부의 '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사업도 먼저 자부담을 맞추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별로 설득하여 200만 원씩 어렵게 출자를 받아냈다. 6600만 원을 조성한 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땅 200평을 연 30만 원에 임대해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 비조합원 70여 명이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된다면 쓸데없이 건물만 지어서 땅만 못 쓰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마을 분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었고 점점 조합원의 숫자도 늘어 현재는 83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영농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조합원인 할머니들의 문맹을 깨우쳐 드리기 위한 한글 교실도 열고 '이동컴퓨터실'도 열어 새로운 세계와 접하게 도와드렸다. 서각반과 서화반 그리고 한방 건강 장수마을을 운영하면서 부녀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여기에 마을 어른들을 위하여 겨울 농한기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점점 회원들 간의 유대가 강화됨은 물론 마을 인심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다.

백석올미영농조합 법인 출자금과 운영

처음에 6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건물 짓고 기계 사는 데만도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업비만 4억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8000만 원이란 자부담을 먼저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과를 만들어 팔면서 조합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몽땅 그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채워 넣기에 바빴다. 그때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급히 신청하여 5000만 원을 받아서 한과를 생산하는데 진력했다. 한과 2,500박스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것을 팔아서 또 모자라는 자부담금으로 충당하자 이때부터 최저임금 수준으로 1일 인건비 4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지금은 조합원 83명, 출자금 1억 6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지속적인 재투자로 마을기업 자산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 5%씩 배당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

'할매들의 반란'이 시작되다

'할매들의 반란'이란 캐릭터를 함께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캐릭터가 크게 반향을 일으켜서 마을기업 지원을 2년간 8000만 원이나 더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자 당진시에서 다음 스텐스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길 원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마을 할머니들이 실제는 모두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이로써 지출했던 인건비가 대부분 절약되었기 때문에 수익금 대부분을 재투자해서 매장도 만들고, 체험관도 만들고, 땅도 더 살 수 있었다. 여기에 조청 공장과 체험장 그리고 판매장 지었다. 다시 '6차 산업'으로 눈을 돌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류 공장'을 짓고 매실 한과와 매실장아찌, 초청, 매실 고추장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여기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즉 검은깨, 흰깨, 고추 등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할매들의 반란 캐릭터 | ⓒ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매실한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당진의 한과는 전통 한과와는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당진에서는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떡을 만들어 빻아서 만든다. 전통 한과는 찹쌀을 일주일 이상 물에 담가서 발효시킨 다음 그것을 다시 빻아서 떡을 찌고, 그걸 다시 펀칭을 치고, 펀칭한 떡을 성형기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조그맣게 만들면 유과가 되고 네모지게 만들면 산자가 된다. 이것을 다시 채반에서 건조한 다음 2중, 3중으로 싸서 다시 숙성시켜 수분의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저온저장고에 넣는다. 일정한 온도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발생하면 꺼내서 상온에서 하루쯤 두었다가 재차 두 번을 튀기고 잠을 깨운 후 다시 튀기면 된다. 그런 다음에 기름이 쏙 빠지면 비로소 겉을 입히게 된다. 이때 밥풀로 입히면 산자로 되고, 밥풀을 부수어서 만들면 유과가 되고, 깨를 입히면 깨 유과가 되고, 검은깨를 입히면 검은깨 유과가 되는데 이것을 포장하여 완성품을 만든다.

수십 회 수상하고, 수십 회 방송에 출연하다

가장 기분 좋은 상은 '당진 시민 대상'이고, 그다음은 귀농인 기여로 받은 '도지사상'이

다 이외에 농림식품부 장관상은 장관 바뀔 때마다 받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국무총리상', '국회의원상', '시장상'도 수 없이 많이 받았다. 다만 대통령상만은 조합을 운영한 지 10년이 되지 못해 수상하지 못했다. 마을기업을 하면서 행안부장관상도 수상했지만, 그 숫자를 기억할 수 없다. 약 100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 출연도 수없이 많이 하였다. 출연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충남지방 방송은 물론이고 서울 중앙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최근까지 기억나는 것은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 고두심 편에 출연한 것이고 '6시 내 고향'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출연했다. 그러나 제일 인상에 깊이 남아 있는 프로그램은 역시 '다큐 3일'이었다. 당시 '할매 취직하다.'로 방송된 '다큐 3일' 방송 이후로 갑자기 500건의 주문이 폭주하였기 때문이다.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의 꿈이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퇴직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백석리에서 영농조합으로 번 돈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근무했던 분들이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몸도 아프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백석리 일이나 영농조합 일은 능력 있는 2세대들이 등장했으므로 앞으로 더 잘할 것으로 믿는다.

<인터뷰어_ 장수덕>

금산군

금산인의 삶

용화리에 대한 단상	558
희곡인 임희재	565
노하우로 산 세월	570
도전의 나날들	576
초현리의 명현	582
금산 향교에 대한 단상	587
고단했던 과거	593
90년을 살다보니	598

금산군
금산인의 삶

육 상 희 (1947년생)
금산군 제원면 달고개길

용화리에 대한 단상



장남으로 태어나다

육상희는 용화리에서 태어나 용화리를 떠나 본 적이 없다. 입향한 선조(先祖)는 단종 복위 때 화를 피해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만 기억한다. 백촌 김문기 선생의 외가가 육씨라 화가 미칠 것을 알고 당시에도 벽지였던 용화리로 들어 정착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14살 때 조부께서 마을의 구장(현재의 이장)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염병'이라 부르는 장티푸스가 창궐했다. 주민들이 전염병에 죽어나자 시신을 수습하던 조부도 급기야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한다. 조부는 역학에 밝았고, 한학을 배워 문집도 남기셨다고 한다. 문집은 장손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장손 집에 방문해보니 그런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웠다.

아버지는 5남매, 3남 2녀 중 장남으로 소년 가장이 되었다. 집안에 농사 지을 농토는 없지만 아버지의 손재주가 좋아 목수일을 하며 대목장으로 절을 짓거나 보수하러 전국을 다니셨다. 때로는 나룻배를 짓기도 했다. 마을에서 사용했던 나룻배도 사실은 아버지의 작품이었다. 아버지의 목수 벌이는 일정치 않아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다. 그래서 먹고 살 농토를 만들기 위해 용화리 가마골, 현재 인삼오토캠핑장이 있는 자리에 논을 개간했다. 금강이 흐르면서 늪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 하천부지에 들어있어 허가만 받으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다.

60년대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였지만 아버지 혼자 돈벌이로는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 막상 개간을 시작하였지만 돈이 모자라 바로 준공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목수 일을 하셨으므로 어린 자식들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육상희는 금강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금산으로 통학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집에서 먼 가마골까지 오고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내외만 이사를 갔다. 그 후에 집도 새로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4대강 개발로 인해 그 땅이 수용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사를 나왔다. 새로 지은 집에서 겨우 3년 살았다.

사람들은 강가에서 농사짓는 애로사항만 생각한다. 홍수가 지면 수침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삼농사와 과수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다. 물빠짐이 좋아 특히 사과와 포도 농사

에 잘 맞아, 근동에 과일 맛이 소문이 나 재미를 보았다.

용강, 용강서원, 지웃재

용화리 금강을 용강이라고 부른다. 용화강이라고도 하지만 용강이 더 입에 붙었다. 부리면 평촌리, 신촌리, 어재리를 지나 급하게 커브를 돈다는 마달피 협곡을 빠져 나온 금강은 용화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 용화마을과 닥실과의 사이에 여울이 있어 용강은 그야말로 호수다.

용강서원은 1680년(숙종 6)에 건립되었다. 송시열, 송준길, 김원행, 유계, 송명흠의 위패를 배향했다.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리고 광복 뒤에 다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강서원은 금산 사림의 자존심이었다. 워낙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조선 유학의 쟁쟁한 분들을 모신 곳이라 그 위상이 대단했다. 부리면의 양씨들과 제원면의 금산 김씨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했다. 예전에는 강건너 화상골에 서원 소유의 땅이 있어 소작을 주고 서원 관리를 맡겼다. 당시에 서원관리를 맡으려는 경쟁이 대단했다. 화상골의 농토를 지어 먹으면서 제향에 들어가는 경비에 보태야 했지만 그래도 농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이었다.

서원 가까이에 있는 지석묘 근처에 사장(射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용강서원에 출입하던 선비들이 주고 받았던 시문을 엮은 시문집이 전하는데 그 내용에 지석묘 근처에서 활을 쏘았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용강서원은 제원에서 닥실(저곡리)을 지나 용화리에 이르고 용강서원 앞 용강을 건너 영동으로 통행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용강을 나룻배로 건너 화상골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 산마루에 돌로 쌓은 서낭당이 있었고 그 옆에 아름드리 서낭나무가 있었다. 서낭나무는 벚나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나무의 둥치가 남아있어 그 크기를 가름할 수 있다. 고개를 넘으면 지내리로 넘어가는 계곡이 나온다. 현재는 광평저수지가 있어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 길이 금산과 영동을 연결하는 주도로였다.

용화 주민들에게는 이 길이 매우 익숙하다. 이곳에 용화리 송계에서 관리하는 산이 있기 때문이다. 금산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독특한 송계라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주민들의 동제 형식인 송계는 산을 매개체로 하여 조직되었다. 마을 공동 소유의 산을 중심으로

송계는 조직된다. 사실 송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마을의 주민으로 살기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계산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사시사철 땔감을 채취하는 일이 이곳 송계에서 이루어진다. 송계의 관리가 마을의 안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육상희는 어릴때부터 송계산에서 나무를 했다. 마을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 땔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자칫 산 주인과의 마찰이 동네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주 나무를 하러 다녔는지 지금도 골짜기에 있는 바위, 풀, 나무까지도 기억이 새롭다. 지금 이곳 지웃재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옛날 선비들은 이 길을 따라 금산과 영동을 오고갔다. 용강서원 앞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선비의 텃새를 피할 길은 없었다. 지나가는 과객을 불러들여 혼 줄을 냈다. 운을 내어 한시를 짓게 하고 글 실력이 흡족하지 못하면 벌주를 먹이는 일이었다. 참으로 애교있는 벌칙이 아닐 수 없다. 용강서원은 금산 지역, 특히 제원면과 부리면 선비들의 교류공간이면서 문화창조의 공간이었다.

용강서원 위쪽으로 꺾적바위라는 큰 바위가 강안에 있었다. 지금은 강가에 도로가 나면서 바위를 의지해 둑을 쌓아 옛 모습은 변했지만 바위는 그대로 있다. 도로가 나기 전에 꺾적바위 앞에 고누바위가 있었다. 고누가 그려져 있던 바위라고 한다. 그 바위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두 신선이 고누를 두다가 게임에 진 신선이 화가나서 바위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깨졌다는 것이다. 마달피 주변의 강안에는 많은 설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전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이제는 몇 분만 남았을 뿐이다.

이곳 용강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였다. 물길의 흐름이 빠르지도 않고, 아래에 여울이 있어 고여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워낙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위인이 이곳에 놀잇배를 띄우자는 의견을 내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마을 청년들은 함께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어스름한 가을 저녁에 배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 배가 빨리 떠내려가지 못하게 나무로 장치를 해 놓고 흘려 보내면 2시간 남짓 서서히 내려왔다. 그 두 시간은 지금 생각해보아도 천국의 시간이었다. 맑은 물과 밤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친구들과 막걸리, 이

곳에서 함께 자란 동무들은 모두 용강에 대한 낭만을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와 향교

아버지께서는 늘 바쁘셨다. 절 지으러 다니시고, 배를 지으러 다니시고. 그러는 동안 집안일이 장남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고등학교 1년 중퇴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향교를 열심히 다니셨고, 반드시 장남과 함께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쳤다. 신학문은 짧더라도 유림으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셨다. 나중에 부친은 유도회장을 맡았다. 당시 향교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40대만 해도 대략 칠, 팔백 명이나 되었다. 금산향교에서 성균관에 위탁하여 진사 교육을 하기도 했다. 교육받는 인원이 적어도 300명은 되었다. 행사가 있는 날은 정신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그르게 진행이 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축문을 작성할 때에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됐다고 해야만 마칠 수 있었다. 40대는 의식에 참여할 틈이 없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식사 준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다. 정신없이 일하고 잘 못한다고 혼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어른들이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역정을 내셔도 마음속의 정이 가득하게 느껴졌다. 눈물나게 혼이 나도 좋았다.

상머슴

어려운 시절, 입 하나라도 줄여야 했다. 용화리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일꾼이 많았다. 금산에서 제일 먼저 인삼재배를 한 곳이 용화라고 생각한다. 인삼농사로 인해 일손이 필요했고, 세경을 정하는 기준으로 나뭇짐의 양을 보고 일꾼의 등급을 정했다. 용강을 건너가 나무를 해오면 시탕뿌리라는 곳에 지게를 세워 놓고 동네 어른들이 저울을 가져다가 무게를 달았다. 그 무게로 등급을 정했던 것이다. 일꾼은 주인집에 상주하면서 일을 했다. 칠석 때가 되면 주인은 옷 한 벌을 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하루 쉬게 했다. 이 날 주는 돈은 '강신돈'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사랑방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냈다.

1년 일하고 받는 세경도 많지 않았다. 나이가 어리면 더 적었다. 대여섯 살 먹은 머슴들은 그냥 1년에 쌀 한가니 정도면 족했다. 아이들은'깔머슴'이라고도 했다. 허드렛일을 도와주며 심부름이나 하고, 소 꼴을 베어다 소에게 먹이는 정도 였다. 이 경우 본 집에서 잠

은 자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뱃삯 수곡, 뱃거둠

용화리 앞의 나루를 용화나루, 시땅뿌리나루라고 한다. 주민들이 화상동으로, 지웃재 넘어 송계산에서 나무를 해 올때 이용하였다. 뱃삯은 보리 수확기에 겉보리 한 말, 나락 수확기에 나락 한 말로 했다. 이것을 수곡, 뱃거둠, 거둠이고 했다. 수곡을 내면 1년 동안 온 식구가 나룻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네 주민이 아닌 경우 뱃삯 없이 건네 주었다. 야박하게 돈을 받느냐는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외지인들에게 뱃삯을 받지 않는 나루터는 드물었다.

시탕뿌리라는 말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그 자리에 시탕뿌리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용화나루는 이곳에서 조금 상류로 올라가면 뱃골이라는 골짜기 앞에 있었다고 한다. 마달피식당이 있는 곳이다. 이곳 나루는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꽤나 오랫동안 나루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강에는 나룻배가 있었지만 봉황천에는 없었다. 예전에는 다리도 없어 비가 오면 물이 불어 건너기 어려웠다. 물은 불어 학교를 가기 어려울 때면 상급생들이 제일 위쪽에 서고 하급생들은 아래에 서 손을 잡고 물을 건넜다.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어떤 때는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둥실 떠서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굣길에는 마을 주민들이 나왔 걱정스레 지켜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강물이 이제는 많이 오염되었다. 4월 20일 경 곡우때면 꽃고기를 잡아 초장에 비벼서 그냥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진다. 물색이 변하기도 했고, 물고기도 많이 사라졌다. 텅빈 강이 되었다.

금강초등학교와 닥실섬

제원면 저곡리(닥실)에 금강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체험장으로 바뀌어 군에서 업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학교가 지어진 것은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물이 나는 진 곳이었다. 처음에는 교실이 없어서 인근 가옥이나 버드나무 밑에서 공부를 했다. 학생들은 많아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했다.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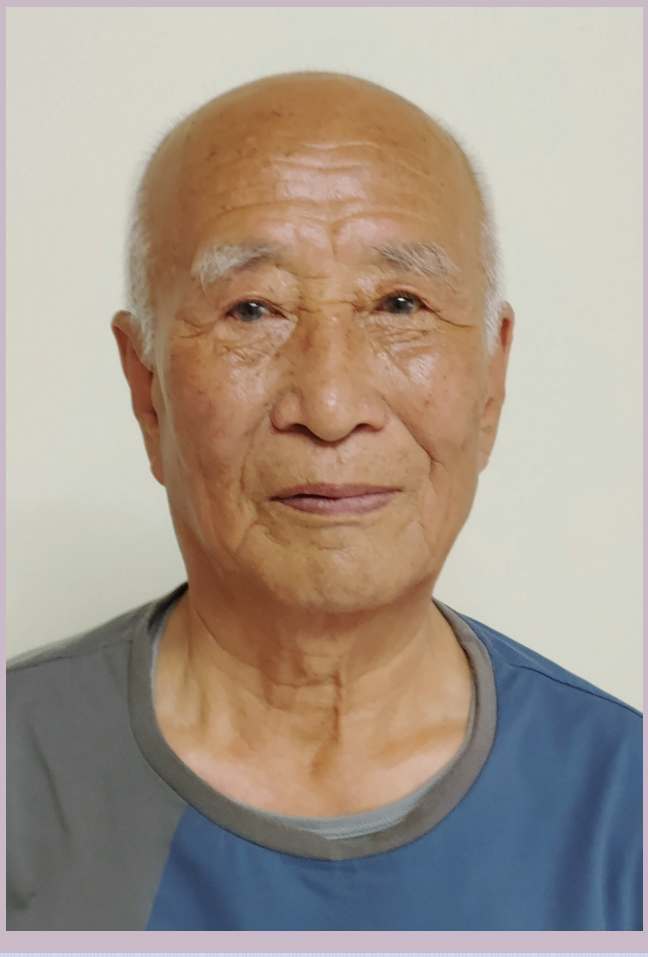
년마다 3개 반, 4개 반이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다.

학생들이 학교 앞 금강에서 책보에다 자갈이나 모래를 담아 날라 진 곳을 메꾸었다. 볼록하게 쌓여진 곳만 밟고 다녀야 할 정도로 질퍽했다. 문제는 금강의 섬, 닥실섬이라는 곳에 미루나무를 심어 숲이 울창해지며 발생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금산읍내 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피서를 왔다.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유흥장이 되면서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 것이다. 고성방가로 요란한 닥실섬에 아이들의 시선이 머물면서 급기야 민원이 들어갔고, 결국 나무를 베어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몇 해를 공들여 키운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지고 말았다. 힘들여 가꾼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했다. 그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접이식 의자 몇 개였다.

<인터뷰어_ 박광수>

임 동 진 (1947년생)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희곡인 임희재



공부한다면 다 보냈어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교육열이 대단했다.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보냈던 힘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저력이다. 그러나 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예외였다. 장녀는 살림밑천이라고 했다. 부모님 밑에서 집안일을 하다 시집을 가서도 살림으로 평생을 다보내는 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졌다.

성곡리의 임씨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었다. 아들, 딸,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학업에 뜻을 두면 누구든지 학교에 보냈다. 여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하게 여기던 시절에 여자들도 대학까지 교육을 시켰다. 고모 중 한 명이 서울의 진명 1회를 졸업하신 분이 있다. 남자 어르신 중에 와세다에서 유학한 할아버지도 계신다.

할아버지는 일찍 인삼을 재배해 돈을 벌었고, 집안에서 공부한다는 자손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당신은 공부를 안했어도 형제들을 열심히 지원만 하셨다.

사촌 셋이 이리 임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중에서 임희재 부친이 가장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한 분은 임업으로 청원군에서 공무원을 하셨다. 극작가 임희재 선생의 부친은 교편을 잡았다. 나머지 한 분도 공무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갤러리, 화랑에서 일하다

금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대학은 진학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서 일을 했다. 상호는 명동화랑이었다. 고종사촌 매부의 화랑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60년대, 명동, 150평 정도의 갤러리, 그 때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문화 예술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던 때였다. 배고픔을 달래기 어려운 시절에 화랑을 경영한다는 것은 시대를 매우 앞서가는 것이었다.

화랑이라면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화랑에서 일했지만 화랑을 경영한다든지, 코디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전시가 끝나고 작품이 팔리면 작품을 운반해 주고 위치를 잡아 설치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69년도 7월 6일에 제대하고 부터였다. 특별히 일할 곳도 없고 또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을 들여 놓았다. 당시 미술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전공자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수준 높은 관람객도 많지 않았다.

갤러리를 경영하는 매부는 재력가였다. 60년대 당시 서울에서 주유소를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었고, 운수업도 하였다. 그러나 갤러리 경영에 집중하여 주유소도 팔고 버스도 한 대 팔았다고 했다.

유명한 천경자 화가도 화랑을 자주 찾았다. 요즘과 달리 유명 화가의 작품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부인이 그림을 많이 샀다. 그러면 한남동 자택으로 배달을 해주었다. 지금은 그림도 재태크의 일환이지만 예전에는 드문일이었다. 화랑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5.16 주체 세력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술작품을 소장하거나, 제테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림을 예술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이용해 윗사람들에게 줄을 서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오일쇼크가 불어 닥쳐 갤러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더군다나 매부는 가난한 화가를 지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수입은 줄고 지출이 많다 보니 갤러리 운영이 어렵게 되어 75년도에 화랑 문을 닫았다.

매부의 도움으로 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관세사로 일했다. 관세사는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나가는 물류에 관세를 책정하는 일을 했다. 1975년에 시작하여 2017년까지 근무했다.

극작가 임희재 – '아씨'의 모델은?

유명한 극작가 임희재 선생은 금산군 남일면 성곡리가 고향이다. 1969년 이후 1971년에 위암으로 세검정에서 작고하기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사촌 중 이리에서 공부하고 교사가 된 분이 임희재 작가였다. 그러나 오래 교직에 있지를 못했다. 부인이 있는데 새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이 있어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새로 얻은 분은 술집을 하던 분이었다. 세검정 집에 막걸리가 항상 있었다. 직접 빚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방문하면 항상 술 한잔을 권하곤 했다. 작가는 말씀이 없고 성품이 온화한 분이었다. 작품 활동도 세검정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세검정 집은 암반 위에 지은 2층 구조로 된 당시로서도 고급 주택이었다. 암반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곳에 술단지를 놔두고 매일 조금씩 마셨다. 그때 작은 부인하고 살았던 기억이 난다. 임동진은 화랑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화랑에 일이 많지 않아 자주 심부름을

했다. '아씨' 원고를 받아 방송국에 전하는 심부름을 했다. 원고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에 없지만 방송국 심부름을 하면 수고비를 두둑히 챙겨주셨다.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 인사차 가도 용돈을 후하게 주셨다. 그때는 돈을 돌돌 말아서 담배처럼 말아서 군복 상의 호주머니에 살짝 꼽아 주셨다. 아내 눈치 보시느라고 그러셨던 것이다. 작은 어머니도 용돈을 주긴 했지만 작은 아버지 임희재 선생 같지는 않았다. 돌이켜보면 임희재 선생은 정이 많은 분이셨다.

임희재 선생 슬하에 2남 1녀를 두셨다. 임왕, 은구, 호야 모두 본부인 소생이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소생이 없었다. 막내 임호야는 성장해서 속초 해수욕장에서 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중 큰아들이 임왕이라 하는데 한 살 많긴 했지만 아주 각별하게 지냈다. 함께 명동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돈이 떨어져서 세검정까지 걸어 온 적도 있다.

임희재 작가는 세검정 2층 집의 1층 안방에서 작품을 썼다. 처음'아씨'가 방영 되었을 때 일본 작품의 표절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작가의 말에 의하면 집안 형수가 모델이라고 했다. 원고료 받아서 작품에서 모델로 삼았던 형수에게 미싱도 사주었다.

정작 모델이었던 형수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다. 시골에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드라마 작품에 모델이라지만 어려웠던 시절을 그린 작품이라 마음 한 켠에는 울적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드라마라는 이야기만 듣고 정작 작품을 못 보았으니 이것도 시대의 한 아픔으로 느껴진다.

드라마 창작과 위암

'아씨' 드라마가 종영되기 전에 임희재 작가가 암에 걸렸다. 작가는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했다.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암으로 진단을 받고부터 케일을 것을 많이 드셨고, 입원을 자주 했다. 9개월여의 투병생활을 마지막으로 드라마계의 큰 별이 졌다. 병원은 청와대 근처 작은 병원이었는데 세검정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암투병 중에도 세검정 자택에서 작품을 썼다. 위암의 발병은 작품활동을 하면서 얻은 스트레스가 아닌가 한다. 시청자들의 열광에 또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매회 방영되는 드라마 원고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감에 몰리면 스트레스는 가중 되었을 것이다. 이래 저래 건장을 해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면 위암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던 드라마의 작가가 드라마가 종영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국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급하게 작가를 구해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원 작자를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작가가 남긴 작품의 원고는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작가의 장남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원고가 방송사에 전달이 되고, 방송국에서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어 베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야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의 원래 원고도 그렇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에 몰두하느라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의 거두였던 임희재 작가의 친필원고도 제대로 보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드라마는 시청자들과 함께 쓰여 진다. 당시에 작가에게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한다. 드라마를 보고 난 소감도 있었겠지만 다음 회차에는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좀 넣어 달라는 팬들의 전화였다.

연예인들의 출입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눈에 띄게 출입을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말이다. 작가가 당시 교류하던 사람들은 연예인 강부자, 가수 이미자였다. 동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었다. 주로 밖에서 만났다고 한다. 지금처럼 관심을 보이는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인터뷰어_ 박광수>

금산군
금산인의 삶

황 선 매 (1944년생)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노하우로 산 세월



할머니 혼백을 든 어린손자

황선매가 6살 때 조부가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조모는 확연히 기억한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조모와 함께 고모 할머니네로 피난을 갔다. 하룻저녁 머물렀지만 너무 무서워 막무가내로 조모를 졸라 집으로 돌아왔다. 성곡리 집으로 돌아 왔지만 인민군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조모와 함께 앞산 굴에 숨어있다가 조모가 굴 안에서 질식하여 돌아가셨다. 살기 위해 손자를 데리고 피난을 했는데 그 일이 도리어 죽음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어린 황선매는 할머니의 혼백을 들고 앞장섰다. 경황없이 어린 손자는 그렇게 조모와 이별을 했다. 인민군들은 성곡초등학교에 불을 놓아 태워 버렸다.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시각에 학교는 화마에 휩싸였다. 당시 어른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아이들만 영문도 모른채 불타는 학교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은 죽지 않았다. 학교가 소실되는 바람에 4키로나 떨어진 금산읍내 중앙국민학교를 다녀야 했다.

학교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먼 읍내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공부에 취미가 생기질 않았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공부가 싫었는지 모른다. 그저 숨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았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다. 중학교는 진학했지만 걸어서 통학하는 것이 싫어 2학년까지만 다녔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외아들로 성장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렸다. 예전에는 아들, 손자는 집안에서 대우가 달랐다.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왜 그렇게 겉돌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후회된다.

대전으로 가출 아닌 가출을 했다. 대전에 넷째 아버지가 살고 있어서 무조건 대전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막연했다. 마침 옆집에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멋있어 보였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으니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대전 유승기업사에 한번 가서 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유승기업사는 자동차 검사장까지 겸하고 있던 큰 기업이었다.

자동차에 눈을 뜨다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눈썰미는 있었다. 정비기술을 배우다 군 영장이 나와 입대를 했다. 정비기술이 있어 수송부로 배치를 받았다. 수송부에서 정비를 하다 운전을 하고 방첩대장 차를 몰며 높은 분 모시느라 고생하다가 67년 7월에 전역을 했다.

전역 후 3일 쉬고는 다시 유승기업사에 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월급을 더 준다는 조건으로 충남공업사로 옮겼다. 여기서 1년 일하고 현대서비스 시험을 보아 다행히 합격하여 이직을 하였다. 울산으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대우 조립부로 옮겨서 일을 했다. 정비 기술이 있어 만능이었다. 인력이 부족하면 달려가서 지원하는 꼴이 되었다.

조립라인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다음 공정에 지장이 있다. 조립을 하는 데 좀 재주가 있어 보이는 직원이 있어 더 많은 일감을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자기가 맡은 공정을 처리 못해 일에 지장이 생긴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인물이 정몽구였다. 당시에 그 사람도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몽구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한번 술 먹고 대판 싸웠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실수해서 사람 골탕을 먹이느냐는 이유로 한바탕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 4개월 후 그는 현대서비스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지금 생각하면 좀 살살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몽구가 사장이 된 후 자꾸만 찾아왔다. 뭔가 일을 시킬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엮이는 것이 싫어 숨어 다니다가 다시 대전으로 발령이 났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대전서비스 공장을 지은 것이다. 천막을 치고 하던 일을 이제는 건물을 짓고 했다. 대전 공장을 짓고 준공식을 하는데 정몽구가 직접 와서 찾았다. 뭐하고 싶으냐고 물었지만 그냥 정비가 좋다고만 했다. 사실은 학력이 약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과장이나 계장을 하려면 뭔가 학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느니 공연한 자존심만 내세워 거절한 것이다.

인삼의 힘

대전에서 서울 관악공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제는 현대건설 공사현장으로 옮겨 간 것이

다. 서울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부모님을 뵈러 금산으로 내려 왔다가 인삼 실한 것을 구입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은근히 고참에게 인삼을 전달했다. 인삼의 효과가 금방 나타났다. 그날 오후에 영산강 하구 공사하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 당시만 해도 인삼을 구해서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온 것이다.

5년 8개월간 꼼짝없이 섬에 갇혀 살았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관악공장으로 돌아왔다. 재차 인삼의 효과를 본 것이 영광 원자력으로의 발령이었다. 영광에 도착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넷째 아버지가 인민군들에게 끌려가 보초를 섰다는 이유로 연좌제가 적용되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다시 인삼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썼다. 이번에는 서산간척 공사, 그 유명한 정주영공법으로 둑을 막은 서산 A,B지구로 발령이 났다. 가자마자 뚝 막이 공사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외국에는 못 간다고 버텼다. 외국 가려고 현대건설 들어온 줄 아느냐고 이유 아닌 이유로 버텼다. 결국에는 일본에 가서 30억 원이 넘는 장비를 사오는 팀에 합류했다. 외국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으니 죽을 맛이었다. 며칠 만에 돌아서서 대산석유단지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었다.

현대공사도 마지막이구나

대산공장에서 급기야 사우디 공사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거부했지만 사람 하나를 달려 보낸다는 말에 가게되었다. 가서 보니 영산강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기계를 고쳐야 해서 난감하던 차에 직접 합격증을 주었던 사원 둘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점을 물으니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 반장인 제보자를 초청했다는 것이었다.

난감했다. 처음 보는 기계고, 전부 영어나 한자로 되어 있어 처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도 오기가 생겼다. 마음속으로는 가망이 없는 일로 느껴져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현대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열 번도 넘게 뜯어 보았다는 이야기만 한다. 다시 뜯으라 하고 살펴보니 스프링에 왕겨가 끼어 있었다. 요놈이 방해를 해서 작동을 안 했던 것이었다. 자세히 보라고 얼마나 강조했냐 큰소리를 한번 치고 조

립해서 기계를 돌였다. 아니 왕겨 하나 찾지 못해 돈 들여 여기까지 나를 불렀느냐 핀잔아닌 핀잔을 퍼부었다. 그 일로 인해 어깨가 더욱 올라가게 되었다.

내 눈에, 내 손에 걸리면 못 고치는 것이 없다

유승기업에서 정비를 시작해서 현대에서 정년하기까지 28년간 정비로 청춘을 보냈다. 처음 유승기업에 몸을 담았을 때 정비자격증도 없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척척 정비를 해냈다. 어떻게 보면 눈썰미가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영산강 하구 공사에는 대략 기계가 70가지 정도 있었다. 이 모든 기계를 정비해야 했다. 기계 고장이 없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기계가 멈춰 버리면 그 공정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정지 되었으므로 정비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사용서는 모두 외국어,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를 몰랐지만 궁하면 통하는 법, 기계를 분해하면서 드라이버로 표시를 하는 것이 노하우였다. 조립할 때 드라이버로 표시한 것을 찾아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정비 방법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혼자만의 노하우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고향이 좋아, 친구가 좋아

평생 기름밥만 먹고 살았다. 배움은 짧았지만 누구 못지 않은 정비실력으로 평생 황반장이라는 별명으로 살아왔다. 때로는 공부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릴 수 없는 일, 자책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못 배운 서러움도 있었지만 후배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딱 하나 드라이버로 표시하는 노하우는 빼고서 말이다. 많이 가질려는 욕심도 버렸다. 두루 나누어 주고 어려운 후배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못 배운 것이 자격지심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산 AB지구 물막이 공사 때 소위 정주영공법이 쓰이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한 점, 정몽구 사장을 만났으나 그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 그러나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년을 하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외지에서 홀로 생활했던 것이 익숙해서인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웠다. 집에서만 있자니 가족들의 잔소리가 피부

로 와 닿았다. 현직에 있을 때와 은퇴를 했을 때의 사회적 분위기도 달랐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둥, 잘 나갔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말만 토해 냈다.

심신이 쇠약해질 때, 손짓하여 부른 곳이 고향이었다. 그리고 고향에 사는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셨던 집도 있고, 전답도 있는 고향으로 고민하지 않고 돌아왔다.

<인터뷰어_ 박광수>

금산군
금산인의 삶

김 광 수 (1957년생)
금산군 부리면 압수길

도전의 나날들



보리밥을 먹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 때 나주에서 이주하여 자리 잡은 곳이 압수였다.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삼촌이 익사한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 고향을 떠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 슬하에 아들은 아버지뿐이었고 고모가 넷이었다. 부친은 뭐 그리 급하셨는지 아들이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작고하셨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남기고 일찍 세상을 뜨셨다. 유복자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유복자나 다름없었다.

할아버지가 부지런하셔서 머슴을 두고 일을 하셨다. 남들은 보리밥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보리밥이란 것을 먹어보지 못했다. 가세가 넉넉하기도 하였지만 2대 독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큰 벼슬이었다.

막내 고모에게 업혀 다녔다. 고모가 학교 다닐 때도 업고 학교에 갔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7살 때 입학을 했다. 남들보다 1년은 빨랐다. 나이 터울이 있어 1학년 마쳤을때 고모는 졸업을 했다.

신촌의 금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대전에서 하숙과 자취를 했고, 중학생으로 아이스께끼 장사를 했다. 방과 후에 아이스크림 대리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께끼통에 넣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다. 학교 앞에 가면 학생들이 많이 팔아 주었다. 계산해서 본전이 남으면 그때부터는 팔지 않고 죄다 먹었다.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모두 먹어 치웠다. 그래도 장사 수완은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해야 할 일

대전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고향인 압수로 들어와 소로 쟁기질도 하고, 산에서 나무도 하고, 농사 지을 준비를 했다. 오직 빨리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군복무는 2대독자라는 조건으로 방위로 근무를 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만 경찰서에 가서 근무했다. 24살 때 강 건너 마을 평촌의 양씨 집안과 혼담이 있어서 결혼했다. 중매반 연애반으로 보면 된다.

결혼하기 전, 당시 4H활동이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었고, 마을회장을 하면서 가마

니를 짜서 판매하고, 산을 개간하여 호박도 심고, 농촌발전을 위해 선두적 역할을 했다. 특용작물에 눈을 뜬 것이 그때였다.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약초에 대하여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것이 20대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약초 재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오로지 약포에 매달리는 인생이 된 것이다.

객지삼장을 시작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을 위해 대전 목동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갔다. 어머니, 아내, 아이들 이렇게 3대가 한집에서 살았고 당시 목동에 목원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숙을 쳤다.

압수에서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대전에다 밭을 얻어 삼을 키웠다. 이런 경우 객지삼장이라 했는데 그것도 선도적인 일이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금산에만 머물지 말고 좀 지역을 넓혀서 농사, 삼농사를 지어 보자고 강조하였고, 그 이후로 금산 이외에서 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심천에 2천평 땅을 구입하면서 삼장을 시작해 재미를 보았다. 다시 울산까지 가서 남의 땅을 얻어 삼장을 했다. 울산은 산이 능선져 있어 바람이 따고드는 바람에 삼이 좋지 않았다. 다시 홍성으로 이주하여 삼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1만평 정도의 규모였다. 홍성에서 다시 온양으로 옮겨 삼장을 하다가 대전으로 왔다.

잔대와의 인연

대전에 와서도 한 만평 가까운 면적에 삼을 심었다. 잔대를 2만평 넘게 심었다. 당시는 잔대를 심는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잔대재배였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산에서 잔대를 보고 이것을 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씨를 받아다가 심어 재배 면적을 늘렸다. 소득도 좋은 편이었다. 대개 6년 동안 키워서 판매한다. 씨는 9월 중순경에 채취하는데 씨포 하나에 100여 개씩 들어 있어 씨앗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 뿌리와 잎 모두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유리했다.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가공판

매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다.

뿌리와 잎의 성분도 조사하고, 반죽기도 구입하고, 칼국수 틀도 사서 나름대로 설비를 갖추었다. 성분분석 결과 국수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이 섰다. 직접 국수를 빼서 시음도 했는데 다 좋다는 평이 나왔다.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하지만 잔대를 이용하여 가공식으로 활성화하자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국수에 머물지 않고 떡도 만들었는데 하루 동안 굳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잔대가 가지고 있는 사포닌의 영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냉면에 도전을 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잔대를 활용한 냉면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있다고 본다. 잔대의 장점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공해, 친환경, 무농약 등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로서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잔대 재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잡초만 관리해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도라지는 옮겨 심어야 썩지 않고 잘 자라지만 잔대는 옮겨 심을 필요가 없다. 물론 시비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거름도 잔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잔대는 한약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여전히 한약재로 소비되고 있지만 식품으로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가공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칼국수나 수제비, 냉면으로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무릉도원을 꿈꾸다

성주산, 양각산 두 산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마을이라 전답이 없다. 물론 산에서 나는 나물은 풍부하지만 그것도 한철이다. 소득원이 없다보니 주민들이 떠나 이제 마을이 텅 비게 생겼다.

산에 둘러 쌓여 있어도 산 하나만 넘으면 금강이다. 금강을 활용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니다. 30여 년 만에 돌고 돌아 이제 귀향했다.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만년을 보낼 곳은 고향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장을 맡아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업이 금강가의 길을 걷는 길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금강가에는 예전에 나무하러 다니던 오솔길이 있었다. 사람은 변했으되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 아니어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우선 대나무 배를 만들어서 체험을 시작했다. 호응이 좋았다. 왜냐하면 강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금산 지역의 강은 청정한 곳이어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마을 진입로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 중이다. 개복숭아 씨앗을 구해 묘판을 만들어 심어 놓았고, 벚꽃으로 조성하려고 양겹벚꽃 나무 묘목도 준비했다. 모든 것을 사비로 하려고 하다보니 어렵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즐겁다. 그러나 이곳은 금강유역 수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청석광, 금부광산이 있었다

마을 뒤에 청석을 채취하던 금부광산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청석을 채취하던 곳이었는데 광복 이후 금부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채석을 했다. 20여 년전에 폐광이 된 후 무너져 입구가 막힌 갱도도 있고,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는데 그저 방치된 상태이고 물이 고여 있어 위험하다. 실제로 갱도에 빠져 도움을 받고 나온 사람도 많았다.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 이곳을 찾는 사람은 전혀 없다.

당시 청석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깊은 곳은 7, 80미터 이상 되었고 3, 40미터가 넘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폐광을 들어가 보면 파란색의 광물질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줄기가 큰 쪽으로 파들어 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인근 평촌, 예미, 어제리에 사는 주민들이 광산에서 일을 했다. 마땅히 일자리가 없던 곳이라 이곳 7, 80대 어른들은 모두 청석광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때때로 돼지를 잡아서 회식을 하는 날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외지에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은 방을 얻어 생활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간이 막사를 짓고 생활했다.

물반, 물고기반

금강에는 물고기가 많았다. 가물치, 붕어, 빠가사리, 꺾지, 쏘가리, 돌종, 감돌고기, 쉬리, 모래무지, 불재개미, 재개미, 기름쟁이, 메기, 자라,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가 있었다. 주로 활채로 잡기도 하였지만 종선이라는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

람도 있었다.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는데, 그물은 고기 종류에 따라 그물코 크기를 조정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밤에 그물을 놓았다가 하루 종일 손질해서 읍내에 내다 팔기도 했다.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그물을 쓰는 어로 방법이었다. 보통은 어구 없이 물안경만 쓰고 들어가 작살이나 활채를 이용하여 잡았다.

겨울에 얼음이 얼면 떡메로 고기를 잡았다. 얼음이 얼면 투명해서 얼음 속에 움직이는 고기가 훤히 보인다. 고놈을 계속 쫓아다니다 멈춘 것을 보면 떡메로 얼음을 깨고 대나무로 만든 긴 창으로 잡았다. 겨울 고기는 유독 맛이 있었다. 회로 먹던지, 매운탕으로 해서 먹었다.

<인터뷰어_ 박광수>

금산군
금산인의 삶

김 태 동 (1937년생)
금산군 남일면 하초현2길

초현리의 명현



한학을 하신 부친

김태동은 남일면 초현리가 고향이다. 어려서 부모님과 4남2녀 동기간이 살았다. 부친은 문필가였다. 이곳 저곳 현판 글씨를 많이 남기셨다. 한학을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면 식사를 제공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셨다. 농사도 많이 지으셨다. 일꾼이 둘이나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오더니 부모님을 끌어다 공회당 앞에 앉히고 공개처형을 하겠다고 엄포하였다. 부모님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마침 이웃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진정을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처형이 하루 미루어 졌다. 그러다 내일 공개처형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고 부모님이 처형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부모님은 살아남으셨고, 두 분 다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셨다. 부모님은 목숨을 구했지만 일가인 칠촌은 나이도 어렸는데 600고지로 끌려가 인민군에게 죽었다. 어린 나이에 절체절명의 순간을 목도한 후 장기복무를 생각했다. 그래서 하사를 지원하여 교육을 마쳤는데, 갑자기 대위가 끌고 가더니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유도 모르고 옷을 벗었더니, 그가 안되겠다는 말을 하였다. 중학교 다닐 때 태극기 문신을 한 것을 보고 한 말이었다. 이유인즉 북한에 간첩으로 보낼려고 했다는 것이다. 문신 덕분에 북한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투철한 국가관이 자리잡았고, 그래서 7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

제대 후에 인삼재배를 했다

전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최종 학력이 중2가 되고 말았다. 21살에 군에 입대를 했다. 논산 연무대에서 훈련을 받고, 김해에 가서 공병교육을 받았다. 그 후 대전, 조치원에서 근무를 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인민군에게 공개처형당할뻔한 사건으로 인해 군복무에 더욱 열심히였다. 그래서 사병으로 가지 않고 하사관으로 지원하여 7년간 군복무를 이어갔다. 논산 처녀를 만나 군복무를 마치자 마자 결혼을 했다. 64년도부터 초현리에서 농사일을 했다. 논농사, 밭농사보다는 인삼농사가 소득이 많을 것 같아 삼장을 했다. 삼을 재배하여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논 2천평도 구입했다. 그러나 논농사와 인삼으로 2남 2녀를 키우기에는 매우 벅찼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부천으로 가 경비일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아는 사람 소개로 수영

장에서 일했다.

초현리의 유래담

초현리는 남일면 소재지이다. 오래 전 살기가 어려 웠던 시절에 두 노인네가 호랑이 새끼를 모르고 데려다 키웠는데 나중에 산신령이 현몽하여 진악산으로 오면 새끼 호랑이를 키워준 보답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진악산에 도구통바위가 있는데 그 형상이 뾰족한 촛대를 세워놓은 형국이었다. 두 노인이 그 앞에 서니까 산삼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 산삼을 초현리로 넘어오는 산에 심어서 보급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신령스런 산 고개를 평탄 작업을 했다. 이곳은 또한 공민왕이 피난 왔을 때, 공민왕이 윤택 삼부자를 직접 불러 자기의 사후지지로 초현리를 택했노라는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런 이야기는 천내리의 용호석이 공민왕이 자신이 죽어 사후지로 초현리로 자리를 정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새운 것이라는 전설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용호석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민비에게 시침한 명의

사실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 민비에게 시침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한다. 민비가 순종을 출산하고 몸이 불편하던 중 진악산 남쪽에 있는 보석사에 순종의 유모를 대동하고 방문하였고, 이때 침을 잘 놓는 곽재수라는 분이 찾아가 시침을 했다는 것이다. 순종도 많이 아팠으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갔다고 한다. 유모는 보석사에서 죽어 보석사 근처에 묘를 만들었다고 한다. 초현에 살던 곽재수라는 분이 한양까지 가서 시침하여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민비가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 와서 기도하였다는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금산 남일면 부석사에서 있었던 일로 새롭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곽재수라는 분이 의술이 뛰어나 인구에 회자되었다면 이야기의 부연은 더욱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초현리 새터 이야기

초현리의 한자명은 풀 초(草), 고개 현(峴)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운현(雲峴)이라는 지

명이 먼저 있었다는 주장이다. 운현이 초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는 초현리 출신인 윤택의 가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초현으로 불리는 곳은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병용되고 있다. 마을은 달리 새터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명으로 초현이'새고개'란 말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산과 산 사이를 뜻하는 사이가 새로 변하여 쓰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새가 한자로 새 조(鳥)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지명에 종종 보인다. 초현이 풀초자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사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른 예로는 풀을 우리말로'새'라고 하였던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풀 초(草)가 적용이 된다. 초현리의 경우가 풀 초로 표현되어 풀고개, 초현(草峴)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초현리를 새터라고 한다. 그 뜻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 새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新基)로 표기 해야 하는데, 초현이라는 지명과 거리가 생긴다. 새터라는 뜻은 단지 풀이라는'새'에 더 가까운 말로 여겨진다. 마을과 고개이름이 동일한 상황에서 마을 이름만 다른 뜻으로 이해되는 것도 어색하다. 더군다나 초현리는 금산에서 진안으로 가는 도로상에 있는 마을로 진안산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서쪽과 북쪽을 막아주어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의 역사가 오래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생긴 마을의 의미로 새터라는 지명은 어울리지 않는다.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한 예는 마을 앞에 있는 노거수 느티나무다.

나라의 병란을 알렸던 노거수

역사가 오래된 마을에는 상징적으로 노거수가 자리하고 있다. 초현리에는 800여년이나 되었다는 고목이 인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주된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나무는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다. 정월 초하루, 마을 주민들은 노거수를 대상으로 치성을 드렸다. 삼줄을 걸고 풍장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는 다른 마을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 특히 액막이 황토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곳 초현리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광복이 되기 전날 오후 두시쯤 바람도 없었는데 나무에서 으유~~하는 소리가 났고, 6.25 발발 며칠 전에도 웅~하는 소울음 비슷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운을 미리 알고 소리로 알려 주었던 노거수는 지금도 건재하게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노거수 근처에 진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에는 굴이 있었고 그 바위 굴을 사랑하는 연인이 통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마을에 전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 바위가 하천공사로 없어지고 말았다.

초현리 비석재

초현리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향선생을 기리는 계모임이 있다. 향선생이란 서당의 훈장님을 지칭하는 말로 이 지역에서 칭하는 말이다.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아름다운 풍습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초현리는 고려 말엽 성리학의 수용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윤택·윤귀생 부자가 은거하여 학문을 가르쳤고, 조선 초에는 단종 때의 충신 곽사의 후손을 비롯한 사족들이 세거하면서 유림의 고장으로 일컬어졌다. 이러한 뿌리 깊은 도학의 전통은 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초현리 한 마을에서 무려 10여 명의 향선생이 등장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 결과 20세기 초현리 마을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문인계가 결성되어 향선생들의 아름다운 업적을 기리고 있다.

초현리의 향선생은 19세기 중엽의 난포(蘭浦) 김덕수(金德洙)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난포의 문하에서 배출된 죽포(竹圃) 신영석, 경암(敬庵) 곽병훈, 국당(菊堂) 김용, 학정(鶴汀) 정기섭 등이 사숙을 열고 후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학문에 뜻을 둔 문생들이 다투어 초현리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훗날 같은 서당에서 동문수학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각각 계를 조직하여 스승의 추모비를 세우고 학덕을 기리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각 문인계마다 날짜를 달리하여 비제(碑祭)를 지내며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한다.

<인터뷰어_ 박광수>

나 희 규 (1936년생)
금산군 군북면 현대1길

금산향교에 대한 단상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다

조부모님, 부모님 4형제 중 둘째, 당시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이었다. 나이 13살 때 부친이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선비셨다. 일은 안 하시고 향교에 다니시는 일이 전부였다. 어느 날 삼장에 두더지를 잡으려다 뱀을 움켜쥐고 얼떨결에 몸을 일으키던 중 총대에 이마가 깨졌는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갑자기 복수가 차 금산읍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부님은 구학문을 하신 분이라 배를 가르고 수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사이 병세가 심해져 대전 도립대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장남인 형은 신학문을 허락하셨지만 둘째에게는 공부가 허락되지 않았다. 신학문보다 서당을 권하셨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3살 무렵이었다. 그래서 학력이 초등 4학년 중퇴가 된 것이다. 아버지 간호를 13살짜리가 도맡았다. 부친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집안 가세가 어렵게 되었다.

신학문은 포기하고 서당에 나가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을 읽었다. 독학을 하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를 보면서 공부했다. 한학책도 뒤에는 해설을 잘 해 놓아서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읍내에서 오시는 선생님은 엄하셨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서당이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이나 오후나, 아니면 밤에도 찾아가 공부했다. 공부하는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선세경, 절대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금산에도 머슴을 두고 일하는 집이 많았다. 대부분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다. 나락으로 세경을 주었는데 후대에는 쌀로 세경을 주었다. 소재지 술집에서 오고 가며 마신 술값을 치르기 위해 선세경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면 일년 내내 일을 해보았자, 술집에 다 퍼주고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았다. 가난을 벗어나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봄에 양식이 부족하여 꾸어다 먹으면 그 집에 가서 며칠씩 일을 해주어야 했으니 어느 세월에 가세가 필 수 있었겠는가. 올해 해결 못하고 다음해에도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반면에 부유한 집의 주인은 40세만 되면 손에서 일을 놓았다. 살피나 끼고 다니면서 어른 행세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손자를 당신의 수족으로 부린 조부

조부는 손자의 신학문 교육을 반대하셨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우수학생이었는데 조부의 뜻은 완고하셨다. 담임선생님이 찾아와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권고에도 오직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못 하게 막았고 13세 때, 4학년을 마친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반면에 맏형은 집안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서울 모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그 형님은 정치에 뜻을 두고 활동했으나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한학을 강조하셨던 조부는 향교에 출입할 때 반드시 손자를 앞세웠다. 아마도 당신의 수족처럼 생각하신 듯했다. 그래서 일찍 향교에 몸을 담아 장의, 전교를 하게 되었다.

금산향교

금산향교는 지금의 자리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록을 보면 금산읍에서 서쪽으로 5리에 있었다고 전한다. 백학동이라는 지명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처음 있었던 서5리 백학동에서 양성대로 이건했다가 다시 괴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조 33년 1600년에 양성대 뒤에 신축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아마도 임진왜란시에 소실되었던 모양이다. 1715년에 괴천으로 이건했다가 양성대 위로 1759년 원자리로 오게 된 것이다.

금산향교의 구조는 전학후묘로 되어 있다. 대성전이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그 앞에 명륜당이 있고, 앞에 동서로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다. 동재는 양반집 자재들이 공부하던 곳으로 액내원이라 별칭으로 불렀고, 서재는 평민들 자제가 공부하는 곳으로 액외원이라 했다. 향교의 조직은 유계로 철저하게 분조를 나누어 운영했다. 물론 충효를 가장 근본으로 교육하고, 효열, 효부들을 선양하는 일도 하고 있다.

향교 앞에는 하마비가 있어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고 외삼문을 통하여 출입하되 동입서출을 철저하게 지켰다. 여자들의 출입은 없었다. 조선조가 가부장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향교에서는 허드렛일조차 여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장의 들이 모든 일을 했다. 여자들의 출입이 허락된 것은 해방 이후로 기억한다. 금산향교는 대략 20년 전부터 여자들 출입이 허용되었고 이제는 여성 유림회도 있어 활동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이치이지만, 춘추 석전제도 변했다. 2, 8상정이라 해서 2월과 8월 첫 정(丁)자 든 날 제를 지냈는데 성균관에서 공자님 기일인 5월 11일에 춘제를 지내고, 공자님 탄신일인 9월 28일에 추제를 지내자고 권장하는 바람에 경상도 지역에서는 예전의 기일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성균관의 권유를 따라 지내고 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 조차 춘제는 2월 상정을, 추제는 9월 28일로 지내고 있다. 금산향교는 성균관의 권장을 따르고 진산향교는 원래로 환원하여 지내는 것 같다.

석전 경비는 각 향교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도조를 받아 충당하였다. 그리고 유계에서 추렴한 것으로 충당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 같다. 향교에 관여하는 연령대가 젊어지긴 했지만 60세 연령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여자 회원들이 50대 후반 정도, 60대 안쪽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회원 수는 감소하고, 예전부터 필요했던 경비는 그대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관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향교 출입하면 혼사문이 열린다

예전에는 향교를 출입하면 혼사문이 열렸다는 말도 있었다. 양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혼사가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7~800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현 상황은 그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1년에 1만원을 회비로 내면 유림이라고 한다. 별도로 유도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략 200명 안쪽이다.

유계를 보면 효, 열, 정문 등의 내용이 나온다. 금산향교 자체적으로 천거하여 상을 주었다. 성균관에는 보고되지 않는 자체적인 지역의 행사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일이었다. 금산향교는 7개 읍면이 해당하고, 진산향교는 3개 면이 해당된다. 같은 금산군 단위에 있는 향교지만 각각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향교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효열을 표창하여 지역사회에 윤리 도덕을 암암리에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한 부분인데 향교에서만 하는 일로 각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려문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정려의 의미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들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방법론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산의 11개 사우와 향교

현재 금산지역의 사우는 11개소다. 매년 제향을 올리는데 각 문중에서 해오던 제향을 이제는 대부분 향교에서 하고 있다. 문중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제향의 절차를 모르고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 문중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제향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 향교에 의뢰하여 제향을 올린다.

문중의 행사지만 넓게 보면 금산군의 일이다 보니 향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문중에서 참석하는 후손들도 많다. 이제 문중의 행사에서 향교유림의 행사로 고정되다시피했다. 후손들은 제향에 참석만 해도 다행이다. 집사나 헌관은 모두 향교에서 정하여 제향이 이루어지고 있어 편하게 느낀다. 제향에 필요한 제수도 지원을 한다.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문중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금일봉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서당에 다닐 때 훈장님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표현하고 진도를 나갈 것만 생각했지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그래도 통감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어서 재미가 있었다. 훈장 선생님은 매도 잘 들지 않았다. 여러 명을 지도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현명하게 지도하셨다.

청소년들은 지도하다 보면 사서삼경이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사실 충, 효, 열을 재미있게 여길 사람은 없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는데 옛것만 그대로 고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향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들에게 윤리강령만 나열하는 식의 제도와 교육은 문제가 있다. 유림교육의 한계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전 서당에서 공부할 때, 구옥편을 활용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원문에 토도 달아 놓았고 해설도 훌륭하게 해 놓아 혼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

어 있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혼자 책으로만 공부할 수는 없다. 책과 선생님의 지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13살 적 서당에 다닐 때만 해도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다. 구학문을 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해설이 잘 되어 있는 책이 시중에 쏟아져 나왔다. 지금처럼 종이 질은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최상의 상품으로 취급되었다. 그런 책을 구입해서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했다.

당시 소설책도 많이 나왔지만 즐겨 보지는 않았다. 가끔 훈장님이 옛 성현의 고사를 이야기해주는 정도였지 소설, 이야기책에 대한 흥미는 별로 없었다. 특히 향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허탄한 이야기를 즐긴다는 것은 금기였다.

<인터뷰어_ 박광수>

금산군
금산인의 삶

심 연 보 (1941년생)
금산군 남이면 외말길

고단했던 과거



조실부모-그리고 보석사 고아원

심연보는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11대조부터 성곡리에서 사셨다는데,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다. 아버지는 여섯 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네 살 때 돌아가셨다. 혈육은 오직 하나 누나만 있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없다. 그러나 보석사에서 살았던 기억은 생생하다.

아버지 형제분, 그러니까 삼촌들도 살고 있었으나 모두 어려운 시절이라 조카를 거둬 키울 여력이 없었다. 누이와 함께 보석사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지냈다. 그 당시에 미군들이 원조하는 보조비를 받아 보석사에서 일시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누나는 얼마 있다가 고아원을 나갔다. 아마도 파출부 일을 한 듯하다.

고아원은 대웅전 밑으로 한 200미터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대략 열 명쯤이었던 것 같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보석사의 고아원이 없어져 성곡리로 돌아왔다. 보석사 고아원에 대략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 형제는 4형제였다. 한 분은 일본에 가셨다는데 소식이 없었다. 두 분만 성곡리에서 사셨지만 두 분 삼촌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보석사에서 먹고 자고, 친척집에 더부살이하는 것보다 편했다. 보석사에서 학교도 보내주었다. 보석사 아래에 있는 석동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다.

보석사에서 나와서 작은 집으로 갔다. 사촌들도 있어 생활이 어려웠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누나는 동네에서 남의 집 일을 돕다 결혼하고 마을에서 살았다.

머슴살이

보석사에서 나와 작은집에서 살때에 생활이 곤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보석사에서 4학년까지 보내주었지만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작은 집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 한 집에만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생각다 못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나이가 어려서 세경을 많이는 받지 못했다. 그저 삼시 세끼 밥이라도 먹는 것이 다행이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깔머슴이라고 해서 소먹이를 주로 담당하면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성년이 되어 22살 때 금산읍에 사는 17살 처자와 혼인을 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가의 사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식도 간략하게 했다. 살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22살에 결혼하고 그 이듬해인 23살 때 아들을 낳고 입대를 했다.

제대 이후에도 가세는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남의 집 곁방이나 얻어 살고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그날 그날 살았다. 금슬은 좋았는지 아들만 일곱 두었다. 사실은 딸을 낳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게다가 형제가 없이 자라서 많은 자식을 생각하기는 했다. 당시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라 문제는 없었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 가서 아내가 단산 수술을 했다.

진악산의 산삼

성곡리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산이 진악산이다. 진악산은 매우 높은 산이라 금산읍내에서도 보인다. 예전에는 나무가 연료였기 때문에 농한기인 겨울에 나무를 하느라고 더 바빴다. 농한기가 아니라도 금산은 인삼밭에 사용할 풀이 상시 필요하여 늘 지게를 지고 산으로 풀을 베러 다녀야 했다.

어느 날 진악산으로 풀을 하러 갔다가 산삼을 캤다. 당시로써는 몇 년근인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읍내에서 사람이 와서 팔라고 해서 몇십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산삼을 캐는 기회가 있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여 자식에게 먹일 생각도 못하고 모두 팔았다.

전문적으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도 있었지만 금산지역에서는 우연히 삼을 캤다는 기사가 종종 신문기사로 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삼을 캐겠다고 달려드는 경우 산이 황폐해질 수 있었다.

산삼을 캐려면 현몽이 있어야 한다는데, 경험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풀을 베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 어떤 꿈을 꾼 적이 없다. 매번 그런 횡재는 없었다. 금산에서 인삼재 때 진악산에 삼씨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행사가 있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행사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성곡리-200호 넘게 살았다

예전에 성곡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농토는 넓지 않았지만 가구수가 대략 200가구가 넘었다. 마을 아래에서 위쪽까지 무려 4키로, 10리나 되는 마을이었다. 전통 지명도 재미있다. 성곡은 비실이라고 했다. 별성에 골 곡자 인데 비실이라 한 것이다. 사실 비실은 별실이 변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밖에 큰말, 수래끝, 대문걸이, 외말, 웃말, 못아니, 개아니, 지쟁이고개, 수레삼거리 등이 전한다.

성곡리도 전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다. 마을 아래 수레 삼거리에서 큰 전투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젊은 사람이 끌려가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창자가 보일 정도였다. 그래도 살려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구조되어 천수를 누리다가 작고하셨다고 한다.

더욱 심한 피해는 육백고지에 숨어 있던 인민군들에게 당한 것이었다. 마을에 들어와 쌀이며, 소 등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 처음에 내려온 인민군들은 아주 얌전했다는데 나중에 빨치산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들어와 해를 입힌 것이다. 아마도 전쟁 말기에 후퇴하던 무리들이 그랬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수레삼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보훈 대상자가 된 사람은 없다. 분명히 그때 전투하다가 사망했는데도, 유족들이 보훈 대상인 줄 모르고 있었고, 사망신고조차도 전쟁이 끝난 뒤에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증거자료와 증인을 내세워도 보훈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지방에서 발행한 공로증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보훈처에서는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발행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보훈을 인정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유족들이야 큰 보상보다도 공을 인정받고 싶어서 바라는 바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단했던 과거

잠시 성곡리를 떠나 서울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가진 토지가 없으니 매일 남의 일만 해서는 많은 식구를 건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취급하는 일이 있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시작했는데 벌이가 좋았다. 미군부대 측에서도 폐품을 치워주니 좋고,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미군부대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호하던 시절이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때로는 쓸만한 물건도 나왔다. 미군이 버린 것을 다시 조립하거나 용접을 해서 활용하니

아예 용접이나 재활용에 편하게 분리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여건이 좋지 않아 다시 고향인 성곡리로 내려왔다.

성곡리에서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어쩌다 있는 일에 삯일을 해서 먹고 살기는 어려웠다. 나무를 해 금산읍내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생나무와 솔잎도 긁어다 팔았다. 그나마도 장날만 가능했다. 아침 일찍 나무가 팔리면 두 번 왕복할 수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나무는 저녁때쯤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루 두 번은 거의 하지 못했다. 나무를 사는 읍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저녁 무렵에 나무를 구입했다. 심지어 어두워진 초저녁에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

한겨울에는 입성도 좋지 않았다. 하루종일 나무 한 짐 팔려고 손님을 기다리느라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면 나뭇단에서 조금씩 빼서 불을 놓고 손을 녹이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자릿세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어렵게 나무를 해서 지고가서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프니 물도 먹히지 않았다. 기운이 있어서 나뭇지게를 지고 다닌 것이 아니다. 그저 살기위해 깡다구로 버틴 나날이었다.

<인터뷰어_ 박광수>

금산군
금산인의 삶

이 판 임 (1934년생)
금산군 부리면 압수1길

90년을 살다보니



거절한 사주단자

이판임의 나이 20살 때 압수에 사는 고모부가 중매를 했다. 시골에서 더 시골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 마뜩치 않았다. 그래서 사주단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외동으로 자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 친정어머니는 5남매를 낳았다. 아들 셋에 딸 둘, 얼마나 다복한 구조인가.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 행복을 주지 않았다. 위로 오빠 셋, 언니 하나, 어느 해 홍역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막내만 겨우 살아남았다. 부모님의 속이야 말하여 무엇하랴.

그래서 명이라도 길으라고 이름을 판임이라 지었다고 한다. 이름대로 살았는지 무탈하게 큰 병도 없이 잘 살았다. 부모님은 아들이 없어 양자 하나를 들여 키웠다. 금이야 옥이야 자라다 보니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조카 시집 보내려고 고모부와 고모가 무던 애를 쓰셨다. 한번은 중매를 놓은 신랑네 집에 염탐을 가보니 시동생이 될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다. 시어머니는 총 8남매를 두셨다. 신랑은 8남매의 장남,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끌리지 않는 조건이었다. 돌려 보낸 사주가 고모네 선반에 있었다. 고모부가 신랑집에 전달을 하지 않고 조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사주단자가 그대로 있는 것과 혼자 자란 가정환경에 비해 형제가 많은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끌렸다. 시집을 그 집으로 가야 할 운명이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니 홀가분했다. 20살에 시집을 와서 21살에 첫째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도 아이를 낳았다. 한 집에서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다. 내 아이나 시동생이나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들 겸 시동생 겸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다. 신랑은 결혼 1년 후 군입대를 해 낯선 시집에서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많은 시동생들과 살았다. 그때는 군복무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남편이 제대 후에도 압수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 시집에서는 새댁이 사주 돌려보냈다는 말을 한번도 안하셨다. 그래서 참 착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시집은 잘 왔구나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금슬이 좋아서 인지 아들 둘에 딸 넷을 두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압수골

압수골에는 아이가 많다. 왜그러냐면 압수골이 깊은 골짜기라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기 때문이다. 들판인 평촌리 사람들이 압수리 사람들을 평하는 말이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좁은 골짜기에 아이들이 많긴 많았다.

압수는 예전에는 오지로 이름난 곳이었다. 외지사람들이 보면 논과 밭이 전혀 없이 보인다. 그러나 골짜기마다 숨어 있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먹고살 만한 농토는 있다. 압수나루라고 부르던 나루가 마을 앞에 있었다. 외지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외부와 소통하던 나루였다. 사공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번제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뱃일을 보았다. 평촌리와 신촌리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금산까지는 마을에서 30리라고 했다. 하루는 금산 장에 갔다 오는 데 다리위로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마중 나왔었느냐고 물으니 마중 안 나왔다는 것이다.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압수골

압수골은 금산군에서 전기 사용을 제일 먼저 했다. 일제강점기에 성주산 자락 어재리에서 청석을 채취했기 때문이다. 학산에서 전기가 넘어왔는데, 광산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잔불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 전기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은 원만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급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제리에서는 그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였다.

일거리가 없던 시절에 청석광은 주민들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수고비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용의 효과를 보았다. 막장에 들어가 채광하는 사람도 있었고, 운반하여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 고용된 사람도 있었다. 금강가에서 원석을 갈아 가루를 내어 전량 일본으로 가져갔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고 여울이나 나룻배로 통행하던 시절이어서 다리를 놓으려고 자재를 운반해 놓았는데 며칠 안 되어 광복이 되는 바람에 다리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 안 나가고 했을 땐 좋았어요

마을이 금강에 연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천렵을 했다. 남자들이 고기를 잡아 오면 어죽을 쑤어 먹으면서 한여름 더위를 피했다.

당시에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집집마다 조금씩 추렴하여 찬거리를 준비하고, 강에서 다슬기, 물고기 등을 잡아 하루를 풍성하게 지냈다.

꽃뱀과 미시기

맑은 날 갑자기 물이 밀려오는 것을 미시기물이라고 한다. 미시기는 본래 바다에서 밀물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미시기는 여름에 지역성 폭우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초봄에도 자주 목격되었다.

겨우내 강물이 얼어 있다가 봄이 가까워지면 해빙이 된다. 이 해빙기 때 얼음 녹은 물이 모여 괴력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미시기라고 했다. 초봄에 홍수가 질 일이 없지만 상류에서 얼음이 녹아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 영락없이 멍석말이 물이 되는 것이다. 이재는 용담댐이 위에서 막고 있고, 또 얼음이 잘 얼지 않는 기후가 되어서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강에 다슬기 잡으러 나갔다가 꽃뱀이 갑자기 달려들어 급하게 강가로 나왔는데 잠시 후 미시기물이 밀어닥쳤다. 하마터면 미시기에 당할뻔했는데 꽃뱀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꽃뱀은 미시기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피하였던 것을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꽃뱀에게 쫓겨나 목숨을 건졌으니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종종 미시기에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갑자기 오는 것이라서 미처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해 가을 미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락을 베어서 모래사장에 말리려고 널어놓았다가 미시기가 쓸고 가는 바람에 한해 농사를 모두 잃은 경우도 있었다.

나룻배와 수곡

뱃삯을 수곡이라고 했다. 달리 뱃거둠, 거둠이라고도 불렀다. 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나락 한 말, 이렇게 일 년에 두 번만 내고 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이용했다. 봄에 보리가 없으면 호밀도 가능했다. 보리가 없어서 밀로 수곡을 낼 정도라면 어떻게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 없다. 배는 마을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금산읍에 가서 만들어 왔다. 이전에는 나무로 된 배를 썼지만 후대에는 철선이 도입되었다. 나무로 된 배는 6년이나 7년 사용하면 썩어 버렸다. 사공은 따로 두지 않고 주민들이 교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 수곡으로 받은 곡식은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노를 저어 강을 건너다가 강의 양쪽에 철근을 연결하여 도랑쇠를 이용하여 도강을 했다. 노를 저어 건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방법이었다. 때로는 나룻배가 놀이배로 사용되었다. 마을에서 천렵을 할 때면 상류로 끌고 올라가 타고 내려오는 재미도 있었다. 신촌과 평촌에 다리가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룻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기억에만 남아 있는 풍경이 되고 말았다. 당시는 어렵게 여겨졌던 도강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다.

어제리 농바우 기우제-우리가 잘 비는가 봐

금강가에는 특별한 기우제가 있다. 어제리 강가에 농바우라는 바위가 있어 이곳에 동아줄을 매어 놓고 여자들이 모여 당기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농자우끄시기라고 한다.

어제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금강과 접해 있는 여러 마을에서 여자들만 동원되어 농바우끄시기를 하는데 참으로 희한하게 압수 마을에서 행사를 하면 반드시 비가 왔다. 농바우끄시기를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구에 있는 동구나무에 이르면 영락없이 비가 뚝뚝 떨어졌다. 마을 주민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제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압수에서 와야 비가 온다고 줄을 매어 놓고 연락을 해오는 것이다. 그러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 간다. 분위기는 엄숙하지 않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떠들고 미친 듯 뛰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다. 그야말로 날궂이를 하는 것이다. 대략 오전에 행사가 마무리되는 데 정오쯤 음식을 먹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주민들도 신기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마을에서 빌면 비가 안 오는데 압수 사람들이 빌면 비가 내리는것이 마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농바우끄시기가 이제는 금산군의 군행사 때에 시연되는 행사용 프로그램이 되었지만은 예전 금강가에 살던 우리네 어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기우제가 지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기제로 사용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맹이모, 보리감자, 도토리밥

하늘만 바라보다가 시기를 놓치면 그해뿐만 아니라 다음 해도 곤궁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심어야 했다. 바싹 마른 논바닥을 호미로 파고 모를 심었다. 이른바 호맹이 모라는 것이다. 다행히 비가 와서 활착이 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 수확이라고 해봐야 소출이 많지는 않았다. 결국 쌀을 대체하는 작물, 고구마, 감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자가 수확되기 전까지 고구마가 허기를 달래는 데 유용했다. 아침에 밥 한술 뜨고 낮에는 오로지 고구마로 때웠다.

하지감자가 나오면 이제 고구마에서 감자로 대치된다. 보리 벨 때 나왔기 때문에 흔히 보리감자로 불렀다. 가을 나락을 수확하기 전까지 감자가 주된 식량원이었다. 가을엔 도토리를 주워다 팥을 섞어서 죽을 쑤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여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아이들 간식으로 보리밥에 콩가루를 묻혀 한 덩어리씩 먹였다.

심지어는 술찌개미를 사다가 사까린을 넣어서 먹기도 했다. 음식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재료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4월에 보리가 익기 전에 보리 이삭을 잘라다가 떡보리를 해 먹었다. 보리 새파란 것을 비벼서 구워서 죽을 끓였다. 이제 막 여물려는 시기라 단맛이 들었을 때다. 오죽했으면 '세 동서가 먹다 보면 다 먹어버린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까. 그땐 그랬다.

<인터뷰어_ 박광수>

부여군

|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사람들

대를 이어 유림문화를 지켜가는 선생님 606
인생2막을 유림에서 펼치다 613
마을 이장님이 걷는 유림의 길 618
정성과 봉사하는 마음이 유림에 닿다 624
지토리 토박이 풍양조씨 조남민어르신의 유림문화 지켜가기 630
양송이 농부, 향교 전교로 유림의 길을 가다 637
고향으로 돌아와 유림에 들다 644
서원에 소풍을 왔던 소년, 서원의 유림문화를 지키다 650
조상 봉사로 이르게 된 유림의 길 656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류 익 렬 (1944년생)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대를 이어 유림문화를 지켜가는 선생님



유림의 길을 걸으셨던 조상님들

류익렬 부여향교 전교의 부여향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고조, 증조 조부모님들로부터 이어온 가풍에서 비롯되었다. 『부여향교지』에는 류익렬의 고조, 증조, 조부의 유림 활동상이 실려 있다, 고조부께서는 향교에 재산을 헌납한 분들을 칭송하는 글을 지으셨는데, 그 글이 기록된 현판이 향교건물 가운데 하나인 수선재에 걸려 있다. 증조부와 증조부의 매형인 이철영 선생은 향교에서 예의범절을 지도하셨다. 류익렬은 자연스럽게 향교나 서원과 같은 유림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25 전쟁으로 3개월간 학교를 못 다니다.

1950년 부여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류익렬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3개월 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9.28 수복 후 다시 학교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거쳐간 학교는 시설이 엉망이 된 상태였다. 당시 교실 바닥에는 피난민들이 보고 간 용변도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수세미로 닦아냈고 창문의 유리도 다 깨져 있어 창호지로 문을 발라 정비한 후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엄격하고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다.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가 되다.

초등학교 졸업 후, 류익렬은 한산중학교 강사로 근무하는 고모가 계신 한산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이후 전통이 있는 공주고등학교로 진학하였는데, 학교에서 15리 떨어진 왕촌이라는 곳의 친척집에서 통학을 했다. 도시락을 싸들고 6km가 넘는 자갈밭을 걸어서 가야 했지만,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처지에 통학거리의 불편함을 토로할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류익렬은 성실하고 열심히 학생 시절을 보냈다. 당시 쌀이 귀해 보리밥을 주로 먹었는데, 학교를 마치면 소를 먹일 풀을 베는 일을 하며 집안일도 도왔다. 류익렬의 공부비법은 하교 이후 식사를 마치고 등잔불을 켜놓고 잉크를 찍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노트정리 하는 것이었다. 류익렬의 공부 노트는 공주고등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의 전시에 선보이기도 했는데, 꼼꼼한 그의 공부노트는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멋지고 열정적인 교사의 길을 걷다.

규암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규암초등학교는 규모가 커서 한 학년에 50명이 넘는 학급이 6학급이나 되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 오전, 오후로 수업을 나눠서 했다. 학교에는 점심 도시락을 싸 갖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옥수수가루 죽으로 배급받아 먹는 학생도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 혼분식을 장려했는데 학교에 혼분식 지도를 하여 혼분식을 잘한 학생에게 동그라미표를 주었다. 보통은 세모 표가 많았고 쌀밥으로만 된 도시락을 가져온 학생에게는 X표를 주었다. 또한 당시에는 쥐가 많아 집에서 쥐를 잡은 후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지도도 했고 산에 가서 학생들과 송충이 잡기를 했다.

신임 교사 시절 류익렬은 아주 멋진 선생님이었다. 운동 신경이 좋아 학생 20여명에게 기계체조를 지도하여 운동회 때 학생들이 텀블링(tumbling), 핸드스프링(handspring)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고, 학부형들에게서 체조 지도를 잘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학교 일을 마친 후에는 동료 선생님과 함께 학교 앞 술집에서 라면땅, 꽁치통조림과 함께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열정적인 교사의 길을 걸었다.

부여향교의 역사와 향교의 기능

류익렬이 전교로 활동하고 있는 부여향교는 조선 중종 때인 1530년대에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향교가 구교리에 위치했었는데, 200년 전에 현재 위치인 의열로 21-3의 동남리로 옮겨 왔다. 충청남도 기념물 125호인 부여향교 건물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5동의 건물이 있다. 가장 중요한 곳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들 수 있다. 향교에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핵심공간이다. 대성전은 공자님을 주축으로 해서 5성4현이라고 부르는 중국성현 9분과 함께 조선, 고려, 신라시대에 유교정신이 훌륭한 학자, 선비로 유명한 18분의 위패를 모셨다. 즉, 중국 성현 아홉 분, 우리나라인 동국 성현 열 여덟 분의 위패가 전국 234개의 향교에 봉안되어 있다. 석전제는 일년에 두 번씩 향교에 모신 공자를 포함한 성현들의 얼을 추모하는 제사이다. 명륜당은 옛날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양반과 선비들이 와서 유학을 공부하고 인격을 함양했던 곳이다. 그 밖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동재와 서재가 있다. 향교에서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거주하는 하는 공간이었으나, 현재 부여향교의 동재는 석전제를 지낼 때 의복을 갈아입는 제관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쪽에 있는 서재는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사무를 보는 관리실이다. 그리고 수선재는 본래 유생들의 공부방인데, 현재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교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향교의 총책임자는 전교이고, 유도회장이 있다. 전교와 유도회장은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전교의 역할은 부여향교 유림들을 통솔해 향교 운영을 하고 바른 인성과 좋은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전교와 유도회장 외 20명 가량의 장의를 둔다. 장의는 부여 유림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맡아 총무분과, 재무분과, 의전분과, 섭외, 홍보 등 향교 실정에 맞게 여섯 혹은 일곱 개로 분야를 나눠서 업무를 분담한다.

부여향교의 유도회에는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3개 읍면의 유림들이 소속되어 있다. 유도회는 유림문화를 알리고 진흥하는 조직으로, 다른 지역의 향교에는 청년유도회나 여성유도회도 있지만 부여향교의 유도회는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전교의 역할과 전교를 뽑는 일

향교의 전교는 오늘날 학교의 교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예전에는 학덕을 겸비한 사람을 장의들이 추대해서 전교를 뽑았는데, 지금은 유림들이 투표로 전교를 선출한다. 선거를 통한 방식은 유림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전교가 될 경우, 향교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류익렬은 전교의 임명을 여러 사람들의 공론에 의해 추대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20여명의 장의들이 추대를 한 전교 후보자는 성균관에서 전교 임명장을 받고 고유제를 올린 이후 전교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며 충남에 34개 향교 전교들만의 조직도 있다. 바로 충남향교재단의 충남향교 전교협의회로, 일 년에 두 서너번은 모여 정보교환을 한다.

석전제

석전(釋奠)은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석'은

놓다, 베풀다의 의미이며 '전'은 술을 담아놓은 것으로 '석전'은 정성스럽게 빚은 술을 받들어 올린다는 의미이다. 부여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27현을 기리고 추모하는 석전제를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석전을 지내고 있는데, 1년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석전제 때는 날 것의 제수품을 준비하는데 제수품은 익히지 않은 소고기와 생선, 미나리, 호두, 은행, 파 등이 생것으로 올라간다. 류익렬은 석전제에서 제물을 생것으로 올리는 의미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석전제에 올릴 제물의 준비는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에 품목을 알려주고 준비해 달라고 미리 부탁하고, 진설은 향교의 유림들이 직접하고 있다.

석전제를 하기 전에 역할을 나누는 분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각 헌관과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정해진다. 석전제는 제관실에서 착복을 한 후, 대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제관들이 대성전 앞마당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진행한다. 우선 대성전의 공자님에게 초헌부터 독축, 아헌, 종헌, 음복례, 망료례까지 마친다. 이후 중국 5성 4현의 제사는 초헌, 아헌, 종헌까지의 절차 후 동국18현에게는 술을 올리는 것으로 마친다.

향교의 경비

부여군청에서 향교 석전제의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석전제 한 번에 350만원 규모이다. 석전제에 공식적인 비용이 나오고 있지만, 전교인 류익렬은 향교 제사에 빈 손으로 참여하는 법이 없다. 석전제에 정성을 보이기 위해 내는 돈을 향료(香料)라고 불렀는데, 헌관, 집사 등을 맡게 되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경비나 쌀을 가지고 가고, 묵을 쑤어서 가기도 했다. 향교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성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었다. 류익렬 전교도 다른 향교나 서원의 행사에 참여할 때 향료를 미리 준비한다.

향교의 재산은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조금씩 쌓이면서 마련되었는데, 향교 땅을 장만해 그 임대료 등이 향교 운영의 기본 자금이 되었다. 현재 향교 재산은 향교재산관리법에 의해 개별 향교가 처분할 수 없고 충남향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개별 향교가 향교 재산의 운영과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전국의 여러 향교에서 동

일하게 적용된다.

향교마을의 과거와 현재

부여향교가 있는 향교말에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피난민촌으로 허술하게 지은 판잣집들이 많았다. 지금은 문화원, 정림사 등이 근처에 있어 향교마을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토건설부에서 향교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약 390억원을 부여군에 지원하였다. 향교 앞마당을 정원 겸 주차장으로 만들 예정이며 도로의 폭을 넓혀서 차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가스나 전기선도 매립하여 외관상 덜 복잡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8월 현재 공사 중이고 2023년말 완공 되면 정림사지와 향교와 잘 어우러질 것이다. 동시에 의열사와 문화원이 근처에 있으니 전체가 하나의 문화관광구역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류익렬은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해 요즘 세대들이 향교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교문화를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강좌들을 구성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려있는 향교로 만들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유림회와 기로연 등 향교의 여러 프로그램

류익렬 전교는 부여유림회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부여군에는 향교 네 개가 있는데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 류익렬은 네 개 향교 유림들 약 309명을 모아 전체 총회를 열고 비영리단체인 부여유림회를 조직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부여유림회는 유림회를 주축으로 부여군의 향교 4곳(홍산향교, 임천향교, 석성향교, 부여향교) 유림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에서 2013년도에 설립하여 충청남도청 부여군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다.

충청남도 복지과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유림회 등록증이 나왔고 1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 예산으로 유교문화 유적지에 연수를 가고, 유명 강사를 모셔 유림들의 기본 자세, 예절, 제례 등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춘천향교에서 1박 2일로 진행하였다.

기로연도 열고 있는데, 기로연은 본래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전 · 현직 문신관료들

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였다. 부여향교의 기로연은 유림활동과 상관없이 연로하신 분들을 위로해주는 잔치이다. 최고령 어른신에게는 장수상과 장수패를 드린다. 향교 재정이 좋은 곳은 국악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열기도 하나 부여향교에서는 부여노인대학 실버합창단 단원을 모셔서 노래공연을 열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의 정신으로 향교를 보전하다.

부여군에 4개의 향교가 있음에도 회원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 류익렬 전교는 유림회관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류익렬 전교는 부여 유림 209명의 서명을 받아 유림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안건을 건의한 끝에 지원을 받아 2021년 12월에 유림회관이 문을 열었다.

선대의 유림활동이 발판이 되어 대를 이어 유림활동을 해 왔고, 부여유림회나 유림회관 등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류익렬은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향교재정의 질서를 바로 잡고 유림회관을 준공한 것에 스스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마음먹으면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하게 되면 성사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류익렬 전교는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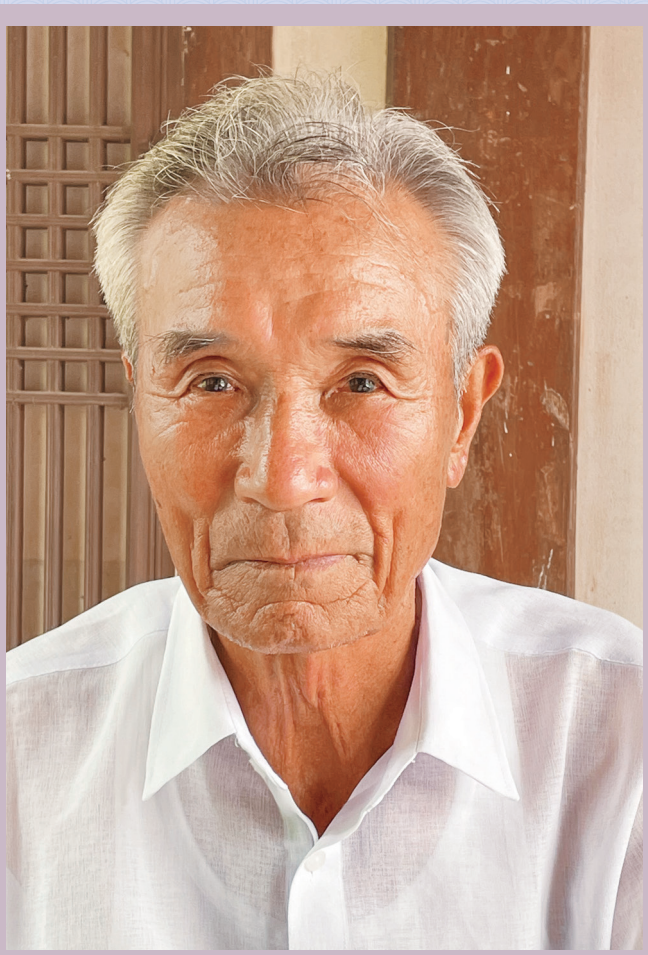
향교는 전통적인 교육공간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열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중단되었다. 젊은 세대들에게 유림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향교가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 할 생각이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정 종 진 (1942년생)
부여군 장암면 사동로

인생2막을 유림에서 펼치다



가난한 어린시절 서천에서 부여군으로 오다.

정종진은 1942년 생으로 서천군 화양면 출신이다. 초등학교를 2년을 다니고 6.25 전쟁이 발발해 학교를 못 다녔다. 전쟁 이후 1952년도에 생활고로 인해 가족들과 이불, 그릇 등 살림살이를 지게에 이고 자갈길 60리를 걸어서 부여에 왔다. 의령 남씨인 외가가 부여에 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릴 적부터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고, 남의 집 웃방에서 곁방살이를 하였다. 하루 종일 밭을 매면 당시 100원을 벌었는데 그 당시 100원은 쌀 한 됫박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초례의 추억

농사일로 먹고 살다가 1963년에 입대하여 부산 해운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1965년에 제대했다. 이후 1968년에 외가 친척이 중매를 해서 풍양 조씨이자 한 살 많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혼례식은 전통식으로 신부 집에서 먼저 했는데 신부 집에 스스로 함진아비를 해 함을 지고 갔다. 혼례식을 마친 후 첫날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집에 왔다. 그 당시에는 초례를 마친 후 동네 젊은이들이 신랑을 거꾸로 달아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의식을 치렀는데 정종진도 목침으로 발톱이 빠질 정도로 맞았다. 결혼 이후 700평의 논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광산 생활

결혼 이후에는 농사와 함께 광산에서 일을 했다. 두 가지 일을 겸할 수 있던 것은 광산이 집에서 가까워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농사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종진이 다녔던 광산은 지토리에 있었던 금광이다. 지토리에 금맥이 있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금광이 열렸다. 당시에는 대명광산에 소속된 임천광업소가 운영되었는데, 흔히 임천광산으로 불렀다. 정종진은 임천광업소 소속 감독으로 약 10년 동안 일을 했다.

금광의 일은 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다. 항내라고 불리는 금 캐는 구덩이에서 발파를 하는게 첫 번째 작업단계였다. 구덩이 안은 공기가 좋지 않아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지하로 바람을 넣어줘야 한다. 캐낸 원석을 일종의 방앗간 같은 시설을 이용해 빻고, 물이 내려가는 것을 이용해 동판이라는 데에 금이 얹히게 한다. 그 이후 수은을 발라 놓으면 수은에 금이 붙는데, 이것을‘수은이 금을 문다’라고 표현하였다. 수은은 긁어내면 금만 남는다.

금광이 운영되었던 시기에 지토리에는 외지 사람들을 포함해 인구가 많았다. 금광 안의 기둥인 동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임천광산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양광산과 같이 큰 사고는 없었다. 임천광산은 1975년에 폐광되었다.

삼부토건에 입사하여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일을 하다

광산이 폐광 된 이후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아는 분의 소개로 삼부토건에서 일을 했다. 입사 당시 울릉도 항만공사로 저도항의 방파제 공사에 3년간 참여하였다. 당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울릉도에서 홀로 살았다. 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울릉도에서 3년을 지낸 후에는 경상도 상주에서 낙동강 작업을 했고,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수도 공사를 2년 동안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하다 1993년에 퇴직을 했다. 퇴직 이후에는 3500평의 농사를 지으며 산다.

향교에 발 딛게 된 계기

정종진이 향교에 관심을 갖고 유림의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은 2000년도 무렵이다. 그 당시 정종진은 6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축에 속했다. 처음에는 서원이나 향교의 제사를 구경 겸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임천향교의 장의를 맡아 달라는 부탁으로 본격적으로 유림문화에 발 디디기 시작했다.

2년간의 임천향교 장의 활동을 마친 이후에도 임천에 소재한 서원이 많았기 때문에 정종진의 유림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향교의 제사는 1년에 두 차례이고, 서원이 여덟 군데가 있어 유림의 활동이 바쁘게 이어졌다. 사람이 부족해 제사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봄에는 약 20일 가량 이어지는 제향에 꾸준히 참가하고, 가을에도 제향이 있어 바쁜 편이다. 또한 면 단위의 유림회도 있어서 유림활동도 열심히 해 나갔고 그 결과 유림회장을 맡기도 했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도 즐겁고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꾸준한 유림의 활동은 그의 행보를 동곡서원과 임천향교 전교로까지 이어갔고, 현재는 동곡서원의 원장을 맡아보고 있다.

정종진이 들려주는 동곡서원 이야기

동곡서원(東谷書院)은 고려 공민왕때 회양고을 군수를 역임했던 조신을 모시는 곳이다. 조신은 고려말 신돈이 정권을 장악하자 정치에서 물러나 은거하였다. 이방원의 어릴적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박팽년·유성원 등의 학자를 길러냈던 분이다.

조신을 세도면 동사리에 모신 연유는 조신의 형이 신돈을 내치려고 모의를 했는데 탄로가 나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조신과 가족들이 산속에 살다가 작은 아들이 동사리로 와서 정착하고 이후 태종이 조신 선생님이 스승이니 찾았는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여 부여에 자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조신의 묘는 현재 장암면 점상리에 있다.

동곡서원은 조신을 기리기 위해 1826년 조선 순조때 지역 유림들이 건의하여 지어졌다. 이후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930년에 복원하였다.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제92호로 지정되었다.

동곡서원을 운영하는 조직은 원장과 유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는 조신의 후손인 본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당인 상절사가 있고, 강학공간이 흥학당과 화수루가 있다. 흥학당은 본래 강학공간이나 지금은 제사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향이다. 부여군청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서원 재산도 별도로 가지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기도 한다. 동곡서원의 재산은 조신의 자손들이 마련한 토지인데, 그 토지의 도지를 받아 서원 재정에 보태고 있다.

서원과 향교 그리고 제사

임천향교 관내에만 서원이 8개가 있고, 유림회를 통해 전교와 서원 원장들이 모여 의논을 하곤 한다. 서원 8개 중에 영당이 있는데 영당은 서원과 성격이 다르다. 정종진은 영당을 자손들이 조상을 제사하는 곳으로 설명하였다.

서원은 큰 벼슬을 해서 훌륭한 성현을 제향을 지내는 곳이고, 향교는 중국 공자를 포함한 5성과 한국의 성현 18위 혹은 그 이상을 모시기도 해, 향교마다 모시는 한국 성현의 수는 다르다. 그래서 향교에서 올리는 제물의 양이 서원에서 올리는 제물의 양보다 많다.

서원에서는 제사를 두 번 지내는데 봄에는 2월 중순, 가을제사는 8월 중순에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서원 제사를 모실 사람이 줄어들어서 8년 전부터는 한 번만 지내고 있다. 제

사 준비는 본손들이 와서 하고, 부여군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사용한다.

오늘날의 서원과 앞으로 바라는 점

동곡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조신의 묘가 충청남도문화재 119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과거에 그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 후손들이 송전탑을 옮겨 달라는 민원을 냈다. 송전탑을 설치할 당시에 종사일을 맡아보시던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동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잘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는 일곱 명의 제관만이 참석해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다. 다행히 2023년은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남자 중심이었지만 요즈음은 여성이 장의로 들어와 활동을 하는 향교도 있다. 예전과 달리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서원에서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문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곡서원 원장으로 재직한 지 2년차인 정종진은 지금껏 풍양 조씨 문중의 본손들이 역할을 잘해주어 동곡서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림회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유림에서 배울 점이 많으니 젊은이들의 참여가 많아지기를 희망했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안 기 춘 (1942년생)
부여군 규암면 호반로

마을 이장님이 걷는 유림의 길



저수지마을 수목리에서 자라다.

안기춘은 부여 규암면 수목리에서 3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기춘은 순흥 안씨로 문중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소수서원에 순흥 안씨인 안향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논산 별곡에선 순흥 안씨 문중에서 면장, 파출소장, 농협조합장 등이 나왔다. 안기춘의 조상들은 논산 벌곡에서 12대까지 살고 이후 부여로 내려왔다고 한다.

안기춘이 살고 있는 수목리 마을 근처 38만평 규모의 반산저수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반산저수지는 일제강점기에 구룡포 평야가 생기기면서 탄생했다. 안기춘은 규암리에 있던 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에는 저수지의 물이 다 차지 않아서 겨울에 저수지 가운데를 걸어 초등학교를 다닌 적도 있다고 한다.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6km의 먼 길을 다니면서 구슬치기, 깡치기, 제기차기를 하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때 6.25 전쟁이 터졌다. 수목리는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 마을 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타지에서 들어온 피난민이 있었다. 한때 148호 가구가 있던 수목리에 현재 80호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혼인을 하고 군대를 가다.

안기춘의 집은 생활이 어려웠던 주변 이웃들과 달리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보리밥은 먹지 않았을 정도로 괜찮은 형편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안기춘은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안기춘은 당고모의 중매로 규암면 진변리 나루터 마을 여성과 21살에 혼인을 하게 된다. 당시 아버지는 구식분이라 약혼식하는 것을 반대했다. 아버지가 약혼식을 반대하는 바람에 안기춘은 사주 보낼 때 보내려고 했던 금반지 두 돈 반에 해당하는 쌀 두가마 값을 내고 규암 금강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 안기춘은 그것을 약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혼례를 올리러 진변리의 신부집으로 가는 날에 안기춘은 동네를 멀리 돌아서 가야 했다. 아버지께서 안기춘의 친구들이 혼례식에 와서 짓궂게 할지 모른다고 친구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돌아서 신부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다. 어렵게 처가인 진변리에 도착한 안기춘은 우선 신부의 친척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지저

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혼례식장인 신부의 집으로 갔다. 마당에서 서로 마주 보고 절하며 1963년 추운 섣달에 혼례를 올렸다. 이렇게 만나 혼인한 아내는 안기춘과 동갑으로 62년을 무탈하게 살고 있다.

운전병으로 근무한 군대시절, 무사고로 표창을 받다.

안기춘은 결혼하고 10개월 뒤 군대에 입대하였다. 군대에서는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군대의 병과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한 인연으로 의정부 26사단에 운전병으로 배치받게 된 것이다. 운전교육을 받는 와중에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편지를 받고 휴가를 나왔다.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운전병이었지만, 다행히 소질이 있었는지 1000km를 무사고로 운전해 포상휴가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부여에서 서울까지 두 시간이면 가는데 예전엔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차가 없고 중간에 쉬었다 갔다. 안기춘의 복무하는 군부대까지의 길은 너무 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가족들은 거의 면회를 가지 못했다. 안기춘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매일 저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두툼한 책 두 권 정도 분량이었던 군대 시절 편지는 96년에 새로 집을 지을 때 아깝게도 소각되었다고 한다.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다.

안기춘은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갖고 있는 논 30마지기와 밭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누에 농사도 함께 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시원찮은 밭을 활용해 뽕나무를 심고 그곳에 누에를 키운 것이다. 애벌레에서 고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0일이고 다 자란 고치는 수매했다. 당시 누에를 키워 벌어들이는 수익은 쌀농사 보다 좋았다. 1986년까지 누에농사를 했었고, 이후 취나물을 재배를 했다. 취나물은 부여군 남면과 수목리에서 많이 재배한 작물이다. 지금은 재배농가가 줄었지만, 여전히 취나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농가소득에 있어 효자노릇을 했던 작물이다.

양심과 책임을 갖고 이장에 임하다.

안기춘은 1970년대 초반에 예비군 소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1977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추천 받아 수목리 이장을 맡게 되었다. 5년 정도 하고 그만두었는데 다음 이장이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1986년에 또 이장을 맡았다. 이듬해 큰 수해를 겪고 수해 복구 물품이나 지원금의 분배와 관련해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양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장직을 수행했었던 안기춘은 크게 실망하고 수해복구를 마친 이후 이장직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후임 이장이 이장직을 그만 두는 사정이 생겨 2001년까지 두 차례나 더 이장직을 맡아 마을에 봉사하였다.

마을일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섭섭하게 들리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았다. 이장이 되어 논에 공동방제를 하고 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일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협 조합장, 면장, 군수 등 이장으로 일하는 동안 받은 수많은 표창이 안기춘이 성실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유림이 되다.

2011년에 안기춘은 부산서원의 총무가 되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이장을 역임하던 그를 주변 사람들이 눈여겨 본 것이다. 특히 부산서원의 일을 맡아 보던 분 가운데 충남도지사였던 김영만 씨가 적극적으로 안기춘을 추천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유림에 발을 디디게 된 안기춘은 그렇게 부산서원의 총무가 되고 유사를 거쳐 유림회장이 되었다. 현재는 부산서원 원장이다.

부산서원

부여군 규암면 진번리에 있는 부산서원은 1719년(숙종 45년)에 창건되어 같은 해 사액되었다. 부산서원은 조선 인조와 효종 연간에 학계와 정계에서 크게 활약한 김집과 영의정이었던 이경여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대원군때 훼철되었다가 1980년에 복원되었다. 현재 부여군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9월 18일 추향제를 봉행한다. 부산서원은 동매(冬梅)로도 이름난 서원이다. 부산서원에 위패가 모셔진 이경여가 청나라 심양에 억류되었다 돌아올 때 가져온 매화 3그루를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한 그루가 일제강점기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 백강서원에서 해마다 피는 동매는 이경여가 가져왔던 매화가 있던 그 자리에서 새로 난 것이라고 한다,

부산서원은 백마강가의 불쑥 솟은 부산을 뒤에 두고 구릉지에 서원이 세워져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고소공포증을 가진 안기춘을 힘들게 한다. 61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부산서원의 제사 준비와 참여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무사고 운전병의 시절을 보내 군대 시절처럼 성실하게 부산서원 원장일에 임하고 있다.

부산서원의 제사

성리학의 대가인 김집과 이경여의 위패를 모시는 부산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9월 18일에 제사를 지낸다. 1980년에 복원 한 이후 제사의 경비 지원이 없었던 초기에는 서원에 제사 지내러 오는 유림들이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부담했다. 약 2백 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넉넉하게 잘 재낼 수 있는데, 서원 복원 직후에는 매번 어렵게 제사를 지냈다. 안기춘은 제수비가 충분히 모이지 않아 줄어든 제수비에 맞춰서 제향을 준비했던 시절을 힘들었던 시기라고 회고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前) 원장의 집에서 제물을 장만하였는데 안기춘이 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식당을 섭외해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부여군에서 제사비용으로 285만원을 지원해주어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서원과 향교에 대한 지원이 부여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산서원 제사의 제물은 일반적으로 향교와 동일하게 생식으로 준비한다. 미나리, 파, 쪽파, 무, 고기 두 가지, 조기, 밤 대추, 은행, 호두가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총무가 제물을 주문해서 준비하고, 제물 진설을 맡아하는 진설자가 정해져 있지만 혼자하기 어려워 여럿이서 함께 한다. 제사에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군청 문화재과에 알리고 있다.

제사 때는 규암, 부여, 은산면의 유림 40~50명 정도가 참석한다. 예전에는 부산서원에 모신 김집과 이경여의 후손들도 많이 찾아왔다. 지금은 광산 김씨인 김집의 후손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경여의 집안인 백강 이씨 문중에서 몇 분이 지속적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활동하는 유림들은 서로 품앗이를 한다 생각하고 다른 서원들의 제

향에도 참여하고 있다. 안기춘도 가급적 시간을 내서 부여의 다른 서원이나 향교 제사에 참여한다. 안기춘은 서원 원장 일을 하며 동시에 부여향교의 장의 일도 맡았다. 지금은 서로 왕래하며 제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후에는 서원이나 향교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부산서원의 조직

부산서원에는 원장과 총무 감사 그리고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열 네명 정도의 유사들이 있다. 부산서원에는 위패를 모시는 사우와 재실 한 동이 있어 시설이 단촐한 편이다. 서원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는 박물관에 기증을 해 서원 건축물 이외에는 둘러 볼 것이 많지 않지만, 다행히 서원 앞에 굉장히 이름난 매화나무인 동매가 있어 이를 보기위해 관광객들이 들르곤 한다.

젊은 세대에 바라는 마음

안기춘 씨가 처음에 이장 할 때는 한 집에 식구가 열명 이상인 경우도 많았고, 식구가 열일곱인 집이 있었을 정도로 마을에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은 수목리에서 어린이를 만나보기란 쉽지 않다. 스무살이 넘으면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던 안기춘 씨 세대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다. 안기춘은 젊은 사람들도 유림문화에 관심을 갖고 유림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 붕 철 (1947년생)
부여군 남면 송암로

정성과 봉사하는 마음이 유림에 닿다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다.

서녘 서(西)자 수풀 림(林)자의 서림(西林) 이씨 가문은 부여 홍산군 남면 송암 1리 호암마을에서 16대째 집성촌을 형성해 살아오고 있다. 1947년생 이붕철은 서림 이씨 가문의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이붕철의 위에 형이 세 명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이 넷이다.

예전에는 홍산의 대선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큰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붕철이 태어난 송암도 농사짓기에는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이붕철의 부모님은 송암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셨는데, 열 마지기 농사를 지어 아홉 식구가 먹고 사는 생활이 항상 배고픔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붕철은 아주 어릴 적 동네에 큰 물난리가 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엔 벼농사 지어놓으면 장마 때 동네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았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때에 부여 출신인 김종필 국무총리가 주선해 둑과 제방을 쌓는 공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물난리에 걱정이 없는 마을이 되었다.

보리 곱살미 먹고 살던 시절.

6.25 전쟁이 끝나고 가난한 시절. 이붕철은 남면 마정리에 있는 마정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책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학교를 갔다. 먹을 게 없어 도시락에 새우젓 반찬만 넣고 다녔는데, 도시락과 책을 보자기로 싸서 어깨에 메고 뛰는 바람에 도시락은 언제나 밥과 새우젓이 뒤섞인 비빔밥이 되었다. 집에서 학교가 1.2km 거리로, 도시락을 갖고 가지 않았던 날은 뜀박질로 집에 와 보리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뛰어가곤 했다. 한참 클 시기라 학교에 도착하면 소화가 다 되어 허기가 졌다.

서당에서 공부하다

당시의 보통 사람들처럼 이붕철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급하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신 한문 서당에 다니며 이호성 선생에게 배웠다. 이호성 선생은 돌아가시기 몇 해 전까지도 홍산향교에 다니면서 후학들을 위해 애쓴 한학자이시기도 했다. 같이 배우는 학생들이 30명의 정도였는데, 천자문부터 명심보감, 소학까지 같이 배웠다. 이붕철에게는 학교

나 마찬가지였던 서당의 수업료는 고작 쌀과 보리 몇 말이었다. 사실상 선생님의 봉사로 운영된 서당이었다.

텔레비전 조립을 했던 잠깐동안의 서울살이와 그 덕분에 했던 27사단 통신병

서당을 졸업한 후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다가 18살때에 친구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국제 TV학원에 입사하였다. 텔레비전을 조립하는 기술을 배웠으나 낯선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이붕철은 몇 개월만에 금방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한 형들을 대신해 부모님을 모시다 군대에 입대했다. 국제TV학원 경험 덕분에 군생활을 강원도 화천 27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였다.

국제사진관에서 혼인하다.

이붕철은 군 제대 후 소개를 받아 당시에는 많이 늦은 나이인 29살에 대전 출신 아내를 만났다. 결혼은 부소산 입구에 있는 국제사진관에서 했고, 읍내 식당에서 친척들을 대접했다. 결혼식 전날 미리 동네에서 잔치를 열고, 당일은 친인척들만 모여 축하하는 형식이었다. 이붕철은 당시 신식 결혼식을 올렸는데, 장인이 조폐공장 공장장이셨기 때문이었다.

대전에서 부여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다.

결혼하고 대전으로 간 이붕철은 가죽을 염색하는 대전피혁에 취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처가 식구들과 같이 떠날까 고민했지만, 부여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부여로 돌아왔다. 도시생활만 하다가 시골로 온 아내가 아궁이에 불 때는 일도 서툴렀기에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도 차차 농사일을 익히니 벼농사가 활발해져 스무 마지기까지 늘릴 수 있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논도 임대하여 벼농사를 하고 밤농사도 지었다. 부여의 밤은 부여 굿뜨래 브랜드 중 하나로서 부여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가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해서 가을철 한 달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한다.

40대에 유림에 입문해 창렬사의 원장이 되다.

젊은 시절 아버님과 함께 향교에 몇 번 방문하여 유림들과 얼굴을 익힌 이붕철은 자연스레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법을 배우며 유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금씩 향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갈 즈음 전임 홍산전교의 추천으로 창열사 원장을 6년간 맡게 되었다.

부여 구룡면에 있는 창열사는 삼학사를 기리고 삼학사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다. 삼학사란 병자호란 때의 충신인 윤집, 홍익한, 오달재 세 명을 가리키는데, 윤집 선생이 청나라에서 돌아가신 후 윤집 선생의 말이 옷을 물고 마을까지 왔다고 전해지다. 대원군 때 다른 서원들이 많이 철폐를 당했지만 창열사는 철폐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었다.

홍산향교의 역사

홍산향교는 1571년에 세워졌는데 화재가 발생해 1610년도에 재건했다. 향교의 위치가 너무 높아 평지인 부여 홍산면으로 1643년에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596년 이몽학의 난으로 홍산이 폐읍된 된 것 관련이 있다고 한다. 폐읍을 계기로 홍산 사람들이 홍산향교의 대성전이 주위의 산보다 높아 홍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향교를 평지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입구에는 역사가 오래된 향교를 보수할 때마다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기리고 있는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 향교 안의 대성전은 제사를 모시는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고, 명륜당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방학을 이용해서 명륜당에서는 한자교실을 열고 있다. 지금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예법과 효도를 가르치는 충효교실도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교의 운영 조직과 구성원

향교의 운영은 이붕철 전교와 더불어 이전에 전교를 역임했던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모든 일을 상의해서 하고 있다. 운영 위원 외에도 총 책임자인 총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조사하고 감찰하는 감사가 있다. 그밖에 의전, 조직부장, 홍보가 있다. 그리고 장의는 스무 명인데 보통 각 면 별로 두 세 명 정도이다. 모든 제향에 참석하고 성의 있게 임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있다.

예전에는 장의를 맡기가 쉽지 않았다. 유림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모든 제향에도 잘 참

석하는 사람을 장의로 추천했다. 그러나 지금은 장의로 활동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 내에서 유교, 유림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골에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적은데다 유림에 관심을 두는 젊은 사람들은 더 드물다. 현재 홍산향교의 유림의 평균연령은 60대로,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 젊은 편이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 유림의 명맥 유지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향교의 제사

향교는 일년에 두 번씩 공자를 포함한 5성과 송조 4현, 동국 18현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서원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선현을 기리는 제사를 하는 곳이다. 향교에서 생식으로 제사를 하듯 서원에도 생식으로 제사를 하고 있다. 향교의 석전제는 제물을 팔변팔두(八邊八豆)로 하고, 각 서원과 사우에서는 제물을 육변육두(六邊六豆)로 한다. 일반 가정에서 재사 할 때 쓰는 그릇과 달리 서원에서는 대나무로 만드는 목기인 변(邊)을 사용한다. 두(豆)는 고기, 나, 물 채소, 과일, 육포 종류를 놓는 것을 말한다. 서원에서는 일 년에 제사를 한번 지내는 반면 향교에서는 일년에 두 번 지낸다. 이붕철이 원장으로 있었던 창열사에는 삼학사의 후손 포함 약 50명 정도가 제사에 참석한다. 전에는 제사비용을 조금씩 후원받아 지냈는데 지금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창열사 자체적으로 재산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도지를 받아 제사비용에 보태고 있다.

초하루 보름에 하는 분향은 전교와 총무, 각 면에 있는 장의들과 같이 하고 있다. 장의들은 매번 참석하기 힘드니 장의 여섯명을 나눠서 두 사람씩 참석한다. 향교는 서원 보다 더 큰 음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지 않고 미리 시장에 주문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 팔변 팔두로 총 열여섯 가지가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고기 종류와 채소 종류로 나뉜다.

어렵지만 정성을 다하며 홍산향교의 미래를 그려보다.

향교는 재산법이 따로 있기에 개별적으로 재산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관리 되고 있다. 그렇게 향교재단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니 전교가 필요한 것을 요청해도 위에서 허가가 나야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향교는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왔고, 젊은 층 유입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향

교들은 여성 장의를 수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홍산향교는 아직 여성 장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여성 장의를 뽑아 활동 범위를 넓혀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붕철 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향교의 유림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현재 잠시 중단된 대성전 앞마당과 명륜당 앞쪽과 뒤쪽을 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개인주의인 경향이 강한 상황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조상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며 좋겠다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조 남 민 (1940년생)
부여군 장암면 사동로

지토리 토박이 풍양조씨 조남민 어르신의 유림문화 지켜가기



풍양 조씨 16대부터 부여 태동마을에 뿌리내리다.

부여 지토리는 경기 양주에 본을 둔 풍양 조씨 마을이며, 조남민의 16대 조상들을 모신 산소가 있다. 조남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토리 태동마을 집터는 조남민의 할아버지를 비롯해 3대째 살고 있는 자리이다. 이 집터에 처음 집을 지으셨던 할아버지는 53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74세에 돌아가셨다. 현재 조남민이 살고 있는 집은 할아버지가 처음에 지으신 집을 헐고 새마을운동때 조남민이 직접 흙벽돌을 찍어 4칸짜리로 새로 지은 것이다.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는 총 4개의 리로 구분되어 있고, 등애, 사창, 용왕골, 태동, 지장(지장골), 잣티(백티)라고 부르는 자연마을들이 있다. 이 가운데 등애는 등성이에 불을 켠 것 같다는 데서 유래하였고, 사창은 조선시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용왕골은 용이 마을에서 빙빙 돌다 승천하였다는 것에서 마을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장골은 예전에 종이를 만드는 곳이 있었고, 잣티는 잣나무가 많은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현재 조남민이 거주하는 지토 3리는 태동마을이라고 불린다. 삼태산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명심보감을 익히다.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조남민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조남민은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깊은 굴을 파서 피난처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오래된 일이라 그 당시의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을 모아 놓고 북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 가끔 생각나곤 한다.

조남민은 6.25 전쟁중 5km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며 14살에야 뒤늦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토1리 최인환 선생님에게 명심보감을 배웠다. 그 시절의 배움은 훗날 조남민이 향교의 유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전쟁 중이라 살기가 어려우니 집안에 일손을 도와야 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집안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해야 했는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배웠다. 그 당시의 서당 수업은 선생님이신 접장님이 직접 일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배운 선배가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았다.

어려운 시절 지토 2리 광산에서 일하다.

3남3녀의 맏이였던 조남민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부를 하며 공주 봉황동 동사무소에서 사환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이후 열일곱 살이 되어 금광이 있는 지토 2리에서 광산 일을 하게 되었다. 지토리는 당시 금맥이 있는 곳이어서 1916년 부터 금광이 운영되었던 곳이다. 광산은 지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지사람까지 몰려드는 최고의 일자리였다. 금광을 계속 파내다 보면 물이 고이니 배수하는 사람, 채광하는 사람, 돌에 구멍 뚫어 발파하는 사람, 폐석 버리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필요했다. 광산이 있었던 지토리 일대에는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금맥을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니 사고가 잦았다. 특히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는 작업 중 사망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토리에 있던 광산은 89년 폐업 했는데, 광산에서 강한 화공약품을 사용하다 보니 땅이 많이 오염되어 정화하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하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다.

조남민은 스물세 살 때에 외삼촌의 중매로 혼인을 하였다. 신부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부여 시내에서 짜장면을 먹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촬영을 했다. 첫 만남 이후 곧바로 음력 9월 그믐에 결혼식을 올린다.

초례 날 금광에서 광석 나르던 큰 차에 농을 싣고 규암을 지나 장암으로 돌아 집으로 왔다. 조남민은 형제가 여섯에 자식이 다섯인 대식구 살림하느라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다고 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늦은 나이인 스물일곱에 군대를 갔고, 보통의 병사보다 연령이 높았기 때문에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서른 넘어 제대한 후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임천향교

임천향교는 조선시대 선현을 제사지내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종의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임천향교는 가림향교라고도 불리는데, 임천이 삼국시대에는 가림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다. 향교가 세워진 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의 임천현 학교조에 군의 동쪽 5리에 향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임천향교가 조선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천향교에는 현재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 안자 등 5성(五聖)의 위패를 모셨고, 동무와 서무에는 최치원, 이황, 이이 등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임천향교 총무장의로 발탁되다.

풍양 조씨인 조남민이 향교에 나가니 자연스레 향교에서는 한자에 능통한 그를 홀기와 축을 읽을 만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 때가 조남민의 나이 마흔다섯이었다. 지금 부여군은 조선시대에 네 개의 고을이었는데 그중 임천에 서원이 가장 많다.

임천 동곡서원에 모시고 있는 선현은 조신(趙愼)이다. 고려 후기의 학자이자 충절인이며 태종 이방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 조남민에게는 19대조 할아버지가 된다. 고려 공민왕 대에 강원도 지역에서 도호부사를 지냈던 분인데, 본래 이름은 사겸이었다. 고려말에 신돈의 섭정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1368년(공민왕 17)에 형인 조사공과 함께 신돈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조신은 이때 사렴(思廉)이란 이름을 신(愼)으로 바꾸고 둘째아들인 조개평을 데리고 임천으로 은거하였다.

임천향교만의 특별한 점

임천향교에서는 현재 공자를 포함한 5성과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예전에 임천향교의 석전에서 모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었다. 1983년 이전까지는 대성전과 동서무에 총 39위를 모셔왔다, 광복 이후인 1949년에 열린 전국 유림대회에서 향교에 모시는 중국 유림의 수를 줄이고 그간 동무나 서무 등 대성전이 아닌 공간에 모시던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에 올려 봉안하기로 결의를 한 적이 있었다. 임천향교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1983년부터는 공자를 포함한 5성과 우리나라 18현 등 23위만을 봉안하기로 한 것이다.

예전에는 유림들이 향교에 제사를 지내러 오면, 봉투에 돈을 담아 향료라는 이름으로

제사 비용을 보탰다. 이렇게 유림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선현의 제향을 모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향교나 서원의 제사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어서 부여군청에서 제향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 밖에도 임천향교에는 향교에 소속된 재산이 있어, 세도면 소재지에 있는 논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제사 비용에 보태고 있다. 임천향교에서는 초하루, 보름, 삭망에 공자에게 분향하고 절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는 석전제처럼 제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예절에 맞춰 절하면서 향을 올리는 것으로 정성을 표한다.

석전제 준비

향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봄과 가을에 하는 석전제이다. 가을에 하는 석전제의 준비는 대개 음력 7월 15일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동안 석전제를 약식으로 지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처럼 제대로 석전을 지낼 수 있어 다행이다. 옛날에는 돼지를 잡고 그 안에 술도 직접 빚어 석전제 준비를 했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되어 도축이 되어 있는 통돼지를 사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석전제 때 준비하는 제물은 변(邊)이라고 하는 대그릇 제기에 여덟가지 마른 제물을 올리고, 나무로 만드는 두(豆)에 여덟 가지의 젖은 제수를 올리는데. 이를 팔변팔두(八邊八豆)라 한다. 팔변에 해당하는 제수는 어숙(魚鱐, 물고기 포), 진자(榛子, 개암), 녹포(鹿脯, 사슴고기 포), 황률(黃栗, 마른 밤), 검인(芡仁, 가시 연밥의 열매), 형염(形鹽, 소금), 건조(乾棗, 마른 대추, 능인(菱仁, 마름)이다. 젖은 제수는 두에 올리는데, 어해(魚醢, 물고기 식해), 근저(芹菹, 미나리), 탐해(醓醢, 고기 국물), 순저(筍菹, 죽순), 녹해(鹿醢, 노루고기 식해), 토해(兎醢, 토끼 고기 식해), 청저(靑菹, 무), 구저(韭菹, 부추)이다.

향교마다 제물을 올리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변화된 것도 있다. 녹포는 옛날에 사슴고기를 포를 만들어 만든 것인데, 지금은 소고기육포를 올리고 있으며 검인과 능인 대신 각각 호두와 은행을 올리고 있다. 녹해나 토해 같은 제수도 생소고기나 생돼지고기로 대체해서 마련한다.

옛날에는 신선하고 좋은 것을 올릴 마음으로 부여보다는 큰 시장이 있는 논산까지 가서 제수를 구입해 왔다. 지금은 부여군청에서 향교제사 지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여

의 상품을 많이 쓴다.

충효교실 이야기

조남민은 임천향교에서 장의를 오랫동안 맡았다. 조남민이 장의를 맡아 할 당시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충효교실을 열기도 했다. 처음 충효교실을 개설했을 때는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에서 서로 경쟁할 정도였다. 충효교실 프로그램은 향교의 유림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또 실생활에서 배우기 어려운 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길한 일에 절을 할 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 올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 대표적이다. 흉사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로 충효교실 수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환갑, 조남민 씨 전교가 되다.

향교의 전교는 학교로 비유하면 교장선생님 격이다. 조남민은 임천향교 전교가 되자 명륜당 서재, 양현재, 내산문 등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 임천향교는 충청남도문화재 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림과 관련된 서원이 많은 것은 임천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전에 부여나 석성이 현이었을 당시 임천은 군 지역으로서, 지방에서의 위계가 달랐고, 풍양 조씨와 같이 역사적으로 영향력있는 문중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조남민은 생각하고 있다.

임천향교의 사람들

임천향교는 대성전이 있고 동무, 서무가 있다. 옛날에는 동재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고, 서재만이 있다. 그 외 유생들의 학습공간인 양현재가 있는데, 양현재는 조남민 씨가 전교가 되어 다시 복구한 건축물이다.

임천향교에는 향교를 대표하는 전교가 있고 유도회장이 있다. 유도회는 각 면에 조직되어 있는데, 유도회장을 통수라고도 한다. 그 밑에 장의가 있는데 총무장의, 재무장의, 교화장의, 선전 장의로 나뉜다. 지금 부여군 유림회 회장은 류익렬 씨가 맡고 있다. 향교의 전교를 하는 사람들은 유림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임천향교 권역은 유림들이 전부 나서서 제사에 동참한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준비가 쉽지 않아 지금은 봄에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첫 제사를 지낼 때 임천향교 관내의 모든 유림이 모여서 제관 분정을 하고 각 서원과 향교의 제사 일정을 의논하여 결정한다. 2023년 봄에는 농사일이 바쁘고 2월에 윤달이 들어 좀 늦게 시작되었다.

효자효부를 선정하고 기로연을 열다.

향교에서는 석전제와 기로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 등이 주요한 행사이다. 그 외에 효자효부를 선정하는 일도 맡아서 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충효교실이나 효자효부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재개할 계획이 없다.

해마다 11월에는 기로연을 열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배를 곯아가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기로연이다.

기로연은 큰 음식점을 빌려 모든 유림을 초청하는데 약 백 명이 참석한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장수패, 내의, 양말 한 켤레라도 챙겨주고 풍물도 치고 즐겁게 하니 모두가 환영하는 행사이다. 젊은 연령대는 거의 없고,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

제일 중요한 것. 스스로 사람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조남민은 현재 임천향교의 전교 임기를 마친 상태이지만 유림회에서 주최하는 강의도 듣고 견학도 다니며 향교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조남민은 향교에 제사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 제사 그 자체 보다는 스스로 먼저 사람다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점차로 줄어들고, 유림문화와 같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을 아쉬워하였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 계 식 (1947년생)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

양송이 농부, 향교 전교로 유림의 길을 가다



석성의 청룡마을에서 나고 자라다.

1947년생인 이계식은 석성면 현내리 청룡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1960년대에 석성은 사방이 민둥산이었다. 석성(石城)이라는 지명 그대로 석성은 돌멩이가 많은 척박한 곳이어서, 당시 석성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매우 적었다.

청룡마을은 당시 4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었다. 청룡마을도 농토가 없고 일자리가 적어 돈벌이가 쉽지 않았다. 이계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다섯 마지기 논과 300평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당시만 해도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계식도 학교를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청소년기를 지냈다.

짜장면 집에서 만난 아내와의 결혼

이계식은 1971년도에 군 제대 후 결혼을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외지로 나가 일 해보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그의 결혼을 서둘렀다. 이계식의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중신 부탁을 했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논산의 짜장면 집이었다. 두 번도 안 보고 약혼식을 올린 후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만난 지 40일 만에 혼인식을 올렸다.

혼인 이후에는 청룡의 십자가로 분가해서 1년을 살았다. 조상님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에서 아내와 함께 직접 흙벽돌을 찍어내 집을 지었다. 집 앞에 큰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베어내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고, 결혼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문을 달았다. 당시 흙벽돌집 건설에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치 않아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리면 쉽게 집이 되었다. 흙벽돌을 만드는 방법은 송판으로 함을 짜서 틀을 만들고 진흙을 넣고 다졌다가 틀에서 빼 내면 메주 덩어리처럼 되는데 이것이 마르면 벽돌이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부엌 한 칸, 방 한 칸을 짓고, 구들도 놓았다.

양송이 농사로 부흥하다.

생활이 어려웠던 석성은 송이 농사가 부흥하게 되면서 부촌이 되고 정착한 청년들도 늘어났다. 박정희 대통령때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석성면은 농가부흥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농가에서 양송이를 재배해 수출 품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50평짜리 규모의 양송이 재배사 한 동과 재배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대학교수들에게 농가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송이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삼원농산이 들어왔다. 삼원농산은 양송이 농사에 중요한 온도 관리를 위해 지하에 재배사를 지어 운영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원농산에 취업해서 돈을 벌고, 양송이 재배 기술도 배워 전국에서 알아주는 양송이 재배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1973년도부터는 이계식도 양송이 농사를 지었다. 이계식은 정부에서 70%의 보조금을 받아 집 앞에 양송이 재배사를 지었다. 처음에 한 동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세 동까지 늘어났다.

석성의 십자가에 농어촌개발공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양송이 가공공장을 크게 운영했다. 석성이 양송이 주요 산지로 이름난 결과였다. 당시 양송이는 가격이 매우 좋았다. 쌀 한 말 정도 무게의 양송이를 비교하자면, 그 정도 양의 양송이 값은 어른들이 사흘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쌀 한 말의 가격과 맞먹었다. 그래서 양송이 농사를 했던 사람들은 크게 돈을 벌었고 전국에서 석성 양송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양송이를 키우는 일

볏짚에 비료와 계분을 넣고 익혀 발효시킨다. 이후 재배사에 넣고 50~60도 되는 온도로 일주일간 쪄 내어 살균을 한다. 그 다음에 종균을 심고, 흙을 뿌린 후 활착이 되어 물을 주면 버섯이 나오기 시작한다. 약 열흘이 지나면 버섯을 따기 시작하는데, 한 번 종균을 뿌려 재배하면 5~6번을 딴다. 한 번 따는 걸 1주기라고 하는데, 1주기를 딴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기를 따게 된다. 2주기 수확 후 일주일 지나면 3주기를 따는 것이다. 종균이 폐사할 때까지 5~6주기까지 수확했는데. 요즈음에는 종균이 노쇠하여 3주기까지만 딴다고 한다.

석성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거의 100% 서울 가락시장에서 유통이 된다.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양송이 재배자가 직접 가락시장까지 가지 않고, 박스에 이름만 써서 가락시장으로 보내면, 판매가 진행되고 며칠 후에 박스 주인에게 판매금액이 입금이 된다.

함평이씨 문중모임 화목회, 부락 상조회, 작목반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이계식은 함평이씨 화목회 회장을 했고, 마을 상조회 회장, 작목반 반장도 맡았다. 석성

면에 함평이씨가 대략 70%이고, 향교의 제향에 참여하고 유림으로 활동하는 80%가 함평이씨다.

화목회 회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하는 등 종중 모임의 대표 역할을 한다. 마을 상조회는 마을에 상이 나서 장례식이 있을때에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마을의 자치조직이었다. 산에 묘역을 만들고, 꽃상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을 도왔는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 마을 상조회는 없어졌다.

양송이농가들의 작목반은 동네 이름을 따와 '십자가 작목반'이었다. 작목반 반장은 50대 후반 쯤에 시작했었는데 당시 작목반 운영이 매우 잘 되었던 편이다, 회의도 자주 하고 양송이 재배 기술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야유회도 갔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출하로,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서 시세가 잘 이루어졌나 파악을 하고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였다. 작목반이 제일 활성화 되었을 때는 가입가구가 17가구가 있었는데 점차 사라지면서 지금은 작목반도 사라졌다.

유서깊은 고을 석성

과거 석성은 고을 원이 있었던 동헌도 있었고, 근현대 시기를 거치면서 지서와 우체국, 면사무소, 시장도 있었던 중심지였다. 현재 석성의 중심지는 옛 석성동헌이 있던 곳이 아니라 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는 십자가이다, 면사무소가 옮겨간 이후 파출소, 우체국 등도 십자가로 이전되었다.

과거 석성의 중심지였던 석성 동헌 앞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300살 탱자나무가 있어 보기 드문 풍경을 펼쳐내고 있다. 이계식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동헌 탱자나무 앞에 장이 섰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석성향교와 유림문화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이계식이 처음 향교에 발 딛었을 때 그의 나이는 55세로, 향교에 다닌지 약 24년 정도 되었다. 이계식이 향교에 드나들게 된 것은 집안 형님이 계기가 되었다. 석성향교의 전교였던 집안 형님 이계영의 제안으로 향교의 제향에 축문을 읽는 제관이 된 것이다. 이계식은 목청이 좋아 축을 잘 읽는데, 한문을 따로 배운 적은 없다.

이계식이 향교에 입문하게 된 배경에는 석성향교의 전교를 역임하셨던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다. 아버님을 이어 유림활동을 자연스럽게 시작하였고, 석성향교의 장의를 맡아 지금의 향교 전교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석성향교와 불길 속에서 위패를 구해낸 유림

석성향교는 공자, 맹자, 주자 등 5성, 송나라 정오, 주자 등 송조 2현, 우리나라 훌륭한 학자들 18분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 석성향교는 조선 초기부터 설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국여지승람 석성 학교조에 현의 북쪽 1리에 향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성 향교는 임진왜란때에 불에 탔다. 이 때 유림인 이경술이라는 분이 대성전에 급히 가서 위패만 구해냈다고 한다. 이렇게 구해낸 위패는 이경술이 산 위쪽으로 모셔 안치하였다가 손수 초가집을 지어 봉안하였다. 이후인 1621년에 석성현감 윤겸선이 향교를 중건할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유림의 뜻을 모아 지역 인물들과 힘을 합쳐 석성향교를 향교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현재 향교는 향교건물이 노후되어 2022년에 완전히 허물고 새로 세웠다.

석성향교의 임원과 역할

석성향교를 이끌어가는 임원은 전교와 유도회장, 총무장의, 유도회 총무 등 네사람이다. 전교는 쉽게 말해 향교의 총 책임자이다. 매년 2월, 8월마다 향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석전제를 지낼 때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유도회장과 유도회 총무는 향교 유림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연수를 주관한다. 총무장의는 향교 운영을 담당하고 특히 기로연의 기획과 준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석성향교의 건축물 소개

석성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 수복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명륜당은 본래 강학의 기능이 가진 큰 방으로, 십여 년 전만 해도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쳤던 곳이다. 이숙행 전교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사 하는 법, 절 하는 법 등을 가르쳤는데 점점 참여하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운영하

지 않는다, 요즘에는 군 문화재과나 문화원에서 강사가 나와 여러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한다. 동재는 제기 등 제향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다른 향교와 달리 석성향교에는 서재가 없다. 수복실은 장의나 유림들의 회의를 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

석성향교의 제사

석성향교도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2월과 8월에 고무래 정(丁)자가 들어가는 첫 상정일에 제사를 지낸다. 팔변팔두를 올리는 제물은 글자 그대로에 해당하는 제물을 구해서 올리기 어려워, 향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석성향교에서는 과일 종류로는 배, 곶감, 대추, 은행, 호두, 잣 등을 쓰고 곡식 종류로는 쌀, 보리 조 등을 쓴다. 또 미나리, 도라지, 더덕, 명태, 조기,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머리, 돼지족, 파 등 제물로 올라간다.

제물을 구매하는 장을 볼 때는 임원들끼리 다 같이 가서 장을 보고, 메모지에 제물을 적어서 지정 시장에 주면 그 곳에서 알아서 준비해서 향교로 갖다주는 경우도 있다. 장을 봐온 제물은 향교에서 다듬거나 손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기는 작년에 부여군청 문화재과의 지원을 받아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였다. 당일 제사는 진설을 마치고 난 뒤 초헌관이 먼저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면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 당일 참석 인원은 장의 25명과 내빈 50~70명 정도다.

기로연과 여성 향교 회원

석성에서는 1년에 한번 12월 중 지역의 노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는 행사안 기로연을 열고 있다. 석성 주민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데 약 130명 내외의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한다. 다만 여성 노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남성 노인들만 참석한다.

그동안 향교의 유림은 남성들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향교 회원으로는 여성도 활동하고 있다. 석성향교에는 네 명의 장의가 여성이다. 부여의 다른 향교에는 여성 장의가 없어, 여성 장의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석성향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석성향교의 미래를 꿈꾸다.

이계식이 석성향교의 전교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유림들이 고연령대인 점이

다. 평균 연령대는 80대 이상이고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 중반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제물을 옮기기도 힘든 형편이다. 또, 향교 예산의 여유가 없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계식은 앞으로 60대 분들이 향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군이나 여러 단체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림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향교생활에 임할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조 남 중 (1945년생)
부여군 임천면 탑사로

고향으로 돌아와 유림에 들다



탑산마을에서 태어나다.

조남중은 1942년생으로, 5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조남중의 실제 나이는 현재 84세로 실제 출생연도는 1940년이었다. 예전에는 홍역으로 유아사망이 흔해 아이 출생 후 1~2년 뒤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남중의 아버지도 조남중이 두 돌이 지난 후 출생신고를 하여, 조남중도 실제 나이보다 두 살이 줄어든 것이다.

조남중이 태어난 마을은 탑산리로, 탑산리에는 남당, 독벼루, 매산골, 탑리, 초일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 가운데 남당은 큰 연못이 있고 남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고, 매산재는 매를 놓아 꿩을 잡던 매봉재 아래의 마을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초일은 초막이 많았던 마을이며, 탑리는 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탑산리는 탑산 1리부터 4리까지 있었는데, 조남중이 태어난 마을은 매산골로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탑산1리이다. 남당과 초일. 탑리는 각각 탑산 2리와 3리, 4리에 해당한다.

조남중은 임천면의 풍양조씨 종친회의 회장인데, 예전에는 임천에 풍양조씨가 약 100호 이상 거주했다. 조남중의 19대조 할아버지인 회양공 조신이 시조로, 장암면 점상리에 산소가 있다. 탑산리에는 조남중의 10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풍양조씨들이 몇 대째 거주했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두 가구만 남아있다.

조상제사에 대한 달라진 풍토

임천에는 풍양조씨 종친들이 많아서 가을 시제가 해마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조남중이 열서너살 무렵에 할아버지가 가을이면 각 조상들의 산소마다 시제를 지내러 다니시느라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전날에 미리 묘소가 있는 곳에 가서 주무시고 시제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고직이라하고 해서 문중 농토를 부치는 댓가로 제사 음식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중의 제사 풍습도 많이 달라졌다. 조남중이 어렸을때는 조상들의 산소 마다 많은 제물을 차리고 시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제각을 지어 시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제물도 줄여서 차리고 있다. 객지에 사는 후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19대조부터 10대조 조상들의 시제는 산소에 직접 가서 지내지만, 10대 이하의 조상들은 산소를 찾지 않고 제각에서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남중이 보기에 돌아가신 조상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찾아오는 후손들이 많지만, 경제력이 없는 경우 제사에 잘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남중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종사가 이어질지 걱정이 깊다.

4학년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조남중은 가림초등학교에 다녔다. 가림초등학교는 임천초등학교 분교가 되었다가 2000년에 임천초등학교로 통합된 학교이다. 조남중이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락에 쌀이 섞인 밥을 싸오면 부자라고 했다. 저학년때는 학교를 일찍 마쳤고, 5,6학년이 되어서야 도시락을 쌌다. 가방이라고는 없어서 보자기에 책과 도시락을 둘들 말아서 어깨에 메고 다녔다.

초등학교 4학년때 6.25 전쟁이 났다. 임천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산으로 피난을 갔다. 당시 강경에 집중 폭격이 있었고, 산에 숨어있는 동안은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쌀이나 보리쌀을 볶아서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다.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산에 피신시키고 어른들은 하루 이틀만에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것을 가져 오기도 했다. 산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는 폭격을 맞거나 말거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조남중의 가족들도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임천지역은 큰 폭격이나 피해가 없이 전쟁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유림의 세계에 발 디디다.

조남중은 군대 제대 후 혼인을 했다. 처가가 부산이었는데,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가 증축되면서 그 공장을 맡게 되었고 부산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 후 고향 임천으로 돌아왔다.

조남중은 탑산리의 마을이장을 맡아 약 4년 정도 일했고, 임천농협의 이사도 약 10여년 가량 역임했다. 고향에서 지역일을 보던 조남중이 예전에 할아버지가 향교에 다니셨던 것처럼 유림에도 발을 딛게 되었다. 처음 몇 년은 집안일 때문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향교에 동갑친구도 있고, 칠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어른의 추천으로 칠산서원의 원장이 되었다.

조남중의 할아버지가 향교에 다닐 무렵에는 향교에 아무나 가입할 수 없었다. 임천의 풍양조씨 집안은 양반이라고 인식이 되어 향교 활동이 가능했지만 아무 성씨나 향교에 드나들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예전에는 유림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쌀가마라도 향교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조남중의 유림 활동

퇴직 후 고향에 돌아온 조남중이 가장 먼저 한 유림활동은 임천면 유도회 총무였다. 유도회는 각 면마다 조직되어 향교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조남중이 임천면 유도회의 회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을때에 뭐든 대충은 안되는 성격이라 충실하게 회장일을 맡아볼 여건이 되지 않아 회장을 고사하고 총무일을 맡았다. 총무는 서원의 제사와 손님을 접대하는 실무를 맡고 원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무를 약 10년 정도 하다 전 원장님의 간곡한 추천으로 약 2년간 칠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다. 풍양조씨 종친회의 일도 회장 추천을 받았지만, 감사 일만 맡고 있다.

칠산서원의 제사 준비와 실행

칠산서원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노성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토호의 반란을 진압한 공을 세운 유동수(柳東秀, 1579~1654)를 제향하는 서원이다. 지금은 유동수의 후손인 기계 유씨 본손이 원장을 맡고, 1년에 한번 춘향제를 지내고 있다. 제사 날짜와 제관은 임천향교에서 정한다. 임천향교의 관내는 세도면 등 5개의 면이 해당되는데, 조남중은 임천향교를 임천면 소재 모든 유림기관의 본청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사비용은 군청의 지원금을 활용한다. 제물은 서원 제향인물인 유동수의 후손인 현 원장의 부인과 후손 집안의 부인들 서너명이 와서 준비한다. 부녀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면 제사 당일에 점고를 마친 후 올린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서원에서 식사를 준비해 참여하신 분들에게 점심 대접을 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서원에서 점심 대접을 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조상제사와 선현제사 사이

유림으로 활동하면 여러 서원과 향교의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으로 초헌관과 아헌관, 종헌관을 비롯해 각 역할을 담당하는 제관이 선정된다. 이때 서원이나 향교에 모신 인물의 후손들이 있지만, 이들 후손들만을 제관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 선현의 후손만이 제관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들은 제사에 불참하니 지금은 누구나 제관으로 선정되며 함께 선현을 모신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통이나 옛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더 적어지니, 나중에는 제사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까 걱정이다.

서원 활용에 대한 생각

현재 서원은 제향일에만 주로 사람들이 모이고, 본래 서원이 생긴 목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서원은 조용하고 방해되는 것이 전혀 없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조남중은 예전과 같이 한문공부에 관심이 높아지면 서원을 서당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원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있으니 독서실 같은 환경을 조성해 붓글씨도 쓰고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다. 임천향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결국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폐지되었다. 조남중이 서원원장을 역임하던 당시에 간곡서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참여할 학생들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여성들의 유림행사 참여

대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자치위원회가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유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서 향교나 서원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임천과 같은 농촌마을은 서원이나 향교에 관심이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걸음 걸이가 시원찮고 교통편도 부족해서, 참여의사가 있다해도 실제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남중은 여성들의 유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이 향교나 서원같은 유림시설에 오는 것을 큰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성역할 구분이 점차 사라져 여성들이 유

림으로 활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다만, 유림의 활동이 그동안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유림에서 잘 대처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성

조남중은 초등학교를 마친 뒤 중학교에 입학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조남중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부모님의 교육열때문이었다. 조남중은 직장생활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중학교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서 부산에서 살면서 종업원 400여명과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 교육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다. 예전 시골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급학교 진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하고, 노력하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 길 배 (1944년생)
부여군 임천면 탑사로

서원에 소풍을 왔던 소년, 서원의 유림문화를 지키다



연안 이씨의 마을 죽절리에서 태어나다.

이길배는 1943년 부여 죽절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연안 이씨는 13대조부터 부여에서 살고 있는 유서깊은 문중이다. 현재는 연안 이씨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과거 죽절리는 연안 이씨 마을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길배는 연안 이씨 문중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죽절리에서 약 10년 정도 마을이장을 했었기 때문에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크게 줄어 약 8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오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아버지를 따라 향교에 드나들다.

이길배의 아버지는 한문과 풍수, 독경(讀經)를 잘 아시는 분으로 향교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 이길배도 아버지를 따라 유년 시절부터 향교를 집 드나들 듯 자주 방문했다. 어린 시절 창렬사에 아버지와 함께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창렬사가 아니라 삼학사로 불렸다. 아버지는 시조회관에 가서 시조창을 하시기도 했던 멋진 분이셨다.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만 91세에 건강하게 하늘로 떠났다.

한문을 꾸준히 익히다.

어린 시절 이길배의 가정 살림은 어려운 편이었다. 아버지께서 묫자리를 봐 주며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 생활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7살부터 일을 해야 했다.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어린 나이의 이길배는 도시락을 싸들고 예산까지 나무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는 이 이때를 '아주 이가 갈리는 시절'이라 회고할 정도지만, 힘들어도 한자 공부는 늘 열심히 이어갔다. 아버지에게 동몽선습을 배우고, 아버지의 대부뻘되는 분에게 가끔 쌀 한두 되 정도를 드리고 한문을 배웠다.

이때 배운 한문 덕에 구룡초등학교에 진학해 나름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 할 때 아무런 상장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지역 유지의 자녀에게 상장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억울함에 동네에서 선생님을 마주쳐도 3년간 인사도 안 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왔던 삼학사

초등학교 소풍 때 삼학사를 갔던 적이 있었다. 그때 본 제사 지내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언젠가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에 갔는데 그곳에 똑같은 이름의 삼학사가 있어서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있다. 부여 삼학사는 윤집, 홍익한, 오달재 선생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때도 윤집, 홍익한, 오달재 선생의 순으로 지내고 있다. 부여와는 달리 성남에 있는 삼학사는 홍익한, 윤집, 오달재로 순서로 제를 모시고 있었다. 궁금증이 생겨 알아보니 윤집 선생이 부여 사람이라는 사실과 윤집 선생 자손들이 살며 제사에도 참여하고 있어, 부여 삼학사에서 윤집 선생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실함으로 불운을 넘어서다.

21살이 된 이길배는 집안 아저씨의 소개로 혼인을 하였다. 아내가 넉넉지 못한 자기에게 와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결혼하고 1년 뒤 군대를 갔는데 훈련 중 다치는 사고로 몸을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 교관이 요령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구타하였다. 이때 이길배는 눈을 크게 다쳐 병원 생활만 하다가 중도 제대하게 되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막막했다. 몸이 아픈 그를 대신해 아내가 하우스에서 토마토와 딸기를 키웠다. 이길배는 몸이 조금 나아지자 건설업을 시작하였고, 그의 성실함을 믿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맡겼다. 그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성실히 살아온 덕에 1남 4녀 자녀들을 모두 잘 키워낼 수 있었다.

창렬사 이야기

창렬사는 삼학사(三學士)라고 불리는 조선 중기 충신 윤집, 오달제, 홍익한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다. 병자호란 때인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며 모욕적인 화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삼학사 세분은 청나라에 잡혀가게 되었다. 청태종이 직접 이들의 심문에 참가하여 설득과 회유를 하였으나 심한 고문을 견디면서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결국 중국 심양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나 청태종도 이들의 기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후대인들도 이들을 삼학사라고 부르고 높은 충절과 고귀한 죽음을 기렸다. 1717년 삼학사인 윤집, 오달제, 홍익한을 모시기 위해 삼학사

가 처음 지어졌고, 경종 1년(1721)에는 임금이 내린 '창렬사'란 현판을 받았다. 이곳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1979년 12월 19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삼학사 중 윤집 선생의 묘가 내산 온해리에 있는데, 윤집 선생의 말이 청나라에서부터 윤집 선생의 옷만 물고 부여까지 와서 거기서 모시게 되어서 것이라는 유래가 전해진다고 하며, 현재는 온해리로 불리고 있다. 윤집 선생의 후손들은 죽절리와 내산에 많이 살고 있다.

본격적으로 유림에 입문하다.

아버지를 따라 일찍 향교를 다니곤 했었고, 인연을 맺게 된 유림회 류익렬 회장 덕에 유림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길배는 60살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남면에 있는 동절사와 청일사에서 장의 일을 제안 받게 된다. 장의는 총책임자인 향교나 서원의 전교와 원장, 총무를 돕는 사람이다. 이길배는 총무가 제사에 올릴 물건을 사러 갈 때 같이 가고, 한자로 표기된 제수의 물목을 알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는 일을 하였다.

창렬사의 운영 조직

창렬사는 사당과 강당, 내삼문 등의 건물이 있다. 사당은 삼학사의 제향을 올리는 곳이며, 강당은 본래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공간인데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입구 앞에 있는 건물은 멀리서 오는 어른들의 숙식을 대접하던 숙사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관리인이 지내고 있다.

창렬사의 운영 조직에는 원장, 총무, 장의가 속해 있다. 향교는 구룡, 내산, 예산, 홍산, 옥산, 남면 각 면마다 두 명의 장의를 두고 있고, 창렬사는 각 면마다 한 사람씩 장의를 둔다. 사실상 원장은 명예직이고, 실무와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총무가 실질적인 일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역 사람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이 중심인 향교와 달리 삼학사 충신을 기리는 제향이 목적이다 보니 제사가 없는 날에는 자유롭게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다.

창렬사의 관리는 건물이 낡거나 보수할 곳이 있으면 군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사는 1년에 한 번 춘향제로 지낸다. 삼충신을 기리기 위해 제향은 누구를

제관으로 정할지 상의하는 것에서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주로 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사무소 등 행정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한다. 제관의 대표인 초헌관은 주로 교장이 맡게 된다. 원장은 초헌관과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예로 알고 있다.

창렬사의 제사 준비와 제사지내기

서원이나 향교 제사의 제물로는 익히지 않은 생식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제물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순직한 사람을 위해 바치는 최소의 예의로 여겨져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절인 조기, 명태 그리고 대추, 밤, 호두, 잣이 올라간다. 제수를 다 차려 놓으면 초헌관이 분향례와 초헌례를 하고, 다음으로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에는 전체를 책임지는 초헌관 이름만 들어간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상 높은 이들을 초헌관에 초빙하는 것이다. 초헌관의 절차가 끝나면 아헌관과 종헌관이 각각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임원들만 와서 제복으로 갈아 입은 후 술은 따라 올리지 않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분량을 하고 있다.

제사 비용은 170~180만원 정도를 군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제사만 올리면 부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참석자들 식사와 양말과 같은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 줘야 하기에 비용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사에는 대략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다.

삼학사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윤씨 집안의 후손들이 종종 제사에 찾아오고 있으며, 다른 후손들은 거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충절로 나라를 지켰던 선현들의 명을 이어가기 위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아내를 돌보다

이길배의 부인은 젊은 시절 눈이 다친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하다 작은 통증이 생겼다. 처음에 허리 디스크로 알았던 증상이 파킨슨병이었고, 40년 동안 투병 중이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낸다는 걸 이길배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교대로 아내를 간호하고 있다. 40년간 아내를 돌보는 이길배는 구룡면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길배는 삼학사의 원장과 연안 이씨의 대의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2년만 해달라고 하는 이장일도 부탁을 못 이겨 10년이나 하게 되었다.

최근에 성균관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역사 이래로 고생하며 세상을 이끌어왔던 여자들이 시대가 이제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요즘은 면이나 동사무소 등 어딜 봐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이처럼 부여 향교나 서원에도 여성 임원이 있다면 유림문화를 지켜가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창렬사의 미래를 생각하다.

창렬사 소유 재산으로 산이 있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없고 향교와 달리 제사가 간단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원장은 명예직인데, 이길배는 창렬사의 기록물을 지금도 꼼꼼하게 검토한다.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한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현판에 적힌 창렬사의 역사를 보면 참 긴 시간이 느껴진다.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에 큰 아쉬움이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림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쉽다. 젊은 사람들이 각자 살기 바쁜 조건 속에서 조상을 모시는 문화와는 멀어져가는 점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인터뷰어_ 오문선>

부여군
부여의 향교, 서원과 유교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조 성 연 (1946년생)
부여군 임천면 부흥로

조상 봉사로 이르게 된 유림의 길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기왓말에서 나고 자라다.

조성연은 풍양조씨로 1946년 1월 21일에 임천면 칠산2리 와종마을에서 태어났다. 와종은 기왓말 또는 지암말이라고도 불렸다. 금강변에 있으면서 용남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이전에는 약 120여 호 규모의 꽤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80여 호로 줄었다. 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오이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다.

풍양조씨의 세거지 임천, 종사를 맡아보다.

임천은 풍양 조씨의 세거지이다. 고려 말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하다 역으로 몰린 조신(趙愼)이 입향한 후 풍양조씨 세거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조신은 고려 후기의 학자이자 충절인이다. 신돈의 섭정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부여 임천에 숨어 지내면서 이름을 신(愼)으로 바꾸었다. 임천에서는 조신을 회양공 할아버지라고도 많이 부르며,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에 묘가 있다.

조성연이 살고 있는 와종마을에는 그의 8대조가 입향해 풍양 조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조성연은 종가의 일도 관여하고 있는데, 약 20대조까지의 조상들의 제사가 있다. 조성연은 17대조와 12대조 조상의 종사일을 맡았고, 서원의 원장으로 바쁘지만, 가을철이 되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할 만큼 종사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식구끼리 밥은 먹고 살만했던 가정

조성연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다. 가족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농사 규모였다. 다섯 살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충화면으로 피난을 간 기억이 있다. 그때는 조성연의 다른 형제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기이고 어린 나이라서 업혀서 피난을 갔다.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그 당시의 기억 가운데 그 기억만 남아 있다.

조성연이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학교는 약 10리 밖에 있었다. 이후 조성연이 5학년 무렵에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칠산에도 학교가 생겨서 칠산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초등학교는 한 반에 약 60명 정도로 교실이 꽉 들어찰 정도였다. 학교에서는 가끔 우유를 주기도 했으나 쌀보다 보리가 많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고추장을 반찬으로 먹었다. 신발이나

가방이 변변치 못해서 겨울철에 매우 춥고 발이 시려웠고 책 보따리를 메고 뜀박질해서 가면 도시락 통안에 있던 숟가락이 딸그락거렸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임천중학교에 진학했다.

시골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형제는 2남 2녀로, 조성연이 맏이이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임천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당시 여학생들은 중학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남학생중에는 중학교 입학생이 꽤 있었다. 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남학생 30여명 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살림이 넉넉한 집이 많지 않았지만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 공부에 애쓴 탓이었다. 임천까지는 약 4km 정도를 걸어 통학했다. 남녀 공학이었고 두 개반이 있었다. 한 개 반은 남학생만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한 개 반은 남녀혼성반이었다.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았지만, 농촌에서 학교에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다. 농사일에 바빠 손이 모자랄 때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조성연은 학교다니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부여나 강경으로 가서 하숙을 하거나 자전거를 사서 통학해야 했으니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였다.

양화면 산속 마을 아가씨와 혼인하다.

중학교를 마친 후 집에서 농사일을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27살에 25세 신부를 맞아 혼인을 했다. 비단을 이고 다니며 장사를 하시는 큰 어머니가 중신을 했다. 신부는 양화면 벽용리 출신으로, 처가는 아주 산골이었다. 처음 맞선을 보기 위해 어머니와 중매를 선 큰어머니와 함께 신부의 마을로 찾아갔다. 지금처럼 다방과 같은 공간이 없어, 신부가 살고 있는 동네 옆집으로 갔다. 신부도 어머니와 언니를 대동하고 왔는데,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만나고 나서 3개월 후 혼인을 했다. 혼인은 처가에서 했는데, 우인 대표들과 버스를 타고 갔다. 시골 인심이 순박해서 혼인 당일날 함을 파는데, 실갱이도 없었다. 그날 초례를 한 후 신부를 데리고 택시타고 집으로 왔다.

군대 생활, 큰 키로 의장대에 뽑혀가다.

21세에 군대에 간 조성연은 규율이 세다는 육군본부 의장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의장대에 선발된 것은 180cm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조성연이 키가 큰 것은 집안 내력이기도 하다. 아버님도 키가 크셨고 동생과 조카들도 큰 키를 가졌다. 국빈이 방문했을 때의 사열이나 도열, 국립묘지 행사, 중앙청 행사, 청와대행사 등에 자주 갔다. 동작을 절도있게 하여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의장대에서는 총을 한 손으로 돌리는 동작을 연습하고 총을 하늘로 던졌다가 받아내는 등 사열에 필요한 동작을 실수없이 연출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했다. 연습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대 무렵에는 한 손으로 총을 1500번 이상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경지에 올랐다.

오이로 살림이 늘다.

조상들이 물려준 살림이 아버님 대에 조금 늘어났다. 조성연은 자녀가 넷이라 자녀들을 가르치느라 큰돈을 모을 새가 없었다. 그래도 금강변의 좋은 토양에 오이를 심어 약 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 1990년 경지정리 후 1991년부터 오이 농사를 시작했다. 오이는 하우스에 재배해 음력 1월부터 출하하였는데. 쌀농사보다 수익이 높았다. 보통 1월부터 6월까지 오이재배를 했고, 수확 후 그 자리에 벼를 키웠다. 1년 내내 쉴 수 없었던 농부의 생활이었다. 오이재배로 자녀들을 모두 공부시켰고, 자녀들은 현재 모두 출가하였다.

임천향교의 장의로 추천받아 유림에 입문하다.

풍양조씨 세거지인 임천에서 종사일을 맡아보던 조성연이 유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20대조 할아버지 묘가 서원 근처에 있어서 시제에 많이 참석했고, 동곡서원에도 자주 갔었다. 그를 눈여겨 본 어른들이 추천해서 조성연은 67세부터 임천향교 장의, 성균관 유도회 임천지부의 지부장을 2년동안 맡아 했다. 그 이후에는 임천향교 전교를 2년 동안 역임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유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유림의 본고장 임천

부여군에서 선현들을 제향하는 곳은 약 20여 곳이다. 그 가운데 임천지역은 9개의 제

향공간이 있어 전국적으로도 유림문화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흥산의 충혼사로 백제시대 전몰장병을 모신 곳이다. 이곳에서는 임천충혼제를 지내고 있는데, 매년 4월에 나당연합군에 항전하다가 순국한 백제군의 넋을 달래고 우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제례행사이다. 충혼사는 1985년에 건립되어 백제의 수도를 수호하던 장졸들의 신주(神主)에 해당하는 수성장졸제신위(守城將卒諸神位)라고 적힌 위패들이 모셔져 있다.

서원도 가장 많아, 동곡서원, 간곡서원, 반산서원, 칠산서원이 있고, 부여4대 향교 중 하나인 임천향교가 있다. 그 외에도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김문기를 모시는 사당인 왕의영당이 양화면 초왕리에 있다. 임천 충화면에는 세양사가 있는데, 송상현의 동생인 송상인 선생을 모시는 곳이다. 각각 부여군 향토문화재 제42호와 1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천군 세도면 수고리에 있는 낭산서원은 낭산사라고도 하는데. 회양부사 조신의 6대손 낙수 조광형(樂叟 趙光亨)을 비롯해 죽계 조응록(竹溪 趙應祿), 수죽 조방직(脩竹 趙邦直)을 제향하고 있으며, 부여군향토문화재 121호이다.

간곡서원 원장님의 역할

서원 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모시는 일이다. 이전에는 초하루와 보름에도 사당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중이 있는 일이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제사도 1년에 각각 1차례씩 두 번을 지냈으나, 지금은 춘향제만 지내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 간소해진 편이다. 서원 원장은 춘향제를 지낼 때 제사 전체를 주관하고 제관 분장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간곡서원은 부여향토문화유산 제44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 건물 유지 보수 등도 살펴야 한다. 간곡서원의 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2012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고, 관리사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원의 조경 관리 등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임천향교 권 내 유림들은 약 120명 정도인데, 대체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사당에 봉안된 분의 자손들인 본손유사나 유림들이 추천한 사림유사들이 간곡서원 뿐 아니라 다른 서원에도 참석하고 협조하고 있다.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어 서원이나 향교 운영이 원활한

편이다. 조성연도 간곡서원의 제사 뿐 아니라 임천향교 관내 여러 제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 2월과 3월에는 하루에 두 군데의 제사에도 참여해야 할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다.

간곡서원을 소개합니다.

간곡서원은 노고 유동수를 모시는 서원으로, 조성현은 관련 자료를 잘 간직하고 있다. 유동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본관은 문화유씨로 27세 진사가 되었고, 의금부 도사를 거쳐 제용감직장, 사옹원직장, 장례원사평, 오위장 등을 역임했다. 병자호란 당시 상주의 몸으로 호남 부안에서 의병을 모아 여산을 이르렀으나 강화가 성립되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고 한다. 1643년에는 니산현감으로 부임 후 1646년 유탁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통정 내부인 대부에 제소되었으나. 공보다 죄가 더 많은 것으로 유배되었다가 유계 선생과 우암 송시열의 변호로 1647년 배소에서 풀려났다. 1649년 다시 천안 군수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1654년 김제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노안으로 부임치 못하고 그 해에 절하했고, 사후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다시 호조판서로 추증된 선현이다. 유동수가 간곡서원에 제향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도면 화수리에 그의 장지가 있고, 세도쪽으로 유배를 한번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조성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들을 둘러보았고, 특히 소수서원이나 논산에 있는 서원은 여러 차례 다녀 온 적이 있다. 등재된 서원들은 규모가 크고 옛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서건축적인 측면에서 동재와 서재가 갖추어지고 동문과 서문이 있었다. 서원의 강당에는 서원에서 공부한 선현들의 기록들도 잘 남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서원은 사당과 서원의 현판 정도만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여를 비롯해 특히 임천 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유림의 제향공간이 매우 많아서 유림문화의 핵심지역이고 부여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유림문화에 대한 지원이 빨리 시행되어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곡서원 제사의 준비와 절차

제향의 준비는 가장 먼저 제관분정을 한 후 제수 장만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절차

는 간곡서원 제사 준비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 간곡서원에서는 삼변삼두라 해서 마른 제물에 속하는 율황, 능인, 호두를 대나무로 만든 변(邊) 진설하고, 젖은 제물에 속하는 녹해, 청저, 구적은 두(豆)에 진설하는데, 녹해와 같은 제물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소고기를 올리고 있다. 그 외에 보괴라 해가지고 쌀과 수수 등 생으로 된 곡식을 올리며, 저일구(猪一口)와 폐백(幣帛)이 있다. 저일구는 돼지머리인데, 돼지머리 대신 돼지고기를 잘라서 진설한다.

제향은 오전 11시에 모여서 영신례. 전폐례, 초헌, 아헌, 종헌, 음복, 망료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축문은 초헌관이 절을 마친 후 진행한다. 제향을 마친 후에는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 예전에는 오시는 분들이 향료라고해서 조금씩 돈을 내시며 인사를 했지만, 요즘은 향료를 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한테 거마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다. 서원 춘향제에는 제관만 15명 정도이고 약 30명 정도가 참여한다.

예전에는 초하루와 보름에도 향을 올리는 분향례를 했기 때문에, 본손유사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서원 원장이 전날부터 와서 자고 분향례를 지내기도 했다. 지금은 분향례는 따로 지내지 않는다.

서원 제사 비용은 부여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간곡서원의 재산인 토지가 600평 정도가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서원관리와 제수장만, 오시는 분들에게 거마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간곡서원에 참여하고 있는 유림들은 부여유림회에도 가입하여 다른 지방의 향교나 서원 등을 방문하고 교류하고 있다. 서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 서원에 나오시는 여러 유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잘 따라주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세상, 달라지고 있는 서원

서원은 주로 노년의 유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도 대체로 노년층들이다. 학생들이 소풍을 오기도 하나 간곡서원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인성교육을 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서원은 주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운영했지만, 지금은 여성이 장의를 하는 향교도 있다. 조성연도 여성들을 영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서원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여성용 당의를 준비할 계획도 세웠다. 조만간 향교나 서원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어_ 오문선>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한산장날 돈주머니를 세 번 끌렀다 666
사람으로 미어 터지던 판교장 671
서천장의 변화를 이끈 사람 구재강 676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 못살던 길산장 681
삼일운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신장 686
가격은 싸지 않은데 물건이 좋은 장항장! 691
장항 중앙시장에서 신시장까지의 산증인 주진옥 696
서천의 시장 역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역 임성순 701
자연을 심고 거두어 함께 판매하는 서천시장 김자희, 조관연 부부 706
인산인해 어게인 비인장을 꿈꾸는 조영 711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김 형 석, 나 정 숙 (1937년생, 1939년생)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한산장날 돈주머니를 세 번 끌렀다.



그릇가게를 운영한 부부

"한산장날 우리 가게(평화그릇상회)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당시 유행하였던 유라이트 그릇을 사기 위해 줄을 섰어요. 그때는 그릇을 훔쳐가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릇이 팔릴 때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돈주머니를 세 번 끌러야 장사가 끝났으니 그릇 하나쯤 훔쳐가도 눈을 감을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 모습이지만 그립기만 하다. 한산장에서 44년간 평화그릇상회를 운영한 김형석(86세), 나정숙(84세) 부부의 이야기이다. 지금의 한산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산하다고 하는데 1980년대 한산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다닐 정도였다. 골목마다 화양, 마산, 기산 그리고 인접한 부여 양화, 홍산 사람들까지 한산장은 사람으로 가득하였다.

특히 한산장은 한산 모시로 유명하다. 한산장은 새벽부터 모시를 팔러 나온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모시값을 제대로 받고 싶은 사람과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언성이 오고 가고 제값을 받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산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때 김형석, 나정숙 씨가 운영하는 평화그릇상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였는데 평화그릇상회에는 당시 유행하던 그릇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산에 터잡고 농사꾼으로 살던 시절

김형석 나정숙 부부는 사실 그릇가게를 하기 전에 한산면 죽촌리 고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김형석은 부여 양화면에 살다 나정숙과 결혼을 하면서 한산에서 살게 되었다. 김형석의 결단력과 추진력, 근면성은 농사만 짓게 하지 않아 마을일에 참여하며 한산 죽촌리 수리계 총무를 40여 년간 보았다. 수리계는 한산 고촌저수지 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김형석은 수리계 논을 확장하고 물세를 받아서 더 많은 논을 장만해 저수지 보수 사업을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또 고촌리 자원관리 지도자로 다수확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마을 이장으로 일을 해 왔지만 젊은 사람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농사짓는 것보다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평화그릇상회를 열었다.

가게운영의 방식

그릇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부산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동생네 덕에 쉽게 결정하였다. 동생으로부터 그릇가게 운영 요령을 터득한 김형석은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고객이 찾는 물건은 항상 가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상도라고 생각하였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써 오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잘 해주고 물건을 안 사가지고 갈망정 공손히 인사를 잘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상도이다. 이 두 가지 상도를 44년간 지켜 온 김형석 나정숙 부부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화그릇상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 익산, 전주를 오고 가며 물건을 사왔다. 버스를 이용하여 다니기도 했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를 매달고 물건을 싣고 오고갔다. 오토바이로 물건을 사오다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친 일 외에는 별 이상 없이 장사를 하였다. 이렇게 대전, 익산, 전주에서 구입한 물건을 나정숙은 평화그릇상회에서 장사를 하고, 김형석은 1990년부터 봉고차에 그릇을 싣고 서천장, 판교장, 홍산장, 비인장을 돌며 영업을 하였다.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서천농협 주변에서 봉고차를 받쳐 놓고 장사를 하였는데 당시 유행하는 그릇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장사가 잘 되었다. 신바람이 난 김형석은 고객이 찾는 그릇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특히 김형석은 천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작은 장까지 안 다닌 장이 없다. 익산 북부시장까지 찾아가 장사를 하여 수입을 올렸다.

영업왕 나정숙

한편 평화그릇상회에는 나정숙이 영업을 잘했다. 그 많은 그릇의 가격을 줄줄이 외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장례식, 결혼식, 회갑잔치를 대부분 집에서 했는데 1997년 이전에는 가정에서 장례와 혼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릇가게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릇과 도구를 빌려주는 임대가 성행하였는데 소위 그릇가게에서 빌려 쓰는 '셋그릇'이 유행하였다. 집에서 잔치를 치르기 위한 그릇을 임대하는 셋그릇을 몇 벌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네마다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한산 평화그릇상회를 찾아

왔다. 셋그릇은 접시, 밥공기, 주발, 냄비도 찌개냄비, 모둠냄비, 보통찌개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결혼식이 있는 집이나 상갓집은 자기들이 와서 그 인원에 비례하게 그릇을 빌려갔다. 이때 트럭으로 하나씩 그릇을 빌려 갔는데 대개 임대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었으며 그것이 꽤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2000년대 들어 장례식장과 예식장이 생기면서 셋그릇은 창고에 그냥 쌓여 있게 되었다. 그릇장사가 사양길로 접어든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도 그릇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라이트에서 양은그릇으로, 양은그릇에서 세라믹으로 몰릴 때, 세라믹에서 유리 글라스로 유행이 바뀔 때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혼례품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에 평화그릇상회를 찾았다. 혼례품으로는 7첩 반상기를 준비하는데 7첩 반상기는 일곱가지 찬기가 있는 그릇을 말한다. 7첩 반상기를 사지 않는 사람은 부부 반상기, 수저, 금수저, 금색으로 된 수저 등을 많이 사갔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시집가서 필요한 소품들을 평화그릇상회에서 사갔다. 1990년대까지 친정아버지, 어머니 밥그릇까지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릇 장사를 할 만하였다.

장사의 즐거움

이제 김형석 나정숙 부부가 고령이어서 평화그릇상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자식들이 이제 운전도 그만하시고 쉬라고 하지만 부부는 2023년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뒤돌아보면 김형석 나정숙 부부가 생각하는 상도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나는 상도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문 안에 무엇을 사고자 찾아온 사람이 그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상도의가 내가 이 그릇정도를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리 초자, 사기그릇, 양은그릇을 사러오면 다 있어야 하는데 더러 빠진 것은 내가 도매상, 공장을 다니면서 구해다 구색을 갖춰놔야 하는 데, 이 사람이 목적한 것을 사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니까 상도의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형석 나정숙 부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한산장에서 상도의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피론 이불집 이형우 사장, 옆집 중국집 최석환 사장을 들 수 있다. 이형우 사장은 꾸준하게 가게를 잘 운영하며 고객이

원하는 이불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한산장 상도의를 잘 지키고 있다. 최석환 중국집 사장도 이 만큼 잘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장소도 좋고 친절한 가게이다. 해피론 이불집이나 중국집, 양화상회는 예전만 못하지만 가게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산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저물어가는 옛 시장

현재 한산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한산장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12시 이전에 어르신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단박질하여 12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면 이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도 손님이 없으니 그냥 해지기전에 집에 가버린다. 그래도 한산장에는 전라도에서 오는 생선장사, 본토배기 박순희, 장항에서 오는 장사꾼, 양화에서 오는 사람 등이 있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형석 나정숙 부부는 한산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 한산모시와 소곡주 때문에 한산장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산모시와 한산 소곡주를 군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석 나정숙 부부는 한산장과 평화그릇상회를 찾아준 단골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혹시라도 다음에 오시면 보너스를 드리고 싶다. 그 단골들이 지금의 김형석과 나정숙을 있게 만들었다. 또 고촌 마을사람들도 잊을 수 없다. 자원지도자 10년, 마을 이장 8년 하면서 정성을 쏟은 고촌 마을에 이제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 끝으로 김형석은 한산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마지막으로 표명하였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차 주 인, 신 동 자 (1949년생, 1942년생)
서천군 판교면 금덕길

사람으로 미어 터지던 판교장



너더리장 판교장

판교장은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도래마을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판교장은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서는 5·10일장이다. 판교장은 본래 '너더리장'이라고 불렸다. 1931년 장항선 판교역이 현암리에 개설되기 이전에는 판교면 너더리마을에 있었는데 1931년 판교역을 중심으로 판교면 소재지가 형성되자 현암리 도래마을로 판교장을 이전 개설하였다.

판교장에서 44년 동안 잡화를 판매한 차주인 씨와 외산에서 시집와 판교장에서 국밥집을 했다는 신동자 씨를 만났다. 신동자 씨는 차주인 씨 가게로 라이터를 사러왔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장날에 집 가까이에 있는 잡화가게를 찾는다. 차주인 씨는 주로 판교장과 4일 9일에 서는 비인장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서천장도 보았다. 그러나 서천장은 잡화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판교장과 비인장 두 장만 보고 있다. 취급하는 물품은 집에서 늘 사용하는 빨래비누, 빨래집게, 고무줄, 쥐약, 고무장갑, 테이프, 때수건 등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 그래도 없는 물건을 고객이 찾으면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차주인 씨가 판교장에 나오게 된 것은 군대를 제대한 후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농사만 짓기에는 시간이 남아 30세에 장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소위 노점상으로 장날마다 통행이 많은 곳에 전을 펴고 잡화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판교장과 비인장에 전방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판교장 상인이다. 신동자 씨는 아버지의 중매로 시집을 와보았더니 판교장 국밥집 며느리가 되었다.

판교장 최고의 인기품목은?

판교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소전과 모시전이다. 소전은 장날마다 100여 마리 이상 거래가 되어 소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소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판교장은 들썩거렸다. 판교장에 나온 소는 다양하였다. 송아지부터 늙은 소까지 많은 소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판교장에는 팔린 소를 몰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소몰이 여자가 있었는데 소몰이 여자는 두 마리 정도를 몰고 판교장을 출발하였다. 소를 거래하기 위하여 판교장에 오는 사람들은 비인, 서천, 종천, 문산, 부여 옥산, 홍산, 보령 주산, 미산, 외산 사람들이지만

멀리 광천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왔다. 지금의 판교보건소 주변에 소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때 해장국이나 국밥을 판매하는 밥집이 즐비하였다.

신동자 씨는 "우리 집 뒤가 소전이었는데 큰 소들이 많이 거래되었다. 소를 거래하고 거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소대가리를 삶아서 만든 국밥, 또 개로 만든 보신탕을 먹었다. 판교가 보신탕이 유명한 것은 내일이 장이라면 오늘 잡아서 냉동시키지 않고 곧바로 탕을 만들기 때문에 맛이 있다."

소시장은 해를 거듭하며 축소되어 갔다. 2000년 정도에 판교리 가축시장을 개장하기도 하여 신동자 씨도 판교리 가축시장에 음식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거래되는 소가 적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소시장과 음식점이 폐쇄되었다.

판교장 모시전은 장미사진관 주변에 있었다. 모시를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판교사람들은 모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시전 역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태모시가 많이 거래되었지만 필모시, 굿모시도 많은 양이 거래되었다. 특히 필모시는 새벽 3시부터 거래가 되어 모시를 사려는 사람들로 판교장 전날 밤에는 장미사진관 주변이 북적거렸다. 모시 장사들은 늘 정해진 숙소를 찾아갔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를 택했다. 숙소는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낼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은 큰 돈을 본인이 가지고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주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판교에는 우시장과 모시 때문에 큰돈이 오가자 놀음이 성행하였고 고갯마루에서 강도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 팔고 모시 판 돈을 노린 도둑놈들의 소행이었다. 또한 판교장에는 텃세가 심했다. 판교 토박이들이 주먹 좀 쓰면 장날 상대방의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어 술을 뺏어 먹는 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리운 그 시절

차주인 씨는 44년 전 판교장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많은 사람들이 판교장을 오고 갈 때 잡화상회 운영도 제법 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게 문을 여는 이유는 수입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나마 빠지면 장도 더 시원찮고, 적지만 일정한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또 손님들이 찾아와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며 농사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막걸리 한잔을 나누는 재미가 있어 가게 문을 연다. 다시말해 장삿꾼 한사람이 빠지면 판

교장이 깨질 것 같아 꾸준히 문을 열고 있다. 고개 하나 넘으면 보령시 미산인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장에 오기 때문에 문을 연다.

판교장에서 많이 팔린 것은 음식으로 보신탕과 도토리묵이다. 도토리묵은 1980년대 현암리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판교장 좌판에서 많이 팔렸다. 지금은 판교농협과 현암리 한 집에서 도토리묵을 생산하고 있다.

판교장을 되살리자

지금은 판교장의 장세가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손님이 한 분 줄어든다. 앞으로 판교장은 아주 없어질지도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기에 판교장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판교장 장옥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옷가게, 잡화, 철물, 신발, 생선가게 다섯집이다. 나머지는 노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교장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판교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 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판교장과 관계된 사람은 모두 개량한복을 입는다. 이렇게 해서라도 쇠퇴하는 장을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신동자씨는 “한복을 입고 고얀히 장에 서 있으니까 부끄럽다”라고 했다.

또 판교장에 쉼터를 마련하였다. 겨울에 택시를 타고 장에 오면 전을 안 펴서 오고 갈데가 없어 추워 떨어야 했다. 그래서 면장님, 주민자치회장님이 장옥 한 칸을 비워서 어르신 쉼터를 만들었다. 쉼터 안에는 따뜻한 온풍기와 마실 수 있는 차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판교장 담벼락에 판교장의 예전 모습을 벽화로 그려 놓았다. 말로만 듣던 우시장 모습, 모시전 모습, 옹기장수 모습, 가지가지를 팔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그려 판교장의 옛 모습이 생각나도록 구성하였다.

옛 판교장은 사람으로 미어터졌다. 그래서 뭐 안 팔리는 것이 없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옷장사, 신발장사, 생선장사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판교장을 활기있게 만들었다.

차주인 씨도 판교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진열해 놓았다. 빨래를 많이 하니까 빨래비누가 제법 많이 팔렸다. 그때는 모두 손으로 빨래를 하니까 빨래비누를 장

마다 사가다시피 했고 수세미도 많이 팔리는 물건 중 하나였다. 또 옷핀, 바늘, 실 등도 제법 팔렸는데 이런 작은 것들을 파니까 돈이 안 된다. 그래도 생필품을 조금씩 떼어다가 파는 재미가 있다.

물건이 팔리면 보충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자동차가 판교장까지 와서 필요한 것을 보고 떼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구입하는 것이 적으니 도매상 자동차가 오지 않는다. 한번 물건을 떼어 놓으면 길게는 1년도 가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보충할 물건을 적어놓았다가 서천에 나갔을 때 구입해서 가져 온다.

또 하나 판교장에 많은 것 중 하나가 소매치기였다. 사람이 미어터지니 그 틈새를 이용하여 소매치기가 성행하였다. 많은 돈이 오고가는 우시장, 모시전 주변에는 늘 소매치기가 끊이질 않았다.

판교장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차주인 씨 만의 상도의가 있다. "우리는 판교장이 되든 안되든 그냥 꾸준히 댕기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니까 말하자면 장터가 쉼터이고 장날이 쉬는 날이다."

또 하나는 물건을 남한테 속이지 않고 값도 절대 비싸게 안 받고 신용으로 장사한다.

특히 "물건을 한번 놓고 가면, 한 달이 되었던 두 달이 되었던 걸어놔. 지금도 저기 놓고 간 파리채도 걸어 놨는데, 이 사람이 찾으러 오면 주고, 일 년 넘게 안 찾아가면 할 수 없이 그때 끌러 절대로 한번 사 놓고 간 물건은 내 본데서 싸기 때문에 놓고 가면 그 물건을 절대로 두 번 안 팔어 내 그걸로 신용으로 살아왔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차주인 씨는 당당한 판교장 지킴이이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구 재 강 (1955년생)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서천장의 변화를 이끈 사람 구재강



서천의 중심, 서천특화시장

현재 서천특화시장은 서천읍 충절로 42에 있다. 서천장은 본래 서천읍성 안에 있었다가 1937년 지금의 봄의 마을로 이전하였다. 그 후 200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서천장은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 서는 2·7일장이다. 서천장은 서천군의 중심지인 군사리에 있어 서천읍 사람뿐만 아니라 서천군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이다.

서천장은 크게 수산동, 농산동, 일반동, 노점상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오늘은 일반동에서 '미광상회'를 40여 년 운영한 구재강(68세)씨를 만났다. 구재강 씨는 입대 전에 작은 아버지 구명환 씨가 운영하던 군산상회에서 장사를 도왔다. 제대 후 2년을 도와드리다 독립을 하여 5일장을 다니던 사람의 자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서천군 5일장 마다 점포를 하나씩 준비하여 장사를 하였다. 3년 동안 상호도 없이 운영하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상호를 냈다. 상호는 아내의 이름 '미숙'에서 '미'를 따고 자신의 이름 '재강'에서 '강'을 따서 '미강'이라 했는데 너무 어려워 '미광'으로 고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재강 씨의 이름을 '구재광'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아내 이름을 딴 '미광상회'

상호도 없고 차가 없을 때는 화주 임용부라는 분이 모든 상인들의 짐을 실어서 아침에 장으로 운반해 주었다. 장을 보고 물건을 싸 놓으면 화주가 와서 차로 큰 창고에 옮겼다가 다음 장 새벽에 운반해주었다. 화주의 뜻에 따라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부득불 화물차를 구입하여 장사를 하였다. 구재강 씨는 2일 서천장, 3일 장항장, 4일 비인장, 5일 판교장을 2011년까지 용달차를 이용하여 다녔다. 서천을 중심으로 5일장을 다 보았다. 그때 지금의 봄의 마을 자리에 점포가 있을 때 장사가 엄청 잘 되었다.

미광상회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한복, 주단, 포목이었다. 옛날에는 결혼식, 회갑을 하면 한복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한복이 잘 팔렸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골 아주머니들이 여행을 갈 때 단체 한복을 맞춰 입고 놀러 갔다. 계모임이 있으면 한복을 똑같이 입고 놀러 가는 때 였기 때문에 결혼, 회갑 계모임에서 입는 한복을 미광상회에서 취급하였다. 지금은 한복을 입지 않아 한복보다 이불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는 회갑잔치를 많이 하였다. 회갑잔치를 하면 그 가족들은 한복

을 다 해 입었지만 IMF를 기점으로 해서 회갑잔치, 결혼식, 단체여행 등 한복을 입는 기회가 줄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입을 기회가 없으니 한복을 맞추지 않아 IMF 이후에는 한복 대여가 유행하였다. 최근에는 결혼식이나 해야 한번 입을 정도가 되었다.

그 시절 한복하면 미광상회로 통했다. 단골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일장 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골이었다.

흥성했던 장날의 모습

서천장은 1930년대 이후 줄곧 지금의 봄의 마을 자리에 있었는데, 1990년대 사거리에서 지금의 특화시장 거리까지 대로를 만들었다. 봄의 마을에 있던 서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었다. 서천장은 지금의 서천농협 앞으로 큰 도로가 나자 이 근처에 있던 생선전이 호박마트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기성상회 주변에는 식당이 늘어서 있었고 술집으로는 서림정만 생각이 난다. 당시 서천장은 5일장으로 장날이 아니면 물건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장날에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5일 장날은 누구나 장에 나와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한복은 결혼식, 회갑연 등 한 가족이 한번 맞추면 적어도 20벌 이상 맞춰야 했다. 한 벌에 4~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 이때 미광상회의 매출이 높았다. 결혼식에서 혼수품을 구입하면 서울까지 배달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한복을 대여하지도 맞추지도 않아서 옛날에 팔던 두루마기가 그냥 묵어 있다. 어느 순간 노인분들이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편안하게 입기 시작했다. 수의는 윤달에 제작하여 보관하는데 최근 장례풍습이 변화가 생겨 거의 준비하지 않고 주로 장례식에서 장례식장의 수의를 쓰고 있다. 특히 화장의 증가로 인하여 비싼 명주보다 싼 마포를 많이 이용한다. 그 시절에는 수의 원단을 떠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수의를 만들었다. 수의를 만들면 장수한다하여 동네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봄의마을에 있던 서천장을 이전하다

서천장을 옮기게 된 계기는 서천 재래시장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다. 당시 생선가게가 있던 라인의 떡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생선 시장이 악취가 심하고 지저분하여 우

선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서천시장 근대화 사업으로 수산물을 중심으로 서천특화시장을 만들려고 했다. 수산물을 선어 중심에서 활어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생선장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그 외 시장사람들은 서천장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여 수산물동을 제외한 상인들은 반대운동을 심하게 하였다. 구재강은 "수산물은 먹을 것이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우리야 시장을 옮기면 죽는 건 뻔하거든. 그때 우리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 사실 지금도 봄의 마을에 시장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보다 낫거든. 장사가 훨씬 낫지." 라고 말한다. 사실 이쪽으로 밀려왔다고 생각한다. 봄의 마을에 있던 재래 시장에는 옷장사도 많았다. 서천장에서 제일 알아준 가게는 '한산상회'와 '아빠상회'이다.

2004년 서천특화시장으로 옮기면서 이전 반대운동과 철수 용역을 맡은 사람들과의 마찰이 심하여 장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반 강제적으로 장옥을 옮기게 되었다. 일반동으로 옮기면서 추첨을 통하여 자리를 배정하였다. 처음 배정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정을 다시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실내를 잘 만들어 장사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

농산물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파라솔을 쳐놓고 장사를 했다. 그 후 조립식으로 건축하였다가 다시 지금의 건물을 지었다.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동 중심으로 이전을 하였다. 그래서 2004년 서천특화시장으로 옮긴 것은 우선 위생면에서 좋아졌다. 손님들이 보았을 때 물건이 깨끗하여 지저분하지 않고, 진열대에 신선도가 높게 잘 정리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 손님보다 외지 손님이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상인회장으로 활동했던 날들

구재강은 최병화 회장 다음으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을 맡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자주하여 부족한 서천특화시장을 변화시켰다. 대천 어항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 관광객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지역 조건은 서천특화시장이 더 좋다. 이제 서천 5일장은 상설시장이 되어 평일에도 시장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서천장은 교통이나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 5일장에서 생선을 사는 것보다 서천특화시장에서 싱싱한 활어를 살 수 있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렇기 때문에 5일장인 장항장, 판교장, 비인장, 한산장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장항장은 장항사람과 일부 면사람들이 모이지만 서천장은 서천군 모든 인구들이 다 모여 사고팔고 한다. 예전에는 장항

장에 갔지만 이제 장항장에 가지 않고 서천군 대부분 사람들이 서천장을 이용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은 2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60여 명의 상인중 100여 명이 수산동에서 활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천특화시장은 활어 영업이 활성화 되어 전국적으로 특화된 상설시장이 되었다. 2층에 식당은 1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오래된 식당은 엄지네와 태양이네가 있다. 일반동에는 옷장사가 제일 많고 잡화, 이불장사, 지업사가 있으며 정육점도 2곳이 있다. 농산물동은 집에서 직접 재배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받아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농산물동 농산물은 늘 싱싱하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들이 사양길에 있는 반면에 서천특화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구재강의 상도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박리다매하고 있다.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싼 것을 안 팔고 좋은 물건을 판다. 내 물건을 사간 손님이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판다. 내가 내 욕심으로 싼 것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려고 장사를 하지 안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 이익보다 진실로 모든 손님들이 서천특화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큰 마진보다 좋은 물건을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송 순 복, 이 영 애 (1946년생, 1948년생)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 못살던 길산장



근대시기의 모습을 간직한 길산

길산장은 서천군 서천읍 삼산2리 길산마을에 있었다. 길산장은 1980년대까지 상인들이 오고가다 폐쇄된 시장이다. 길산장은 서천의 금강 지류인 길산천이 발달한 길산포에 있던 시장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서천군 지역에서 일찍 개화물품이 들어왔던 장이다. 인천으로부터 군산을 경유하여 길산포까지 들어온 어선이나 상선은 석유, 광목, 구름모 등 개화물품을 들여왔다. 특히 메가리간이 발달하였으며 일본인 지주들이 거주하기 전에 근대자본주의적 싹이 돋아나던 곳이다.

길산장은 지금 사라지고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지만 서천, 기산, 문산, 시초, 마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장이다. 현재 시장이 폐쇄되어 길산장 주변에 살고 있는 송순복 씨와 이영애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시집 동네 갈산의 모습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에서 23세인 1971년 경 길산으로 시집온 송순복(77세) 씨와 부여군 충화면 오동리에서 1971년경 두왕리로 시집온 이영애(75) 씨를 만나 길산장 이야기를 들었다. 송순복 씨가 시집오자 제일 먼저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시누이가 장화를 사주었다. 길산은 땅이 너무 질어서 질메라고 하였는데 시집와서 살면서 물이 세 번 쪘다. 즉 길산에 홍수로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이다. 1987년 길산에 물이 찬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다.

길산장은 모시전이 유명하였다. 길산장은 예전에 모시전, 옷전, 신발전, 생선전, 가축전, 잡곡전, 나무전, 솜집, 사진관 등과 술집이 즐비하였다. 기억나는 술집 이름은 유저공 외 많은 술집이 있었다. 그래서 길산장 날은 다 술 먹고, 엎어지고, 싸움 박질이 많았다. 술은 주로 막걸리를 마셨다. 양조장은 길산교회 옆에 있었다. 석유집, 땜쟁이, 미장원, 농집, 사진관, 쟁기집, 대장간, 약국은 2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서울약국으로 길산에서 하다가 서천으로 이사 갔다. 길산 질메다리 건너에는 김덕수 씨 아버지가 운영했던 삼성병원이 있었고 산파도 다리 건너 살았다. 쟁기집 다음에는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에서는 호미 쇠시랑을 만들었다. 또 육간이라고 하여 고깃집도 있었다. 고깃집은 3곳이 있었는데 이상설 씨가 가장 오래 했다.

길산장의 옛 기억

이렇게 길산장은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장이 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있다가 없어졌다. 길산장이 없어진 이유 중 하나는 서천장이 매일 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길산장에 온 사람들은 이사리, 두왕리, 서천읍내 사람들이었으며, 갯것 장사는 갈목, 망월리, 장상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길산장에서 취급한 것은 생선, 태모시, 닭 등 장날은 뭐든지 다 갖고 나왔다. 또 시초, 문산에서는 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팔았다. 특히 길산장은 물이 귀해서 장날에 물 길어다주고 물 값을 받는 일도 있었다. 물은 두왕리에서 물지게로 지고 왔는데 물 값은 100원 가량했다. 그때 물지게를 어렵게 지고 길산장에 와서 쫄딱 미끄러져 다 엎질러지면 다시 물을 길러야 했다. 길이 너무 질어서 물을 지고오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영애 씨가 길산장으로 이사왔을 때는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길산장은 모시를 많이 취급했다. 그래서 집집마다 모시 째기를 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 "내(송순복) 모시는 가늘고 좋다고 두왕리 아줌마가 꼭 사다 짰다. 모시 짜는 두왕리 아줌마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데 치매가 와서 아무 것도 못하고 계시다고 들었다." 1970년대 내가 길산으로 시집왔을 때는 모시도 했지만 가마니를 짜느라 바빴다. 가마니 수매를 길산장에서 하기 때문에 더 바빴다. 새댁 시절에는 모시를 째고 날면 어머니가 모시를 짰다. 딸이 여섯이어서 한 장 도막에 한 필 넘게 짰다.

모시를 사러오는 사람들은 길산장 여관에서 잤다. 길산장에도 모시장이 새벽 다섯 시에 섰다. 새벽에 서는 것은 날이 밝으면 모시가 말라서 거칠게 보이기 때문이다. 새벽에는 모시가 촉촉하기에 새벽에 거래를 한다. 새벽에 모시를 거래 할 때 댄지를 비춰봤다. 댄지는 일본말이고 손전등을 의미한다. 거간들이 모시를 직접 거래하는데 거간들은 모시를 사면 떠나갔다. 필모시 거래가 끝나고 날이 새면 태모시 장사들이 와서 태모시를 팔았다. 그래서 길산장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것은 모시였다.

가마니 검사

길산장에서는 주변에서 짠 가마니 검사를 했다. 붓가마니는 나가고, 상가마니는 잡박(雜駁; 질서 없이 이것저것 마구 뒤섞어 있는 것을 구분하다)을 찍어 주었다. 검사하는 사람

들이 좋은 가마니만 검사를 해주었다. 가마니는 열다섯 장씩을 묶어서 이고 다녔다. 이것을 이면 어깨 죽지가 빠질 정도로 엄청 무거웠다. 가마니는 짚을 사다가 추려서 메갱이로 빵구고 새끼를 꼬아서 재료를 준비한 다음 짰다. 하루 종일 짜면 7~8장 짰다. 가마니를 수매했던 시절은 1971년에서 1975년 정도였다. 그 후 가마니를 수매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으니까 우렁을 잡으러 다닌 적도 있다. 그 후 송순복은 "먹고 살 수 없어 길산 영단(길산 정부양곡도정 길산공장)을 들어갔다. 영단에서 가마니를 털고, 미싱질도 하고, 겨도 담았다. 쌀푸대에 쌀을 40kg, 20kg씩 담았다. 영단이 있어 좋은 점은 쌀겨를 땔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당시 집집마다 왕겨를 풀무질하여 땠다. 풀무질하다 불이 확 나와서 머리 다 꼬실려 먹었던 기억이 길산사람들은 다 있다. 그때 얼굴을 데거나 눈썹을 태워 먹은 사람도 있었다. 왕겨는 돈을 내고 리어카에 싣고 왔고, 후에 나무가 흔하니 공짜로 얻어왔다. 영단에서 일할 때 점심을 안주고 일당은 300원, 400원 했다. 영단에서 일할 때는 손가락이 안보일 때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다.

물산이 모이는 길산의 상징 방앗간

길산에는 방앗간이 세 개 있었다. 조창인, 김성규, 이 씨네가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이 씨네 방앗간 자리는 일본인 횡산(橫山)이가 운영하였다.

이영애 씨는 두왕리에 살면서 길산에 와서 경운기 센터를 하였다. 고장난 경운기나 이양기를 수리하였다. 1970년대는 '딸딸이'라하여 경운기를 많이 이용하자 그 만큼 수리도 많이 했다. 그래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길산에는 유명한 질메다리 이야기가 있다. 금강의 지류 중 가장 큰 하천은 길산천이다. 길산천을 따라 고깃배가 들어 온 곳이 길산포이다. 길산포에는 질메다리가 있었다. 1530년대에도 홍예형 다리가 있었다. 길산 질메다리 밑에 거지들이 많이 살아 예닐곱살 먹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너 질메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렸다. 그 다리가 길산장 근처에 있었다. 길산천을 따라 많은 배들이 오고 갔는데 1930년대 일본사람들에 의하여 장항항이 개발되기 직전까지 서천에서 가장 큰 포구 역시 길산포이고 길산장이었다. 1930년대 서천의 경제적인 중심지가 길산장에서 장항으로 옮겨갔다.

길산 장날이면 고깃배들이 길산포에 들어왔다. 길산포에 들어온 배는 짐을 실어 날랐다.

특히 길산포에 들어오는 배는 새우젓 배가 많았다. 학교 앞 짧은 다리에 배가 들어왔다. 그 다리를 질메다리라고 한다.

장터의 매력, 국밥

길산장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길산장 국밥이다. 길산장에 오면 장꾼들은 대개 국밥을 먹었다고 한다. 길산장 국밥은 소머리 국밥으로 새우젓하고 고추를 찍어 먹으면 제 맛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길산장에는 새우젓을 독으로 많이 사고 팔았다고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이 새우젓 독이었다.

길산 사람들은 장이 없어지고 주로 영단을 다니거나 집에서 쉬었다. 농토가 그리 많지 않아 일거리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렁을 잡아 까가지고 서천에 가서 미꾸라지 집에 팔았다.

마지막으로 길산장에 약장사들이 약을 팔러왔다. 길산장에 20여일 정도 머물면서 포장을 쳐 놓고 약을 팔았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공연을 하며 약을 팔았다. 기억은 있지만 희미해진 것만큼 길산장이 폐쇄된지 40여 년이 흘러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길산장에 시집와서 살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은 샘이 없어 물지러다 먹던 일이다. 이제 길산장 대부분은 서천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길산장의 빈자리를 늙으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찾아와 메우고 있다. 길산장은 없어졌지만 그 여운이 입속에서 빙빙 돌뿐이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허 종 석 (1950년생)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삼일운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신장



독립운동의 상징 신장

신장은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에 있었던 장이다. 신장은 다른 말로 새장이라고 불렀다. 신장은 서천군에서 1929년 기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장이다. 특히 1919년 3월 29일 새장 3·1운동이 일어났던 시장으로 유명하다. 신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적합하여 애국지사들이 마산 신장을 선택하였다. 신장 3·1운동의 주모자는 화양 한영학교 출신 송기면, 송여직, 임학규 등 이었는데 한영학교 교사이셨던 김인전 선생의 제자였다.

마산면 신장은 이미 폐쇄되어 장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마산 신장이 서고 있을 때 신장에 살았던 신장리 이장 허종석 씨를 통하여 옛 신장 이야기를 들었다. 허종석(73세) 씨는 시초면 용곡리에서 태어났지만 1951년 2살 때 신장리 263번지로 이사를 왔다. 신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허종석 네 식구가 살았는데 1953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

어머니와 함께한 장사

홀어머니는 생계를 위하여 신장을 비롯하여 한산, 판교, 서천 등 안 다닌 장이 없었다. 또 홍산장, 임천장까지 다녔다. 어머니가 장을 보실 때 허종석은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어머니는 97세로 2022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이부월 씨는 마산 신장에서 생선과 젓갈을 판매하였는데 젓갈은 어머니가 직접 강경에 가시거나 한산장에서 젓갈을 취급하는 분으로부터 젓갈을 받았다. 어머니는 45년 전 1980년대에 장에 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다. 신장은 1970년대 초까지 열었는데 당시 문산장이 생기면서 신장은 3·8일에 섰는데 한산장과 같은 날 1·6일장을 보게 하였다. 그러자 마산 사람들도 한산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자 마산장을 보도록 막은 적도 있다. 이때 신장은 한산장보다 규모가 적었다.

어머니가 취급한 젓갈은 새우젓, 깡치젓(조기 새끼 젓갈), 밴대기 젓갈, 꼴뚝이 젓갈 등 이다. 옛날에는 옹기독에 담아서 구루마에 싣고 판매하였다. 한산장은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지만 홍산장은 마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함께 걸어 다녔다.

어머니의 상도는 거의 말씀이 없는 분이지만 남을 속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 지게를 지고 홍산장, 판교장을 다닌 기억이 있다. 판교장, 홍산장을 본 뒤 다시 남은 젓

갈을 지고 돌아왔다.

없는 게 없는 신장

신장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신장사거리는 싸전 마당이라하여 곡물을 주로 취급하던 곳이다. 지금 주차장 자리에 장옥이 4개가 있었고 이 장옥에서는 장이 3일 섰다. 장사꾼이 오는 날 하루, 그 이튿날 장보고, 다음 날 갔다하여 3일장이 섰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화단 있는 곳에서는 생선전이 섰다. 소전은 농협 창고 주변이고 주차장 옆 마당에서는 모시전이 섰다가 나중에는 소전이 섰다. 나무전은 면사무소에서 도로변으로 서, 나무지게가 많이 있었다. 시선리 무쇠점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 팔았다. 옷가게 같은 경우는 구루마를 이용하여 오는 사람도 있었고 홍산에서 차를 이용하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소전에는 소가 대략 4~50마리 정도 나왔다. 신장에 소가 많이 나와 있으면 사람들은 소전이 빨간하다고 말했다. 신장의 소몰이꾼은 남자들이었다.

모시전에서는 태모시와 필모시가 거래되었다. 신장에도 필모시를 검사하는 데가 있었다. 역시 모시는 새벽장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모시를 주로 손전등을 비춰서 상태를 확인하였다. 한산보다 모시 거래는 마산 신장에서 많이 거래 되었는데 현재는 신장리에서 모시를 짜는 사람은 구씨 한분 밖에 없다. 현재 모시를 재배하는 곳은 삼월리를 비롯하여 몇 군데 있는데 과거 마산에서 모시재배를 않는 마을은 없었다.

마산 신장이 기울어가는 1965년부터 1970년 초반에 마산 시장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상품은 송아지 한 마리였던 걸로 기억한다. 더불어 신장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때마다 풍물을 엄청나게 쳤다. 당시 신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은 강대순 면장, 한일당 약방을 운영하던 지찬주 씨, 요곡에 홍희선 씨가 있다. 1960년대 강대순, 지찬주, 홍희선 씨 등이 마산 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고생만하셨지 성과가 없었다.

마산 신장이 소멸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먼저 교통의 발달로 이동수단이 있으니 큰 도시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한산장이 커버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마산 신장을 안민 마을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렇게 옮기지 않으면 마산 신장이 망한다.”는 말도 있었다. 안민으로 시장을 옮기면 한산시장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입으로 전해지는 삼일운동 이야기

이제 마산 신장 3·1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새장터 3·1운동 기념탑을 1987년 동아일보사와 정규태 목사, 장만용 목사가 추진하여 세운 것으로 안다. 1919년 3월 29일 마산 신장에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을 기념한 것이다. 마산 신장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 만큼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신장에는 지금의 회관자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 만큼 신장이 다른 마을에 비하여 앞서가고 있었기에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부터 마산 신장 3·1운동 재연 행사가 이루어졌다. 마을별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협조하여 서천민예총과 함께 3·1운동 재연행사를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다가 2023년 3월 29일에 마산 신장 3·1운동 재연 행사가 열렸다. 소시장도 컸고 모시장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장이라 3·1운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마산 신장은 애국장이다. 2023년 마산주민자치회에서 삼일 카페를 만든다 하니 환영할 일이다. 마산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새로운 마산이 만들어 질 것이다.

다시 살리고 픈 신장

마산 신장이 사라진 것은 결국 인구 문제이다. 마산 신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은 곧 옛날처럼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해지려나 그게 참 걱정이다. 1965년 서천군 인구가 162,000여 명이었다. 이때 마산의 인구는 5,000명이었다면 지금 마산 인구는 1,500 명으로 이제 마산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내가 이장을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을 했을 때는 신장리만 100세대가 넘었지만 지금은 50세대도 안 된다. 농촌인구가 줄고 있으니 마산 신장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분들처럼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역부족이다.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신장이 폐쇄된 것이다.

앞으로 신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장리에서 살았으면 한다. 그렇게 신장리가 변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신장을 비롯한 여러 장을 돌며 자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이쿠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생스러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잘 키워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우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자녀를 잘 키워 주셨다. 특히 시초 용곡리에서 신장리 친정으로 이사오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친척들과 어울려 의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것을 존경한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우리 신장을 번영시키려고 고생을 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마산주민자치회와 마산면에서 신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잘돼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야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고 하는 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조 수 헌 (1951년생)
서천군 장항읍 장항전통시장

가격은 싸지 않은데 물건이 좋은 장항장!



서해 수산물의 메카 장항장

장항장은 1930년대 장항읍 원수리에 개설되었다. 그 후 1940년대 장항읍 신창리 중앙시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장항 전통시장이 장항읍 성화로 104에 개설되었다. 장항장은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등으로 3·8일장으로 수산물동, 농산물동, 먹거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장항장은 수산물 중심의 전통시장이었다.

장항장에서 2007년부터 16년간 지켜오며 장항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조수헌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수헌 회장은 원수동 시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중앙시장 소위 구시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중앙시장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예로 강경에서까지 장항장을 보기 위하여 상인들이 왔다. 그러나 중앙시장에서 현위치로 이동한 다음 교통 불편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

조수헌은 장항장에서 선어, 활어, 반건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장항전통시장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상인회장을 했다. 2007년도부터 장항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조수헌은 그때는 현대식 건물이 아니었고 창고형으로 5일장만 보는 시장이었다. 그 후 2009년부터 장항장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조수헌은 (구)중앙시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살았다.

장항장이 번성했던 시절의 이야기

중앙시장은 신창리 경찰서 근방에 있던 장인데, 그때는 장날이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치었다. 당시 장항장의 범위는 동쪽으로는 우체국이 남쪽으로는 서천경찰서와 대한통운 창고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계명중학교, 북쪽으로는 장항중앙초등학교가 있었다. 그때 장항인구가 3만이기에 장항이 컸다. 소위 떡전골목이 중앙시장의 중심부인데 본래는 떡을 팔던 골목인데 뒤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썼던 곳이다.

장항장에는 지금의 프린스장 옆에 싸전이 있고, 그 옆으로 가축을 판매하는 가축전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채소전, 그리고 옷과 포목을 팔던 옷가게들이 있었다. 생선전은 경찰서 옆쪽 지금의 약속주점 자리에서 팔았다. 장항장은 큰 5일장이었다.

장항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항이 포구이어서 항구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서는 채소와 잡곡이 풍부하여 시장이 발달하였다. 당시 인구가 3만인데 도선장

과 백사장에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장항에 온 사람들은 장항장을 경유해서 가기에 장항장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

장항장은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마늘장이고 여름에는 참외 수박장이고 가을에는 싸전이 북적북적했다. 싸전에서 쌀을 팔 때는 '말강구'라고 쌀을 되는 법이 있었다. 말강구는 말에 쌀을 가득 담고 위에 있는 쌀을 밀어 내어 조금만 남겨 놓은 상태로 말을 되는 사람이다. 장항장에서는 박씨라는 분이 말강구 역할을 했다.

장항장에서는 장항제련소 월급날이 7일인데, 8일날 장이 서면 장항의 모든 물가가 올랐다. 모든 장사가 월급 다음날 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되었다.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회사 월급날이 되면 앞치마의 돈주머니를 하루에 3~4번을 쏟아 놓고 갔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다."

부모님과 가족들

어머니는 1951년 1·4 후퇴 때 당시 황해도에서 군산으로 피난을 왔다. 어머니는 전주로 배당되었다가 다시 전주에서 1954년 장항으로 이사를 왔다. 조수헌 회장네는 황해도 송화군에서 최고 갑부집이었다. 큰아버지는 면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군청에 근무하다 피난 오셨다. 그 후 전주에 배당되었다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장항에 배당되었기에 다시 장항시장 안 초가집으로 여섯 식구가 왔다.

장항에 오자마자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했다. 그때 취급한 것은 갈치, 조기, 준치 등 이다. 어머니는 전주에서 오셔서 약 25년간 생선 장사를 하였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익힌 것을 내가 이어서 하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는 주로 물양장에서 고기를 받아서 판매하였다. 물양장까지 가려면 김성기 씨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선정미소를 경유하여 갔다. 조선정미소는 나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왕겨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조선정미소에서 나오는 쌀겨를 먹었다. 왕겨를 빼고 나서 현미 껍데기 벗긴 것을 먹었다. 상상도 못할 것이다. 논에서 독사풀을 잘라다 그놈하고 같이 죽 끓여서 먹었다."

어머니께서 생선 장사를 하신 것이 이제 가업이 되었다. 그 어머니 이름은 김봉년이고, 아버지는 조충영이다. 이 두 분이 장항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여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장항장에 가장 흔한 생선은 썩어도 준치라는 생선이었는데 어머니는 준치, 갈치, 조

기를 취급했다.

어머니를 따라 생선장사에 뛰어들다

조수헌은 2007년 생선 장사를 하기 전에는 진주에서 엔진을 배워 장항에서 고속 디젤 공장을 했다. 그 후 제자들이 공장을 차려 물려주고 중장비와 주식을 하다 망했다. 1991년도에 17억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수산업이다.

1991년 사촌 형님의 배 덕포호를 빌려 부부간에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그래서 군산사람들이 덕포라고 인식이 되어 지금의 상호 덕포수산의 유래가 되었다. 부산에 덕포동이 있는데 고향이 부산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때 덕포호를 타면서 수입이 좋았다. 장항장에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돼서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 돼가지고 그냥 새벽시장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벌어다가 관리비를 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10년 전 일이다."

2012년 드디어 인터넷 판매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홍보를 해주었다. "가격은 싸지 않은데 물건이 좋다." 이것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 그리고 일본을 세 번씩이나 다녀오면서 물건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바로 '쇼케이스' 라는 진열 방식이었다. 즉 박대를 예를 들자면 염장을 하고 난 다음 껍질을 벗기고 다시 반 건조시켜 그것을 포장한 다음 냉동시켰다. 쇼케이스에 진열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진열 방법을 개선하자 박대, 조기는 물론이고 모든 생선을 진열하게 되어 매출이 급증하였다.

금강하구의 생선 항만박대는 어떤 기자가 치어를 잡아다 판다고 방송과 신문을 냈는데 사실 그것이 성어이다. 항만박대가 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 주변에 살고 있다. 펄을 많이 먹고 자라서 맛이 있다. 항만박대는 튀기기도 하고 조림도 하는데 이상하게 요리를 하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특징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 한다. 장항에서 박대가 많이 잡혀 장항 박대가 유명하다.

2007년 장항장에 왔을 때는 창고에 가게를 차렸다. 사실 그때 젓갈장사를 하려고 왔다. 젓갈장사는 뒷전이고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활어도 넣으면서 시장이 변화하였다. 이때는 장항장은 창고형 말집형태여서 조수헌 회장은 장항장의 현대화를 요구하였다. 장항장에

서 농산물동을 먼저 짓고 수산물동이 2012년에 완성되었다. 현재 장항장은 수산물동, 먹걸이동, 농산물잡화동, 노점상이 있다. 수산물동에 등록된 상인은 46명이지만 실제로 장사를 하는 분은 20여 분이다. 수산물동 매출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결은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동 상호는 덕포, 싱싱, 한솔, 기쁨, 백조, 용광, 달수네 건어물, 나경, 대치네, 정수산 등이 있다.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노력

지금 장항장 수산물동 상인들은 남들이 보면 손님도 없어 어떻게 밥 먹고 사나 걱정하지만 다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과 쇼케이스 덕분이며 양심 저울로 속이지 않으며 청결하고 고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장항장 먹거리동의 인심은 후덕한 밥 인심이다. 진희식당, 지호네, 현태네 등이 손님이 많아지고 있고 노점상은 익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결론적으로 조수헌 회장은 장항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다. 상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어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수산물 가공처리장, 수산물 건조장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해수이용 문제, 서천에서 장항 오는 버스 노선 문제 등을 개선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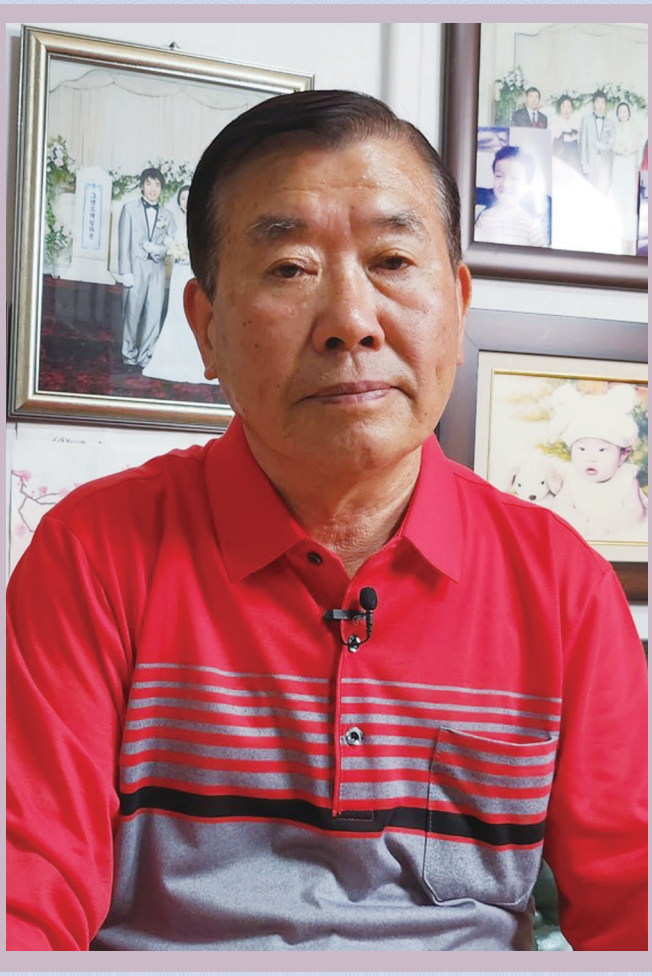
장항장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팔지 않아야 될 물건은 팔지 않는다. 청결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상도이다. 마지막으로 장항장 상인들에게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권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한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주 진 옥 (1947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장항 중앙시장에서 신시장까지의 산증인 주진옥



그릇장사로 시작한 상업활동

주진옥은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에서 1947년에 태어났다. 군대를 가기 전 1965년부터 경기도 동두천에서 사촌과 함께 그릇 장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그릇을 취급하고 있다. 1968년 군에 입대하여 1970년 제대하고, 1972년에 결혼을 하였다. 1972년 장항 신부락에서 두 남동생과 함께 '대림상회'라는 상호로 1978년까지 그릇장사를 하였다. 그 후 큰 동생에게 대림상회를 물려주고 1982년 신창2리에 '남부상회'라는 그릇가게를 내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항 신부락에서 그릇장사를 하던 1978년도에는 국제적으로 유류파동이 나서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재미있게 장사를 하였다. 물건값이 들쑥날쑥하여 그 이득이 많았다. 신부락은 장항 창선리에 있던 골목시장으로 14개 정도의 가게가 있었다. 신부락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로 생선을 판매하였고, 야채, 옷전, 부식가게, 또 작은 마트 등이 있었다. 신부락에는 자고 일어나 가게 문을 열면 손님이 계속 와서 밤 9시까지 영업을 했다. 그때 장항인구가 3만명 정도 였다.

1978년에는 신창2리 중앙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다. 1982년에 남부상회를 매입하여 가게문을 열었다. 1975년에 조직된 상인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재구성하고 확장하였다. 이때 회장은 서해장 사장님이 했고 총무는 주진옥이 했다. 16년 정도 그 분이 회장을 하다가 주진옥이 상인회장을 맡았다. 그 후 1999년에 중앙시장 남부상회가 장항장 잡화동으로 이사를 했다.

골목까지 사람 넘치던 중앙시장

당시 중앙시장은 화신약국 앞에서 중앙목욕탕으로 이어져 다시 송선규 씨 한약방까지 그리고 서천경찰서 옆까지 장이 섰다. 3·8일 장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를 스쳐야 지나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저쪽 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중앙시장에서 주로 취급한 것은 생선이다. 생선전은 남부상회가 있던 이 자리이다. 장항장은 옷가게, 마늘장도 컸으며 염소, 개, 닭을 취급하는 가축전도 컸다.

장항장이 큰 이유는 생선을 주로 취급을 해서 서천군내 사람들이 장보러 왔지만 그때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할 것 없이 모든 버스의 종점이 장항정류장이었다. 그러하기에 서

천군내 사람들이 장항장을 보러 모여들었다. 지금은 장항에 오려면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장항에 와야 한다. 서천군내 한산, 판교, 비인, 서천장은 시시하여 장항장을 보러 왔는데 장항장이 큰 이유는 제항제련소 직원이 한 1,500명 가량 되었다. 이들이 7일 날 월급을 받으면 8일 장날에 쌀값이 뒤집어졌다. 이때 장항에는 돈이 흥청망청하여 8일 장항장은 엄청 큰 장이 되었다.

남부상회 이야기

남부상회에서 주로 취급한 그릇은 양은 그릇, 스텐 그릇, 고무 함박, 플라스틱 그릇, 사기 그릇 등 가정에서 필요한 그릇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남부상회에 1톤 차량과 2.5톤 차량 두 대가 있었다. 차는 도매 물건을 사러 갈 때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운반해 줄 때 필요했다. 장항의 인구가 많다보니 결혼식집이나 상가, 회갑집이 두서너 곳이 동시 다발적으로 있어 셋그릇을 쓰는 집이 많았다. 그때는 결혼식, 장례, 회갑 이런 것을 모두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하여 그릇은 꼭 필요하였다. 당시 셋그릇이 나가면 한 집당 15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셋그릇이 없어 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혼식 피로연도 없어지고, 학교급식이 생기고 또 카드결재가 이루어졌다. 학교급식으로 도시락이 없어지자 반찬통 사용이 급격하게 줄었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니 부인들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다. 또 결혼식 잔치가 없어지고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장례식도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니 셋그릇 사업은 사양길이 되었다.

장항중앙시장의 변화

이렇게 1999년도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쯤 장항중앙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장항읍에서 장항중앙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지로 용지를 내보낸 것이다. 중앙시장 안쪽에 주민들이 198세대, 그 주변에 60세대 합이 258세대가 살고 있었다. 그 때 내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임대료 10만원을 내던 것을 60만원을 내라 했던 것이다. 이때 1999년 장항 군의원은 신창2리 주변 주차 문제와 상시 교통체증으로 시장을 옮기려고 5,500평의 현재 장항장 부지를 마련한 상태였다. 그리고 장항읍사무

소 윤계장은 계속해서 지금의 시장자리로 옮겨줄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소규모 주택을 가진 40여 세대는 찬성 쪽으로 기울었고 상가를 가진 120세대는 급구 이전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던 120세대는 남부상회 주진옥 회장을 비롯해 삼성슈퍼, 형제방앗간, 야채시장 정장직, 정육점, 동일방앗간, 상원상회, 믿음방앗간 등이 못가겠다고 버티었다. 그러자 행정기관과 여러번 회의를 하였지만 임대료 600%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우리도 가겠다"고 스스로 포기 하였다.

1999년부터 시장이전 문제로 시끄러웠다, 1대·2대 상인회장은 이철수가 했고 다시 선거를 해서 3대·4대·5대 상인회장에 주진옥이 당선되어 총 8년간 재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옮겨 가게 되었다. 상인회가 260명 정도 되는 데 가게는 좁고 들어올 사람은 많자 1/3가량이 포기하였다. 그때 군청에서는 5,500평 신시장 대지에 원형으로 건평 800평짜리 1동을 짓는다고 연락이 와 다시 협의를 하여 400평을 추가하여 원형으로 건평 1200평짜리 건물 1동을 짓기로 했다. 얼마 후 소방법 문제로 지금처럼 400평, 400평, 400평 3동을 짓게 되었다. 이때 상인 수가 26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하였고 지금은 상인회 구성원이 63명 가량 된다.

신시장으로 이전후의 사정

장항장이 신시장으로 옮겨온 것은 현대식 건물을 이용하는 장점과 청결해진 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상인도 줄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남부상회의 매출은 80%가 감소하였다. 중앙시장도 임대료를 내야하고 신시장도 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

장항세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다. 첫째, 1980년도에 서천군의 버스 종점과 출발지점이 모두 장항이었는데 모든 운행을 서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둘째, 보상으로 장암리, 송림리, 옥남리 3개리가 떠났다. 셋째, 병원은 한군데도 없고, 정의여중·고가 문을 닫은 상태다. 넷째, 시내 가게는 두 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는 상태다. 다섯째, 군산과 장항을 오고가던 도선배가 없어져 군산에서 장항 5일장에 왔던 상거래 손님이 아예 없어진 상태다. 여섯째, 장항역을 옮겼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예 없어졌다. 일곱째, 제일 큰 문제로 장항제련소를 옮긴 탓에 수백 명의 근로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덟째, 장항 인구도 만 명이 무너졌다. 아홉째, 장항제련소 부지에 대그룹이나 주식회사 등 공장이 들어와야 장항시내가 살

고 전통시장도 산다. 마지막으로 금강 수변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만들고, 중고 군함 2대를 구입하여 장항중학교와 장항제련소 사이에 놓으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식사도 하고 선물을 사갈 것이다. 이렇게 장항 시내가 발전해야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장항은 기울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여 희망이 없다. 행정에서 장항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여 2030 세대가 장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돌아오는 장항을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장항 상인들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장사를 해 왔는데 지금 희망이 부풀어야 하는데 희망마저 잃고 있다. 그저 아침에 와서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오고 가는 거 외에는 무슨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뭘 얘기하는데, 생선동 같은 데도 하루에 그저 한 열 사람 이쪽저쪽이고, 농산물동도 오전에 한 서너 사람, 오후에도 한 서너 사람이 와서 열 명도 왕래가 없다. 그러니 상인들이 전부 다 맥이 빠져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뭘로 해서 시장을 살려야 할는지 지금 현재 절박해요. 나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듣는 소리는 "장항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묻는다. "장항은 완전히 불꺼진 도시다. 여섯 시만 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가? 장항에 사람이 다 떠났다." 그래도 장항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래서 더 할 말이 많다. 그 말을 다 해야 하는데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임 성 순 (1949년생)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서천의 시장 역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역 임성순



공무원 임성순의 기억

1968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서천군청에서 40년 7개월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서천군 정책기획실장으로 퇴직한 임성순(74세)으로부터 서천시장의 역사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당시 정책 추진 상황을 듣게 되었다.

임성순은 면서기로 처음에 들어와서 장항시장에서 시장 사용료를 받아 봤고, 서천읍의 서천면으로 와서 길산장에 가서 시장 사용료를 받았다. 그 후 장항읍장이 되어 장항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서천군청에 들어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서천시장을 봄의 마을에서 현재의 시장으로 이전하였다.

서천군은 1914년 이전에는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산군에서 가장 큰장은 마산면에 있는 새장터이다. 여자들만 모시 팔러 다니는 안장인 한산장이 있었다. 또 기산면 동강중학교 장등에 장등장이 있었다. 서천에는 서천장과 길산장 그리고 대치장터가 있었다. 비인에는 너더리장, 판교장, 비인장, 지금은 없어진 종천장이 있었다. 종천장은 종천면 산천리 못치래에 있었다. 1938년도에 장항장이 생겼고 1960년대에는 문산 신농리에 생선전, 옷전, 싸전이 있는 문산장이 있다가 80년대에 폐쇄되었다. 또 기산면 화산리에 장이 섰다 없어졌다.

서천에 현재 남아 있는 장은 5개 처로 1·6일장 한산장, 2·7일장 서천장, 3·8일장 장항장, 4·9일장 비인장, 5·10일장 판교장이 있다. 사라진 장은 경제 원리처럼 사람이 우선 모여야 시장이 형성되는데 사람이 줄고 교통이 발달되어 중심지로 모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폐쇄되었다.

서천장

서천장은 읍내장으로 군사리 성안 마을에 있었다. 우리는 흔히 구장터라고 부른다. 성안 마을 구장터는 상인들이 깔았던 가마니를 들썩이면 동전이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시장이 오래되어 장옥이 넘어져 문제가 되었고, 고칠 수 없게 되자 1928년부터 10여 년 방치하다 1937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의 봄의 마을 자리로 이전하였다.

1937년부터 봄의 마을에 서천장이 2004년까지 70여 년 가까이 있었다. 서천장에도 역시 모시전이 새벽에 열렸다. 주변의 국밥집도 굉장히 잘 되었다. 학생복을 구입하려면 당

시 보리 한가마를 지고 가서 구입했는데 어머니가 짠 모시 한필을 팔아서 중학교 등록금을 낸 기억이 있다.

2001년 경 서천장은 처마와 처마가 이어지고 전기는 문어발식으로 이어지고 가스도 연결되어 화재 위험이 시한폭탄과 같았다. 한 해는 서천 생선전 임석순 씨 댁에서 불이 나 서천장이 모두 탈 뻔했다. 그때 경제과장을 하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빨리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생선전 바닥이 질어서 생선이 깨끗하지 못해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이니 주변환경이 불결했다. 이때 5개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생선을 특화하는 시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침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문이 와서 금산은 인삼 특화, 서천은 생선특화 시장으로 특별교부세 12억을 받았다. 마침 특화시장 부지 4,400평을 전임자가 사놨는데 생산녹지지역이라 개발할 수 없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현대식 2층 건물을 짓게 되었다.

길산장과 장항장

길산장은 질메다리장이라 했는데 기산 화양 사람들이 모여 제법 장이 컸다. 길산장은 가마니 수매를 많이 하였다. 당시에 얼마나 질은 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다. 메가리칸 도정 공장과 길산 포구가 있어 장이 잘 되었지만 1980년대 장항장이 커지면서 폐쇄되었다.

장항장은 1968년 장항읍 재무계에 근무하며, 시장 사용료를 받았다. 장항장에 화성옥을 중심으로 술집이 쭉 있었고 떡전이라고 하여 인절미, 시루떡, 송편 등 떡을 팔았다. 홍동가로 외국 선원들이 술마시고 외설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떡전'이 되어버렸다. 1998년도에 장항읍장으로 장항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중앙시장 기존 건물은 밀집되어 있고 지주의 토지 점유가 복잡하여 중앙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여 외곽도로의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시장으로 유명한 한산장과 판교장

새장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아 중심지가 안장으로 옮겨졌다. 한

산장하면 모시장으로 경제진흥과장 시절 모시를 특화하여 모시장을 만들었다.

판교장은 너더리장이다. 구장터 판교리에서 1931년 경남철도 장항선 판교역이 만들어지면서 판교면사무소 앞 도래마을로 판교장이 옮겨왔다. 우시장은 광천장, 강경장, 판교장 3대 시장이었다. 어려서 판교장에 가보면 새벽에는 모시장, 모시 검사가 끝나면 아침에 우시장이 형성되어 국밥집이 잘 되었다. 판교장을 찾는 사람은 주산, 미산, 보령, 홍산, 옥산, 서천군 사람들이 모이니 큰 장이었지만 지금은 12시 정도면 장이 거의 폐장된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비인장은 비인지서와 우체국 앞에 있었는데 1952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어려서 참외와 콩밭 무를 팔러간 경험이 있다. 비인장에서 생선을 파는 것보다 서천장에서 파는 것이 훨씬 잘 팔린다. 비인장은 살릴 길이 없다.

서천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판교장을 말하면 '시간이 멈춘 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맛 자랑을 해야 한다. 판교의 콩국수, 냉면, 보신탕 대신 한우 등의 음식을 활성화하여 맛으로 승부하는 판교장이 되어야 한다. 역시 도토리묵도 미식가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특화를 해야 한다. 한산장의 경우는 모시를 특화해야 한다. 모시와 함께 소곡주, 모시차도 특화해야 한다. 비인장은 거의 생선이므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과 연계한 특화가 필요하다.

장항장의 현대화 사업은 임성순의 후임자가 했다. 장항장 활성화는 송림욕장 사업, 장항역전 개발사업, 장항제련소 탐방 등 이런 것들과 연동한 특화가 필요하다. 장항 레일바이크와 연동되어 보고, 먹고, 자는 장항개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신장은 새장터이다. 신장은 소재지에 기관이 다 있고 모시와 소가 성황을 이뤄 큰 장이었기 때문에 1919년 3월 29일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서천장은 서천농협자리가 모시장터이다. 1990년 초 서천사거리에서 특화시장 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시장이 양분되고 밀집되었다. 결국 서천장은 양분되고 밀집되어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화재발생도 있었지만 생선전의 불결이 이전의 핵심이다. 생선 장사들은 이전 전에도 돈을 참 많이 벌었다. 나는 생선을 특화해야만 서천이 산다는 생각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여 교부금이 나와 이전하게 되었다. 서천장의 특화는 서천의 활력소가 되었다.

중앙부처에서도 생선을 특화하면 산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산의 인삼 특화를 이기고 12

억을 받고 75억을 만들어 서천특화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서천장은 허천장이다. 서천장에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허천하게(엄청나게) 팔린다고 하여 허천장이다. 서천 생선장에 활어, 건어물, 자하젓, 어패류가 많이 나와도 모두 팔리는 허천장이다. 서천 생선장에는 광어, 도미, 전어, 농어, 박대, 숭어, 자하젓, 백합, 동죽, 가무락, 맛살, 바지락, 김 등이 나온다. 김은 부류식이 아니고 지주식으로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른다. 양 명절 때 두 톳씩 사다 먹었다. 제사 지낼 때와 대보름날 김을 먹었다.

중앙정부에 서천이 살려면 5개 읍·면이 바다이니 바다를 중심으로 특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요청했고, 시장 부지 4,400평을 사 놓은 것도 특화시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전임 한두수 과장의 통찰력이었다.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생선 시장과 2층 음식점을 연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장에서 회를 떠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생선도 팔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주도, 청주 육거리시장, 서산시장, 삽교 시장, 전국 안 가본 시장이 없다. 그렇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된 것이다.

군에서 서천시장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상인들이 반대 집회를 많이 했다. 기성복 가게를 하고 있던 상인회장 나성찬 씨를 중심으로 집회를 했다. 생선전은 “빨리 이사가자.” 기성복과 잡화점포는 “그냥 있어야 한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여 나는 생선 특화시장에서 생선팔고 연동해서 의류가게에 가서 옷을 살 것이 아니냐고 설득하였다. 결국 생선이 특화되면 다 연계가 되어 서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 이사 가자.” 그래서 지금 서천특화시장은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

“서천의 발전과 연계하여 서천장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 친절 교육,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서천시장 활성화가 우선적인 정책이 될 때, 서천특화시장이 지역경제를 선도하여 서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 서천만한 좋은 환경이 없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김 자 희, 조 관 연 (1955년생, 1950년생)
서천군 문산면 문장길

자연을 심고 거두어 함께 판매하는 서천시장 김자희, 조관연 부부



농사지어 장에 팔던 부부

김자희, 조관연 부부는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득락마을에 살고 있다. 득락 마을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 서천장에 내다팔고 있다. 문장리 득락마을은 주로 풍양조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서천장과의 거리는 약 8km 이며, 도보로는 1시간 30분, 자전거로는 30분, 버스로는 20분 정도 소요된다.

1974년 김자희가 청양에서 22세 때 문장리 바깥시렁굴에 놀러왔다. 이때 26세 조관연이 외지에서 온 청양 처녀들이 바깥시렁굴에 가는 것을 보고 저녁에 놀러 갔다. 바깥시렁굴에는 김자희의 사촌 오빠 김평길이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평길 댁에서 함께 윷놀이를 하였는데 다음날 사촌 형수가 선을 보라하여 둘이 맞선을 보았다. 조관연은 김자희가 성질이 있고 살림을 잘 하게 생겼고 칼칼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김자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 잘 산다고 하여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후 김자희와 조관연은 1975년 11월 18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었다.

김자희는 처음 서천장에 나가게 된 것은 1979년 큰 애기가 두 살 때, 고구마를 심었는데 등굴 양반이 오시더니 “아주머니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괜찮겠다”하여 고구마 순을 따가지고 애기 업고 서천에 가서 팔았다. 그게 시초가 되어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서천장에 다니고 있다.

처음 서천장에 갔을 때는 봄마트 근처로 기억하는 데, 그때 판교에서 사시는 옹기장수 할머니 옆에서 장사를 했다. 당시 돈도 없고 그냥 가서 팔았고, 조관연은 샘 파고, 굴 파는 일을 했다.

서천장 가는 길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천장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콩밭 무를 팔았다. 이때 또 수박, 참외 농사를 지어 서천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서 장사를 했는데 단속이 엄청났다.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린다고 하면 우비를 입고 가서 그냥 버티었다. 농한기에는 동대문시장에서 양말을 떼어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초, 문산 집집마다 찾아가 팔았다.

서천장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다. 그때 사람이 많으니까 보따리 비용으로 한 사람의 차비를 내고 탔다. 나중에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려워 자전거를 배워서 타고 다녔다. 자전거

뒤에 콩나물이나 배추, 무, 앞에는 파를 실어 다녔고, 3년 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득락마을에서 큰 길 서내바지다리까지 가다가 논두렁으로 기운적도 있었다. 그래도 손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었다. 특히 사우고개에서는 내려서 끌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타고 내려갔다. 한 겨울에 찹쌀을 다섯 말 정도 싣고 가다 겁나게 미끄러워 혼자 잘 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고 없이 잘 팔았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서내바지까지 타고 가면 괜찮은데 집에서 나가는 논길이 너무 좁아서 늘 불안했다.

조관연은 김자희가 "서내바지까지 가는 것을 막 쳐다봐져. 집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전거가 잘가나 그리고 어쩌다보면 짐이 막 삐뚤어지면 쫓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아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김자희는 "늘 혼자 장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 조관희의 마음이 뒤에서 항상 따라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조관연 김자희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얼마 있다 자전거로 장에 다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 시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도 하고, 제주도에 놀러가서 연습하여 어렵게 따냈다. 오토바이를 2년 정도 타다 39살 때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였다.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보다는 오토바이 탈 때가 많이 벌었다. 이렇게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나도 많이 변화하였다. 사거리에서 화니 화장품 장사하는 이가 '그때는 순진했는데, 지금은 깍쟁이 됐다'고 한다. 사실 이미 늙어서 요양병원에 가고 지금처럼 나와 농담하는 그 사람들이 단골이다. 단골이 참 많이 있다. 서천사거리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 장사가 잘 되었다. 이 사거리가 언제부터 죽었냐 하면 신시장으로 옮긴 뒤로 사람이 없다. 사실 사거리 가게 주인들이 "엄청 우리를 미워했어요. 처음에는 길바닥에서 판다고 자기네 출입하는데 걸리적 거린다고, 지저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시장으로 이사 가니까 사람이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후회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노상에서 노점상으로 장사를 했지만 신시장으로 장을 옮기면서 장옥을 갖게 되었다.

콩나물 장사로 시작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콩나물 장사를 했다. 당시 콩나물 콩을 생산했는데 1만3천원 했던

콩이 6천원까지 떨어져서 차라리 내다팔지 말고 콩나물을 길러 팔기로 했다. 방뿐 아니라 바깥에도 온통 콩나물 단지 뿐이었다. 자다 일어나서 맨날 밤중에 물을 줘야 했다. 물을 안주면 밑에 뿌리가 생기면 안 팔린다. 주로 김자희가 물을 주었다. 어렵게 기른 콩나물은 콩보다 비싸 수입이 좋았다.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추, 무, 양말 이런 것을 팔러 다녔다. 자동차는 면허증을 따니까 남편이 차를 사줘 내가 몰고 다닌다. 지금 있는 트럭이 네 번째 트럭이다. 여름방학이 되면 나는 트럭에 수박을, 남편은 경운기에 수박을 싣고 사거리나 한솔마트 근처에서 방학 중인 아들들과 함께 팔았다. 우리 애들이 착하다. 늦여름에는 장항장까지 가 수박을 팔기도 했다. 수박을 팔았던 기억보다 수박 모종을 네 차나 팔았던 기억이 더 난다. 한 번은 수박 모종을 팔러 갔는데 너무너무 잘 팔려 아들보고 또 싣고 오라고 하면 팔리고 팔려, 네 차나 팔은 기억이 있다. 2000년쯤 이때 돈을 가장 잘 벌었다. 젖은 돈을 말리려고 방바닥에 깔고 선풍기를 돌렸다. 가을에는 무, 배추, 쪽파를 팔았다.

김자희는 참외, 수박 모종하는 방법을 배워서 익혔다. 남편은 손이 떨린다고 해 그것을 내가 배워서 했다. 조관연은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는 내가 다 짓는다. 수박 모종을 위해 800평에 하우스 4동을 지어 모종을 했다. 남편은 고추모를 할 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한다. 1974년 윷놀이 한번 간 것이 아내 김자희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때 돈을 벌면 논을 사고, 또 조금 벌면 빚 갚고 나면, 또 논을 사고 막하니까 논이 막 불어났다. 논은 80마지기 정도 불어났다. 결혼 할 때 920평이었던 것이 지금은 10배가 늘었다.

오늘 서천장에 나가 오이는 7,000원 값 팔고, 청양 고추는 2,000원 값 팔고, 마늘은 한 6만원 값 팔고, 양파는 한 3만원 값 정도 팔았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이다. 서천장 농산물동 40명 중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은 1/3정도로 소담야채 구동 아줌마가 있다. 배추, 무, 과일을 취급하는 싱싱청과, 동화슈퍼, 대구상회, 기성상회, 수정청과 등도 있다.

농산물동에서 나와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모종을 취급한다. 약 40일 정도 모종장사를 한다. 야채 장사하는 것보다 모종장사를 하는 것이 낫다.

서로를 인정하는 부부

조관연은 김자희를 "원판 지독해가지고 욕심이 많고 일도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

요. 정말 성의있게 노력을 하고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녀요. 정말 이뻐요."

김자희는 조관연에 대하여 "우리 아저씨는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많지요. 그래서 잘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요. 옛날에도 잘은 했지만 지금 더 잘해주고 그러고 싶지요. 일을 못하게 해요. 무조건 일하지 마래요. 내가 한다 이거지요."

서천장 이야기를 계속하면 사거리 장사 할 때가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 지금 특화시장에 온 뒤로는 손님들이 농산물동으로 안 들어오고 대개 노상에서만 사 가지고 간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지만 좋은 점은 한 여름 시원하고 겨울에 눈 안 맞는 것이다.

농산물동 개선사항으로는 수산물동과 농산물동 사이에 문을 하나 더 냈으면 좋겠다. 낸다고 해도 또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농산물동의 좋은 점은 물건이 "싱싱하여 좋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가 있었는데 몰랐다."고 한다. 농산물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보다 군산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군산 사람들이 단골이다. 김자희 만이 지키는 상도는 거짓말을 안 하고 가능한 물건은 좋은 것을 팔려고 한다. 예를 들면 양파를 사간 사람이 "이른 양파라 많이 썩었다"고 말하면 다시 양파를 사러 오시는 분에게 그 말씀드리고 내 것을 더 준다. 그래서 김자희 단골이 만들어 진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영업을 한다.

조관연이 보는 김자희 물건은 "싱싱한 것만 판다. 전날 안 따고 저녁에도 안 따고 꼭 식전에 따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김자희 물건은 싱싱하다."

앞으로의 서천장은 "우리는 이제 거의 장사를 다 했어요. 이제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잘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윷놀이에서 만난 조관연, 김자희 부부의 40년은 서천장을 통해 웃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늘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다.

<인터뷰어_ 유승광>

서천군
서천의 옛 시장 이야기

조 영 운 (1955년생)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인산인해 어게인 비인장을 꿈꾸는 조영운



신선한 해산물의 보고 비인장

비인장은 서천군 비인면 성내 3리(비인로 149번길 39) 마을에 있다. 본래 비인장은 조선 후기부터 비인읍성 안에 있었다. 즉 비인면 성내리 313번지 구장터에 있었다. 1952년 지금의 자리로 비인장을 옮겼다.

비인장은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서는 4,9일장이다. 특히 비인장은 바다와 접해 있는 관계로 해산물의 집산지였다. 1914년 이전 비인군에는 비인장, 판교장, 종천장이 있었다. 비인장은 비인군의 중심지에 있는 장이었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비인장은 폐쇄 일보직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인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에 비인면 성내4리 이장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위원장이신 조영운(68세)은 '인산인해 어게인 비인장' 이라는 기치로 비인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인장의 변천

조영운은 본래 비인장터에서 성장하여 비인장의 현황을 잘 알고 있다. 먼저 비인장에는 가축전, 싸전, 갯것전, 장옥, 음식점, 과일전, 그릇전 등이 있었다. 가축전에는 돼지새끼전이라고 할 정도로 돼지새끼가 정말 많이 나왔다. 새끼줄로 뒷다리가 묶인 돼지새끼가 군데군데 묶여 있었고 사이사이로 닭과 염소, 토끼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점은 대개 술집으로 명월옥, 평남옥, 삼촌옥 등이 있었다. 장날은 기다렸다는 듯 취하는 날인 냥 음식점은 아침부터 만원이었다.

싸전은 지금의 목욕탕 앞으로 멍석을 깔고 쌀을 주로 거래 하였다. 여기에는 잡곡류도 많이 나와 있었다. 싸전에는 겨울이 되면 김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김은 열 장을 한 첩이라 하고 10첩을 한 톳이라고 한다. 생선전은 비인장의 메인 상품전으로 바다와 가까운 비인장에는 앞바다에서 나는 조개류, 소규모로 그물로 잡은 생선을 다라에 이고 와서 파는 갯것장사들이 즐비하였다. 생선전 뒤로는 정육점 세 곳이 있었다. 매일정육점, 웅천정육점, 중앙정육점 등이 있었다. 비인장 서쪽 입구에는 이홍복 아버지가 석유 가게를 했다. 그 앞으로 고무신을 떼우는 집이 두서너집 있었다. 또 농약통도 떼우곤 했다. 비인장은 입구가 두 개인데 동쪽과 서쪽에 입구가 있었다. 동쪽 입구는 싸전, 가축전, 고무신가게, 대장

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서쪽 입구는 고무신 떼우는 점포, 그릇 가게, 정육점, 갯것전, 술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비인장 중앙에는 찐빵을 굽는 김씨네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과일전이 있었다. 또 잔치국수를 맛있게 말아 주는 국수집도 있었다.

그리고 장옥이 계단식으로 주욱 있었는데 주로 옷가게이거나 옷감을 취급하는 포목점이었다. "그러니까 장옥은 일자로 된 나무로 돼가지고 위에 함석지붕으로 덮어서 만든 말집이었다. 이런 장옥에는 상인들이 오기 전에 재무시라는 트럭이 장짐을 날랐다. 시동을 돌려서 살리는 재무시는 장짐을 나르는 차이다. 재무시가 짝짐을 실어가지고 오면 그 짐을 풀어주고 각 점포마다 그렇게 했는데 주위에 있는 장사하는 집들이 그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하는 집들이 자기 자리가 있어 그 사람들 장짐을 싣고 오기전에 거적을 깔아 놓는다. 자기 구역에다 가마니를 반절 쪼개서 깔아 놓고 상인들의 장짐을 풀어 놓으면 나중에 상인들이 와서 거기서 장을 본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밥이나 술을 거적을 깔아준 술집에서 먹는다."

예컨대 "방굴 사람이 바작에다 참외를 가득 지고 비인장에 오면 갈 때는 동태 등 생선을 사가지고 지게에 지고 집에 갔다. 그 분들 중에는 주로 장날에 오시면 참외를 다 팔고 나서 술집에서 술을 즐겨 드셨다."

비인장을 찾던 사람들

비인 양조장에서는 비인장날 막걸리를 배달하였다. 집집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한 말짜리 통으로 배달하였다. 어떤 집은 두말도 떼고 서말도 떼어 장을 보았다. 그때 비인장에 많이 오는 사람들은 서면 남촌, 마량, 홍원 사람들이었다.

비인장 대목장에는 몸이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한 장에 500여 명이 북적거렸다. 또 종천에서도 월명산을 넘어 왔다. 이때 서면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에 김을 싸가지고 와서 열장씩 팔았다. 이때 김장사 때문에 싸전이 밀려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김 장사만 50여 명이 되었다. 당시 1,500톳 정도가 거래되고 있었다.

1968년 쯤은 아직도 촌간에 김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비인장에 와야 김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비인장을 김장이라고 한다. 마량, 도둔에서 생산되는 김이 비인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그 맛이 독특하였다. 장날마다 한 첩씩 사다가 밥을 싸서 먹었다. 또 김은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아궁이에 남은 불씨로 구워 먹어야 제 맛이 난다. 지금은

그 맛이 나지 않는다.

김은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어 거래 된 적이 없다. 하지만 물김으로 끓인 김국은 추억의 음식이다. 물김 한주먹으로 열첩, 한톳을 만들 수 있기에 김 유출이 될 수 없었다. 김은 비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 먹었던 김 맛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김국을 개발해서 비인장에서 김국밥을 상품화하려고 한다.

가축전에는 어성꾼이 있어서 중개를 했다. 가축전 뒤에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은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주로 호미, 낫, 괭이 같은 것들, 즉 낫을 쓰다가 부러진다거나 이빨이 빠지면 비인장에 와서 배려서 쓰곤 했다.

비인장에는 약장사가 자주 왔다. 약장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차력을 했다. 돌을 손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빙 둘러 앉아 약장사의 약 파는 소리와 음악소리가 결합되어 마음을 울쩍하게 했다.

고무신가게는 비인장에 세군데 있었다. 대목장날이면 고무신을 사고 신발을 버리고 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 당시에는 운동화가 귀해 털신, 고무신, 장화 이런 것들이 거래 되었다. 비인장의 또 하나의 진풍경은 국수전이었다. 장날마다 리어카에 기구들을 싣고 와 국수를 삶아 팔았는데 시장 국수 맛이 별미여서 많이 팔렸다. 국수전과 찐빵집이 붙어 있었다.

또 갯것전은 주로 조개류가 많았다. 조개를 캐다 파는 아줌마들이 많았다. 비인장에는 바지락이 가장 많았다. 쌍도교 근처에서 가무락도 많이 잡았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맛조개가 참 많이 나왔다.

비인장을 키우고 싶다.

1970년초와 지금의 비인장을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 우선 비인장에 나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람들이 비인장에 생필품 구입, 정보교환, 대포집에서 술 한 잔 하는 재미로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

1980년대 비인장이 반짝하였다. 서면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비인에 많이 입주하여 비인장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였다. 상인과 소비자가 즐비하게 노점을 따라 걷고 있었다. 2006년도 비인장 현대화 사업으로 비인장은 쇠퇴하기 시작

하였다. 비인장을 지금처럼 리모델링하고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모두 떠났다. 그 전에 미군부대와 비인해수욕장이 있던 시절 비인장에 영향을 끼쳤다. 비인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비인장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비인장이 미미하지만 활성화되었다.

비인장에 대한 아쉬움은 비인사람들에게 남아있다. 즉 1970년대 후반 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 마량리 동백정에 들어오면서 한전 사택 부지를 달라고 비인면에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한전사택 사모님들이 비인장을 오고가며 활성화가 되려다 결국 춘장대에 사택을 짓자 많은 사람들이 비인을 떠났다. 서천에 마트도 생기고 군산에 이마트도 생기자 비인 상권이 무너져 버렸다. 2006년 비인장 현대화 사업은 비인장이 붕괴 될 대로 되었을 때 추진했기에 효과가 없었다.

이에 비인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 비인주민자치회에서는 '인산인해 어게인 비인'을 목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비인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김국밥 거리를 조성하자! 옛날 명성을 찾아서 김국밥 거리를 한 번 해보자. 또 비인시장을 선도리 체험마을 잡은 조개를 해감 시켜주는 시설로 만들어 해감하는 동안 비인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해감 된 조개를 농산물로 바꿔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비인장 활성화는 누군가 미쳐야 한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분이 조영운 위원장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꼭 비인장이 조개류와 김으로 특화되어 옛 명성을 찾길 기대한다.

<인터뷰어_ 유승광>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정산면 송학리 장승제:땅에는 장승 하늘에는 솟대 718
목면 본의리 노신제:주먹주먹 복덩이 '재수떡' 722
남양면 봉암리 행단제:은행나무, 마을의 수호신이 되다 728
화성면 광평리 산신제:긴골 팔십리의 기도 732
운곡면 모곡리 산신제:옛날 형태로 부각시켜라 737
대치면 대치리 장승제:칠갑산을 닮은 마을의 일꾼 742
청남면 왕진리 용왕제:우물물아, 평평 솟아라! 746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하늘에는 달, 땅에는 불, 정월 대보름 밤 751
청양읍 정좌리 성황제:마을의 살림꾼 755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안 연 길 (1950년생)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정산면 송학리 장승제 : 땅에는 장승 하늘에는 솟대



험상궂게 과장된 형상의 장승이 아니다.
청양의 장승은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다
가족이다

전염병 물리치려고 장승제 지내

"그때 청양 대표로 내가 나갔지요. 우리가 연장이 없어서, 그냥 쓰던 연장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냥 옛날 그대로 했지요. 별 볼품은 없지! 그때 쓰던 큰 끌은 지금도 있어요. 그냥 수작업으로 했는데, 등수 안에 들었더라구, 상상도 못 했지요. 청양군 대표, 송학리에서 최우수상이라니, 자부심 그런 게 있더라고."

"심사위원장이 임동곤 박사였는데, 그분 설명이 '자기네가 공부하고 내려온 역사상 변질하지 않고 내려온 장승이 송학리 장승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부심으로 지금까지도 안 변했어요."

1988년도 부여백제문화제 KBS 목장승깎기대회가 열렸다. 송학리 안연길 씨가 청양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흔히 장승 하면 부리부리한 눈, 비뚤어진 코, 듬성듬성하게 드러난 이빨. 커다란 입, 굽고 뒤틀린 소나무의 생김새 그대로 조각한 모습을 상상하는데 청양의 마을 장승들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 한국인의 얼굴 그것이다. 그것이 전통 장승 청양 장승 송학리 상송의 장승이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른들이 임진왜란 때부터 임병이라는 병이 있었다대. 전염병을 물리치려고 장승제를 했다고 하더라고."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7년간의 지루한 전쟁인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났다. 임금인 선조가 평양으로 피신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어지럽던 때이다. 돌림병인 장티푸스를 말하는 것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당시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한 민심의 반영인 듯하다. 장승제가 그때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430여 년 전부터 행해졌다는 것이다.

"여덟 살 때 초등(국민)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깎는 것을 좋아해서 관심이 장승 깎는 거였어. 그러면 어른들이 연장 버린다고, 못하게 혼을 냈어요."

"장승을 깎고 싶은데, (웃음) 몰래 깎아보려고 뒤로 가면 '저놈의 새끼 또 연장 몰래 쓴다고.' 그러다가 3학년 땐가? 열한 살쯤 어른들 몰래 오리 하나 깎았어. 그 뒤 오리를 꼬부라지게도 깎고, 이렇게 저렇게 깎아봤지. 오리 뒤통수를 깎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다 깎은 상태에서 요 뒤로 좌우를 몇 번 찍으니 뒤통수가 딱,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른들이 '저놈 소질이 있네!'라고 하여 인정받았어요."

장승, 제물 등 모두 홀수로

안연길 씨는 8살 때부터 장승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계기는 깎고 만들기를 좋아해서 어른들이 장승과 솟대를 제작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부터다. 송학리 장승제에는 북서를 지키는 남장승(西北方白黑帝逐鬼大將軍) 1기, 동남을 지키는 여장승(東南方青赤帝逐鬼大將軍) 1기, 솟대 1기 등 각 1기씩만 세운다. 짝을 맞추는 것이 금기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장승의 치아도 위 7개를 끌로 조각하고 아래 일곱 개는 그린다. 제물의 개수도 북어 5마리, 대추 5접시, 밤 5접시 등 철저하게 홀수로 하여 제에 올릴 떡조차도 쌀 3되를 한다.

홀수 혹은 5의 뜻은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신께 드린다는 의미다.

화주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정이 없으면 3년, 순번이 닿아도 부정이 있으면 건너뛰고 순번 중에도 부정이 있으면 거른다. 화주의 집에는 금줄을 매고, 3줌씩 황토를 놓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지금도 옆에 세워져 있잖아. 장승과 솟대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곳이 있고, 마주 보는 곳이 있어. 근데 우리는 바깥쪽을 쳐다봐. 왜 이것을 바깥쪽으로 세우느냐고 했더니, 아귀

가 병균을 갖고 들어오면 쫓아내라고, 못 들어오게 쪼우라고 바깥쪽으로 세운대."

소나무 귀한 시절에도 장승 깎아

장승의 생명은 3년이다. 3년이 지난 장승은 소각하고 새 장승으로 교체한다. 반면 솟대는 매년 교체한다. 산에 나무가 귀해서 소나무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에도 자기 산의 나무 중에 잘생긴 것으로 가져다주곤 하였는데 지금은 나무가 많아도 너무 커서 오히려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제도 예전에는 밤에 장승을 깎아 세우고 새벽 1시경에 지냈지만, 지금은 낮에 장승을 제작하여 세움과 동시에 오후 1시경에 제를 지낸다.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에는 청양에서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이 모두 참여한다. 송학리 장승제도 축제에 참여해 마을 장승제 시연을 통해 송학리 장승제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장승을 여기 와서 깎는 것이 아니라, 행사적으로 하려면 거기 가서 제작해야 해. 그래야 구경꾼 하나라도, 동네 사람들 하나라도 더 가지."

장승축제에 대한 의견이다. 외부의 장승작품들은 축제 현장에서 장승을 깎게 하고 정작 청양의 장승은 마을에서 깎아다가 세우고 제를 지내느냐는 것이다. 청양 장승이 축제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장승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장승제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장승제 깎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연길 씨의 한결같은 걱정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행사의 지속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순흥 안씨 연길 씨는 공주군 신풍면 쌍대리에서 7살 때 송학리에 이주하여 평생을 사셨다. 일찍이 남다른 손재주로 목수 일로 터전을 넓혔고, 장승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장승제를 주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인터뷰어_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김 학 범 (1942년생) 청양군 목면 본의길
박 흥 규 (1948년생) 청양군 목면 본의길
김 순 복 (1954년생) 청양군 목면 본의길

목면 본의리 노신제 : 주먹주먹 복덩이 '재수떡'



바깥정주나무 · 안정주나무 2곳서 지내

300년 전부터 지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목면 본의2리 동막골 '노신제'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 술시(오후 5시)에 지낸다. 마을의 액막이로, 좋은 기운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막아내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객지에 나간 젊은 사람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제사 비용은 정월 초하룻날 오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풍악을 치며 집마다 다니면서 걸립했다. 풍물꾼들이 각각의 집마다 잘되라고 장독 앞이나 방에 가서 절하고 풍물을 하면, 그 집에서는 술과 음식으로 접대했다. 마을의 한 집도 빼놓지 않았다. 각 집에서는 주로 쌀 한두 되나 돈 몇십 원을 내주었다. 생기복덕을 가려 마을 사람 중에 제관을 정했다. 제관은 일주일 동안 소복단장하고 매일 저녁 우물에 가 목욕을 하고, 단정하게 집에 와 장독에 냉수를 떠 놓고 절을 하였다. 걸립한 돈과 쌀로 일주일 동안 제 음식을 준비했다. 떡을 하고 술과 안주를 만들었다.

제 지내기 3일 전에는 제를 올릴 곳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제물을 준비한다. 13시에 풍물패가 사물놀이를 하며 '노신제'를 여는 준비를 한다. '노신제'는 바깥정주나무부터 지낸 후 안정주나무로 이동한다. 15시에 바깥정주나무 앞에 제물상을 차린다. 헌관은 제복을 입고 늘어서 강신례를 올린 후 축문을 낭송한다. 초헌 · 아헌 · 종헌이 끝나고 소원성취 소지를 올린다. 참신례와 지역유지들 인사가 음복한다. 17시에 풍물패를 따라 안정주나무로 이동하여 바깥정주나무에서 지낸 것처럼 '노신제'를 지낸다. 단, 안정주나무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안정주나무의 '노신제'가 끝나면 풍물패는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뒤풀이 및 한마음 축제를 하며 즐긴다. '노신제' 명칭 또한 '동막골 노신제 축제'다.

'노신제' 마을, 목면 본의2리에는 경주 김씨와 밀양 박씨가 오래전부터 많이 살고 있다. 본관이 경주인 김학범(1942) 씨는 목면 본의2리 동막골 출신이다. 이곳에서 12대째 살고 있다. 아버지는 김만식, 어머니는 공주 이인면의 칠원 윤씨 윤창녀다. 할머니는 박 씨였다. 김학범 씨는 5남매 중 둘째이며, 2남 3녀 중 장남이다. 28살에 고향이 부여인 기계 유씨 옥

순(1946) 씨와 중매로 만나 혼인했다. 가훈이란 것이 뭐 있냐며, 그냥 '성실하게 살라'였다고 한다. 18살에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적은 땅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다가는 이 고장에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돈을 많이는 못 벌고, 그냥 먹고 산 거죠. 아예 배운 것 없고 능력 없고 머리 안 좋아서 돈도 못 벌었어요." 김학범 씨는 2010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입구의 큰 정주나무에서 '노신제'를 지냈어요. 서쪽으로 안쪽 정주나무라 해서 정주나무가 또 있었지요. 지금 보니 3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오래된 것은 아닌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바깥 정주나무는 중간에 죽었어요. 내가 객지 나가 있는 동안 죽어 다시 심은 거죠. 그리고 안쪽 정주나무는 상했지만, 현재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학범 씨는 만 6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며, 기억으로는 그 당시부터 계속 '노신제'는 똑같이 지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가구 수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형제가 많은 집은 7~8남매나 10남매까지 되고요,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불과 한두 사람 정도였어요. 차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5 · 16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객지로 많이 나갔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아마 첫 번째로 객지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윗대, 그 윗대에서부터 내려온 '노신제'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몇백 년을 지내왔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심어 놓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제사상은 일반 제사 지내는 것과 같았다.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소지를 올렸다.

"일주일 전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생기복덕을 따져 마을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자손이 잘된 집, 부부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지요. 동네서 제일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몸을 단정히 하고, 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해 제사를 지냈죠. 일제강점기에도, 6 · 25 때도 지냈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지냈죠. 그

때는 보릿고개 시절이었어도 각자 집에서 쌀을 내 떡을 하고, 그때는 술도 못 담을 때였지만 술(막걸리)도 암암리에 담가 가고 그랬어요.”

현재는 노인회장인 밀양 박씨 박흥규(1948)씨가 ‘노신제’를 맡아 지내고 있다. 이곳은 선대의 고향으로 12대가 이곳에서 살았다. 증조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살다 공주로 가, 박흥규 씨는 공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박흥규 씨의 아버지는 박병덕, 어머니는 전주 이씨 이순이다. 평택이 고향이며 본관이 경주인 김순복(1954) 씨와 혼인했다. 김순복 씨의 아버지는 김기성, 어머니는 수원 백씨 백금순이다.

박흥규 씨는 김순복 씨와 함께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인 본의리, 이곳으로 2009년에 귀농했다. 선대의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김순복 씨는 현재 본의2리 이장이다. 김순복 씨는 이곳으로 와서 경주 김씨의 친척을 많이 만났다.

“2017년도까지는 정월 초하룻날 지신밟기로 걸립해서 그 재원으로 ‘노신제’를 지냈죠. 2018년도부터 청양군에서 제 지내는 지원금이 40만 원씩 나와요. 청양군에서 주는 돈으로 음식을 차립니다. 지금도 지신밟기는 하여 걸립한 돈으로는 동네잔치를 하지요.”

“우리 동네 축제는 집집이 제삿밥을 나눠 먹고,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소지를 다 올려 주는 것이지요. 그전에도 집집에 들러 풍물놀이는 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축소됐어요.”

“타지도 안 나가고 이 동네에서만 오래 살았던 사람이 안정주나무 터가 명당이래요. 누군가 밤에 몰래 시신을 갖다가 정주나무 뒤에 묻었더니, 나무가 막 울었고 마을에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다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터라고 해서 시신을 묻은 탓으로 마을이 혼란스럽다고 여겨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순복 씨는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 일이 계기가 돼 ‘노신제’를 지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도

김순복 씨는 노신제에 필요한 음식에 대한 전반사항, 시장 보는 일부터 음식 만드는 일

까지 10년을 넘게 해왔다. 예전에는 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과 제관을 생기복덕에 따라 정하였으나, 지금은 주민 수가 적다 보니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 하려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죠. '노신제'를 지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단합도 되고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소통과 화합도 되고. 그런 때 한마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계속해야지요. 노신제 음식 준비에 대하여 노트에 다 기록해 놨어요. '노신제 장부'죠. 음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돈은 어디 어디서 얼마 들어 왔는지를 다 적어놓습니다. 통장도 만들었지요."

'노신제' 제물로는 돼지머리, 떡 2시루, 포, 5색 과일, 과자, 전, 탕, 막걸리(소주) 등을 준비한다. 제사를 지낸 떡은 '복덩이', '재수떡'이라 한다. 그 떡을 주먹주먹 뭉쳐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려준다. '노신제'를 지내고 그 기운을 받는 것이라 믿는다. '재수있는 떡'이라 해서 기다렸다 먹기도 한다.

2023년 현재 본의리 마을 주민은 72명이다. "72명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72명 다 참석은 못 해요. '노신제'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종교가 달라서….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각자 소지를 올리고 아는 사람들 소지를 올리는 겁니다"고 박흥규 씨는 말한다. 타지에 사는 출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가 있어, 재경향우회에 알리면 참석하는 출향인도 더러 있다. 본의2리 마을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많지는 않다. 기독교인들은 '노신제'에 참여를 거의 안 한다. 제관 또한 예전에는 그 해의 생기복덕을 가려 정했는데, 요즘은 주민이 줄어 생기복덕을 가릴 수가 없다. 제관은 노인회장, 동계장, 이장이 맡아서 한다. 특히 여자는 제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김학범 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노신제'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왔다고 한다. 늘 배가 고팠던 50~60년대로, 그런 때나 떡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 때고 갈 때고 풍장을 뒤따라가며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그야말로 큰 동네잔치였다. 김학범 씨가 근 50년 만에 맞이한 '노신제'는 옛날하고는 많이 변해 있었다.

"감회는 똑같은데, 옛날하고는 판이 달랐죠. 뭐가 달랐냐면 우선 기부금 걷는 것부터 방식이 달랐는데, 지금은 절하면서 기부식으로 돈을 냅니다. 내가 2010년도에 내려왔을 때,

집마다 풍장치고 다니면 돈으로 다 내놔요. 이만 원도 내고 삼만 원도 내고 십만 원도 내고,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그 돈으로 옛날식으로 비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걸립이라고, 집집마다 들어가 풍장을 치고 지신밟기를 하면 보리쌀 한 되나 찹쌀 한 되를 내놓았었죠. 집에 와 풍장 치는 사람들에게는 막걸리도 대접하고, 망태기에 먹을 것도 넣어 주기도 하고, 밥과 떡도 준비하여 풍물꾼에게 대접했어요. 제를 지낼 때도 쌀을 내놓았죠. 그나마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 달라졌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요즘은 집집마다는 안 다니고 그냥 풍장만 치죠. 잘되라고 절하면서 찬조식으로 돈을 내놓고, 명절 때도 찬조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요."

소지(燒紙)도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 한 명 한 명 이름을 써 소지했다. '노신제'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써 올렸다. 지금은 한지에 이름은 쓰지 않고 반 접어서, 각 집의 가구주 이름을 부르며 소지를 올린다.

본의2리 동막골 주민들이 몇백 년 동안 지내 온 '노신제'의 정신은 마을 안녕이다. 선조들이 오랜 시절 간직하고 지켜온 것처럼 마을의 안녕과 마을공동체의 힘이다. 온 마을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단합하는, 그런 것이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노신제'의 의미는,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이고 화목입니다. 어쩌다 보면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도. '노신제' 때 모여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죠. 그런 이유에서도 '노신제'의 정신은 계속 전승돼야 하며, 마을을 지켜준다는 뜻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노신제'가 우리 마을의 문화재로 돼 문화 활동도 했으면 좋겠지요."

'노신제'의 주관자가 아닌,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박홍규 씨는 말한다. '노신제' 날 마을 주민들은 모여 전통 놀이를 하며, 더 친해지고 더 화목해진다. 안정주나무와 바깥정주나무 모두 느티나무다.

<인터뷰어_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방 면 석 (1958년생)
청양군 남양면 나래미길

남양면 봉암리 행단제 : 은행나무, 마을의 수호신이 되다



마을마다 정자나무라 하여
팽나무나 느티나무 한두 그루씩 그윽하게 서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온몸에 상처도 많고
속은 새까맣게 썩어 텅 빈 나무에서
사람들이 겪었을 듯한 삶의 고단함과 오랜 풍상을 읽는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상처와 썩어 문드러진 속에
새살을 채우고 새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든다.
그 아래 지친 몸을 쉬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지리라
나무와 사람
서로에게 전해진 위로가 수백 년 나무의 삶을 이어주고
수백 년 마을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으리라.

700살의 거대한 자태, 행단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150-13번지에는 정자가 아니라 행단이라 이름하는 한 그루 은행나무가 서 있다. 수령 약 700살이라는 거대한 자태는 나이도 나이지만, 그 우람한 크기에 대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숙연하게 한다. 행단은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고사로부터 유래하여 학문을 배워 익힌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 동네 수호신으로 동네 분들 전부 오셔서 제를 올려요. 기원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도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보호수입니다. 이제 보호수에서 일반문화재로 올리려 합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나아가 천연기념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면 봉암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은행나무제(행단제)가 매년 음력 초이렛날 행해진다.

화주와 축관은 제를 지내기 10일 전 50세 이상인 사람 중에 가린다. 노인회장이 생기복

덕을 보아 제일 일진이 좋은 사람을 선정한다. 화주는 은행나무 옆 당집에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기도하며 출입을 삼간다. 은행나무 주변에도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제를 올리는 3일 전, 동회장과 이장은 제물을 사들이어 산제당에 보관한다. 제물 구매에도 금기가 있다. 상을 당한 가게에서는 사지 않으며 제물의 값을 절대 깎지 않는다. 제물 외에도 주민들이 나누어 먹을 음료수와 동태 등을 같이 구매한다. 화주는 당집에 머물며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한다. 대추, 통밤, 곶감, 배 사과, 귤 등의 과일과 식혜, 무나물, 김, 포, 과자 등 고기와 술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비교적 많은 종류의 제물이 올려진다. 제물로 쓰는 식혜는 건더기만을 사용하고 국물은 제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몇백 년을 산 나무들은 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어르신은 인사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세요. 행단제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꼭 지내야 그 해가 평온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온 마을 주민 참석, 사고 무탈 기원

정월 초이렛날, 날이 어두워지면 풍물을 치며 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8시가 되면 풍물패가 은행나무 앞 세 갈래 길에서부터 제단 앞으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돈다. 풍물패의 구성은 꽹과리 2명, 장구 1명, 북 2명, 징 1명 총 6명이며 이때 주민들은 풍물패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구경한다. 주민 중에는 새 한 마리라도 죽이는 살생을 했거나 생리 중인 사람 등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

제를 지내기 3일 전, 그 안에는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일도 삼갔다. 나무를 하다 긁히거나 상처를 입어 피를 보는 부정이 생길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출산이나 초상, 가축이 죽는 일이 생기면 아예 행사를 연기했다.

"거의 다 오세요. 자기 소지 올릴 때 많이 올라가면 오래 산다고 했어요. 재미있어요."

사고 없는 마을 되게 해달라. 자손들 잘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은행나무에 드리는 기도의 말들은 단순하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복잡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루하루의 반복 자체가 어려움인 것은 아닐까. 매일 다른 날로 인식하며 새로운 날이란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그걸 알아서 제발 새롭기를 기도하고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은행나무의 듬직한 아름드리에 기대보는 것은 아닐까.

"기와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면 누수가 심했어요. 수리비로 논 한 마지기씩 팔아야 했습니다. 헐고 함석지붕으로 개량하고 싶은 유혹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80년 12월 군에서 279호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당시는 지원이 없다가 90년대 들어서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풀도 깎아주고 가벼운 파손 정도는 수리해줍니다."

외부 사람들 함께하는 행사 바라

온양 방씨 간의공파 35대손 방면석 씨는 1985년 고희주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남매를 두었다. 33대 할아버지 대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부친 방기옥 씨의 유지를 받들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015년 청양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고향인 청양으로 와서 2018년 퇴직을 하였다. 윗대부터 살았던 고택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동네가 몇백 년을 내려왔는데, 개방해서 외부 사람들도 오실 수 있도록 문화축제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3년 전에는 몇백만 원을 들여 경품도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걸립을 통해 행사비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군에서 주는 지원금과 70년대부터는 400평의 동네 논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자금을 마련한다. 마을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외부의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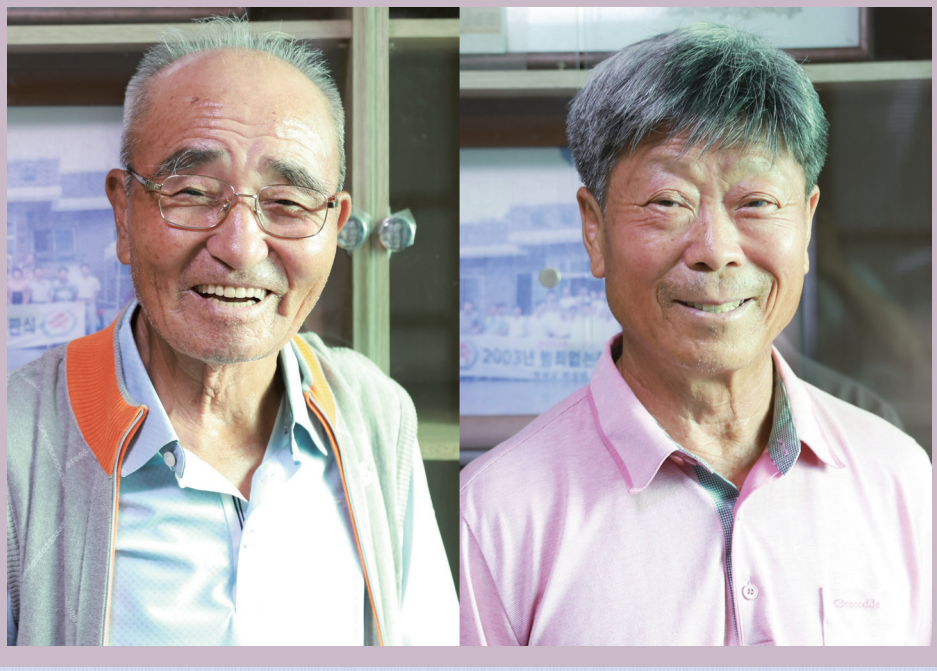
<인터뷰어_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김 진 섭 (1940년생)
청양군 화성면 덕평길

민 재 관 (1950년생)
청양군 화성면 덕평길

화성면 광평리 산신제 : 긴골 팔십리의 기도



주민 건강과 마을의 안녕 기원

화성면 광평리 산신제는 1904년 '광석리 산신제'로 시작됐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광석리는 광평리로 리명이 변경돼, 산신제의 명칭도 '광평리 산신제'로 변경됐다. 화성면 광평리 산11번지를 당산으로 지정하고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내는 '광평리 산신제'는 산신령님께 마을 주민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산제 계장 김진섭(1940~)씨는 70여년 전부터 산신제를 보아왔다. 본관은 김해다. 보령면천동 99번지에서 태어난 김진섭 씨는 3살 때 조부님과 부모님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조부님은 먹고살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땅이 없어 화암리의 임봉호 씨 논에서 아버지 김용봉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본관이 경주인 어머니 최성녀의 친정은 보령 소래다. 현재 김진섭 계장은 손자와 이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

"해마다 농사짓는 부락이기 때문에 동민들이 하나하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건강을 위해서 지선비 제단이 이뤄져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집안 식구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절하고 축원합니다."

산제 총무 민재관(1950~)씨는 3대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 본관은 여흥이며, 한국전쟁 때 황해도에서 살던 아버지 민태석의 피난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민태석은 이곳에서 배천 조씨 종희와 혼인하였다. 민재관 총무는 일밖에는 모르는 부모님을 그대로 배워 농사 박사가 되었으며, 농촌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다.

"다른 지역은 산신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이곳 산신제는 엄하게 지냈습니다. 초사흘에 산제를 지낼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을 골라요. 생기복덕이 되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없으면 초사흘에 못 지내고 다음 날에 지내요. 초하룻날부터 산신제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도 비린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동네를 나갔다가 초상집에라도 다녀오면 동네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산신제는 엄하고 깨끗하게, 진짜 정성을 들여 지내면서 내려왔어요. 지금은 마을주민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절차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메 짓는 쌀도 깨끗한 물로 담궜다가 방앗간에도 안 가고 집에서 손으로 빻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비린 음식이나 부정한 것, 다쳐서 피 나는 것 등은 금기시했어요. 그만큼 엄하게 내려왔습니다."

"산신제를 지내고 싶어도 생기복덕이 안 맞으면, 못 지내죠. 2017년 전까지는 생기복덕을 다 가렸습니다. 그것을 못 가리면 제를 지내도 껄끄럽습니다. 주민도 줄고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안 지낼 수도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내년엔 중단될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 자손들이 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줘도 '뭐하러 합니까?'라고 합니다."

민재관 총무가 침통해 하자, 김진섭 계장도 한마디 거든다. "마을에서 할 만한 분들이,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밤중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에라도 올라가려면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광평리는 행정구역이 4반으로 나뉘었는데, 산신제는 2 · 3반만 지낸다.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따로 했던 것 같다고 김진섭 계장은 말한다. "2 · 3반 사람들이 똑똑해서 산신제를 지내온 것 같다.(웃음)" 성황리에 산신제를 지낼 때는 1960~1970년대였다. 30가구 정도였으며 당시에는 한 집에 4~6명이 살았다. 핵가족이 없었고, 약 100명의 주민이 있었다. 현재는 16가구에 3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광평리의 주민분포는 80세 이상이 90%가 넘으며, 부부장수가 특징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일제강점기 때도 산신제를 빠지지 않고 지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계승하자'라는 것이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 약속이므로, 단단히 마음먹고 행해 왔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지낸 산신제는 정신적으로 큰 지주가 되었다. 당연히 계승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 안타깝다.

산신제 비용은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풍물을 치며 걸립을 했다. 쌀과 현금이었지만, 주로 쌀이었다. 지금은 걸립은 하지 않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금(쌀 한 말씩 모아 장리쌀을 놓았다)을 사용하고, 따로 걷지 않고 자진해서 내고 있다. 축문을 쓰게 되면 정성비도 냈다. 또한 김진섭 계장이 마을의 샘(우물) 일을 해 주면 조금씩 돈을 내곤 한다.

산신제당은 당산이라고 하는데 자연석 바위이다. 옛날부터 내려온 것으로 아무것도 건

들지 않고 지냈다. 자연 그대로 하자고 해서 비가림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눈이 와도 천막을 치지 않고 제를 진행한다. 당산 밑의 우물은 옛날부터 있었다. 산신제 지내기 전부터 그곳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그 물로 사용하자고 해서 '산제당 샘'이라고 했다. 우물에서도 제를 지내고, 소지 또한 올린다.

"초사흘 아침에 모여서 샘을 품고 볏짚으로 새끼를 꽈요. 그리고 산제당 주변을 청소하고 금줄을 달아요. 부정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황토, 부정 방제 흙을 3개씩 양쪽, 여섯 무더기로 놔요. 내려와서 술 한 잔 부은 후 산제기를 세워요. 그다음에 축문을 쓰고, 저녁에 주당 · 축관 · 소지 올리는 안식구 등 4명이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우물제를 지냅니다. 산제기는 다음날인 초나흘 오전 10시에 술 한 잔 부은 다음 기를 내리고 막을 내립니다."

제관은 '건강한 사람'이 맡는다. 산신제의 제물은 시루떡, 산제당 샘의 냉수 한 사발, 촛불이다. 시루떡은 두 시루로, 산제당과 산제당 샘에 차린다. 산제기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떡하고 라면, 떡라면을 끓여 '올해에도 산신제 잘 지냈으니, 무병장수할 겁니다'라며 대접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물을 푸다가 미꾸리가 나오면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핸가 미꾸리를 끓여 먹고 눈이 멀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미꾸리를 안 먹었지요. 그로 인해 우물 청소에도 정성을 들이고, 산신제를 더 엄중하게 지켰어요. 옛날에 생기복덕을 따질 때 당주는 한 집에서 내외했고, 제관은 3명을 골라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 조절이 되지만 옛날에는 갑자기 생리하면 못 했어요. 다시 결의해야 하고 날짜가 변동되고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물 정비는 72년도에 뚜껑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약돌을 주워다가 쌓았어요. 지금은 뚜껑 닫고 구멍을 뚫어 모터 달아서 사용합니다." 김진섭 계장은 적은 주민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 옛것을 지키느라 어려움이 컸다고 말한다.

광평리는 화성면의 중앙이며 상류다. 물이 북향, 아산만으로 흘러간다. 물이 빨리 빠져 수해가 없다. 보령으로 넘어가는 고개부터 예산 저수지까지 긴 골 팔십 리다. 옛날부터 북쪽으로 역류하는 곳으로, 송요찬 장군 등의 인물이 나왔다. 사업가보다는 학자 출신들, 박

사들이 많다고 김진섭 계장이 말한다. 또한 금개구리쌀이 나오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금개구리 마을이다.

"후손에게 계승을 해줘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이것도 전통이고 역사인데, 계승이 안 될까 봐 아쉽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산제당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귀농자가 없어요. 1반과 4반은 귀농자가 있는데 2 · 3반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웃음). 내 정성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에 잠기게 하네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 내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요." 김진섭 계장은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산신제는 우리가 잘 지켜왔고, 잘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습니다. 당산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보존해 왔습니다. 제당 역시 자연석으로 기묘합니다. 눈과 비를 맞으면서 그대로 제를 지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7년간 지속되는 것도 산신제를 잘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착하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당산 초입의 우물부터 전부 청소합니다. 정성을 들여 이고,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동안 밑에서는 풍물을 합니다.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도록 산제당 샘과 당산 밑에서 풍물을 계속하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신발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김진섭 계장은 풍물패의 상쇠다. "동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풍물을 하며 기도합니다."

"춥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합니다. 옛날에 노인 양반들은 산제만 닿았다 하면 힘이 생겼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산재를 모시는 동안, 그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들은 자기 집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인터뷰어_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김 석 희 (1964년생)
청양군 운곡면 장항동길

운곡면 모곡리 산신제 : 옛날 형태로 부각시켜라



호랑이 피해 없게 기원

운곡면 모곡리 장항동 산신제는 노루목마을에서 지낸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400여 년 전 마을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산신제를 지내게 됐다고 전해 내려온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피해를 주지 말라는 산신제다.

장항동 산신제는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편안한 날, 10월 초하룻날 제를 지냈다. 산제 지내기 며칠 전에 마을 회의를 했다. 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 · 축관 · 화주 셋을 선정하는데, 삼재가 있거나 여자(부인)가 부정한 날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본관은 김해며 15대째 장항동에서 사는 김석희(1964~)씨는 2013년부터 산신제 총무를 맡아보고 있다. 조부는 김윤태, 부친은 김영규, 모친은 본관이 덕수인 이영순(1926~)씨다. 신양 가지리에 큰집이 있고, 14~9대의 묘를 모곡리로 이전했다. 김석희 총무는 운곡초 48회 졸업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전에서 공부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녔으며, 2010년에 고향으로 왔다. 농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블루베리를 시작했다.

"정확한 산신제 기원은 알 수 없어요. 1970년대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산신각에 일부러 불을 질렀답니다. 100년 이상 오래된 전통 민속인데, 이전 자료들이 소실돼 최초의 기록들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던 내용으로는 옛날에 이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호랑이를 퇴치하기 위해 황소를 잡아 제를 지냈고, 제를 지낸 이후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황소를 직접 산제당까지 끌고 올라가 도축을 했는데,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재정 또한 소 값이 1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통돼지를 잡아 제를 올리는 것으로 바꿨지요."

김석희 총무는 어린 시절에 산신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를 지내고 내려와 고기 나눠주는 과정과 산신제 준비과정을 다 보았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수인계한 것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동생이 이곳 모곡리에 자리를 잡았지요. 선조대는 정승판서, 동부승지, 진사 등 나왔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동생이 잘 됐습니다."

모곡리 노루목이에 열녀 능성 주씨 열녀문이 있다. 능성 주씨는 김현배의 부인이며 김석희의 선조다.

김석희 총무 모친의 고향은 운곡면 미량리 접줄이다. 18살의 나이로 20살의 김영규와 혼인한 이영순 씨는 시집오기 싫었지만, 당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는 친정아버지에 의해 일찍 혼인하게 되었다. 혼인 후 김영규(김석희의 부친)가 군에 입대하여 원망이 많았다. 슬하에 6녀 3남을 두었고, 김석희 총무는 여덟 번째며 차남이다. 절에 가 기도를 한 후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영순 씨 기억으로는 예전에 제를 지낼 때 가죽띠를 매지 않았다고 한다.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한복을 입어도 가죽띠는 안 하도록 엄격하게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 수가 줄어서 그것 또한 지킬 수가 없어졌다.

3일간의 한마음 한뜻, 화합 원동력

예전에는 무조건 음력 시월 초하루에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초하루 직전 일요일 아침 9시에 제를 올린다. 3일 전부터 마을 입구의 3곳을 지정하여 금줄과 황토를 뿌리고, 건강한 남자 회원이 3일 동안 매일 우물과 산제당 주변을 청소한다.

"9월 30일 저녁에 제물을 준비해서 미리 올려다 놓습니다. 제물은 기본이 황소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내장, 선지 등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상 위에 고기를 올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술은 안 올립니다. 그다음 날 새벽에 올라가 밥만 해서 국, 식혜와 함께 올리고 소지하고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제관 · 축관 · 화주 세 분이 전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잠을 잡니다. 새벽에 밥과 국을 직접 끓여서 제를 지내고 축 읽고, 소지 올린 후 내려왔는데, 지금은 불편해서 바꿨습니다."

소지는 회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소지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소지값을 받는다. 군대 가 있는 마을 사람은 무료로 한다. 소지값은 1만 원이다. 과거에도 1만 원을 받았으며, '대학 합격'같이 특별하게 올리게 되면 소원 성취비로 소지값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올린다. 회원 또한 회원 본인 1명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1만 원씩 내고 올린다. 여자들은 주로 건강, 소원성취, 합격 등의 소원지를 올린다. 소원지는 구술로 받고, 이름과

내용을 축관이 적어 한 사람씩 읽고 소지한다.

제를 끝내고 제물(소나 돼지)을 마을회관으로 가져와 '균등분육'이라는 규정에 따라 똑같이 회원별로 나눈다. 그리고 남는 부위인 머리, 뼈, 다리 등은 판매한다. 그 돈은 다음 해 산신제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 둔다. 약 7~8년 전 2016(7)년도에 제물이 소에서 돼지로 바뀌었다.

모곡리는 7개 반으로 모곡리 느티나무제, 북항장터 서낭제, 장항동 산신제 등이 있다. 느티나무제를 서낭제라고도 한다. 그중 장항동 산신제가 가장 오래되었다. 장터에서 하는 서낭제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장항동 산신제는 노루목마을에서만 한다.

장항동 산신각은 2015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보수를 했다. 예전에 불을 지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제각을 새로 지어주지는 않았다.

산신제를 올리는 첫 번째 의미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이다. 마을 사람들이 교류와 회의를 통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화합을 하는 것이다. 제를 함께 올리고 나면 마음에 안정과 마을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예전에는 호랑이도 안 내려온다고 믿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6 · 25 때도 산신제를 지낸 걸로 알고 있다. 장항동 산신제는 마을 전 주민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신제 회원'이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잘 모르지만, 산신제 비용은 1970~80년대부터 돈을 걷어서 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 산신제 비용을 충당했다. 옛날에는 가구가 많고 남자들이 많아, 남자로만 회원을 구성했었다. 30명쯤의 회원이 모여 돈을 걷어서 황소를 잡아 제를 지냈다. 2010년부터는 마을 전체의 화합을 위하여 여자 회원도 가입시켰다. 현재 마을 주민은 25가구 45명으로, 산신제 회원은 남녀 20명이다.

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계속 승계이다. 2013년부터 정식 마을제로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어서, 꾸준히 연 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마을에)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최소한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장항동 마을은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됩니다. 마을 입구의 다리에 500m 정도 꽃길을 마을 주민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나와서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지요. 이런 이벤트

때문에도 단합이 됩니다.”

과거에는 평상복으로 제를 지냈지만, 4년 전부터는 제복을 임대하여 입고 지냅니다. 제를 지내려면 3일 전부터 부부관계 및 술과 담배도 일절 하지 말고, 마음과 몸가짐을 정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또한 이런 마을제가 미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무관심했어요. 그나마 청양군에서 발 빠르게 민속제로 인정해 줘서 관심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돼지값도 70만 원 넘는데, 40만 원이면 어렵지요. 예전처럼 황소를 잡아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황소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도축을 할 수 있는 샘이 두 개 있습니다. 가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황소 잡는 것과 돼지를 잡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옛날 형태로 복원했으면 합니다.

<인터뷰어_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김 영 석 (1944년생)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대치면 대치리 장승제 : 칠갑산을 닮은 마을의 일꾼



청양에서 공주로 가는 길에 칠갑산이 가로 놓인다
벚꽃이 아름다운 옛길과
칠갑산 줄기를 관통하는 터널
그 초입의 마을에 장승이 서 있다
대치면 한티마을
남쪽으로 우뚝 솟은 칠갑산을 바라보며
탈속한 도인이 살고 있을 듯한 마을이다

근현대의 질곡을 온몸으로 헤쳐와

청양군 대치면 한티마을은 나주 김씨 김영석 씨와 부인 전주 이씨 이춘란 씨가 사는 마을이다. 청양읍 벽천리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선산이 있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뿌리내린 토박이다. 평생 농사로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마을의 일꾼이기도 하다.

"1950년에 수정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6.25 전쟁이 나고 주정리 뒷산에서 공부했어요. 원두막 불 끄는 연습도 하고 휴전이 되자 학생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일만 했어요. 흙으로 기와 올리고 졸업도 못 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차령산맥의 줄기인 칠갑산 밑이라 전쟁의 영향을 받아 밤에도 불을 켜지 못하거나 불빛이 새어 나갈까 염려하여 창문을 가려야 했다. 인민군들이 침입하여 닭이나 쌀 등을 약탈해 가기도 하여 늘 불안하게 살았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는 벽돌을 찍어 마을회관도 짓고…. 그야말로 근 · 현대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헤쳐온 것이다.

"일정 때는 정자나무 바로 밑에 있었어요. 당시 일본의 순사가 장승을 파괴했는데 즉사했다고 합니다. 후임 순사가 알아서 지금의 장소로 장승을 옮겼어요."

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믿음

박정희 정권 당시 미신 타파를 외칠 때도 장승제는 거르지 않았다. 장승제는 단순히 의

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승제를 지내고 소지 한 장 올린다고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또한 그런 생각을 하찮은 미신이라 말하기도 하겠지만 신앙이란 신과 인간의 영적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음력 정월 14일 장승을 깎아서 세웁니다. 손 있는 날에는 못 깎고 연장은 도끼로 합니다. 산에서 먼저 도착한 나무가 대장군, 나중에 도착한 나무가 여장군입니다."

예전에는 설을 지내고 3~4일 지나면 생기복덕을 가려 화주를 선정하고 자루를 들고 다니며 집집이 한 됫박 두 됫박 걸립을 하여 제를 지냈다. 지금은 5만 원 정도씩 출연한다. 화주도 따로 뽑지 않고 이장의 주도하에 행사를 진행한다.

음력 12일, 보름 3일 전에 마을 젊은 사람들이 우물 청소를 하고 금줄을 매면 제가 끝날 때까지 출입을 삼가기 때문에 우물을 쓸 수 없었다. 이를 대비하여 3일 전에 물을 길어다 놓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했다.

이 우물은 앉은뱅이가 와서 마시고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치유가 되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후에 우물의 뒤편에 묘지가 생기면서 효험이 사라졌다고 한다.

"땅을 파고 장승을 세워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돌로 장승을 받쳐둡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2~3미터 아래 거꾸로 박혀있어요."

젊은이들 줄었지만 하는 데까지는 한다

음력 정월 14일이면 춥다. 저녁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장승을 제작한다. 장승 제작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게를 만들 정도면 할 수 있다. 장승목을 마련할 때나 깎을 때 도끼를 사용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톱을 사용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기계톱을 사용한다. 장승을 깎다가 가시라도 찔려 피를 보게 되면 깎기는 물론 장승제에도 참석할 수 없다.

예전에는 장승 제작이 끝나면 15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천하대장군 앞에서 제를 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열나흗날 회관에서 지낸다. 사과, 배, 곶

감, 대추, 밤, 돼지머리, 바나나를 올리며 제주는 정종을 쓴다. 소지는 먼저 군인 소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올해는 1명의 군인 소지를 올렸다. 대동 소지 세대 주소지의 순으로 소원을 빈다. 제가 끝나고 마을회관에 모여 풍장을 치고 음식을 나누며 뒤풀이를 한다.

80년대 들어 동네 어르신들께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는데 장승 깎아서 세울 건가요, 돌장승을 세우고 열나흗날에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돌장승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가 2018년경 비교적 젊은 층인 60대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여 현재까지 목장승을 깎고 있다. 나무장승은 5~6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뽑아서 새 장승 뒤편에 세워둔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승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들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마을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지금은 넓게 포장된 길을 차로 쏜살같이 지나버려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도로의 폭도 좁고 비포장이던 시절에는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의 무리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여 진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어_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곽 덕 근 (1954년생)
청양군 청남면 남촌길

청남면 왕진리 용왕제 : 우물물아, 펑펑 솟아라!



무병장수 용왕님께 빌어

음력 정월 열나흗날, 청남면 왕진1리 창현(창고개)마을에서는 '용왕제(龍王祭)'를 모신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지내는 용왕제는 2천 년이 넘었다는 설이 있지만, 왕지마을의 가마터 발굴로 보아 적어도 1400여 년은 넘으리라 짐작한다. 유왕제(流王祭) 또는 샘제(새암제)라 불렀던 것이 2001년에 '용왕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동네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용왕님께 빌었다.

"백제의 수도를 부여로 옮긴 후, 정산고을(정산 · 목 · 청남 · 장평면)의 곡식들이 이 동네에 모였다가 왕지나루를 통해 사비나루로 들어갔지요. 이때 창고개마을에 곡식 운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 우물물이 부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용왕제를 지내게 되니, 난데없이 물이 솟고 자손이 번성하고 주민들이 건강해 일이 잘되었답니다."

용왕제를 주관하는 곽덕근(1954~)씨의 본관은 현풍이며, 태어난 곳은 서천이다. 4살 때 칠갑산자락에 있는 큰집으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왔다. 서천에서는 대가족이었다. 당시 당숙은 온양에서 수사과장으로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우물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큰아버지 또한 서천 창고에 불을 질러 사망하니, 집안이 어려워져 피난으로 오게 되었다. 21살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다.

곽덕근 씨는 부모님을 따라 자주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용왕제에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한다. 1970년대에 왕진1리 이장을 맡으며 용왕제를 부활시켰다.

"처음 총무를 할 때, 70년대 중반은 이 동네가 어려웠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목매면서까지 제를 지내느냐, 간단하게 지내지.'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르신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용왕제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용왕제를 지낸 자료가 창호지로 이만큼 있습니다. 옛 용왕제 자료는 6.25 때 당시 총무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료를 창호지에 기록했는데, 80년대에 총무가 자료를 버리고 간단하게 기록만 남겼습니다."

음력 정월 초사흘이면 제를 진행할 도유사와 부유사, 농악유사 등 10명 안팎의 유사를 뽑았다. 도유사는 그날부터 보름날까지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참석하지 않는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았다. 도유사를 정하면 마을 깃발을 도유사의 집 마당에 모셨다. 제사 때 초헌관은 도유사가, 아헌관과 종헌관은 유사 중에서 정한다. 제수 비용은 정월 초사흘에 풍장유사들이 집집을 방문해 그 집식구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풍물을 쳐주면, 집주인은 성의껏 제물 비용을 내놓았다. 1990년대까지 집집에 풍물을 치며 걸립했으나, 2003년에 마을회관을 준공하면서부터는 걸립도 마을회관에서 한다. 곽덕근 씨는 다른 마을의 샘을 퍼(샘 청소)주고 그 마을에서 제물비를 후원받기도 한다. 주로 쌀이나 보리쌀 1~2되 정도다. 제물은 보통 밤 · 대추 · 돼지고기 · 쌀이며 음력 12~13일 정도에 준비한다. 예전에는 부여 5일장에서 구매했다.

열나흘 아침에 도유사 집에 다 모인다. 제물을 장만하고 그날 행사할 것을 준비한다. 주로 젊은 사람이 맡는 부유사는 우물 청소를 한다. 우물에 고여있던 물을 모두 퍼내고, 우물 주변을 말끔하게 정돈한다. 흰 창호지를 꽂은 짚으로 꼰 새끼줄을 치고, 우물에서 도유사 집까지 길 가장자리에 황토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다. 액이 끼는 것을 예방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의미였다. 연세 드신 유사들은 약 500명 정도 소지를 준비한다. 용왕제 소지, 대동길 소지, 이장 소지, 주민들 소지, 출장 소지, 자녀 소지 등 축문을 쓴다.

유사들은 마을 깃발을 앞세우고 호리병을 가지고 산 곳이 샘에 가서 물을 받는다. 호리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고 긴 장대에 거꾸로 매단다. 유사 2명이 양쪽으로 장대 끝을 들고 와 우물 입구(우구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이어 독정이나루에 가서도 호리병에 강물을 담아 온다. 강물을 뜨기 전에 유사들은 강물에 들어가 목욕재계하였다. 곽덕근 씨는 어르신들이 한겨울에도 제를 지내기 위해 찬 금강에 들어가 목욕하던 것을 기억한다. 본인 역시 도유사를 할 때, 초사흘부터 젯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들을 따라 금강에 가 목욕을 했다. 독정이나루에서 떠온 물이 담긴 호리병 역시 우물에 거꾸로 걸쳐 놓는다.

“이 동네가 우마형으로, 산이 소 형태입니다. 옛 어른들은 샘이 젖이라고 여겨, 산의 옹달

샘에서 물을 긷고 수해를 입지 말라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제를 지냅니다. 이 동네는 큰 교통사고나 전사했다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 샘(용왕샘)에서 어렸을 때 놀다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늦게 발견됐지만 무탈하게 잘 자라 그의 아버지가 감사한 마음으로 샘 청소를 맡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김선중)가 맡아서 2대째 우물유사로 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물 깊이가 6미터가 넘습니다. 샘 안에 들어가 물을 퍼내는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 딸만 낳다가 샘을 푸고 아들을 낳은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동네 샘물, 산 곳이 샘물, 금강물, 삼수지합

해가 저물면 풍장유사들의 풍물놀이가 시작되고, 주민들이 우물에 모인다. 제물유사는 제물을 우물 뚜껑 위에 진설한다. 원래는 진설 방향이 북향이었으나, 지금은 달이 떠오르는 동향으로 한다. 촛불을 켜고 '초헌-축문 낭독-아헌-종헌-소지 올리기' 순으로 제사를 지낸다. 왕진리 용왕제는 주민들의 소망과 축원을 담은 '소지 올리기'에 큰 의미를 둔다. 각 집안의 대주-그 가족과 출향인-군대에 가 있는 사람 순으로 소지를 올린다. 특히 군인에 대한 소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는 용왕제를 지낸 후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다.

축문을 읽고 소지를 다 올리면, 우물에 걸쳐 둔 호리병의 입구를 막은 솔잎을 빼 산과 바다와 샘의 물이 합쳐지도록 한다. 삼수지합(三水之合)이다. 쉬지 않고 솟는 산 곳이 샘물과 많고도 끝없이 흐르는 강물이 동네 샘물과 합쳐져, 깨끗하고 많은 물이 펑펑 솟아나길 기원하는 의미다. 또한 창호지에 제를 지낸 떡과 명태, 김을 싸서 우물 속에 던지면 제사가 다 끝난다. 음복 후 제물을 나눠 먹는다.

제가 끝나면 주민들은 우물에 새로 고인 청수, 산과 바다와 땅이 합해진 물을 떠다 각자의 집안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다음날, 도유사집 마당의 기를 내리고 술 한 잔씩 나누며 용왕제의 막을 내린다.

창고개마을의 용왕제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 그들 삶의 필요로 용왕신을 탄생시키고 제를 올렸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식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다.

곽덕근 씨는 '왕진리 용왕제'가 문화재로 되길 바란다. 됐어도 벌써 돼야 했었는데 그렇

지 못해 늘 안타깝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분실된 자료에 늘 미련이 생긴다.

"옛날에는 왕진나루가 임금왕자 갈진자로 왕지진(王之津)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명을 격하시키기 위해 못왕자와 나루진자(汪津)로 바꿨다고 합니다. 강 건너가 백제 도읍지입니다. 칠갑산에는 큰 절이 있었고, 왕이 절을 가려면 독정 · 팔풍정 · 육정을 거쳐야 했는데, 왕이 목이 말라 하니 아낙네가 이곳 샘물로 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왕은 그 아낙네를 궁녀로 삼았습니다. 아낙의 남편은 부인을 기다리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독자 정자 정자 독정(獨亭)이로 지어졌답니다. 또한 남편이 죽고 나니 마을에 질병이 퍼졌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 시대부터 용왕제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왕제는 왕진1리 주민들만 지낸다. 일제강점기에도 6 · 25에도, 코로나19 때도, 시대가 바뀌니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도 간소화는 되었지만, 용왕제만큼은 빠짐없이 지냈다. 들이 넓은 왕진1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젊은이들이 오히려 용왕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1980년대만 해도 93세대였으나, 현재는 70여 세대며 노인은 50여 명 정도다.

'정월 열나흘 창고개에 사는 사람들 모두 삼가 두 번 절하며 아뢰나이다. 용왕님의 신령을 애오라지 우리 동민이 영접하오니, 항상 수복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운수대통하게 하옵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타향에 나가 사는 자녀들도 병 없이 오래오래 살게 하옵시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용왕제 축문

<인터뷰어_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표 정 수 (1954년생)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 하늘에는 달 땅에는 불, 정월 대보름 밤



추운 겨울날 모닥불이 타오른다.
불길 한 아름 안았다 업었다 등 따스하고 가슴 뜨거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동안
불은 밤이나 고구마를 익힌다.
정월 대보름 밤
호 호 불며 둥근 달 한 입씩 베어 물고
한 해의 무사 평안을 빌며
늦은 밤의 허기를 채운다.

동화, 왜란 때 봉화에서 유래

"동화제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집집마다 나무를 한 짐씩 가져다 묶어 세워 불을 놓고 제를 지냅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약주를 나눠 먹고 화합하는 제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를 소개하는 동화제 기능보유자 표정수 씨의 말이다. 그저 몇 다발의 나무 몇 개비의 장작으로 피워놓는 모닥불이 아니다. 마을의 50여 가구에서 가구당 한 짐씩 자그마치 50여 짐의 나무를 가져다 한데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모닥불이라 하기엔 너무 크지만, 모닥불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뭇더미 맨 위에 불을 놓으면 1시간에 걸쳐 타오르는데 함성이 절로 나올 장관이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소지가 제 몸을 불사르며 날아오르고 저마다의 소원을 어딘가로 실어 나른다.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했어요. 봉화와 비슷합니다.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민들이 둘로 나눠서 불로 봉화를 밝히고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

적의 침략을 알리는 봉화로부터 유래한 동화제는 1989년 12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동화제의 문화재 지정은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동네 사람들의 노력 또한 적지 않다.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이

듬해인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3등 상인 문화장관상을 수상하였고 88올림픽과 전국체전 도민체전 입장식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동화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 초청 행사 때는 7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선소리꾼이 '산~에 올라 산 나무~'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위여러어차아 헤~~에 헤' 후렴을 합니다. '들~에 내려 산 나무~' '위여러어차아 헤 에 헤'하는 노래는 나무할 때와 나무를 묶을 때입니다. 지게 춤출 때는 선소리는 똑같고, 후렴이 달라요. '조선에만 호두나무~' 후렴은 '아~~헤 에 헤에 헤' 합니다."

요즘에는 나무 한 짐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1960~70년대 헐벗은 산에서 산 주인이 지키는 가운데 나무 한 짐을 해온다는 것은, 비록 양질의 나무는 아니라 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무의 질, 나뭇짐의 크기 등을 따지지 않고 힘껏 성의껏 한 짐씩이었다. 예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요즘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힘들다. 그렇지만 한 집도 빠짐없이 나무를 해 온다. 나무하면서 힘들 때 부르던 노래다. 선소리 가사도 100가지가 넘는다.

"둘레가 넓어요. 원둘레 직경은 7~8미터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높이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낮추라고 합니다. 위험하기도 해서 낮추라고 합니다."

올해(2023)에도 400여 명의 사람이 동화제에 참석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500여 명이 넘게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였다. 코로나 때에도 일제강점기에도 동화제의 불길은 타올랐다. 문화재 지정 전에는 마을 앞 큰길에서 불을 놓아 지나는 차들에 불편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동화제 전수관도 지어지고 불을 놓을 광장도 생겼다. 동화대에 불을 넣으면 1시간 정도 지나야 완전히 탄다. 위에서부터 불을 놓으면 차츰 내려오면서 타는 모습도 장관이다. 잔불이 남아 있어 고구마나 삼겹살을 가져다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준비한 떡, 돼지머리, 과일, 정도는 빠지지 않고 나누어 먹는다.

"임원 회의는 5일 전에 합니다. 세부 계획을 논의합니다. 음식, 제관 등을 그날 결정합

니다.”

문화재 지정 전에는 대동회에서 치루던 행사를 이제는 동화제 보존회가 결성되어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 5일 전에 몸이 건강한 사람을 추천받아 제관을 정하고 불 놓을 장소를 청소한다. 제물로 떡, 돼지머리, 과일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해마다 정산면 풍물패 30여 명의 협조가 있어 더욱 흥겨운 행사를 치르고 있다.

문화재 지정 전에는 쌀, 돈, 막걸리 등 걸립을 통해 행사 준비를 했지만, 지정 후에는 동화제보존회 기능보유자 후계자 앞으로 나오는 돈을 모아 행사비로 사용한다.

“기능보유자는 주민분들이 동화제를 지내는데 모든 것을 잘 알고 추천해서 제를 지냈습니다. 1대는 이종만 님, 2대는 오영범 님입니다.”

동화제로 화합하는 마을 자랑스러워

그리고 제3대 기능보유자가 구술자 표정수 씨이다. 기능보유자는 종신제이며 사후 5년이 지나야 예술계 인사들과 역사 시험을 거친 후에 후계자가 보유자로 자격이 주어진다.

표정수 씨는 송학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주민으로 칠 남매 중에 맏이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25세에 결혼하여 부인 임미자 씨와의 사이에 남매를 낳았다. 젊어서는 담배 농사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금은 밤 농사를 짓고 있다. 마을 이장도 10여 년 역임했고 동화제 일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기능보유자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

“저희 동네는 동화제가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네 주민분들이 화합하고 다툼이 없었어요. 이웃 간 다툼이 없고, 정이 많고, 우리 동네를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어_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민속 마을제

박 윤 순 (1947년생)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청양읍 정좌리 성황제 : 마을의 살림꾼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흔히 명당을 정의하는 한마디다
뒤에서는 큰 구봉산이 뻗어와서 마을을 감싸고
앞에는 칠갑산에서 흘러내려 금강으로 가는 지천이다
정좌 1리
정갈한 산골마을이면서
읍내가 가까워 산골은 아닌 듯
앞뜰이 확 트인 들이라 산골은 아닌 듯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성황제

24세의 어여쁜 보령 아가씨 박윤순 씨와 청양에 사는 28세의 총각 현금식 씨는 보령의 한 식당에서 맞선을 보는데 서로 '그냥 괜찮대유'였다. 괜찮다는 말은 아주 좋다는 내면의 감정을 은근히 내비치는 충청도식 표현이다. 그렇게 둘이는 결혼을 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며 54년을 해로하였다.

청양읍 정좌1리 54가구 7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단촐하고 청결한 마을을 일구고 가꾸어 왔을 박윤순 씨의 일상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녀회장으로 성황제 일을 맡아 왔다니 그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9월은 가을 구기자를 따는 시기로 구기자를 따다가 오셨다는 노인회장 박윤순 씨는 매년 정월 열나흘에 정좌1리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에 올리는 성황제를 주관하고 있다.

"성황제는 부녀자들 위주입니다. 남자들도 참여는 합니다. 제사상이나 무거운 것, 불놓는 것은 남자들이 해주고 성황제는 여자들이 올립니다. 예전에는 무속인이 소지를 올렸는데 지금은 무속인이 돌아가셔서 개인이 올리지요."

청양군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박윤순 씨는 떡, 북어, 술(막걸리), 과일을 제물로 준비한다. 돈이 부족할 때는 동네 분들에게 걷어서 한다. 성황제 모임은 없지만, 열나흘에 성황

제를 지낸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성황제를 위해 걷힌 찬조금이 남을 때는 고생했다고 부녀회로 입금한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남자 위주의 제례로 행해지고 있는데 정좌 1리의 성황제는 여자들이 주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황제는 동네가 깨끗해야 그해 성황제를 지냅니다. 부정하면 제를 안 지내지요. 마을에 부정한 것이라면, 동네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죠. 상갓집이 생기면 그냥 지나갑니다."

부정하여 제를 안 지낸 때가 몇 번 있었다. 시신을 옮길 때 성황제 제단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성황제뿐만이 아니라 장승제, 노신제, 용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공통으로 여기는 부정이다.

"제는 저녁 6시에 지냅니다. 풍물은 하지 않지만, 대신 열사흘에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제는 간단하게 합니다. 마을의 남자와 여자가 다 모여서 동네를 위한 성황제를 드립니다. 노인회장, 이장, 개인 순으로 성황제를 지낸 후 거리제를 합니다."

새 가지로 오래 사는 나무

정자나무의 원줄기는 일제강점기에 베어졌지만, 그 옆으로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또 나오며 계속 살아간다. 나무 밑에 있는 제단에는 올라갈 수 없어서 청소만 한다. 혹시 제단에 올라서면 잘못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제단도 사람도 깨끗해야 한다. 생기복덕까지는 가리지 않지만, 정갈해야 하므로 부정하다 생각되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

성황제와 거리제를 올리고 모든 음식을 마을회관으로 가지고 들어와 나누어 먹으면 성황제는 끝난다. 그 이튿날에는 동네 돈으로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며, 대동회를 진행한다. 정좌1리 마을은 70~80대가 많다. 마을회관에 모여 밥이라도 해 먹게 되면 70대가 준비한다. 회관에 앉아서 노인 대우를 받으며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오늘날 시골 마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동네가 커서 예전에는 50명이 넘게 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30명 정도 밥을 먹는다.

박윤순 씨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성황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녀회장을 할 때부터 참여하여 16년째 성황제를 맡고 있다. 어느 모임이나 행사에 그렇듯이 앞에 선 사람이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발전은 물론이고 지속하기도 어렵다.

성황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는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옛날부터 지냈으니, 우리가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지내야 합니다."

고령화로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현실이지만 이 마을을 지킨 어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손들도 잘 지켜나가리라 생각한다는 박윤순 씨의 단호함에 믿음이 서린다. 동네를 위해서,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 일 없이 잘 되라고 제를 지내고 소지를 올린다. 이는 정좌1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혜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와서 부모의 일을 거든다. 농사가 무슨 큰 돈이 된다고 애쓰시느냐 하면서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잔소리를 하면서도 귀한 주말을 기꺼이 부모를 위해 쓰는 것이다. 젊은 사람의 눈에는 농사가 부모님의 건강이나 해치는 힘겨운 노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농사는 먹고 살게 해준 땅에 대한 의리의 표현일 수 있다.

오래도록 마을의 그늘이 되어준 정자나무에는 조상님들의 기도가 깃들어 있으리라. 수백 년 기도의 말들을 들으며 자란 정자나무, 서낭신의 유무를 떠나 대대로 기도를 통해 쌓이고 쌓인 덕담의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부모가 올리는 기도의 말 속에 자신을 위한 말은 없다. 오직 자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말들만이 가득하다.

<인터뷰어_ 김기상>

홍성군

|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하산마을 용봉산 산신제 760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미륵제 768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가야마을 사천나무 마을제 774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오방제 781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 선돌·들돌제 790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 느티나무 서낭제 796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상하국마을 저울산 산신제 802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 수란 산신제 809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이 종 광 (1960년생)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하산마을 용봉산 산신제





하산마을 산제당 모습



산제당 제단과 제기 보관 모습

명칭

용봉산 산신제

산신제에서 모시는 신

호랑이

산신제단의 위치

용봉산 동남쪽 중턱에 산제당골이 있다. 산제당골은 산신제를 지내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제당골 자연 암석 앞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단의 모습

하산마을 바로 뒤쪽에 있는 산제당 골짜기를 따라 오백 미터쯤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다. 큰 바위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도 될 만큼 넓고 평평하다. 산신제를 올리는 곳은 자연 암석으로 되어 있다.

산신제의 유래와 목적

산신제의 유래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는 호랑이의 피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마을의 번영, 주민들의 무사 안녕, 마을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

내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수백 년 역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산신제의 역사를 고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마을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4년부터 산신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산신제 날짜

옛날부터 음력 정월보름 전에 호랑이〔寅〕날을 잡아서 지내왔다. 현재도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산신제 날짜가 정해지면 마을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다. 주민들에게 살생이나 언쟁 등을 삼가고 몸과 행동을 경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산신제 당일에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산신제의 주관자

옛날 용봉산 산신제는 제관과 축관이 주관했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서 축관 한 명과 함께 제관 4명을 선출했다. 제관은 초하루나 초이튿날 선출했다. 제관 중에서 한 명은 제물을 준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산신당 주변을 정리 정돈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 축관이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다.

현재는 산신제 주관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옛날에는 축복받는 일이므로 서로 주관자로 선택받고자 경쟁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주관자로 선정되면 제물 준비와 금기사항 등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아서 대부분 회피하려는 분위기이다.

현재 산신제 주관자는 마을 임원 회의에서 주당 1명, 제관 1명, 축관 1명을 선정한다. 그 해 생기복덕과 삼재(三災)가 없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

특이한 것은 주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며 제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한다. 주당은 집에서 손수 절구통을 사용하여 방아를 찧고 시루떡을 찐다. 축관은 축문 작성과 소지를 준비한다. 제관은 제의에 필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왼새끼 등을 꼬아 산제당에 금줄 치는 역할 등을 한다. 마을이장은 주관자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산신제의 모든 과정을 살펴서 이끌어가고 제물을 구입한다.

금기사항

옛날에는 금기사항을 엄격하게 지켰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엄격한 금기사항이 뒤따랐다. 한겨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고 바깥출입이나 음식 섭취도 조심했다.

부부관계, 상가 출입, 살생 등을 금지하고 절대로 피를 보지 말아야 했다. 심지어 산신제가 끝날 때까지 나무도 하지 않았다. 나무를 하는 중에 상처가 나면 피를 보기 때문이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7일을 연기한 후에 산신제를 지냈다.

마을 공동우물은 며칠 전부터 금줄을 치고 샘제를 지낸 후에 깨끗한 물로 산신제 음식을 장만했다. 마을사람들은 집안의 생활용수를 위해 미리미리 물을 떠갔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의식은 생략하고 있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각각 집 대문 양쪽에 황토를 3무더기씩 6무더기를 뿌려놓고 잡귀의 접근을 막았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았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걸어서 시장으로 갔다. 제물값은 절대로 깎아서도 안 되고 한 번 들어간 가게에서 반드시 사야 했다.

현대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사항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 옛날과 같은 금기사항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각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옛날이나 현재나 산신제 지내는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3년 전에 모 신문사에서 산신제를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옛날부터 주관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해온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했다.

산신제 제물

산신제 제물은 삼색실과(밤·대추·곶감·사과·배), 돼지머리, 밥, 탕, 포 등을 준비한다. 제물은 옛날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옛날처럼 제물구입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금기사항은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산신제 절차

1) 산제당 청소, 전년도 금줄 제거, 축문 작성 등

산신제 전날에 산제당에 올라가 전년도에 쳐놓았던 금줄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산신당에 보관했던 제기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하산한다.

산제당에서 하산한 후에는 주당 집으로 와서 그해에 사용할 금줄을 장만한다. 금줄은 짚으로 왼새끼를 꼬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지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2) 제물 구입

산신제 당일에는 새벽에 홍성장으로 나가 제물을 구입한다. 제물을 고를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가리키며, 값을 깎지 않고 한곳에서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하러 오갈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외진 길을 이용한다.

3) 금줄 치기

제물을 구입한 후에는 아침 일찍 주당과 제관들이 산제당에 올라가 전날 준비한 금줄을 친다.

4) 산신제 음식 준비

산제당에 금줄을 치고 내려온 일행은 주당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대부분 산신제 음식은 여성 주당(주당의 부인)이 담당한다.

떡(백설기)은 주당집에서 직접 시루에 쪄낸다. 통벼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질로 껍질을 벗겨낸 후에 쌀을 물에 서너 시간 불린다. 물에 불린 쌀을 다시 절구통에 넣고 절구질로 가루를 만들어 시루에서 찐다. 떡은 시루 전체를 그대로 산제당으로 지고 올라간다. 또한 돼지머리도 귀나 코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서 익힌다.

5) 축문과 소지 준비하기

여성 주당이 떡을 찌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축관은 축문과 소지를 작성한다. 축문이란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유세차”로 시작하여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등의 육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6) 산제당 올라가기, 제물 진설하기

산신제 준비가 모두 끝나면 오후 5시경에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주당 집에서 제복을 갖춰 입고 산제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진설한다.

7) 산신제 지내기

용봉산 산신제는 술을 대신하여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또한 호랑이 신만을 모시므로 잔은 하나만 놓는다.

모든 제물은 통째로 진설하며 맨 앞줄은 삼색실과를 진설하고, 둘째줄은 돼지머리와 포 등을 진설하고, 마지막 줄에는 백설기를 통째로 진설한다. 제물진설 양쪽에는 촛불을 켜 놓고 제의를 진행한다.

(1) 강신례

제물 진설이 끝나면 맨 먼저 강신례를 진행한다. 강신례란 향을 피워 신을 초청하는 의식이다. 제관은 잔에 청수를 따른 다음, 주변 땅에 세 번 나눠 뿌린다.

(2) 초헌례

강신례가 끝나면 제관은 잔을 올리고 세번 절하는 초헌례를 한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한번 절을 하고 나면 독축을 한다. 독축은 축관이 담당하는데, 이때 다른 제관들은 부복하고 엎드린다.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함으로써 초헌례가 끝난다.

(3) 아헌례

초헌례가 끝나면 주당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를 진행한다. 아헌례도 세 번 절한다.

(4) 종헌례

아헌례가 끝나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올린다.

(5) 소지 올리기

종헌례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제관이 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이어서 주당과 축관이 함께 개인 소지를 올린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인소지를 올렸지만 현재는 마을 전체를 위한 대동소지만 올린다.

(6) 하산하기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전체가 모두 3배를 하고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면 제물을 걷고 제기는 산제당 한곳에 보관한다. 산신제에 사용한 제물 일부는 그 자리에 남겨놓는데, 이는 산에 사는 잡신들도 함께 제물을 먹고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마을로 내려온 일행은 기다리는 주민들과 제물을 나눠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헤어진다.

산신제의 비용

옛날에는 산신제의 경비를 걸립으로 마련했다. 현재는 걸립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산신제 비용은 대략 20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 제물구입 비용 등에 30만원 정도 소요

되며, 주관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20만원씩 지불한다. 주당부부에게 40만원, 축관 1명과 제관 1명에 40만원 등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산신제 이튿날에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단합행사 등에 일정 금액이 소요된다. 홍성문화원에서 일부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산신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하산마을에서는 80여 가구 중에서 20여 가구가 기독교인이다. 또한 외지인들도 20여 가구가 된다. 인구구성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호응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산신제를 이어가는데 큰 갈등이 없다.

옛날에는 용봉산 산신제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였다. 산신제를 잘 지냄으로써 마을이 안전하고 외지에 사는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현재는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산신제를 중단할 수 없으며, 마을의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 주민들은 용봉산 산신제를 축제형식으로 승화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앞으로 산신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산신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하산마을 주변에는 불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마을 앞에 용봉천(싸래기내)에 관한 것이다.

옛날 용봉산에는 골짜기마다 큰 절이 있었는데, 절에서 끼니때마다 쌀을 씻는 뜨물과 싸라기가 마을 앞 용봉천까지 흘러 내려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용봉천을 '싸래기내'라고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충청도 모든 쥐들이 용봉산 아래 싸라기내에 지천으로 쌓인 싸라기를 먹으러 모여들었다. 충청도 고양이들도 갑자기 사라진 쥐들의 행방을 찾아내어 싸라기내로 모여들었다.

쥐들은 고양이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용봉산 아래 절로 숨어들었다. 살

생을 금지하는 부처님이 계신 절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충청도 고양이들은 용봉산 절로 몸을 숨긴 쥐들을 공격할 수 없었다. 싸라기내 건너편에 모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세월이 흐른 후에 충청도 고양이들이 모여들었던 곳은 아담한 솔밭으로 변했다. 이 솔밭을 '쥐산'이라고 부른다. 싸라기내 건너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충청도 고양이들이 모여있던 곳은 바위로 변했다. 바위 모습이 고양이를 닮아서 '고바위'라고 불렀고, 바위 앞에 있는 방죽은 '고방죽'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 경리정리를 하며 논 가운데 있던 방죽에 바위를 넣고 묻어버렸다. 그 바람에 고바위와 고방죽은 사라졌다. 싸라기내 건너편 용봉산 아래 쥐산만이 남아서 옛 전설을 증언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홍성의 마을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하산마을 산신제』, 홍성문화원, 2015.)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Ⅱ

정 상 준 (1962년생)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미륵제





광경동 미륵불 모습

명칭

광경동 미륵제

모시는 신

미륵불

미륵불의 위치

광경동마을은 홍성읍 5일 정기시장 안에 있는 마을이다. 광경동이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 전 이곳에 광경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록에는 광경사라는 절이 나오지 않는다. 옛날 미륵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이 사찰이 광경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륵불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 북서쪽 논 가운데에 있었는데,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현재 미륵불은 광경동 어린이 놀이터 안에 세워져 있다.

미륵제를 지내는 제단의 형태

미륵불 앞으로는 넓은 광장이 있고, 공원 전체는 나무 울타리로 되어있다. 미륵불 바로 아래에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직육면체의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미륵제의 유래와 목적

광경동 미륵불은 원래 시장 외곽 논둑에 서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홍성전통시장 외곽이 논이었다. 어느 때인가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미륵불을 발견하고 논 옆에 세워놓았다.

농부는 미륵불을 신성하게 대하며 관리했다. 미륵불의 몸에 짚으로 엮은 옷을 입히고 신성하게 대하며 위했다.

당시 농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는데 미륵불을 위한 뒤로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로 미륵불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신앙 대상물로 신성시 여겼다.

이후 홍성전통시장 주변을 시장으로 편입시키고 개발하면서 미륵불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미륵불을 방치한 이후로 홍성전통시장에 큰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시장사람들은 미륵불을 방치하여 재앙이 계속된다고 생각했다. 미륵불을 대교리 4구 광경동마을 어린이놀이터에 옮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미륵불이 광경동 주민들의 신앙 대상물이었다. 이 미륵제를 통해서 마을과 주민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륵제를 지내왔다.

미륵제 날짜

음력 정월 14일 12시 경부터 지낸다.

미륵제의 주관자

미륵제를 처음 지낼 당시에는 생기복덕을 보아서 정갈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출하여 지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륵제에 관한 관심이 식어가자, 마을 원로 김원남씨가 주관하여 지내왔다. 1999부터는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 2023년 현재는 마을 이장이 주관하며 부녀회 등이 동참한다.

미륵제의 금기사항

옛날에는 금기사항이 매우 엄격했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삿날까지 부정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다. 음식을 옮길 때도 입을 봉하고 운반했다. 현재는 금기사항

은 없고 각자 정갈한 몸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한다.

미륵제의 제물과 절차

제물은 시루떡, 삼색실과, 사과, 배, 포, 술, 밥 등을 준비한다. 옛날에는 법사 를 불러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축원을 한 후 소지를 올렸다. 이후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여서 원하는 사람들만 소지를 올려주었다.

1999년부터는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하면서 옛날처럼 법사를 불러 축원을 하고 성대하게 지냈다. 1999년 미륵제를 지낸 순서는, 마을 부녀회 풍물패들의 지신밟기, 법사의 축원, 재배, 축문과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요즘에는 법사의 축원 등은 생략하고 있다.

요즘은 마을 번영회 임원들이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미륵제 전날 부녀회에서 음식과 반찬을 준비한다. 이장은 제물을 준비하는데 일반 제사와 비슷하다. 돼지머리, 삼색실과, 떡, 막걸리 등을 준비한다.

당일에는 이장이 미륵불 앞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부녀회 풍물단이 풍물을 치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후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재배하고 참석자들도 개인 의사에 따라 재배한다. 재배가 모두 끝나면 풍물단이 다시 주변을 돌며 풍물을 친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된다. 이때는 마을주민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

미륵제의 비용과 결산

옛날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립했다. 점점 참여자가 줄어들면서 동네 비용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했다. 1999년에는 번영회에서 주관하며 비용을 충당했다.

현재도 마을기금으로 미륵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홍성문화원에서 보조해주는 비용도 미륵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륵제를 대하는 신앙 태도

옛날에는 미륵불을 상당히 신성시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륵불에 대한 신앙심도 많이 식었고 아무렇게나 방치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미륵불을 방치하고 나서 전통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미륵불이 노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미륵제를 지내기 시작했으므로 신앙적인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미륵제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까지만 해도 뜻 있는 주민 몇 명에 의해서 미륵제의 명맥만 간신히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지내면서 미륵제를 활성화 했다.

하지만 미륵제에 대한 신앙심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미륵제의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장상인들의 유대와 단합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륵제와 관련한 이야기나 전설

이 미륵불은 광경사라는 절에 있던 석불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광경사가 폐사되면서, 이 미륵불도 땅속에 묻히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하지만 미륵불의 조각수법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므로 민간에서 숭배하던 미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백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미륵불을, 한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하였다. 그 후로 미륵불을 논 옆에 세워두고 신성시 하며 위하게 되었다. 마침 농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미륵불을 위한 뒤로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미륵불 옆에 세워놓은 안내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대교리 석불입상(石佛立像)

문화재자료 160호

소재지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광경사지 미륵불이라고 불리는 석불이다. 납작하고 길다란 자연 석재를 이용하여 얕은 부조와 선각으로 불상을 새겼다. 얼굴은 눈 · 코 · 입을 낮게 부조로 표현하고 윤곽을 선으로 그렸는데 이마 가운데 백호(白毫)가 있고 머리에는 돌기한 보주(寶珠)를 새겼다. 몸체에는 통견(通肩)의 납의를 가슴에서 발까지 U자형으로 붙이고 왼손을 손바닥이 보이

게 쳐들고 있어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맺고 있다. 앞면의 조각 이외에는 아무 손질의 흔적이 없고 주먹코와 두툼한 입술, 길다란 눈 등이 매우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조각 수법이 거칠고 비례감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조성된 작품인 듯하다. 대교리 광경사지 당간지주와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광경사지 석불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홍성의 마을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김 영 팔 (1957년생)
홍성군 금마면 가산 1길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가야마을 사천나무 마을제





사천나무



느티나무

마을제 명칭

사천나무 마을제

마을제에서 모시는 신

사천나무

마을제 제단의 위치

가야마을 동쪽에 수령 500년 정도 된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사천나무는 가야마을의 상징이며 신목(神木)으로 보호받고 있다. 사천나무 바로 아래에서 제사상 위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의를 진행한다.

한편 마을 안쪽 구석골에도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느티나무와 사천나무는 부부나무로 통한다. 사천나무는 암나무이고 느티나무는 수나무라고 전해온다. 사천나무 아래에서 제의를 마치면, 마을 이장과 총무는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느티나무 앞으로 가서 간단한 술잔을 올린다.

마을제 제단의 형태

사천나무 아래에서 제의를 지낸다. 특별한 제단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다. 사천나무 뿌리 부근에 넓은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고 제의를 진행한다. 제

의 당일에는 사천나무 주변에 텐트를 쳐놓고 마을주민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다.

마을제의 유래와 목적

사천나무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신성하게 보호되고 있다. 옛날에는 개인들이 사천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드려왔다.

가야마을은 광산 김씨의 집성촌으로 6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을에 옛날부터 지내왔던 장승제 등이 중단되어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천나무 마을제를 마을 전체 제의로 지내자고 제안했었다. 처음에는 젊은층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어른들 대부분이 찬성하면서 마을전체 제의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제로 승화시켰고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단합이 목적이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의 힘으로 마을 전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또한 마을주민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동시에 주민 전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지내고 있다.

마을제의 날짜

2009년에 처음 제의를 시작할 때는 칠월 칠석날 지냈다. 이 당시에는 김용팔 이장 혼자 사비로 마을제를 지낼 때였다. 일부에서는 칠월칠석날이 더워서 마을제를 지내기 어렵다고 했다.

2019년에 홍성문화원에서 사천나무 마을제 비용을 보조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에 있는 성불사 절에 가서 날짜를 문의했다. 음력 2월 1일이 좋다고 하여 칠월 칠석에서 2월 1일로 옮겼다.

2023년에는 음력 2월 1일이 너무 추워서 무척 고생했다. 일부에서 따뜻한 날로 다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생겼다. 앞으로 마을 총회 때에 사천나무 마을제의 날짜를 또 다시 바꿔야 할지 의논해 볼 생각이다.

마을제의 주관자

2009년에 사천나무 마을제를 지낼 당시에는 마을 이장 혼자서 제의를 주관했다. 이 당

시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기보다는 마을이장 개인 자격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마을 기금을 사용하여 마을 전체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제 형식도 제관들이 제복을 입고 일반적인 제의 격식을 갖춰서 지내고 있다. 2019년부터 제관들의 제복을 7벌 준비했다.

현재 마을이장이 전체 행사 추진을 주관하지만 제의 진행은 제관을 정하여 지내고 있다. 금마면장, 마을 노인회장, 마을의 제일 연장자, 제관 3명, 이장 등 7명이 진행한다.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이장 혼자서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다만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날짜를 연기한다. 2018년에도 칠 월 칠석날 예정했는데 마을에서 개를 잡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을 위해 제를 지내는데 부정한 일이 생겼으므로 연기했다.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일반적인 제의 수준으로 마련한다. 돼지머리, 실을 감은 포, 삼색실과, 전, 포, 떡 등을 준비한다.

마을 제의로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마을 이장과 총무,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제물과 음식을 준비했다. 현재는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하는데, 마을주민과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한다.

제의 진행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 초헌관은 마을이장, 아헌관은 금마면장, 종헌관은 마을의 제일 연장자, 축관은 진행자가 담당한다.

제의에 참여하는 제관 7명은 마을에서 준비한 제복을 입는다. 제의 절차가 끝나면 참석한 손님이나 마을주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사천나무 마을제가 끝나면 구석골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도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마을이장과 총무가 간단한 제물을 차려서 느티나무 아래에 가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내려온다. 사천나무와 느티나무는 부부나무로 전해오므로 양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제의가 끝나면 참석자들 전체가 마을회관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현재는 사천나무 주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식사대접을 한다.

비용과 결산

마을 회의에서 전체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다. 그동안 찬조 등으로 제의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모아놓았다가 쉼터 조성에 사용하기도 했다.

마을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 태도

사천나무 마을제를 신성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많다. 마을 전체 행사로 진행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추수가 끝난 후에 사천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드리는 주민들이 있었다. 주로 나이가 연로한 어른 들은 사천나무와 마을제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옛날부터 마을 주민들은 사천나무의 가지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꺾지 않았다. 사천나무 가지가 바람 등으로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면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한쪽에 잘 쌓아놓고 있다.

마을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김용팔 이장은 가야마을의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몇몇 마을주민이 참여했었다. 2019년부터 홍성문화원에서 마을제 비용을 보조하면서 마을 전체 행사로 격상시켰다.

앞으로도 사천나무 마을제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모습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확대 발전시킬 생각이다. 외부인 초청을 확대하고 마을의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가야마을에는 역사를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장승제를 지내왔다. 옛날에 마을에 소 전염병이 많이 나돌아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승제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온다. 장승제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고, 현재는 장승제를 대신하여 사천나무 마을제로 전통문화가 복원된 셈이다.

사천나무 마을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전설

가야마을의 사천나무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다. 옛날부터 사천나무는 신성한 신목으로 보호받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 중에는, 봄에 사천나무 잎이 피는 형태에 따라서 한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다고 한다. 잎이 전체적으로 활기차게 피어오르면 그해는 풍년이고, 한쪽

부터 시들시들 피어오르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다.

사천나무는 함부로 건드리면 해를 입는다고 전해오므로 함부로 나뭇가지를 꺾지 않는다. 마을제를 지낼 때도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한쪽에 정성껏 쌓아놓는다.

실제로 마을 사람 중에서 사천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오랫동안 고생한 주민이 있다. 주변에서 죽은 가지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미신이라고 듣지 않았다.

그 주민은 죽은 가지를 베어내고 20여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하게 아파서 일도 못할 정도였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사천나무를 더욱 신성하게 생각하며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가야마을에는 고이바위 전설도 재미있게 전해온다. 고이바위는 고양이바위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마을 한복판에 작은 모퉁이 하나가 있는데, 이곳 이름이 '쥐살미'이다. 쥐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실제로 쥐가 많이 살았던 것보다는 풍수지리적으로 붙여진 이름 같다.

쥐살미 모퉁이에는 야트막한 바위가 병풍처럼 서있는데 '삼가석(三佳石)'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글씨라고 한다. 전하는 구전에 의하면 세 개의 아름다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쥐살미 들판 앞으로 빤히 건너다보이는 밭둑에는 자그마한 바위 두개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이 바위 이름이 '고이바위'이다.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형상이다. 가야마을 들판을 가운데 두고서 한쪽에는 쥐가 들끓고 있고, 마주보이는 쪽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쥐 떼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가야마을 들판에서 수확하는 곡식들을 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고양이 두 마리가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옛날에 고이바위가 있는 밭은 주변 땅값보다 더 비쌌다고 한다. 밭주인의 설명에 의하면, 옛날에 집안어른이 밭을 구입할 당시에 고이바위 때문에 주변 땅 시세보다도 더 비싼 값을 주었다고 한다.

옛날 가야마을은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길목이었다. 가야마을이 아름다워서 하룻밤 묵어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곤 했다. 특히 삼가석이 있는 자리에서 사

천나무 방향으로 활을 쏘며 쉬어가던 장소라는 얘기도 전해온다.

(참고문헌 : 『홍성의 마을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Ⅱ

맹 영 일 (1963년생)
홍성군 결성면 성호길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오방제





오방제각(중당) 모습

제의 명칭

오방제

모시는 신

오방신(산신과 해신)

오방제를 지내는 당집의 위치

원성호 마을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동산이 하나 있다. 이 동산 상봉에 '중당' 또는 '오방제각(五方祭閣)'이라고 부르는 신당이 있다. 오방제각 안에서 오방제를 지낸다.

오방제각에서 동쪽으로 건너다보이는 왕자산 기슭에 '상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다. 상당은 건물이 아니고 거대한 자연석이다. 마을 맨 아래쪽으로 바다와 맞닿은 포구 언덕에 '하당'이 있다. 옛날 하당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없어졌다. 하당터와 오래된 소나무와 팽나무가 한 그루씩 서있다. 현재 상당과 하당의 제사는 생략하고 있다.

오방제 제단의 형태

원성호 마을의 오방제단 형태는 상당, 중당, 하당의 3중 구조이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왕자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가 상당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원래부터 건물은 없고 거대한 자연석으로 되어 있으며, 바위 앞으로 제사를 지내기 편하도록 5평 정도의 평평한 터가 있다.

오방제의 중심 격인 중당은 마을 뒤쪽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오방제각'으로 부른다.

오방제각은 옛날부터 기와집 형태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허물어지며 중간중간 보수를 해왔다. 옛 건물은 1995년에 홍수로 인해 완전히 파괴 되었고 1997년에 군비를 지원받아 17평 규모의 기와 건물로 다시 지었다.

오방제의 '오방'이란, 동·서·남·북·중앙을 의미한다. 건물 내부 신단 앞면 중앙에는 오방신을 상징하는 그림과 위패가 있고, 좌우로는 12지신상 그림이 있다. 좌우 벽면에는 오방제각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하당은 옛날에 지은 초가집 건물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번 개축하며 기와를 얹었다. 현재는 하당도 비바람에 허물어져서 없어졌고 건물터와 신목으로 통하는 커다란 소나무와 팽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하당 안에는 임경업 장군 그림이 있었으나 없어졌다.

오방제의 유래와 목적

원성호마을에서 오방제가 시작된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구술자의 증언에 의하면, 원성호마을에는 신창 맹씨와 금녕 김씨가 살아온 집성촌이라고 한다. 두 집안의 화합 차원과 마을 안녕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오방제의 역사는 하당과 중당 건물을 중수한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300여 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증거로 하당건물에 전해오는 기록이 있다.

오방제의 목적은 신창 맹씨와 금녕 김씨의 화합 이외에도, 바닷길의 안전과 풍어를 빌기 위한 목적도 컸을 것이다. 원래 바닷가 마을이므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마을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으며 마을 앞 바다가 사라졌으므로 풍어와는 큰 관련이 없어졌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마을의 단합과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오방제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오방제 날짜

원성호 마을의 오방제는 음력 섣달그믐날에 지낸다. 섣달그믐날 오후에 상당과 하당에서 지내고 자정이 되면 중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다. 중당에서 지내는 제사는 새해 첫날 0시부터 1시 사이가 된다.

'星湖神當(下當) 상량문 (의역본)'

유세차 1671년(음력 3월 26일) 충청도 결성현 성호리 한량 신계복은 □하고 엎드려 감히 고하나이다. 신당의 신을 모시고자 묘를 세우고 신상을 □하여 받들어 왔습니다. 마을이 열리면서 향화를 년년히 올리며 제사 지내오기 몇 수백년이 지내도록 □히 강림하시와 성호 마을을 각별히 지켜 주시었습니다.

이제 엎드려 부락 수호신에게 조석으로 간절히 비옵나니, 微誠(미성;작은 정성)에 가합하시는대로 여러 소원을 청허하여 주시와 성호마을이 더욱 부강케 하여 주옵소서.

□어포에는 긴 고래와 큰 상어가 뛰어 놀고, 중선과 소선이 언제나 만재하도록 수시로 언제나 은혜로운 바람과 감사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비는대로 모든 가정마다 집안 식구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다만 한스럽기는 옛 기와와 묵은 벽이 허물어져 비가 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로와 기와를 개수하고 동량을 새로하고 온돌을 개량하고 똘고랑을 치며 날짜도 가리어 담장도 말끔히 개수하였습니다.

-----중략-----

기리 제향을 올리겠으니 흔쾌히 酬應(수응;요구에 응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격양가도 즐겁게 融融(융융;화합)히도 울리누나. 이고장의 복록이로다. 300여호가 □한 이고장 배의 북소리도 둥둥 수천리 가도록 성대히 울리니,파도여 언제나 □하소서.

끝으로 미성이나마 진설물을 흠향하시기 바라나이다.

1671년 3월 26일

홍성군 결성현 성호리　　신 계 복

오방제 주관자

원래 원성호 마을 오방제는 마을에서 뽑힌 제관이 주관했다. 제관 1명, 축관 1명, 화부 3명을 뽑았다. 제관은 보름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서 뽑는데, 평소에 행실과 가정생활과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선정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제관 선정 절차는 생략되고 있다. 마을 이장이 제관으로 참여하며 제의를 주관한다. 제관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없는 관계로 이장이 주관하여 지내고, 한

때는 1반부터 4반까지 교대로 주관하여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마을이장과 4개반 반장, 노인회장 등이 주관하여 지낸다. 이장이 제관을 맡고 축관, 화부, 진행자 등 3명이 지낸다.

금기사항

옛날에는 오방제 제관으로 뽑히면 한 달 전부터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했다. 부정한 것이나 피를 보면 안 되고 심지어 나무도 하지 않았다. 나무를 하다가 다치면 피를 보기 때문이었다. 보름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려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고 당사자들도 외부 출입을 삼갔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금기사항은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제관과 화부의 집에는 금줄을 띄우고 초상집에 가지 않는 등의 금기사항을 지키고 있다.

오방제 제물과 절차

제물은 밤, 대추, 곶감, 조기, 김, 탕, 술 등이다. 특히 밤과 대추와 곶감은 한 그릇에 같이 담아서 진설한다.

제물은 상당과 하당에는 한 접시씩만 가지고 간다. 그러나 중당인 오방제각 에서 제를 올릴 때는 다섯 접시를 준비한다. 옛날에는 당주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모든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경로당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옛날과 오늘날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옛날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제일 먼저 상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섣달그믐날 4시경에 당주집에서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상당으로 올라간다. 제관과 제물을 지게에 진 화부가 함께 올라가서 상당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관이 절을 하며 축원을 하고 대동 소지를 한 장 올리고 음복 후에 하산한다.

상당에서 내려온 일행은 당주 집에서 차린 음식을 가지고 다시 하당으로 내려간다. 하당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당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면 날이 어두워진다. 당주 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에 오방제각에 올라가 제사 준비를 한다.

화부는 섣달그믐날 점심을 먹고 미리 오방제각에 올라간다. 중당에 미리 올라가서 당집 청소를 하고 솥을 걸고 음식 만들 준비를 한다. 왕자산 절터 옹달샘에서 허드렛물로 사용할 물도 길어다 놓는다.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될 물은 반드시 오방제각 뒤편에 있는 왕자산 절터 옹달샘에서 길어왔다. 이 옹달샘은 전날 미리 올라가서 깨끗이 청소를 해 놓는다. 물을 길어올 때는 장군이라고 부르는 물독을 사용한다.

화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섣달그믐날 밤 열두 시가 가까워지면 밥을 짓고 국을 끓인다. 또한 제사에 사용하는 고기는 삶지 않고 반드시 석쇠에 구워서 상에 올린다.

제사음식을 장만하면서 소변을 보려면 성기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대추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한다. 대·소변을 보고 났을 때는 반드시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음식을 만들 때도 창호지로 입마개를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을의 동서남북과 중앙에는 오방기를 꽂아놓고 잡귀의 접근을 막는다.

화부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축관과 제관은 열두시 경에 오방제각으로 올라간다. 오방제각에서 화부들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제관들은 읍한 자세로 제단 앞에 앉아 있는다.

제사는 섣달그믐날 열두시부터 정월초하루 한시 사이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면 새벽이 된다.

옛날에는 오방제를 지내는 날 샘제도 같이 지냈다. 마을에는 공동우물이 여섯 개가 있었다. 낮에 우물을 깨끗이 퍼내고 주변에는 황토를 뿌려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우물에는 막대기를 걸쳐놓고 밀대 방석으로 덮어 놓는다. 이는 샘제를 지낸다는 표시였다.

오방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들이 중당으로 올라가면 곧 이어서 샘제를 지냈 다. 샘제는 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지냈다. 샘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무우 1개, 김 1첩, 쌀 1되를 준비했다.

오늘날에는 오방제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우선 제관을 선출하는 과정도 생략되었고 제관은 마을 임원들이 담당한다. 상당과 하당 제사도 생략되고 샘제도 생략되었다.

제사음식도 당주집에서 준비하지 않고 마을 경로당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담당한다. 밤

에 중당에서 지내는 제물도 미리 경로당에서 준비하여 올라간다. 중당에서는 화부들이 밥과 국만 끓인다.

특이한 것은 중당에서 준비하는 밥과 국에 사용되는 물이다. 옛날에는 왕자산 절터 옹달샘에서 길어왔지만, 현재는 광천 오서산 약수터에서 길어온다. 현재 왕자산 절터 옹달샘을 물이 말라서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제사를 정결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은 오서산 중턱 약수터에서 길어온다. 이는 옛날부터 오방제를 정결하게 지내왔던 정신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오방제의 비용과 결산

옛날에는 성호마을에 공동재산인 전답 4,000평이 있었다. 이 전답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제사비용을 충당했다.

이 전답은 대개 부정이 끼지 않는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잦고 여자의 임신과 생리 등으로 부정이 많이 끼기 때문에 피했다. 오방제를 지낼 때는 마을 전답을 관리하는 집에서 당주를 담당하고 제물을 차렸다.

마을 전답은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에 매각했다. 마을에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오방제 기금은 결성농협과 홍성문화원의 보조금과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비용의 결산은 마을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한다.

마을사람들의 신앙태도

원성호 마을 사람들의 오방제에 대한 믿음은 대단하다. 오방제를 정성껏 지 내는 관계로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별 탈 없이 무사하다고 믿고 있다.

옛날에 마마라고 하는 돌림병이 나돌 때, 다른 마을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그 화를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다. 6·25 한국전쟁 때에도 원성호 마을은 큰 탈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다. 또한 젊은 사람이 비명횡사한 경우도 없었다. 그것은 오방제를 지성으로 지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방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옛날부터 결성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던 중심지였다.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상교통이 편리하여 성호리는 교통과 해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로 성호리 원성호마을에는 해산물을 팔고사는 장이 설 정도로 활기찼다.

현재 원성호 마을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다였던 마을 앞바다는 홍·보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육지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오방제도 변화를 겪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하지만 원성호마을은 오방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옛날에 비해 형식면에서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 정신만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성호 마을은 30여년 전에 주민이 합심하여 파손된 오방제각을 복원했다. 이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를 잘 보전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오방제를 이어가며 지역의 큰 문화행사로 승화시킬 생각도 하고 있다.

오방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나 전설

오방제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해오는 얘기들도 많다.

중당은 동네 뒷산에 위치해 있으므로 한겨울 바닷바람을 정면에서 받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중당에 올라가면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고 불을 피울 때면 바람이 잠잠해진다. 또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 먹는 젓가락 소리도 들렸다고 한다.

하당 건물은 한 때 불이 난 적도 있었다. 100여년 전에 하당에서 제사를 지 내는데 모닥불 옆에 있던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났었다. 다행히도 신당은 무사했으나 신당 앞에 신목으로 심어 놓은 소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말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듬해 봄에 소나무의 가운데 뿌리 사이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나서 회초리만한 크기로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죽은 나무가 다시 소생했다고 신기해 했다.

지금 그 소나무는 양 갈래로 갈라져서 우람한 모습으로 하당터에 우뚝 서 있다. 지금은 신목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외에도 6·25 한국전쟁 때에도 전쟁터에 나가 전사한 젊은이도 없었다. 마을에 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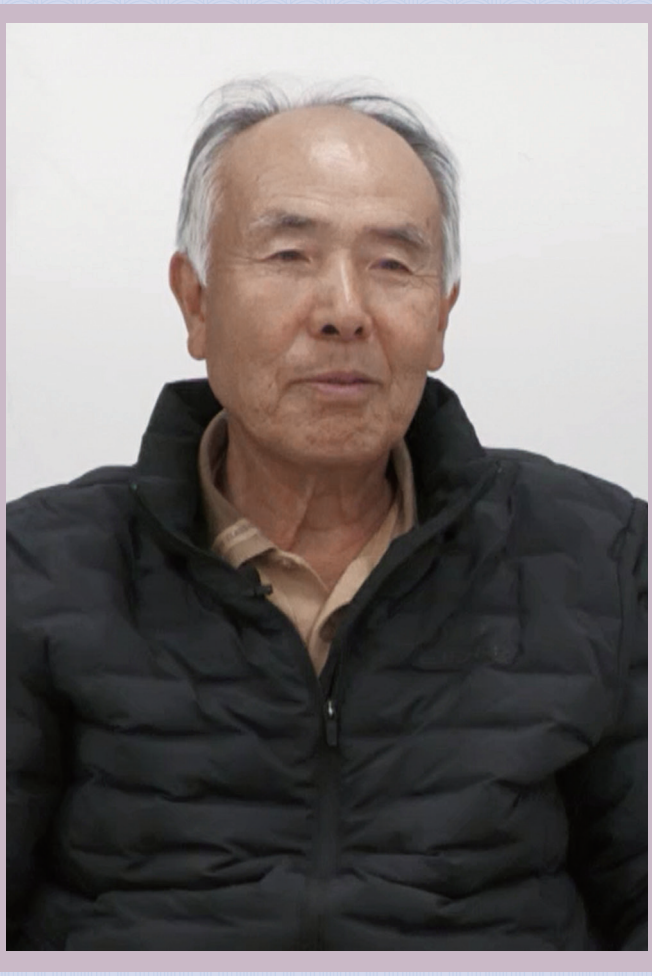
병이 돌 때도 무사했고 주민들이 비명횡사한 일도 없었다. 이는 오방제를 정성껏 지낸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Ⅱ

김 영 모 (1948년생)
홍성군 구항면 구항로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 선돌·들돌제





하대마을 선돌과 들돌

제의 명칭

선돌·들돌제

모시는 신

선돌·들돌

선돌·들돌의 위치

원래 선돌은 마을 입구 느티나무에서 30m쯤 떨어진 마을 입구 길옆에 있었다. 들돌은 선돌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 100m 쯤 위에 있었다. 2020년에 선돌과 들돌을 들돌 부근으로 옮겨서 한곳에 합쳐놓았다.

제단의 형태

선돌은 높이 약 1.2미터, 밑 둘레가 약 2미터, 위쪽 둘레는 약 1미터 쯤 되는 돌이다. 선돌 앞에는 제물을 진설하는 작은 제단이 있었다.

들돌은 힘센 장정이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 들돌은 시멘트 받침대를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았었다.

2020년에 들돌 주변으로 50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한데 합쳐놓고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았다. 선돌과 들돌이 놓여있는 바로 옆에는 정자도 지어놓았다.

선돌 · 들돌제의 유래와 목적

마을에 있는 선돌과 들돌은 수백 년이 되었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선돌과 들돌제의 유래가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옛날 마을에 힘이 센 장사 한 명이 살았다고 한다. 장사는 전염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완쾌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병을 앓고 난 후에 자신의 힘이 예전처럼 그대로 남아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장사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선돌을 들어 올렸다.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돌을 가슴까지 들어 올렸다. 그런데 허리를 펴고 힘을 주어 온몸을 일으키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장사의 길게 늘어뜨린 댕기머리가 신고있는 나막신 뒷꿈치에 밟히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진 것이다. 그바람에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돌에 깔리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장사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선돌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구연자가 들려주는 선돌·들돌제의 유래는 위 내용과 약간 다르다. 옛날 마을의 장사가 처녀 앞에서 힘자랑을 하기 위해 선돌을 들어올렸다. 그런데 길게 늘어뜨린 댕기가 나막신에 밟히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며 돌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선돌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유래담이다.

선돌 · 들돌제의 날짜

음력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지낸다.

옛날에는 낮시간에 지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미신이라고 금지하면서 새벽시간으로 옮겨서 몰래 지냈다고 한다.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2022년까지 새벽 시간에 지내왔다. 2023년부터는 새벽 시간이 너무 춥고 어려워서 낮 10시로 시간을 옮겼다.

선돌 · 들돌제의 주관자

제관 1명, 집사 1명을 선정하여 지낸다. 제관과 집사는 보름 전에 정한다.

금기사항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피를 보지 않고 상갓집 출입도 금지한다.

선돌·들돌제의 제물과 절차

마을회관, 선돌·들돌, 느티나무 앞 등 세 곳의 제물을 각각 준비한다. 마을회관 제물은 백무리떡, 탕, 술을 준비한다. 선돌과 들돌 제물은 생밤, 백무리떡, 탕을 준비한다. 백무리떡은 회관에서 지낸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느티나무 앞에서는 시루떡, 돼지머리, 술을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보름 전에 제관과 집사를 선정한다. 음식은 제사 전날 회관 부엌에서 여자 혼자 준비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 용대기를 걸어놓는다. 하대마을 용대기는 홍성군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되었다. 광서 8년(1882년)에 제작되었으며, 현재는 심하게 훼손되어 홍주성역사관에 기탁·보존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사용하는 용대기는 원본 모습을 모사한 것이다.

제의 절차는 낮 10시에 맨 먼저 회관에서 지낸다. 그다음에는 선돌과 들돌 앞으로 가서 지내고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앞에서 지낸다.

느티나무 제사는 2019년부터 처음 시작했다. 홍성문화원에서 제사 비용을 보조해주면서 기왕이면 느티나무제도 함께 지내자는 의견이 많아서 시작했다.

모든 제의 절차가 끝나면 점심시간 무렵이 된다. 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으로 제사가 끝났다고 알리며 회관에 나와 점심식사를 하라고 전한다.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흥겨운 마을잔치가 시작된다. 점심식사가 끝나면 남녀가 따로 취미대로 삼삼오오 모여서 여흥을 즐긴다. 주로 할머니들은 화투를 치고 할아버지들은 윷놀이로 시간을 보낸다.

비용과 결산

선돌·들돌제의 비용은 홍성문화원의 보조와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비용 사용 내용은 마을회의 때에 자연스럽게 결산한다.

선돌·들돌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신앙태도

하대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심한 감시 속에서도 새벽시간으로 옮겨서 지내왔다. 그만큼 선돌·들돌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확고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새벽시간에 몰래 지내왔던 전통은 2023년부터 낮시간으로 옮겼다. 이는 옛날의 제의 시간을 복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는 서로 떨어져 있던 선돌과 들돌을 한곳으로 합쳐놓았다. 원래 선돌은 신랑이고 들돌은 신부라고 전해왔다.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곳에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이다.

이곳에 마을기금으로 주변 땅 50여 평을 구입하고 팔각정자도 세워놓았다. 선돌과 들돌이 함께 합친 곳은 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쳐놓았다.

하대마을은 선돌·들돌제가 후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화합 차원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선돌 · 들돌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전설

하대마을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많이 전해온다. 먼저 마을 입구에 서있는 느티나무와 관련된 전설이다.

하대마을은 옛시절 결성현 관할지역이었다. 결성현감이 주민들의 평안하고 오래 살기를 희망하며 느티나무 일곱 그루를 이곳에 심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고사하고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

오래전에 무슨 이유인지 마을에서 남아있는 한 그루를 베어내고자 했다. 느티나무를 베어내려고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빨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톱질을 멈추고 느티나무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다.

이때부터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봄에 느티나무의 잎이 전체적으로 무성하게 피어오르면 풍년이 들고, 시들시들 잎이 피어나면 그해는 흉년을 예고한다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선돌과 들돌 중에서 선돌과 관련한 내용은 앞의 선돌·들돌제의 유래에서 밝힌 바 있다. 들돌과 관련한 전설도 재미있게 전해오고 있다.

옛날 하대마을과 이웃한 오봉마을에 각각 힘센 장사가 살았다고 한다. 양쪽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들돌을 빼앗기 위해 심한 경쟁을 하곤 했다. 선돌을 자기 마을로 가져와야 그해 전염병이나 액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해부터인가 하대마을 장사가 들돌을 빼앗아 온 후로 영영 이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오봉마을에는 들돌을 옮겨갈 만한 장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제보자 김영모 이장의 들돌 관련 구연 내용은 위와 조금 달랐다.

옛날 하대마을에는 매년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생활이 윤택하고 번창해 나갔다. 이는 하대마을에 들돌이 있어서 보살펴주기 때문이었다. 이를 질투한 이웃 오봉마을에서 들돌을 몰래 지게에 지고 훔쳐갔다.

들돌을 훔쳐간 오봉마을은 마을이 잘되고 번창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을에 액운만 생겨나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들돌을 몰래 훔쳐가서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후로 들돌은 하대마을에서 대대로 간직하게 되었다.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이 완 순 (1952년생)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 느티나무 서낭제






발현마을 느티나무와 마을제 모습(이완순 발현이장 제공)

제의 명칭

느티나무 서낭제

모시는 신

느티나무

느티나무와 서낭당의 위치

발현마을은 보개산 서쪽 기슭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뒤쪽으로는 보개산 줄기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마을 중심은 옛시절 홍성과 결성으로 통하던 중요 길목이었다.

마을 뒤쪽 고갯마루에 서낭당과 수령 400여 년의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곳에서 느티나무 서낭제를 지내고 있다.

제단의 형태

마을 뒤쪽 고갯마루는 옛날 홍성과 결성으로 통하던 중요 길목이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했다. 고갯마루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작은 돌을 한두 개씩 올려놓고 소원을 빌던 서낭당이 있었다. 서낭당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산을 우회하는 신작로가 생기면서 고갯길은 사람들

의 통행이 끊어졌고 옛길도 흔적만 남았다. 현재는 서낭당 돌무더기도 사라지고 느티나무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느티나무 서낭제는 옛날 서낭당 자리였던 느티나무 앞에서 지내고 있다. 이곳에 둥글넓적한 바위가 하나 놓여있는데 위쪽은 제물을 진설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다듬은 모습이다. 바위 주변은 마당처럼 평평하게 정돈되어 있으므로 제관들이 서서 제의를 진행할 수 있다.

느티나무 서낭제의 유래와 목적

옛날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의 영험함으로 개인과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가 컸다. 현재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목적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마을 단합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느티나무 서낭제의 날짜

음력 1월 14일 오전 10시에 지낸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면 점심시간이 되며 마을잔치가 시작된다. 저녁에는 달집태우기를 하고 정월 대보름날까지 윷놀이 등 주민화합과 잔치 분위기가 이어진다.

느티나무 서낭제의 주관자

옛날에는 생기복덕을 보아서 제관을 선출했다. 요즘은 제관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마을 임원들이 제관으로 참여한다. 제관은 마을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맡는다. 때로는 새로 부임한 구항면장이 제관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금기사항

옛날과 같은 엄격한 금기사항은 많이 완화되었다. 제관으로 참여하는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언행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제사를 지내는 전날은 부정하거나 피를 보지 않는 등 금기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목욕은 필수이다.

느티나무 서낭제의 제물과 절차

느티나무 서낭제의 제물은 떡 한 시루, 돼지머리, 과일 다섯 가지, 실을 감은 북어, 쌀 등이다. 혹시 제물로 사용한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제사 지내는 떡과 주민들이 나눠 먹는 떡은 별도로 마련한다.

느티나무 서낭제의 절차는 하루 전날 왼새끼를 꼬아 오색천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왼새끼는 어른 양팔로 일곱 발 반(대략 7~8m) 정도 길이로 준비한다. 왼새끼는 느티나무 둘레를 세 바퀴 돌며 감는다.

제사 당일 제관들은 제복을 갖춰 입고 제물을 운반하여 느티나무 아래로 올라간다. 제물을 진설하여 제의를 진행하는데, 초헌관은 이장, 아헌관은 노인회장, 종헌관은 전임 노인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맡는다.

제관은 해마다 형편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새로 부임한 구항면장이 초대되어 초헌관을 맡기도 한다.

저녁에는 옛 전통을 되살려 마을 중앙 논 가운데에 달집을 만들어 놓고 달집태우기를 한다. 마을에 많이 자라는 대나무는 달집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된다. 달집에는 주민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문을 주렁주렁 달아놓는다. 둥근달이 두둥실 떠오르면 달집을 태우며 새해 소원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구항면 소방대원들이 대기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비용과 결산

느티나무 서낭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성문화원의 보조금, 참석자들의 찬조금, 마을기금을 합쳐서 사용한다. 제의에 들어오는 찬조금은 대략 삼백만 원에서 사백만 원 사이가 된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수입과 지출을 밝히고 결산한다.

느티나무 서낭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태도

발현마을 느티나무 서낭제는 대략 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것으로 전해온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오며 5년간 중단되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느티나무 서낭제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기독교 등을 믿는 주민들은 거부감이 생

길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느티나무 서낭제가 마을 수호목의 영험함에 의지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통문화의 계승과 함께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느티나무 서낭제는 마을주민들의 민주주의 훈련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느티나무 서낭제는 주민들이 화합과 단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이장과 임원들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마을회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석가탄신일에는 연등을 설치하여 기독교와 불교를 믿는 주민들을 배려한다.

또한 느티나무 서낭제를 기회로 마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한다. 옛길 복원, 보개산 등산로 연결, 옛 구항면사무소 터 복원, 마을 주차장 설치 등은 발현마을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가며 마을 발전에 직결되고 있다. 마을 사업들이 잘 풀려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주민들이 평안하며 분쟁도 없고 평화스러운 마을로 정착하고 있다.

느티나무 서낭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전설

발현마을에는 신기하게도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많다. 옛 면사무소 터 주변을 비롯하여 마을 여기저기에 우람한 바위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마을 위쪽 들판에 위치한 집채만 한 좌랑바위가 눈길을 끈다. 바위 상단은 성인들 10여 명이 올라가 앉아도 될 만큼 평평하고 넓다

옛날 담양 전씨 선조가 바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에 급제하고 좌랑벼슬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로는 귀향하여 주민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 이런 이유로 좌랑바위 또는 좌랑배라고 부른다. 바위가 있는 주변 들판 지명도 좌랑배이다.

옛날 발현마을 느티나무로 올라가는 언덕 아래로는 청량골이라는 넓은 놀이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건강하고 병이 없다는 전설이 전해오면서 항상 마을 아이

들로 붐비던 골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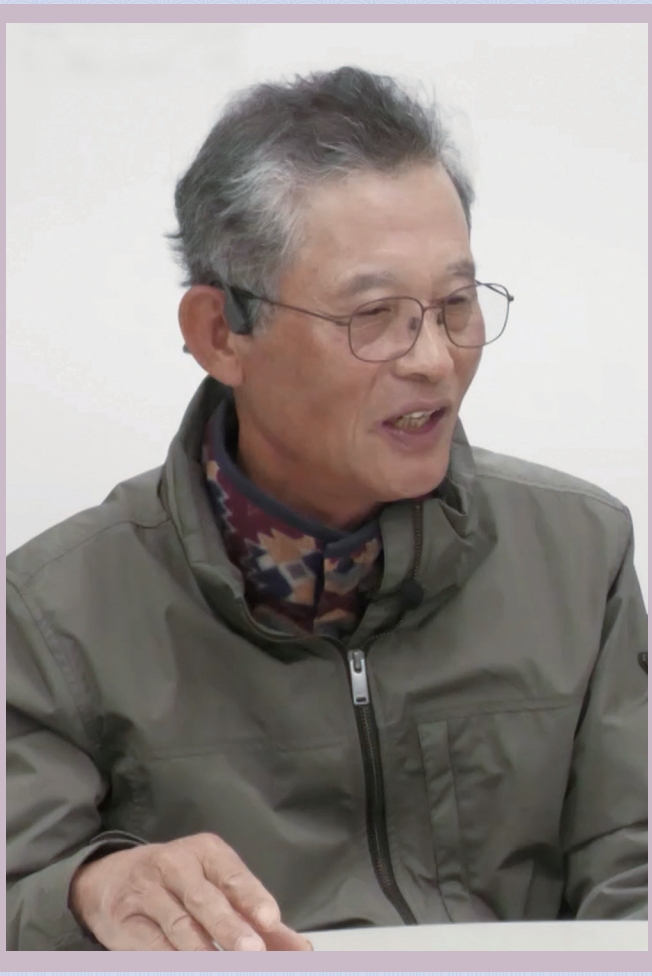
발현마을에서는 옛 구항면사무소 복원과 함께 성황당고개와 대원군 척화비를 잇는 보개산 둘레길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머지않아 선조들이 넘나들던 옛길을 걸어볼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생각된다.

<인터뷰어_ 유환동>

홍성군
홍성의 전통민속제 II

한 규 성 (1960년생)
홍성군 은하면 백야로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상하국 마을 저울산 산신제





상하국 저울산 산신제단 모습

제의 명칭

저울산 산신제

모시는 신

산신

제단의 위치

상하국마을을 뒤에서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저울산 2부 능선쯤에 있다. 옛날에는 저울산 9부 능선에 위치한 철마봉 바위 앞에서 지냈다.

철마봉 바로 아래 바위로 된 자연 제단은 한겨울에 제물을 지고 오르내리기 위험하고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 2000년대 초에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산 아래로 제단을 옮겼다.

제단의 형태

자연석 아래에 제물을 올려놓기 편하도록 직육면체 형태의 제단을 설치했다. 제단 앞에는 '형산산신국사지위(衡山山神局司之位)'라는 비를 세워놓았다.

저울산 산신제의 유래와 목적

저울산 산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어른들로부터 윗대

할아버지 시절부터 지내왔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런 구전들을 근거로 하여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고 추측된다.

저울산 산신제는 산신에게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목적으로 지내기 시작했다. 현대에도 마을의 안녕과 평안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저울산 산신제의 날짜

저울산 산신제는 음력 1월 14일 저녁에 지낸다. 산신제 준비가 끝나면 제관들은 제물을 들고 오후 7시경에 제단으로 올라간다. 옛날에는 정초에 손 없는 날을 정하여 지냈다.

저울산 산신제의 주관자

제관 1명과 제주 2명을 선출하여 지낸다. 현재는 제주를 3개 반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금기사항

제관과 제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초상집 출입도 삼가야 했다. 현재는 금기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각자 알아서 지키고 있다.

제관들은 음력 1월 14일 해뜨기 전에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외부인이나 여자들은 마을회관 출입이 통제된다. 제관들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올라가면 출입 통제 등의 금기사항이 해제된다.

저울산 산신제의 제물과 절차

저울산 산신제의 제물은 삼색실과, 포, 떡, 탕, 밥을 준비한다. 고기는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제의 절차는 전날부터 준비한다. 산신제당에 올라가 청소를 하고 제단 입구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시킨다.

옛날에는 제사 하루 전에 마을 공동우물을 품어내고 제관들은 깨끗한 물로 목욕을 했다. 오늘날에는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물 품기는 생략하고 목욕도 각자 집에

서 한다.

제사 당일에는 아침 일찍 제물을 구입하고 회관에 모여 음식을 준비한다. 제관은 축문을 준비하고 가구당 1명씩 소지를 작성하고 제주는 음식을 장만한다.

소지를 작성할 때 군대에 간 자식이나 경찰이 있으면 추가한다. 외지에 나간 출향인의 요구가 있을 때도 추가로 작성한다. 산에서 소지를 올릴 때는 산불의 염려가 있으므로 불꽃이 날아가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한다.

제의가 끝나면 산신이 먹을 수 있도록 제물 일부를 제당에 놓고 내려온다. 마을회관에 내려온 제관들은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비용과 결산

저울산 산신제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옛날에는 출향인도 산신제를 위해 찬조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다. 산신제에 소요된 비용은 마을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결산한다.

저울산 산신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신앙태도

상하국의 지명은 상국과 하국 두 개 자연마을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저울산 산신제는 원래 상국에서만 지내오다가, 20여 년 전부터 하국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산신제 참여도는 좋은 편이다. 교회에 다니는 가정도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마을 행사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상하국 마을은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 때에도 전사자가 없었다. 어른들은 저울산 산신제를 정성껏 지낸 덕분이라고 믿었다. 이런 이유로 저울산 산신제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다.

상하국에는 저울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논 700평과 밭 700평이 있는데, 논은 상국에서 관리하고 밭은 하국에서 관리했다. 현재는 상국과 하국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마을에서 관리한다. 별도로 관리하던 전답을 마을로 합치면서 저울산 산신제도 상국과 하국이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 전답의 소유권은 마을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저울산 산신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전설

저울산 산신제에 사용하던 공동우물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상하국에는 '연못골' 또는 '연지곡((淵池谷)'이라고 부르는 들판이 있다.

옛날에는 산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려면 거룻배를 타고 연못을 건넜다고 한다. 넓은 연못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해마다 정초에 밥을 해서 바쳤다는 전설이 전한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건너기가 불편하여 한쪽부터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못은 서서히 작아지면서 조그만 낚시터로 변했다.

어느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연못 옆을 지나고 있었다. 연못과 붙어있는 길을 걷는데 달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가 앞에서 움직였다. 마을주민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무 그림자로 생각하며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림자가 발에 밟히는 느낌이 살아있는 물체였다.

마을주민은 혼비백산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다가가서 정체를 살펴보았다. 그림자의 정체는 연못에 살고 있는 커다란 이무기였다.

연못에 살던 커다란 이무기는 자리가 좁아지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곳으로 터를 잡기 위해 한밤중에 이사를 가던 중이었다. 옛날부터 마을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의 정체는 오래 묵은 이무기였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넓었던 저수지는 논으로 변했고 길옆으로 작은 샘만 남게 되었다. 이 샘은 오랫동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생명수였으며 연못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저울산 산신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연못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전설이다.

상하국 마을의 공동우물은 물이 맑고 항상 철철 넘쳐흘렀다. 저울산 너머 마을에서는 물이 귀하여 상하국 공동샘을 부러워했다.

저울산 너머 마을은 해마다 정월대보름 새벽에 상하국 마을의 물을 떠다 공동샘에 붓는 의식을 진행했다. 상하국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공동샘 물을 일찍 떠갖고 마을을 빠져나가며, "물줄 훔쳐간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물이 귀한 저울산 너머 마을주민들이 자기네 공동샘에도 물이 펑펑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옛날 저울산 산신제를 지내던 철마봉 전설도 전해온다.

상하국마을에는 저울산 산신제단 앞에 쇠로 만든'철마(鐵馬)'가 놓여있었다고 전해온

다. 해마다 정초에 산신제를 지낼 때는 철마를 제단 앞에 올려놓고 제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산신제를 지내던 봉우리 이름을 '철마봉(鐵馬峰)'으로 부른다는 지명유래도 전해온다.

옛날 상하국 마을에는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이 있었다. 상하국 마을 입구에 '쇠마답', '쇠마답고개'등의 지명이 전해온다. 80대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대장간 터 부근에 널려있는 쇠똥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울산 철마는 마을 대장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해인가, 저울산 너머에 사는 사람이 산신제단에 놓여있는 철마를 몰래 훔쳐갔다. 이 사실을 상하국마을에서 알게 되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철마를 찾아다닐 것이 뻔했다. 철마 도둑은 사랑방 돗자리를 짜는 자리틀 뒤쪽에 안 보이도록 꼭꼭 숨겨놓았다.

그날밤 철마를 훔쳐 간 도둑이 안방에서 잠잘 때였다. 밤중에 사랑방에서 돗자리를 짜며 고드랫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고드랫돌은 돗자리를 짤 때 사용하는 둥그렇고 주먹만 한 돌이다. 자리틀 양쪽에 적당한 간격으로 매달려서 돗자리 엮는 줄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돗자리를 짜려면 자리틀에 매달아 놓은 고드랫돌을 앞뒤로 옮겨야 하므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마도둑은 고드랫돌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사랑방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사랑방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다시 안방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고드랫돌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렇게 밤새 안방과 사랑방을 오가며 잠을 설치고 말았다.

철마도둑은 이튿날 저녁 사랑방에서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 지난밤 소란을 피운 범인을 직접 현장에서 붙잡을 심산이었다. 저녁 늦게까지 돗자리를 짜다가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철마 도둑은 온몸에 긴장감이 스쳐갔다.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지새다가 어느 사이에 스르륵 잠이 들었다. 잠결에 자리틀 쪽에서 또다시 고드랫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마도둑은 잠결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 눈을 번쩍 뜨고 컴컴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자리틀 뒤쪽에 감춰놓은 철마가 자리틀을 넘어 다니고 있었다. 철마가 자리틀을 펄쩍펄쩍 뛰어넘는데 줄에 매달린 고드랫돌이 발에 걸려서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철마 도둑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쇳덩어리 철마가 어떻게 살아서 자리틀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지 신기하기만 했다. 더럭 겁이 나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날이 새고 말았다.

철마도둑은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철마를 다시 저울산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철마 도둑이 겪은 일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뒤로 철마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안타깝게도 그토록 신성한 대접을 받던 철마는 지금 그 자리에 없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전쟁물자로 쓰려고 철마를 가져갔을 거라는 둥, 도굴꾼들이 훔쳐 갔을 것이라는 둥, 온갖 추측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인터뷰어_ 유환동>

조 성 한 (1958년생)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 산신제





백석암 모습



옛날 산제당 대들보 모습



옛날 산제당 모습

제의 명칭

수란 산신제

모시는 신

산신

산신제당의 위치

홍동면 수란리는 홍동면 신기리 신기 사거리에서 금마방향으로 첫 번째 고개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우측에 보이는 마을이다. 수란리는 왕지·산양·수란의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란마을 뒤편으로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금마면 용흥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동산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야산이다. 산 정상에 있는 산제당에서 제를 지낸다.

산제당의 형태

산제당 뒤쪽 처마 아래에 차돌 모습의 흰색 바위가 있다. 바위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어서 '백석암(白石巖)'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처음 시작은 자연석인 백석암 앞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한겨울 바람막이도 없는 바위 앞에서 지내는 산제는 어려움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이 협

의하여 백석암 앞으로 산제당을 지었다.

현재 아쉽게도 옛날 산제당은 사라졌다. 2010년대 접어들면서 홍성군의 보조를 받아 현대식으로 산제당을 지었다.

옛 산제당은 서너 평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실내 제단 앞에는 산신도가 붙어있고 옆면 벽 상단에는 통나무 2개를 걸쳐놓은 시렁이 있었다. 시렁에는 시루 등 산신제에 사용하는 제기를 얹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산제당 벽은 토담이었고 지붕은 함석이었는데, 원래는 초가지붕이었다가 후에 함석으로 교체한 것이다.

산제당 대들보에는 중국 연호인 광서 13년으로 되어있었다. 이 연호를 서기로 환산해 보면 1887년이며, 136년 전에 지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옛 산제당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홍성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보존가치가 컸을 것이다. 현재 산제당 주변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쉽도록 길과 숲을 조성하여 잘 정돈되어 있다.

수란 산신제의 유래와 목적

구전에 의하면 산신제는 280여 년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처음 산신제를 시작할 때는 참여하는 계원들의 질병 방지, 학생들의 공부, 농축산물의 번영, 사업 번창, 마을주민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냈다. 현재는 신앙적인 목적 이외에도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란 산신제의 날짜

음력 1월 14일 밤 9시에 올라간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사이에 제사를 지낸다.

현대에는 밤늦게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아침 시간에 지내자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어른들의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그대로 지내고 있다.

수란 산신제의 주관자

수란 산신제의 주관은 옛날과 오늘날이 많은 차이가 난다.

1999년 2월에 수란 산신제를 답사하고 기록한 내용이 『홍성의 마을 공동체신앙(홍성

문화원 발행)』에 남아있다. 당시에 수란 산신제를 증언해준 분들의 명단과 직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석범(남, 당시 78세, 산신제 원장), 조선생(남, 당시 75세, 산신제 고문), 송기복(남, 당시 69세, 산신제 간사), 조영호(남, 당시 70세, 산신제 간사), 조문행(남, 당시 69세, 산신제 간사) 등이다.

위 기록을 보면 산신제를 위해 원장, 고문, 간사 등의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런 직책이 만들어진 것은 산신제가 수란마을 단독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수란·왕지·산양·금마면 용흥리 용강마을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계원 형식으로 조직되어 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에 산신제 주관자는 원장이 정초에 생기복덕을 보아서 제관 1명, 축관 1명, 화주 1명을 뽑았고, 세 명의 제관이 주관하여 지냈다.

현재는 옛날 계원 형식으로 이어가던 모습이 약간 남아있다. 산양마을 노인회장이 산제당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산신제를 주관하며, 4개 마을 회원제로 운영한다. 2023년에는 수란 5명, 왕지 2명, 산양 1명, 용강 2명이 참여했다.

수란 산신제의 금기사항

옛날에는 제관으로 선출되면 일주일 동안 부부 동침을 금했다. 또한 제관으로 뽑힌 제관의 부인은 생리가 없어야 했다. 제주 집 대문에는 금줄과 황토 흙을 깔아놓고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다. 동네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해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금기사항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일주일 정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산제 당일에 목욕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수란 산신제의 제물과 절차

제물은 삼색실과, 과줄, 포, 떡,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먼저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른다. 재배와 각 마을 독축을 한 후에 다시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다. 옛날에는 계원 모두 소지를 올렸으나, 현재는 원하는 사람들만 올려준다.

옛날에는 백석암 앞에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고 떡을 돌리는 주민들도 있었다. 또한

산신제를 끝내고 내려와 산제당 입구에서 거리제도 지냈다. 현재는 산신제를 끝내고 정월 보름날에 마을잔치를 벌인다.

비용과 결산

옛날에는 마을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비용을 충당했다. 현재는 홍성문화원의 보조와 산신제 몫으로 모아둔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한다. 산신제가 끝나고 마을잔치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14일 저녁에 산신제를 끝내고 나서 결산한다.

수란리 산신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신앙태도

수란리 산신제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나 참여도는 옛날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마을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을 중심으로 산신제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나 젊은층에서도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문화유산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란리 산신제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전설

옛날 수란리 뒷산 산제당 옆쪽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다. 이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 먹으면 조막손이 되고 병이 났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그해에 정성껏 산신제를 지낼 때는 화주가 떡시루를 지고 산제당에 오르다가 넘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신제를 정성껏 지내지 않았을 때는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돌아다녔다고 한다.

옛날 산신제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은 백석암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었다고 한다. 마을재산인 부동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무생물인 백석암이었다.

<인터뷰어_ 유환동>

예산군

| 예산 상인 이야기

예산시장이야기-풍농비료 816
예산시장이야기-개성쌀가게 822
예산시장이야기-우시장어성 828
예산시장이야기-신발가게 836
예산시장이야기-이불가게 843
예산시장이야기-옷가게 851
예산시장이야기-시장관리인(1) 857
예산시장이야기-시장관리인(2) 866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우 제 풍 (1952년생)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예산시장이야기 - 풍농비료



억척스런 둘째 형님

8남매에 여섯째, 아들로는 6남 중에 둘째다. 예전에는 많이 낳았다고 볼 수 없다. 8남매는 흔히 있었던 자녀 수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님이 좀 억척이었다. 당시 둘째 형님이 면천농업학교에 다녔는데 하우스로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했다. 지금이야 하우스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보기 드문 농사였다. 하우스에서 토마토나 오이를 재배해서 팔았다. 가까운 당진은 큰 시장이 아니어서 서산에 내다 팔았다. 전날 포장을 해 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서산에 내다 소매상에 넘기고 학교에 갔다.

형님은 제대 후에 예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시작한 것이 부흥상회였다. 씨앗도 팔고 농약도 취급했다. 형님이 예산에 있어 고등학교를 예산농고로 진학했다. 당시 예산농업학교는 5년제였다. 예산농업고등전문학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3년, 초급대 2년으로 해서 5년제였다. 학과는 농업과, 원예과, 축산과, 토목과 네 개과가 있었다. 당시 농고 입학 지원자가 많아 5대1로 높았다. 물론 시험을 보아 선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쉽게 원서를 써주지 않았다. 학생 수는 한 학년 160명, 한 과에 40명이 정원이었다. 유급제도가 있어 한 학과에 4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농고가 예산에 있지만 입학생은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오히려 예산 출신들은 얼마 없었다. 농고 졸업생들은 개인 회사로 취업을 많이 했다. 당시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나갔다. 동기생 중 전공을 살려 농장을 경영한 사람은 대여섯 명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농업 전문교육으로 전문인을 길러냈는데 실제로 취업하기는 일반 회사로 진출을 많이 했다는 점이다. 당시 행정공무원은 박봉이었다.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 제대 후, 비료 대리점을 시작했다

군 제대 후에 둘째 형님 가게에서 일을 배웠다. 오래 같이 일하기보다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비료 대리점이었다. 비료만 단일 종목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다. 마침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화학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때였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저 인분이나 가축의 배설물을 사용하였고, 거름을 한다고 해야 들이나 산에서 나뭇가지나 풀을 베어다가 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소출이 많지 않았다.

식량 증대를 위해서는 농법의 개량이 필요했다. 다수확을 하려면 기존의 재래식 농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정부에서 비료의 원료를 수입하여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 졌고, 남해화학, 경기화학, 동부한농화학, 풍농비료 등 비료회사가 속속 등장하였다.

예산에서 풍농비료 대리점을 개설했다. 비료 판매의 매력은 전국이 어떠한 회사의 상품을 불문하고 동일 제품은 가격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배송지가 섬이든, 산간이든,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이 동일했다. 서로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농민들에게 비료사용을 권장하는 방법이었다.

홍보 – 가을 품평회

가격경쟁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홍보가 문제였다. 처음 비료가 보급되었을 당시에는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선뜻 비료를 구매하지 않았다. 농민들도 풀을 베다 넣는 것보다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수확에도 이롭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형님 댁에서 3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장사를 도우면서 알게 된 많은 농민들이 밑천이다 생각하고 과감히 대리점을 냈다.

대리점의 위치는 형님의 부흥상회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아예 건물을 사가지고 시작을 했다. 씨앗이나 농약은 농민들이 필요해서 알아서 찾아오지만 비료라는 품목을 그것이 어려웠다. 아침에 일찍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오토바이를 끌고 홍보를 다녔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손님을 가게 문 열어 놓고 기다려 보았자 별 소득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먼저 대농(大農)을 찾았다. 비료에 대한 홍보를 하고, 농업지도도 하고, 그러면 대농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써 볼만하다고 생각했다. 가을이면 품평회를 많이 했다.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땅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시범포를 마련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었다. 가을에 수확을 하고 농민들을 데려다 품평회를 했다. 당연히 그전보다 수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비료면 다 좋은 줄 안다. 질소, 인산, 칼륨 등 작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파랗게 잎이 올라오면 좋은 줄 알았다. 잎에 좋은 비료, 뿌리에 좋은 비료, 열매에

좋은 비료를 구별을 못 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비료의 사용법 지도가 필요했다. 비료가 널리 보급 된 후에는 품목별로 맞춤식 비료가 보급되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당시 7개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풍농비료가 판매고 4위 정도였다. 예산군에도 다른 회사 대리점이 몇 개 되었다. 마침 홍성에는 대리점이 없어서 홍성군까지 판매지역을 확대 하였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판매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누구나 들어가 판매하면 되었던 시절이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 양반 샀어, 10개 샀어요, 나도 다섯 개 줘봐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했다. 미리 이장에게 연락을 해 놓고, 마을 주민들 좀 모아 주십쇼 하고 부탁을 했다. 일단 마을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제작한 홍보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동안 형님하고 장사를 하는데 도와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비료를 사용하시면 다수확을 보장 받습니다.'라고 비료 사용에 대한 교육을 했다.

정작 마을에 교육을 가기 전에 미리 그 마을에서 농사도 많이 짓고 영향력 있는 집으로 간다. 비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그 사람은 몇 개를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마을에서 교육이 있는 데 참석해 주시고, 제가 주문을 받으면 몇 개 쓴다고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미리 작전에 들어간다. 당일 실제 교육이 끝나고 비료 주문을 받을 때, 미리 약속을 한 그 사람이 나와서 몇 개를 쓰겠다고 주문하면 열 마디 홍보보다 더 효과가 컸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쓰겠다는데 나도 한번 쓴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쓴다는데 사람 욕심이 인지상정이라 써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홍보효과 100%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 날 비료를 배달했다. 그냥 주문한 사람 집으로 배달을 가는 것이 아니다. 주문한 집이 어디인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그 집으로 가면 홍보의 하수다. 홍보하는 날 나오지 않은 집으로 가서 아무개 댁이 어디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왜 그러냐고 묻는다. 그럼 비료 배달 나왔다고 넌지시 말을 흘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욕심이 생긴다. 옆집에서 샀다는데 내가 안사면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사람 몇 개 샀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코 없이 비료를 구매하고 만다. 남에게 지고는 못 배기는 것이 인간이다.

마을에 갈 때는 소주하고 돼지고기 댓 근 준비해서 갔다. 이야기가 끝나면 한 잔씩 하고, 그러면 그렇게들 좋아했다. 그게 홍보 겸 투자라고 생각했다. 농촌에 현금이 나올 곳이 별로 없다. 대부분 외상이다. 대개의 경우 겨울에 밑거름으로 비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홍보를 하고 팔았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하고 비료대금을 지불했다. 농촌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당장 재촉할 필요가 없다. 가을에 수확하면 어김없이 비료 대금을 갚았다. 그래야만 다음 해에도 거래가 수월하기 때문이었다.

공장이 장항에 있어 편했다

비료는 부피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류 수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비료를 쌓아 놓을 창고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은 공장이 있는 장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 배달했다. 재고가 없으면 하루에도 세 번 정도는 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고 없이도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예산은 하우스가 많고, 또 과수원이 많아서 같은 면적이라도 논농사 짓는 곳과는 물량이 달랐다. 논은 1년에 한 번 시비를 한다면 비닐하우스는 1년 내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료 소비가 많았다. 다른 지방에 비해 물량이 많았다. 풍농비료 예산대리점에서 대략 예산군의 비료 소비량의 60%를 점하고 있어서 다른 비료회사 대리점이 재미를 못 본 것이 사실이다.

23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에게 대리점을 물려주다

장사를 하면서 돈도 벌었지만, 농민들의 순수한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이익만을 위해 장사를 한 적도 있었겠지만, 농민들은 절대로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다. 예산에서 농업과 관련된 비료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학비료의 역사를 써온 셈이다. 농민들의 순박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음에 감사했다.

2015년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다. 몸의 내성에 문제가 있으면 온다는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그동안 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라고 했다. 대리점을

시작하고 23년 동안 열심히 함께 일을 한 사람에게 가게를 인계했다. 사용하던 상호도 그대로 넘겼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서 걱정이 없었다. 회사 쪽에서도 거래에 어려움이 없고, 또 거래하는 사람들과도 안면이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이제 사장이 바뀌더라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했다.

벼이삭 주울 일 있어요?

예전에는 논에서 벼를 베고 타작을 한 후 벼이삭을 주웠다. 이제는 그러한 풍경을 어디에서도 볼래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이앙기라는 기계로 모내기를 한다. 그리고 콤바인이라는 기계로 벼 베기와 타작을 동시에 해버린다. 어쩌다 콤바인 작업을 하다가 벼를 흘리면 주워 담지 않는다. 그냥 발로 흩트려 놓고 가버린다. 그래도 누구 하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 주워 담지 않는다. 벼이삭을 주으려고 논바닥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들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우스일 같은 경우는 국내 인이 더욱 없다. 다른 일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시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이 많은 과거의 농군들이 시골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박 은 신 (1943년생)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예산시장이야기 - 개성쌀가게



서점 주인이 중매-개성상회 며느리 되다

11남매, 그러나 다섯 명이 죽고 6남매만 남았다. 11남매의 막내, 아니 6남매의 늦둥이로 태어나 어머니 젖이 부족하여 밥물로 살아났다. 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막내 시집가는 것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였다. 어머니 소원대로 어머니 살아생전에 결혼을 했다. 어머니는 내가 19살 먹던 해 돌아가셨다.

예전에는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해도 어려울 때였다. 언니들은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막내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셨다. 예산에 언니들이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빠 둘도 언니네 집에서 학교에 다녔다.

20살, 만으로 19살에 시집을 왔다. 시집간 언니들이 걱정을 한 것이 막내가 의지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셔 방황을 할 것이 아니냐? 시집이라도 보내야 걱정을 덜 것이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을 한 것 같다.

당시에는 여가를 즐길만한 것이 없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그래도 고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는 것이었다. 서점을 유난히 들락날락하다가 서점 사장이 중매를 해서 개성쌀집 며느리가 되었다. 서점 주인이 두 집안을 잘 알고 있어서 중매를 놓은 것이다. 우선 형부에게 처제를 인씨네로 시집보내라고 권하여 다리를 놓은 것이다. 신랑 될 사람은 갓 제대한 후였고 나이는 27세였다. 부친께서 개성에서 맨몸으로 피난을 나와 제 때에 학교를 못 보내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갔고, 늦게 군복무를 마친 것이다.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했다. 새신랑은 서울에서 일을 했다. 시아버지 당신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경제학과를 보냈다. 그리고 장가를 보낸 후 곧바로 서울에서 일을 하게 했다.

개성쌀가게 하면 컸어요

개성쌀가게 하면 나이가 있는 예산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본래의 상호는 개성상회였다. 지금이야 옛 가게도 없어지고 건물도 바뀌었지만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당시 쌀가게를 했다는 것과 개성에서 오셔서 가게를 했다는 것이 예산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처음 개성쌀가게는 세 명이 동업을 했다. 물론 자본금은 시댁에서 모두 충당했다.

나머지 동업을 하신 분들이 개성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분 동업자 모두 개성이 고향이었다. 동업자 세 분이 한 집에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경영은 시아버니께서 담당하셨다.

처음에는 건물도 없이 좌판에 진열하고 장사를 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 맨몸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동업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다. 쌀가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돈이었다. 시아버지는 한국동란이 터지자 가족은 남겨두고 장남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내려 오셨다. 피난을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예산이었던 것이다. 1·4후퇴 이전에 시아버지가 개성의 본가에 갔다가 오면서 예산에 자리를 잡았으니 찾아오라고 하셨단다. 그때 함께 오시질 않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예산으로 찾아오셨다.

시아버지는 개성에서 신발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남편이 남쪽으로 피난 갈 때 항아리에 넣어 묻어 둔 신발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전쟁 통에 신발은 긴요한 물건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아리에 숨겨둔 신발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사에 참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신발을 다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개성을 떠나 당진으로 탈출하셨다. 둘째 아들 한 분을 대동하고 남편을 찾아 예산으로 오신 것이다. 어머니는 쓰시던 가재도구를 챙겨서 남쪽으로 오셨다.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이불, 미싱 등 가재도구 일체를 바리바리 꾸려서 가지고 오셨다. 그때 가지고 온 미싱은 며느리에게 대물림되어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개성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탈 때 선가를 많이 주고 몰래 나오셨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돈으로 개성쌀집은 번성했다. 여러 지역에서 쌀을 구매하여 서울로 올렸다. 예산에서 판매도 했지만 거래의 대부분은 서울이었다. 처음에는 트럭으로 운반을 하다가 거래량이 많아지자 장항선 기차 화물로 운송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편으로 비료를 취급했는데 많은 이문을 남겼다. 비료는 이후 박정희 정부 때 국가에서 관장하면서 접었다.

시아버지는 장사밖에 모르시던 분이었다. 고향 개성에서 16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예산에서 세 명이 동업을 했는데, 한 번도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공적인 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셨다. 덜 가지고 많이 가지시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자금은 당신이 댔지만 이윤분배에 있어서는 똑같이 나누었다.

시아버지는 참으로 검소하신 분이었다. 세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물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다. 세수한 물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셨다.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집왔을 때 마루바닥에서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밤늦게 화장실을 갈라치면 소리 때문에 조심해서 걸었다. 나중에는 요령껏 소리 나는 곳을 표시해 두고 피해서 다녔다. 한참 후에 수리를 했다. 그렇게 모든 것에 검소하게 임하셨다. 다른 동업자들은 호화롭게 집을 지어 나갔지만 당신은 여전히 흙벽돌집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집에서 아들 내외가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도 당신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돈이라는 건 이렇게 주먹에 쥐잖니, 그러고 이것을 펴면 돈이 나가, 그러니까 돈은 나가면 날라가잖냐, 그럼 없어져. 돈은 주먹에 꽉 쥐고 펴지를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도 쓸 데는 아낌없이 썼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막지 않았다. 교회에 갈 때면 돌돌 말은 돈을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다. 단연히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돈을 말아서 주셨는지는 지금도 이유를 모른다. 예산에서 처음으로 3층 건물을 시아버지 당신이 직접 지었는데 남의 이목을 먼저 걱정하셨다. 그리고 예산문화원을 지을 때 돈을 기부하셨다.

시장도 시아버지가 직접 보셨다. 그것이 개성사람들의 습성이란다. 다른 동업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개성사람들의 성품을 이해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시질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교재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집안 살림만 했다. 여가시간도 없었다. 여가를 보내는 것도 수를 놓는다거나 바느질 정도였다. 철저하게 외부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예산에서는 부잣집이지

시집을 와서 귤과 바나나를 처음 먹었다. 1963년도였으니 제주도에서 귤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였다. 귤이라고 하는 과일을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귤이나 바나나는 시아버지가 부산에 거래처에 갔다가 사온 것으로 기억한다. 부산은 큰 항만도시고 당시만 해도 외국 물산이 들어오는 창구였기 때문에 그런 외국 과일이 있었던 것이다.

혼수는 시어머니가 서울의 큰 포목 집에서 해주셨다. 백화점에 가서 고급품으로 숄도 사

주셨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호사를 누렸다. 그만큼 당시 시댁은 여유가 있던 집안이었다. 예산에서 아들 둘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당시 예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남편을 포함해서 친구가 셋 정도였다.

동업을 하셨던 분들도 잘 사셨다. 개성 출신들이 다 그렇듯이 검소하게 사셨다. 그분들도 자제분들 교육도 많이 시켰다.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넉넉하게 사셨다. 이렇게 동업을 했어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던 것은 시아버님의 경영방침에 잘 따라주었기 때문이었다. 시아버님은 매사에 철저하시고 투명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셨던 것이다.

삼 동업 – 쉬운 일이 아니다

동업이란 자체가 언제 어떻게 마음이 달라져 갈라설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두 사람이 동업하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이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개성상회는 시아버님의 강직하고 검소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무리 없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늘 유동적이어서 세상 변화를 무시하지 못한다. 어려웠을 때, 먹고살기 어려울 때는 쌀가게가 그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다. 각 지역을 돌면서 쌀을 사들여 서울로 올리면 이윤이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벼농사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벼 품종이 개량되고, 벼농사에 적합한 비료의 생산 등으로 벼 생산량이 늘면서 유통 상 마진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일선에서 일할 나이도 이제는 지났고, 시장도 이제는 변함에 따라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 세 명이 시작해서 세 명이 똑같이 분배를 했다. 그렇게 예산에서 개성상회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문을 닫았다.

부잣집 며느리 장사를 시작하다

부잣집에 시집와서 부족함 없이 지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서울에서 일을 했다.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 밑에서 장사를 배워보라는 취지였다. 강원도 지역으로 다니면서 쌀을 구매해서 서울서 판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색시가 그리웠는지, 자주 예산 집에 오다가 서울에서의 일을 접고 아예 내려왔다.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는지 시아버지는 본정통에 잡화상 가게를 내주었다.

본래 부잣집 자제들은 힘들여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남편도 가게 일은 뒷전이고 매

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일이었다. 두 형제가 똑같았다. 형이 가게를 보지 않으니 동생 즉 시동생도 그냥 집에 들어와 시간만 보냈다. 나중에 시동생은 처가의 인척이 운수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운수업을 하다가 분가하여 가구점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변함없이 친구와 술로 시간을 보냈다. 보라는 가게는 보지 않고 비워 두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할 수 없이 남편이 비워 둔 가게를 보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불호령을 하셨다. 부잣집 며느리를 장사하게 한다는 것에 화를 내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는 명분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들이 비워 둔 가게를 시어머니는 그냥 보고 있질 못하시고 자꾸만 며느리에게 나가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잡화상을 했지만 장사를 시작하면서 옷가게로 바꿨다. 서울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다가 팔았다. 집안 살림만 하다가 서울에서 옷을 사다가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워도 좋은 옷을 구해다가 팔아서 예산읍에서 인기 있는 옷집이 되었다. 가격이 나가도 좋은 제품은 인기가 있는 법이다. 당시 예산이 홍성보다 비싼 물건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예산지방의 소비자의 눈이 높았다는 말이다.

서울에 가서 어렵게 사 온 옷을 남편이 정리를 해주었다. 가격표를 붙이는데 마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붙였다. 둘 다 장사에는 수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었다. 남편은 참 고지식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셨던 것을 그대로 대물림했다고 보아야 한다. 외출했다가 늦게 오는 꼴을 보지 못 해했다. 아예 대문을 잠궈 버려 담을 넘어 들어간 적이 많다. 어느 때는 방문까지 잠가 놓아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새우잠을 잔적도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도 그냥 시아버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불평불만이나 그 어떤 말씀도 없었다. 교육 중에서 보고 배우는 교육이 무섭다. 시집오기 전 친정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말씀하기길 '시집가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해라 이×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시집가서 친정어머니 욕 안 먹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순종을 강조했던 교육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기를 들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온 여자의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이 창 주 (1939년생)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예산시장이야기 - 우시장어성



통학길-보리밥 먹고 20리를 걸어서

초등학교는 가까이에 있는 응봉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예산에 있는 예농으로 다녔다. 당시 예농은 6년제였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6년제였는데 후에 중학교가 분리되어 현재의 자리인 마상골로 이전했다.

집에서 예산학교까지는 20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통학을 했다. 학교 가는 통학길에 무한천이 흐른다. 여름에는 무한천 물이 불어 등·하교가 어려웠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철교를 건너야 만했는데 위험한 일이었다. 달리 돌아 갈 길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철로로 건넜는데, 지금처럼 기차 운행이 많은 때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통학거리가 멀다보니 매일 지각하기 일쑤였다. 담임선생님도 안쓰러웠는지 매일 지각해서 어떡하냐고 위로를 해주었다. 지각을 면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상책인데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아침에 밥을 일찍 해 먹고 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보리쌀로 밥을 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 누이가 그나마 일찍 밥을 해주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동기간은 2남 1녀, 친어머니 소생만 따지면 그렇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 재혼하셔서 1남 3녀를 낳으셨으니까 모두 3남 4녀, 7남매를 두신 셈이다.

그전에 고생 무지하게 했어

아침에 등교할 때는 보리밥이라도 먹고 가니까 허기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교 길은 사정이 달랐다.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못해 점심을 먹지 못하면 하굣길에 배가 고파서 걸음을 못 걸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남이었기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셨다. 남동생은 중학교까지, 누나는 아예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입대를 했다. 제대를 하고 보니 그 사이에 부친께서 노름을 하셔서 논마지기나 팔고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막막했다. 우선 장리로 보리쌀을 가져 다 먹었는데 여전히 부족했다. 면에서 지원해주는 보리쌀도 가져다 먹었는데 여전히 식량은 부족했다. 장리를 얻어다 먹고 갚기를 3년이나 걸렸다.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장리 얻어다 먹고 그거 갚으려고 1년 내내 노력해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일 밖에 없었다.

부친은 소마차가 있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인수했다. 방아를 찧고 나서 운반해주면 그런대로 돈벌이가 되었다. 소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마차를 끌 수 없게 되었다. 소를 바꾸기 위해 홍성 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샀다. 집에 와서 보니 마차를 끌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였다. 예산 장에 가서 그 소를 팔았다. 홍성에서 산 소를 예산 장에서 팔아 쌀 몇 가마 가격이 남았다.

소 장사 – 돈이 남는 장사

소를 사다 팔았는데 돈이 남았다. 다시 삽교 장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샀다. 예쁘게 생긴 수송아지였는데, 예산 장에 가지고 나와 팔았더니 쌀 서너 말 값이 남았다. 논 다섯 마지기, 밭 600평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이 나오질 않았다. 삽교 장에서 소를 사서 예산 장으로, 또는 온양 장까지 소를 몰고 다녔다. 소 장사 고참들도 알게 되고, 소를 이쪽 장에서 사서, 다른 장으로 가지고 가서 팔면 이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안 되는 토지에서 무엇을 바라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소 장사에 올인했다.

예산우시장의 중개인 어성이 되다

25살 때 예산 우시장 중개감독 김○○씨를 만나 본격적으로 우시장에서 중개 일을 했다. 당시 예산군 내에 예산 장, 삽교 장, 광시 장, 신양 장, 고덕 장 등 다섯 개의 장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예산 장이 제일 규모가 컸다. 우시장의 규모도 예산읍내 장이 가장 컸다. 예산군 내에서 소를 중계하는 사람이 65명이 있었고, 돼지를 중계하는 돈(豚)중개가 예산에만 5명, 그래서 예산군내에 모두 70면의 중계인 어성이 있었다. 뭐니뭐니해도 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우시장이 그 시장의 규모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돼지를 파는 곳이 우시장 옆에 있었는데, 돼지 판매 중계인과 우시장의 중계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시장의 중개인들은 돼지 장의 어성은 어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돼지가 짐승이냐는 것인데 그만큼 소와 돼지의 차이가 컸다는 뜻이다. 독특하게 예산지역에서는 중개인을 '어성'이라고 불렀다. 어성의 어원에 대하여 문헌 기록이 전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예산 지역만의 독특한 방언인 것만은 확실하다. 어성의 자격조건은 없다. 어성의 기존 조직에서 추천하여 승인이

있어야 어성이 되었는데, 축협의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계를 갖춘 조직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중개를 할 수도 없었다.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사는 것은 어성의 중개로만 이루어졌다. 나이가 어린데도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평을 듣고 추천을 받아 어성이 되었고 충남에서 중개실적에 제일 좋아 도지사상도 받았다.

어성으로 살아났다

예산군 다섯 개 시장, 어성 65명 중 판매고 1위에 올랐다. 게다가 충청남도 도지사상까지 받았다. 어성은 따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따라 적립했다. 적립한 돈을 연말에 지급한다. 소를 얼마나 중개했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집에서 농사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슴을 두고 일을 했다. 어성으로, 소 매매 중개로 받은 돈으로 일꾼 세경을 주었다. 어성을 하면서 소장사도 겸했다. 예산 장과 삽교 장에서만 어성 일을 했다. 나머지 예산군의 다른 장에서는 소 장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군의 다섯 개 장 모두를 다니려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이 제대를 하면서 소차를 운전했다. 일반 소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폐우를 취급했다.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제한이 덜했다. 홍성 광천 장에서 폐우를 사다 안성 장에서 도축하여 팔았다.

우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일찍 개장을 한다. 아침 일찍 소를 말뚝에 매놓고 매매를 시작한다. 먼저 소 주인에게 받고 싶은 가격을 묻는다. 소는 몸무게로 가격을 정했다. 저울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당시 소전에는 저울이 없었다. 그냥 눈대중으로 얼마 하는 식으로 계측을 했다. 300정도 간다면 320만원을 제시한다. 그러면 소를 살 사람이 사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여 흥정을 붙인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가격을 아래로 잡는 것이 보통이니까 약간 높여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살 사람이 300만 원대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소주인과 소를 매입하는 사람이 의사를 표현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매가 성사되면 사무실에서 전표를 썼다. 전표가 매매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전표에는 매매 가격과 중개인이 명기되었다. 물론 소 주인과 소를 산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록했다. 전산으로 일 처리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수기로 작성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그날의 매매현황판이 있어 다른 어성들의 판매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한

마리 한 마리 매매가 성사되면서 결과물이 표시 될 적에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간혹 건강하지 못한 소가 나온다. 이런 소는 소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이 사다가 사육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소 주인에게 이야기한다. 먼저 소의 건강을 확인하고 도축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축장으로 가야 할 소는 가격이 일반 건강한 소보다 가격이 내려간다. 건강치 않은 소는 보면 안다. 우선 콧구멍이나 콧잔등에 땀이 나지 않아 말라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소다. 소 주인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어성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다. 주인이 고집을 부리면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부분의 소 주인은 일단 수긍을 하고 매매를 한다. 새끼 밴 어미 소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금만 더 먹이면 새끼를 낳을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끌고 나온 것이다. 이런 경우 소주인은 아쉬움이 많다. 새끼를 내서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새끼를 밴 소는 소 값이 더 올라간다. 대략 30만 원 내지 50만 원 더 붙였다.

임신한 소는 젖을 잡아보면 하얗고 끈적끈적하다. 그렇지 않은 소는 물젖이 나온다. 우선 이것으로 임신 유무를 확인했다. 그리고 배를 만져 보면 임신한 소와 그렇지 않은 소는 대번 다르다. 전문적인 수의사나 수정사가 없었지만 어성들의 경험으로 임신 유무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였다.

끌이 꾼 – 우시장의 또 다른 직업

예전에는 가까운 곳의 장만 돌 수밖에 없었다. 이동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걸어서 소를 끌고 이동했다. 장과 장을 연결하여 소를 끌어다 주는 사람들을 끌이 꾼이라 했다. 소 장사가 소를 사주면 약속한 장으로 소를 끌어다 주고 소 한 마리당 얼마씩 돈을 받았다.

만약에 광시 장에서 소를 사서 온양 장으로 이동한다면 밤을 새워 소를 몰고 가는 것이다. 아침 일찍 우시장의 개장에 맞추려면 밤새 길을 가야 했다. 신례원에 소 끌이 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었다. 사람도 쉬고 소에게 먹이도 먹여야 했기 때문이다. 온양 장에서 팔지 못하면 다시 예산 장으로 끌고 왔다. 예산 장에서 또 다른 장으로, 이렇게 끌이 꾼도 쉴 날이 없었다.

삽교 시장에서 고덕 장으로, 고덕 장에서 온양 장으로, 온양 장에서 예산 장으로, 예산

장에서 홍성 장으로, 홍성에서 광시로, 다시 광시에서 삽교로, 이렇게 돌아 장에서 장으로 매일 이동하였다. 장돌뱅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장에서 장으로 연결하여 돌아다니는 인생이 장돌뱅이다. 이제는 끌이 꾼이 하던 일을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거리개념이 없어졌다. 이제 서울 마장동까지 도축하려는 소가 이동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목돈이 도는 곳 – 언제나 조심

돈이 도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우시장이다.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나쁘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침 일찍 우시장은 개장을 한다. 빨리 매매하고 날이 밝을 때 다음 장이 서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우시장은 오후가 되면 한산해진다. 매매가 일찍 끝나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은 소가 몇 마리 매어 있으면 형사들이 폐장을 강요했다.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자신들도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우시장에는 늘 형사가 배치되어 불상사를 예방한다. 그러나 형사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언제나 크고 작은 사고는 늘 일어났다. 형사들의 입장에서는 초긴장상태로 폐장까지 있어야하기 때문에 빨리 폐장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소를 위한 식당 – 마방

소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다. 먹이를 제공해야 했다. 이동하면서 먹이를 먹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직종이 마방이다. 예산 우시장 옆에 마방이 있었다. 소죽을 쑤어서 팔았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러 소전으로 간다. 소들에겐 마방에서 소죽을 먹였다.

우시장 옆에서 소죽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에게 먹였다. 신례원의 마방은 장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다른 지역의 마방은 알려진 곳이 없다. 예산의 경우도 우시장이 아닌 경우는 신례원이 유일하다.

3개월–어미품을 떠나야 하는 송아지

송아지는 3개월이 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 3개월이 되면 어미 소가 마른다. 어미 소를 위해서도 송아지를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7개월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진다. 어

느 정도 커야만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3개월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뚜레가 없는 송아지는 다루기가 어렵다. 나이 어린 소를 사다가 조금 키워서 코뚜레를 했다. 코뚜레를 하지 않으면 소 힘을 제어할 수 없다. 특히 소를 길들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코를 뚫어야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일하는 소가 없어서 아예 코뚜레 없이 소를 사육하고 있다.

인간을 위해 묵묵히 25년

소의 수명은 25년 정도이다. 예전에는 육우보다는 일을 시키려고 소를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길들여진 소는 가격으로 논하기가 어려웠다. 부득이하게 이런 소가 나오면 앞 다투어 샀다. 우시장까지 나오질 않았다. 소를 처음에 길들이기가 어렵다. 순하고 좀 똑똑한 소를 골라 정성을 다하여 인내력을 가지고 길들였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길들여 진 소를 만들 수 있었다. 길들여 진 소는 많은 일을 했다. 논밭 갈고, 써래질하고, 물건을 나르고, 농기계가 없었던 시절, 예전 농촌에서 절반은 소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송아지가 매일 훈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가축이 아니라 식구가 되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되새김질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가 다 닳아서 씹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 일만 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한 나이 먹은 늙은 소는 마지막까지 인간을 위해 희생된다. 늙어 일을 못 하는 소는 도축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암소를 길들이는데 들녘에서는 수소를 길들였다. 들은 산간과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령 같은 들의 경우는 암소보다 수소를 선호했다. 땅이 질고 차져서 힘이 좋은 수소로 갈아야하기 때문이었다.

그전에 소도둑 많았어

예전에는 소도둑도 많았다. 남의 소를 끌어다가 팔아먹는 사람, 아니면 버젓이 시침 떼고 기르는 사람. 이제는 소도둑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를 훔치지 못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모두 등록을 해서 귀에 표를 달기 때문이다. 소의 이력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도축도 못 한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멀리 다른 지역 시장으로 끌고 가서 팔아도 못 잡았

다. 우시장에 도난당한 소가 종종 나왔다. 중개를 하다보면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 특히 자기가 키운 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력에 대하여 자세히 모른다는 점이다. 소를 팔고 살 때 그 소의 이력을 상세하게 묻게 된다. 주인이면 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소소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도난당한 소였다. 훔쳐 온 소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서 부른다. 빨리 팔아버리고 떠나려는 속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끌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어성이 중개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소를 잃은 소주인은 먼저 우시장으로 달려가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우시장으로 도둑이 소를 끌고 나오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다.

장에 간다는 것은 소전에 가는 것

여자들이 장에 가는 것은 가정에서 소용되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에 가기 위해 준비한 곡식이며 채소, 계란 꾸러미 등을 바리바리 챙겨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장으로 향한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말끔하게 차려입고 장에 간다. 사실 남자들의 관심은 소소한 장흥정에 있지 않다. 오로지 우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다. 자녀 혼사를 앞둔 아버지라면 지금 키우고 있는 소의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언제쯤 소를 팔아야 제 가격에 팔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소를 키우지는 않지만 앞으로 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 소를 당장은 살 수 없지만 돈을 준비해 둔 예비 소 주인들은 더욱 소 가격에 민감하다. 저 정도면 소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니면 예리한 눈썰미로 길들일 소를 찾는 준전문가들도 우시장을 찾는다. 남자들은 소를 보기 위해 장에 갔던 것이다. 장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예전의 5일장은 사람으로 붐볐다. 사람에 치어서 앞으로 걸어가기도 어려웠다. 5일장의 규모는 우시장의 규모에 달려 있었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조 세 제 (1949년생)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예산시장이야기 - 신발가게



외판을 누가 잘하느냐

초등학교만 나오고 서천 마서면 장선리 고향에서 지내다가 19살에 광천으로 올라 와 태화고무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운동화나 고무신이 많이 판매될 때였다. 지인의 매형이 총책임자로 있는 대리점이었다. 처음 일은 외판원으로 충청도 서부지역을 돌면서 주문을 받고 다음 날 정기화물이나 트럭으로 물건을 보내는 일이었다.

당시 광천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번성한 곳이었다. 왜냐하면 안면도나 원산도의 모든 물산이 모이는 집산지였기 때문이다. 원산도나 안면도에서 잡히는 바닷고기의 대부분이 이곳 광천으로 들어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김도 많이 나왔고, 고구마나 감자도 생산량 대부분이 광천으로 들어왔다. 안면도 쪽에서 태안으로 가는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산도나 안면도에서 오천항을 경유해서 모든 물자가 광천으로 들어왔다. 원산도나 안면도로 돌아가는 배는 광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여 싣고 들어갔다. 광천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허브격인 포구였다.

광천은 도매시장이 많았다. 신발가게도 마찬가지로 도매로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외판이 매우 중요했다. 광천에는 여러 회사의 대리점이 있었다. 말표, 왕자고무, 기차표, 만월표, 다이아표 등의 고무신 대리점이 광천에 있었다. 많은 고무신 대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판에 사활이 달려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고무신 가게를 57년간 하면서 마음에 자리한 신조는 자식을 낳으면'외판을 먼저 시켜라'다. 왜냐하면 외판이야 말로 사회에 나아가서 부딪쳐서 정면 돌파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외판을 하다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도 하다.

74년, 27살에 독립 –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1살 때 돌아가셨다. 할머니, 2살 아래 남동생이 가족의 전부였다. 2살 아래 남동생은 말썽만 부리는 철부지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찍 광천으로 올라와 외판원이 되었던 것이다.

군대는 부선망 단대독자(父先亡 單代獨子)로 면제를 받았다. 아버지가 없는 외아들이란 조건 때문에 밑에 동생을 집안 친척에게 양자로 보냈다. 군에 가게 되면 할머니나 동생을 돌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찍 철이 들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으셨고, 아버지 치료를 위해 가산을 탕진해서 당신이 자진해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병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7살에 철이 들어버렸다. 게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년가장이란 짐이 지워지게 된 것이다.

광천에서의 외판은 무급이나 다름없었다. 숙식은 회사에서 제공해주었지만 월급은 아주 조금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 27살, 이제는 자립을 해서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예산으로 올라왔다. 충청남도는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다.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당시 예산군은 18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충남교통 본사가 있었고, 장항선 일대 중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붐볐다. 예산 터미널에 내리면 인파에 밀려다닐 정도였다. 예전엔 읍내 시장을 관통하는 예산 천에 좁은 다리만 놓여 있었다. 장날이면 많은 인파로 인해 밀려서 다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이곳에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과감하게 광천에서 예산으로 올라왔다.

10원도 안 주었다

광천 대리점에서 19살 때부터 27살까지 8년간 일을 했다. 예산으로 옮겨야겠다는 말을 전했지만 사장은 10원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원망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대리점 사장의 장사에 대한 철학을 배웠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돈을 얼마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영업방침이나 장사하는 법 등 그 자리에 오게끔 성장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웠다.

예산에 와서 가게를 구입했다. 마침 불이 났던 곳에 가건물로 가게를 지어 놓은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대리점에 외상으로 물건을 부탁하여 판매했다. 당시 예산에는 동신고무라고 50년 동안 신발가게를 한 전설적인 가게가 있었다. 50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단골이 었다. 그런데 개업하고 한 달 만에 그 신발가게보다 매출을 더 올렸다.

장사 방법을 광천 대리점 사장에게 배운 덕이었다. 광천 사장은 대리점을 했지만 옆에다 조그맣게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시켰다. 손님이 와서 흥정하다 신을 사지 않고 가면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왔다. 왜 손님을 놓치냐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장사꾼이란 어떻게 해

서든지 손님을 놓치지 말고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사장님의 장사철학이었다. 손님은 각양각색 다양하다.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사람이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꼬장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다. 별의별 성격의 소유자들이 물건을 흥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장날, 일일이 다 상대하다간 손님이 다 가버린다. 그러면 우선 쉬운 사람을 먼저 흥정하여 물건을 팔고, 그 사람이 가면 꼬장부리며 깎아달라는 사람을 상대한다. 이 사람은 얼른 보내야 한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싸게 밑지더라도 팔고 보낸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흥정해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온 손님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장날 오는 약장수의 멘트도 벤치마킹해서 해야 한다. 멀뚱멀뚱 거리면서 팔려고 노력해 보았자 절대로 팔지 못한다. 우스갯소리도 하고, 손님 칭찬도 하고, 오는 손님 전부다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 현혹되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은 신을 사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부터 빨리 팔고 분위기를 또 바꾸고, 정신없이 하면 신발을 사지 않고는 못 배긴다.

장항선에서 유명했어요, 장사 잘하기로

타고난 장사수완보다도 광천 사장님의 영업에 느낀 바가 컸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한 덕이었다. 인정에 인색한 광천 사장도 수금하러 왔다가 예산의 터줏대감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앞서가게 되었다. 대리점 사장도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인정을 했다.

신발은 가격이 뻔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오래된 신발은 가격이 고정적이다. 유동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러한 신발은 가격을 약간 내려놓고, 신상품은 가격을 조금 더 올려놓는다. 신을 사러 온 손님은 가격이 다운된 신발에 관심이 간다. 예전보다 조금 내렸다는 데 구매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여러 켤레의 신을 산다. 왜냐하면 집안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조금 쌀 때 여러 켤레를 한꺼번에 사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계산해 보면 가격을 내리기 이전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신발은 사간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전에 좀 좋은 가격으로 신을 구입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손님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건을 팔려고만 하면 절대로 매상을 올리지도 못한다.

1980년 12월 5일에 240만원 어치 물건을 팔았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480만원어치 정도 된다. 3일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에게 부츠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신발장사 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씩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한 시간도 못 되어 물건이 동이 났다. 그때 열 박스씩 주문해 놓았을 때였다. 다른 집은 벌써 소진이 되었는데 계속 몰려드는 손님을 받아서 열 박스 모두 팔았던 것이다. 그때 주변 상인들이 장사 잘한다고 인정을 했다. 어떻게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사 두었느냐는 것이었다. 조양(朝陽)이라는 상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신종 직업 – 도독을 잡아주는 사람

예산 장날이 되면 사방에서 장을 보러온다. 예산읍 근동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제각기 장거리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대부분 곡식을 이고 지고 읍내 장터로 몰려든다. 장날 손님이 몰려들면 정신이 없다. 정신없이 바쁜 틈에 슬쩍 집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점포도 커졌고 진열해 놓은 신발도 많을 때였다. 장날에 전문적으로 도둑을 잡아주는 사람이 왔다. 장항선 일대에 신발가게에서 도둑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느 가게가 가장 바쁜지 물어 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계약하는 것도 없다. 그냥 찾아와서'오늘 도와드릴까요?'하고 일을 하면 되었다. 그 사람은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 가게 안에 가만히 서 있다가 신을 훔쳐 가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다. 대개 손님들은 가게 직원이 손님과 흥정하느라 바빠서 못 보는 줄로 알고 신을 슬쩍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을 훔친 사람을 따라가서 멱살을 잡고 왔다. 그렇게 걸리면 돈을 내고 사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신발 가격의 절반을 그 사람 몫으로 떼어줬다. 가게 주인은 신을 잃어 버려 손해를 볼 것을 잡아내서 신발값을 받았으니 절반을 주어도 이문이 남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장항선 일대의 여러 장을 돌면서 도둑을 잡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다.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도둑지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찾아 와 일을 했다.

손님이 서서히 줄면서, 옛날의 10분의 1로 줄었다

손님이 하도 많아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을 했다. 장날이면 8명이 신발가게에 매달려 일을 했다. 예산군 인구도 18만 명을 웃돌았는데 이제는 8만 명 정도다. 인구가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다. 서서히 감소하면서 시장 규모도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 판로의 변화가 시장으로 오는 발걸음을 돌려놓았다. 마트, 백화점, 인터넷 등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재래시장은 명색이 시장이지 시장구실을 못하고 있다.

신발가게도 일곱, 여덟 개 정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 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거리가 있는 읍내 안쪽 도로변에서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태화고무가 장사를 하다 2023년 4월에 문을 닫았다.

예전에는 상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을 주었다. 처음에는 흰 고무신을 주다가 장화를 주었고, 나중에는 운동화를 주었다. 그런데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신을 주지 않게 되었다. 집에서 초상을 치룰 때는 신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고인이 주는 선물로 여겨 모두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농협에서 장례를 주관하면서 모든 상례에 필요한 물건을 농협에서 조달하였고 신발만은 농협에서 구하지 못하는 상품이어서 신발가게에서 구입을 했었다. 장례식장이 생겨나고, 또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풍습이 바뀌면서 신발을 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반나절 장

시골사람들이 장에 가는 이유는 큰 것에 있지 않다. 시골에서 현금 쓸 일이 좀처럼 없지만 그래도 상비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골에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별로 없다. 텃밭에서 기른 부추나 아니면 곡식 몇 되 정도, 봄이면 산에서 채취한 고사리나 산나물 등, 몇 마리의 토종닭이 낳은 계란 몇 개, 좀 더 돈이 되는 것은 돼지나 소, 염소 등 동물을 키워 새끼를 내서 파는 것 등이다.

장에 가더라도 시간을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 빨리 장흥정을 해가지고 돌아와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장에서는 반나절 장이 섰다. 아침 일찍 장에 가서 일을 보고 점심 이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들로 나간다. 장흥정이 길어져 점심때가 되더라도 점심은 먹지 않는다. 점심 먹을 돈도 아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나절 만에 다녀오는 장을 반나절장이라 했다. 반나절 장에 어린 애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고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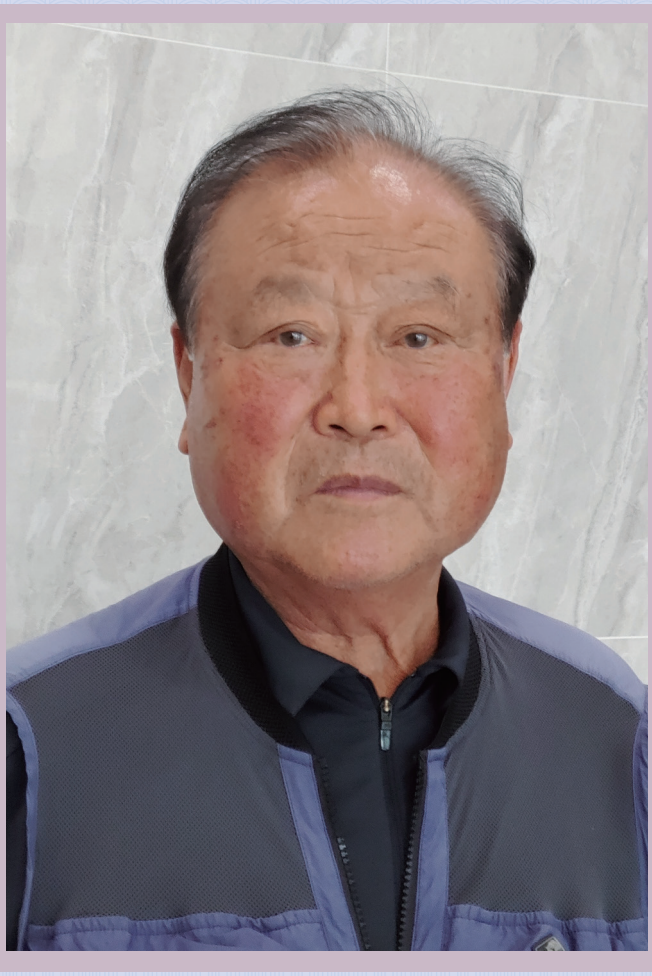
되었다. 나이든 세대는 빠른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만 그래도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보았다는 자긍심이 있다. 이제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던 5일 장이 상설시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재기를 바라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텅 빈 넓은 장터만 머리에 각인되고 있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최 영 석 (1941년생)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예산시장이야기 - 이불가게



학교는 무슨, 나무하러 산으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산 주교리에 있었던 제사공장에 다녔었다. 제사공장을 그만 두시고 신창으로 오셨는데,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사촌이 논 두마지기, 밭 하나를 주어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도 없었다.

부친은 매일 나무를 해다가 온양 장에 내다 팔았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가면 따라나섰다. 나무를 해다가 온양으로 가서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 가슴을 주체 못하게 하는 것은 나무하러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방을 들고 중학교에 다니는 것이었다. 그때가 15, 16살 먹었을 때였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매일 나무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으로 왔다.

천일상회 – 그릇과의 인연

할아버지 사촌이 예산에서 천일상회라는 그릇가게를 하고 있었다. 천일상회에서 2년 일했다. 그릇은 부피가 커서 큰 창고가 있어야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한 점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부피가 아주 작은 상품, 화장품 장사로 마음을 굳혔다. 화장품 파는 곳에 점원으로 들어갔다.

말이 점원이지 월급도 없었다. 월급은 고사하고 밥만 먹여줘도 고마울 때였다. 심지어 옷도 없어서 앞서 일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주면 아무 소리 못 하고 입던 시절이었다. 내복까지도 입던 옷을 입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잠자리는 제공되었지만 본색이 말이 아니었다.

자본금 3만 원으로 가게를 열다

62년도에 군에 입대했다. 휴가를 나오면 집으로 가질 않았다. 먼저 화장품 가게로 가서 장사를 도왔다. 장사가 좋아서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재대 후에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 군대의 3년여의 공백이 매우 컸다. 군대 갔다 와서 불쑥 얼굴을 내밀기보다 화장품 장사라는 각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화장품 가게 주인댁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세 명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화장품 가게 삼형제 패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주인보다 화장품을 잘 팔았다. 주인은 항상 마진

을 남기려고 가격을 높여서 제시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야하기 때문에 마진을 덜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손님을 잡았다. 손님들은 가격에 민감했다. 가게에 찾아와서 다른 점원을 찾지 않고 마진이 적은 쪽을 먼저 찾았다.

장사는 잘했지만 내 가게가 아니다. 이렇게 점원살이만 하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 부탁하여 장려쌀(장리쌀) 열 가마를 얻었다. 당시 가격으로 치면 3만 원이었다. 그 돈 3만 원으로 꿈에 그리던 가게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번듯한 가게가 아닌 노점상이었다. 그냥 신작로에 놓고 팔았으니 어디 상호도 있을 수 없었다.

10년 안에 우리 가게 장만하자

장사 1년 만에 결혼을 했다. 양재 기술이 있는 것을 보고 화장품 장사와 적성이 맞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다. 함께 일하던 호형호재하였던 사람이 중매를 했다. 장모님도 촌으로 다니면서 보따리장사를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다.

두 사람은 10년 안에 우리 가게 만들자 라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 얼마나 억척스럽게 했는지 모른다. 첫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쓰러졌다. 몸조리를 해야 하는 데 무더운 여름날에 포장 속에 있어서 쓰러진 것이다. 마침 대률리에 있는 송림사 주지스님이 지나다가 침을 놓아 소생시켰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장모님이 송림사 회장을 오래 하다 돌아가셨다.

열심히 돈 벌어서 8년 만에 가게를 열었다. 10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을 단축한 것이다. 이때도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세를 얻었다. 이때부터 이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화장품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모레 화장품이 나오면서 방문판매를 했기 때문이다.

마침 밍크이불 장사하는 대전 사람이 이불을 팔아보라고 권하였다. 화장품이나 한복 등을 취급하다가 이불을 판다는 것이 좀 망설여졌지만 열 박스를 들고 나가서 다 팔았다. 그 후로는 여러 이불 가게에서 자기 상품을 팔아달라고 무조건 보내는 것이었다. 아모레 화장품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불로 업종을 바꾸게 된 것이다.

혼수를 해가던 시절이라 이불이며 베개가 인기가 있었다. 베개는 대전에서 사다가 왕겨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 태성수예점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 서산, 당진, 태안, 안면도, 대천, 홍천, 광천 등 충청도 서해안지역은 물론이고 조

치원, 청주까지 차에다 싣고 가서 도매상에 넘겼다.

가게를 하던 곳 앞집 빵가게를 사라고 해서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샀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냐고 했지만 워낙 장사가 잘되던 때라 개의하지 않았다.

베개, 왕겨를 넣어 팔다

베개가 효자상품이었다. 대전에서 베게 천을 사다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왕겨를 넣어서 팔았다.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왕겨를 베갯속으로 넣어서 비닐로 포장하여 싣고 나가면 불티나게 팔렸다.

당시 베개의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한 차 싣고 가면 금방 동이 났다. 서산의 경우 아예 자기 집부터 와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기도 했다. 정신없이 팔다보면 돈을 주지 않고 가져가도 모를 정도였다. 충청도 일원은 말할 것도 없이 강원도 강릉, 주문진, 속초까지 판로를 확장했으니 고단했지만 돈 버는 재미가 많았다.

도매상을 하든, 소매상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몇 개 팔아보려고 직접 왕겨를 사다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공급하는 것이니 인기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중국에서 메밀이 들어오면서 너도 나도 메밀로 베갯속을 넣어 팔게 되면서 왕겨로 만든 베개는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라 그 덕도 보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물건을 떼러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완제품을 만들어서 차로 싣고 와서 판다는 데, 이때 물건을 들여 놓지 못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물건은 싸게 현찰로

이제까지 외상장사를 해보질 않았다. 무조건 현찰로만 거래를 했다. 현찰로 싸게 사서 팔면 곱이나 남는 품목이 많았다. 싸게 사다가 싸게 팔기 때문에 손님이 많았던 것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면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한다. 80년대 초반에 대구 서문시장에 신신양말이라는 공장이 있었다. 사장을 우연찮게 만나 잘 알게 되었는데 자기네 양말

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문시장까지 가면 덤핑으로 팔기 때문에 싸게 많이 구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현찰을 몸의 이곳저곳에 넣어가지고 야간열차를 타고 대구로 물건을 구입하러 다녔다.

당시는 소매치기, 일명 쓰리 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까지 가는 내내 초긴장을 하고 다녔다. 당시 기억하는 것은 낙하산 양말이라는 상품인데 가을 추석 대목을 대비해서 구매를 하러 갔었다.

아들, 며느리도 함께

며느리도 대전에 거래하는 사장이 중매를 해서 결혼시켰다. 우연찮게 혼사 이야기가 나와 대전에서 선을 보고, 처음 보는 순간에 며느리감임을 알고 그냥 몰아붙여서 결혼을 시켰다.

이제 아들 내외와 넷이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아들은 중국의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중국 물건을 수입하여 도매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이 수예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들은 중국의 조선족 친구들을 통해 중국의 시장보다도 직접 물건을 만드는 곳과 거래를 터서 물건을 들여오고 있다.

제자리가 다 있어요

시장 가운데로 향천사에서 내려오던 개울이 있었다. 예전에는 복개가 안 되어 있고 다리를 놓아서 통행을 했다. 다리는 3개가 있었는데, 시멘트 다리도 있었고, 나무다리도 있었다.

예전의 장터 모습은 지금과는 다르게 노점상이었다. 건물이 있었지만 가건물 형태였다. 소전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다.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 곳은 노점이었지만 다 각자 자기가 장사하던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5일장이 열리는 곳은 모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 합덕 장, 삽교 장, 유구장에도 장사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

혼수품, 하루에 천만 원 팔아보았다

예식도 이제는 많이 간소화되었다. 예전에는 시댁의 식구수대로 한복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또 친정 가족들도 모두 한복으로 예식을 입고 치렀는데, 이제는 한복 입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한복은 모두 바느질로 만들기 때문에 대전에 보내 꿰매왔다. 어느 해에는 혼수품으로 하루에 1000만 원 어치를 판적도 있었다. 이제는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매기가 참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

명절날은 쉴 수가 없었다. 명절날 한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타지에서 가족들이 오니까 그때를 이용하여 가족 모두 옷을 맞추러 왔기 때문이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옷가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쁜 날이기도 했다. 이제는 한복 대여도 하지만 입는 사람이 없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날이면 그래도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한복보다는 유행에 따른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복장사, 비단장사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다 내버려야 3만 원 밖에 안 해!

한때는 예산이 장항선 일대서 알아주던 곳이었다. 인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장이 좁아서 읍내시장과 역전시장으로 분리해서 장을 열었다. 그래도 시장에 큰불은 없었다. 잔불은 여러 번 났지만 크게 화재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는 없다. 2020년에 장마 때 처음으로 가게까지 물이 들어왔지만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손해 보아야 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3만 원 가지고 한 일이라서 그까짓 것 겁나는 것은 없다. 잃어 봐야 3만 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돈벌 궁리만 하면 머리 아파 살지 못한다.

7, 80년대가 예산 시장이 가장 붐볐던 것 같다. 그때는 새마을 운동도 하면서 시장을 새로 짓고 활기 있게 일을 추진하던 때여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당시 시장은 군과 읍에서 관리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상인들이 각자 등기를 냈다.

명화가 나를 업어줬어

암하리에 제사공장이 있었다. 제사공장 아가씨들이 시집갈 때 혼수품을 많이 해갔다. 제사공장에서 일하면 혼수는 자기가 다 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일하던 공원에게 대우가 좋았다고 한다. 혼수 물건도 좋고 서비스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가게가 입소문이 났었다. 혼수를 주문하고 가면 당진이고, 서산이고 배달을 해주었다. 같이 일하던 사람끼리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하던 공원들이 많이 찾아준 것이다.

본래 출생지가 암하리였다. 예산초등학교 3학년까지 암하리에서 다녔다. 아버지가 제사공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한국동란 때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바지는 제사공장에서 일을 하셨다. 집 마루에는 항상 번데기가 가마니 채 놓여 있었다. 없는 사람들 번데기라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암하리에는 명물이 하나 있었다. 방영웅 작가의 「분례기」에 미친 여자로 나오는 명화라는 여자다. 그 여자는 우리 집 마루에서 자고 갔다. 밤에는 돌아다니다가 낮에 와서 잠을 자고 갔다. 밤에 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둑도 많이 잡았다고 한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보면 파출소에 가서 도둑 안 잡고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곤 했단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수시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심지어 업어주기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더럽다고 입지 말라 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자기 딴에는 뭔가 보답으로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명화는 언제나 보따리를 옆에 끼고 다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제사공장을 그만두시고 암하리를 떠났기 때문에 명화가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때 내 나이가 10, 11살 정도였다. 그러나 명화가 업어 준 것과 명화의 예쁜 얼굴 모습은 명확히 기억에 있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곽 노 우 (1955년생)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예산시장이야기 - 옷가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다. 충청북도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긴 수철리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성장기에는 청주에서 보냈다. 신례원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청주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청주에서 다녔다.

청주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고향인 예산으로 내려와 장사를 시작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라 돌볼 사람도 없고 해서 맏이로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예산으로 온 것이다. 그때는 아직 미혼 때라 자리를 옮기기는 쉬웠다.

예산에 내려와서 듣도 보도 못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80년도, 나이 28살 때 결혼을 했다. 작은 아버지 직장동료의 조카였다. 중매를 하신 분들은 각자 조카를 소개했던 것이다. 상대 여자는 당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혀 뜻밖의 일인 장사

가정환경 상 장사와는 거리가 있었던 처지였다. 본가나 처가나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일이다. 아마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셨더라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부재는 인생을 180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갔다. 나 자신도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로 직업을 바꾼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직업을 바꿔야겠다는 고민은 길지 않았다. 당시 누구를 붙잡고 물어 볼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도 마땅히 없었다. 먼저 생각한 것이 신발가게 였다. 그러나 신발가게는 재고 문제를 안고 있어 고려를 해보기만 했다.

가게를 열 때 아예 상호를 짓고 시작하였다. 예전에 건물 2층에 청솔다방 자리에 별 다방이라고 있었다. 마침 상호를 지으려할 때 별 다방이 생각나서 별과 태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태양상회라는 상호를 걸었다. 상호는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태양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한 것이다. 가게를 오픈했을 때는 미혼이었고, 바로 밑에 여동생이 도와주었다. 남매가 시작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안식구가 가세하여

세 사람이 장사를 했다. 트라이, 비와이씨 하면 대한민국에서 속옷 브랜드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속옷은 재고가 있더라도 신발처럼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월했다.

처음 사업자금은 외가의 도움을 받았다. 공직생활이라고 해봐야 경력이 얼마 안 되어 퇴직금이 없었다. 외가는 당진 합덕에 있었는데 좀 부유하게 살았다. 우선 외가의 돈으로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시집가기 전까지 가계에서 일을 도와준 여동생의 도움이 컸다.

예산 시장 상인회장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산군민 수가 감소하고, 마트나 대형 마켓의 등장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읍내시장이나 역전시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규모면에서 읍내시장과 역전시장이 비교도 되지 않았다. 예산읍은 근동의 어떤 시장보다도 규모가 컸었는데 이제는 역전시장이 오히려 역세권이라는 점으로 부각되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8년간 상인회장을 했다. 상인회장을 시작할 무렵에도 예산시장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다. 당시 100여 개의 점포가 가건물을 둘러싸고 둥굴게 포진하고 있었다. 안쪽으로는 거의 빈 가게가 많았었다. 침체되는 시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찾아다녔다. 당시 다녀 온 시장은 태백시장, 정선시장, 서귀포시장 등으로 자료도 많이 얻어 오고, 사진도 촬영해 오고, 군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다.

예산군의 인구가 18만에서 16만으로 뚝 떨어지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8만으로 급 하락하는 것이었다. 물론 예산군만의 추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회생하기 어렵게 생겼다. 시장의 침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자책감이 들어 회장을 사임하려고 무던 노력을 했다.

당시 시네마, 시장정비기본계획, 조경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여 공주대학교 교수와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사무실에 조감도를 걸어놓고, 국밥거리 뭐, 여기는 뭐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다. 사무실 직원도 없었다. 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직원을 쓰자하여 현재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직원급료는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회에

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설시장, 5일 장터

읍내시장은 이원화되어 있었다. 우시장 쪽은 재래시장을 살려 5일 장터로 사용하고, 건물이 있는 쪽은 상설시장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5일 장터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장날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장터를 이용하는 상인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았다. 아무리 해보아야 시장터에서 자리 사용하는 것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채 1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장터 노점이나 상설시장에서 장사하는 경우나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만약의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전도 마련해야 하고 화재 시 자동감지시설도 해야 했다. 예전처럼 경비나 숙직을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감지기가 필요한 것이다.

화재감지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았다. 재래시장이었던 곳을 재정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오작동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래저래 개선할 것만 생기고 그로인해 경비지출도 많고 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다.

화장실도 그냥 관리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수도세, 전기세, 소방시설관리비 등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없는 꼴이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상설시장은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5일 장터는 돈은 들어오지만 턱 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두 곳을 합치는 조건으로 차기 회장을 맡기는 것이었다.

상인회장의 애로

전임회장은 상인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방법 위반 전과 기록도 남았다. 소방 실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 다니다 결국 전과만 남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회장하겠다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다. 매달 적자나는 시장운영과, 생색도 안 나는 직책을 머리에 씌워 놓고 앉혀 놓으면 무엇 하냐는 것이다. 그래도 공석으로 있으면

되냐며 1년만 맡기로 했던 것이 18년이나 지났다. 처음에는 몇 개월 피해 다니며 하지 않겠다고 고사했는데 결국은 1년만 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임회장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되게 훈련받은 훈련소 쪽으로 향해 소변도 보지 않겠다는 말처럼 상인회사무실 쪽은 바라보기도 싫다고 했다. 오죽이나 고생을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다.

상인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임원개선안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공연히 참석하였다가 회장을 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원개선안을 빼고 회의를 소집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인원개선안을 끄집어내서 회의를 진행하면 모두 도망가고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18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이다. 회장을 맡았으면 뭔가 해놓은 일이 있어야 보람이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물러나는 것도 기운이 빠지는 일이었다.

가지 마!, 그 집 비싼 집이여

예전에는 속옷 하면 쌍방울, 태창, 백양 메리야스를 꼽았다. 쌍방울은 지금의 트라이의 전신이고, 백양은 현재의 비와씨이며, 태창는 빅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속옷 만드는 공장은 전라북도 이리에 있었다.

80년대에 예산시장 안에서는 메리야스를 취급하는 곳이 태양상회 뿐이었다. 본정통 쪽에는 몇 군데 있었다. 그때는 메리야스 공장에서 영업사원이 와서 거래를 텄다. 공장과 직접 거래도 했지만 대리점을 통해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졌다. 태창은 이제 문을 닫아 생산을 하지 않는다.

전문적으로 속옷을 취급하는 곳은 한 가지 품목만 취급하지만 소매를 하는 곳에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장사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간혹 어떤 브랜드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옷의 재질이 좋아져서 뚜렷하게 특정한 브랜드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때로는 특정 고급 브랜드를 찾는 이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다. 흰 메리야스 하나에 3, 4만 원인데 갑자기 오천 원, 만 원, 이만 원 등의 상품을 내 놓으면 금방 그 집 비싼 집이란 소문이 돌아버린다. 천 원 차이라도 시골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마진이 박한 것이 속옷 가격이라서 잘 못 소문나면 장사하기가 어려운 곳이 시골장터이다.

예전보다는 고가의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긴 했다. 시골도 예전 시골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7, 80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속옷도 헤어지도록 입었다. 그래서 소비순환이 빠르지 않았다. 현재의 젊은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기능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가의 상품도 준비해 놓고, 기능성 속옷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네요!

젊은 손님이 가게를 들어와서 첫 마디가 할아버지가 주인이냐는 것이다. 지난날 에는 장날에 물건을 살 때 물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건과 판매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인데, 서운하기는 하다. 장사로 청춘을 다 보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요즈음 소비자의 심리를 깨닫지 못하면 장사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이제 부모님이 사다 주시면 아무 말 없이, 불평불만 없이 옷을 입는 시대는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형의 옷을 물려 입는 아우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궁색 떠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전혀 궁색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시골이라고 홈쇼핑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7, 80대 노인은 단골이란 말이 익숙한 세대이다. 평생을 단골집으로 생각하고 가게를 찾던 노인들은 모든 주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속옷 구매도 자녀들의 홈쇼핑 구매로 옮겨갔다. 아들, 며느리, 딸 등 IT 기계에 익숙한 세대들의 소비패턴에 어버이 세대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발걸음을 전통 5일장으로 옮겼던 노인들은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익숙해졌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이 한 용 (1954년생)
예산군 예산읍 대회서길

예산시장이야기 - 시장관리인(1)



예산읍과 대흥면의 경계에서

예산읍과 대흥면의 경계인 형제고개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예산초등학교로 하였다. 그런데 3학년 때 문제가 생겼다. 학군이 대흥면이면 대흥면 대률리에 있는 대률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가까운 읍내 초등학교를 두고 20 리나 되는 대률초등학교로 학교를 가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부친께서 그냥 예산으로 다니면 안 되냐고 진정을 하신 모양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다 예산으로도, 대률리도 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1년 쉬고 어쩔 수 없이 대률초등학교로 학적을 둘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가지 못했던 1년 동안 부친을 따라 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때 생각해 낸 것이 예산에 가서 아이스께끼 장사하자는 것이었다. 예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예산 본정통에 있는 아이스께끼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를 시작한 첫날에 육, 칠십 개를 팔았다. 처음에는 2, 30개 정도를 받아서 팔았다. 의외로 빨리 팔려서 재차 물건을 받아다 팔았다. 그렇게 해서 인생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

장사수완이 있었나? – 너 언젠가는 한번 살겠다

처음 하는 아이스께끼 장사, 사람들에게 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아이스께끼'소리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다. 경력이 있는 아이들은 소리를 잘 질렀다. 그냥 그놈 뒤 따라 다니면서 작은 소리로 따라했다. 그러던 목소리가 나중에는 그 친구들보다 커졌다. 처음 장사에 5원이라는 커다란 돈을 손에 쥐었다.

장사에 탁월한 수완이 있었나 보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조롱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 조롱으로 주눅이 들면 뭐하겠냐는 생각이었다. 많이 파는 것을 유심히 본 아이스크림 공장의 사장이 읍내만 돌지 말고 시골로 가보라고 권했다. 당시에는 도로도 잘 닦여져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용할 차도 없었을 때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잘 아는 곳으로 가야겠기에 살고 있는 갈신리로 가서 팔았다. 더운 날씨 덕분에 아이스께끼는 잘 팔렸다. 어린 것이 공부나 하지 아이스께끼 장사가 다 뭐냐며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정 형편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공부야 쉬었다 해도 된다며 격려하는 말씀도 해주셨다.

어른들은 몇 백 개씩 가지고 나가 팔았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힘에 부쳐서 많은 양의 아이스께끼를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 게다가 읍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는 바람에 녹아버리면 팔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부담이 되었다. 읍내에서는 그래도 현금으로 받지만 시골은 현금보다 곡물이나 병, 고무신 등 물건으로 받다보니 부피가 크고 무거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른들은 자전거 뒤에 아이스께끼 통 큰 것을 싣고 시골로 장사를 나가면 더 멀리가고,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돌아왔다. 어른들은 한마디로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전거에 목표를 두었다. 일단 부친께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 달라고 했다. 없는 살림에 자전거 살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4개월 뒤에 부친은 도지를 해서 선 새경을 받아 자전거를 사주셨다. 부친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아들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장사를 한다니 안쓰러웠던 것이다. 반면에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아이스께끼를 팔아 식구들 지어 먹일 보리쌀을 사들고 들어오는 아들을 대견해하기도 하셨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지 못해 맹훈련에 돌입했다. 친구네 자전거를 빌려 연습을 했지만 내 자전거로 익숙하게 훈련을 해야 했다. 그래도 자전거를 연습할만한 공간이 있어야 했는데 예산 읍내나 20리 떨어져 있는 대률초등학교 운동장밖에 없었다. 두 곳으로 가느니 집 가까이에 있는 형제고개로 연습 장소를 정했다. 수십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자전거를 빨리 배워 장사를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탄방리까지 장사 구역을 확장했다. 걸어서 다닐 때와는 천지차이였다. 돈 대신에 받은 물건도 많아졌다. 부친은 학교를 다시 다니길 권하셨다. 아무리 어려워도 장손이 학업을 중단해서야 되겠냐는 말씀이셨다. 대률초등학교 4학년으로 들어가 동생들과 20 리나 되는 거리를 통학했다. 여전히 가정형편은 어려웠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명절이 돌아오는데 제수를 마련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는 다른 집과 달리 끼니조차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옥수수 죽을 끓여 급식을 했다. 용기를 내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마침 담임선생님은 부친의 친구였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을 테니 그 남은 것을 주시면 집에서 동생들과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은 그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옥수수를 주면 가지고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생들과 나누어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때 학교에서 일하는 분

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때는 쌀 몇 가마 얻은 것보다 더 좋았다. 빵을 만들어 동생들과 배부르게 먹고 명절을 보냈다.

귀인을 만나다

자고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했다. 자전거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받아 팔 수 있었다. 사실 대률초등학교 4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었다. 집에서는 책보를 가지고 나섰지만 책보를 숨겨두고 예산으로 달려가 아이스께끼 장사를 했던 것이다. 부친에게 발각되어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서야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어린 나이지만 돈에 일찍 눈이 떴던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아이스께끼 장사를 했다. 돈을 벌어 동생들은 진학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전과는 달리 장사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시골로 아이스께끼를 팔러 가지 못했다. 시골로 다니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구역 싸움까지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장사를 꾸준히 했지만 상시로 장사를 했던 사람들과는 사정이 달랐다. 각기 시골은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장사를 못 하고 읍내에서만 장사를 하다 보니 수입이 적었다.

구두를 닦는 것이 수입이 좋아 보였다. 예전에 농전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작정 찾아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2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다. 다방이나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손님 구두를 가져오고 또 닦은 구두를 돌려주는 일만 했다. 점심만 주고 급료도 없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선을 담았던 궤짝을 가져다 직접 구두 통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다. 구두 닦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구두통이 박살나고 혼만 나고 왔다. 하염없이 울었다. 여기서 멈추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만들어 들고 나갔다. 버스터미널 쪽으로는 갈 수 없어 본정통으로 갔다. 거기도 내내 두 사람이 구두를 닦고 있었다.

너 복을 토한다

농전 앞, 본정통은 이미 다름 사람들의 영업지역이라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사법대서

소를 하는 서○○씨를 만났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신는 부츠도 내주고 여러 켤레의 구두를 내주면서 닦으라고 했다.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왜 구두를 닦느냐고 물어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 놓았다. 그러면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구두를 닦게 했다.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해 주었다. 다음 날 다시 찾았을 때 경찰서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위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심부름할 사원이 필요해서 소개한 것이었다.

밤새워 고민했다. 지은 죄가 없는데 데려다가 어쩌려고 그러나, 경찰하면 이미지가 정겹게 여겨지지 않던 시절이라 선뜻 내키지 않았다. 결국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찾아가 말을 하자 복을 토하는 놈이라고 했다. 처지를 보아 취업 길을 열어주었는데 마다하였으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 취업은 없었던 일 되어 버렸다.

인분차와의 인연

경찰서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분차 일을 맡겼다. 마침 예산읍에서 인분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수세식이 별로 없고 죄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당시 18살이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었다. 면허 없이 인분차를 운전하지 못하니 보조로 거들라는 것이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했다. 막상 인분차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인분 냄새가 문제였다.

식당에 가서도 냄새, 집에 와서도 동생들이 인분 냄새가 난다고 달아났다. 1주일 넘게 인분 냄새로 고생을 했다. 그 후에 냄새에 익숙해지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 식당에 인분 작업을 가면 손님이나 주인도 도망가기 일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씨가 인분차를 맡아서 일을 하라고 했다. 뒤에서 보조를 하지 말고 전담해서 일을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이었다. 금전적인 문제는 투명하게 했다. 인분을 치우고 나면 노트에 기록하였다가 얼마 있으면 인분이 차서 치워야 하나를 계산해 놓았다. 특히 읍내서 손님이 많은 음식점은 치워야 할 주기가 빨랐다. 그 시기를 계산하여 전화를 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치워달라고 전화를 할 것이지만 알아서 연락을 하고 인분을

퍼주니 고마워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음식점은 새벽시간에 작업을 원했다. 왜냐하면 인분을 치면 서너 시간 냄새가 가시질 않는다. 새벽에 치우면 아침에는 냄새가 나지 않아 영업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다.

너 싹수가 있다 – 시장관리원

냄새가 나도 인분치우는 일은 재미있었다. 조금만 일찍 움직이면 여러 집을 치울 수 있고, 수고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월급이 다달이 잘 나왔다. 냄새가 나서 그렇지 뱃속 편한 일이었다.

서○○씨가 시장관리 일을 적극 추천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보증금으로 돈을 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하는 일을 보니까 싹수가 있어 그냥 하라는 것이었다. 인분 치우는 일은 매일하는 일이고, 시장관리 일은 5일마다 장이 열릴 때 하는 일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갑자기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된 것이다.

이력서를 써오라고 했다. 초등학교 다닌 놈이 쓸 것이 뭐 있다고 써오라는 지 답답했다. 인분차 일한 거, 아이스께끼 장사한 것 이외 쓸 것이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력서에 쓰겠느냐, 알아서 써 넣을 테니 그리 알라고 했다. 사실 이력서에 넣을 만한 일은 없었다.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이력으로 예산시장 시장관리인이 되었다.

10세 후반기에 시장관리인이 되다

그동안은 자릿세 없이 누구나 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았다. 그러나 보니 혼란스럽고 장이 파하고 끝난 뒤에도 청소를 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었다. 시장관리비를 관에서 받아서 시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자릿세를 받은 것이다. 10대 후반에 시장관리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자릿세를 받으니 곱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예 줄 생각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 이번 장은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음 장부터는 내야합니다 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미안해서라도 돈을 지불했다. 이것을 자릿세, 지세라고 불렀다. 정식명칭은 시장관리인인데 그냥 세금쟁이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장날이 되면 대술 신양, 대흥, 오가 사람들이 모두 장에 나왔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촌에서 장에 나온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지 않지만 생선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4, 5시에 일을 마치고 가기 때문에 자릿세를 받으려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다. 일을 마친 뒤에 곧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자릿세를 받지 못했다.

가을에 고추가 많이 나왔다. 주로 대술과 신양에서 고추 생산이 많았다. 마을 주민이 경운기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고추를 싣고 오는데 경운기 1대당 20, 30포대 정도 싣고 온다. 야박하게 모두 헤아려 몇 개니까 얼마다 하면 곤란해진다. 경운기 주인도 마을 사람들에게서 운임 비를 받고 있지만 따박따박 헤아려 받아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냥 돈만 받아 넣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영수증을 써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인심이 훈훈해 진다. 조금이라도 깎아서 내야하는데 알아서 좀 내려주니 손님도 좋고, 부득불 내라고 얼굴 붉히지 않고도 돈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받았으니 징수하는 쪽에서도 좋은 일이었다. 그러면 술 한 잔이 돌아온다. 막걸리 한 잔으로 모두 즐거우면 그만이지 싶었다.

인정으로 사는 거지 뭐

누구나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장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징수원, 세금쟁이, 지세 받는 사람, 관리장, 관리원 등으로 불렸지만 좋아할 사람은 없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내주는 사람은 없다.

그냥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일도 많다. 분명히 물건을 놓고 팔았는데 물건이 없다고 한다. 관리인이 지세 받으러 오자 크게 만들어진 치마로 물건을 덮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면 물건이 없다. 치마 밑으로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치마를 걷어치우고 내라고 해보았자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이럴 때는 알면서도 눈감아 준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먼저 아는 체하고 그날의 자릿세를 선뜻 내어 준다.

친구 어머니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 친구 어머니라고 해서 받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눈치가 빤한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선 자릿세를 받는다. 그리고 잔돈을 준다면서 친구 어머니가 건넨 돈을 다시 돌려준다. 옆에서 보기에 분명히 자릿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친구 어머니는 알았다고 살짝 눈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렇게 살았다.

건드리지 마

시장관리인을 하면서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인분차는 1년에 한 번씩 입찰에 붙였다. 여러 단체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입찰 형식을 거쳐야 했다. 서○○씨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입찰에 응하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만약에 입찰에 응하면 그냥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희망원을 만들어 예산이 깨끗하고 좋아졌지 않느냐, 만약에 입찰에 응하면 소위 희망원 사람들을 풀겠다고 했다. 당시 희망원은 80여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었다. 대바구니를 지고 다니면서 파지나 병, 쇠 등을 수집했다. 그날 수집한 것은 대회리에서 분리 작업을 했는데. 여자들이나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했다. 그들은 합숙생활을 했다. 각양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력도 다양했다. 심지어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었다. 희망원 사람들은 좀 거칠었다. 이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그 어떠한 일도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뒤에서 돌보아준 사람이 서○○씨다. 더 이상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예산시장관리인만 하겠다고 했다. 인분차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염쟁이 – 84년 염사자격증취득

19살 때 부친이 44세로 작고하셨다. 겨울이면 노름판으로 전전하셨던 아버지는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슬하에 7남매, 어머니, 할머니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염을 하여야겠는데 마침 아버지 친구 분이 계서서 부탁을 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였다. 돈이 없는 집안이라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다. 간경화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피를 많이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재차 부탁하여 알려만 주신다면 손수 하겠다는 다짐을 듣고서야 응해주셨다. 겨우 염은 했는데 장지를 구하지 못했다. 마을 이장을 보시는 분이 선뜻 자기 소유의 산을 장지로 주어서 아버지는 모셨다. 아버지 장례를 치루고 나서 염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1984년 대전에 가서 염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예산 중앙병원에서 일했다. 장례식장에는 자격을 가진 염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일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13년간 병원에서 염사로 일했다. 고인이 연세가 있고 자녀가 많으면 그래도 수고비를 받는데 꺼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의 경우 수고비를 주어 받았지만 그냥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 이 일로 세상은 베풀어야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뷰어_ 박광수>

예산군
예산 상인 이야기

이 한 용 (1954년생)
예산군 예산읍 대회서길

예산시장이야기 - 시장관리인(2)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신을 모시다

부인 김 보살이 신을 모신 것은 24년 되었고, 김 보살이 신을 모신 3년 후에 부인 김 보살을 통해 본인 또한 신을 모시게 되었다. 부인 김 보살이 신을 받은 후 전국으로 소문이 나 손님이 많았다.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뒷바라지하기 바빴다. 3년째 되던 해 신의 투격이 시작되었다. 부인 김 보살이 혼자만 하려고 했는데 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보살을 장모님 신을 받았고, 남편은 전주 이 씨로 또한 조상신이 집혔다고 했다. 두 집안 신이 투격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신 내림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려 먹더라도 명패라도 주고 부려 먹어야 한다며 계룡산에서 1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신을 모시기 시작했다.

한 공간에서 신을 모시게 되었는데 오른쪽에서는 전주이씨 본인의 신당을 차리고, 왼쪽은 김해김씨 김 보살의 신당을 차렸다. 신의 투격이 가라앉지 않아 아산 도고에서 간판을 걸고 일을 하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제야 투격이 가라앉았다. 부인은 약사도사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손님들 병을 고쳐주고, 본인은 지리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집터, 산소 터, 택일 등을 보게 되었다.

자네가 10년은 대회리 앞당겨 놓았어 – 18년 째 이장

54살에 대회리 이장이 되었다. 이장을 하라고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다. 멀리 기도를 가면 며칠간 기도를 하고 와야 하는데, 더군다나 기도가 언제 끝이 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을 일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고사를 했다.

집에서 굿을 하고나면 과일이나 떡이 많이 나온다. 집에서 소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계신 곳에 가져다 드렸다.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계시면 술하고 고기하고 가져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다. 동네서 단풍놀이나 어디 관광여행을 가면 음료수나 고기도 좀 드리고, 돈 좀 보태서 즐겁게 놀고 오시라고 했다. 마을에 인심을 썼더니만 그것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장을 해야 된다고 성화였다.

극구 사양하다가 결국은 이장을 승낙했다. 그때가 2007년도로 기억한다. 3년씩 여섯 번 연임하여 18년간 마을 이장을 보고 있다.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끝까지 추진하는 버릇이 있다. 형제고개에 가로등이 없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관할구역 사람들이 아니

더라도 사고가 나면 관할 내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따져 물어 결국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이전의 이장들은 자기 일에만 적극적이고 마을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장을 하면서 뭔가 마을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장을 또 하라고 추천했다. 대회리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극찬을 했다.

부녀회장의 이장 출마

마을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더 많다. 이웃 간의 갈등은 참으로 중재하기 어렵다. 특히나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좀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 개가 짖는다고 돌을 던져 이웃집 장독을 깨지를 않나, 마을 어른에게 인사도 하지도 않았다. 마침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 마을 골목을 포장하게 되었다. 사건은 버릇없이 군 그 사람의 집까지 공사를 하려면 중간에 경유하는 땅 소유주의 승낙서가 있어야 했다. 수모를 당한 그분은 옳다구나 하고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구간만 빼고 공사가 완료되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와서 항의를 하는 데 자기내 집까지 왜 포장을 안 해 주느냐는 것이었다.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장, 이장하면서 아랫사람 부리듯 했다. 승낙서만 받아오면 내일 당장 공사 시작할 수 있다고 일러주고 돌려보냈다. 아직까지 그 구간은 포장이 되지 않았다.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여자가 차기 이장에 나오겠다고 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괘씸하기도 했지만 친구 부인이고, 또 이장을 더하고 싶어서 말리나 하는 오해를 받을까 하여 참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부득불 이장에 출마하여야겠다고 했다. 이장을 하고 싶으면 현 이장임기도 6개월이나 남았고, 현 이장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장을 내놓고 부녀회장에게 위임해서 이장을 뽑으면 모양새가 좋을 것이 아니냐고 달래 보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었다. 투표로 맞대결해도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찍어준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속 좁은 생각인줄을 모르고 있었다.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데 야박하게 당신 안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투표로 이장을 뽑기로 했다.

2022년 11월 16일 공고를 붙이고 사류를 접수하고, 드디어 11월 24일 투표를 했다. 결과는 160여 표를 얻어 다시 이장을 하게 되었다. 부녀회장도 40여 장이 나왔다. 열댓 표나

나올라나 했는데 40여 표가 나와 의외였다. 이기긴 했지만 씁쓸했다. 부녀회장의 손을 잡고 한마디 했다. 마을을 위해 이장에 출마했으니 앞으로 잘 협조해서 일해 봅시다. 부녀회장은 울고불고 하면서 믿을 놈, 믿을 년 하나도 없다는 말을 내뱉었다. 투표라는 것이 잘못하면 동네를 이원화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나 다시 이장이 된 이상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겠기에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내고 1년 동안 잘 지내왔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야겠고 현재는 지은 지 오래되어 낡은 경로당을 다시 짓고 있다.

대회리는 대학촌

현재 해미에 있는 한서대가 본래는 대회리에 들어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대학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 땅값이 급등했다. 당시 땅값이 3, 4만원 정도였는데 10몇 만원으로 올라 버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시 수철리로 대학교 부지가 거론되었다. 수철리도 대회리와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올라 버리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한서대 자리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결국은 한서대 유치를 못했다. 예산 농전이 공주대로 편입되면서 공주산업대로 학교명을 바꾸고 현재의 대회리로 옮겨오게 되었다. 현 공주대산업대 자리는 산비탈로 매우 척박한 곳이었다. 대부분 천수답으로 농사 짓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간신히 물을 퍼서 모내기를 하는 정도였다. 당시 공시지가가 3만 원도 채 안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약간 올려 4, 5만원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땅 소유자들은 흔쾌히 땅을 내놓았다. 게다가 인가도 없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교 부지로 결정되었다.

애초에 한서대가 대학 부지를 정할 때는 현 공주산업대 자리는 거론 되지도 않았다. 진입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읍내 앞쪽으로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접근하기가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소로만 있어서 대학부지로 고려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장마다 세를 받았다

예산뿐만 아니라 덕산이나 삽교도 장세를 받았다. 광시의 경우는 장의 규모가 작아서 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시장관리인이 있어서 징수한 것은 아니고 면에서 관

리하면서 면 직원들이 나가서 받았다고는 한다. 그러나 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세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위임해서 일을 시켰던 것인데 워낙 장세가 약하다 보니 광시의 경우는 장세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예산 우시장을 소전이라고 흔히 불렀는데 예산의 소전은 매우 컸었다. 소전은 시장관리인 소관이 아니라서 장세를 받지 않았다. 소 주인과 소를 산 사람이 흥정이 끝고 매매가 성립되면 매매증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세를 받지 않았다. 본래 소전은 축협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시장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우시장, 소전 옆에는 마방이 있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소는 소전에 도착하면 여물을 사서 먹였다. 배고픈 소를 위해 여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뱃구레가 들어가 있으면 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배가 좀 두둑하게 나온 소가 건강해 보여 소 가격 흥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장수가 일부러 소의 배를 크게 보이려 강제로 풀이나 물 등을 많이 먹이는 것을 '각통질'이라고 하였다. 자칫 강제로 여물을 많이 먹인 소가 되새김질을 못하여 죽는 경우도 있었다.

소에게 여물을 사서 먹일 수 있는 마방이 있었다. 마방에서는 여물, 쌀겨, 콩깍지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한 마리에 얼마씩 받고 소에게 먹이를 주었다. 소전 주위에는 국밥집이 있었다. 소머리국밥집으로 알려졌지만 예전에는 소머리국밥이 아니라 선짓국이었다.

소전, 선짓국의 추억

예산시장에서 형제고개로 가는 길 좌측 옆에 도축장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소와 돼지를 도축했지만 주로 소를 도축하는 곳이었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선지는 바케스로 2개 정도였다. 선지는 버려졌다. 도축장에서 버린 소의 피가 가까운 하천으로 흘러 내려 언제나 붉은 색 핏빛의 하천물이 흘렀다.

도축하자마자 바케스에 받은 선지에 소금을 넣어 굳지 않게 했다. 도축장에서 소전으로 선지를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선지에 시래기를 넣고, 소 잡 뼈를 끓여 국밥을 만들어 팔았다. 일단 큰 가마솥에 선지와 시래기를 넣고 장작을 때면서 팔팔 끓였다. 그 옆에 작은

솥 여러 개를 걸고 옮겨서 손님에게 주었다. 큰 가마 속에는 하루 종일 먹음직스럽게 선짓국이 끓고 있었다. 일찍 장에 오느라고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하고 온 사람들은 큰 대접에 막걸리 한잔 가득 부어 마시고 선짓국 한 사발을 먹으면 요기가 거뜬하게 되었다. 선짓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대로 선짓국 밥이 되는 것이다.

소를 팔러 올 때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소를 몰고 올 때도 혼자 끌고 오기도 어렵지만 매매가 이루어지면 큰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소전 주변에는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성한 아들을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아들에게 소판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선짓국 밥을 한 그릇 먹었다. 소전에서 먹었던 선짓국 밥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음식이 된다. 목돈이 생겼다는 흐뭇한 마음에 막걸리를 마시는데 다른 때보다 술 인심이 좋다.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서로 권하고 받고 하다가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와서 막걸리를 마시다가는 자칫 소를 판돈을 몽탕 탈취당하는 수가 있다. 집에서는 장에 소를 팔러 갔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돌아오기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린다. 사람을 딸려 보냈다면 그래도 안심이 된다.

전대 큰 것 찬 사람은 소 장사

소전의 거래는 현금만 고집했다.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일을 보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대라는 돈주머니를 앞에 차고 다녔다. 소전에서는 오로지 현금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전은 일찍 새벽에 개장한다. 조명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면 속임을 당할 수 있었다. 가짜 수표, 위조 된 수표가 소전에 많이 돌았다. 소전이라는 공간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표의 진위를 감별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오로지 현금으로 만 거래를 했다.

시골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는 소였다.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마리를 키울 수는 없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사료이지만 예전에는 오로지 짚이나 풀, 나뭇잎 등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모두 인력으로 채취해야 하는 것이어서 여러 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소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의 소를 얻어 길렀다. 이것을 배냇소라고

하였다. 송아지를 사주면 잘 길러 새끼를 내어 소를 사준 원주인과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 방법은 지방에 따라, 계약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새끼소는 자신이 가지고 어미 소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새끼소를 팔아 반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었다. 어쨌거나 몇 달만 소에게 공을 들이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배냇소였다.

소의 체중을 잘라 먹는 사람들

소는 체중을 달아 거래된다. 정성껏 보살펴서 잘 먹인 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 소전에서만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소 장사는 소를 키우는 집으로 찾아가서 거래를 한다. 소전에 나오지 않고 거래를 하려면 체중을 알아야 하는데 계량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눈대중으로 무게를 결정한다. 소 주인은 소의 체중을 더 올려야 하겠고 소 장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 내리려고 한다.

소장사가 한번 소를 보러 들어간다. 400킬로가 넘는 소라면 처음에 370 내지 380킬로로 본다. 그러면 주인은 뭔 소리냐, 400킬로가 넘게 생겼는데, 소 장사는 '그거 뭐 그 사람한테 팔아, 370킬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00킬로로 보면 그 사람한테 얼른 팔라고, 우리도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소 장사는 자기가 잘 아는 소장사를 들여보낸다. 그 사람은 390킬로까지는 본다. 그러면 소주인은 이놈은 그나마 양심있는 놈으로 생각한다. 먼저 370 내지 380으로 본 소장사보다 조금 높게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소장사도 그냥 가버린다. 소주인은 돈은 급한데 소를 보고 간 소 장사는 연락이 없다. 기다리다가 두 번째 들어 온 소 장사에게 연락하여 소를 390킬로에 판다. 소장사는 그 소를 소전에 가지고 나와서 달아서 판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소장사와 소의 무게를 잘라내 남긴 돈은 나누어 가진다.

뒤에서 미는 놈 – 쓰리 꾼

장에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 물건이 매매되면서 오고 가는 것이 돈이고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 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소리 내며 뒤에서 미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남의 돈을 노리는 쓰리 꾼이 분명하다. 그들은 두 명 내지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인다.

돈을 어디에 갈무리하나 살피고 있다가 작전을 개시한다. 앞에서 한 사람이 진로를 방해하고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큰소리로 다그친다. 뒤에서 미는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돈이나 물건을 빼낸다. 그리고 얼른 뒤따라오는 같은 패거리에게 물건을 전한다. 물건을 받은 사람은 재빨리 그 자리를 뜬다. 뭔가 이상하여 뒤에서 민 사람을 의심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특히 명절을 앞둔 대목 장날은 사람들이 모두 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쓰리 꾼들도 이날이 대목이다. 명절을 쉬기 위해 장흥정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의 단위가 크다.

예산 장에선 소매치기, 쓰리 꾼이라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였다. 오랫동안 시장을 관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쓰리 꾼들을 색출해 몰아냈기 때문이다.

<인터뷰어_ 박광수>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태안의 6·25 전쟁-이원면 874
태안의 6·25 전쟁-이원면 879
태안의 6·25 전쟁-소원면 884
태안의 6·25 전쟁-근흥면 889
태안의 6·25 전쟁-태안읍 895
태안의 6·25 전쟁-태안읍 900
태안의 6·25 전쟁-남면 905
태안의 6·25 전쟁-남면 911
태안의 6·25 전쟁-안면읍 917
태안의 6·25 전쟁-원북면 922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이 재 필 (1935년생)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태안의 6·25전쟁 – 이원면



어린 시절과 학교생활

이재필 씨는 아버지 이형범(함평 이씨)과 어머니 심하지의 슬하에 4남 2녀 중에 넷째(아들 중에서는 3남)로 태어났으며 부인 안명수와 사이에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다.

이원에 정착한 것은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당진에서 금광을 운영하다가 태안의 환동부자(이○○ 가문)에게 팔고 이원면에 이사 와서 그 집안 농장을 관리하는 마름 일을 보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구술자의 나이는 3살이었다.

초등학교는 이북초등학교(이원면 소재)를 졸업하고 외갓집이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동양중학교와 동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당시 중학교는 6년제였으며 3년 이상을 다니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해방되던 해는 11살이었고 6·25전쟁이 일어난 때는 16세였다.

일제강점기 논 1마지기에서 벼 1섬(2가마) 정도 수확되었으며 소작인은 토지주와 5:5로 소작료를 냈다. 일제강점기 쌀의 수탈을 목적으로 농사를 개량해서 식량 증산을 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사 지도원을 두고 줄 모 방식을 도입해 벼의 생산량을 높이고, 모심는 기간, 목화·콩 심는 기간, 배토와 비료 주는 시기, 풀 매는 시간까지 지도했다. 그 이전 우리나라의 벼 재배 방식은 산식(흩어 심기)모를 심는 방식이었다.

해방 후에는 가뭄이 지속되어 굶주림으로 부황이 나서 얼굴이나 몸이 부은 사람이 마을에 많았다.

한국은 해방 이후 1948년도 정부수립을 하고 5·10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 4.3사건이 발생하고 국군이 창설되기 이전에 경비대가 여수에 모여 훈련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진압명령을 거부하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진압되는 과정에서 4.3사건의 주요 핵심 인사는 북한으로 도주하고 국내의 공산당이 도태되었다.

6.25 전쟁의 발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호외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1] 남로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나 좌익 인사의 교화를 위해 1949년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에는 대부분 지식인이 많이 가입했으며 생활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벼 한 가마니는 1원으로 기억하며 구술자는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8.15 해방이 되고 중학교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바로 위 형님(2남 이△△)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으로 피난 왔다.

당시 아버지는 마름 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일꾼을 3~4명 정도 부리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일꾼을 머슴이라고 불렀는데 품삯은 1년을 기준으로 일을 잘하는 상머슴은 벼 15섬, 중 머슴은 13섬, 11섬, 하 머슴은 9섬, 7섬의 품삯을 받고 옷도 3벌 정도 해주고 버선도 제공하고 숙식도 해결해 주었다. 숙식하는 과정에서 저녁에는 볏짚 일을 하기도 했다.

6.25전쟁이 시작되면서 좌·우익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서울에 있을 때 휴전선과 가까웠기 때문에 포성을 듣고 알 수 있었다.

이원면에서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인민위원회와 위원장도 있었다. 남로당 전체는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주로 지식인들이 많았다.

전쟁 직전에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으로 관리되던 사람들이 백화산 한티재에서 학살당했는데 이원에서도 10여 명이 좌익으로 끌려가 학살당했다. 당시 주민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나 경찰의 시책으로 모두 학살되었다. 그래서 인민군 치하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우익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인민재판을 하고 살해하면서 좌·우의 감정 대립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다. 특히, 태안군에서는 소원면, 이북면(이원면)이 더 심했는데, 연계된 주동 인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쟁 전에 경비대에 지원해서 입대한 사람이 이원에서도 5~6명 정도 있었고, 전쟁 중에 인민군 의용대를 지원해서 갔다가 패퇴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5~6명 되었다. 이 사람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귀화자(반공포로)로 분류되어 다시 국군으로 입대한 사람도 있고 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

인민군 주둔 당시 상황

1) 서울에서의 상황 설명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땅이 없던 사람들과 지주간의 갈등이 심화하기도 하였으나 인민군 치하의 기간이 길지 않아 큰 마찰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러나 마름으로 있던 아버지가 위협을 느껴 미리 피신했는데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않았기에 여러 사람이 숨겨 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숨어 있을 때 서울에서 같이 피난 온 둘째 형은 밖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민위원회에 조금 다녔는데 수복 후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다. 또한 형과 같이 학교에 다녔던 2명의 학생은 의용군에 갔다 온 전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성이 구 씨라는 것만 기억난다.

당시 마을에는 인민군이 들어오자 후원회가 조직되어 밥과 반찬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우익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유지들이 앞장섰다. 지역에서 살기 위해 군경이 들어 왔을 때도 후원하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도 후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인민군들이 패퇴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학살하고 갔다.

인민군 1개 소대가 들어 온 이후 아군이 민어도에 상륙해서 집 3채를 전소시킨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민어도에서 살걸루[2]를 타고 배 주인이 들어오자, 인민군은 아군 상륙으로 오해해서 태안에 있던 인민군 중대가 밤에 계속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

만 15세 이상은 부역 명령을 내려 복구대(참호, 방공호)를 파게 시켰는데, 인민군이 개인별 일정 구간을 정해서 작업을 완료하도록 부역자 할당 책임제를 시켰으며 여성연맹위원장에게 보리쌀을 줘서 밥을 지원하도록 했다. 참호를 파는 일은 동네 사람 120여 명이 동원되어 주로 밤에 작업이 이루어졌다.

선갑도에 상륙한 부대에서 경비정(미국, 국군)이 다가오자, 인민군은 미리 능선으로 올라가서 대피하고 배가 가까워지자 호루라기를 불어 동원된 부역자를 능선으로 대피시켰다.

내리 후망산에 흙으로 쌓은 돈대가 설치되었고, 산봉우리에 인민군 포대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포격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을 향해 사격하지 않고 포탄이 산을 넘어 가로림만에 떨어지도록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알고 겁을 주

2) 어살에 잡힌 물고기를 건져오는 작은 배

기 위한 사격이었다고 구술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인민군은 마을 생활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주로 지역 책임자가 관여해서 마을 일을 보았다. 지식인은 뒤에서 조정하고 노동자 계층이 앞장서서 대창을 들고 다니면서 마을을 관리했다.

함포 사격이 있고 난 뒤에 인민군은 20여 일 머물고 후퇴했는데 인민군 주둔 당시 우익이었던 방○○이라는 사람이 인민재판을 받고 오는 중에 좌익 세력에 의해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현재 좌우익에 대한 반감을 사라졌지만, 당시 사상적으로 갈등이 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했다. 당시에 방 씨(우익)와 장 씨(좌익)간의 집안 갈등이 마을 대립의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휴전협정 후에는 그와 관련된 내색을 하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전쟁 전후의 마을 생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피난민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그들은 인천을 왕래하면서 곡물, 계란 장사 등을 해서 소득이 높았으나 집단으로 정착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주하고 나중에 10여 명만 정착했다.

안면도 지역에는 피난민이 많았는데 당시 안면도에는 수박이 유명했으며 도끼, 삽, 톱만 있으면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환경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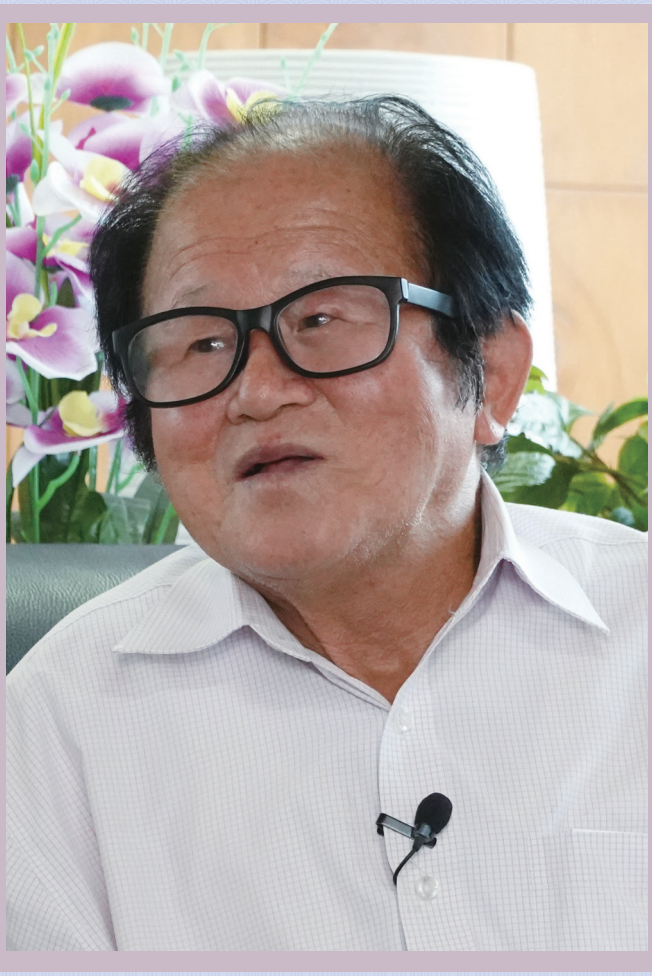
6·25전쟁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인심을 잃지 말자'라는 교훈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한 원 석 (1937년생)
태안군 이원면 발전로

태안의 6·25전쟁 – 이원면



6 · 25전쟁 전 생활상

한원석 씨는 1937년생으로 이원면 관리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해방 당시 구술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전교생이 650명 정도 되는 이원국민학교를 다녔다. 해방 전 학교 다닐 때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일본천황패가 있는 다이마호시데로 가 계단 중간에서 만세와 절을 하고 내려왔다. 8·15 해방이 된 후 마을에서 두레[3]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논매고 밭매고 동네잔치도 하면서 5년간은 마을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6·25전쟁 일어나기 두 달 전 4월 10일, 구술자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였고 12살 차이 나는 큰형님은 서울 사범대학 입학, 둘째 형은 인천 동산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집안 사정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논은 3천 평 정도 지었고 할아버지께서 인천으로 다니며 부식을 파는 상업을 하셔서 생활에 여유가 있었다. 당시 농군들 하루 품삯이 됫박으로 쌀 두 되, 상머슴은 1년에 벼 두 섬이었다. 의복은 베옷으로 너무 하얘서 때가 금방 탈까 봐 사람들은 봉지에 담아 파는 물감으로 물들이거나 산에서 왕가랑 잎(떡갈나무 잎)을 가져다 찧어 불그스름한 황토색으로 물들여 입었다.

전쟁 전 좌익활동과 개전 소식

개전 전에 마을에 좌익사상을 지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로당 가입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대략 20여 명의 도장을 받아 갔다. 이들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전형무소로 붙잡혀 가고 소식이 끊겼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없던 그때 구술자는 개전 소식을 연락선을 타고 내리로 피난 온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다. 인천에 살던 친척들도 전쟁 나서 못 살게 되었다고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

경찰이 후퇴하면서 이원면민 10명 정도를 끌고 가 학살하였으며 그중 관리 사람은 좌익

3) 농민들이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

주도자 3명만 끌려갔다. 이후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그 유가족과 좌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안대[4]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좌지우지하였고 인민군들이 이원 파금봉[5]에 주둔하였다. 15살이던 구술자는 친구들과 파금봉에 가서 인민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섭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등도 토닥여 주며 친절하게 대해줬었다는 기억을 전해주며 인민군들은 마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없고 파금봉에서 정찰하면서 바닷가에 해군 군함이 다가오면 총 쏘는 정도로만 움직였다고 한다. 좌익세력은 집마다 농산물 수확량을 조사하였다. 수수, 벼, 보리 알갱이 하나하나 훑으면서 몇 평에 몇 되 나오는지까지 조사하였고 대장이었던 내리 전○○은 면민들과 원만하게 지냈으나 밑에 있던 대원들은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대원들은 주로 농군들이거나 부잣집 머슴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때 머슴 살던 설움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구술했다. 원한으로 죽은 사람이 또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소방대였던 사람이 '나라에 바쳐라.' 하면서 양복 입고 집마다 조사하여 공출하러 다녔고 그 원한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원면 옹동벗 학살

수복 후, 경찰이 들어오고 의경과 함께 보복심으로 인민군점령기에 부역했던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끌고 가 이원면사무소 옆 양곡창고에 가두었다. 그들은 세 차례나 가두고 사살하였으며 그 인원이 총 8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역혐의자로 끌려간 사람들은 15일간 창고에 갇혀있다가 이원 포지리 옹동벗에서 총살당했다. 한원석 씨의 큰형과 매부도 희생당했는데 큰형은 의용군(강제로 끌려갔다 옴)이었다는 이유로, 매부는 면사무소 총무계장이었으나 빨갱이로 몰려 끌려갔다. 구술자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음력 9월 12일이라고 했다. 본인의 생일이었으며 그날 누님이 '야, 너 생일이고 뭐고 매부 시체 찾으러 가자.'라고 한 기억이 있다며 왜 어린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옹동벗에 가니 시체들이 새끼줄로 묶여있었다. 끊을 수가 없어서 누님은 앞치마를 벗어 시체 다리에 묶

4) 오래된 기억으로 인해 구술자는 '치안대'를 좌익으로 구술하였으나 자료를 살펴본바 '치안대'는 우익이며, 이후 구술에서 '치안대'로 설명한 부분은 '좌익세력'으로 바꿔 기록하겠다.

5) 이원면 관리에 있는 산봉우리. 옛날에 금을 파던 곳이라고 한다.

어 표시해 둔 뒤 매부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수습 후 사창(사직)고개에 묻었다. 1차는 사창(사직)고개, 매부와 큰형이 사망하신 2, 3차는 옹동벗에서 사달이 났다. 2차 이후에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학살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원면에서는 3차까지 학살을 저지른다. 그곳에서 살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 외재고개에 끌려가 거기서 총살당했다. 그 뒤로 3차 학살 때는 총살 후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죽음을 확인하였다며 구술자는 개탄하였다.

구술자와 마을 사람의 고초

초겨울이 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 몇 명을 뽑아 외재고개에서 입초를 서게 하였다. 구술자와 3살 위인 이웃 형과 함께 입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서 '빨갱이 새끼들 갖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산 위로 끌고 갔다. 뒤돌아 무릎을 꿇리고 언제 쏠라나 떨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쏘지 않고 일어나 내려오라고 하였다. 너희들 오늘 재수가 좋다며 따귀를 한 대씩 때리고는 빨리 가라고 보내주었다. 구술자는 그때 죽었을 거였는데 살았다고 회상했다. 경찰들의 악행은 계속되었다. 좌익활동한 가족들이라고 벌금을 물리게 하였고 구술자네도 땅을 팔아 밭 한 필지를 주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의 값이었다. 구술자는 참혹한 사건을 이어 말했다. 우익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인민군 점령 때 좌익세력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빈집에 가둬 몽둥이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구술자 당숙모도 당해서 걷지를 못했다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고 또, 삼대가 학살당한 사건도 있었다. 아들인 구○○씨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에 대해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 그 뒤 경찰이 들어오고 그 아들과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총살당하였다. 아들의 딱 한 번의 연설로 3대가 몰살당한 것이다.

이원면 16개 마을 중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마을이 있다. 사창 3구와 사창 1구 장작골인데 그곳은 좌, 우익 나누지 않고 서로 감싸주며 지냈다고 한다.

피난민 생활

이원면에도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대부분 정착민은 황해도 옹진사람들이고 서울, 인천에서 온 사람들은 수복 후 다시 고향으로 올라갔다. 이원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성공을 했다고 한다. 집마다 달걀을 얻어다 팔고 품팔이하면서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갔다. 어느 정도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서 마늘, 돼지 등을 사서 인천으로 팔러 다니면서 돈을 모아 논 몇 마지기로 재산을 불리고 나중에는 염전 4정을 샀다면서 대단하다고 구술했다. 또 다른 분은 인민군 포로병이었으나 북송이 안 되고 이원면에 정착하게 되었다. 집도 없으니 처음에는 이장댁 등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숙식하였고 이분도 품팔이로 돈을 모아 서울에 비누공장을 세워 성공했다고 한다.

6 · 25전쟁에 대한 구술자의 생각

마지막으로 구술자는 6·25전쟁에 대해 느낀 바를 구술했다. 70년 긴 세월이 지나니 감정이 씻겨 내려지더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람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대가 원망스럽다고 한숨을 쉬셨다. 또한, 남과 남 사이에 절대 원한을 두면 안 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상생하면서 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억울한 사건을 피부로 겪은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지 동 기 (1936년생)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태안의 6·25전쟁 – 소원면



소원면의 이주와 정착

태안읍 남문리에서 아버지 지경순(호적상 지춘선)과 어머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태안읍에서 31세까지 생활했다. 일제강점기에 아버지는 태안 소재지에서 쌀장사하였으며 형제자매는 9남매로 큰형님과 누님을 제외하고 본인 어머니 슬하에는 7남매이며 현재 94세의 누님이 생존해 계신다.

31세에 결혼하고 소원면 의항리에서 간척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원조받은 밀가루를 품삯으로 받으며 일했다. 당시 품삯은 20킬로그램에서 2~3킬로그램을 제외하고 18킬로그램 정도 받았으나 품삯이 적어서 일을 포기하고 소원면 야산에서 더덕, 방풍, 하수오 등을 캐서 말린 후 1주일에 한 번씩 홍성 조양문 앞에 있는 건재국(약초상)에 판매했다. 그때마다 쌀 1말에서 한 가마니까지 받을 수 있었다. 2년간 작업을 했는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당시 모심는 인건비의 3배 정도 수익이 났다.

바다에서 줄에다 포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굴 양식도 시도했으나, 당시 간척사업을 했던 망산 간척지(신덕리-의항리)가 완공되고 서서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슬하에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으며 30대 중반에 간척지에서 벼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목탄 버스를 타고 서산의 오남리 방앗간에 가서 벼 100가마니 값을 미리 받아 가져오기도 했다. 당시(1960년대 말~1970년대 초) 벼 1가마에 8,3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된 상황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2년 정도 다녔는데 일본어를 매우 잘했지만, 해방 후에 제대로 복학하지 못해서 배움이 짧았다. 큰형님은 북해도 탄광으로 5년간 징용을 가서 매달 일본 돈을 보내줘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일본 돈은 돈 냄새가 특히 많이 났다. 아버지가 해방 전에 52세로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본에서 돌아와 징용 가서 보내준 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가 중학교 옆 밭 2자리에 참외를 심었는데 대낮에도 여우가 참외를 파먹으러 내려오기도 했다. 해방 후에 모랭이재 넘어 원북 가는 길에 논 9마지가 있었는데 2~3년 후 형님이 4마지기를 팔았던 기억과 동·남문리 4개 마을의 똑똑한 청년들이 남로당에 가입했

는데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주장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그와 반대로 태안의 김○○이라는 사람이 서북청년단(5명)을 조직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운영하기도 했다. 남로당에 가입한 동·남문리 20여 명은 태안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부잣집 재산을 빼앗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모의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서북청년단(월남한 우익 청년단체) 5명과 남로당 20여 명의 청년이 싸움했는데 남로당이 져서 백화산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다. 그중에 이○○ 등은 경비대에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6.25 한국전쟁 이후 대한 청년단(단장 나○○)에 들어가서 감찰대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6 · 25 한국전쟁과 의용군에 끌려간 이야기

초등학교 졸업 후 본인이 16세 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해방 후 집의 나뭇간에 독을 묻고 벼 한 섬을 넣어 숨겨놓고 나뭇가지로 덮어서 감춰두었는데, 이웃 친구가 밀고해서 빼앗기기도 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 점령하에 친구들과 3명이 함께 냇가에서 놀던 중 인민군이 총을 메고 마을 책임자 2명은 죽창을 들고 지나갈 때 북한 애국가를 불렀다.

이후 친구 중에서 제일 큰 본인만 내무서에 잡혀 가서 갇혀있다가 또 잡혀 온 15명과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서산을 지나 공주 유구까지 끌려가는 도중에 새벽 동이 틀 무렵 제트기 4대가 하늘에서 기총사격했다. 그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산으로 도망갔다. 본인은 냇가 바위틈에 숨어 있었다. 아침에 주변이 조용해져서 논둑에 있던 농립을 쓰고 헌 삽을 둘러메고 농민으로 가장해서 예산 삽교까지 기찻길을 따라서 도망쳐 나와 삽교역까지 와서 밤에 인근의 큰어머니 댁에 가서 찬밥(보리밥)을 얻어먹고 하루 묵었다. 돌아오는 길에 덕산의 한 연못가 버드나무에서 가물치가 텀벙거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덕산 한티고개를 건너오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기에 그곳을 피해 산을 돌아 해미로 내려와 도비산을 보고 뛰어서 다시 백화산을 이정표로 삼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6 · 25 당시 사건과 사고

백○○라는 사람의 어머니(이△△ 씨 고모)가 이□□(이△△ 씨 할아버지)를 유다락에

숨겨 주었는데 백○○가 머슴 강○○을 시켜서 유다락에 숨어 있는 이□□ 씨를 살해하였다. 이후 수복이 된 후 경찰이 와서 백○○와 아들 2명(큰아들, 둘째 아들)을 현재 해양경찰서 자리의 공동묘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총살했다. 백○○는 아들 5형제와 딸 2자매를 두었는데 3남은 의용군으로 가서 인민군이 되고 이후 북한의 교사가 되었다고 들었으며 4남은 지동기(구술자)의 동창이고 5남은 남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형님이 6·25 이전에 안기리의 이성진 씨에게 돈을 빌려서 마차 사업을 할 때 조기, 포 등의 생선을 싣고 팔러 다녔는데 인민군 점령기에 영단 방앗간 창고에 갇혀서 동사했다. 셋째 형님은 호국 군인으로 태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훈련받고 25연대 온양부대에서 안동으로 토벌을 다녀오고 아산 평택 전투에 참여했다가 장딴지와 허벅지에 파편 상처를 입어 집으로 복귀했다.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 상처가 덧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름이 생겨서 파편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

작은형님도 여성 의경의 신고로 빨갱이라고 끌려가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는 이념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생긴 피해가 더 컸다.

매일 마을마다 나무를 잘라서 장작불을 피우고 보초를 세워서 산에 나무가 많이 없어졌다. 본인 가족도 태안초등학교 뒤 신사가 있던 곳의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솔잎과 솔가지로 겨울 땔감을 겨우 조달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6.25가 일어나던 해에는 가뭄이 심해서 마지기당 벼 2가마니도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식량난이 심각했으며 동네'자위대'(인민군 점령기 좌익)가 마을에서 소를 뺏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했다.

인근의 동력선은 안흥의 최부록 씨의 통통배 1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유복의 아들 이계순은 6·25 당시 소령으로 안동에 토벌하러 갔다가 중간에 습격당해서 같이 간 사람은 죽었고 이후 대령까지 진급해서 연대장으로 예편했다.

전쟁 직후에 작은 한티재에서 보도연맹 관련자 97명을 연행해서 총을 쏘고 휘발유 3드럼을 뿌리고 불을 질러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 가족들은 숯을 태워서 움직이는 목탄 버스를 타고 안면도 백사장에 모여 배 검사를 이유로 큰 배를 징발해서 피난을 갔다. 본인은 전쟁이 끝나고 경찰서 소사 일을 하였기에 비교적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인민군 점령 기간에는 공출을 위해 인민군이 들어와 콩꼬투리와 고추나무 개수까지 파

악하고 적었다. 인민군 주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였으며 성 뒤 이택령씨 머슴으로 있던 이▲▲라는 사람이 주인집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복귀하고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소산 아래에서 숨어 살았다고 한다.

남면에 살고 있던 둘째 매형은 19살에 16살의 누님과 결혼을 한 뒤 20살에 남로당 가입 도장을 찍어서 학살되었고 큰 매형 동생은 인민군 점령기 내무서에 근무했다고 좌익으로 몰려 근흥 용허리 다리 인근에서 죽임을 당했다.

경찰 수복 뒤에는 청년들이 마을 치안을 위해 '대한청년단', '민병대', '향토방위대'를 조직해서 훈련도 하고 보초도 섰다.

전쟁 후에 22~23세 때 경찰서 소사 일했는데 당시 월급이 1,500원이었으며 경찰은 1,700원, 경찰서장은 1,8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박 종 엽 (1940년생)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태안의 6·25전쟁 – 근흥면



공출과 가뭄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

박종엽 씨는 1940년생으로 근흥면 도황리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안흥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서산, 고등학교는 공주에서 다녔다. 6·25전쟁 당시 구술자는 안흥초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의 집안 형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려웠다. 일본인들의 수탈 정책으로 공출이 내려져 온갖 쇠붙이를 빼앗아 가는데 집안 수저까지도 남김없이 앗아갔다. 그래서 바다 인근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주워 온 조개껍데기로 숟가락을 대신하여 밥을 먹었고 또한, 항공유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집마다 할당량을 주어 송진(송탄유)을 공출하게 하였다. 관솔(송진이 얽혀있는 소나무 가지)을 20L짜리 페인트통에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꽉 채운 후 땅을 파서 다른 빈 통을 넣고 그 위에 관솔을 채운 통을 엎어놓는다. 엎어놓은 통 위로 흙을 살짝 바르고 왕겨(벼 겉껍질)로 주변을 덮어 하루 이상 불을 때면 얽혀있던 송진이 녹아 아래로 흐르게 하여 모았다.

안면도에서는 큰 소나무가 많아 톱으로 상처를 내어 송진을 뽑았는데 소나무가 작은 근흥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송탄유를 모았다고 한다. 당시 5~6살 어린 나이였던 그의 손에도 작두가 들려있었고 작업하다가 많이 다쳤다며 선명한 상흔을 보여주며 속상함을 내비쳤다. 거기다 개전(6·25전쟁) 때까지도 가뭄이 심해 흉년이었는데, 논에 물을 못 댈 정도로 가물어서 모를 옮겨심지 못해 모판에서 이삭이 날 정도였으며 말복 때까지도 못 심었다 한다.

옷은 여름에는 잠뱅이(삼베), 겨울에는 솜바지와 짚신을 신고 다녔다. 고무신은 귀했는데, 마을에 군산 만월표 고무신이 배급 나와 2켤레씩 받기도 했다. 다 받지는 못하고 경쟁이 치열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다. 박종엽 씨도 배급받은 적이 있는데 아껴 신기 위해 사람들 없을 땐 맨발로 다니고 사람들 볼 때만 신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일본인들이 신고 다닌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끼워 신는 조리가 있었는데 비슷한 형태로 볏짚으로 바닥을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끈을 양쪽으로 달아서 만들어 신었다. 우리말로 솔이라고 불렀다.

역마차를 통해 들은 개전소식

이렇게 대부분 마을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었을 당시, 마을에는 공동 분배로 빈부 격차

없이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마을의 학식과 견문이 있는 식자층들이 주로 사상을 접하였으며, 이후 식자층과 생활이 어렵던 사람들이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에 많이 가입하게 된다. 나라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들으며 알게 되었는데, 시골이라 신문이 많이 없었으며 있어도 한자로만 되어있어 학교 선생들도 읽기 어려워했다. 라디오는 당연히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마을에 한 집씩 있는 부잣집이 라디오를 사용했다. 집 대문 양쪽에 큰 대나무를 세워 가운데로 구리 동선을 모아 집안으로 안테나를 연결해 라디오를 틀었다. 나라 정세를 신문과 라디오로 접할 수 없었던 박종엽 씨와 대부분 사람은 전쟁(6·25) 소식을 당시 역마차를 운영했던 심원보 씨에 의해 알게 되었다. 심원보 씨는 안흥 신진항에서 태안읍내로 6명이 탈 수 있는 마차를 하루 2회 운행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일반사람들은 이용 못 하고 신진항에 밀수로 돈을 많이 번 졸부들이 주 고객이었다. 당시 왕복비용이 열(10) 식구의 일주일 식량값 정도였다.

그렇게 심원보 씨는 개전 다음 날(월요일) 역마차를 몰고 오다가 등교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학교 가지 말라. 난리 났다.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가지 마라.'라고 말해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라디오를 가진 부자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한 듯싶다.

구술자 가족의 고초

구술자 집안은 전쟁이 터지고 고초를 겪었다. 당시 그의 작은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 홍성경찰서의 보안주임으로 근무 중 전쟁이 터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낙동강으로 후퇴하여 그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했다. 미군합동작전으로 공도 세워 훈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수복 후 홍성으로 복귀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의 집안은 경찰 집안이라는 이유로, 보리밥이라도 먹고 살던 집안의 식량을 다 빼앗겼다. 그래도 평소 인심이 좋아서인지 마을 아주머니들이 보리, 밀 두 되박을 치마폭에 싸 와서 밤에 몰래 문 앞에 두고 갔다며 그는 인심을 잃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맷돌에 갈아 죽을 쒀서 수복될 때까지 할머니, 큰어머니, 어머니와 생활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큰아버지는 남면 울미섬으로 아버지는 가의도로 피신해 있었다.

북한 노래가 적힌 수첩으로 인한 한티재 사건 희생자

근흥면에는 동, 서쪽에 하나씩 방공호가 있는데 전쟁 전부터 인근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산을 팠고 전쟁 후에도 작업을 이어왔다. 방공호를 지휘 관리하던 안흥지서 경찰관 박○○ 씨가 있었는데 구술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박 경찰관은 마을주민 김○○ 씨가 본인 생일이라고 아침 식사에 초대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다. 김 씨는 함흥시 흥남비료공장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흥남선 철도가 막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1947년쯤에 태안으로 이주하신 분인데, 태안으로 오는 길에 인민군의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북한노래를 몇 곡 적어놓은 작은 수첩을 보여주며 위기를 잘 넘겨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수첩을 김 씨 집에서 아침 먹던 박 경찰관이 발견하고 '이 자식, 공산당은 말이 많다더니….'하며 한티재로 끌고 갔다. 그렇게 보도연맹 한티재 사건의 희생자가 된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구술하였다.

인민군점령기 선무공작대원의 활동

1950년 7월 경찰이 후퇴하고 인민군점령기 때 근흥면 마을에 인민군은 2~3명밖에 없었고 민심사상계도작전을 펼친 선무공작대원(함흥농대학생)이 활발히 활동했다. 그들은 개전 몇 년 전부터 훈련받았고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되었다. 인민군 점령으로 공무 자리가 비어있던 그때 마을주민을 인민위원장, 내무서장, 여맹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좌지우지하였으며 인민위원장은 보조원 한두 명을 데리고 마을을 돌며 벼 이삭, 수수 이삭을 집마다 세고 논 몇 마지기가 있는지 파악하여 추수 소득을 조사하였다. 박종엽 씨네는 반동분자 논이라고 아예 땅을 다 뺏겼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쇠창, 대창을 들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박종엽 씨의 집에도 쳐들어와 박△△(작은아버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나갈 때마다 집을 들쑤시며 없는 살림의 곡식을 죄다 뺏어가서 북한노래가 적힌 수첩을 들켜 죽은 그 집(김○○) 외양간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고 한다.

어렸던 그에게도 창을 들이밀며 안흥주재소에 가서 보초를 서라고 협박을 해 시키는 대로 맨몸으로 보초 서러도 많이 다녔다. 또한, 이들은 동네마다 10~16살 이하 남자아이들로 구성한 소년단을 조직하였다. 각 마을 소년단장을 데려다가 북한국가를 가르쳤으며 이를 배운 소년단장들은 매일 밤 마당이 넓은 집으로 아이들을 모아 노래를 알려줬다. 낮에

는 미군 비행기가 다니기 때문에 담뱃불도 못 붙이게 하였던 시기라 주로 밤에 집합시켰다. 구술자도 살기 위해 소년단에 가입해 밤마다 북한노래를 배워 불렀다.

탈영병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군이 수복하였을 때 근흥면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수복되자 주둔하던 인민군들이 다 도망을 갈 때 인민군 나갔던 김△△은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탈영하여 고향 태안으로 돌아와 본인을 의용군으로 보낸 면서기를 죽인다고 총을 들고 나타났다. 김△△은 죽림 간사지를 지나 안흥성안 북문 밖, 수납장(옛날 배에 소금 선적하던 곳을 일컬음)으로 향했다. 마침 그곳에 해군이 정찰차 상륙하였는데 정찰병이었던 이○○가 내리자마자 김△△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가의도에서 상륙작전으로 안내하기 위해 따라 나온 김□이 이를 보고 이○○를 일으키려고 하자 또 한 발을 쏘아 김□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해군들은 그런 김△△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하였고 그때 주변에 있던 20~30명의 주민도 희생당했다며 구술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난민정착사업소와 터진목

전쟁으로 인해 태안에도 피난민들이 많이 오갔는데, 근흥면에는 황해도와 옹진 사람들이 주로 피난을 왔다. 난민들이 많아지다 보니 휴전 무렵인 52년경에 지역에서는 난민정착사업소를 만들었다. 먼저 한 일은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부지는 현재 면소재지를 지나 불곡재라는 산등성 인근에 농협주유소가 있는데 그 일대를 정착촌 1통으로 40~50세대를 정착시켰다. 1통에서 안흥 쪽으로 더 들어가면 한주개발 가기 전에 사업소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곳이 2통 정착촌이다. 이곳도 50세대 정도가 정착했으며 다음 3통은 근흥면소재지에서 한 정거장 정도 가면 오리나무골이 있는데 그곳에 정착시켰다. 3통도 포화상태가 되자 정죽리 온내골에 4통을 조성하였다. 그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난민정착사업소는 도황리 쪽에서 물 건너 마금리를 잇는 제방 공사도 진행하였다.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어느 날 둑에 구멍이 나 물이 샜는데 너희가 밀가루(임금) 받아먹으면서 똑바로 일 안 하고 뒤로 빼돌려서 터진 것이니 너희가 막으라고 했으나 그들은 다 같이 공동으로 막자고 서로 미루다 구멍이 더 커져서 결국 둑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현

재까지도 그 상태이며 사람들은 그곳을 '터진목'이라 부른다. 구술자도 이 제방과 관련한 사연이 있다. 1965년, 그가 소원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섣달그믐에 새해 설을 쇠러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소원면 법산 2구 이장을 만나 '오늘 가면 천상 내년에 만날 텐데, 술 한잔하고 가'라고 하여 어두워질 동안 술잔을 기울이고 다시 길을 나서다가 1구 이장을 만나 또 술을 마시고 밤 11시쯤 되어 집에 가려고 원 둑(터진목)으로 건너가려는데 이상하게 물소리가 심하게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 라이터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위의 흙은 그대로 있고 밑에 부분이 뚫려 물이 새고 있었다. 그냥 지나갔더라면 빠져서 죽었을 거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산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연포 삼거리 가게에 다다랐을 때 새벽 4시가 되었고 박종엽 씨는 가게주인에게 '술 한 잔 주쇼.' 하며 작년에 출발해서 집에 가는데 2년째 간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다는 아찔하면서도 인정이 느껴지는 유쾌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6 · 25전쟁의 영향

마지막으로 구술자에게 6·25전쟁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질문했다. 전쟁으로 사람만 많이 죽었지, 이로울 게 조금도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딱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있다면 교통사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전쟁 전에는 쇠바퀴로 굴러가는 역마차, 달구지뿐이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대에서 폐기하기 어려운 트럭을 개조하여 타게 했다. 사람들은 타이어가 박힌 자동차를 타면서 교통 사정은 조금 편리해진 게 사실이라며 말씀을 마쳤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문 응 진 (1932년생)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태안의 6·25전쟁 - 태안읍



일제강점기 태안읍 반곡리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

태안읍 반곡리 649번지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28세에 한정순과 결혼하면서 분가 후 슬하에 4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결혼하고 분가한 집에서는 10년 정도 살았으며 38세에 현재 사는 본가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태안국민학교(태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태안중학교까지 마치고 농사일과 동네 총대 일을 보다가 6.25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이후 군대에 갔다 와서 당시 지방공무원 4급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 생활을 했다. 당시에는 태안 지역이 서산군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서산군 공무원으로 1961년 2월 10일부터 태안면사무소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1990년도에 정년으로 퇴임하고 시조를 배워 태안군 시조회와 시우회 회장도 8년 정도 하고 노인대학 학장도 2년간 했다.

6.25 전쟁과 마을 상황

일제강점기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되고 다음 해 졸업하게 되었는데, 일본식 교육을 받았기에 한글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몇 달을 더 배워 7월에 졸업했다. 졸업하고 마을 일을 보는 구장[6] 밑에서 총대[7]로 일했다.

구장이 마을의 대표 어른 노릇을 하고 총대를 맡은 본인은 다양한 마을 일을 봤다. 총대를 하다가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구술자가 살았던 마을에는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은 없었다. 다만 반곡리 2구는 좌익 쪽이 많았고 반곡리 1구는 우익 쪽이 많았다. 당시 총대를 보면서 모셨던 구장이 우익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우익의 성향을 따라갔다.그렇지만 좌우익에 대한 갈등은 심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우익 성향이었던 마을 사람들은 6.25 한국전쟁이 나고 인민군 치하가 되자 대부분 피난을 갔다. 당시 마을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했는데 가뭄이 심해서 논바닥이 다 말라서 단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으로 들어

6) 구장 : 지금의 이장이나 도시의 통장을 이르는 말로써 행정구역의 최말단 직책으로 일제 치하에 구장이라 불렀다고 함.

7) 총대 : 구장을 도와서 마을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가 숨었다가 나오기도 했다.

본인도 우익인 구장 밑에서 총대 일을 봤기 때문에 친척이 사는 인근의 소우지[8]로 피난을 가서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며 숨어 지냈는데, 본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좋아서 일을 시키기 위해 찾는다고 하기에 조용히 나와서 살았지만, 해코지당하지는 않았다.

총대 일을 볼 때 벼나 보리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구장은 1말~2말, 반장은 5되, 총대는 5되 정도 받고 일했다. 당시 새끼 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가정 형편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보리밥은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기에 몹시 어렵게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그냥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태안 읍내에 나가 보니 소가 끄는 달구지(수레)에 가마니로 덮여 실려가는 시체의 팔과 다리가 보였다. 피해자는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6.25 한국전쟁이 나면서 경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왔다.

태안 읍내가 아주 쓸쓸했으며 그때 겁이 나서 집에 돌아온 후 피난을 갔다가 어린애가 동네일을 잘 본다고 하여 불러 다시 동네로 들어와 잘 지냈다.

반곡1리에는 보도연맹과 관련되어 처형된 사람은 없었으나 반곡2리 사람 중 일부는 보도연맹으로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왕래도 하지 않았기에 그 집안에 대한 정보는 기억이 없다.

전쟁이 나고 바로 피난 갔다가 들어와 살다가 다시 1·4후퇴 때 이불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신양과 청양 쪽으로 피신하였지만 이틀 정도 지나서 다시 괜찮아졌다고 해서 마을로 돌아왔다. 피난 갈 때는 무작정 남쪽으로 피난 간다고 한 것이 신양이나 청양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다.

19살에 6.25전쟁을 겪었기에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태안국민학교에 모여 무조건 끌려가게 되었는데 1차 집결지인 서산농고에서 주먹밥에 새우젓을 넣어준 밥을 먹고 속이 좋지 않았다. 원래 위장이 약했던 탓도 있었지만, 배가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면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인솔자가 발길질하면서 집에나 가라고 해서 끌려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

8) 소곳(소구지) : 송암2리

었다. 그때 끌려갔으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속이 좋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러 뒹굴면서 더 엄살을 부린 까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의용군에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의용군으로 가서 죽은 사람들은 기억이 없지만, 경비대나 군인으로 간 사람은 일부 기억난다. 문○○ 씨나 문△△ 씨가 군대 가서 전사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잘 모른다.

인민군이 들어오고 자위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인민 위원장이라는 마을 책임자가 있어서 마을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인민 위원장은 2리 사람이라 누구인지 잘 모른다. 인민군 치하에서 소원 모항 쪽으로 부역을 나가 산의 능선을 따라 방공호를 파러 다녔는데 어떤 산인지 기억이 안 난다. 밤에 소원 모항 쪽과 염전 근방에 야간 보초를 나가기도 하고 모여서 무슨 회의한다고 해서 나가기도 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민군에 의한 마을 피해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하게 전쟁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 이후의 공직 생활

전쟁이 끝나고 7~8년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쟁 후 28세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1년 정도 뒤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1961년경에 태안면사무소로 처음 발령받아서 오게 되었다. 그때 면사무소는 대부분 임시직원이었기에 정식 시험에 합격한 본인은 재무계 차석으로 부임해서 세금(농지세,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 등) 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다. 계원은 주임과 차석, 그리고 임시직원 6명으로 총 8명이 일을 했으며 태안면사무소에는 40여 명이 근무하다가 5·16쿠데타가 나면서 다 퇴직시키고 11명이 남아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다 2명을 더 줄인다고 해서 선임자와 막내(본인)가 강제 사표수리가 되어 퇴직했지만 다시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재무계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호적계로 들어가서 병사 업무를 보기도 했는데 규정에 따라 고지식하게 업무를 봤다. 33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심한 가뭄의 어려움으로 행정이 어렵다는 원북면의 부면장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

었는데 '원북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물면 모를 심지 못해 곤혹을 치른다고 꺼리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발령받은 해부터 비가 자주 내려 물 걱정을 하지 않고 6년 동안 공직 생활하는데 큰 가뭄 피해 없이 부면장직을 수행하고 나왔는데 그 후로 또 원북면이 가물어서 후임자가 고생했다고 한다.

물이 부족한 원북면에 정부에서 관정을 뚫기 위해 심사가 나왔는데 감사반장이 아들과 친구라서 원북면에 관정을 파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관정을 파도 짠물이 계속 나와 실패하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두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퍼 올리는 방식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공직 생활 중에 개간 사업도 많이 했는데 무연분묘의 유골을 수습하고 화장하고 행정조치 하는 일들도 많았다. 그렇게 순조롭게 공직 생활하면서 훈장까지 받았다.

이후 공직 생활하다가 면장으로 나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5세 이상은 면장으로 발령하지 말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면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쉬운 맘을 달래기 위해서 시조를 배우게 되었다.

원북면이 시조로 유명했는데 경로당'인수원'에 시조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시간도 보내고 취미도 붙일 생각으로 다니면서 고성규 씨와 같이 시조를 했었다. 지금은 숨이 차서 잘 할 수 없지만, 당시 이주열 씨에게 시조를 배웠으며 그분과 전창용 씨라는 두 분이 원북에서 가장 잘했던 분이다. 이주열 씨와 전창용 씨에게 시조를 배워 전국 시조대회 특부상까지 받기도 했다.

시조 회원이 많을 때는 2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평천4리의 피난민 정착소

평천4리에 피난민 정착소가 있었는데 약 50호 정도가 이주해 왔다. 평천 4리는 원래 임야였지만 개간해서 그 사람들을 정착시켰는데, 사람들이 수년간 살다가 조금씩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당시 이주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조 한 종 (1925년생)
태안읍 상옥2리

태안의 6·25전쟁 – 태안읍



먹을 걱정 없이 평안했던 어린 시절

호적상 1925년으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호적을 1년 늦게 해서 실제 나이보다 적게 기록이 되었다. 아버지 조영호와 어머니 장인호 사이의 5남매(2남 3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20세에 아내 조복동과 결혼해서 슬하에 5남매(1남 4녀)를 두었으며 셋째딸이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가 세상을 떠나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했는데 21살에 해방이 되었고 6.25 전쟁 때 26세였다.

일제강점기 4학년 때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일본 글 배워서 뭐하냐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서당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데 형님과 누나들이 9살 때 아버지가 안 계신 틈에 학교에 보내서 다닐 수 있었다.

아버지와 형님이 석수 일을 하며 보령에서 돌을 가져다가 부잣집의 상석이나 망부석 등을 만들었다. 석물 1벌을 작업하면 벼가 20섬이나 되었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비교적 안정되어 식량을 걱정하거나 밥을 굶는 일은 없었다.

어머니가 46세에 본인을 낳아 형님하고 19살이나 차이가 났다. 동네는 7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17호 정도는 자급할 수 있는 정도의 가구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작해서 살림을 이어가고 5~6호 정도는 백화산에서 땔감을 구해 팔아 좁쌀이나 수수를 사서 죽을 쒀 먹는 형편이었다.

일제강점기 서당에 다닐 때 흥주사의 한 주지라고 하는 한문에 능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한문을 배웠다. 그 스님은 탱화를 그리러 다니던 분이라 그분이 일을 나가면 그 아들에게 배우기도 했다.

은행나무 주변으로 새순이 많이 돋아났다. 은행나무 순이 곱고 예쁘게 자라나서 7월이면 그 움 난 가지를 베어 부석 사람에게 팔기도 했다.

농사일은 매형이 대부분 해줬고 본인은 아버지와 형님이 일하고 오면 일한 것에 품삯을 계산했다.

좌익 활동가가 유난히 많았던 동네

정부에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입하면 안 잡

아간다고 해서 좌익 젊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다수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이 후퇴하면서 태안군민체육관 뒤 한 티재 고랑에서 학살했는데 동네 사람도 한 사람 죽었다. 손가락을 철삿줄로 묶어서 총을 쏴서 사살하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인민군 치하에서 본인도 좌익활동에 대한 권유가 있었지만, 형님이 일만 하러 다니면서 너는 집에서만 일하라고 못 하게 해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글씨를 잘 써서 자위대에 들어와서 부녀회장(여성연맹)을 하라고 했는데 애들 키우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고 한다.

인민군은 2명이 들어왔었는데 양말도 없이 광목을 찢어서 발에 두르고 총도 없이 허술한 군복만 입고 있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6.25전쟁으로 공산국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민군을 환영해주고 자위대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옷도 빨아 다림질해서 말려주고 잘 해주어 보냈다.

해방되고 나서 동네는 특히 공산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좌익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때 자위대장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제강점기 구장(이장)을 보던 사람 가족 6명을 모두 살해했다. 살해당한 가족은 구장의 아버지, 어머니, 구장, 구장 부인, 딸 1명, 아들 1명 등 여섯 식구였다.

당시 마을에 똑똑한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좌익운동을 했다고 마을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갇혀있다가 15일간 유치장 생활을 하고 나왔다. 중국에서 장사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글씨도 잘 쓰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인데 자위대에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자위대장이 죽인 것이다. 즉 자위대장이 구장을 보던 사람 여섯 식구를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같이 활동하던 사람도 똑똑해서 자신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읍장을 보았던 사람은 양대리로 끌려가 총살당했는데,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우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살했다. 양대리 바닷가에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시체를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 본인과 동네 사람들이 시체를 찾으러 가고 그의 아내가 옷 입은 것을 확인해서 시신을 찾아 상여로 모시고 왔다.

당시 우익이 후퇴할 때는 양대리에서 여덟 사람이 죽었고, 1·4후퇴 때는 자위대에 가담한 사람 23명을 경찰이 끌고 가 소원, 근흥 쪽에서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

이 많이 죽어 마을에 큰 공백이 생겼고 전쟁이 끝나고 자녀들 간의 갈등은 없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립 상황 같은 것은 없었다.

1·4후퇴 때 쌀을 짊어지고 부여까지 피난을 갔었는데 쌀이 떨어져 소를 잡아 고기도 먹고 쌀과 바꿔 먹기도 했지만 결국 먹을 것이 부족해져 피난을 함께 갔던 5명의 친구 중 3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이장이 경찰에서 잡으러 올 테니 다시 나가라고 해서 다시 쌀을 메고 부여까지 가서 얼음 위로 강을 건너기도 했다. 당시 얼음을 깨고 운행하던 나룻배가 있었으나 타지는 못하고 얼음 위로 겨우 걸어 건너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물에나 빠져 죽으라고 고함쳐서 시비도 있었다.

그때 20세~45세 정도 되는 남자들만 주로 피난을 갔으며 방 한 칸을 얻으면 30여 명이 포개서 함께 자기도 했고 고향에 일찍 돌아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전쟁 당시 2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다. 해방이 되고 73세의 노인이 마을 이장을 볼 때, 초등학교 졸업해서 글도 쓰고 하니까 리 서기, 총대 일을 맡겼다. 형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네에서 심부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리 서기 일을 봤기에 병사계를 보던 장 서기라는 사람이 군대 영장이 나오면 계속 연기를 시켜서 28세까지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서기가 그만두자 28세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28세에 포병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

28세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포병 훈련을 받고 1포병단 52대대에서 근무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입대해서 정전될 때는 대구 육군본부로 출장을 갔었는데 중령 계급을 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백인엽 장군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들었다.

군대 생활은 금화에서 했고 휴전하고 나서 제대는 인제에서 했다. 군대 있을 때 아내와 자식이 2명이나 있었기에 의가사 제대를 시켜줘서 30개월만 근무하고 전역하게 되었다.

군에 있을 때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는데 포병대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일선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포탄 포장을 벗기고 나르는 역할을 했다. 전투는 보통 밤 11시~12시경에 벌어지는데 아침에는 전투가 없었다. 전쟁하는 날에는 보통 한 개 포대에서 100발 이

상을 쏘았다. 백마고지 전투가 제일 심했고 그곳에서 지원하다가 인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금화 오성산의 전쟁이 치열했다. 북한군은 산 중턱에 있고 아군은 아래쪽에 있어서 전쟁 상황이 매우 불리했다. 105밀리 곡사포를 사용했는데 인민군[9]들이 들어오면서 전쟁이 심해지고 아군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 밤에 전쟁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군 시신을 사발이 차에다 싣고 나가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포병은 후방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희생이 적었다.

군대 생활에서 구타와 기합도 많았고 배가 고픈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식량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부대 물자와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군인들은 항상 물자가 부족했던 것 같다.

6.25 전쟁 당시 쌀 한 말은 가격은 1원으로 기억하며, 신되로 1되는 10전이며 농장에서 종일 일을 하면 품값이 19전으로 종일 일을 해야 쌀 2되도 받지 못했다. 태안 부자들은 좁쌀을 멍석에다 풀어 놓고 신되로 1되에 3전, 고봉은 5전에 판매하기도 했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로 죽을 쒀서 먹었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9) 구술자가 인민군으로 표현을 했으나 당시 오성산 전투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중공군으로 판단됨.

이 춘 홍 (1932년생)
태안군 남면 남면로

태안의 6·25전쟁 – 남면



14대째 남면에서 살아온 토박이 집안

남면에서 14대째 사는 토박이 집안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1951년도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부인(가숙)과 결혼하여 자녀는 딸 4명에 아들 2명(6남매)을 두었다.

남면에는 당시 중학교가 없고 외지 중학교 갈 형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주경야독으로 한학을 오랫동안 배워 군대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10] 당시에는 신상 명세서나 서류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한문을 공부한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군대 생활은 백선엽 장군이 있던 제1군 사령부에서 오래 있다가 여부대로 나와서 제대했는데 약 50개월 정도 복무했다.

제대하고 근흥에서 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블록공장도 운영했으며 다양한 일을 하다가 남면에 있는 남신우체국에서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홍성으로 발령이 나서 공직을 그만두었다. 박봉을 받고 다니던 우체국의 봉급으로 6명의 식구가 먹고살기가 쉽지 않았기에 홍성까지 가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전쟁까지

일제강점기에 14세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사회생활이나 다른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서 잘 기억나는 이야기가 없고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농사만 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시절에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로 양쪽으로 나와서 입대자들을 환송하는 행사에 동원이 되기도 했다. 시강해(志願兵 지원병)라고 입대를 하는 사람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군대에 나가는데 학생들이 늘어서 환송했다.

그때 군대에 갔다 온 두 사람이 기억나는데 한 사람은 지역에 와서 살다가 죽고, 또 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구장을 했던 사람인데 6.25전쟁 때 우익으로 양대리에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양대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세워두고 총으로

10) 구술 내용 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이 있으나 14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말과 중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로 보아 초등교육은 마친 것으로 판단됨.

쐈는데 손이 묶인 채로 바다로 뛰어들어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도 마을의 일을 보는 이장직을 오랫동안 했다.

16세에 어른들과 같이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를 썰어 넣고 지은 밥이나 꼬시래기, 지충이라는 해초를 섞은 밥이나 비지밥을 주로 먹었다. 보리도 수확해서 먹기까지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으며 일제강점기 말엽과 해방 시기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에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당시에 5~6마지기[11] 농사를 지어서 13명의 식구가 먹고살았다.

전쟁이 나도 지역에서 피난 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매봉재의 호안에 숨어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본인도 의용군에 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호안에 피신해서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는 인근의'거아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피난을 한 사람도 있었고 수복이 된 후에 섬에서 나왔다.

북한군을 피해 진도로 피난 간 사람들이 3~4명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경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인민군인 줄 알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가 죽임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남면에서도 좌익으로 몰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인민군 치하에서 우익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수복되면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 우익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은 서산의 양대리에 끌려가서 살해당했다.

인민군 치하에서 마을 사람을 동원해 방공호를 파는 일을 주로 시켰으며 몽대 주변 바닷가에서 온종일 호를 파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작전하기도 하고 해상에서 인민군을 향해 함포 사격도 있었다.

함포가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으며 주로 천수만 쪽으로 포탄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가정집에도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집 대들보가 부러

11) 1마지기=약 200평

지고 커다란 독이 깨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남면은 전쟁이나 이념으로 인한 씨족 간의 갈등은 특별히 없었으며 아망산의 고잿목에서 작은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군이 거아도 쪽 해상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과수원으로 배를 따러 왔다가 인민군과 교전한 사건이 있었다. 과수원에 들어온 해군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었으며 그 사건으로 해상에서 인민군을 향해 함포 사격을 했다.

인민군의 나이는 대부분 18세 전후로 매우 어렸으며 당시에 땅콩 총이라 불리는 총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인민군이 남면에 계속 주둔한 것은 아니고 잠시 작전했던 상황이다.

인민군 주둔 당시 남면초등학교에 사람들을 불러 인민군 노래도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은 의용군으로 끌어갔는데 구술자는 숨어 있거나 피해 다녀서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았다.

수복 직후 구술자는 지서로 보초를 서러 많이 다녔는데, 좌익 쪽 활동을 했던 사람을 지서 앞 소방대 본부와 개인 집 지하 등에 잡아 가두어 두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겹겹이 있어서 보초를 가면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로 몹시 힘들었다. 그리고 갇혀있는 공간에 이(머릿니)가 들끓었고 작은 방 하나에 20~30명, 30~40명씩 가두어 사람이 겹쳐있었고, 꺼내진 사람들은 똥을 쌀 정도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을 잡아서 관리하고 매를 때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출신의 소방대 간부들로 우익 쪽의 사람들이었다.

지서에 있는 방 한 칸의 크기는 한 면이 4m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며 4개의 방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녁에 경찰이 어디로 끌고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문에는 배 타고 나가서 어찌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중에서 풀려난 사람들도 다수 있었는데 풀려난 사람들은 경찰이나 우익 쪽 인사의 인맥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주냄비 사건

피난 시절에 남면 앞바다에서 주냄비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당시'주냄비선(풍선 중에 가장 큰 배)'이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온 피난민 가족을 남면 지서에서 간첩으로 의심해서 조사한 사건이 있었다. 구술자는 당시 내용에 대해서 의경으로 참여해 사건과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남면지』에 기록된 당시 사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 당시 개성에서 피난 온 10여 명의 가족이 그 배에 타 있었는데 그 집의 사위가 휴대한 카빈총으로 피난민과 주민을 위협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배가 머물던 섬 주민들이 남면 경찰지서에 신고해서 남면 지서에서 나온 공비토벌대에 의해 의심자들을 붙잡아 태안경찰서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한 결과 1명의 탈영병을 제외하고 모두 협의 없이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남면 지서의 경찰관들이 피난민을 배로 돌려보내지 않고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다. 이후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미제가 될 수 있었으나 탈영으로 헌병대에 끌려갔던 사위가 실형을 살고 가족들을 찾다가 남면 경찰을 의심하여 잠복 끝에 단서를 찾아 경찰의 독직 사건을 파헤쳐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참살에 합류한 지점장과 사건을 추도한 경찰은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12]

6.25 전쟁 이후의 삶

휴전이 되던 해 9월에 징집되어 해병대에 갔었지만 1차에서 견디지 못해 탈락하고 다시 육군으로 원주에 있는 부대에 입대해서 오래 근무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배고픔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주는 고깃국은 고기를 구경할 수 없어서 '돼지가 장화 신고 담박질(달리기)로 뜨뜻한 물로 지나갔다'라는 표현과 '굼벵이가 먹어서 구멍이 뚫린 고구마의 구멍에 흙이 꼭 차 있어도 먹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엉덩이를 몽둥이로 많이 맞아서 굳은살이 박여질 정도로 구타가 심했다고 한다.

제대 후에는 경북 칠곡 왜관의 미8군 극동 기지 보급창을 창설하는 곳에서 남면 사람 26명을 데리고 건설 현장의 하도급 일을 했다. 감독 일을 보면서 기계도 다루고 도로포장용 채석 작업을 하며 산을 무너트리고 돌을 깨서 도로의 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흥에서 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몽대(남면 몽산리)에서 벽돌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

12) 구술자의 증언을 근거로 정확한 사실관계 내용은 『남면지, 2006, 남면지편찬위원회』의 '경찰관 독직 사건' 내용을 일부 발취하여 요약하였음.

6·25전쟁 이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남의 집 일을 가면 '고지'[13]라는 것이 있는데 미리 벼 한 말을 받고 첫닭이 울면 논에 나가서 한 마지기(200평)의 모를 다 심어 줘야 하는 데 매우 힘이 들었다. 장화가 없으니, 다리에는 피를 빠는 거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극성스러운 각다귀에게 물려 힘이 들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고 나서는 삶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13) 논 한 마지기에 값을 정하여 모내기부터 마지막 김매기까지의 일을 해 주기로 하고 미리 받아 쓰는 삯. 또는 그 일. 가난한 농민이 농번기에 이르기 전에 식량을 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최 재 학 (1941년생)
태안군 남면 달산리

태안의 6·25전쟁 – 남면



이념관계가 강했던 남면지역

최재학 씨는 1941년 남면 달산리에서 오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학교는 남면초등학교, 홍성중학교, 서산 농림고등학교,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재학 씨는 10살 정도였고 어렸지만, 당시 분위기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해방 후 남면은 태안에서 유독 이념관계가 강한 지역이었다. 사상에 깊게 관여한 식자층과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던 이유였다. 남면의 임○○ 독립운동가는 안면도 이종헌, 창기리 오몽근과 대한독립단 서산지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독립운동가 여운형 창단)에 참여하였다. 좌익세력으로 커지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임○○는 조선인민당,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으로 순차 활동을 넓혀갔으며 1948년에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을 전향한다는 목적을 지닌 국민보도연맹에 그를 가입시켰지만, 탈퇴 후 피신하였다. 그렇게 피신한 남면 사람에는 양잠리 가○○, 달산리 이△△가 있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가○○, 임○○는 남면으로 돌아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남면위원장은 임○○가 맡았다. 남로당 모집책으로 달산리 이□□ 씨가 있었다. 당원 늘리기에 열심이었던 그는 집안 조카에게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잘 살 때가 되었다'라며 도장을 찍게 해 입당을 시켰다.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조카는 경찰이 후퇴할 때 사살되었고 남면위원장 임○○의 아들도 보도연맹으로 걸려 죽게 되었다.

보도연맹 예비검속령

개전하고 인민군이 들어오기 직전, 7월 3~4일경에 보도연맹(남로당)을 잡으라는 예비검속령이 내려왔다. 이들은 시급하게 수원 이남 지역만 색출하여 전부 붙잡아 들였다. 남면에 삼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2명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막냇동생이 옷을 가지고 면회하러 갔는데 '형제가 여기 있는데, 너는? 너만 아니냐?'하면서 막내도 끌고 간 후 삼 형제가 몰살된 일이 있다. 보도연맹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으나 그 수가 적어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터였다. 그렇게 11일까지 보도연맹을 잡아서 죽이고 남면 경찰관, 가족들은 7월 12일 철수하여 드르니로 후퇴하여 군산으로 넘어갔다. 예비검속으로 사망한 남면 사람은 10여 명이고 이외 마을 사람들 일부는 몽산포에서 거아도로 피난을 갔다.

인민군점령기 좌익활동

6·25전쟁 당시 마을 기관과 학교는 좌익활동의 분서로 자리 잡았는데 남면초등학교는 인민학교로 교장관사는 여성동맹위원회, 면사무소는 인민위원회, 면사무소 회의실은 농지위원회로 쓰였다. 인민위원회는 집마다 거출을 위해 농산물 수확량 조사를 진행하였고 농지위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줘야 한다며 농지를 재분배했다. 인민학교에서는 주로 인민군가를 가르쳤고 구술자에게 인민군 장병 위문공연대에 서서 빨치산가를 부르게 한 적도 있었다. 서산여자중학교에서는 걸어서 남면까지와 위문 공연으로 연극[14]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남면 상륙작전과 참호

8월 24일, 남면 달산포에 아군이 상륙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군들은 거아도에 있는 청년 11명을 징집하여 정찰을 위해 1차 상륙자로 남면에 보냈다. 하지만 인민군 부대의 총에 1명 사망, 1명은 부상 당했다. 상륙하던 해군상사 1명도 인민군에 의해 공동묘지에 끌려가 사살되었다. 남은 9명은 덴마[15]를 타고 다시 거아도로 피신했다. 이렇게 남면 상륙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좌익사상을 가진 거아도 주민이 정보를 넘겨줘서 그렇다고 전했다. 이 일로 정보를 넘긴 사람의 일가족이 거아도에서 몰살당했고 구술자는 이 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민군이 교전하고 나니 남면이 위험지구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면민들과 피신호(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바닷가 제방에서 100m쯤 뒤에 1차 참호를 파고 또 500m 뒤에 2차로 구축하였다. 남면 사람들로는 부족하여 해미, 고북에서도 와서 부역하였다. 이외에 인민군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잠복하고를 반복하였고 어린 학생들은 인민군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집마다 동냥하러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인민기를 그리고 인민군가를 배웠다. 여성동맹원도 인민군가를 배우고 밥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면민 대상으로 의용군을 모

14) 인민군이 들어오자, 국군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내용으로 꾸민 연극.
15)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작은 무동력 배

집하여 학교에서 출정식도 거행했다.

개전 소식과 피난길

구술자는 남면에서 6·25전쟁 개전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아마도 조○○ 씨일 거라고 했다.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다 전쟁이 터져 고향에 전보를 쳤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큰돈을 주고 사람을 보냈다. 최재학 씨는 하굣길에 친구들과 해수욕장 모래벌판에 못샘(포강)이라는 곳에서 신나게 놀고 가다가 친구인 지서장 아들이 '야, 나는 드르니로 놀러 가.'하면서 버스가 오더니 총과 수류탄을 멘 경찰관들이 같이 서 있었다. 그렇게 친구네는 피난을 갔다. 구술자 가족은 서산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서 소식을 듣고 오셔서 피난 갈 준비하라고 하셨다. 군인이셨던 작은아버지에게는 소식이 없었다. 어둑해진 밤에 몽대포구에 가서 작은 보트를 타고 거아도로 향했다. 거아도에도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 구술자 가족들은 이곳도 위험하다 느껴 삼도(삼섬)로 다시 피난을 갔다. 최재학 씨의 아버지는 집에 증조부 내외만 계시니 돌아가자, 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본인은 여기 남으면 위험하다면서 돌아갈 수 없다, 아래로 더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하셨다. 결국 나머지 가족은 다시 남면 집으로 돌아갔고 할아버지와 구술자 형만 남았다. 당시 12살이었던 형은 배에 올라타다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를 보필하기 위해서 함께하였다. 두 사람은 완도, 거제로 해서 제주도까지 피난 갔으며 3개월 동안 거지처럼 떠돌다 돌아왔다고 전했다. 다른 면장, 이장 가족들도 아래로 피난을 가다 진도에서 인민군을 만났는데 '당신들 왜 여기 다니느냐?' 하니 그들은 살기 위해 '경찰관을 피해 피난 왔다'라고 하였다.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라고 하여 만세를 부르다 이 남성 3명은 사살되었고 여성 한 명은 그나마 죽임은 면했다. 이들은 나주 경찰관으로 인민군인 척 가장하여 빨갱이를 소탕하고 다니는 나주부대였다.

서산 양대리 학살

구술자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후 부역을 하게 되었다. 죽지 않기 위해 농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농산물 조사를 하러 다니셨다. 농지위원장은 구술자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수복 직후, 자위대(좌익)가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지서까지 갈 일이

있다고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구술자 아버지도 끌려갔다. 옆집 ○○이네는 대청마루를 뚫어서 댁네 할아버지를 숨기고 뚜껑을 닫아 책상으로 가렸는데, 자위대가 쳐들어와서 바로 그 할아버지를 꺼내 끌고 갔다. 그 집 외가댁이 좌익 사람들이었고 아마 정보가 그 집에서 샌 거 같다고 하였다. 9월 25일 추석, 그렇게 태안 사람 대부분이 끌려가 서산 누에고치 사무실에 있다가 이튿날, 양대리로 데려가 다 참살당했다. 청년들이 요주인물이었다.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 중 8명이 서산 양대리로 끌려갔고 사람들을 새끼줄로 손을 묶어 총으로 사살하였는데 그때 무더기로 갯벌에 떨어지면서 그중 2명은 총에 안 맞은 상태로 그냥 떨어져 살아 돌아왔다. 이때 서산 양대리 학살 사건에서 구술자의 아버지, 당숙,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의 삼촌과 작은아버지는 저녁에 밥만 드시고 가장골에 가 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식으로 피해 다녀서 끌려가는 건 면했다. 구술자 할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갯벌에 물이 찰 동안 온종일 다녔으며, 당시 17살이었던 ○○이네 누나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녔다. 아버지를 찾아 마차에 모셔 왔으며 ○○이네 누나는 그때 트라우마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살아갔다. 이때 학살당한 남면 사람은 7~8명이었다. 구술자는 그래도 다른 면에 비해 큰 피해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난섬, 거아도

개전 때 피해가 커서 1·4 후퇴 때는 남면 사람들이 거아도로 피난을 많이 갔다. 주냄비(풍선 중에 가장 큰 배)에 약 500명 정도 실어 거아도로 향했다. 거아도에 대략 67가구가 들어왔고 형편이 좋지 않아 방 하나에 한 가구가 들어갔으며 앞바다에 배가 200여 척이 떠 있었는데 거기서도 살림을 꾸렸다. 그때 그곳에서 경찰관 독직 사건[16]이라 불리는 일이 벌어졌다. 남면에서 거아도로 피난 가는 배에 개성에서 내려온 10여 명의 가족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의 난폭한 행동에 주민들은 남면 경찰지서에 신고하였고 일가족 모두 경찰서로 붙잡혀 갔으나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들을 배로 돌려보내지 않고 살해 후 재물을 빼앗아 나눠 가졌다.

16) 남면지, 2006, 남면지편찬위원회, '경찰관 독직사건'

거아도에는 '종백이골'이라는 곳이 있다. 인천에서 사상 활동을 하던 종백이라는 사람이 남면으로 들어와 경찰에 쫓기자 거아도 골짜기로 피신했다. 경찰은 찾기 어려워지자, 종백이 친구를 고문하였고 '종백아 너 때문에 나 죽겠다.' 하면서 있는 곳을 알려줬다. 남면에서 자위대장도 하였던 종백은 잡혔고 그 후 섬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종백이골이라고 불렀다는 전래가 있다.

6 · 25전쟁에 대한 구술자의 생각

구술자는 6·25전쟁에 대해 태안군 전체로 보면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이념으로 인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이 몇 배가 된다며 큰 문제라고 했다. 평화라는 건 좌나 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고루 사람을 등용시키고 봐줄 때 이것이 평화라고 덧붙였으며 이산가족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 등 책임은 민초들이 진다며 서글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윤 주 욱 (1933년생)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태안의 6·25전쟁 – 안면읍



구술자 유년 시절과 가족생활

윤주욱 씨는 1933년생으로 고남면 장곡리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아버지 성함은 윤종원, 어머니는 신 씨이다. 고남에서 26살에 안면읍으로 제금(분가)을 났고 아내의 성함은 김영인이며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현재는 안면읍 승언리에서 큰아들 윤○○ 씨와 거주 중이다. 구술자는 고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으며 홍성 광천중학교와 광천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에 중앙대학교 법과에 입학, 59년에 졸업하였다. 81년도에는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에 위촉되었고 89년에는 안면농업협동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해방 당시 구술자는 13살이었고 18살에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 전 구술자의 집안 사정은 어려웠다. 전쟁이 일어난 그해에도 몹시 가물어 농사가 잘 안되고 보리죽 얻어먹기도 힘들었다. 논 몇 마지기로 생업을 이어가다 전쟁이 끝난 후 1951년도부터 여러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넉넉한 삶을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농장을 운영하여 논 100마지기에서 벼 400여 가마의 수입을 벌었고 구술자 아버지가 직접 어깨짐으로 1년간 제방을 막아 만든 염전에서 큰형 윤△△ 씨가 소금 생산과 판매를 맡고 당시 16살이었던 윤주욱 씨는 인부를 관리했다. 또한, 화물선으로 승언리 독개에서 군산으로 소금을 실어 날랐고 여름에는 광천토굴 새우젓을 사러 다녔다. 이외에도 방앗간, 4.5t 화물차 운수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재밌게 일했다고 회상하였다.

구술자는 어렸을 때 바다에서 해루질하며 지냈는데, 소라와 꽃게가 많이 있어 잡으려고 자세히 보니 주변에 송장이 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옷점항 맞은편 섬옷섬 바깥쪽에서는 김 살을 맸으며 일본인들이 두툼하게 만들라고 시킨 재래식 김을 사람들은 수매하여 김밥용으로 썼다.

구술자는 6·25전쟁 전에 서울 성동공업학교 토목과를 다녔고 대학생 형들과 학우사[17]에서 지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전쟁이 터진 후에는 홍성 광천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천 군두리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던 중 마침 광천상업고등학교가 설

17) 안면도에서 모은 모금액으로 서울에 건물을 사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

립되어 그곳으로 옮겼다.

개전 소식과 피난길

어느 날 삼 형제는 학우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대학생이던 둘째 형님이 '야! 동대문이 빨갛다. 가자!' 하시면서 짐을 싸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들은 신당동 너머 강으로 도강하였다. 학우사에서 같이 지내던 안면도 사람, 대학생 김○○, 김△△도 함께 도강하였고 구술자 일행이 도강 후 새벽 4시에 인도교가 격파되었다. 3일 동안 서울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행 상황이 어떤지, 북한군이 얼마큼 내려왔는지 등을 물어보며 물 한 모금이라도 챙겨주었다. 삼 형제는 보령 오천항구를 통해 고향에 도착했다. 함께 피난 왔던 김○○, 김△△는 구술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이슬로 다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전부터 좌익사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두 사람은 고향으로 들어오자마자 숙청을 당했다고 한다.

6·25전쟁이 터지고 구술자의 맏형이 큰 목선을 구해와 셋째 형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부석 갯고랑에 하루 정박하였는데 그날 누군가 배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삼강망 어선이 바다에 몇 채 있어서 배를 몰 줄 아는 사람과 당시 도의원인 부석 이○○ 씨하고 정처 없이 남하하여 청산도까지 피난을 갔다. 그들은 수복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남 집에는 윤주욱 씨와 어머니, 둘째 형이 남았는데 어느 밤에는 구술자 집에 안면도 좌익총책 이△△가 찾아와 둘째 형을 데리고 나갔다. 바람아래로 끌고 간 이△△는 일본도로 형의 머리를 딱딱 때리더니 '여기서 해결할까.' 하면서 위협을 가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혼비백산했다고 전했다.

북에서 안면도 지역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다. 100여 명 정도였으며 먹고 살기 편하고 자기 노력만큼 소득이 생겨서 정착하기에 여건이 좋았다고 했다. 정착촌은 간척지가 제일 좋은 정당리 3구, 독개이며 금전적 여유가 있는 피난민들은 독개뜰(들)을 구매했고 이들은 서로 도와주며 피난민들끼리 잘 뭉쳤다고 한다.

마을 사람 간의 갈등

구술자 사촌 중 윤□□ 씨는 장고도에서 염전을 개간했고 고대도에서는 낚싯배 탈 사

람을 고용해서 선용(선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은 받고 배를 안 타자 윤□□ 씨가 돈을 갚으라며 두드려 팼다. 좌익세력이 조금씩 커지는 때에 윤□□ 씨는 구술자와 둘째 형님, 또 다른 사촌에게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죽는다, 피난 가자고 하였다. 사촌은 덴마 뒤에 장작을 싣고 그 속에 일본도를 숨겨 장고도로 피난을 갔다. 장고도에서 일한 적 있던 사촌[18]은 장고도에 가면 사람들이 반겨줄 거로 생각했으나 아침에 들어가니 구술자 일행을 빨갱이들이라고 하면서 외면했고 옆에 있는 섬, 고대도로 보냈다. 그곳으로 가니 전에 구술자 사촌에게 얻어맞았던 사람들이 잘 만났다 하면서 구술자 일행을 구타했다. 윤주욱 씨는 그때 참 많이 맞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문득 덴마에 숨겨두었던 일본도가 생각나서 몰래 가서 칼을 던져버렸고 그 후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구술자 일행 것인지는 모르고 넘어갔다. 고대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사촌 윤□□ 씨와 둘째 형을 원산도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발에 돌을 묶어 바다에 던지려고 수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면장 하던 강태유 씨가 나타나서 '좌익이 싫어서 지금 형제들이 피난 온 건데, 무슨 소리냐.'라는 한마디에 풀려나 살았다고 한다.

이 사건 외에 고남지역은 이념 갈등이 크게 없고 창기리 ○ 씨, 승언리 ○ 씨 간의 생활적 갈등만 있었다. 고남에 주둔한 인민군들은 대체로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장곡리 뒷산에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사격 진지를 팠다. 장고도에 함포사격 할 때 그것을 이용했고 고대도 쪽에서도 함선이 떠 진지에서 사격하여 함선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후 구술자의 삶

정계 진출이 꿈이었던 윤주욱 씨는 도의원 선거 운동할 때 사무실에 사람을 고용하면 다른 후보자 쪽에서 전부 조사하여 그 사람을 잡아갔다. 결국 도의원은 이루지 못하고 후에 농협조합장 직선제를 한다고 하여 출마하였고 당선되었다. 8년 임기 중 내부에 고발 대상이 많았다고 구술했다.

18) 노를 저어 움직이는 작은 무동력 배

안면시장 화물차 전복 사건

유일하게 서산에서 안면시장으로 화물 운수업을 하는 성○○씨가 있었다. 시장에 팔 상품을 운반하다가 재산 피해를 겪은 사건이 안면면의회 의사록[19]에 기록되어 있다. 백사장 나루에서 화물차를 배에 싣고 가던 중 배가 기울어 차가 바다에 빠졌던 일과 창기리 쑥대밭으로 올라가다 차가 전복된 일이 있었다. 상품을 실은 운반차가 와야 시장 개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했던 사건이었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19) 1952년~1961년까지 안면읍의 역사가 담긴 지방자치 기록물.

태안군
태안의 6·25 전쟁

조 흥 호 (1939년생)
태안군 태안읍 삼한길

태안의 6·25전쟁 – 원북면



소원면 파도리에서 태어나 삭선1리 노인회장까지

조흥호 씨는 1939년생으로 소원면 파도리에서 아버지 조재춘과 어머니 신 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6살에 되던 해에 원북면 양산리로 이사를 했다. 아내의 성함은 최인순이고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구술자는 원북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6·25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5학년까지 다녔지만, 사정상 중퇴 후 한학을 공부했다. 당시 구술자 집 건너편에 서당이 있었고 조흥호 씨의 일가이신 선생님께 한학을 배웠다. 1959년에 우체국 집배원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다 홍성 갈산우체국으로 발령이 나서 그만두고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었다. 삭선 미군 부대 정문에서 내려오면 건너편에 구술자의 집이 있고 인근에 포강과 12마지기 논이 있다. 현재는 삭선1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 생활

18살에 태안읍으로 넘어와서 지내다 우체국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여 갔는데 우체국장이 한자로 충청남도 태안우체국을 써보라고 하여 작성 후 합격통지를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집배원 봉급은 3만 7천 원으로 쌀 한 가마에 3천 원할 때였다. 1968년 4월 1일 자전거가 보급되기 전에는 태안읍, 원북, 근흥, 안면을 이틀 사흘 걸려서 걸어 다녔고 근무하던 집배원은 6명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별정국이 생겼는데 집주인이 우체국을 지어서 우표를 파는 사설우체국 개념이었다. 원북에는 경찰이었던 가○○ 씨가 별정국을 지어 우체국장이 되었다. 구술자가 담당했던 구역 1구는 송암·남산이고 2구로는 평천·상옥, 3구는 인평·도내를 맡았다. 구술자는 업무 중 제일 어려운 부분 2가지가 있는데 전사통지(월남전)와 불법벌목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사통지를 들고 가면 바로 건네주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다 그제야 전달하고 나왔다. 법원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땐 그냥 집 앞에 던지고 나왔다. 당시 배달지에서 10m 거리 내로 우편물을 던지고 오면 배달 완료라는 우편법이 있어 직무태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쟁 전 지역 내 좌익활동에 대한 기억

8·15 해방 당시 구술자는 8살이었고 6·25 전쟁 발발 때는 13살이었다. 6·25전쟁이 일

어나기 전 원북에는 북한하고 연결된 지하운동이 있었고 인근 마을인 삭선 3구에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도연맹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은 솔방울 두 가마(90원)를 지고 시장으로 팔러 가는데 현재 해송마을이 있는 언덕길에 사람이 죽어있었다. 지하운동 하는 사람이 경찰관을 피해서 안방의 농 아래 방구들에서 숨어 살았다가 결국 붙잡혀 경찰관의 칼에 사망한 것이다. 그 이후 구술자는 솔방울을 팔러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인민군과 좌익세력의 활동

6·25 개전 소식은 인민군들이 돌아다닌 것을 보고 알았으며 어른들은 인민군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며 저녁에는 비행기가 포를 많이 쏘니 저 삼밭이나 솔밭에 가서 숨어있으라고 했다.

인민군이 점령하자 지하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구타를 일삼았다. 구술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동네에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좌익 책임자들이 노래(인민군가)를 부르러 나오라고 하여 사랑방처럼 된 집에 가서 노래를 배웠으며 안 부르면 구타당해 어쩔 수 없이 부를 수밖에 없었다. 보도연맹 사무실을 지날 때면 삼엄한 경계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그 위치도 기억하고 있다. 현재 원북 정안주유소 아래로 내려간 뒤 우측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고물상이 사무실 자리였다.

원북면 양산리에는 보도연맹 가입자가 두 집이 있었는데 조○○ 씨라고 좌익활동을 하다 온 가족이 피해를 보았다. 가입자가 많은 삭선 3구에는 주로 박 씨들이었다. 인민군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없었다. 총을 메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키가 작았고 18~19세로 보이는 애들 같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총으로 감나무 가지를 잡아당겨 감 따 먹는 모습도 봤다.

마을 좌익세력들은 양산리 풍천산에 복구대(참호)를 파라고 시켰다. 풍천산 중간 지대 둘레를 한 바퀴 돌려서 파고 군인이 앞으로 나와서 총을 쏠 수 있는 공간을 군데군데 만들었다. 현재 삭선 농공단지 주변에도 복구대가 있으며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다.

1 · 4후퇴 시기 경찰들의 학살

1·4후퇴하면서 경찰들이 좌익세력을 끌고 가 원북국민학교 길목에 있는 구정불 등성이 아래에서 많이 사살하였고 경찰들이 시체를 못 찾아가게 하려고 얼굴에다 불을 놓아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였다. 삭선 1구 사람들이 좌익활동으로 많이 죽었다. 좌익이 들어왔을 때도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살이 일어났다.

전쟁 발발 후 생활상

개전 이후 사람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벼농사를 지어도 비료가 없어 대신 잔대미(잔디) 파거나 갈나무잎(떡갈나무)을 말려 논에 거름으로 주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 벼 소출이 잘 나지 않았다. 더구나 비가 오지 않아 가물면 벼를 못 심고 대신 메밀을 갈았다. 전쟁 중에는 보리도 많이 없어서 수수죽이나 술을 짜내고 남은 지검지(지게미)로 끼니를 때웠고 휴전 후에도 부자들만 보리를 갈아서 쌀과 섞어 먹었다. 옷은 속옷도 없이 베등걸이 잠뱅이를 입고 겨울에는 버선을 신고 솜바지를 입었다.

간첩사건

1970년도쯤에 원북에 간첩 사건이 있었다. 고 씨라는 사람이 방갈리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오갔었는데 어느 날 이○○ 씨가 고 씨네 부모에게 가서 고 씨가 오가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했다. 그 일을 들은 고 씨네 아들이 앙심을 품고 방첩대로 위장하여 이○○ 씨를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귀를 잘라갔다. 이 사건이 있고 우체국장은 집배원들에게 간첩들에게 우편 가방 하나 빼앗기면 한국 정보 다 알게 된다고 절대 5시 이후 배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인터뷰어_ 고종남, 오이수>

구술자 목록

천안시동남구

이규필 12
이성구 16
신문호 20
김남응 24
유헌종 29
양재필 33
김태현 38
류승호 43

천안시서북구

김무호 48
남태희 56
백남일 62
안창옥 68
이명환 74
이종각 80
임무정 88
윤혁민 94
조유정 102

공주시

전정배 112
윤을용 117
오경례 121
송옥순 126
유창순 132
김안순 137
손애자 141
김창순 146

보령시

신성근 152
이상환 165
황광현 184
최경환 198
최연양 220
유영오 234
라인균 258
김순규 276
한점예 294
황춘연 307
김현성 324

아산시

김윤직 338
하상근 344
박응진 349
오원근 354
박석주 359
진풍호 364
문주일 368
김인근 372

서산시

유승웅 378
유승기 384
김영배 391
김증하 400
서경석 407
김동벽 412
김기흥 416
허영일 421

논산시

권선옥 428
김광제 433
김무길 437
김용제 443
박상구 448
이근양 453
이창구 458
홍의선 463

계룡시

이덕재 470
송인석 476
강호성 481
안교도 486
김정수 491
강진학 496
김성중 502
강병용 507

당진시

이종선 514
이상훈 519
박미연 523
김용세 529
김동헌 533
유근성 540

방우진 546
김금순 551

금산군

육상희 558
임동진 565
황선대 570
김광수 576
김태동 582
나희교 587
심연보 593
이판임 598

부여군

류익열 606
정종진 613
안기춘 618
이붕철 624
조남민 630
이계식 637
조남중 644
이길배 650
조성연 656

서천군

김형석 666
나정숙 666
차주민 671
신동자 671
구재강 676
송순복 681
이영애 681
허종석 686
조수헌 691
주진옥 696
임성순 701
김자희 706
조관연 706
조영운 711

청양군

안연길 718
김학범 722
박홍규 722
김순복 722
방면석 728
김진섭 732
민재관 732
김석희 737
김영석 742
곽덕근 746
표정수 751
박윤순 755

홍성군

이종광 760
정상준 768
김영팔 774
맹영일 781
김영모 790
이완순 796
한규성 802
조성환 809

예산군

우제풍 816
박은신 822
이창주 828
조세제 836
최영석 843
곽노우 851
이한용 857
이한용 866

태안군

이재필 874
한원석 879
지동기 884
박종엽 889
문응진 895
조한종 900
이춘홍 905
최재학 911
윤주욱 917
조흥호 922

2023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5

발 행 일 | 2023년 12월 29일

발 행 인 | 이종석

기 획 | 이정우

편 찬 위 원 | 김윤식, 이일주, 신재완, 정종호, 백종신
권선옥, 김윤숙, 장 호, 정찬국, 최명규
임호빈, 유환동, 김종옥, 고종남, 임영우

감 수 | 홍제연, 김용순, 금교순

행 정 지 원 | 주혜원, 류림

발 행 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041-635-9102~3

편 집 인 쇄 | 도서출판 한국문화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개목4길 50
041-573-5977

I S B N 978-89-6531-167-6

|비매품|

2023ⓒ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